

2023년도 문화재위원회

## 제10차 건축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록

- ▣ 회의일시 : 2023. 10. 19.(목), 14:00 ~ 19:30
-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 출석위원 : 전봉희, 곽동엽, 손태진, 송은석, 안선호,  
이향미, 정광용, 정정남, 최지용(탄원)  
(이상 9명)
-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문 화 재 위 원 회

# 목 차

## 【심의사항】

1	합천 해인사 홍하문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공개
2	함양 용추사 일주문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공개
3	곡성 태안사 일주문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공개
4	하동 쌍계사 일주문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공개
5	달성 용연사 자운문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공개
6	순천 송광사 일주문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공개
7	보성 벌교 흥교 주변 벌교천 재해예방사업	공개
8	서울 흥인지문 주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 건설공사	공개
9	대구 동화사 대웅전 주변 사명대사 교육관 및 체험관 건립	공개
10	강릉 보현사 낭원대사탑비 주변 요사채 신축공사	공개
11	양평 용문사 정지국사탑 및 비 주변 미소전(나한전) 개축 및 배수로 설치(재심의)	공개
12	순천 동화사 삼층석탑 주변 극락전 신축	공개
13	영주 영주동 석조여래입상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개
14	김천 직지사 대웅전 주변 만세루, 황악루 보수 및 주변정비	공개
15	안동 이천동 마애여래입상 주변 연미사 불량시설 개선(관리사 건립)	공개
16	경주 마동 삼층석탑 주변 단독주택 신축	공개

## 【검토사항】

17	밀양 영남루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검토	공개
18	삼척 죽서루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검토	공개
19	남원 광한루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검토	공개
20	울주 천전리 각석 지정명칭 변경 검토	공개

21	안동 임청각 주차장 설계변경 기본계획(안) 재검토	공개
<b>【보고사항】</b>		
22	<p>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처리결과 보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성 고산사 대응전 주변 진입로 및 경내 수목 정비</li> <li>- 경산 불굴사 삼층석탑 주변 미륵전 진입로(계단) 및 안전난간 설치(변경허가)</li> <li>- 영광 불갑사 대응전 주변 무장애 황토길 포장, 데크 설치 등</li> <li>- 공주 반죽동 당간지주 주변 호우피해 사면복구 사업</li> <li>- 포항 보경사 적광전 주변 숲길조성</li> <li>- 군위 아미타여래삼존 석굴 주변 목책 정비 공사(변경허가)</li> <li>- 익산 연동리 석조여래좌상 주변 공동주택(연립주택) 신축공사 부지조성(허가기간 만료 재신청)</li> <li>- 영동 반야사 삼층석탑 주변 템플스테이 신축</li> <li>- 양산 통도사 대응전 및 금강계단 주변 무풍한송로 석축 및 진입로 정비</li> <li>- 예천 청룡사 석조여래좌상 주변 비닐하우스 농막 설치</li> <li>- 논산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 주변 단독주택 건립</li> <li>- 철원 도피안사 삼층석탑 주변 단독주택 신축(변경허가)</li> <li>- 봉화 북지리 마애여래좌상 주변 단독주택 증축(다용도실)</li> <li>- 창녕 관룡사 대응전 주변 일주문 주변 부지 정비</li> <li>- 서산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 주변 원평지구 간선임도 신설</li> <li>- 제주향교 대성전 주변 조명설치사업</li> <li>- 봉화 북지리 마애여래좌상 주변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li> <li>- 예천 용문사 대장전과 운장대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 기반조성(변경허가)</li> <li>- 여주 신흥사 조사당 주변 냉동창고 설치</li> <li>- 청주 용화사 석조불상군 주변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1기 신설</li> <li>- 의성 탑리리 오층석탑 주변 탑리여자중학교 교사동 증개축</li> <li>- 강진 백련사 사적비 주변 백련사 삼소굴 건립</li> <li>- 예천 개심사지 삼층석탑 주변 근린생활시설(사무실/차고) 증축</li> </ul>	공개

## 【심의사항】

안건번호 건축 2023-10-001

### 1. 합천 해인사 홍하문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 가. 제안사항

경남 합천군 소재 「합천 해인사 홍하문」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경남 합천군 소재 「합천 해인사 홍하문」을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항은 2023년 건축문화재분과 제8차 회의(2023.08.17.)에서 원안가결된 사항으로, 예고기간('23.08.28~'23.09.27) 동안 별도의견 없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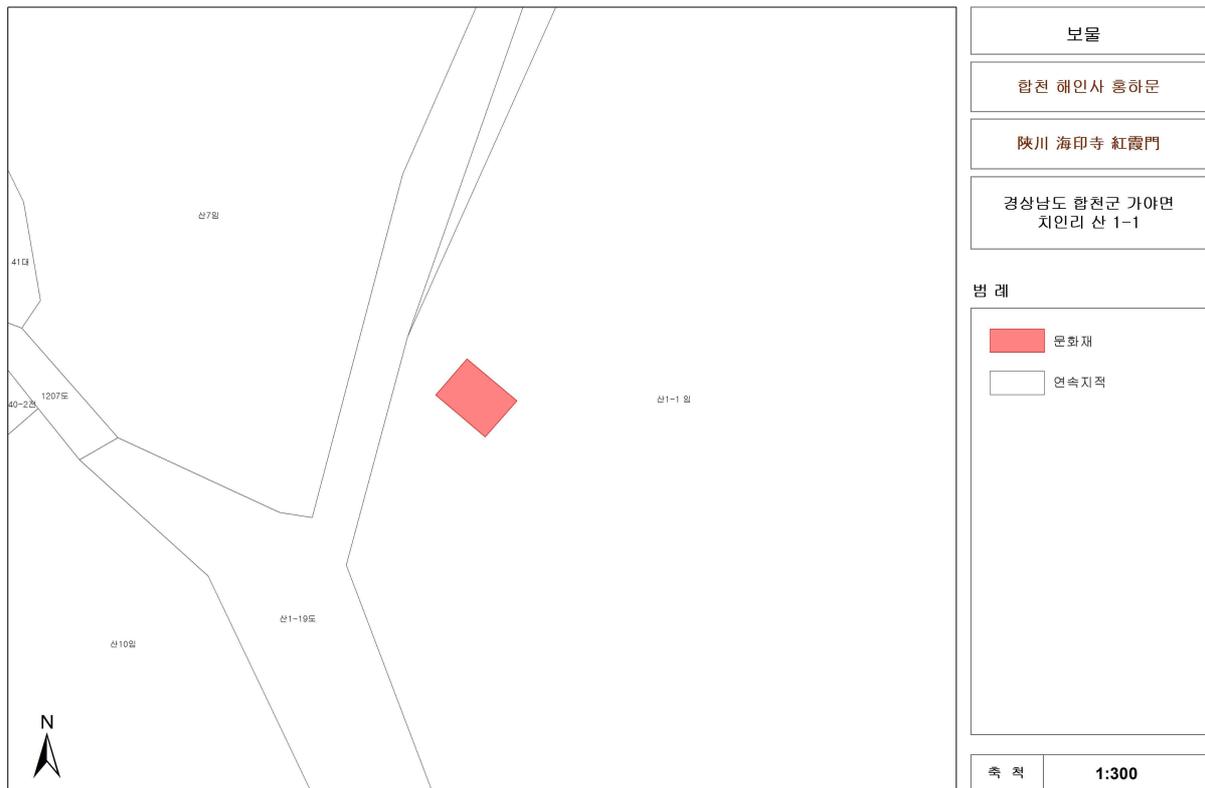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경상남도지사
- (2) 대상문화재 : 비지정 「합천 해인사 홍하문」
  - 소재지 :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길 122
- (3) 신청내용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 명 칭 : 합천 해인사 홍하문(陝川 海印寺 紅霞門)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 소재지 :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길 122
  - 조성연대 : 조선시대 / 16세기
  - 수 량 : 1동
  - 지정면적 : 19.32m<sup>2</sup>
  - 구조/형식/형태 : 단층 목구조 / 다포 / 3량가 / 맞배지붕 / 겹처마

라. 현지조사 의견(2022.06.03. /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 문화재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 문화재전문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 문화재전문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마. 지형도면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원안가결 8명

##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22.06.30	대상문화재	합천 해인사 일주문	
조사자	성 명	○○○	전공 분야	건축
	소 속	○○○○○○○학교	직위(직책)	부교수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문화재 명칭	합천 해인사 일주문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세부내용 별첨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08월 30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 1.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합천 해인사(海印寺)는 가야산(伽倻山)에 있다. 가야산은 경상남도 합천군과 경상북도 성주군에 걸쳐 있는 산으로서, 『택리지(擇里志)』에 따르면 경상도에서 유일한 돌산이므로 화강암의 빼죽한 봉우리와 맑은 물이 절경을 이루는 곳이다. 특히, 가장 높은 봉우리인 상왕봉(象王峯, 1,433m)이 소의 머리처럼 생겨서 우두산(牛頭山)이라고도 하였으며, 고대부터 성산(聖山) 신앙의 대상이 되어왔다. 가야산의 명칭은 고대 가야연맹과의 관련설, 인도의 부다가야 등 범어(梵語) 기원설 등 다양하지만 불교의 수입 이후 불교 성지로서 확고한 이미지를 굳히게 되었다.

가야산의 중심에는 해인사가 자리잡았다. 특히 해인사는 창건과 그 뒤 여러 차례 중창이 모두 국가의 각별한 지원에 힘입었다. 신라 애장왕의 보은 창건, 고려 태조의 귀의(歸依), 조선 태조의 발원(發願), 그리고 세종·세조·성종의 중창 지원은 특별한 인연이었다. 지금도 해인사는 고려팔만대장경관을 6백 년 가까이 고이 보전함으로써 법보종찰(法寶宗刹)의 명성을 누리고 있다. 동시에 해인사는 국가 위기 때 분연히 일어난 호국사찰을 대표한다. 신라 말에 비롯한 해인사 승군(僧軍)의 전통은 고려 건국, 임진왜란 때에 항전으로 이어졌다. 또, 근대에는 독립 만세운동과 항일 운동의 한 근거지가 되었다.

해인사는 애장왕 3년(802)에 승려 순응(順應)과 이정(利貞)이 왕실의 지원을 받아 창건하였다. 해인사의 창건 시기는 최치원(崔致遠, 857~908)이 쓴 여러 기록으로 증명된다. 『동문선(東文選)』에 실린 「신라가야산해인사선안주원벽기(新羅伽倻山海印寺善安住院壁記)」, 『고운집(孤雲集)』에 실린 「이정화상찬(利貞和尚贊)」과 「신라가야산해인사결계장기(新羅伽倻山海印寺結界場記)」에 9세기 초 창건 당시의 상황과 9세기 말 첫 번째 중창에 관한 내용이 수록되었다. 최치원의 은거 이후 가야산은 역대 문인들에게 유람과 풍류의 이상향으로 그려지게 되었다. 조선 시대 많은 사대부들이 최치원을 핑계 삼아 가야산과 홍류동(紅流洞)을 유람하고 해인사를 방문하였다.

해인사에서는 13세기 중엽에 이미 고려대장경의 일부를 직접 판각한 전통이 있었다. 조선 태조는 1398년 강화도에 있던 <고려팔만대장경관>을 해인사로 옮겨 봉안했고, 이를 바탕으로 세조대인 1458년부터 1490년까지 장경판당을 증축하고, 대적광전을 신축하고, 요사·강당·식당·창고를 늘렸으며, 종루인 원음루와 중문인 불이문을 지었다. 1491년에 조위(曹偉, 1454~1503)가 기록한 「해인사중창기(海印寺重創記)」는 이 공사의 전말을 기록한 것이며, 공사의 결과는 현재 해인사 사찰구조의 기틀을 이룬다. 그러나 임진왜란 후 모두 7차례의 화재가 있었으며, 그때마다 중건 또는 중수하였다. 특히, 1817년의 대화재 때는

수백 칸이 불탔다고 하며, 중요한 몇 개의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들은 그 직후에 재건했거나 또는 후대에 신축한 건물들이다.

## 2. 연혁·유래 및 특징

### 1) 해인사 일주문의 연혁과 의미

#### ① 해인사 일주문의 건축 연혁

사중에 전하기로(『해인(海印)』 제58호, 1986.12.) 해인사 일주문은 세조 3년(1458년) 봄에 처음 중수하였다고 한다. 「해인사중수기」(1491)에 따르면, 1458년은 세조가 승려 죽헌(竹軒) 등에게 명해 사찰에 가서 대장경 50부를 찍어내라고 하고, 장경지당(藏經之堂)을 40여 칸으로 증축하게 한 해이다. 아마도 이를 계기로 사찰을 정비하면서 일주문을 일신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그전 기록이 없고, 다음 중수가 약 170년 후인 1626년 6월에 충휘(沖徽) 스님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1458년에 처음으로 온전한 격식을 취해 일주문을 지었을 가능성이 높다. 세 번째 중수는 순조 3년(1802)에 주지 무열(武悅)과 승통(借統) 의준(義俊)스님이, 네 번째 중수는 광무 3년(1899)에 범운(梵雲) 스님이, 마지막으로 1940년에 주지 설호(雪觸) 스님이 중건하였다고 한다.

이처럼 해인사 일주문은 15세기 세조의 지원 아래 해인사가 확장하는 과정에서 건립되었다. 임진왜란 이전 일주문의 존재는 몇몇 기행에서 확인된다. 승려 유정(惟政, 1544~1610)의 『사명당대사집(四溟堂大師集)』 권1, 「병자추유가야산(丙子秋游伽倻山)」를 통해 1576년에 “일주문 너머로 유유히 건너 들어갔다(悠悠度入一柱外).”는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일주문의 명칭인 홍하문(紅霞門)도 당시에 통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기록이 있다. 한강 정구(寒岡 鄭述, 1543~1620)의 『한강집(寒岡集)』 권9, 「유가야산록(遊伽倻山錄)」은 만력 기묘년(1579) 늦가을에 해인사를 방문한 기록인데, “계곡을 따라 몇 리를 천천히 걸은 후 말을 타고 홍하문에 도착하니 중들이 마중나왔다(緩步溪岸數里許. 騎馬到紅霞門. 僧輩出迎).”고 했다. 홍하문 명칭은 해인사에 이르는 계곡인 홍류동(紅流洞)과 부처님의 붉은 광명을 뜻하는 불교적 표현이 중의적으로 해석된 결과로 이해된다.

1626년 두 번째 중수는 약 170년 후에, 1802년 세 번째 중수는 약 180년 후에, 1899년 네 번째 중수는 약 100년 후에, 1940년 마지막 중수는 약 40년 후에 이루어졌다. 점차 주기가 짧아지기는 했지만, 해인사의 큰 화재 기록과는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아서, 일정한 수명을 다한 후에 전체적인 부재의 교체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홍하문을 마지막으로

중건한 것은 일제강점기인 1940년인데, 당시 주지였던 설호(雪觸) 스님이 주관하여 도목수 이화백(李花白)의 솜씨로 지었다고 한다. 한편, 일주문 앞 기단 오른쪽에는 ‘불기 2975년(二九七五年)’, 왼쪽에는 ‘무자개축(戊子 改築)’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는데, 불기 2975년 무자년은 서기 1948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1940년에 홍하문을 중건하고, 1948년에 축대를 다시 쌓은 것으로 정리된다. 전면의 축석(藥石)과 석계(石階)는 박성주(朴性周), 권종업(權鍾業) 석공이 축조했다고 전한다.

## ② 해인사의 삼문 건축

사찰에 들어가는 문은 일반적으로 사문(沙門), 삼문(三門), 산문(山門)으로 불렸다. 조근(趙根, 1631~1680)의 문집 『손암집(損庵集)』 권4 「유가야산기(遊伽倻山記)」에 “홍류동에서 6~7리를 가면 일주문에 이르는데, 이름하여 홍하문으로서 사찰의 외사문이다.(自紅流行六七里. 至一柱門 一名紅霞門. 卽寺外沙門也)”고 하였다. 홍하문을 사문이면서 바깥쪽에 있는 것으로 묘사한 것이다. 이처럼 문은 내외로 짝을 이루어 구성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사찰의 입구에서는 세 개의 문이 삼문(三門)을 이루는 형식이 조선시대에 확산되었다. 유척기(兪拓基, 1691~1767)가 『지수재집(知守齋集)』 「유가야산기(遊伽倻山記)」에서 “문이 세 개인데, 첫 번째는 홍하문, 두 번째는 봉황문, 세 번째는 해탈문이며, 다시 종각이 있어 원음각이라 하고, 안에 정문이 있다(有三門. 曰紅霞. 次曰鳳凰. 次曰解脫. 次鍾閣曰圓音. 內有正門).”고 한 것처럼, 해인사의 입구는 분명하게 삼문으로 인식되었다.

해인사 일주문은 봉황문, 해탈문과 함께 삼문(三門)을 이룬다. 삼문의 용례는 중국 당나라 때 문헌에 자주 등장한다. 현장(玄奘, 602~664)이 번역한 『불지경론(佛地經論)』에는 해탈에 이르는 방법을 대궁전의 세 개의 문으로 비유했는데, 공해탈문(空解脫門), 무상해탈문(無相解脫門), 무원해탈문(無願解脫門)이 그것이다. 이는 각각 실체가 없고, 차별이 없고, 바램이 없는 경지를 상징한다. 북송 시대 승려 석도성(釋道誠)은 『석씨요람(釋氏要覽)』(1019)에서 사원의 문을 삼문이라 부르는 이유가 이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실제로 문이 세 개가 아니라 하나라도 삼문이라고 부른다고 하였다. 삼문은 물리적 형식이 아니라 상징체계인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사찰 건축에서는 조선시대 이후 삼문이 세 개의 문으로 형식화되었다. 일주문, 천황문(봉황문), 불이문(해탈문)의 세 건축물을 참배 동선 상에 차례로 배열하여 사찰의 진입부로 삼는 규칙이 확산된 것이다. 해인사의 일주문이 1458년에 중수되고, 불이문이 1490년에 추가되는 사건은 조선시대 사찰이 삼문 형식을 완성해나가는 과정으로 이해된다.

해인사 일주문을 지나면 봉황문(鳳凰門)이 있다. 창건 연대는 확인되지 않지만, 봉황문 상

량문에 의하면 1717년에 중수, 1761년에 재건하였으며, 1817년 화재 때 전소된 것을 1821년에 중건하였다고 한다. 정면에는 유당 정현복(惟糖 鄭鉉幅, 1905~1973)의 글씨로 <해인총림(海印叢林)> 현판을 걸었다. 봉황문은 천왕문(天王門)이라고도 하는데, 해인사에는 실내에 불법을 수호하는 외호신인 사천왕 탕화를 모시고 있다. 현재 탕화는 1932년~1933년에 지송파(池松坡) 화백이 조성하였다고 한다. 기둥에 걸린 주련은 “천둥이 울리니 천지가 동시에 소리치고, 비가 개이니 강산이 똑같이 푸르다. 만물이 지극하면 어룡이 능히 변화하고, 도가 정미로우면 석불이 절로 신령스러워진다(雷鳴天地同時吼. 雨霽江山一樣靑. 物極魚龍能變化. 道精石佛自神靈).”는 글귀인데, 일주문 현판을 쓴 해강 김규진의 글씨이다.

봉황문을 지나 돌계단을 오르면 해탈문(解脫門)에 이른다. 해탈문은 번뇌를 벗어버리고 해탈을 이룬 세계인 도리천의 입구를 상징하는 문으로, 다른 곳에서는 불이문(不二門)이라고도 한다. 1490년에 중문을 지어 불이(不二)라 했다는 기록으로 보아 이때 처음 창건된 것으로 보인다. 해탈문은 1817년 화재 때 소실된 것을 제월(霽月) 화상이 1818년에 재건하였다고 한다. 이후 1899년과 1936년에 중수하였다. 해탈문에 걸린 <해동원종대가람(海東圓宗大伽藍)> 현판은 만파(萬波) 스님, <해인대도량(海印大道場)> 현판은 이승만 대통령의 글씨다.

### ③ 해인사 일주문의 현판과 주련

사찰의 현판과 주련은 당대 최고 서예가들이 기예를 뽐내는 장소가 되었는데, 특히 사찰 입구 일주문에는 여러 개의 현판을 걸어 사찰의 위세를 드러내고자 하였으며, 아름다운 선어(禪語)를 주련으로 만들어 사찰에 참배하기 전 마음가짐을 가다듬도록 했다. 해인사 일주문에서 정면에 크게 보이는 <가야산해인사(伽耶山海印寺)> 현판은 당대의 저명한 서예가 해강 김규진(海岡 金圭鎭, 1868~1933)의 글씨이다. 실내 천장에는 자운 주원영(紫雲 朱源榮)이 쓴 <홍하문(紅霞門)> 현판이 걸렸다. 후면의 <해동제일도장(海東第一道場)> 현판은 고령 지방의 명필 박해근(朴海根)의 글씨라고 한다. 양쪽 기둥에는 해강이 전서(篆書)로 각각 여섯 자씩 쓴 주련이 걸렸다. “천겁을 지나도 옛날이 아니고(歷千劫而不古), 만세를 걸쳐도 늘 지금이다(亘萬歲而長今).”는 여말선초의 승려 함허(函虛得通, 1376~1433)가 집필한 『금강경오가해설의(金剛經五家解說誼)』 서설(序說)에 나오는 문구이다. 오른쪽 기둥 아래엔 조선 선조 때의 호남(湖南) 시인 석천 임억령(石川 林億齡, 1496~1568)의 시가 새겨져 있다. 『석천집(石川集)』 권4 「제해인사사문주(題海印寺沙門柱)」에 전문이 전하는데, “일주문 앞에서 잠깐 쉬니, 높이 뿔던 해가 이미 저물고, 배꽃에 산비가 내린 후에, 땅 가득히 흰 꽃이 어지럽다(一柱門前憩, 三竿日已曛, 梨花山雨後, 滿地

白紛紛).”는 내용이다. 현재의 각자(刻字)가 원래의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예전부터 석천의 시가 홍하문에 있었다는 기록이 전한다. 옥소 권섭(玉所 權燮, 1671~1759)의 『유행록』 권2 「유가야산기(遊伽倻山記)」에는 해인사를 죽 둘러보고 불이문을 나와서, 봉황문을 나오고, 다시 일주문인 홍하문을 나오는데, 거기 임석천의 시가 있었다는 내용이 있다.

## 2) 해인사 일주문의 건축과 양식

### ① 해인사 일주문의 건축적 특징

홍하문은 2m 이상의 높은 축대 위에 올라서 있다. 기초부는 5단으로 구성된 장대석을 쌓고, 문 폭 정도의 계단을 10단 설치하였다. 축대는 1단에서 4단까지는 높이를 같게 하였고, 5단계 갑석은 절반 높이로 바깥으로 조금 내밀어서 설치하였다. 축대의 평면은 앞쪽은 약 15m로 넓게 처리했지만 후면은 문폭으로 줄어들어 전체적으로 오각형 형태이다. 기단 앞쪽에 ‘불기 2975년 무자개축(佛紀二九七五年 戊子改築)’이라고 새겨져 있어 1948년에 새로 쌓은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소 시기 차이가 있으나 1940년 일주문 중건 후 진입로와 배수로 등을 정비한 공사로 파악된다. 석축과 석계는 박성주(朴性周), 권중업(權鍾業) 두 석공이 축조하였다고 전한다.

축대 위로는 일주문 형태에 맞추어 장방형으로 장대석 외벌대 기단을 두었다. 가장자리를 일주문의 처마선보다 안으로 들여 낙수물이 기단 위로 떨어지지 않게 하였다. 기단의 상면은 방형의 화강석 판석으로 마감했는데, 현대적인 기법이라 할 수 있다. 초석은 가공석으로 기둥을 받치는 초석과 신방목을 받치는 초석을 별도로 두었다. 기둥의 초석은 원형으로 아래를 넓게 하고 윗면을 좁게 만들었다. 상면의 주좌는 기둥 직경보다 약간 크게 했다. 신방목 초석은 주초석에서 조금 떨어져 신방목의 양단부를 지지하고 있으며, 사각형 단면에 장식이 없다.

일주문을 지탱하는 두 기둥은 민흘림이 있으며 옆에 주선을 달아 좌굴 능력과 단면 성능을 보강했다. 기둥 상부는 사괘를 틀어 십(十)자로 창방을 결구했고, 기둥 뿌리는 신방목의 가운데 부분에 안장맞춤으로 결구했다. 기둥 허리에는 신방목과 평행하게 주천방(柱穿枋)을 끼웠다. 주천방을 기준으로 상하부에 각각 좌우로 사재(斜材)를 결합했다. 그 결과 측면의 형태가 쌀 미(米)자 모양으로 구성되었다. 이처럼 일주문 기둥에 주천방과 사재를 부가해서 구조를 보강하는 방식은 보은 범주사 일주문(1630), 괴산 공림사 영하문(17세기), 김천 직지사 자하문(1705), 함양 용추사 일주문(1711), 김천 청암사 일주문(1930) 등에서 발견된다.

기둥 머리에 끼워진 창방은 사각형 틀을 구성한다. 사괘에 끼워지는 짧은 창방이 양단부에서 출창방과 직각으로 만나 전체적으로 口자를 이루는 모습이다. 공중에 떠 있는 출창방은 모서리를 둥글리고, 뿔목을 얇은 초각으로 처리해서 시각적으로도 무게감을 줄였다. 창방이 서로 교차하는 부분에는 사각 단면의 달동자를 삽입했다. 사각형 창방틀 위에는 공포를 받치기 위해 폭을 키운 평방이 올라간다. 이 사이에 용마루선을 따라 두 기둥을 연결하는 긴 창방이 삽입되어 창방틀과 평방틀을 동시에 고정함으로써 공포를 받치기 위한 평면구조는 전체적으로 𠄎(田)자형이 된다.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창방 위에는 화반을 얹어 뜯장여를 받치는데, 뜯장여는 사실 측면 공포의 이제공이 길게 연장된 부재이다.

해인사 일주문 공포 배열은 맞배지붕이지만 좌우면에도 설치된 점이 특징이며, 매우 규칙적으로 계획되어 있다. 다포식 공포는 전면과 후면에 각각 6구씩 배열되며, 측면으로도 기둥 위에 각각 1구씩 있어서 총 14구로 구성되었다. 공포의 간격은 1,100mm 내외로 영조척 약 314mm의 3.5척에 해당한다. 평방이 이루는 사각형 틀의 중심치수는 5,465mm×2,220mm로서 각각 17.5척과 7척으로 계산되는데, 공포 간격의 배수로 전체 목구조가 계획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공포의 출목수는 외2출목, 내3출목이지만, 지붕구조의 폭이 좁기 때문에 내부에서 앞뒤 공포가 거의 연접한다. 이에 따라 앞뒤 공포의 4제공을 하나의 공통 부재로 하여 구조를 긴결시켰다. 좌우의 공포는 2제공을 하나의 부재로 연결시켜 뜯장여로 삼았다. 공포들의 틈은 빠짐없이 순각판으로 마감했지만 구조부재로 짝 찬 모습은 연등천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해인사 일주문 공포 양식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제공과 첨차의 형태에 있다. 제공의 형태는 외부는 쇠서형이고 내부는 교두형이다. 외부에서 초제공과 2제공은 쇠서형, 3제공은 삼분두형, 4제공은 초각형으로 되어 있으며, 내부는 모두 동일하게 교두형이다. 쇠서는 아래로 길게 뻗은 수서형으로 오각형의 양취가 뚜렷하다. 수평으로 뻗은 다음 사선으로 내리는 조형은 고대 하양의 모티브가 계승된 것으로서, 강직하고 견고한 인상을 주며, 조선 전기 다포식 건축의 양식적 특징을 이룬다. 3제공을 삼분두(三盆頭)로 처리한 것도 마찬가지이다. 삼분두는 보 부재의 끝을 모양나게 세 번 꺾어 잘라낸 형태로 고려 시대 건물에서부터 발견되지만 조선 후기 공포에는 사례가 극히 줄어들었다. 실내에서 제공 사이 또는 첨차 사이에 공안을 표현하거나 소로를 초각한 모습 역시 조선 전기 양식과 맥락을 같이 한다. 모두 15세기 후반에 건립된 서산 개심사 대웅전(瑞山 開心寺 大雄殿)과 16세기 중반에 건립된 춘천 청평사 극락전(春川 淸平寺 極樂殿) 등과 비교할 수 있는 요소들이다. 그러므로 해인사 일주문의 공포는 조선 전기의 양식을 계승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이는 1458년 중수의 결과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한편, 좌우 측면에 있는 공포는 내부에서는 출목을 두고 주변 공포들과 복잡하게 연결했지만 외부의 형태를 간소화한 특이한 모습이다. 측면 공포의 내출목은 실내에서 천장을 보았을 때 사면이 완결된 장식적 효과와 함께 지붕구조를 수평으로 긴결시킨다는 구조적 장점이 있다. 그러나 맞배지붕의 풍판 뒤로 가려진다는 이유에서 외출목 침차를 생략했다기에는 다소 미숙한 기법들이 보인다. 교두형으로 직절된 제공은 사실 침차를 돌려놓은 것이고, 무엇보다도 3제공 위로 얹히는 부재가 없어서 소로가 공중에 덩그러니 놓이게 된다. 이를 처음부터 계획된 형태라고 보기에 는 무리가 있다. 아마도 팔작지붕을 맞배지붕으로 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기술적으로 또한 미학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잔재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

해인사 일주문의 보 이상의 가구는 내부에서 공포에 가려 거의 보이지 않는다. 측면에서 관찰되는 보는 주심도리 아래 장여를 받치고 있다. 또한 주심침차를 지나면서 뿔목이 살미 폭으로 줄어든다. 이처럼 보뿔목을 공포 규격과 통합시키는 방식은 안동 봉정사 극락전(安東 鳳停寺 極樂殿)이나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榮州 浮石寺 無量壽殿) 등에 보이는 고려시대 건축 양식을 계승한 것으로서, 공포 외부에 표현된 삼분두와 초각은 보의 존재를 표상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도리는 모두 5개를 두었는데 3량가를 기본으로 외목도리를 더하고 내목도리를 생략한 형태이다. 종도리는 다른 도리들에 비해 단면이 크고 팔각형으로 다듬어졌다.

맞배지붕의 처마는 부연과 서까래로 구성된 겹처마인데, 외목도리부터 장연 끝까지의 길이가 670mm, 부연까지 합쳐도 1,090mm로 다른 일주문에 비해 처마가 짧은 편이다. 처마 끝에는 현재 막새기와를 사용하고 있으나, 수리 이전에는 평기와와 와구토로 마감되어 있었다. 적세의 단수는 용마루 7단, 내림마루 5단으로, 일제강점기 사진의 용마루 5단, 내림마루 3단보다 약간 높아졌다.

## ② 조선 후기 이후의 변화 양상

해인사 일주문의 목구조는 1458년 중수 당시의 양식적 특징을 계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지붕의 형식, 축부의 상세, 기단을 포함한 주변 환경은 조선 후기 이후 상당히 변경되었다고 파악된다. 다행히 18세기의 그림과 20세기 초의 사진을 통해 몇 가지 단서를 추적해볼 수 있다.

진경산수화풍으로 해인사의 건축상황을 묘사한 그림으로 두 「해인사도(海印寺圖)」가 대

표적이다. 첫 번째는 겸재 정선(謙齋 鄭敼, 1676~1759)이 부채에 그린 그림으로서, 1721년 1726년까지 하양(河陽) 현감을 지내던 시절에 그린 것이다. 정선은 해인사 주변의 가야산 풍경까지 화면에 담아내기 위해 부감시를 취하였고, 그 결과 그림을 통해 사찰의 면모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진재 김윤겸(眞宰 金允謙, 1711~1775)의 『영남기행화첩』 14점 중 하나인 「해인사도(海印寺圖)」로서, 김윤겸이 1765년 진주목 관내 소촌역 찰방으로 근무할 때 그렸을 것으로 추측된다. 진재의 그림은 겸재의 그림과 유사한 구도이지만 건축물이 더 많이 드러나는 위치를 취했다. 두 그림 모두 1817년 대화재 이전의 해인사의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서 연구사적 가치가 높다.

그림들에서는 우선 홍하문, 봉황문, 해탈문, 구광루를 통해 대적광전에 진입하는 동선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대적광전은 중층 팔작지붕으로 지어져 있었다. 또한 현 구광루 위치에 T자형의 중층 누각이 자리잡았는데 정면으로 돌출한 팔작지붕의 박공면 아래로 통과하게 한 것이 인상적이다. 정선의 그림에서는 T자형 누각 뒤로 긴 누각을 한 번 더 지나야 대적광전 앞마당에 도달할 수 있게 묘사되었다. 구광루 아래로는 좌우에 회랑을 거느린 해탈문과 봉황문이 있다. 겸재의 그림에서는 칸수가 정확히 묘사되어 있지 않지만, 진재의 그림에서는 모두 정면 3칸의 규모로 가운데 칸이 통로이고 좌우 칸은 벽체로 막혀 있다. 그러므로 봉황문은 현재의 형식과 유사하지만 해탈문은 19세기 이후에 형태가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들에 표현된 일주문의 가장 큰 특징은 팔작지붕이라는 점이다. 두 그림은 공통적으로 일주문을 팔작지붕으로 묘사했다. 현재 맞배지붕을 얹은 해인사 일주문이 팔작지붕이었을 가능성은 측면 공포의 어색한 모습이나 귀포의 처리 방식에서도 추리가 가능하다. 그림의 연대와 중수 연혁을 맞추어 보면, 팔작지붕이 맞배지붕으로 바뀐 시기는 무열(武悅)과 의준(義俊)에 의한 세 번째 중수인 1802년, 또는 범운(梵雲)이 주도한 네 번째 중수인 1899년 중 하나가 유력하다. 즉, 19세기 동안 해인사 일주문의 지붕은 팔작지붕에서 맞배지붕으로 변경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일주문 기둥을 보조하는 구조에 대해서는 두 그림의 표현 방식이 조금 다르다. 겸재의 그림에서는 기둥이 매우 두텁게 묘사되었는데, 마치 기둥을 다른 재료로 감싸거나 긴 석주(石柱)를 받친 것처럼 묘사되었다. 살짝 곡선을 이룬 사재도 표현되었는데, 지금과 같이 상하를 나누어 미(米)자 모양이 되는 구조와는 달리 간결한 팔(八)자 모양으로 구조를 보조하고 있다. 진재의 그림에서는 붉고 높은 기둥으로 지붕을 받치고 있으며 기둥의 민흘림이 표현되었다. 사재와 같은 보조적인 구조는 발견할 수 없다. 그러므로 현재의 미(米)자 모양 보조구조의 연원에 대해서는 심화 연구가 필요하다.

또 하나의 차이점은 일주문의 기단부이다. 겸재의 그림에서 기단은 일주문을 두르면서 돌출되어 있고 반듯한 장대석을 두 단 쌓은 형식이다. 진재의 그림에서는 일주문 주위에 기단이 표현되지 않았다. 즉, 18세기 이전의 홍하문은 대체로 평평한 자리에 세워졌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현재는 주변이 낮아지면서 일주문이 높은 축대 위에 올라서 있다. 한편, 진재의 그림에서 일주문 좌측에 원표(元表)가 확인되는데, 1920년대에 새로 건립된 지금의 원표가 이전부터 존재했었다는 근거가 된다.

해인사 일주문의 하단과 기초부는 1940년대 마지막 중수 공사에서 상당히 변경된 것으로 확인된다. 일제강점기 『조선유적유물연구(朝鮮遺跡遺物研究)』와 『조선고적도보(朝鮮古蹟圖譜)』에 실린 사진, 『조선건축사론(朝鮮建築史論)』에 실린 흑백사진들을 통해 1910년대와 1920년대 무렵의 상황을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일주문에 오르는 계단은 6단이며, 축대 역시 두 세단으로 처리되었다. 아랫단은 면석처럼 넓은 돌을 쓰고 위에 갑석을 얹은 모습이다. 현재의 축대는 2.3m 높이에 10단의 계단이므로, 공사에서 전면 진입부의 지표면 절토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현재는 축대 위에 다시 기단을 두었지만 사진에서는 별도의 기단이 보이지 않는다.

건축물에서 가장 큰 차이는 두 기둥 사이 문지방의 존재이다. 문지방은 화엄사 일주문, 쌍계사 일주문, 통도사 일주문 등에서 발견되므로 희귀한 형식은 아니지만, 원래 존재하던 문지방이 1940년 공사에서 사라진 점은 아쉽다. 아마도 손상된 기둥 하부에 동바리 작업을 하면서 같이 철거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기둥 안쪽 초석부 집축면에서 문지방을 결구했던 작은 틈을 볼 수 있다. 초석의 모습도 당시 사진과 현황이 다른데, 현재 초석의 높이는 기둥의 하단을 잘라내면서 그 잘린 높이만큼을 보충한 결과로 보인다. 기둥의 축소가 초래한 큰 문제점은 측면 기둥의 쌀 미(米)자 구조의 변형이다. 흑백사진의 구조는 위아래가 대칭을 이루고 있었으나, 현재구조는 하부사재의 머리가 주천방을 받치지 않고 주선에 기대는 형식으로 바뀌었다. 그 결과 위쪽으로는 좁고 아래는 넓은 형태가 되었으며, 이는 심미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구조적으로도 불합리하다.

일시적인 모습이었다고 판단되지만, 흑백사진에서는 일주문의 모퉁이마다 평방 뿔목 아래 각각 셋기둥을 받친 모습이 보인다. 셋기둥은 신방목을 받친 초석 위에 같이 올라섰다. 셋기둥에는 1908년에 설립한 해명학교(海明學校) 등의 명패가 걸리기도 하고, 좌우로 대칭인 글귀를 달기도 했다. 아마 이러한 명패의 게시를 위해 임시로 기둥을 부가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기둥 안쪽의 주련은 서체와 크기가 현재와 같아 보이지만, 색상이 지금과 달라서 흰 바탕에 검은 글씨로 되어 있었고, 기둥 머리 쪽으로 더 올려 달았었다.

일주문 좌우에 낮은 담장이 설치되어 있었던 것도 큰 차이점이다. 담장은 큰 자연석으로 하부를 쌓았고 그 위에 와편 토석담장을 올린 후 기와지붕으로 마무리했다. 담장 역시 근대기의 일시적인 현상으로 생각되나, 구례 화엄사 불이문(17세기)이나 순천 선암사 일주문(18세기)처럼 일주문 양옆으로 담을 낸 사례도 없는 것은 아니다. 정면에 걸린 현판도 지금과 달랐다. 정면 현판은 주원영이 쓴 <해인사·홍하문>이 두 줄 세로쓰기로 중앙에 걸려 있었다. 1920년대 무렵 해강의 글씨를 받아 <가야산해인사> 현판을 새로 걸면서 원래의 현판을 철거한 것으로 보인다. 주원영의 글씨는 가로로 쓴 <홍하문> 현판으로 다시 제작되어 뒤쪽 창방 위에 달았다. 종도리 아래에는 만파 스님이 쓴 <해동원종대가람> 현판이 주심창방에 걸려 있었는데, 이 현판은 이후 해탈문으로 이동했고, 그 자리에 뒤에 있던 <홍하문> 현판이 옮겨 왔다. 한편, 진입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휘어 들어가는 형태로 계단에 이르며, 통로 옆에는 석재로 마감한 배수구를 두었던 모습도 확인된다.

### 3. 지정가치 및 종합의견

해인사 일주문은 법보종찰 해인사의 첫 번째 문으로, 1458년 봄에 현재의 양식으로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1626년·1802년·1899년·1940년의 네 차례 중수를 통해 건립 당시의 모습을 계승해왔다. 해인사 일주문의 문화재적 가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 중기 이전의 건축 양식을 계승하고 있다. 해인사 일주문의 공포는 외2출목, 내3출목으로 구성되었으며, 형태는 외부에서 초제공과 2제공은 쇠서형, 3제공은 삼분두형, 4제공은 초각형이고, 내부는 모두 동일하게 교두형이다. 제공과 살미의 형태가 직선적으로 처리된 점, 오각형의 양취가 뚜렷한 점, 쇠서 위에 삼분두가 나타나는 점은 조선 전기 다포식 건축의 특징과 일치한다. 또한, 제공 또는 첨차 사이에 공안을 표현하거나 소로를 초각한 모습, 그리고 주심첨차를 지난 보뿔목을 살미 폭으로 줄이는 방식 등도 고식으로 평가되는 요소들이다. 그러므로 해인사 일주문은 15세기에 이루어진 건축의 결과를 현재까지 계승하고 있는 희소한 사례라고 판단할 수 있다.

둘째, 해인사 가람 구성의 핵심적인 요소로 기능해왔다. 해인사의 입구를 이루는 홍하문·봉황문·해탈문은 삼문(三門) 형식으로 구성되었다. 삼문은 원래 불교에서 해탈에 이르는 경지를 비유하는 말이었지만, 조선시대에 적극적으로 건축화되었다. 홍하문이 1458년에 중수되고, 불이문이 1490년에 건축되는 등 해인사의 건축 역사는 조선시대 사찰에서 삼문 건축이 형식화되는 과정으로 이해된다. 방문자가 처음에 삼문을 거친 후, 누각인 구광루에 이르고, 누각 아래를 지나 대적광전 마당에 오르는 동선은 18세기의 여러 기록과 그림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원칙은 좀더 이른 시기에 정착된 것으로 파악된다.

셋째, 다양한 기록을 통해 건축 경험이 공유되고 있다. 해인사는 9세기 최치원의 은거 이후 역대 문인들에게 이상향으로 그려졌으며, 승려나 신도가 아니더라도 가야산을 유람하고 홍류동을 통해 해인사를 방문하는 일이 유행했다. 사대부들의 산수유기(山水遊記)에는 해인사 일주문인 홍하문에서의 일정과 감회가 실렸으며, 겸재와 진재 등의 화가는 진경산수로 풍경을 재현했다. 또, 명필들의 글씨로 현판과 주련을 달았고, 명사의 시를 걸어도 했다. 이처럼 해인사 일주문은 건축적 가치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전반에 걸친 사회·문화상을 찾아볼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그러나 18세기의 그림 자료와 20세기 초의 흑백사진을 통해 해인사 일주문에 적지 않은 변형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19세기 동안 지붕의 형식이 팔각에서 맞배로 바뀐 것으로 추정된다. 기둥을 보조하는 미(米)자형 측면 구조도 유래를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1940년의 수리 과정에서는 기둥의 동바리 작업에 따라 문지방을 생략하고 초석을 높이는 등 하부 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담장, 축대, 현판을 비롯한 진입로의 환경도 상당히 바뀌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해인사 일주문의 문화재적 가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변화 과정을 분석하고 원형을 추적하는 연구가 진행되길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해인사 일주문에는 홍하문(紅霞門)이라는 이름이 있다. 홍하문은 16세기에 이미 기록에 등장하기 때문에, 건립 초기부터 같은 명칭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일주문의 고유한 명칭이 존재하고, 그 역사를 증명할 수 있는 기록이 있으므로, ‘합천 해인사 일주문’보다는 정확한 표현인 ‘합천 해인사 홍하문’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22.06.30.	대상문화재	합천 해인사 일주문	
조사자	성 명	○○○	전공 분야	건축사
	소 속		직위(직책)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문화재 명칭	합천 해인사 일주문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세부내용 별첨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3 년 7월 31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 1.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합천 해인사는 경상남도 합천군과 경상북도 성주군에 걸쳐 있는 가야산에 있다. 가야산은 『택리지(擇里志)』에 따르면 경상도에서 유일한 돌산으로 화강암의 빼죽한 봉우리와 맑은 물이 절경을 이루는 곳이다. 특히, 가장 높은 봉우리인 상왕봉(象王峯, 1,433m)이 소의 머리처럼 생겨서 우두산(牛頭山)이라고도 하였으며, 고대부터 성산(聖山) 신앙의 대상이 되어왔다.

해인사는 신라 애장왕 3년(802) 창건되었다. 해인사의 창건에 대해서는 이외에도 삼국사기를 비롯한 여러 문헌의 창건기록이 모두 일치하고 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태조대부터 성종대까지 왕실의 후원을 받아 사세를 유지하였고, 이는 조위(曹偉, 1454년~1503년)가 1491년 찬한 「해인사중창기(海印寺重創記)」의 내용을 통해 판당을 확장하고 주불전을 포함한 불전 건물들을 조성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23개의 요사가 있다는 기록이 있어서 많은 대중들이 살고 있었는지 짐작이 가는 면이 있다. 이외에도 종각인 원음루와 中門인 불이문을 지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구성은 18세기 김윤겸의 「해인사도」를 그릴 때 까지도 대체로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 말기에는 통제사 민형식(1859~?)이 주선하여 범운당 취견스님이 삼전하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위축원당(爲祝願堂)인 경흥전(지금은 진영전으로 사용)을 짓게 된다. 이렇듯 해인사는 왕실이 적극 후원하던 사찰이었다.

## 2. 연혁·유래 및 특징

### 1) 연혁 및 유래

홍하문에 관한 기록은 직접 전하는 것은 없지만 월간 <해인> 1986년 12월호(총 58호)에 의하면 ‘신라 고려시대의 중수 사실까지는 알 수 없으나 조선조 세조3년 서기 1458년 봄에 중수한 뒤로 최근까지 다섯 차례나 중수하였으며’라고 적고 있다.

해인사는 조선 후기에 기록으로 확인되는 화재만 해도 17세기 말부터 19세기까지만 아래와 같이 7회에 달하는 화재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한다.

- 숙종 1년(1660) : 540칸 소실(승정원일기 3월 14일)
- 숙종 21년(1695) : 동쪽의 많은 요사와 만월당, 원음루 화재
- 숙종 22년(1696) : 서쪽의 여러 요사와 무설전 화재
- 영조 19년(1743) : 대적광전 아래 수 백 칸 당우 화재
- 영조 39년(1763) : 화재

- 정조 4년(1780) : 무설전 화재
- 순조 17년(1817) : 수 백 칸 당우 화재

위의 내용은 대부분 중심사역의 화재이고 일주문은 사역에서 홀로 떨어져 있어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해인>지의 내용에 의하면 다섯 차례의 수리가 있었다는데, 구체적으로 언제 언제 수리를 했는지 알 수 없다. 다만, 화재로 소실된 것은 아니고, 일주문이 조선 초기의 양식적 특징을 잘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바람에 의한 퇴락일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홍하문중수상량기(紅霞門重修上梁記)」에 보면 “홍하문은 꼭 있어야 하며 본사는 신라때 창건하였고 이 문을 그때 세워 사방의 골짜기와 함께 면면히 천여년에 이르렀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문은 조선조 세조 3년 봄에 세웠다고 전해지는데 오랜 세월이 기둥이 퇴락되고 허물어졌으므로, 인조 4년 서기 1626년 6월에 충휘(沖徽)스님께서 중수하였고 또 순조 3년(1802)에 주지 무열(武悅)스님과 승통(借統) 의준(義俊)스님이 중수하였고, 또 다시 고종 광무 3년(1899)에 범운(梵雲)스님께서 중수하였으나 그 뒤 다시 퇴락되었으므로, 일제(日帝) 말인 1940년에 주지 설호(雪觸)스님이 중수하였다”고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으나 출처가 어디인지 알 수가 없고, 「홍하문중수상량기」의 원문이 실려 있지 않다.

정확한 기록으로 알 수 있는 해인사 홍하문(紅霞門)은 유척기(兪拓基, 1691~1767)의 『지수제집』(知守齊集, 卷15) 중 「유가야산기(遊伽倻山記)」에 “山之外 有三門 曰紅霞 次曰鳳凰 次曰解脫(사 밖에 삼문이 있는데, 홍아 다음 봉황 다음 해탈이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해인사에는 적어도 18세기에 일주문인 홍하문, 그 다음에 봉황문, 해탈문이 차례로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해인사 일주문이 그려진 그림으로는 정선(鄭敼, 1676~1759)의 「해인사 부채그림」과 김윤겸(金允謙, 1711~1775)의 「해인사도」가 있다. 정선의 그림에서는 일주문의 기둥형태가 비교적 자세하게 그려져 있어 현재의 모습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으나, 김윤겸의 그림에서는 기둥이 간략하게 표현되어 있다. 지붕 형태는 두사람 모두 팔각으로 그리고 있다. 어쨌든 「해인사중창기」에서는 일주문의 언급이 없으나 전술한 유척기의 글에서나, 「해인사부채그림」·「해인사도」에서 보듯이 18세기에는 해인사에서 일주문이 있었음은 분명하다.

일주문 정면 ‘伽倻山海印寺(가야산해인사)’란 현판과 기둥 양쪽 전각서(篆刻書) 쓰여진 주련은 당대의 서예 대가 해강(海剛) 김규진(金圭鎭, 1868~1933)의 글씨이다. 중앙엔 주원영(朱源榮)의 글씨인 법보찰·홍하문(法寶刹·紅體門)이란 현판이 있다. 일주문 뒷편에는 독립운동가인 박해근(朴海根, 1919~1973)의 글씨로 ‘海東第一道場(해동제일도장)’이

란 현판이 걸려 있다.

일주문 기단 전면 오른쪽에는 ‘佛紀二九七五年(불기이구칠오년)’ 왼쪽에는 ‘戊子 改築(무자 개축)’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어 1948년에 기단의 형태가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현재의 기단은 지반의 경사를 이용하여 전면은 높게하여 10단의 계단을 두고 배면은 낮게 1단으로 처리하였다. 그러나 1929년 사진에는 6단의 계단이 있었으며, 기단 갑석과 크기가 서로 다른 면석으로 구성되어 현재의 모습과는 다른 형태이다. 또한, 1940년 이전 고적도보사진과 1929년 후지시마가 촬영한 사진에는 문지방이 있는데, 1940년 이후의 사진에는 문지방이 보이지 않는다. 1940년 수리 시 문지방을 없애 버린 것으로 보인다. 1929년의 홍하문 정측면의 사진을 보면 기둥에 첩설된 사재 이외에도 활주와 같은 보조기둥이 기둥 앞뒤로 4군데에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축대를 보수한 1948년 이전에 사라지고 없는 상태이다.

## 2) 특징

일주문은 전면에서 볼 때 높은 기단위에 문을 세웠다. 건축의 형식으로 볼 때 기둥 앞뒤에 보조기둥을 첨가한 형으로, 다포식의 맞배집건물이다. 기둥 앞뒤에 주선을 두고 처짐을 막기 위하여 ‘사재’(斜材)라고 부르는 부재를 창방과 기둥하부의 신방목 사이에 보조기둥을 X자형으로 보강하였다. 이 X자형의 부재는 다른 일주문에서 보기 어려운 구조이다. 소백산맥 일대에 위치한 사찰의 일주문은 사재형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사재형 형식중 가장 전형적인 상하부사재형 축부를 가지고 있는 일주문이다.

창방이 직교하는 부분의 하부에는 달동자를 설치하였다. 창방뿔목은 구름문양(쌍S자문양)으로 조각하여 장식하였다. 처마는 전후 모두 부연을 달아 장식하여 격을 높였다. 일주문의 가구는 5량가의 구조에 외목보와 주심보로 구성된 가구구조이다. 특징은 외목도리에 결구된 보와 주심도리에 결구된 이중량의 구조이다.

홍하문의 공포형식은 내외 2출목으로 전면과 배면에 공포를 설치하고 양 측면에도 살미없이 첨차로만 구성하였다. 공포부재에 살미의 계부분에 은출심두 및 화두자가 새김질 되어 있으며, 첨차 어깨에는 공안이 있다. 이뿐 아니라 삼제공 살미 외단은 삼분두로 되어 있고 초제공과 이제공 살미 외단은 재면 아래로 강직하게 뺀 쇠서형인 점, 제공살미의 내부는 교두형인 점은 조선 전기 다포식공포를 보여주고 있다.

## 3. 종합 의견

해인사 일주문의 창건년대는 알 수 없으나, 『해인』에서 언급한 1458년의 중수 기록이 확인된다면 이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그러나 최소한 18세기에는 일주문의 존재는

확실하다고 볼 수 있다.

해인사 일주문을 건축적으로 보면, 평면의 설정방식은 포간거리의 배수로 주간거리를 설정한 방식이며 축부는 사재형이 집중된 소백산맥 일대의 일주문 중 상하부사재형의 전형을 이루는 일주문이다. 공포는 전후좌우면에 공포를 배치하였고, 출목은 외출목은 전후면, 내출목은 전후좌우면에 구성하여 외부와 내부의 출목방식이 다른 체계의 방식으로 그 사례가 드문 경우이다. 공포의 세부는 은출심두, 은출화두자, 살미의 공간, 첨차의 공간, 살미재 하면으로 뺀 쇠서 등의 디테일한 기법을 사용하였다. 가구는 주심포식과 유사한 보뿔목처리, 수장폭 단면정도의 방재를 보방향과 도리방향으로 결구하여 도리를 결구하는 방식, 외목도리와 주심도리에 보방향 방재를 결구하여 가구를 구성하였다. 건축기법상으로 조선전기의 다포식 기법을 잘 간직하고 있는 일주문이라 할 수 있으며 일주문 건축의 등장 시기를 가늠할 수 있고, 조선전기의 다포식공포 연구에 기초자료가 될 수 있는 일주문 이다.

해인사 홍하문은 기단 형태의 변화나 기둥 하부에서의 문지방 제거로 인한 기둥 길이의 단축 및 지붕의 하중을 지탱하는 활주의 제거 등의 변화가 있어 원형에서 벗어난 모습이 다소 있으나, 건축기법상으로 조선전기의 다포식 기법을 잘 간직하고 있으며 현존하는 일주문 건축 중에서도 매우 빠른 시기의 건축임을 고려할 때,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로 지정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정명칭은 현판과 기록에서 홍하문으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합천 해인사 홍하문’으로 지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22.06.30.	대상문화재	합천 해인사 일주문	
조사자	성 명	○○○	전공 분야	전통건축
	소 속	○○○○○○○	직위(직책)	대표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문화재 명칭	합천 해인사 일주문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세부내용 별첨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2 년 9월 29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 1. 연혁

해인사는 신라 애장왕 3년(802) 창건되었다. 해인사의 창건에 대해서는 이외에도 삼국사기를 비롯한 여러 문헌의 창건기록이 모두 일치하고 있다. 신라때 소성왕의 어머니 성목태후와 애장왕은 해인사에 2500결이나 시납을 했다고 하며,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태조대부터 성종대까지 이어지는 왕실의 해인사에 대한 관심과, 1892년 통제사 민형식(1859~?)이 주선하여 범운당 취견스님이 삼전하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위축원당(爲祝願堂)인 경홍전(지금은 진영전으로 사용)을 짓게 된다. 이렇듯 해인사는 왕실이 적극 후원하던 사찰이었다.

매계 조위(梅溪 曹偉, 1454년~1503년)가 1491년 찬한 「해인사중창기(海印寺重創記)」의 내용을 보면 대장경판을 보존하기 위한 판당의 확장과 주불전을 포함한 예배의 대상을 봉안하는 건물들을 조성한 것을 알 수 있다. 주불전의 전각명을 바꾼다거나 전에 없던 불전을 추가 한다거나 하지 않는 점과 원당을 새롭게 추가하지 않는 점 등을 보면 기존의 질서와 성격을 유지하면서 확대하는 수준의 불사임을 알 수 있다. 또한 23개의 요사가 있다는 기록이 있어서 많은 대중들이 살고 있었는지 짐작이 가는 면이 있다. 이외에도 종각인 원음루와 中門인 불이문을 지었음을 알 수 있다. 이때의 구성은 18세기 김윤겸의 「해인사도」를 그릴 때 까지도 대체로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해인사의 일주문인 홍하문(紅霞門)은 유척기(兪拓基, 1691~1767)의 『지수제집』(知守齋集, 卷15) 「유가야산기」(遊伽倻山記)에 “山之外 有三門 曰紅霞 次曰鳳凰 次曰解脫”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해인사에는 적어도 18세기에 일주문인 홍하문, 그 다음에 봉황문, 해탈문이 차례로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일주문은 창건과 그 후의 중수사실이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홍하문에 관한 기록은 직접 전하는 것은 없지만 월간 『해인』 1986년 12월호(총 58호)에 의하면 ‘신라 고려시대의 중수 사실까지는 알 수 없으나 조선조 세조 3년(1458) 봄에 중수한 뒤로 최근까지 다섯 차례나 중수하였으며’라고 적고 있다. 또한 「홍하문중수상량기(紅露門重修上梁記)」에 보면 “홍하문은 꼭 있어야 하며 본사는 신라때 창건하였고 이 문을 그때 세워 사방의 골짜기와 함께 면면히 천여년에 이르렀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문은 조선조 세조 3년 봄에 세웠다고 전해지는데 오랜 세월이 기둥이 퇴락되고 허물어졌으므로, 인조 4년 서기 1626년 6월에 충휘(沖徽)스님께서 중수하였고 또 순조 3년 서기 1802년에 주지 무열(武悅)스님과 승통(借統) 의준(義俊)스님이 중수하였고, 또 다시 고종 광무 3년(1899)에 범운(梵雲)스님께서 중수하였으나 그 뒤 다시 퇴락되었으므로, 일제(日帝) 말인 1940년에 주지 설호(雪觸)스님이 중수하였다<sup>1)</sup>고 자세하게 서

술되어 있으나 출처가 어디인지 알 수가 없고, 「홍하문중수상량기」의 원문이 실려 있지 않아 내용을 파악할 수 없어 매우 애석하다.

일주문 앞 기단 오른쪽에는 ‘佛紀二九七五年’ 왼쪽에는 ‘戊子 改築’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다. 1948년에 해당하는데 이 때 기단의 형태가 바뀌었다.

일주문 정면 현판의 글씨는 당대의 서예 대가 해강(海剛) 김규진(金圭鎭, 1868~1933)의 것으로 ‘伽倻山海印寺’란 현판이 있으며, 중앙엔 주원영(朱源榮)의 글씨인 법보찰·홍하문(法寶刹·紅體門)이란 현판이 있고 양쪽 주련에 전각서(篆刻書)로 해강의 글씨가 걸려 있다.

이 일주문 뒷편에는 독립운동가인 박해근(朴海根, 1919~1973)의 글씨로 ‘海東第一道場’이란 현판이 걸려 있다.

해인사 일주문이 그려진 그림으로는 정선(鄭敼, 1676~1759) 「해인사부채그림」과 「해인사도」, 김윤겸(金允謙, 1711~1775)의 「해인사도」가 있는데 정선의 그림에서는 일주문의 기둥형태가 비교적 자세하게 그려져 있어 현재의 모습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으나, 김윤겸의 그림에서는 기둥이 간략하게 표현되어 있다. 그런데 두사람 모두 지붕은 팔작형태로 그리고 있어 주목된다. 어쨌든 「해인사중창기」에서는 일주문의 언급이 없으나 전술한 유척기의 글에서나, 「해인사부채그림」·「해인사도」에서 보듯이 18세기에는 해인사에서 일주문이 있었음은 분명한 일이다.

## 2. 해인사 홍하문의 건축형식과 가치

### 1) 건축개요

일주문은 전면에서 볼 때 높은 기단위에 문을 세웠다. 건축의 형식으로 볼 때 기둥 앞뒤에 보조기둥을 첨가한 형으로, 다포식의 맞배집건물이다. 기둥 앞뒤에 주선을 두고 처집을 막기 위하여 ‘사재’(斜材)라고 부르는 부재를 창방과 기둥하부의 신방목 사이에 보조기둥을 X자형으로 보강하였다. 이 X자형의 부재는 다른 일주문에서 보기 어려운 구조이다.

일주문의 가구는 5량가의 구조에 외목보와 주심보로 구성된 가구구조이다. 특징은 외목도리에 결구된 보와 주심도리에 결구된 이중량의 구조이다.

홍하문의 공포형식은 내외 2출목으로 전면과 배면에 공포를 설치하고 양 측면에도 살미없이 첨차로만 구성하였다. 창방이 직교하는 부분의 하부에는 달동자를 설치하였다.

1) 월간 『해인』 1986년 12월호(총 58호)

창방뿔목은 구름문양(쌍S자문양)으로 초각하여 장식하였다.

처마는 전후 모두 부연을 달아 장식하여 격을 높였다.

## 2) 해인사 홍하문의 건축적 가치

### (1) 해인사 일주문의 변화

해인사 일주문 건물의 변화는 1915년도와 1929년도 때의 사진이 몇장 남아 있어 변화된 모습을 알 수 있다. 그 변화부위는 기단과 기둥하부 부분에서 그 모습을 파악할 수 있다.

- 먼저 기단의 모습에서 변화가 보인다. 현재의 기단은 지반의 경사를 이용하여 전면은 높게하여 10단의 계단을 두고 배면은 낮게 1단으로 처리하였다. 그러나 1929년 사진에는 6단의 계단이 있었으며, 기단 갑석과 크기가 서로 다른 면적으로 구성되어 현재의 모습과는 다른 형태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기단의 형태는 1915년 사진과도 동일하며 1948년까지 유지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기단과 계단 모두 현재 잘 다듬은 화강석으로 축조하였는데, 전면 계단 좌측에 ‘佛紀二九七五年’, 우측에 ‘戊子改築’이라고 새겨져 있어 1948년에 기단을 포함한 대대적인 수리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쨌든 해인사 일주문의 높은 기단은 일반적으로 낮은 기단을 가진 다른 사찰의 일주문과는 다른 모습이다.

- 두 번째는 기둥의 변형을 들 수 있다.

1940년 이전 고적도보 사진과 1929년 후지시마가 촬영한 사진을 보면 문지방이 보이는데, 1940년 이후의 사진에는 문지방이 보이지 않는다. 1940년 수리 시 문지방을 없애 버린 것으로 보인다.

현재 주기둥은 문지방의 높이 만큼 기둥이 잘린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지방의 운두가 신방목 운두 보다 조금 큰 것으로 보이며, 기존의 신방목 및 문지방의 주기둥 하부 결구 홈은 기존 신방목의 운두만큼 줄었다.

- 세 번째는 보조기둥이 없어짐을 들 수 있다.

1929년의 홍하문 정측면의 사진을 보면 기둥에 添設된 사재 이외에도 활주와 같은 보조기둥이 기둥 앞뒤로 4군데에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축대를 보수한 1948년 이전에 사라지고 없는 상태이다.

## (2) 해인사 일주문 건축의 특징

해인사 일주문의 건축적인 특징은 축부의 구성과 공포부재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우선 축부의 구성에서 보면, 소백산맥 일대에 위치한 사찰의 일주문은 사재형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사재형 형식중 가장 전형적인 상하부 사재형 축부를 가지고 있는 일주문이다.

- 일주문의 정면과 배면에 포작을 올리기 위하여 창방은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주심창방, 보방향의 주심창방, 기둥밖으로 돌출한 출창방이 ‘日’자형으로 두었고, 평방은 보방향 주심평방과 주심에서 밖으로 돌출한 출평방을 ‘口’자 형태로 하여 그 위에 내외 2출목의 포작을 올려 상부 장식을 최대화하였다.

- 축부는 주기둥의 양 옆면에 주선을 붙여 세운 뒤, 또 하나의 부재(일명 ‘斜材’)를 창방 하부와 신방목 상부에 X자형으로 덧붙여 결구하였다. 이 주선과 사재는 측면 평방과 창방의 처짐을 보강하기 위한 부재이다. 주선, 그리고 주선에 덧대어 하부가 벌어진 또 하나의 부재인 사재와 신방목, 이 세 개의 부재를 조합하여 건물의 구조적 안정성을 최대화하였는데 다른 일주문 건축에서 보기 힘든 秀作으로 볼 수 있다.

- 기둥옆에 주선을 보강하면서 기둥하부에 신방목을 함께 설치하여 구조적으로 보강한 경우는 다른 일주문에서 찾기 힘든 모습으로 건축적 가치가 높다.

공포구성에서의 특징을 보면,

- 맞배지붕형식이지만 전후좌우면에 공포를 배치한 사면배치형식이다.
- 해인사 홍하문의 공포는 다포식으로 주상포와 주간포 구성되며, 출목수는 외2출목, 내2출목으로 내외 출목수가 동일한 형식이다.
- 공포의 외부의장은 전후는 아래로 처진 쇠서형, 좌우는 교두형이며, 전후면과 좌우면의 의장이 다른 형식이다. 내부의장은 전후는 교두형이고 좌우측면은 초각형과 교두형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 공포구성상의 특징은 맞배지붕 형식에 측면포를 사용한 점과 측면의 외출목은 없는데 비해 내출목은 형성되어 귀한대를 중심으로 좌우대가 구성되어 있어 내부에서 봤을 때 공포의 4면 모두에 출목을 한 것처럼 구성하였다.
- 살미와 첨차에 모두 공간이 있으며, 삼제공 살미 외단은 삼분두로 되어 있고 초제공과 이제공 살미 외단은 材面 아래로 강직하게 뺀 쇠서형인 점, 제공살미의 내부는 교두형인 것은 조선초기 다포식공포의 특징과 부합된다. 특히 초제공과 이제공 윗면과 주심첨차에 소로모양의 부조인 은출심두 기법과 쇠서하부에 쇠서가 아래로 꺾이는 부분에 주름형태로 초각한 은출화두자 기법이 새겨져 있어 주목되는데 이는 안동 봉정사 대응전, 승례문, 개심사 대응전, 북한의 심원사 보광전 등에서 보이는 古式의 수법이다.

### 3. 종합 의견

사찰에서의 일주문은 사찰을 진입할 때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건축물로,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유형의 건축물이다.

해인사 일주문의 창건년대는 알 수 없으나, 『해인』에서 언급한 1458년의 중수 기록이 확인된다면 이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그러나 최소한 18세기에는 일주문의 존재는 확실하다고 볼 수 있다.

해인사 일주문을 건축적으로 보면, 축부는 사재형이 집중된 소백산맥 일대의 일주문 중 ‘X자형’의 상하부 사재형(斜材型)의 전형을 이루는 일주문으로 볼 수 있다.

공포는 전후좌우면에 공포를 배치하였고, 출목은 외출목은 전후면, 내출목은 전후좌우면에 구성하여 외부와 내부의 출목방식이 다른 체계의 방식으로 그 사례가 드문 경우이다.

공포의 세부적인 표현 중 살미와 첨차의 공간, 살미재 하면으로 뺀 쇠서부리의 형태, 은출심두 기법과 은출화두자 기법 등은 고식의 수법이며, 안동 봉정사 대웅전, 송례문, 개심사 대웅전, 북한의 심원사 보광전 등에서 볼 수 있어 조선 중기 이전의 건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단 형태의 변화나 기둥 하부에서의 문지방 제거로 인한 기둥 길이의 단축 및 지붕의 하중을 지탱하는 활주의 제거 등의 변화가 있어 원형에서 다소 벗어난 모습이 매우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기법상으로 조선초기의 다포식 기법을 잘 간직하고 있고 현존하는 일주문 건축 중에서도 매우 빠른 시기의 건축임을 고려할 때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로 하여도 좋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른 글에서 언급한 해인사 일주문에 대한 중수나 보수 기록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계속하여야 할 것이다.

#### ※ 대상 문화재의 핵심 보존가치

해인사 일주문의 창건년대는 알 수 없으나, 여러 자료에서 볼 때 최소한 18세기에는 유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건축기법상 공포의 형태를 통해 판단할 때, 조선초기의 양식으로 볼 수 있어 일주문 건축에서 가장 빠른 시기로 판단되어 건축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우리나라 전체 전통건축물을 통해서도 매우 빠른 시기의 건물로 볼 수 있어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 2. 함양 용추사 일주문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 가. 제안사항

경남 함양군 소재 「함양 용추사 일주문」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경남 함양군 소재 「함양 용추사 일주문」을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항은 2023년 건축문화재분과 제8차 회의(2023.08.17.)에서 원안가결된 사항으로, 예고기간('23.08.28~'23.09.27) 동안 별도의견 없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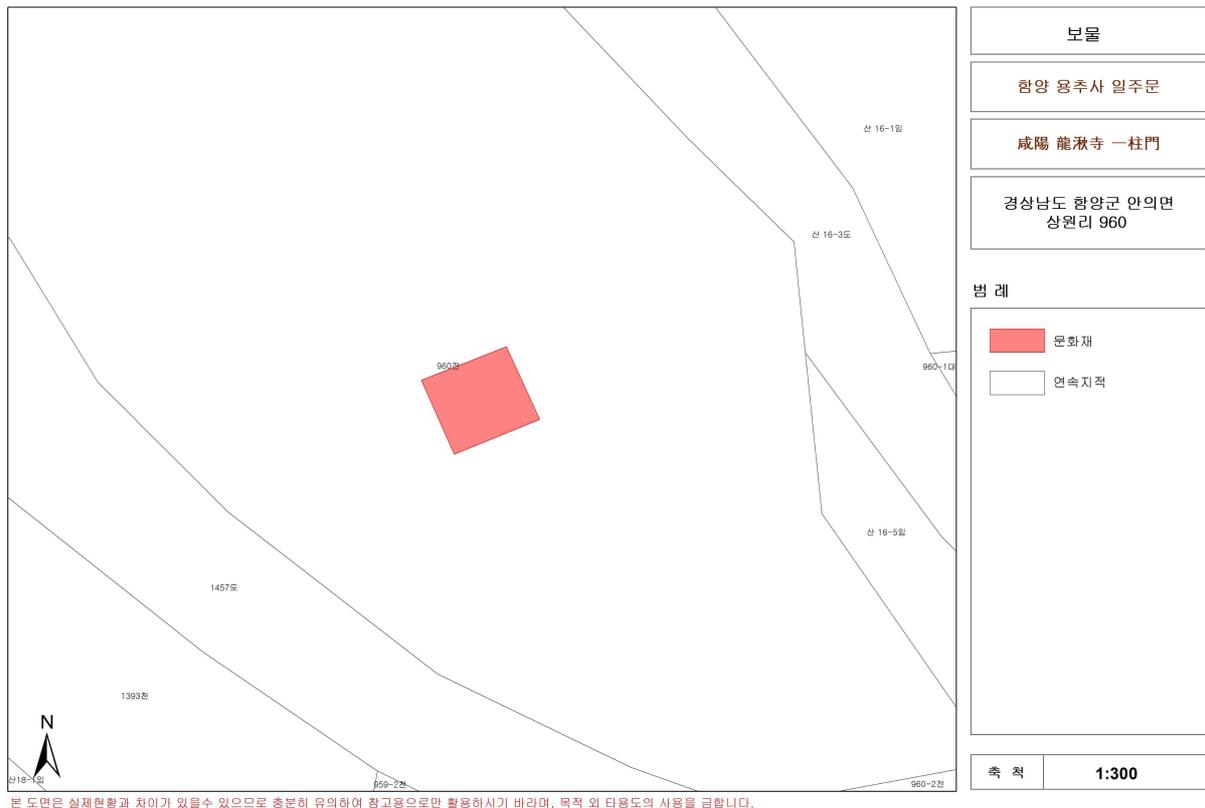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경상남도지사
- (2) 대상문화재 :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함양 용추사 일주문」
  - 소재지 : 경남 함양군 안의면 상원리 960
  - 지정일 : 1972. 02. 12.
- (3) 신청내용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 명칭 : 함양 용추사 일주문(咸陽 龍湫寺 一柱門)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용추사
  - 소재지 : 경남 함양군 안의면 상원리 960
  - 조성연대 : 조선시대
  - 수량 : 1동
  - 지정면적 : 73.0m<sup>2</sup>
  - 구조/형식/형태 : 목조 / 와가 / 팔작지붕

라. 현지조사 의견(2022.07.29. /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 문화재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 문화재전문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 前 문화재전문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마. 지형도면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원안가결 8명

##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22.07.29	대상문화재	함양 용추사 일주문	
조사자	성 명	○○○	전공 분야	건축
	소 속	○○○○○○○학교	직위(직책)	부교수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문화재 명칭	함양 용추사 일주문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세부내용 별첨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08월 30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 1.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용추사는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상원리에 자리하며, 조선시대 지명은 안의현(安義縣)이었다. 안의현은 신라시대의 마리현(馬利縣)과 남내현(南內縣)에서 기원하며, 고려시대에 모두 합주(陝州)의 속현(屬縣)이 되었다. 조선시대 1417년(태종 17)에 두 고을을 완전히 통합하여 안음현(安陰縣)으로 개칭하였으며, 1767년(영조 43)에 고을 명칭을 안의(安義)로 고쳤다. 현재의 행정구역은 1914년에 함양군(咸陽郡)에 합병된 결과이다.

용추사의 역사와 관련한 중요한 입지 조건은 안의현의 수려한 자연환경이다. 이른바 안의삼동(安義三洞)은 화림동(花林洞)·심진동(尋眞洞)·원학동(猿鶴洞)으로서, 조선시대에 이 일대를 유람하고 기행을 작성하는 것이 유행했다. 화림동은 거연정(居然亭), 군자정(君子亭), 동호정(東湖亭), 농월정(弄月亭) 등 계류와 함께 펼쳐진 너럭바위와 정자가 어우러진 명소로서 예로부터 팔담팔정(八潭八亭)으로 불렸던 곳이다. 심진동은 장수사(長水寺)를 거점으로, 앞쪽에 풍류암(風流巖), 탄금대(彈琴帶), 취적암(吹簫巖), 채호암(菜虎巖)이, 뒤편으로 용음퇴(龍吟瀨), 용추폭(龍湫瀑), 설옥암(屑玉庵) 등이 길게 이어지는 경관을 형성했다. 원학동은 용암정(龍巖亭)과 수승대(搜勝臺)를 중심으로 가장 많은 볼거리를 지닌 곳으로서, 송병선(宋秉璿, 1836~1905)의 『연재집(淵齋集)』 「유안음산수기(遊安陰山水記)」(1899)에 따르면, 안의삼동 중에서도 으뜸으로 치는 곳이다. 오늘날에도 수승대(명승 제53호), 용추폭포(명승 제85호), 거연정(명승 제86호), 용암정(명승 제88호)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다.

화림동·심진동·원학동은 모두 읍치의 북쪽에 자리잡았다. 화림동과 심진동 사이에는 황석산과 무이산이, 심진동과 원학동 사이에는 기백산 등이 솟았고, 삼동은 각각 남강, 용추계곡, 위천의 계류를 따라 명승의 주요 지점들이 분포했다. 「안의현 지도」(1872, 규장각 소장)에는 읍치에서 화림동까지 10리, 심진동까지 15리, 원학동까지 50리로 거리가 표기되었다. 이곳들을 하루에 모두 둘러보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고, 며칠간 또는 여러 차례 여정을 더해야 일주하는 것이 가능했다. 노진(盧禎, 1518~1578)은 「유장수사기(遊長水寺記)」에 이르길, 지난 여정에서 화림동으로 들어가서 원학동으로 나와 두 곳의 경치는 떠올릴 수 있으나 심진동은 가보지 못해 이번에 장수사를 별도로 방문한다고 기록했다. 또, 송병선의 「유안음산수기」에도 예전에 원학동의 수승대는 자세히 보았지만 나머지는 보지 못해 오랫동안 애태웠다는 감회가 전한다.

안의삼동 중 용추사가 있는 심진동의 특징은 여정의 중심에 사찰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나머지 화림동과 원학동이 정자를 중심으로 유교적 경관을 형성하고 있는 것에 비

해 심진동은 사찰의 건물군이 전체 유람의 거점으로 기능했다. 그 사찰은 바로 신라 말에 창건되었다고 전해지는 장수사(長水寺)이다. 현재의 명칭인 용추사는 원래 장수사에서 18세기에 건립한 암자이며, 장수사가 폐사되면서 근대 이후에 이름이 대표성을 띠게 되었다. 그러므로 조선시대의 주요한 사료들은 모두 심진동의 장수사를 기록하고 있다.

장수사에 대한 지리지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1611년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제31권 경상도 안음현(安陰縣)편 불우(佛宇)조에는 영각사(靈覺寺)는 덕유산(德裕山)에 있고, 극락암(極樂庵)은 영취산(靈鷲山)에 있으며, 장수사(長水寺)는 지우산(智雨山)에 있다고 했는데, 절 앞에 폭포가 있고, 그 밑에 용추(龍湫)가 있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유형원(柳馨遠, 1622~1673)이 1656년에 편찬한 『동국여지(東國輿地志)』의 경상도 안음현(安陰縣) 편에서는 장수사가 황석산(黃石山)에 있으며, 사찰 앞에 폭포가 있고, 그 아래 용추가 있다고 했다. 산 이름이 서로 다르기는 하지만, 모두 사찰의 위치 다음에 폭포와 못을 추가로 기록하였다는 점에서 장수사의 대표적인 상징이 심진동의 수려한 자연경관이었던 것은 분명하다.

장수사에 유숙하거나 유람한 기록은 조선 전기부터 등장한다. 김종직(金宗直, 1431~1492)의 『점필재집(佔畢齋集)』에는 「중형이 유극기와 함께 장수사에서 노닐었다는 소식을 듣다[聞仲兄與兪克己遊長水寺]」라는 시가 수록되어 있다. 노진(盧禎, 1518~1578)의 『옥계집(玉溪集)』 권5의 「유장수사기(遊長水寺記)」에는 1538년의 건축 상황이 묘사되어 있다. 용추 위에 큰 사찰이 하나 있어 장수사라 하며, 불전과 요사의 단청이 화려하므로, 놀러 와 구경하는 사람들이 모두 이곳에 묵는다고 했다. 정운(鄭蘊, 1569~1641)의 『동계집(桐溪集)』에는 1609년 5월에 심진동에 노닐면서 장수사에서 글을 읽었다는 내용이 있다. 또, 권섭(權燮, 1671~1759)의 「유행록(遊行錄)」에 장수사를 방문한 기록이 등장하고, 『황고집(黃臯集)』에 실린 신수이(愼守彝, 1688~1768)의 행장에도 1742년에 안의 현감 조영석(趙榮祜)과 심진동과 장수사를 유람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처럼 장수사는 사대부들의 산수유람과 연계되어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이름난 사찰이었다.

## 2. 연혁 · 유래 및 특징

### 1) 장수사와 용추암의 건축연혁

장수사 또는 용추사에 대한 건축 연혁에 대해서는 1911년에 조선총독부에서 간행한 『조선사찰사료 상(朝鮮寺刹史料 上)』의 「용추사편액(龍湫寺扁額)」(pp.522~530)에 자세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장을 구성하는 두 개의 글 중 앞엿것은 ‘경상남도안의군지대면장수

사용추암장수원류흥폐부안록(慶尙南道安義郡知代面長水寺龍湫菴創修源流興廢符案錄)’으로서 건원 원년(1736)에 작성된 것이고, 뒤엣것은 ‘덕유산장수사용추암중수기(德裕山長水寺龍湫庵重修記)’로서 가경 14년(1809)의 기록이다. 글에 따르면 장수사는 나말여초에 각연 조사(覺然 祖師)가 창건하고 여말선초에 무학 국사(無學 國師, 1327~1405)가 중수한 사찰로서, 사찰의 입지가 덕유산의 빼어난 경치와 관련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조선 전기의 상황에 대해서는 별다른 기록이 없으며, 대신에 17세기와 18세기에 일어난 두 차례의 대화재와 그 중건사업을 자세히 정리했다.

첫 번째 재해는 1680년 11월 28일 한밤중에 발생한 화재로 경내의 거의 모든 건축물이 전소했다고 전한다. 다행히 즉시 복구 작업에 착수하여, 백여 보(步) 아래 있는 새로운 땅을 정해, 이듬해인 1681년부터 공전(公殿)과 중료(衆寮)의 긴 중창불사가 시작되었다. 선당·승당·서상실은 1681년, 법당은 1685년에 중수되었다. 승려 명찰(明察, 1640~1708)의 시문집인 『풍계집(楓溪集)』에 「안음현덕유산장수사대웅전중수기(安陰縣德裕山長水寺大雄殿重營記)」(1685)가 전하는데 거의 유사한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경신년(1680) 화재 이후 백 보 썸 떨어진 곳에 사찰을 옮겨 짓기 시작해 몇 해가 지나지 않아 날아오를 듯한 기와를 얹은 화려한 전각이 우뚝 솟게 되었으며, 1681년에 시작해 1684년에 마친 공사로 전각과 온돌방이 연이어 들어섰으니 듣고 본 사람 중에 감탄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고 한다. 중창 사업은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다. 대루는 1687년, 동상실은 1689년에 지었다. 천황문·만월당·명경당은 1702년, 조계문은 1711년, 청풍료·두월료는 1716년에 지었다. 1721년에는 새로 잡은 터에 있었던 팔상전과 법당을 화재 이전의 옛터로 옮기고, 1725년에 용추암을 완성했다. 수십 년간 이어진 중창불사는 결과적으로 장수사의 영역을 확대했다. 이제 백 보 아래 새로 중창한 장수사 경역과 옛터를 이어받은 용추암 경역이 동시에 운영될 수 있었다.

그러나 곧 두 번째 재해가 닥쳤다. 1734년 11월 1일 해뜰 무렵에 대웅전에서 시작한 불이 순식간에 모든 전각을 태웠다고 한다. 이번에도 중건사업은 신속하게 착수되었다. 곧 영남과 호남의 우수한 장인을 모아 사역을 시작했다. 법당, 불상, 불화, 삼전위판(三殿位板)과 소대(䟽臺), 서상실, 향로전 등을 새로 건립하고 안팎으로 정리를 마친 것이 1736년의 일이니, 겨우 두 해가 걸린 셈이다. 왕실의 장수를 기원하는 삼전위를 복구한 점을 보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으며, 빠른 기간에 상당한 수준으로 사세가 회복되었으리라 추정된다. 18세기의 승려 응운(應允, 1743~1804)의 『경암집(鏡巖集)』 「덕유산심진동기(德裕山尋眞洞記)」에 따르면, 동중(洞中)의 여러 암자들, 도솔암(兜率庵)·백련암(白蓮庵)·청류암(聽流庵)·부도암(扶屠庵) 등은 무학 조사의 은신암(隱身庵)과 형제가 되어 모두 장수사에 속해 있어 참선하고 강론하는 학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고 했기 때문

이다. 덧붙여, 풍수가들이 용추의 물 깊이로 절의 흥폐를 점치니, 장수사의 장수라는 이름은 여기서 나온 듯하다고 했다.

「용추사편액」에는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1805년 겨울에 세 번째 대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일성록(日省錄)』 순조 6년(1806) 2월 19일 기사에 따르면, 수원 유수 조진관(趙鎭寬, 1739~1808)이 아뢰길, 안의현 장수사는 본부의 분봉상시(分奉常寺)에 해당하여 매년 세를 거두어 공용에 보충하는데, 작년 겨울에 화재를 당해서 본부에서 돌보아 주어야 할 형편이므로, 조포사(造泡寺) 등의 규례대로 공명첩(空名帖) 200장을 내려보내 절을 짓는 재원으로 삼자고 건의했다. 장수사를 이전부터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순조실록』의 순조 2년(1802) 9월 12일 기사에서도 발견된다. 외별고(外別庫)에서 관할하는 장수사(長水寺) 세를 그대로 수원부에 소속시킨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며칠 후 2월 27일에 비변사에서 비용과 절차를 문제 삼아 제지하고 공명첩을 100장으로 줄이게 된다. 이후 재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는 확실치 않다. 다만 「용추사편액」의 ‘덕유산장수사용추암중수기’(1809)의 존재로 짐작해보면, 용추암 지역을 먼저 중건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후 장수사와 용추암은 예전만큼의 영화를 누리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민재남(閔在 南, 1802~1873)의 『회정집(晦亭集)』에 실려 있는 「장수사(長水寺)」시는 “옛절이 황량하고 일주문만 남았네. 흰칠한 금불이 말없이 앉았구나(古寺荒涼一柱門. 頽然金佛坐無言).”고 하여 19세기 중반에 장수사가 이미 폐허가 된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다만, 일제강점기까지 입구의 일주문과 경내의 몇몇 전각이 남아 용추사로 이름을 바꾸고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단서가 전한다. 그러나 한국전쟁 시기에 또다시 일주문을 제외한 모든 건물이 불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용추사는 1953년 안의면 당본리로 자리를 옮겨 법등을 잇다가, 1959년에 원래 자리로 돌아왔다. 그러므로 현재 장수사는 사라지고 용추사만 이름이 남았다.

## 2) 장수사 조계문의 건축연혁

장수사의 연혁을 통해, 현 용추사 일주문은 옛 장수사 조계문(曹溪門)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용추사편액(龍湫寺扁額)」의 ‘경상남도안의군지대면장수사용추암창수원류흥폐부안록’(1736)에 의하면, 장수사 조계문은 1711년 건립되었고, 조계문을 지은 목수는 호남의 장인 사혜(社慧)이다. 사혜는 스스로가 이 기록의 찬자이기도 해서 당시 장수사 중창 불사에 깊게 관여했음을 알 수 있다.

새로 지은 장수사 조계문은 화려하고 웅장한 기념비로 인식되었으며, 처음부터 화려한 공포가 상징처럼 여겨졌던 것으로 보인다. 박내오(朴來吾, 1713~1785)는 『이계집(尼溪集)』 권11 「유삼동록(遊三洞錄)」(1765)에서 “장수사에 들어가니, 불전과 종각이 지극히 웅장하고 아름다웠고, 일주문 아홉 포작의 사치스러운 형상은 견줄 곳이 없었다.(入長水寺. 佛宇鍾閣, 巖極壯麗. 一柱門九苞奢狀無比矣.)”고 하여 중창불사의 장려함과 함께 특히 일주문의 호화로운 공포 양식을 대표적인 특징으로 들었다.

이후 대화재로 인해 장수사 전각들이 불타버린 상황에서 일주문은 유일하게 남았다. 권뢰(權埭, 1800~1873)의 『용이와집(龍耳窩集)』의 「유덕유산록(遊德裕山錄)」은 1852년 3월에 덕유산 일대를 여행한 기록으로서, 27일에 용추암으로 하산하여 장수사의 폐사된 모습을 확인하는 대목이 있다. “장수사 폐허를 관찰해보니, 법당이 층층이 있고, 가구와 포작이 매우 웅장하다. 비록 지금의 유명한 거찰이라도 모두 이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觀長水廢寺. 法堂層層. 架包甚宏壯. 雖當世指名巨刹. 皆不及此.)”고 하였으니, 폐허가 된 상태에서도 웅장하고 화려했던 면모가 드러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어 일주문에 대해 언급하는데, “그리고 일주문 역시 그 웅장한 전각의 하나라고 한다.(而一柱門亦稱其雄殿)”고 하여 일주문만 소실되지 않고 남아 있던 상황을 전했다.

일제강점기의 자료로는 총독부 기수(技手) 오가와 게이키치(小川敬吉, 1882~1950)가 1934년 5월 17일에 용추사를 방문하여 조사한 기록이 있다. 1934년 6월 7일에 학무국장(學務局長)에게 보고된 복명서(復命書)에는 경상도와 전라도의 여러 사찰에 대한 조사기록이 수록되었는데, 용추사 및 구 장수사 배치도, 용추사(龍湫寺) 팔상전(八相殿) 및 육화료(六和寮) 사진, 용추사 두공(斗栱) 및 불화(佛畫) 사진과 함께 장수사 조계문 사진과 장수사 대웅전 사진이 수록되었다. 조서에는 사찰에서 들은 장수사와 용추사의 연혁과 함께 팔상전, 육화료, 대웅전, 조계문, 은신암(隱身庵) 다섯 건물에 등급을 매겼는데, 갑·을·병·정 중 육화료만 정종이고 나머지는 병종(丙種)으로 평가했다. 이때 찍은 장수사 조계문 사진이 현전하는 가장 오래된 사진 자료이며, 현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장수사 조계문은 1972년 2월 12일에 경상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는데, 당시에 이미 장수사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정 명칭은 ‘함양 용추사 일주문’이 되었다. 문화재 지정 이후 1975년에 일주문에 대한 전반적인 보수를 실시하였으며, 1999년에 단청공사, 2010년에 번와 및 방재설비 공사가 시행되었다. 2015년에는 일주문에 대한 기록화 사업을 추진하여 연혁자료, 도면, 3D 이미지 등 관련 자료들을 확보하고, 단청공사를 실시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 3) 용추사 일주문의 건축적 특징

#### ① 기단과 축부

용추사 일주문의 기단은 자연석으로 주위를 둘렀으며, 약간 경사진 지면 위에 전면은 두 벌대, 배면은 외벌대로 구성했다. 기단의 평면은 일주문 지붕의 처마보다 안으로 들어 낙숫물이 떨어지지 않게 하였다. 전면에는 얇은 디딤석을 하나 두었다. 약 4.1m 간격의 두 기둥을 받치는 초석은 각각 자연석을 3개씩 신방목의 길이 방향으로 나란히 배치하였으며, 기둥을 지지하는 초석의 크기가 앞뒤로 있는 초석들보다 크다.

거대하고 꿈틀거리는 두 기둥은 용추사 일주문의 가장 큰 특징이다. 하부 직경은 거의 1m에 육박하며, 상부 직경은 800mm 정도로 줄어들어, 자연스럽게 민흘림을 형성했다. 기둥의 재료는 느티나무 계통으로 자연목에서 꺾질만 제거한 형태를 그대로 사용했다. 정면에서 봤을 때 오른쪽 기둥은 더욱 구불거리는 형태이고, 왼쪽 기둥은 상대적으로 곧은 모습이다. 이처럼 치목(治木)을 최소화한 자연목을 기둥으로 사용한 일주문의 사례로 곡성 태안사 일주문(1683), 예천 용문사 일주문(1687), 의성 고운사 조계문(1868), 대구 용연사 자운문(1695), 문경 봉암사 봉황문(19세기), 상주 남장사 일주문(19세기), 김천 청암사 일주문(1930) 등이 알려져 있다. 한국 건축에서 자연목의 사용은 조선 후기 목재 부족 현상을 미학적으로 해결한 시대양식으로 평가되며, 그중에서도 용추사 일주문의 기둥은 비례가 육중하고 형태가 자유로운 사례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기둥에는 아래부터 세 개의 방목(枋木), 즉 신방목, 주천방, 창방이 차례로 관통하고 있다. 신방목은 기둥 하부에 안장맞춤으로 결구되었으며, 단면치수는 300mm×400mm 정도이고, 길이는 약 3m이다. 주천방은 기둥의 중간에 끼워져서 아래위로 각각 경사진 부재와 결구하여 측면구조를 보강하는 역할을 한다. 상부 사재는 팔을 벌린 모양으로 기둥 위 창방을 넓게 받치고, 하부 사재는 다리를 벌린 모습으로 신방목의 양단부를 장부맞춤으로 딛고 섰다. 이에 따라, 전체적으로 쌀 미(米)자 모양의 구조를 형성했다. 이러한 구조는 합천 해인사 홍하문(16세기), 보은 법주사 일주문(1630), 괴산 공림사 영하문(17세기), 김천 직지사 자하문(1705), 김천 청암사 일주문(1930)에서 발견된다. 용추사 일주문의 경우, 위아래가 완전히 대칭을 이루지 않고 하부 사재보다 상부 사재의 벌어진 각도가 더 큰 것이 특징이다. 이와 같은 모습은 상부의 공포와 지붕을 더욱 강조하는 효과를 냈다.

기둥 위 사괘에 가운데가 끼워진 보방향 창방은 양단부에서 도리방향 출창방과 교차하여 전체적으로 ㄱ자 모양의 구조를 형성했다. 또 기둥과 기둥 사이도 창방으로 연결해서

구조를 보강했는데, 사괘 밖으로 뺄목을 내지 않아서 측면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창방의 아랫면은 모서리를 둥글려서 아래에서 바라볼 때 구조가 가벼워 보이도록 처리했다. 창방틀의 위에는 춤보다 폭이 넓은 평방을 들렀다. 전각부의 뺄목은 창방과 평방 모두 단면을 줄이지 않았고 초각 없이 직절하였다. 이와 같은 口자 구조들은 상부에 공포가 놓이는 기반이 되며, 기둥을 포함하는 미(米)자형 구조로 지탱된다.

## ② 공포와 양식

용추사 일주문은 비록 규모 자체가 매우 큰 것은 아니지만 공포 수로는 현존하는 조선 시대 일주문 중 최다이다. 용추사 일주문 다포의 개수는 평신포가 전후로 각 5구씩, 좌우로 각 3구씩 배열되며, 귀포 4구를 합쳐 총 20구이다. 일반적인 일주문 건축의 경우, 정면의 주간포는 2구에서 3구가 배열되며, 4구를 배열한 사례도 합천 해인사 홍하문(15세기)과 장흥 보림사 외호문(18세기) 등으로 사례가 많지 않다. 그러므로 귀포를 포함해서 정면에 7구의 포가 드러나는 경우는 매우 희귀하다고 할 수 있다. 대구 동화사 봉황문(17세기) 정도가 공포 수로 용추사 일주문에 비견할만 하다. 영조척은 약 305mm 내외로 추정되며, 창방이 이루는 틀의 크기는 가로 방향이 13.5척, 세로 방향이 9척으로 환산된다. 이때 포간 거리가 동일하게 2.25척으로 계산되므로 가구의 짜임이 포의 배열을 기준으로 성립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용추사 일주문의 공포는 전형적인 다포식으로, 내외가 동일하게 4출목 9포작으로 구성되었다. 내외가 대칭적으로 4출목을 갖는 일주문은 천은사 일주문(17세기), 쌍계사 일주문(18세기)이 있으며, 나머지는 내출목을 줄이거나 생략했다. 동화사 봉황문(17세기)과 석왕사 조계문(18세기)의 외3출목 내4출목처럼 내출목이 더 큰 사례도 있다. 일주문에 5출목 이상의 공포가 사용되지 않은 점을 고려한다면, 4출목 9포작은 일주문 건축 중 가장 화려한 형식이라 할 수 있다. 박내오(朴來吾)가 1765년에 방문하여 “일주문 아홉 포작의 사치스러운 형상은 견줄 곳이 없었다(一柱門九苞奢狀無比矣).”라고 감탄한 것은 이 때문이다. 다만, 용추사 일주문 공포에서 각 출목의 간격은 205~210mm, 출목의 합은 820~840mm로, 같은 규모에서 출목 수를 늘리기 위해 출목 간격을 좁힌 것이 확인된다.

공포의 외부의장은 사면이 모두 동일한 형식이다. 제공은 모두 6단으로 구성된다. 외부에서 볼 때, 초제공에서 사제공까지의 단부는 초각쇠서형으로 구성하고, 오익공은 연봉을 단 수서형으로, 운공에는 봉황두를 달았다. 반면 내부 제공의 경우, 초제공은 연봉형, 이제공과 삼제공은 연화형, 사제공과 오제공은 초각형으로 하여, 초각형과 연화형을 혼용한 점이 특징이다. 귀포에서도 기본적인 조합 원리가 유지되었다. 다포식 건축의 살미 형태

는 18세기를 지나며 초각형에서 연화형으로 이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용추사 일주문의 공포는 그 과도기에서 초각형과 연화형이 혼합된 모습으로 나타난다. 한편, 첨차는 모두 교두형으로 다듬었고, 출목첨차와 주심첨차는 운두 크기만 달리할 뿐 길이는 동일하다. 출목첨차와 주심첨차의 길이가 같은 사례는 18세기에 많이 등장해서 시대적 특징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첨차의 구성은 소첨차와 대첨차의 2단으로 조합했는데, 내외4출목만 소첨차 1단으로 구성했다.

### ③ 지붕과 마감

공포 위로는 대공과 보를 올려 도리를 얹었다. 총 7개의 도리는 종도리 1개, 중도리 2개, 주심도리 2개, 외목도리 2개로 구성되었다. 내목도리는 생략된 것이 아니라 중도리로 대체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앞뒤로 공포가 인접하여 내목도리 위치와 중도리 위치가 같아졌기 때문이다. 도리의 단면은 외목도리만 팔각형이며, 나머지는 원형이다. 팔각 단면의 외목도리는 곡성 태안사 일주문(17세기)과 순천 송광사 조계문(19세기)에서도 발견된다. 팔각형 외목도리는 공포의 제공에 직접 결합되었지만, 나머지 도리들은 보와 대공에 걸구되어, 단면상 공포 위에 새로 오랑가를 짜 넣은 모양처럼 보인다. 그런데 1992년 수리보고서에 수록된 종단면도는 대들보가 누락되고 첨차 위로 중첩된 장여가 도리를 직접 받치는 모습으로 작성되어 있어서, 원형과 수리과정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원래의 구조가 대들보를 생략한 무량구조는 아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수리과정에서 꽤 변형이 있었을 것이라 짐작된다.

내부 천장은 우물반자이고 전후좌우 공포의 내4출목 장여 사이에 구성되어 있다. 장반자틀과 단반자틀을 설치하여 우물을 만든 뒤, 우물의 내측면에 평소란을 끼우고 그 위에 반자청판을 올렸다. 반자청판은 3개의 판재를 이어서 만들었다. 일주문 내부에는 대체로 널반자가 설치되며, 용추사 일주문처럼 우물반자를 설치한 곳은 대구 동화사 봉황문(17세기), 대구 용연사 자운문(17세기), 문경 김룡사 홍하문(18세기), 북한에 있는 고산 석왕사 조계문(18세기)이 있다.

지붕의 형식은 겹처마 팔자지붕이다. 일주문 구조의 한계상, 팔자지붕의 추녀 뿌리가 안장되는 외기를 구성하는 일이 어렵다. 용추사 일주문에서 외기는 내목도리 위치의 중도리에 구성되었다. 외목도리에서 중도리까지의 수평 거리는 약 1.7m로서 추녀 뿌리를 얹을 수 있는 거리를 넉넉히 확보했다. 그러나 내목도리 위치에 구성된 외기는 너무 작아서, 추녀를 올리면 마치 우진각 지붕과 유사한 모습이 된다. 그 위에 허가를 올려 팔자지붕을 구성했다. 또한, 중도리와 중도리 사이가 530mm 남짓으로 두 자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

에, 단연을 중도리 상부에서 X자로 교차시킨 후 다시 적심도리로 늘렸다. 중도리 아래로는 장연을 설치했는데, 외목도리부터 내민 길이를 약 980mm 정도로 짧게 마감했다. 연목은 끝건기와 마구리 빗자르기를 실시하여, 끝이 굽어 보이거나 처져 보이는 현상을 방지했다. 장연 위에는 방형 단면의 부연을 달아 겹처마를 완성했다.

팔작지붕의 처마선은 현재 거의 수평에 가깝게 처리되어 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오가와 게이키치(小川敬吉)의 조사 사진을 보면 전체적으로 처마의 양곡이 확인되므로, 최근 수리 결과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용마루는 적새를 5단 올렸고, 나머지 내림마루는 3단으로 구성했다. 마루기와의 단부는 수평으로 머거블을 놓고 그 위에 망와를 얹어 마감했다. 머거블의 단수는 용마루 2단, 나머지 마루는 1단으로 했다. 기와골 끝은 와구토 마감이었으나 현재는 막새기와를 두었다.

### 3. 지정가치 및 종합의견

함양 용추사 일주문은 1711년에 장수사 조계문으로 건립된 건축물로서, 장수사가 화재로 인해 폐사가 된 이후에는 용추사의 일주문으로 이용되어 왔고, 현재까지 용추계곡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감상하는 중요한 유물이다. 함양 용추사 일주문의 문화재적 가치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조선 시대 일주문 건축 중 공포를 가장 화려하게 구성한 사례이다. 용추사 일주문의 다포의 개수는 평방 위에 전후로 각 5구씩, 좌우로 각 3구씩 배열되며, 여기에 귀포 4구를 합쳐 총 20구이다. 이것은 대구 동화사 봉황문과 함께 조선시대 일주문 중 가장 많은 공포를 올린 사례이다. 단위 공포는 내외가 동일하게 4출목 9포작으로서, 이 역시 일주문에서 사용된 최다 포작수라 할 수 있다. 18세기 기록에 일주문 아홉 포작의 사치스러운 형상이 견줄 곳이 없었다는 내용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9포작 의장은 장수사 조계문의 가장 큰 인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일주문 자체의 규모가 거대하지는 않으므로, 포간 거리와 출목 간격을 축소하여 공포 의장을 완성한 점도 주요한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둘째, 건립연대가 분명하고 건축의 시대양식을 잘 표현하고 있다. 용추사 일주문은 1711년에 장수사 조계문으로 건립되었고, 목수는 경상도가 아닌 호남 출신의 장인 사혜이다. 건축 부재로 구불거리는 형태의 느티나무를 기둥에 사용한 것은 조선 후기 목재부족 현상과 관련한 건축계의 대응을 살필 수 있는 실례이다. 공포의 제공은 외부에서 볼 때 초각, 연봉, 봉황두가 드러나며, 내부에서는 연봉, 연화, 초각이 혼용되었다. 이는 다포 건축

의 살미 형태가 18세기를 지나며 초각형에서 연화형으로 이행하는 과정의 과도기를 표현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셋째, 지금은 사라진 장수사의 흥망성쇠를 증거하는 자료이다. 장수사는 안의삼동 중 심진동 유람의 거점이 되는 시설이었다. 또한 건물이 웅장하고 단청이 화려해서 유람객들이 즐겨 찾는 장소이기도 했다. 1680년과 1734년에 대화재를 당했지만, 즉시 중창에 착수하여 오히려 사역을 넓히고 화려한 전각의 면모를 일신했다. 그러나 1805년의 화재 이후 충분히 복구되지 못하고 쇠락의 길을 걸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사가 된 장수사 전각의 규모와 장식에 감탄하는 기록이 발견되고, 피해를 입지 않은 일주문이 그 웅장한 사찰의 대표성을 차지하게 되었다. 용추사 일주문은 한국전쟁 때에도 살아남아 완전하게 소실된 장수사와 용추사를 증명하는 유일한 건축물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함양 용추사 일주문은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지붕 수리의 결과로 양곡이 줄어 전체적인 조형성을 해치고 있는 상황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일주문이 건립연대가 분명한 ‘장수사 조계문’으로 확인되고, 현판의 표기도 <덕유산 장수사 조계문>으로 되어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지정 명칭으로 ‘함양 구 장수사 조계문’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22. 7. 29.	대상문화재	함양 용추사 일주문	
조사자	성 명	○○○	전공 분야	한국건축사
	소 속	○○○○연구원	직위(직책)	연구위원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문화재 명칭	함양 용추사 일주문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세부내용 별첨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9월 15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 1. 연혁

대한불교조계종 제12교구 해인사의 말사인 용추사(龍湫寺) 소유로 되어있으나, 신라시대에 각연(覺然)이 창건한 장수사(長水寺)와 관련된 일주문(一柱門)이다. 현재의 현판에도 ‘덕유산장수사조계문(德裕山長水寺曹溪門)’이라 쓰여 있다.

장수사는 숙종 6년(1680년)에 큰 화재로 대부분의 전각들이 전소되고 숙종 7년(1681년) 현재의 일주문이 있는 아래쪽으로 새로운 절터를 조성하기 시작하여 숙종 42년(1716년)까지 전각들을 건립하여 대형 사찰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용추암(龍湫庵)은 영조 1년(1725)에 장수사(長水寺) 옛터에 건립되었다,

장수사는 순조 5년(1805년) 다시 한번 화재로 일주문을 제외한 전각의 대부분이 소실되고 복원이 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1950년 한국전쟁으로 용추사(龍湫寺)로 격상된 용추암의 전각들마저 전소된 후 폐사로 남게 되었다. 1959년 장수사의 원자리이면서 용추암의 자리이기도 한 현재의 위치에 중건되고 1970년에 대웅전이 건립되어 현재의 모습을 이루고 있다.

용추사 일주문의 건립시기는 현장 안내판과 문화재청 홈페이지에서는 1702년으로, 1911년 조선총독부에서 발간한 『조선사찰사료(朝鮮寺刹史料)』에 수록되어 있는 「용추사편액(龍湫寺扁額)」(1809년)과 서울대학교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용추사적(龍湫寺蹟)」(두혜(杜慧), 1736년, 서울대학교규장각 소장)에 따르면 두혜가 장수사(長壽寺)의 일주문으로 숙종 37년(1711)에 조계문을 건립한 것으로 나온다. 두 기록 가운데 9년의 차이가 발생하나 18세기 초로 추정 가능성이 있다.

용추사 일주문은 1972년 ‘함양 용추사 일주문(咸陽 龍湫寺 一柱門)’이라는 문화재명으로 경상남도유형문화재 제54호로 지정되었다. 그밖에 1975년 목재, 지붕, 단청공사, 1999년 단청공사, 2010년 기와, 기단 보수공사, 2015년 단청공사 등을 통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연도	근거
1975년	- 목공사 : 포부재보수 45채, 축부재보수 61채, 평부재보수 13채 - 지붕공사 : 번와공사(전면 번와 80.5㎡, 암기와 1,879개, 수키와 677개, 암막새 125개, 숫막새 125개, 망와 11개) - 단청공사 : 모로단청 205㎡, 색긋기 76㎡, 가칠 133㎡
1999년	- 단청공사
2002년	- 보호책 정비공사 : 휨스설치 32.4m, 계단보수 3.81㎡
2010년	- 일주문 보수공사 : 기와 고르기, 기단 강회다짐 정비 - 소화시설 설치공사 : 옥외소화전 및 물탱크 설치 - 자동화재탐지시설 설치공사
2015년	- 단청공사 : 고색단청으로 전면 개치 - 함양 용추사 일주문 기록화사업 용역

<세천재 연혁 요약>

## 2. 입지현황

장수사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불우조에 지우산에 있다고 나오는데 지우산은 함양

의 안의와 거창의 위천 사이에 위치하는 비교적 높은 산(1,331m)으로 금원산과 황석산 등과 함께 크게 보면 덕유산에 포함되는 산이다. 덕유산은 뛰어난 경승으로 조선시대에도 유명하였다. 일주문의 북쪽으로 인접한 함양 심진동 용추폭포가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될 정도로 천혜의 자연 입지를 갖추고 있다.



일주문은 용추사 진입구를 지난 곳에 위치하고, 전면에 주차장과 휴게소가 배치되어 있다 . 현재 사찰 일주문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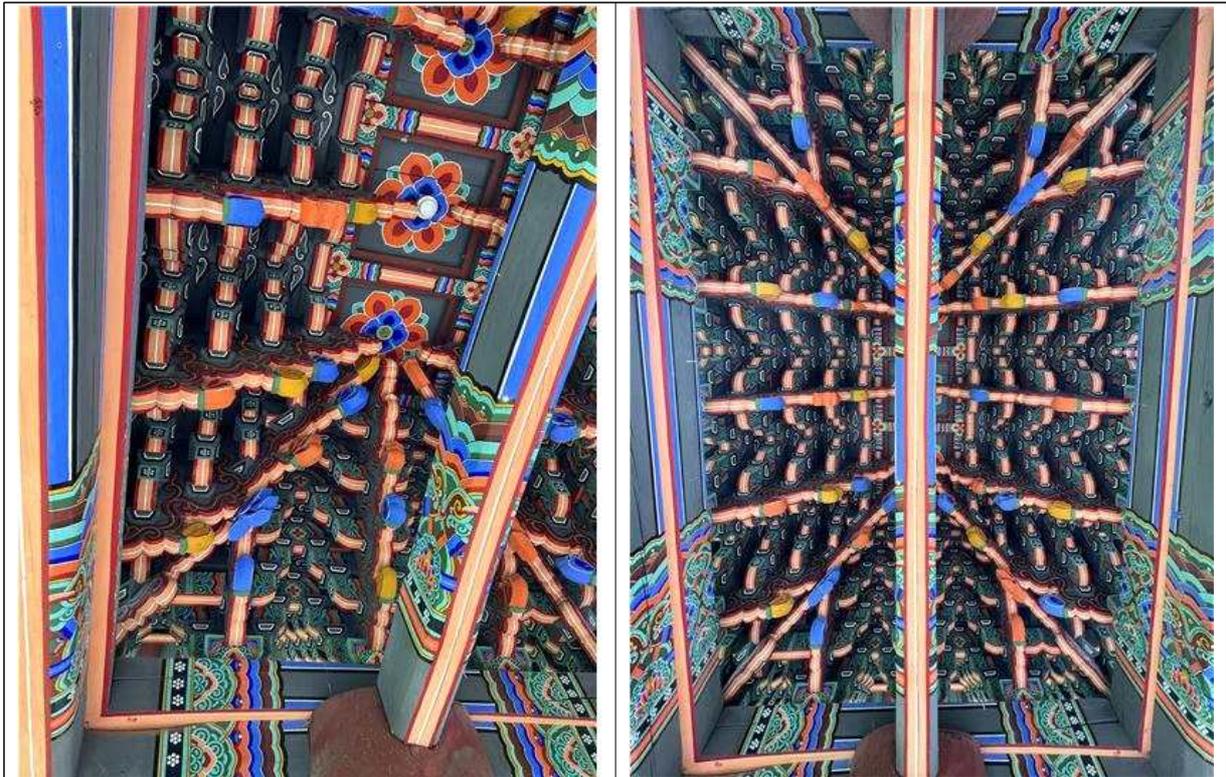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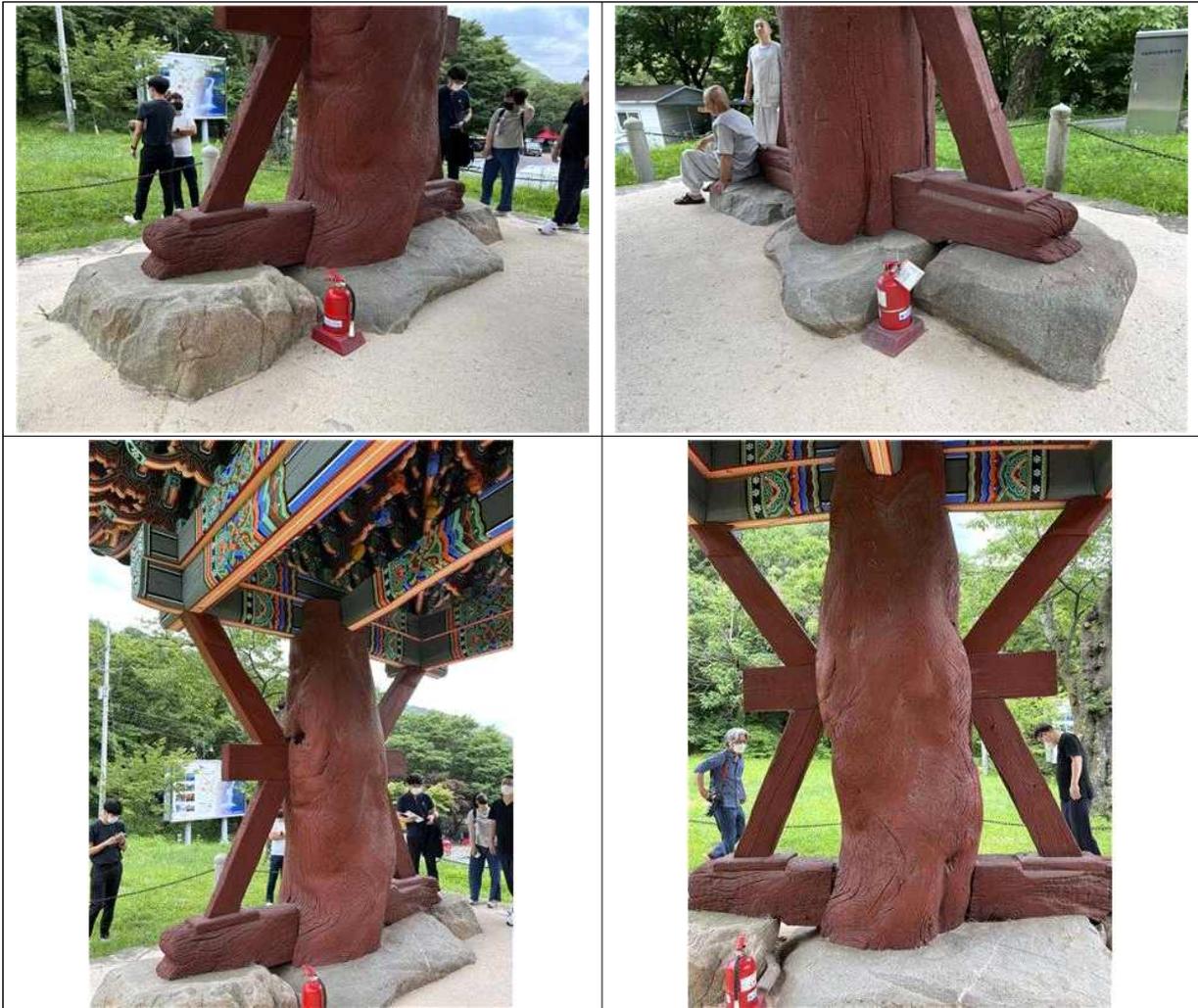
### 3. 건축현황 및 특징

용추사 일주문은 단칸 팔작지붕의 2주의 기둥인 일주문식 구조이며, 기둥 위에 공포를 올린 1칸의 다포계 겹처마 팔작지붕 건물이다.

가구형식은 팔작지붕 모습의 일주문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7량가 구조이며, 공포는 4출목 9포 형식이다.



자연석을 사용한 1단의 낮은 기단 위에 전면에는 디딤석이 배치되어 있다. 그 위에 좌우에 각각 3개의 자연석 초석을 두었다.. 중앙의 초석이 크게 자리잡고 각각 기둥을 그랭이하여 설치하였다. 좌측에는 민흘림 기둥을 우측에는 도랑주를 놓았다. 기둥의 전후 축 방향으로 신방목을 길게 받혔는데 일주문의 신방목과 비교하여 비교적 큰 것을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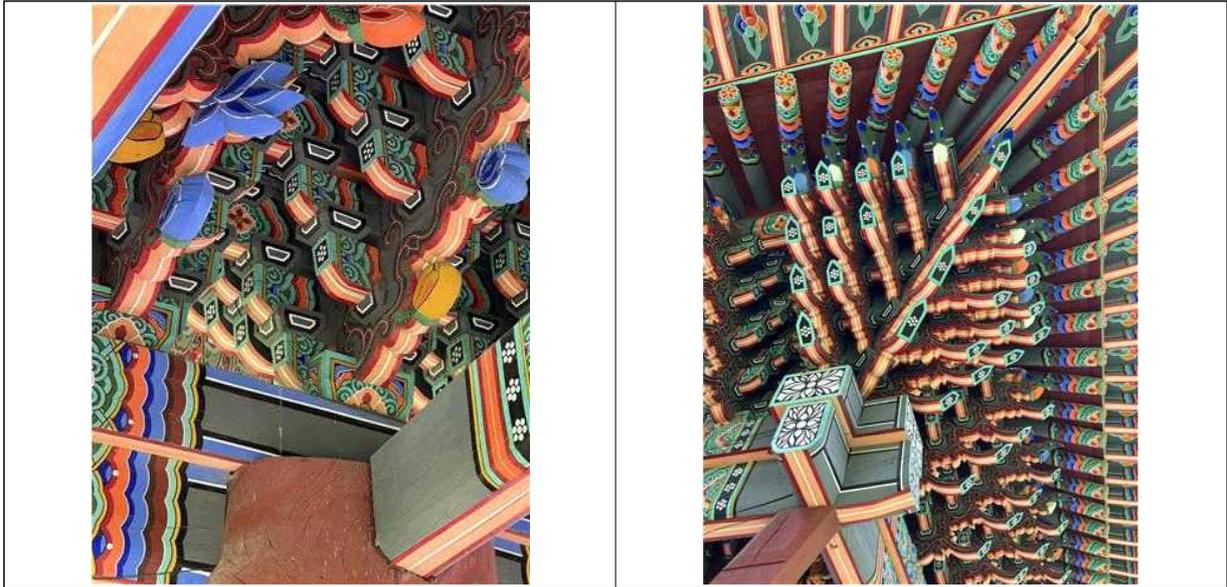


신방목 위로는 사선의 버팀기둥을 앞뒤로 세웠는데 기둥의 중간에 수평보강재를 걸치고 상하로 각각 중보에서 바깥으로 향하도록 사재가 설치한 상하부사재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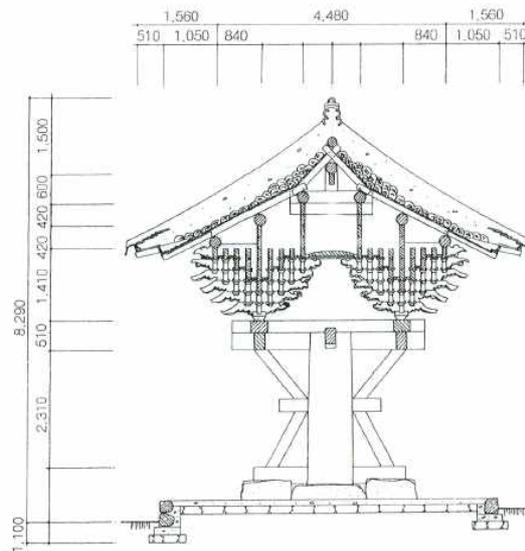
기둥 상부에는 주두 없이 창방과 평방을 두어 공포를 받치도록 하였다. 창방은 기둥에 사괘맞춤으로 결구하였고 두 기둥 사이에 도리방향으로 창방을 두어 연결하였다. 창방은 ‘日’자형 배치, 평방은 ‘口’자형 배치를 하고 있다.

공포의 구성을 살펴보면, 우선 평방 위에 주두를 놓고 주심첨차와 직교시켜 제공을 설치하였다. 그 위에 다시 가로방향으로 제공 상단에 소로를 놓고 2제공과 행공첨차를 직교시키고, 상부로 행공첨차를 늘려 5제공으로 구성되었다. 1~4제공의 쇠서는 양서형으로 되어있고, 5제공의 쇠서는 수서형으로 되어 있다. 5제공 위에는 일반적으로 대량의 머리를

장식하는 봉두형식의 익공이 하나 더 설치되었다. 공포의 외부의장은 초각쇠서형, 내부의장은 연화쇠서형이며, 출목은 외4출목, 내4출목의 구조로 되어 있다. 내부 귀한대열의 의장은 연화형이며, 좌대와 우대는 교두형으로 되어 있다. 귀한대열의 초제공은 초각형, 이삼사제공은 연화형 오제공은 연봉형으로 구성하였다. 내부의 좌대와 우대는 첩차처럼 교두형으로 모두 구성하였으며, 이들은 모두 외부로 돌출하지 않았다.



1992년 수리보고서의 횡단면에서는 내목도리를 외기로 삼고 주간포 위에 부재가 없는 것으로 그려져 있어 보가 없는 무량구조로 판단할 수 있다.



<1992년 수리보고서 횡단면도>

용추사 일주문은 1칸 규모의 팔작지붕 가구법인 사모지붕을 만든 뒤 그 위에 맞배지붕의 헛집을 올려 팔작지붕을 만드는 방식을 취하였다. 외목, 주심, 내목도리에 의지한 추녀를

걸어 사모지붕의 가구를 만들고 추녀의 뒤초리를 건너지르는 지방목을 걸어 상부에 맞배 지붕형식의 헛집을 올려 팔각지붕을 만들었다.

#### 4. 지정가치 및 종합의견

용추사 일주문은 장수사 조계문으로 건립되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사료가 다수 존재하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역사적으로 장수사와 용추사와의 관계는 알 수 있으나 현 장수사지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루어져야 현 일주문의 가치가 더 드러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건축적으로 첨차에서 소첨차의 운두만 살미재의 운두와 같게 하고, 주심대첨차의 운두는 출목첨차의 운두와 동일하게 처리한 점, 내외출목 수가 4출목으로 동일한 점 등과 같은 특징들이 있다.

1992년 수리보고서 종단면도에서 도리는 원형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현재 단면형은 외출목도리는 팔각형 단면이며, 종도리, 주심도리, 내목도리는 원형 단면인 점은 1992년 수리보고서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된다. 또한 일제강점기 오가와 케이키치(小川敬吉)의 사진에는 처마의 양곡이 확인되나 현재는 수평에 가깝게 되어 있는 점은 장기하중에 의한 처짐으로 발생한 변형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았을 때 함양 용추사 일주문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현재 장기하중에 의해 처짐이 생겨 철물로 보강이 이루어진 상태이지만 변형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으로 도지정 문화재로서 보수가 필요하며 보수 공사 시 이전 원형에 대한 고찰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22.07.29.	대상문화재	함양 용추사 일주문	
조사자	성 명	○○○	전공 분야	건축역사 및 이론
	소 속	○○○○대학교	직위(직책)	교수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문화재 명칭	함양 용추사 일주문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세부내용 별첨 참조.(수정 제출)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3 년 07월 27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 1. 연혁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용추사 일주문은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54호 ‘함양 용추사 일주문’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덕유산장수사조계문(德裕山長水寺曹溪門)’이라 쓰인 편액이 걸려 있다.

이 건물은 「용추사편액(龍湫寺扁額, 1809)」과 「용추사적(龍湫寺蹟, 1736)」 의하면 1711년(숙종37) 장수사 일주문으로 건립되었다. 안음장수사여용추암창수원류흥폐부안록(安陰長水寺與龍湫菴創修源流興廢符案錄)에 따르면, 장수사는 487년(신라 소지왕9)에 창건된 사찰로서 인근에 여러 암자를 거닐고 있었다.

장수사는 여말초 무학(無學)이 중창하였고, 조선 초기 박습(朴習)에 의하여 중창된 사찰로 18세기 상언이 「화엄경」을 강의한 것으로 유명했다. 장수사는 『대동지지(大東地志)』의 경상도 안음현 산수 조에 장수사 앞에 용추폭포가 있었다고 기록하며, 이후 사찰은 1680년 화재로 모든 전각이 전소되었고, 1681년 이후 현재 일주문 근처에 법당과 요사를 건립하여 사찰의 면모를 갖추었다. 용추암은 1725년 옛 장수사 터에 건립되었다.

장수사는 1805년 화재로 대부분 소실되어 이후 일주문만을 남기고 복구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1918년 조선총독부 지형도에 장수사가 표기되어 있고, 뒤쪽에 용수사가 표기되어 있다. 이후 용추암은 용추사로 격상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 사찰은 1950 한국 전쟁으로 전소되었고 1959년 현 위치에 중건되었고, 1970년 대웅전이 건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일주문은 1972년 경상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고, 용추사의 일주문 역할을 하고 있다. 이후 일주문은 1975년, 1999년, 2010, 2015년 등 크고 작은 보수를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 2. 입지환경 및 건축 특성

용추사 일주문은 함양군과 거창군의 경계에 있는 기백산의 남측 산자락에 터를 잡고 동남향하고 있으며, 용추사는 일주문에서 북측으로 5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터를 잡고 있다. 일주문은 용추사를 향한 용추계곡로의 동측에 있으며, 그리고 용추계곡로 서측에 용추계곡의 물이 흐르고 있다.

일주문 정면에는 용추계곡 이용자를 위한 주차장이 있고, 배면에는 넓은 평지의 용추계곡 제2야영장이 있고, 용추계곡로가 지나고 있다. 이 넓은 제2 야영장은 장수사의 폐사지다. 이 폐사지는 초창 사찰 건물이 화재로 소실된 이후 중창한 곳으로 현재 일주문만 남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일주문은 현재 용추사 일주문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편액에 쓰인 ‘장수사 조계문(長水寺 曹溪門)’처럼 원래 장수사의 일주문이었다.

일주문의 평면은 정면 1칸으로 주간에 ‘덕유산장수사조계문(德裕山長水寺曹溪門)’이라고 쓰인 편액이 걸려 있다. 주칸은 4,124mm(13.5자 정도) 규모로 간잡이를 했다.

기단은 자연석 기단으로 정면이 이별대고, 배면이 외별대인데, 전면 주차장과 높이 차이가 있어 정면에 자연석 계단 1기가 있다. 기단 위 주초는 자연석으로 기둥 밑의 주초 이외에 신방목을 받치는 주초로 구성되어 있다. 신방목의 주초는 주심 주초 전후에 각 1기가 있다.

기둥은 자연목을 이용한 민흘림기둥으로 자연목의 껍질만을 벗긴 도량주로서 외관상으로 과장되게 커서 상징적 효과가 가장 크다. 기둥은 양갈을 튼 기둥 하부에 신방목을 결구하여 기둥의 하부의 안정감을 느끼도록 했다. 그리고 기둥은 중간에 수평부재를 통장부맞춤하여 상하에 사재를 끼워 상부가 구조적으로 안정하도록 했다. 기둥 상부는 사면의 창방과 평방, 주간열의 창방이 상부 포작의 하중을 받도록 했다. 사재 위 우각 부분의 창방과 평방은 반턱맞춤을 결구되어 있고 빨목이 직절되어 있다.

포작은 다포형식으로 짜여 있으며, 외 4출목 내 4출목 9포작이다. 포작의 구성은 정면과 배면의 주상포 4구과 주간포 10구이고, 좌·우측면의 주간포 6구로 구성되어 있다. 사면의 살미첨차 외부는 초각쇠서형이며, 내부는 연화쇠서형이다. 포작은 첨차와 살미가 6제공으로 구성한 후, 주심에 살미방향으로 동자주를 세워 상부 기존 대량을 받도록 했다. 이런 구성은 창방과 포작의 변형으로 처마의 처짐을 가속하고 있다.

가구는 대량과 종량, 도리, 장여, 동자주, 대공 등으로 구성된 오량가구다. 가구는 사분 변작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후에 동자주를 세우고 종량을 걸어 지붕틀을 구성하였다. 지붕은 겹처마 팔작지붕이다. 지붕의 기와는 중와이고, 추녀마루와 내림마루는 적새 암기와 3단을 쌓고 수키와를 올려 마감했다. 용마루는 착과 부고 위에 적새 암기와 5단을 쌓고 수키와를 올려 마감했다. 합각부분은 기둥 주심열에 짜 맞춤을 하여 지붕 입면을 구성하도록 했다. 내부 천장은 전후좌우 포작의 내 4출목 장여 사이에 우물반자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 3. 건축문화유산으로 가치

용추사 일주문은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54호 ‘함양 용추사 일주문’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덕유산장수사조계문(德裕山長水寺曹溪門)’이라 쓰인 편액이 걸려 있다. 이 일주문은 장수사 소속으로 18세기 초에 건립되었고, 전소와 중창 등을 겪었는데, 한국전쟁 당시 일주문을 제외한 모든 전각이 소실되었다. 현재는 일주문은 장수사 아닌 인근에 있는 용추사 일주문으로 인식되고 있다.

용추사 일주문은 주심열의 기둥 전후에 보조 기둥을 세우지 않고 과장된 크기의 원목의 기둥을 세워 상부 하중을 받도록 했다. 또한, 기둥은 하부에 신방목과 중간에 수평부재 결구한 후, 상하에 사재를 끼워 상부 하중을 받아 아래로 전달하도록 했고, 전후로 방향으로의 움직임을 막도록 했지만, 결구방식과 포작의 처짐 등 구조적 완성도가 떨어진다. 상부 포작은 내외 4출목 다포계 방식으로 과도기적인 모습이다. 일주문은 겹

처마 팔작지붕을 하여 맞배지붕의 일주문과 차별화하고 있다.

용추사 일주문은 초기 장수사 일주문으로 건립되어 사중의 초입 산문으로 역할을 했는데, 이후 그 기능을 상실하고 용추사 일주문의 역할을 하고 있다. 주변의 역사문화 환경의 변화로 일주문은 다양한 변화를 겪었는데, 현재 일주문은 초기 일주문의 역할이 축소되어 과거의 명맥만을 잇고 있다. 그러나 이 일주문은 자연목을 이용하여 과장된 기둥을 사용하고 있어 기존 일주문의 상징성과 지역성을 잘 보여주고 있으므로 문화유산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상으로 용추사 일주문은 함양 용추계곡의 과거 역사문화유산경관의 변화과정을 알 수 있는 불교 문화유산으로 보존적 가치가 있다. 또한, 용추사 일주문은 주변 역사문화 경관에 대한 고찰과 주변 정비를 한 후, 적극적으로 활용할 때 문화유산으로 가치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 ※ 대상 문화재의 핵심 보존가치

용추사 일주문은 18세기 초 장수사 산문으로 장수사의 전소와 중창 등을 겪으면서 장수사 아닌 인근에 있는 용추사 일주문으로 인식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어 용추계곡의 사찰 형성 과정과 역사문화공간 변화를 엿 볼 수 있는 지역의 불교문화유산으로 보존적 가치가 있다. 다만, 현재 일주문은 창건과 관련된 정확한 문헌 및 기타 기록 등에 대한 지속적 고찰과 사찰 산문으로서의 역할을 위한 주변 경관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용추사 일주문은 부재의 구성방식과 결구방법이 과도기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자연목 기둥 사용과 포작 구성 등의 차별화를 통해 산문의 상징성과 지역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으로 용추사 일주문은 주변의 역사문화 환경의 변화에도 기존 기능 및 역할을 했고, 현대기에 이르면서 일주문으로서 역할이 다소 축소되었지만, 불교문화유산으로 보존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치 회복과 지속성 유지를 위한 역사문화경관에 대한 고찰과 주변 정비를 한 후, 적극적으로 활용할 때 불교문화유산으로 가치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 3. 곡성 태안사 일주문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 가. 제안사항

전남 곡성군 소재 「곡성 태안사 일주문」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전남 곡성군 소재 「곡성 태안사 일주문」을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항은 2023년 건축문화재분과 제8차 회의(2023.08.17.)에서 원안가결된 사항으로, 예고기간('23.08.28~'23.09.27) 동안 별도의견 없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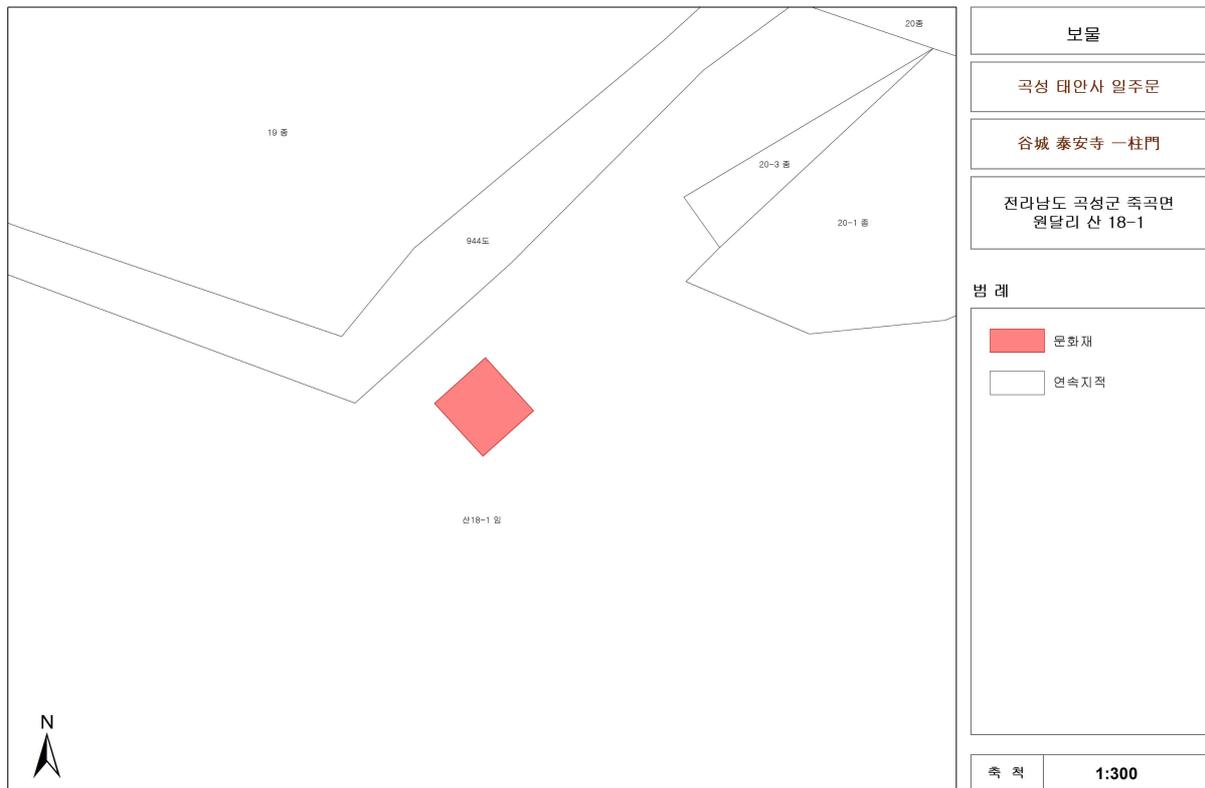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전남도지사
- (2) 대상문화재 :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태안사일주문」
  - 소재지 : 전라남도 곡성군 죽곡면 원달리 산 18-1
  - 지정일 : 1981. 10. 20.
- (3) 신청내용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 명칭 : 곡성 태안사 일주문(谷城 泰安寺 一柱門)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태안사
  - 소재지 : 전라남도 곡성군 죽곡면 원달리 산 18-1
  - 조성연대 : 조선시대(1766년 중건)
  - 수량 : 1동
  - 지정면적 : 48.0m<sup>2</sup>
  - 구조/형식/형태 : 목조 / 다포계 / 맞배지붕

라. 현지조사 의견(2023.01.27. /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 문화재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 문화재전문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 문화재전문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마. 지형도면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원안가결 8명

##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23.02.03	대상문화재	곡성 태안사 일주문	
조사자	성 명	○○○	전공 분야	건축역사
	소 속	○○대학교	직위(직책)	교수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문화재 명칭	곡성 태안사 일주문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검토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세부내용 별첨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3 년 3 월 31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 1. 입지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곡성 태안사 일주문은 전라남도 곡성면 태안로 622-215(원달리 산 18-1)에 소재한다. 태안사는 신라 하대 선종구산(禪宗九山)의 하나인 동리산문(桐裡山門)의 중심 사찰로 알려진 유서 깊은 고찰이며, 현재는 대한불교 조계종 화엄사의 말사이다. 태안사가 자리한 뒷산은 봉두산(鳳頭山, 752m)으로 절은 해발 고도 250~300m 사이의 남서사면에 위치하며, 사방으로 산이 둘러싸여 깊숙하고, 곡성, 구례, 화순, 보성의 어느 읍으로부터도 멀리 떨어져 있고, 오히려 남쪽으로 송광사 및 선암사가 자리한 조계산이 직선거리 16km 남짓의 산길로 이어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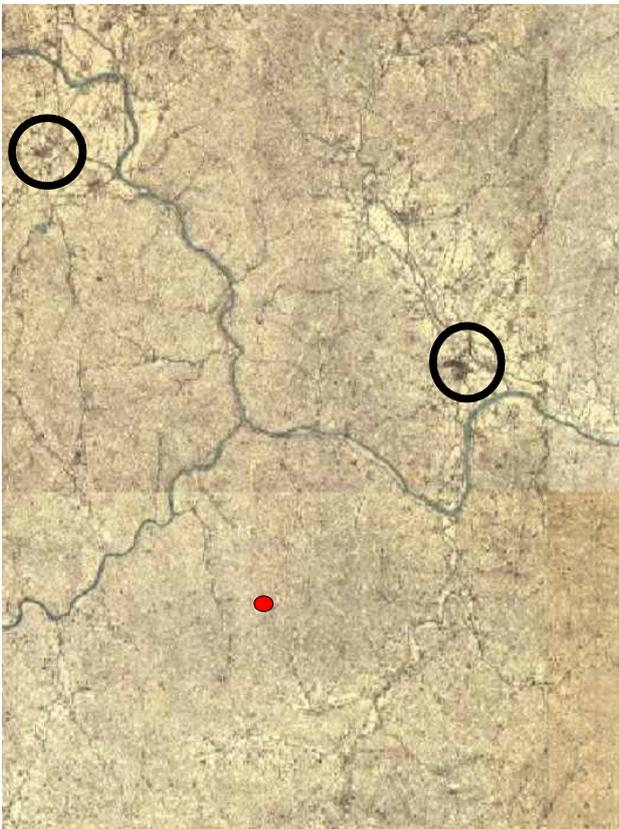


그림 1. 태안사(붉은 점)와 곡성(왼쪽 위) 및 구례(오른쪽)의 위치도 (국토정보플랫폼 근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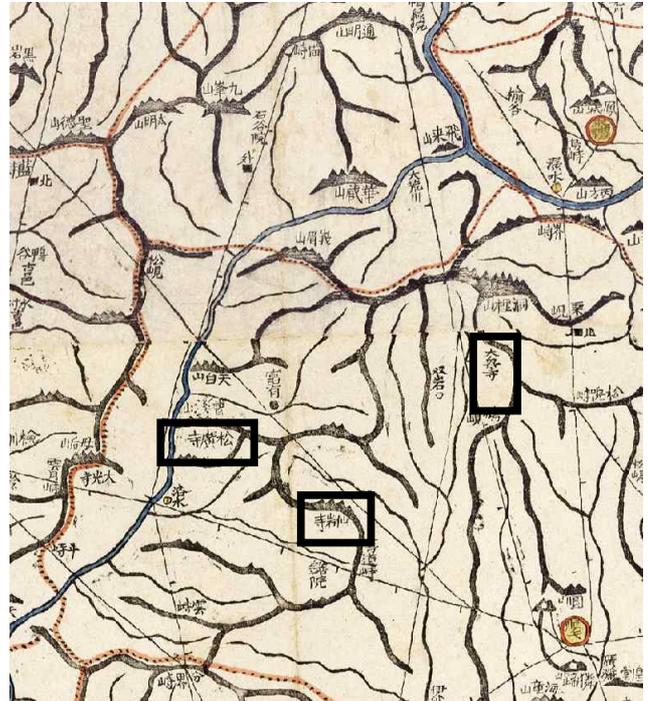


그림 2. 「대동여지도」(1861,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청구번호 奎에10333-v.1-22) 부분) 표기된 송광사, 선암사 및 태안사(大安寺로 표기됨)와 동리산(洞裡山).

동리산에 대해선 역사기록에 따라 ‘桐裏山(「적인대사탑비」, 「광자대사탑비」, 『신증동국여지승람』)’, ‘桐裡山(『동국이상국집』)’, ‘棟裏山(『동문선』)’ 등의 여러 이름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철종 연간에 편찬된 「대동여지도」에서는 또 다른 한자를 사용한 ‘동리산(洞裡山)’으로, 그리고 그 후 고종 연간에 편찬된 「곡성현지도」(1872)와 근대기 이후의 지도에서는 같은 자리에 위치한 산을 봉두산(鳳頭山)으로 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곡성현지도」에는 산 이름은 봉두산으로 표기했지만, 절 아래 보성강가에 있는 마을 이름 가운데 ‘桐裏’가 있다. 태안사(泰安寺)라는 사명 역시 옛 기록에 따라서는 대안사(大安寺), 태안사(太安寺) 등으로 표기되기도 한다. 한편, 현재의 일주문에 있는 편액은 정면에는 ‘桐裏山 泰安寺’라 쓰고 뒷면에는 ‘鳳凰門’이라 하였다. 봉황이 깃드는 나무가 오동나무이니, 봉황과 오동은 서로 연관되어 있고 지명도 이처럼 서로 혼용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림 3. 「곡성현지도」 (1872)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 (청구기호 奎10509) 부분)



그림 4. 태안사의 전각 배치와 일주문의 위치. 능파각은 사진의 바깥 왼쪽에 있다. (『곡성 태안사 일주문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요청자료보고서』, 2022, 곡성군(이하 『자료보고서』로 약함) 수록 사진에 표기 추가)

태안사는 장흥의 웅치(熊峙)에서 발원하여 북으로 흘러 보성군의 중앙부를 관통하고 순천시의 서북부를 지나 곡성군으로 들어와 압록(鴨綠)에서 섬진강으로 합류하는 보성강의 하류 동편에 위치한다. 태안사가 자리한 태안사 계곡은 다시 보성강의 지류인 죽곡천의 지류에 해당하는 작고 깊은 골짜기이다. 하지만 이 태안사 계곡은 과거 곡성에서 순천으로 이어지는 주 교통로 상에 위치함을 「대동여지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 참조) 즉, 지금은 곡성(압록)에서 순천으로 가는 국도가 섬진강을 따라 구례구까지 가서 황전(黃田)을 거쳐 월등(月燈)을 거쳐서 가지만, 조선시대의 교통로는 압록에서 보성강을 따라 조금 남하한 뒤 죽곡천 계곡을 따라서 고개를 넘어 월등으로 가는 빠른 길을 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봉두산(동리산)을 기준으로 본다면 동쪽으로 돌아가는 강변길인가 서쪽으로 돌아가는 산길인가의 차이이다.

태안사는 압록에서 월등으로 이어지는 서쪽 산길에서 조금 벗어난 봉두산의 남서쪽 아래 사면에 위치한다. 보성강의 지류의 지류, 작은 골짜기를 따라 오르다 보면 계곡을

가로질러 3칸x1칸 규모의 루정인 능파각(凌波閣, 전남 유형문화재 제82호)이 있다. 능파각은 다리의 역할을 하는데, 계곡의 좌우를 왔다 갔다가 하며 오르던 진입로가 능파각을 만나 계곡을 오른편으로 가로질러 사찰 영역에 이르게 된다. 다리를 이용한 것은 지역 내의 선암사나 홍국사의 홍교를 연상케 하는 진입부 처리기법이며, 돌로 만든 아치 다리가 아니라 계곡에 걸친 루정을 두어 정면성을 강조한 수법은 의성 고은사의 가운루(駕雲樓)와 흡사하다. 가운루가 구름을 타고 넘는다면, 능파각은 파도를 타고 넘듯 사뿐사뿐 걸어가는 모습을 표현하며, 모두 불국토로 향하는 마음을 드러낸다.

능파각을 건너 다시 200m 정도 올라가면 바로 전면에 특 터진 개활지가 나오면 그 전면에 일주문이 막아선다. 일주문의 뒤로는 우편에 승탑군이 모여 있는 부도밭이 나오는데, 그 안에 광자대사탑(廣慈大師塔, 보물 제 274호)과 광자대사탑비(廣慈大師塔碑, 보물 제 275호, 950년)가 있다. 광자대사 윤다(允多, 864-945)는 동리산문의 제3조로 고려 태조대에 활동하였으며 태안사(대안사)의 사세를 크게 일으켰음을 비문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근의 화엄사나 송광사가 대안사의 말사였다는 주장은 이러한 고려 초기의 기록에 기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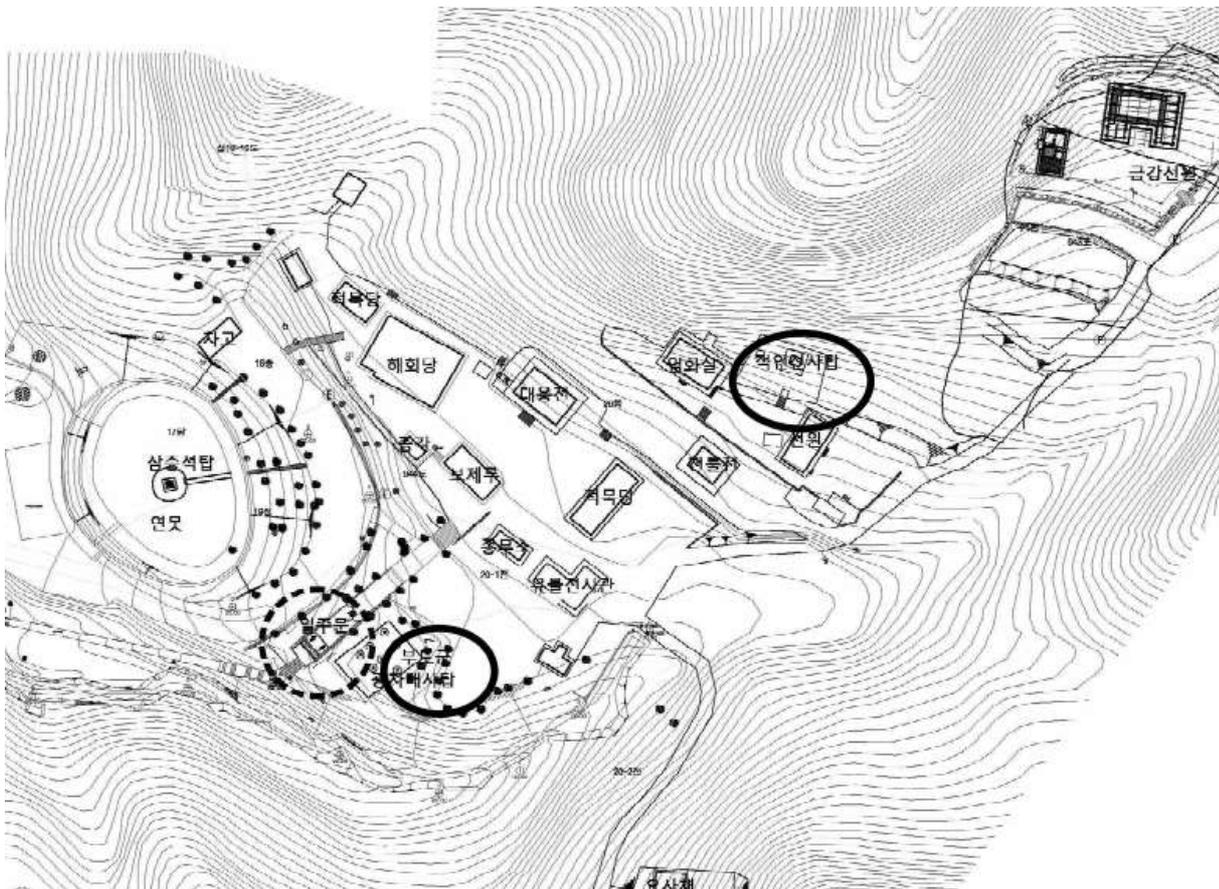


그림 5. 태안사 배치도와 일주문(파선 원) 및 광자대사탑(아래 원)과 적인선사탑(윗 원)의 위치 (『자료보고서』 도면에 표기)

한편 광자대사탑 및 탑비와 함께 태안사의 주요 보물인 적인선사탑(寂忍禪師塔, 보물 제273호)은 사찰의 중심 영역 뒤편 높은 석단 위에 별도의 담장과 문으로 둘러싸인 영역 안에 있다. 적인선사 혜철(慧徹, 785-861)은 속성이 박 씨고 신라말 도성(경주) 사람으로 15살에 출가하여 부석사에서 화엄을 배웠고 22살에 구족계를 받고 30살이 된 814년 중국의 당나라에 건너가 마조 도일(馬祖 道一, 709-788)의 수제자인 서당 지장(西堂 智藏, 735-814)에게서 선종의 법통을 전수받고 839년 귀국하여 태안사에 주석하며 동리산문을 개창하였다. 그와 함께 지장의 법을 받은 제자로 장흥 보림사의 가지산문(迦智山門)의 초조이자 우리나라 선종의 출발점이자 현 조계종의 종조로 여겨지는 도의(道義, ?-?)<sup>1)</sup>와 남원 실상사의 실상산문(實相山門)을 개창한 홍척(洪陟, ?-?)이 있다. 그의 법통은 □여선사(□如禪師), 광자대사(廣慈大師)로 이어지는데, 일각에서는 이 □여선사가 풍수도참설로 유명한 도선(道詵, 827-898)이라고 추정하기도 하고, 이와 달리 □여선사가 태안사에 자리를 잡자 도선은 광양의 옥룡사로 분계하였다고 보기도 한다.



그림 6. 적인선사탑과 탑비(최근에 새로 만든 것)가 모셔져 있는 영역의 외곽 및 내부 (2023.2.3. 촬영)

1) 1941년 조계종의 초대 종정이 된 漢巖 重遠(方漢巖, 1876-1951)이 1930년에 발표한 ‘海東初祖에 대하여’라는 글에서, 해동 조계종의 초조는 중국의 馬祖 道一 문하의 西堂 智藏에게서 법을 전수한 道議를 해동 조계종의 초조로 세우고, 보조 지눌의 수선사 계통이 선종 9산의 조계종을 계승하였다는 논지를 펼치고 있다. (김영태, ‘錦溟 寶鼎의 浮休系 정통론과 曹溪宗 제창’, 『한국문화』 37호. pp.157-189. 2006. 참조)



그림 7. 일주문 우측의 부도밭에 자리한 광자대사탑 및 탐비 (2023.2.3. 촬영)

선종구산의 하나라는 역사적 중요성과 신라말 고려초의 대선사인 적인선사 및 광자대사의 승탑과 탐비를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하면, 건축 유구나 현재의 사세는 미약하다. 고려초 광자대사의 시기만 하더라도, 고려 태조로부터 하사받은 것만 하더라도 500결의 전답과 143결의 시지(柴地)와 염전 그리고 23구의 노비가 있었다고 하니, 그 사세를 짐작할만한데, 고려 중기 이후 인근의 송광사 등이 선종의 중심 사찰로 성장하면서 상대적으로 사세가 기울었다고 추정된다.

한편, 태안사는 명문이 남아있으며 국내에서 가장 큰 바라로 알려진 곡성 태안사 청동 대바라(보물 제956호, 1454년 개조, 지름 92cm)와 1457년(세조 3)에 처음 주조된 태안사 동종(보물 제 1349호, 1581년 개조) 등의 국가급 금속 유형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다. 1450년대에 이처럼 두 가지의 중요한 불교 문화재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태안사가 효령대군(孝寧大君, 1396-1486)의 원찰이 된 것과 관련이 있다. 효령대군은 불교에 독실하였으며, 양주 회암사의 중수와 도성 내 원각사의 창건을 주도하였을 뿐 아니라, 서울 흥천사와 용문산 상원사, 강진 만덕사 등 많은 절과 관련된 불사에 관여하였고, 태안사에서는 동종과 청동 바라의 조성에 기여하였다.

이런 연고로 태안사에는 효령대군의 영당이 있었음을 고종조의 「곡성현지도」에서도 확인된다. 그 자리는 지금 연못이 조성되어 있는, 중심 영역의 서편으로 생각되지만 현전하지 않는다.

## 2. 연혁

적인선사 혜철(慧徹, 785-861)이 귀국하여 태안사에 주석하며 동리산문을 연 것이 839년의 일이니, 태안사는 이미 그 전부터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7년 일주문 수리공사시에 발견된 필사 문건인 「전라도 곡성군 동리산 태안사 선공의(全羅道谷城郡桐裏山泰安寺禪共議)」(이하 「선공의」)에서는, 비보(裨補)의 시창(始創)은 742년(天寶 元年 壬午) 2월 삼개신승(三箇神僧)에 의한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다.<sup>2)</sup> 연월을 제시한 매우 자세한 기록이지만, 이 문건이 1917년 일주문 개수 공사 시에 새롭게 필사하여 넣은 것이기에 그 원본이 언제 작성되었는지를 알 수 없고, 또 대개 사적기에서는 창건을 올려 잡는 것이 상례이므로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지만 혜철이 태안사(대안사)에 온 847년 이전의 어느 시점, 그리고 경주의 중앙 왕권이 크게 약화되고 지방 세력들이 일어나는 8세기 후반에서 9세기 초 사이를 태안사의 창건 시기로 보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선공의」에는 창건과 혜철에 대한 간략한 연혁 외에 불당과 불상, 탕화와 관련된 기록이 나오며, 비슷한 내용이 『동리산태안사사적』에도 기재되어 있다. 여기서 눈에 띄는 부분이 크기가 다른 2존의 철조불상에 대한 기록이다. 실제로 태안사에서는 2001년 적묵당 터에서 철제 불수(佛手)가 발굴되어, 앞선 기록의 신빙성을 높여 주었다. 이 철제 불수의 제작 시기에 대해선, 앞선 기록과 함께, 선종구산과 철불의 친연성, 즉 장흥의 가지산문, 남원의 실상산문, 보령의 성주산문 등에서 모두 철불이 봉안되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동리산문의 개창조인 혜철의 시기 혹은 혜철의 법손으로 고려초 태안사를 크게 일으킨 광자대사 윤다 시기의 조성일 것으로 추정된다.

적인선사와 함께 보물 승탑을 남기고 있는 광자대사 윤다(允多, 864-945)는 태안사에서 승려 생활을 시작하였으며, 고려 태조로부터 많은 재산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서, 태안사가 9세기~10세기에 걸쳐 지역의 범주를 벗어나 국가적 차원에서도 중심 사찰로 성장하였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이들 두 고승의 탑비에는 태안사가 아닌 대안사(大安寺)로 기록되어 있지만, 조선 전기의 문헌인 『신증동국여지승람』 이후의 기록에는 한결같이 태안사(泰安寺)로 기록되어 있다. 고려후기에서 조선 전기에 이르는 어느 시기에 그 표기법이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 고려 중기에 들어서서, 보조국사 지눌(知訥, 1158-1210)이 1188년 팔공사 거조사에서 정혜결사(定慧結社)를 조직하고, 1200년에는 송광산 길상사(현재의 송광사)로 옮겨 주석하면서 이후 조선 초기까지 16명의 국사(國師)를 배출하는 등 송광사의 위세가 크게 커지게 되면서, 태안사는 상대적으로 사세가

2) 『자료보고서』의 국역문에서는, 시창과 개창을 구분하여 시창은 천보 원년, 개창은 원화 9년으로 보았으나, 원화 9년은 바로 뒤에 나오는 개창조인 혜철이 입당한 시기를 알려주는 문구다. 또 함통 3년 비보를 옮겼다고 해석한 것도 혜철이 입적하였다는 내용을 그릇 옮긴 것이다. 원문을 그대로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始創裨補天寶元年壬午二月日不知來所三箇神僧來開創元和九年乙未八日開創祖慧徹國師入唐詣龔公山西堂地吾法師所傳法開城四年己未還國大中元年丁卯二月日到此山住化十五季咸通三年辛巳二月六日遷化’

위촉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사찰 이름이 바뀌는 시기적 상황과 관련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시대 태안사는 태종의 2자이자 15세기 다양한 호불 활동을 펼쳤던 효령대군(孝寧大君, 1396-1486)의 원찰로 중흥의 기운을 받는다. 효령대군은 1417년 갓 스물을 넘긴 젊은 나이에 이미 연강(蓮江)이라는 법명으로 수계를 하였을 정도로 불교에 심취하였으며, 1429년 관악사(冠岳寺)의 삼중창을 시작으로 회암사, 원각사 등의 중창 및 창건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으며, 천안 광덕사, 곡성 태안사, 강진 만덕사 등의 불사, 불경의 번역과 간행, 법회의 개설 등 세종에서 성종에 이르는 긴 기간 동안 왕실의 어른으로서 활발한 호불 활동을 펼쳤다. 이와 관련된 태안사의 유물이 태안사 청동 대바라와 태안사 동종(초조)이다. 둘 다 1450년대의 것이다. 비록 동종에는 효령대군과 관련된 기록이 등장하지 않으나, 그 처음 조성 연대가 청동 대바라를 만든 시기와 3년밖에 차이가 나지 않으므로 충분히 효령대군과의 관련성을 추정할 수 있다.

그다음으로 현황 조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활동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찰 전승의 전적과 문건, 그리고 현판과 상량기문 등을 참고할 수 있다.

먼저 전적으로 태안사와 관련된 것으로 태안사에서 간행된 『청허당대사집』과 『대승기신론소』 두건의 목판본이 남아 있다. 전자는 1666년(현종 7), 후자는 1681년(숙종 7)에 간행되었다. 또, 태안사의 연혁을 전하는 전적으로 『동리산태안사사적』(20세기 초)와 『태안사사적』(綺山 錫珍<sup>3)</sup>, 1941-1943년)의 두 건이 자세하고, 관련된 문헌기록으로, 「원당 완문(願堂完文)」(조선시대), 「성기암신창기(聖祈庵新創記)」(1712년), 「불탄계 자원금 수납부(佛誕契自願金收納簿)」(1930년), 「주지 선생안(住持先生案)」(근대), 「헌답 기일 도추원(獻畚忌日都追願)」(근대), 그리고 「봉산 문선(鳳山文選)」 등이 있다.

또, 현판으로는 「보제루 중창기(普濟樓重創記, 1796년)」, 「봉두산 미타전 중창기(鳳頭山彌陀殿重創記, 1800년)」, 「호좌 곡성현 동리산 태안사 능파각 재중수기(湖左谷城縣桐裏山泰安寺凌波閣再重修記, 1861년)」, 「호좌 곡성현 동리산 태안사 능파각 중창기(湖左谷城縣桐裏山泰安寺凌波閣重創記, 1861년)」, 「곡성 도상면 오리정거 시주박성룡(谷城道上面五里亭居施主朴成龍, 1872년)」, 「상통대고여위의양산대시주(上通大鼓與威儀陽傘大施主, 1884년)」, 「동유록(同遊錄, 1902년)」, 「동유록(同遊錄, 1903년)」, 「곡성군 봉두산 태안사 봉서암 중창기(谷城郡鳳頭山泰安寺鳳棲庵重創記, 1921년)」, 「전라남도 곡성군 동리산 태안사 부도전 헌답시주 축원문(全羅南道谷城郡桐裏山泰安寺浮屠殿獻畚施主祝願文, 1924년)」, 「미타전 소종기(彌陀殿小鍾記, 조선말~근대)」, 「능파각(凌波閣, 조선말~근대)」, 「제루 시판(題樓 詩板, 조선말~근대)」, 「시판 4종

3) 綺山 錫珍(1892-1968, 林 錫珍) 錦溟 寶鼎의 제자로, 송광사 주지를 지내고 『松廣寺誌』 등을 편찬한 근대 불교계의 중심 인물.

(詩板, 조선말~근대)」, 「성기암 칠성각 중수 방연록(1948년)」 등이 있다.

2017년 일주문의 보수공사 시에 종도리 하부에서 1917년 일주문 중수시에 기록한 문서와 함께 당시의 주지 영월(映月)이 필사한 기문 여러 건이 발견되었다. 이 상량문서와 「전라도 곡성 태안사 개창기」의 기문 내용을 종합하면, 일주문은 1521년(明 正德16년 辛巳) 조계일주문(曹溪一柱門)으로 창건되었고,<sup>4)</sup> 1648년(順治 4년 戊子) 중창, 1702년(康熙 41년 壬午) 중중창, 1766년(乾隆 31년 丙戌)의 4중건, 그리고 1917년(세존응화 2944년 丁巳) 2월 14일 개선(改繕)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기록에 따라 연호와 간지에 오기가 섞였지만, 중창과 중건, 개선 등의 작업에 대한 인식을 뚜렷이 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1766년의 4중건 기록과 관련해서는, 4월 염일(念日, 20일) 시역하여 6월 삭2일(朔二日, 2일) 상량하였다고 하는 구체적인 일자가 기록되어 있을 뿐 아니라, 참여하였던 장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서 신빙성을 높이고 있다.

화주 겸 편수는 태운(太允), 부편수는 기현(起玄)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태운은 그보다 앞서 1766년 태안사 능파각의 중수와 1799년 태안사 대웅전의 중창 편수도 맡았을 뿐 아니라, 1759년 보성 대원사 극락전의 중건 부편수로 참여했다고 전한다. 한편 대원사 극락전의 중창의 첫 편수는 현정(玄淨)으로 확인되며, 현정은 1754년 해남 미황사 대웅보전의 3중창에 부편수로 참여하였다. 이때 미황사 대웅보전 3중창의 상편수는 쾌행이고 부편수가 현정과 정심(定心)이었다.

이상의 장인 계보를 정리하면, 1754년 미황사 대웅보전 (쾌행 - 현정, 정심) > 1759년 대원사 극락전 (현정 - 태운) > 1766년 태안사 능파각 (태운) > 1776년 태안사 일주문 (태운 - 기현) > 1799년 태안사 대웅전 (태운) > 1809년 태안사 능파각 중수 (태운 - 기현) 등으로 장인 계보가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쾌행-현정-태운의 계보상에 있는 건물들의 건축적 기법의 전수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한편, 일주문 용마루의 양쪽 끝에 있는 망와에서 명문이 확인되었는데, “... / 嘉慶十四己巳造瓦片手姜聖元 / 都監宜逸住持永惠”이라 관독된다. 嘉慶14년은 1809년으로서, 이 해는 능파각의 중수가 있었던 해이며, 의일(宜逸)과 영혜(永惠)는 모두 이 시기 무렵에 주지 소임을 한 태안사의 승려들이다. 그런데 같은 모양의 기와가 보제루에도 남아 있으며(모양은 같으나 명문은 보이지 않는다), 정작 능파각의 기와는 모두 신재로 교체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들 기와가 1809년 능파각의 중수 시에 두 건물용으로 함께 만들어졌거나, 혹은 근래에 능파각의 기와를 교체하면서 구기와의 일부를 두 건물로 옮겼을 가능성이 있다.

이들 기록이 모두 1917년에 새로 작성되거나 혹은 재필사된 것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4) 일주문을 조계문이라 이름한 것은 인근한 순천 선암사나 송광사의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이러한 내용을 정리하면, 태안사의 일주문은 1521년 처음 만들어져서, 1776년에 새로 세운 것을 1917년에 수선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후 근대기에 들어서 태안사는 한국전쟁 때 빨치산과 토벌대 사이의 전투로 인하여 15채의 건물이 불타는 큰 피해를 입었다. 당시 전화를 피한 건물이 해회당(海會堂), 보제루(普濟樓), 염화실(拈花室), 선원(禪院, 동일암 편액), 일주문, 능과각 정도이다. 현존의 일주문은 1975년 번와와 수리 그리고 1976년 단청 공사를 하였고, 1980년 보수 공사를 하였으며, 1981년 10월 20일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 83호로 지정되었다. 이후 1993년에는 연목 이상 해체보수하였고, 2017년에는 다시 초석 이상 전체를 해체 보수하고 2019년 새롭게 단청하였다.

### 3. 건축적 특징

태안사 일주문은 단층의 낮은 기단 위에 두 개의 주 기둥을 세우고, 기둥 머리에 창방과 평방으로 짜인 직사각형의 울거미를 만들어 끼운 다음, 그 위에 다포식의 공포를 올려 보와 도리, 서까래를 차례로 쌓아 겹치며 맞배지붕을 받치고 있다. 주기둥의 전후로 각각 보조 기둥을 4분 두어서 창방과 평방으로 짜인 울거미의 네 모퉁이를 밑에서 받치고, 주 기둥의 머리엔 홈을 파서 창방을 끼워 고정하였다.

주 기둥 전후로 각각 보조 기둥을 두어 창방과 평방으로 짜인 울거미를 만들어서 그것으로 지붕틀의 토대를 삼는 것은 일주문 대부분에서 선택하는 방식이며, 미세한 차이는 주 기둥 두 개 사이를 잇는 창방(혹은 창방과 평방)을 두느냐 안 두느냐에 있다. 즉 지붕틀을 받치는 토대를 口자 모양으로 짤 것인가, 日자 모양으로 짤 것이냐의 차이이다. 태안사 일주문에서는 주 기둥 사이에 창방을 두지 않았다.

또 지붕의 형태는 팔작 또는 맞배 지붕이 사용되는데, 앞뒤 방향으로 폭을 넓게 가지기 어려운 지붕틀의 토대로 팔작이나 우진각 지붕을 만들기는 어렵다. 팔작이나 우진각 지붕은 지붕의 네 모퉁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추녀가 있어야 하며, 추녀의 뒷뿌리를 누르기 위한 장치도 필요하므로 소규모 지붕에서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림 8. 1971년 태안사 일주문 (출처 : 공유마당, 『자료보고서』에서 재인용)



그림 9. 태안사 일주문 (2023.2.3. 촬영)

하지만 일주문은 사찰로 진입할 때 처음 마주치는 문이며, 절의 이름을 단 편액을 걸어 두는 정문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포는 화려한 다포식의 공포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포 중에서도 출목수가 3출목 이상으로 크고 복잡한 것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는 단지 화려함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출목의 내뺨음을 이용하여 지붕의 크기를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각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일주문의 지붕 형식으로는 맞배 지붕과 팔작 지붕이 모두 두루 사용된다. 대구 동화사 봉황문(1633년), 하동 쌍계사 일주문(1641년), 함양 용추사 조계문(1702년), 구례 천은사 일주문(1723년), 상주 남장사 일주문(19세기) 등이 팔작지붕을 가진 일주문의 사례이다. 맞배지붕을 가진 사례는, 순천 선암사 일주문(1540년 중창), 부산 범어사 조계문(1613년), 문경 봉암사 봉황문(1723년 이전), 완주 송광사 일주문(1718년), 창원 불곡사 일주문(19세기) 등이 있다.

태안사 일주문에서 두 개의 주 기둥 사이의 중심간 거리는 3,720mm로서, 영조척을 308mm로 둔다면 12.07척이 된다. 한편, 주 기둥과 전후의 보조 기둥 사이의 중심간 거리는 약 900mm로서 3척에 가깝다. 그러므로 창방과 평방으로 짜인 울거미의 가로세로 크기는 약 1,800mm x 3,720mm (약 6척 x 12척)로 1대 2의 비례를 갖는다.

주 기둥의 굵기는 약 900mm이고, 보조 기둥은 210mm~240mm 정도의 지름을 갖는다. 기둥의 높이는 초석의 높이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기단 상면에서부터 2,740mm

이고, 기둥 머리에서 짜인 창방은 단면의 폭이 210mm, 춤이 330mm이다. 보조 기둥은 창방 아래를 받치고 있으므로 기단 상면에서 2,410mm 높이를 갖는다. 평방은 단면의 폭이 360mm이고 춤이 240mm로, 창방보다 한 치씩 큰 부재를 놓여서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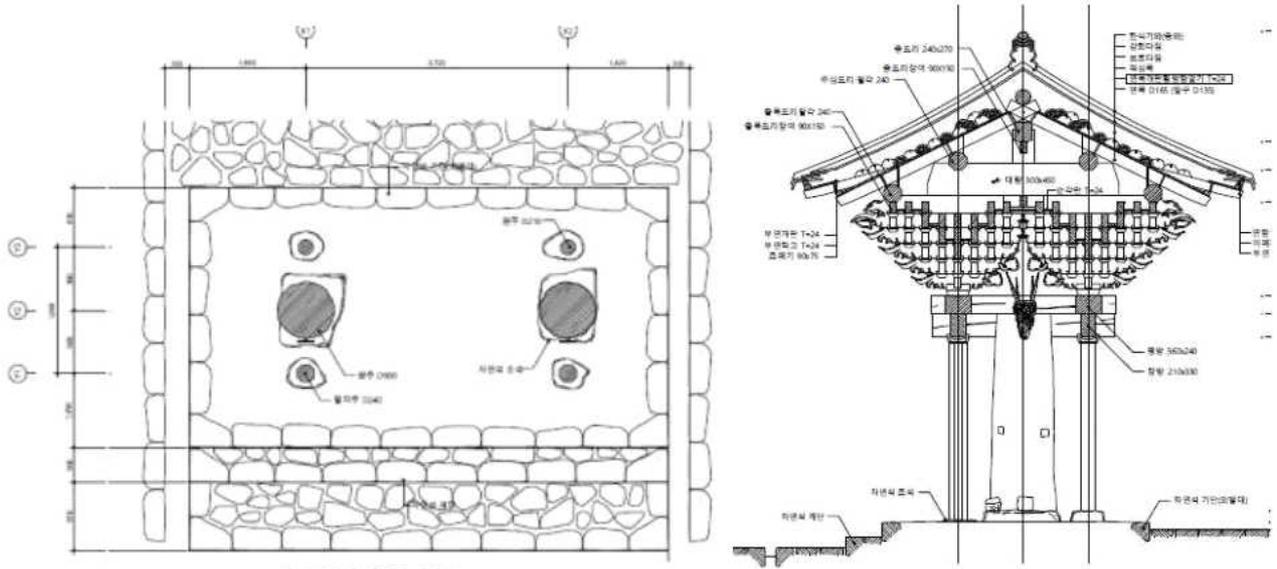


그림 10. 태안사 일주문 평면도와 단면도 (『자료보고서』에서 전재)

공포는 네 모퉁이에 전각포를 두고, 전후면에 주간포가 3구씩 모두 6구, 그리고 양 측면의 주 기둥 위로 주상포를 한구씩 2구 해서 모두 12구가 있다. 주간포와 측면포 모두의 4출목, 내 3출목이며, 내단의 초각이 조금 다를 뿐 나머지 부분은 전후면 주간포와 측면 주상포가 같은 모양이다. 다포식 건축물에서 외부의 출목수보다 내부의 출목수가 작은 것은 일주문 외에서는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드문 일이다. 여기서 내부의 출목수가 작아진 것은 전후면의 중심간 간격이 1,800mm밖에 안되는 작은 크기인 상황과 관련이 있다. 실제로 제공의 구성은 내외에 차이가 없이 똑같고, 또 내외 출목의 간격도 동일하다. 그런데 바깥쪽으로는 한 단에 225mm씩 네 번 출목하여 900mm 나간 곳에서 4출목침차와 5제공이 짜이고, 그 위에 소로를 두어 출목도리와 장여를 받치고 있는데, 내단에서는 주두의 중심에서 900mm 나간 곳에서 전·후면 공포 5제공의 끝단이 만나게 되므로, 따로 침차를 두어 출목을 만들지 못하게 된 것이다. 문제는 측면의 주상포인데, 이 측면 주상포는 안쪽으로 900mm 나간다고 하여 다른 공포와 부딪히지 않고 4출목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그렇게 하지 않고, 다만 제공의 내단에 연봉 등의 장식적인 초각을 덧대는 것으로 마감하였다. 즉, 전후면의 주간포에서는 일제공과 2제공의 내단에만 연봉을 초각하여 내밀었지만, 양 측면의 주상포에서는 5제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제공의 내단에 연봉을 초각하여 장식하였다.



그림 11. 주 기둥 머리에 짜인 창방의 울거미 (『자료보고서』에서 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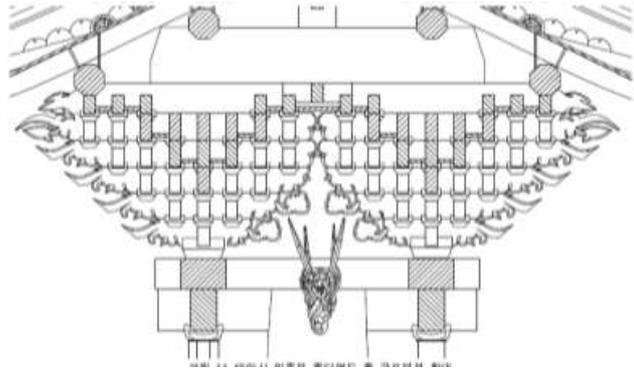


그림 12. 태안사 일주문 공포 (『자료보고서』에서 전재)

제공 살미의 외단은 양서형의 쇠서를 두고 그 아래를 초각하였으며, 최상단에 놓인 6계공의 외단은 봉두를 초각하였다. 출목수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양서의 곡과 양서와 초각이 함께 있다는 점 등은 해남 미황사 대웅전(1754년 3중창, 1822년 중수)과 영광 불갑사 대웅전(1764년 중수)의 공포에서 보는 것과 매우 흡사하다.



그림 13. 태안사 일주문의 전면 처마 (2023.2.3. 촬영)



그림14. 태안사 일주문 내부 공포 (2023.2.3. 촬영)

주변 환경 편에서 살펴보았듯이, 태안사는 산길로 조계산의 선암사와 송광사와 연결되어 있다. 마침 선암사 일주문(1719년 중창)과 송광사 일주문(1809년 중창)도 다포계의

맞배지붕이며, 전면에 주간포를 3구씩 가지고 있고, 측면에는 주상포 2구와 전각포 4구를 포함하여 모두 12구의 포를 가지고 있는 점 등에서 기본적으로 같은 구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또 주 기둥의 머리 부분에서 안쪽으로 창방과 직각으로 용머리를 초각한 부재를 짜넣은 점도 같고, 세문 모두 조계문으로 불리었다는 점에서도 같다. 매우 뚜렷한 지역적 특색이라고 볼 수 있다.

차이는 선암사 일주문의 경우, 전후의 보조 기둥을 사용하지 않고, 달대공으로 창방과 평방으로 짠 울거미의 모퉁이를 짰다는 점이고, 이러한 드문 처리 방식은 2022년 선암사 일주문이 보물로 승격되는데 참고가 되었다. 세부적인 공포의 형식은 외 4출목이라는 점은 세 건물 모두에서 같으나, 내부의 출목은 선암사 일주문의 경우 내 3출목에서 전후의 제공이 만나고 송광사 일주문의 경우 내 4출목에서 전후의 제공이 만나고 있다. 즉, 외출목은 세 곳의 일주문이 모두 4출목인데 반하여, 내출목의 경우 선암사 일주문이 2.5출목(내3출목에서 전후의 출목이 만나므로, 임의로 출목수를 반으로 표현한 것임, 송광사 일주문의 경우도 마찬가지), 태안사 일주문이 3출목, 송광사 일주문이 3.5출목의 형식으로 조금씩 차이를 갖는 점이 흥미롭다. 시기적으론 뒤로 갈수록 내출목의 수가 조금씩 늘어감을 알 수 있다. 송광사 일주문의 경우 내4출목의 자리에 첨차를 하나 두어, 전후의 제공이 만나고 있는데, 태안사 일주문에서는 첨차를 두지 않았을 뿐 전후공포의 내3출목 첨차 사이의 간격은 송광사와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져 있다. 그러므로 세 절의 일주문이 모두 비슷한 건축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공포 형식이나 보조 기둥의 사용 등으로 보면, 송광사 일주문과 태안사 일주문이 더 비슷한 형식을 갖고 있다.

또 다른 차이는, 일주문 주변의 담장과 기단 앞 계단의 처리 기법에서 볼 수 있다. 즉, 선암사 및 송광사의 일주문은 전면의 길에서 한 단 높은 사찰의 중심 영역으로 올라가는 경계부에 위치하므로, 일주문의 전면에는 계단이 놓이고, 일주문의 좌우측으로는 낮은 담장을 쳐서 내외를 구분하였다. 이에 비하여 태안사 일주문은 계단을 오른 다음 수미터를 지난 다음에 단층의 기단을 쌓고 그 앞에 한 단의 계단을 두었고, 이 같은 내용은 옛 사진과 2017년 보수공사 『수리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다만, 일주문 주변의 경관은 현황과 큰 차이가 있어서, 일주문을 지나면 바로 좌우로 높은 나무들이 줄지어 있어서 보제루로의 통로에 위요감을 주고 있었다. 지금은 주변 나무를 모두 베어내고, 또 통로 왼편으로 한 단 낮은 곳에 연못을 파고 그 중앙에 섬을 만들어 삼층 석탑을 세워서 진입 경관에 큰 변화가 생겼다. 원상 회복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림 15. 순천 송광사 일주문(출전:네이버 블로그)



그림 16. 선암사 일주문(2013.8.19. 촬영)



그림 17. 1990년대의 모습(출전:『문화재도록 - 도지정문화재편』, 전라남도, 1998.)

### <종합의견>

곡성 태안사 일주문은 1521년(중종 16) 처음 만들어져서, 1776년(정조 즉위년)에 새로 세운 것을 1917년에 수선한 건물이다. 이후 근대기에 들어서 1950년 한국전쟁 중 태안사에서 벌어진 전화를 다행히 피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후 1975년 번와와 수리 후

1976년 단청 공사를 하였고, 1980년 보수 공사를 거쳐 1981년 10월 20일 전라남도 유형 문화재 제 83호로 지정되었다. 이후 1993년에는 연목 이상 해체보수하였고, 2017년에는 다시 초석 이상 전체를 해체 보수하고 2019년 새롭게 단청하였다.

태안사 일주문은 계곡을 따라 오르던 진입로의 끝, 사찰의 주 영역으로 들어서는 경계 부에 위치한다. 과거의 사진을 보면 일주문부터 보제루에 이르는 수십 미터 길이의 통로 좌우로 수목이 줄지어 서고, 그 우편에 부도받이 놓여 또다른 진입구 경관을 이루었으나, 현재는 주변의 수목을 제거하고 좌측의 하단에 연못을 조성하는 등 개방되어 있어서 일주문 홀로 덩그렇게 놓인 형상이 되었다.

일주문은 단층의 낮은 기단 위에 두 개의 주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창방과 평방으로 口자형의 울거미를 짜었고, 그 위에 공포를 올려 겹처마 맞배지붕을 받치고 있다. 창방과 평방으로 구성된 울거미의 네 모퉁이는 보조 기둥이 받치고, 주 기둥 위에서는 세갈을 터서 측면 창방의 중간부와 용머리를 초각한 부재를 끼워 받치고 있다.

공포는 4구의 전각포, 전후 6개의 주간포, 그리고 양 측면의 주상포 2구 등 모두 12구의 다포식 공포를 사용하였고, 외4출목 내3출목의 구성이다. 제공의 외단은 4제공까지는 양서와 당초문 초각을 하였고, 5제공은 수서와 연봉, 그리고 마지막 6제공은 봉두를 초각하였다. 제공의 내단은 주간포와 측면 주상포가 다른데, 주간포에서는 2제공까지, 그리고 측면 주상포에서는 5제공까지 모든 제공에 연봉초각을 추가하였다.

이러한 공포의 짜임과 전체 구조는 조선 후기 사찰 건축의 시대적인 기법을 잘 보여주며, 상부 지붕틀의 구조와 기둥과 공포의 배열 등은 맞배지붕형 일주문의 전형적인 형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태안사 일주문에서 보이는 맞배형 일주문의 건축 형식과 공포의 구성, 용두형 안초공의 사용, 보조 기둥을 이용한 口자형 창방과 평방의 짜임 등은 인근한 조계산 송광사의 일주문(1809년 중창)과 매우 흡사하며, 사찰의 중심 영역과의 상대적 위치 관계 및 조계문이라 불렀다는 역사 등도 서로 닮았다. 태안사 일주문의 보물 승격 지정에 있어서도 이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 ※ 대상 문화재의 핵심 보존가치

창방과 평방으로 이루어진 상부 지붕틀의 짜임

공포의 짜임과 초각

주 기둥 안쪽에 있는 용두형 안초공 등

##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23.01.27	대상문화재	곡성 태안사 일주문	
조사자	성 명	○ ○ ○	전공 분야	한국건축사
	소 속	○ ○ ○ ○ 대학교	직위(직책)	교수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문화재 명칭	곡성 태안사 일주문(검토 요망)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세부내용 별첨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3 년 7 월 21 일

제출자

○ ○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 1.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 환경

곡성 태안사는 전라남도 곡성군 죽곡면 태안로 622-215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태안사는 곡성군의 남동쪽 봉두산 일대의 신라 하대부터 창건하였다는 역사가 깊은 중심 사찰로 대한불교조계종 제19교구 화엄사의 말사이다. 곡성읍에서 섬진강을 끼고 남쪽으로 17호선 국도를 따라 16km 거리에 섬진강과 보성강이 합류하는 압록유원지서 보성강을 끼고 18호선 국도를 따라 6km 정도 거리에 태안교를 접해서 태안사 들어가는 입구에서 다리를 건너 6km 정도 거리에 죽곡면 원달리 20번지(옛 주소)에 위치한다.

태안사의 배산은 해발 752.9m 높이의 봉두산(鳳頭山)으로 힘차게 솟아 남서쪽으로 흐르는 능선에 가람이 위치하고 있다. 남서쪽의 봉우리 일대를 안대로 하고 멀리 회야산을 조산(朝山)으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봉두산은 북동쪽으로 흐르다 다시 남쪽으로 흘러 능과각 북쪽으로 흘러내리고, 바깥쪽으로는 서쪽으로 길게 840번 도로로 들어오는 입구까지 흐른다. 봉두산은 남서쪽으로 길게 흘러 다시 북쪽으로 틀어 일주문 앞쪽 능선으로 흐르고 다시 서쪽으로 흘러 840번 도로로 들어오는 입구까지 흐른다.

하천은 북동쪽에서 흘러내려 가람을 감싸돌며 다시 북서향하여 돌아 능과각에서 서향하여 흘러내려 동계천에 합류하고 있다. 풍수적으로 산은 간방에 나와 감방으로 떨어지고, 물은 간방에서 나와 곧방에서 깨트려져 각음은 이익이 적다<sup>1)</sup>. 봉두산은 봉황(鳳凰)의 머리 같은 형국에서 나온 것이고, 동리산(桐裏山)이라고도 하는데 오동(梧桐)나무의 안쪽으로 구산선문의 한 문과를 일컫는 이름이다. 이에 봉두산의 봉황과 동리산의 오동나무 관계에서 적인 혜철(785~861)과 광자 윤다스님이 주석하여 널리 이름이 알려진 동리산문 명찰로서 구산선문의 연구에 중요한 사찰이라 할 수 있다.

940번 도로에서 태안사로 들어가는 길을 따라 370여 들어가면 조태일시문학기념관이 위치하고 다시 계곡을 따라 1km 정도 들어가면 태안사 능과각이 하천을 건너 사찰의 옛길로 인도한다. 능과각을 건너 다시 하천을 건너 245m 정도 거리에 높은 돌계단 위에 일주문이 자리하고 동쪽으로 부도군과 곡성 태안사 광자대사탑비 등이 있다. 곡성 태안사 일주문은 현재 가람의 주불전인 대웅전-마당-보제루를 잇는 축선상의 앞쪽에 떨어져 자리하고 있다.

태안사 경내에는 일주문(一柱門, 조선 후기)을 중심으로 대웅전(大雄殿, 1993년), 천불보전(千佛寶殿, 1991년), 염화실(拈花室, 1655년), 선원(禪院, 동일암 편액, 1831년 중건), 보제루(普濟樓, 萬歲樓, 조선 후기), 口자형의 해회당(海會堂, 조선 후기), 삼성각, 적묵당(寂默堂, 종무소, 현대), 적인선사탑, 범종각(梵鐘閣, 현대), 응향각(凝香閣, 현대)·보림원(寶林院, 현대) 등과 능과각(凌波閣, 薦福樓 편액, 1766년) 등이 위치하고 있다. 주변에는 일주문 서북쪽으로 35m 거리에 연못을 파고 섬에 삼층석탑을 세웠고, 190여 m 거리에 충혼탑 일곽을 세우고 있다. 산내 암자는 명적암, 금강선원(혜철암, 金剛禪院,

1) <全羅道谷城郡桐裏山泰安寺禪共議>, 地勢 山從良來坎落 水長出坤破 角音小利...

1991년), 봉천암, 성기암, 봉서암 등이 있다.

문화재현황을 보면, 해철선사의 부도와 탑비인 적인선사 조륜청정탑(寂忍禪師照輪淸淨塔, 861년, 보물 제273호)·윤다의 부도와 탑비인 광자대사탑(廣慈大師塔, 945년경, 보물 제274호)·광자대사탑비(950년, 보물 제275호)·승무를 출 때 사용하던 태안사 대바라(1454년, 보물 제956호)·태안사 동종(1581년, 만력 9년, 보물 제1349호)·능파각(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82호)·일주문(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83호)·삼층석탑(고려 전기,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170호)·태안사(전라남도 문화재자료) 등의 이 있어 곡성군에서 국가문화재 5개, 도문화재 4개로 가장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 그밖에도 적인선사탑비(872년, 신비 1928년)·철제불수(철조약사여래상, 850년~고려 초기)·금고(능가사, 1785년, 건륭 30년)·봉서암 목조아미타여래좌상(1702년)·목조아미타불좌상(조선 후기, 해회당), 목조보살좌상(조선 후기, 해회당) 및 복장(조선시대, 범화경, 다라니)·해회당 앞 석조(조선 후기)·팔각원당형 승탑 2기(고려시대)·석종형 승탑 3기(조선 후기)·목어(조선 후기, 보제루) 등이 있다. 또한 태안사의 암자인 성기암에서 제작봉안된 지장보살도(1739년)와 성기암 칠성도(4폭, 1739년)가 호암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밖에도 곡상 태안사 관련 필사 문서류<sup>2)</sup>, 편액<sup>3)</sup>, 현판<sup>4)</sup> 등이 있다.

곡성 태안사 주변에는 봉두산 태안사를 중심으로 하는 문화재를 중심으로 지역적 특성을 이루고 있다. 그 중에 일주문은 봉두산에서 흐르는 주맥에 현재 가람의 주불전인 대웅전-마당-보제루를 잇는 축선상의 앞쪽에 떨어져 자리하고 있다. 새로 조성된 길을 따라 만나는 일주문은 연못과 사찰 전경 등이 펼쳐지면서 일주문이 왜소화되어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된다. 따라서 태안사 능파각을 건너 옛길을 따라 높은 돌계단 위에 자리한 일주문을 만나도록 해야 위엄 있는 자태와 주변 지형과 어우러져 아름다운 경관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경관적인 측면에서 충혼탑이나 일주문 서북쪽에 연못 등이 수평적으로 확장되어 일주문-보제루-대웅전에 이르는 주축이 약화되어 있다. 이에 1980년 태안사 항공사진(국토

2) 해철국사비명(慧徹國師碑銘, 1757년), 성기암신창기(聖祈庵新創記, 1712년), 원당완문(願堂完文, 조선시대), 선생안(先生案, 1818년), 광자대사비명(廣慈大師碑銘, 1910년), 주지연보(住持年譜, 1919년), 적인선사비송병서(寂忍禪師碑頌並序, 1929년), 동리산태안사사적(桐裏山泰安寺事蹟, 20세기 초), 불탄계자원금수납부(佛誕禊自願金收納簿, 1930년), 태안사사적(泰安寺事蹟, 1941~1943년), 주지선생안(住持先生案, 근대), 헌답기일도추원(獻畝忌日都追願, 근대), 봉산문선(鳳山文選, 근대) 등이 전한다.

3) 동리산태안사(桐裏山泰安寺, 조선후기), 동리산태안사(桐裏山泰安寺, 조선말~근대), 대웅전(大雄殿, 근대), 만일회(萬日會, 1893년경), 해회당(海會堂, 조선후기), 선원(禪院, 조선말~근대), 만세루(萬歲樓, 조선후기), 보제루(普濟樓, 조선후기), 학서루(鶴棲樓, 조선후기), 동일암(東日庵, 조선후기), 배알문(拜謁門, 조선후기), 봉황문(鳳凰門, 조선후기) 등이 있다.

4) 보제루중창기(普濟樓重創記, 1796년), 봉두산미타전중창기(鳳頭山彌陀殿重創記, 1800년), 호좌곡성현동리산태안사능파각재중수기(湖左谷城縣桐裏山泰安寺凌波閣再重修記, 1861년), 호좌곡성현동리산태안사능파각중창기(湖左谷城縣桐裏山泰安寺凌波閣重創記, 1861년), 곡성도상면오리정거시주박성룡(谷城道上面五里亭居施主朴成龍, 1872년), 상통대고여위의양산대시주(上通大鼓與威儀陽傘大施主, 1884년), 동유록(同遊錄, 1902년), 동유록(同遊錄, 1903년), 곡성군봉두산태안사봉서암중창기(谷城郡鳳頭山泰安寺鳳棲庵重創記, 1921년), 전라남도곡성군동리산태안사부도전헌답시주축원문(全羅南道谷城郡桐裏山泰安寺浮屠殿獻畝施主祝願文, 1924년), 미타전소중기(彌陀殿小鍾記, 조선말~근대), 능파각(凌波閣, 조선말~근대), 제루 시판(題樓 詩板, 조선말~근대), 시판 4종(詩板, 조선말~근대), 성기암칠성각중수방연록(1948년)이 있다.

지리정보원)을 보면 일주문을 들어서 보제루로 이어지는 길에 나무가 심어져 과정공간으로서의 공간구성을 고려하여 조성하는 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그림 1 참조)



그림 1. 태안사 일주문 주변 경관

## 2. 연혁·유래 및 특징

### 1) 태안사의 연혁 및 유래

곡성 태안사와 관련된 역사 관련 기록을 창건, 혜철선사의 동리산문, 광자스님의 중흥, 효령대군 원찰, 양란한 후 중창, 근현대 소실 및 복원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태안사의 초창의 정확한 연대를 파악하기 어려

움이 있으나 『동리산태안사사적』에 따르면 신라 742년(경덕왕 원년) 이름을 알 수 없는 세 명의 신승에 의해서 창건되었다고 전하고 있다.<sup>5)</sup> 신라 중대의 전제왕권을 바탕으로 한 안정기는 경덕왕을 고비로 통일 이후의 혼란기로 접어들게 된다.

신라하대 중앙정부가 약화되자 중앙에서 소외되었던 지방호족이 대두되고 기존 교종의 논리를 부정하고 새로운 이념을 내세우며 혼란한 사회 속을 깊숙이 파고들어 지방호족 세력들의 지원을 받아 선종산문이 개창<sup>6)</sup>되어 성장한 것과 같이 태안사도 혜철선사에 의해서 842년경 동리산에 개창된 선문 중의 하나이다. 개창조 혜철국사가 당나라에 들어가 개성 4년 기미년에 본국으로 돌아왔다는 것으로 시작하여 862년(함통 3)에 불상을 모실 전각이 없어 지었다고 하며 당주로 약사여래(堂主藥師如來), 비로자나(堂主毘盧遮那), 석가여래(堂主釋迦如來)가 확인되므로 약사전, 비로전, 대웅전 등의 전각을 지었음<sup>7)</sup>을 추정할 수 있다. 혜철선사는 명성이 높고 고승으로 추앙받자 동리산문도 중요한 사찰로 성장하였을 것<sup>8)</sup>이고 도선이 동리산문으로 들어오는 846년(문성왕 8)까지 태안사에 주석하고 있었다. 혜철선사 당시 태안사의 규모와 건물 그리고 경제력에 대하여

5) 동리산태안사사적(桐裏山泰安寺事蹟, 20세기 초), 일주문 하부의 길상량 목서에 “自唐 天寶 元年 壬午[742년] 6월일 開創”이라 기록되어 742년 개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全羅道谷城郡桐裏山泰安寺禪共議>(탈초 및 국역, 한국학호남진흥원 나상필)에도 “처음 창건한 해는 천보 원년 임오(742년) 2월 일이다. 어디서 왔는지 세 신승이 왔다.”고 한다.

6) 선종의 본격적인 전래는 821년 도의의 귀국으로 시작되지만 빛을 보지 못하고 진전사에 은거하고 만다. 선종이 전국적으로 기반을 잡기 시작한 것은 9세기 중엽 경부터로 선종 조사들이 중국에서 귀국하여 지방에서 성장한 호족의 지원을 받아 각지에서 선문을 개창하기에 이른다.

7) <全羅道谷城郡桐裏山泰安寺禪共議>, 탈초 및 국역, 한국학호남진흥원 나상필 연구위원, ‘비보사찰을 처음 창건한 해는 이라고...’ 시작하는 것으로 보아 고려시대 나말여초에 시각에서 재서술한 것으로 추정된다.

8) <무주동리산대안사적인신사 비송(武州桐裏山大安寺寂忍禪師碑頌并序)>, 문성왕대에는 왕이 직접 글을 내려 혜철스님을 위로하고 사찰의 사방에 살생을 금하는 당을 세우기를 허락하여 사찰을 보호하고 있다. 사신을 보내어 국정에 긴급한 사항들을 자문하고 선사는 이에 답하니 왕은 가상히 여겼다고 비문에 기록되어 있다. 혜철은 신라왕실에서 국정자문을 요청해올 만큼 신라사회에서는 고승으로 추앙받고 있었고 동리산문 역시 중요한 사찰로 급부상했음을 쉽게 추정할 수 있다.

비문에 기록된 내용은 소유전답이 494결(結) 39부(負)이며 시지(柴地) 143결, 염전이 43결이었으며, 사원의 노가 10(名), 비가 13구(口) 모두 23명으로 거대한 사원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혜철의 문하에는 □여(□如), 행종(幸宗), 도주(道誅) 등 수백이 있었다고 한다. □여가 혜철 입적 이후 태안사의 주지를 맡아 동리산문을 이끌자 도선은 옥룡사를 중심으로 도량을 삼았다. □여스님의 다음으로 윤다(允多)가 법을 계승하여 동리산문을 이끌게 된다. 혜철 입적 후 동리산문의 법맥은 혜철의 정통법맥을 이은 태안사계와 도선의 법맥을 이은 광양의 옥룡사계로 분파되면서 발전하여 나갔다.

고려시대 동리산문 태안사는 혜철-□여의 정통 법맥을 잇는 광자스님 당시 고려왕실의 지원으로 중흥을 맞게 된다. 당시 126칸에 이르는 대규모 가람으로 건물 규모 및 방향, 전각 내에 봉안된 불상, 불화류 등이 기록되어 있다.<sup>9)</sup> 『동리산태안사사적』(20세기 초) 잡록의 「광자시대중(廣慈時大中)」에는 복전이 40이었으며 3천석 가까운 곡식과 5백결에 달하는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들 토지는 인근 보성, 승주, 나주, 영광에서 부터 진주, 합천에 이르기까지 모두 여덟 곳에 나뉘어져 있었으며 사원 소속의 노비도 23명이나 되었다. 고려 초기 태안사는 광자대사를 중심으로 사세가 컸을 것으로 추정된다.<sup>10)</sup> 『동리산태안사사적』(20세기 초)의 「高麗太祖二十有年頃光慈禪師重創當時佛像間闍」(928년~937년 사이)에는 2구의 철불상이 봉안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약사불은 철조좌상이고 비로자나불도 철조라 하여 금당에는 주존불(堂主) 약사여래철조좌상(높이 4척 6촌), 식당에는 주존불(당주) 약사철조(높이 3척 3촌)라는 태안사사적의 내용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금당 내벽에는 대범제석(大梵帝釋), 사방천왕(四方天王), 십대제자 그리고 외벽에는 오십오지식(五十五智識)의 벽화가 나란히 입상(並立像)으로 그려졌다고 한다. 철불은 사라졌지만 2001년경 태안사의 적묵당(寂默堂) 터에서 발견된 오른손 불수(佛手)가 라말려초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어 이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sup>11)</sup> 이외 12나한 영정, 대고경, 수가, 좌우익랑 등의 규모 등이 확인된다. 뒷부분에서 액호 동리산 천화루가 검은색 기록, 당탑비(幢塔碑), 5층 석탑 등이 확인된다. 광자대사 이후 동리산문의 법맥이 약화되어가고 고려 후기 무신들은 개경문벌과 결탁된 교종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선종과 천태종을 후원하면서 중앙불교적인 성격을 탈피한 지방불교적 성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한다.

곡성 태안사는 적인선사 혜철과 광자대사 윤다의 탑비에 태안사라 이름하여 태안사(大安寺)라고 불렀을 것으로 추정되나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이나 『호남읍지(湖南邑誌)』·『동리산태안사사적』·『태안사사적』 등에 태안사라고 기록되어

9) 『동리산태안사사적』(20세기 초)

10) 고려 건국에 일조를 한 공으로 선종은 왕실의 보호와 지원을 받으며 교종과 더불어 불교계의 양대산맥으로 발전해 나간다.

11) 손가락 끝 부분이 잘려 나간 상태이며, 손등에는 오래된 주조 유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여러 갈래의 금이 나 있다. 일반적으로 대형 철조여래좌상은 손을 따로 만든 다음 끼워서 고정하였다. 팔 윗부분에 원형의 결구공을 통하여 불수를 팔에 끼운 뒤 고정쇠로 결합하였다. 태안사 철제불수도 팔에 끼웠던 것으로 추정된다.

언제부터인지 확실하지 않으나 조선 초기부터는 ‘대(大)’에서 ‘태(泰)’로 바꾸었을 것으로 추정된다.<sup>12)</sup> 유교이념을 숭상하는 조선의 건국 이후 1407년(태종 7)에 사찰 통폐합으로 88개 사찰을 자복사로 대신하였으나 태안사는 이때 조계종 소속사원으로 명맥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1424년(세종 6)에는 불교의 모든 종파를 통폐합하여 선·교 양종으로 나누고 36개 사찰만을 남겨두게 되는데 태안사는 포함되지 못하였다. 조선시대의 불교 탄압에도 태안사는 여러 사찰과 인연이 있던 태종의 둘째 아들인 효령대군(孝寧大君, 1396~1486)의 원당이 되면서 국가적 비호를 받으며 발전해간다. 1447년(정통 12, 세종 29) 효령대군은 세종과 왕비, 왕세자의 수복을 빌기 위하여 국내 최대의 청동 대바라(보물 제956호, 1988.06.16. 지정)를 발원하고 제작하였다. 1457년(천순 원년, 세조 3) 3월 주조하였다가 파손되어 1581년(선조 14, 만력 9)에 다시 주조된 곡성 태안사 동종(보물 제1349호)이 남아 있다. 대바라와 3년 차이를 두고 있으므로 최초 주조 시 효령대군이 발원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태안사 일주문의 비문으로 태안사 적인선사 조륜청정탑비(大安寺寂忍禪師照輪淸淨塔碑)의 원문으로 추정되는 <무주동리산태안사적인선사 비송(武州桐裏山大安寺寂忍禪師碑頌并序)>에는 효령대군의 수결이 있어 탑비를 만들기 전의 원래 문서를 필사한 자료로 마지막 부분에 효령대군 보(補)의 수결과 함께 “건륭 31년 병술 늦여름[季夏, 하안가] 초하루[朔日] 사찰의 비명을 조계 상량 가운데 옮겨 써서[移書] 저장[藏置]해 두고 만세토록 썩지 않게 할 뿐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sup>13)</sup> 태안사는 효령대군의 발원에 의한 청동 대바라도 세종, 단종연간에 개조되었기 때문에 이 시기를 전후하여 적인선사비의 변화도 있었을 것을 추정하고 있다. 이후 1530년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 불우조에 “태안사재동리산(泰安寺在桐裏山)”이라고 기록되어 사찰이 존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1872년 곡성현지도(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에는 누각형 건물(보제루 추정), 대웅전으로 추정되는 건물, 우측에 석탑과 주변에 3개의 부속건물 그리고 소로 왼쪽으로 태안사 효령대군영당(孝寧大君影堂)이 확인된다. 전면에 홍살문이 있고, 대문과 영당이 담장으로 구획되고 있다. 방형의 담장으로 격식과 품격을 어느 정도 갖추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으로 전란의 화를 입어 『동리산태안사사적』(20세기 초)에 기록된 중창하거나 재건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임란 이후 태안사에 간행된 목판인 『청허당대사집(淸虛堂大師集)』(1666년)과 『대승기신론소(大乘起信論疏)』(1681년)도 판각된다. 태안사는 대부분 조선후기 1683년(숙종 9)에 정심(定心)에 의해 중창<sup>14)</sup>된다. 1684년(숙종 10)에 주지 각현이 창고를 새로 지었고, 1702년(숙종 28)에 봉서암과 삼일암을 중건하고 1707년(숙종 33)에 성기암을 석변상인(釋卞上人)을 중심으로 중창하였다. 1725년

12) ‘대(大)’와 ‘태(泰)’는 뜻이 서로 통하는 글자로 ‘평안하다’는 의미가 덧붙여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13) <무주동리산태안사적인선사 비송(武州桐裏山大安寺寂忍禪師碑頌并序)>

14) 『동리산태안사사적』(20세기 초)과 『태안사사적』(기산석진, 1943년)에는 1648년부터 1948년까지의 사찰의 역사를 비교적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영조 원년)에 사일(舍一), 뇌명(賴明) 등이 대웅전의 오른쪽 모퉁이 기둥과 후면 기둥을 고쳐 세우고, 1737년(영조 13)에는 능파각(凌波閣)을 중수하였다. 1738년(영조 14)에는 향적전을 증건하였으며, 1744년(영조 20)에는 명부전을 중수 및 단청하였다. 1755년(영조 25)에는 대선사 동파(桐坡) 정심(定心)대사가 원력을 세워 대웅전을 중창하고 같은 해에 적묵당도 중수된다. 1764년(영조 40) 7월 28일 밤에 큰비가 내려 능파각이 붕괴되었으며 2년 뒤인 1766년(영조 42)에는 무너진 능파각을 보수하였다. 1773년에 능파각을 중수하였다. 1774년(영조 50) 12월 밤에 적묵당이 화재를 입었으나 다음 해 주지 탁일(卓日) 스님의 주도하에 증건되었다. 1796년(정조 20)에는 보제루가 운곡간보(雲谷間甫), 용파근탄(龍波謹坦), 와월교평(臥月教萍) 등의 도움으로 도편수 조덕진에 의해 중창되며, 1798년(정조 22)에는 미타전을 중수<sup>15)</sup>하였다. 1809년(순조 9)에는 퇴락한 능파각을 중수하고 1821년(순조 21)에는 명부전을 중수 단청하였으며, 1831년(순조 31)에는 동일암(東日庵)을 증건하였다. 1855년(철종 6)에는 동일암 왕각(王閣)을 증건하고 1861년(철종 12)에 다시 능파각을 중수하였다. 1873년(고종 10)에는 미타전 오른쪽에 응진당을 새로 건립하고 이미 폐허가 된 인근 대홍사에서 16나한상을 옮겨다 봉안하였다. 1877년(고종 14)에는 혜철암(惠徹庵)이 화재를 입었다. 이와 같이 태안사는 제2의 중흥기를 맞으며 일제강점기에도 태안사는 지속적으로 증건과 중수가 이루어지고 있다. 1916년에는 성기암 주지 영월스님에 의해 칠성각이 중수되었고 같은 해 대웅전과 응진당의 변화가 있었다. 1917년 적묵당과 동일암, 일주문, 해회당을 중수하였고, 1920년에는 봉서암을 중수하였다. 1922년에는 능파각과 적묵당을 중수하고, 다음 해에 대지전을 증건하였다. 1924년에는 명적암을 중수하고 같은 해에 응접실을 새롭게 건립하였다. 1927년에는 성기암이 증건되었다.<sup>16)</sup> 1925년 최남선 등이 찾아와 태안사는 “신라 이래의 이름 있는 절이요, 또 해동에 있어 선종의 절로 처음 생긴 곳이다. 아마도 고초의 신역 같다.”라고 극찬한 곳이기도 하였다. 태안사는 이때까지 사찰이 잘 유지되어 오다가 한국전쟁으로 대웅전을 비롯한 15채의 건물이 화재로 소실된다. 계곡 주변에 주둔하던 경찰 토벌대가 빨치산의 습격으로 전몰 당한 후 빨치산 토벌 작전 일환으로 절이 불태워졌다고 한다. 당시 순직한 경찰들을 위한 충혼비가 절 입구에 세워졌다. 태안사의 전각 중 한국전쟁 당시에 소실되지 않은 전각은 해회당·보제루·염화실·선원·능파각·일주문 등이다. 대웅전은 한국전쟁 때 불탄 것을 곡성군의 지원으로 1969년에 봉서암 극락전 건물을 옮겨 사용하다가 1993년 다시 봉서암으로 옮기고 1993년에 새롭게 증건하였다. 청화스님이 1985년부터 10여년에 걸쳐 주석하면서 사세를 확장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이 태안사는 신라 하대 742년 창건되어 혜철선사의 동리산에 선문으로 성장하

15) 증건기는 선암사 문중인 월파가 썼다.

16) 『동리산태안사사적』(20세기 초), 『태안사사적』(1943년)

면서 광자 윤다스님이 주석하여 사세를 떨치게 되는 동리산문 사찰로 수많은 한국불교사의 중요한 인물들을 배출하는 등 구산선문의 연구에 중요한 사찰이다. 조선시대에는 태종의 둘째아들인 효령대군이 원찰로 삼으면서 국가적 비호를 받으며 발전하였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으로 전란의 화를 입어 중창하거나 재건 등이 이루어지면서 증흥기를 맞이한다. 그러나 다시 한국전쟁으로 대웅전을 비롯한 15채의 건물이 화재로 소실되어 복원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 이 지역의 유서깊은 고찰이다.

## 2) 태안사 일주문의 연혁

한국전쟁에도 소실되지 않은 태안사 일주문은 2017년 보수공사에서 종도리 하부의 결상량 목서가 확인되었다. 이는 개창과 창건, 보수 등이 기록되어 일주문의 연혁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종도리 하부 흙에서 <태안사선공의>, <대안사적인선사 비송>, <태안사개창기> 등의 기문류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기문들은 1917년 주지 영월선사에 의해 수리되면서 필사된 것으로 추정된다. 선공의에서는 효령대군의 수결의 필사까지 확인되어 왕실 원당 사찰로서의 모습도 엿볼 수 있으며, 효령대군대에 적인선사비의 변화도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상량문에는 “自唐 天寶 元年 壬午[742년] 6월일 開創, 大明武宗 皇 正德 16년 辛巳[1521년] 1067년 始創 曹溪一柱門而, 順治 4년[1647] 戊子[1648] 134년, 康熙 1□년 壬子[1702] □□54년 重重創…… 乾隆 31년 丙戌[1766] 2월 ……1426년矣”라고 기록되어 있다. 상량문은 “自唐 天寶 元年 壬午[742년] 6월일 開創”으로 시작되어 태안사의 창건을 추정할 수 있고, “大明武宗 皇 正德 16년 辛巳[1521년] 1067년 始創 曹溪一柱門而”는 일주문은 1521년 조계문(曹溪門)으로 창건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順治 4년[1647] 戊子[1648] 134년, 康熙 1□년 壬子[1702] □□54년 重重創…… 乾隆 31년 丙戌[1766] 2월”을 통해 1648년(무자년) 중창, 1702년(임오년) 중중창, 1766년 수리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1766년 수리하였으므로 현재 일주문은 수리 후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고 추정된다. 이는 곡성 태안사 능파각 중수상량문에 따르면 1766년은 능파각을 중수하였으므로 능파각과 일주문 등이 보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각현선사의 1683년 중수는 확인되지 않지만 <태안사사적>에서 “숙종 9년[계해, 1683년] 庫舍 新築 주지 각현(覺賢)”이 확인되므로 오기의 가능성도 추정된다. 『태안사사적』 17)에는 1917년(정사년) 주지 영월(映月)이 사재(寺財)로 적묵당, 공루, 동측 동일암, 동측 일주문, 및 해회당 중수했다고 한다. <전라도 곡성 태안사 개창기(全羅道谷城泰安寺開創記)>에는 기록인 “일주문오중수연기(一柱門(?)五重修年記)”는 세존 응화 2944년 정사 2월 14일 보수한 것으로 주지 영월(映月)이 확인<sup>18)</sup>되어 앞선 기록과 같다는 것이 확인된다. 1917년의 수

17) 한국학문헌연구소, 한국사지총서 제12호, 『泰安寺誌』, 서울아세아문화사, 1984, 「동리산태안사사적」의 역문

18) 一柱門重修年記, 世尊應化二千九百四十四年 丁巳二月十四日改繕, 住持映月竺文...山中人員三十六員 片手金秉佑

리가 편수 김병우(片手 金秉佑)에 의한 다섯 번째 중수이며, 1766년의 기록이 4중건이므로 현재의 건물은 1766년 중건 후의 건물이라고 확인할 수 있다. 이후 1980년 보수, 1993년 보수, 2017년 보수가 있었다. 태안사 일주문은 도 문화재자료로 지정(1981년 10월 20일)되어 1980년 보수, 1993년 보수<sup>19)</sup>를 실시하였고, 태안사에 대한 종합적인 정밀 지표조사가 2001년 2월부터 7개월 동안 이루어졌다.<sup>20)</sup> 2015년 안전진단 후 2017년 일주문 해체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상량과 상량문이 확인되었다. 그 후 2019년 단청 보수를 진행하였다.

<全羅道谷城郡桐裏山泰安寺禪共議>에 “...沙門一間丁向額號桐裏山太安寺黑字사문 1칸 정방향, 판액 이름은 동리산 태안사 검은 글자이다.”라는 기록은 규모와 좌향, 판액의 글씨까지 언급하고 있어 일주문으로 추정되나 좌향이 맞지 않아 어느 시대의 문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樓檣三間西向柱八長七尺楹四長十三尺樑三十末并長三十四尺五寸通內長九尺六寸廣十尺額號桐裏寺薦禍樓黑字書누교 3칸 서방향, 기둥 8개 길이 7자, 북 4개 길이 13자, 상량 30말병 길이 34자 5치, 통 내 길이 9자 4치, 광 10자, 판액 이름은 동리사 천화루 검은 글자로 쓰다.”라고 기록되어 능파각을 언급한 것으로 추정된다.

기록을 종합하면 태안사 일주문은 1521년 ‘조계문’으로 창건되었고, 1648년 중창, 1702년 중중창(3중창), 1766년 4중건<sup>21)</sup>, 1917년 5중수되었고, 이후의 수리기록을 보면 1980년, 1993년, 2017년 원형을 유지하기 위한 보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태안사 일주문 상량문의 기록을 <전라도 곡성 태안사 개창기(全羅道谷城泰安寺開創記)>와 비교하면 거의 동일한데, 상량문은 개창기의 중요 부분만을 간추려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개창기에 나타난 기록에는 “조계일주문(曹溪一柱門)”으로 시창하는 등 상량문과 동일하지만 시주 또는 주지, 편수 등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건륭 31년 병술 4월 念日[20일] 시작하여 6월 초 2일에 상량”이라고 기록되어 태안사 일주문에 대한 정확한 상량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연화질로 화주겸 편수 태운(太允), 부편수 기현(起玄) 등의 방명이 확인된다. 화주 겸 편수인 태운은 능파각 중수상량문에 따르면 1766년 태안사 능파각의 중수와 태안사 일주문 상량문 및 <전라도 곡성 태안사 개창기(全羅道谷城泰安寺開創記)>에 따르면 곡성 태안사 일주문 중건 그리고 1799년 곡성 태안사 대웅전의 중창 편수 및 1809년 태안사 능파각 중수도 맡았다는 것이 확인된다. 1759년에는 보성 대원사 극락전 중건 손유천과 부편수를 맡아 진행하였으며 1766년에 이르러 편수로 활동하고 있다. 보성 대원사 극락전 중건 시 도편수는 현정(玄淨)으로 확인되고, 현정은 1754년 해남 미황사 대웅보전의 3중창에 부편수로 참여하였다.

19) 동과된 지붕기와 교체, 무식된 연목, 부연 등을 신재로 교환, 교체부재에 한한 고색땀 단청 등

20) 대한불교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

21) 종도리 목서에서는 간지 건륭 31년 병술만 확인되지만 흙 속에서 확인된 기문에서는 “四重建”이라는 문구가 확인된다.

이와 같이 1754년 해남 미황사 대웅보전의 3중창 시 상편수 쾌행(가선)과 부편수 현정, 정심(定心)이 참여하였고, 1759년 보성 대원사 극락전 중건 시 현정이 도편수로 참여할 때 손유천, 태운이 부편수로 참여한다. 1766년 곡성 태안사 일주문과 능파각은 화주겸 편수로 태운과 부편수인 기현이 참여하고, 1799년 태안사 대웅전 중창 시 통정 품계에 올라 편수를 맡아 대웅전의 총 책임자로 이어지는 계보를 확인할 수 있다. 쾌행-현정-태운으로 이어지는 계보와 앞으로 태운-쾌행이나 기현 등으로 이어지는 계보 등도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계보를 이으면서 미황사 대웅보전, 보성 대원사 극락전, 영광 불감사 대웅전, 곡성 태안사 능파각 및 일주문, 태안사 대웅전 등으로 이어지는 연관성 등을 연구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해남 미황사 대웅전과 보성 대원사 극락전 그리고 태안사 일주문의 공포 및 공포의 구성에서 조선 후기 장식성이 강조되는 법식화 경향을 보이는 공포 및 초각 형태 등과 유사하다고 추정된다. 또한 승장으로서 도편수의 활동 범위 등을 통해 지역 승장의 계보와 전수 및 활동 범위 그리고 관계성 및 지역성 형성 등도 연구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 중심에 태운이 있으며 쾌행의 기법이 전수되는 과정과 이후에 전수되는 과정도 파악되기를 기대해본다.

### 3) 태안사 일주문의 건축적 특성

곡성 태안사 일주문은 사찰의 북동쪽의 봉두산에서 흘러내린 산기슭에 봉두산의 북쪽에서 흘러내린 산자락과 남서쪽으로 감아 돌다가 남쪽에서 흘러내린 산자락이 둘러싸여 있다. 안산은 남서쪽의 삼산(772m)을 중심으로 비래산(694.2m), 선주산(571.9m) 등으로 이어지고 회야산(760m)을 조산(朝山)으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태안사의 중심축인 대웅전-보제루-일주문은 남서향하고 서쪽으로 접근하도록 자리하고 있다. 중심축은 일직선상으로 보이거나 안대는 달리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웅전과 보제루의 좌우에 해회당과 적묵당이 배치되어 안마당을 중심으로 하는 중심 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한국전쟁 때 소실되지 않은 해회당, 보제루, 염화실, 선원, 능파각, 일주문 등을 통해 기본 골격은 원형을 유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능파각을 지나 개울을 건너 다시 개울을 건너 오르다보면 석축을 쌓고 계단을 놓아 접근로를 만들고 그 위에 일주문이 자리하고 있다. 확장되면서 새로 조성된 길을 따라 만나는 일주문은 간과하기 일쑤이며 왜소화되어 보이는 경향이 있어 능파각을 통해 접근하는 동선을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일주문은 능파각과 이어지는 옛길의 동선 상에 놓여있고 일주문 앞의 석축을 쌓고 계단을 놓아 접근하게 되어 있으며 일주문의 왜소화를 막기 위하여 석축과 계단을 포함하여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란다. 또한 경관적인 측면에서 일주문을 지나면서 연못과 광자대사탑 및 부도군 등이 양쪽으로 시선이 분산되고 있다. 1970년과 1980년 태안사 항공사진(국토지리정보원)에는 일주문을 들어서 보제루로 이어지는 길 양쪽에 나무가 심어져 과정공간을 통해 보제루를 만나고 우각진입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일주문에서 보제루에 이르는 과정공간에 나무가 심어져 있으면 나무 줄기 사이로 부도군도 보

이고 보제루로의 방향성을 강화하는 공간감을 부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일주문에서 보제루 그리고 대웅전에 이르는 중심축을 강화하는 복원을 연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1 참조)

곡성 태안사 일주문은 간결한 정면 1칸의 一자형 평면으로 다포식 맞배지붕건물이다. 건물의 구성은 자연석 외별대 기단 위에 자연석 초석을 놓고 굽은 민흘림의 주기둥의 양쪽 앞뒤에 보조기둥을 세운 보조기둥형이다. 그 위에 창방과 평방을 놓고 외4출목, 내3출목의 다포계 공포를 받치고 있다. 지붕은 맞배지붕으로서 양측면에 풍판을 설치하고 있다. 앞면에는 ‘동리산태안사’, 뒷면에는 ‘봉황문’라는 현판이 걸어져 있으며, 앞면 좌우에는 주련“歷千劫而不古 亘萬世而長今”이 걸려 있다.

평면구성은 정면 1칸의 맞배지붕으로 일반적으로 구성을 하고 있다. 1칸은 3,720mm(12.07尺) 정도로 조선 중후기 308mm 내외의 영조척이 사용되어 12尺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추정된다. 측면 주칸은 보조기둥 사이 1칸이 1,800mm(308mm 영조척으로 환산하면 5.8尺) 정도로 6尺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면 12척, 측면 6척으로 2:1 정도의 비율을 잡고 있다. 건물의 토대가 되는 기단은 전면은 2단이고 후면은 외별대 자연석기단이고 측면은 경사로 되어 있다. 기단 내밀기는 원주를 중심으로 전면 1,950mm, 배면 1,750mm, 측면 1,650mm 정도이다. 일반적으로 전후측면에 동일한 경우 팔각지붕이지만 확인하기 어렵다. 전면으로는 1단의 계단이 부가되어 있다. 기단 위에는 일주문식 건축에서 주를 이루는 주기둥과 보조기둥을 받치는 자연석 초석을 전후면에 놓고 있다. 주기둥 초석은 전후면으로 긴 방형에 가까운 형태이고, 보조기둥의 초석은 원형에 가까운 초석의 형태를 하고 있다. 초석 위에 기둥은 큰 주기둥과 작은 보조기둥을 세우고 있다. 약 3尺(900mm) 정도의 단면이 가장 큰 부재인 주기둥은 두리기둥으로 꺾질을 벗겨 그대로 사용한 도랑주이다. 가공을 하지 않고 목재의 자연스런 형태를 최대한 살린 조형성이 드러나고 있다. 보조기둥은 횡력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전면과 후면의 형식이 다르다. 즉 주기둥 전면은 정면 팔각주이며 후면에 원주이다. 축부를 중심으로 부재구성에 따라 주기둥에 보조기둥이 부가된 보조기둥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보조기둥을 세우는 보조기둥형 일주문은 구조적으로 주기둥만으로 하중을 지지하기 어려워 보조기둥을 전후면에 세워 횡력에 대응하도록 하는 형식이다. 보조기둥형은 구례 천은사 일주문, 구례 화엄사 일주문, 고운사 조계문, 보림사 외호문, 하동 쌍계사 일주문, 순천 송광사 일주문, 김룡사 홍화문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형식은 조선시대에 건립된 대상 중 주로 전라남도에 주로 분포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지역적인 특성이라고 추정된다. 보조기둥을 설치하였지만 주기둥의 단면을 크게 하고 초석도 전후면으로 긴 형태로 주요 하중을 지지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보조기둥의 형식이 원주과 팔각주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하중을 분담하지만 의장적인 요소로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보조기둥 단면이 전후면이 다른 것은 17C 중 유일한 사례이다. 일반적으로 대

부분의 사례에서는 원형이나 팔각형을 사용한다. 나아가 보조기둥의 상부 보방향 주심창방과 도리방향 출창방이 직교되는 창방을 받치는 팔각주 주두는 연화 하엽형으로 추정되는 초각을 하고, 팔각주와 접하는 부분을 팔각으로 맞추고 있다. 또한 보조기둥의 상부 보방향 주심창방과 도리방향 출창방이 직교되는 창방을 받치는 원주 주두는 연화 하엽형으로 추정되는 초각을 하고 원주와 접하는 부분을 원형으로 맞추고 있다. 보조기둥에 주두를 갖는 사례는 쌍계사 일주문과 송광사 조계문이 있다. 이는 기둥과 기중 주두는 계획된 의장적인 조형성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평면구성은 정면 1칸으로 정면(3,720mm, 영조척 12.07尺)과 측면(1,800mm, 5.8尺)이 6尺을 기준으로 2:1 정도의 비율로 내외부에 대하여 영역 구분을 하면서 측방향으로 출입 통과에 대한 전이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기단은 전면은 2단이고 후면은 외벌대 자연석기단으로 경사에 대응하고 있으며 전면으로는 1단의 계단이 부가되어 있다. 초석은 주기둥 초석은 전후면으로 긴 방형에 가까운 자연석초석이고, 보조기둥의 초석은 원형에 가까운 자연석 초석이다. 또한 단면이 가장 큰 부재인 주기둥은 도랑주로 가공을 하지 않고 목재의 자연스런 형태를 최대한 살린 조형성이 드러나고 있다. 보조기둥의 형식이 원주과 팔각주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하중을 분담하기도 하지만 의장적인 요소로서 작용하고 있고 보조기둥의 상부 주심창방과 출창방이 직교되는 창방을 받치는 주두를 연화 하엽형 초각으로 팔각과 원형의 기둥과 맞추고 있어 계획된 의장적인 조형성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보조기둥형은 조선시대에 건립된 대상 중 주로 전라남도에서 주로 분포하는 지역적인 특성이 있다.

축부 구성은 주기둥 전후면으로 보조기둥을 세우고, 주기둥에 보 방향 주심창방과 도리방향 출창방을 격자형 틀<sup>22)</sup>을 만들어 결구하고 직절한 창방뿔목으로 처리하고 있다. 그 위에 보 방향 주심평방과 출평방을 격자형으로 올리고 직절한 뿔목으로 처리하고 있다. 평방 위에 주두를 놓고 공포를 사면으로 올리고 있다. 창방 및 평방 간의 결구법은 반턱연귀맞춤, 보 방향 주심창방은 받을장, 출창방은 업힐장으로 추정된다. 주기둥 머리에서 주심창방은 사괘맞춤이 아니라 보 방향으로 끼워 결구하고 그 위에 주심평방을 올려놓고 있다. 창방의 춤은 210×330mm 정도로 하면 모를 굴린 방형이고, 평방은 360×240mm 정도의 횡방형으로 약간 크게 치목하고 있다. 창방 위에 축으로 평방을 고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기둥뿌리에 문지방의 있던 흔적이 남아 있으나 현재는 없다. 기둥 몸통 가운데 장부구멍이 45도 방향으로 4개씩 있는데 궁판재와 결구되는 주천방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가구구성은 주심도리, 출목도리, 종도리로 구성된 5량가이다. 주기둥과 보조기둥 위에 창방과 평방을 놓고 다포계 공포를 받치고 있다. 오제공 위에 얹힌 주심보를 놓고 그

22) 창방의 배치는 □자형으로 틀을 짜고 있다. 이러한 형식은 범주사 일주문, 공림사 영하문, 선암사 일주문, 직지사 자하문, 보림사 외호문 등이 있다.

위에 주심도리를 얹고 있다. 대량 위에는 대공을 세우고 장혀 받친 종도리를 올리고 있다. 외4출목 내3출목의 화려한 다포계 형식의 공포를 배치하고 그 위에 구형보(300×450) 3본을 올리고 대공과 도리를 놓아 서까래를 받치고 있다. 주심도리와 출목도리는 팔각 단면이고, 출목도리는 장혀를 받치고 있다. 종도리는 하부에 모를 굴린 납도리로 구형보이다. 기둥 머리의 안쪽에 용두형 장식은 주심창방이 눌러주는 단순한 턱물림장부맞춤(반턱맞춤)으로 추정되고 있다. 용두형 장식은 두 뿔, 큰 눈, 눈썹, 크게 벌린 입과 이빨, 머리 뒷부분의 갈기 등이 화려하고 사실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는 다포계 형식의 불전에서 용두형 안초공과는 다른 방식으로 안초공의 역할보다는 단순한 의장적인 효과를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도리방향 주심창방이 설치되지 않고 내출목이 공간을 이루고 수평적으로는 기둥의 단면이 커서 비례가 맞지 않아 분절하고, 수직적으로는 창방보다 평방이 크지만 기둥 단면이 더 커서 제3의 요소인 용두형 장식을 통해 의장적으로 통합하고 있다고 추정된다.

공포는 다포계 형식으로 외부 공포는 평신포와 전각포를 사용하고 있다. 공포는 외4출목 내3출목의 화려한 다포계 형식이다. 일반적인 공포 구성은 내출목이 외출목보다 많은데 외출목이 내출목보다 많은 구성을 하는 특이한 구성을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내외출목의 차이는 1출목 차이를 두고 내출목도 3-4출목이 선호되고 있다. 외출목수가 많은 사례는 선암사 일주문(18C)이 외4출목 내2출목이고 보림사 외호문(18C)과 송광사 조계문(19C) 외4출목 내3출목 등이 있으나 그 중에 조성 시기가 빠르다. 3출목이나 4출목은 16-17C에 사용이 적으나 18-19C에 많아지는 것은 구조적인 안정성을 중시하다가 자신감이 증가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외출목도리나 내출목도리의 위치, 연목의 내밀기 등과 관련도 있으나 화려하게 보이려는 의장적인 장엄의 의미가 클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외4출목이지만 6계공까지 고려한다면 공포대가 상당히 높고 장엄하게 보이도록 하고 있다. 석축 위에 놓이므로 지붕이나 겹처마보다 공포대가 시각적으로 먼저 인식되므로 화려하게 구성하였을 것으로 추정되어 지형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외출목수를 내출목수보다 크게 한 사례는 4출목으로 전라도 지역에 집중된 것은 지역성과도 관계 깊다고 분석된다.

주기둥과 보조기둥 상부에 주두 위 포를 놓고, 전후면 출평방 상부로 주간포 3구를 놓고 있다. 출평방 상부의 주간포 3구는 단부에서는 900mm이고 중앙부 2칸은 960mm로 중앙 2칸을 조금 크게 설정하고 있다. 주칸인 영조척(308mm)을 기준으로 공포의 간격은 2.92尺, 3.11尺으로 관계가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는 여러 번의 중수와 중건으로 창간 당시나 건립 초기의 모습이 주칸 크기와 공포 간격, 공포부 형태, 공포 양식이 시기적인 차이를 보일 가능성을 추정하기도 하나 그보다는 시각보정을 위한 의도적인 설정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측면의 공포는 주간포가 아니라 주기둥 위에 올린 주상포로 보아야 할 것이다. 주간포로 해석된다면 일반적인 전각에서처럼 측면 공포로 인해 팔각

지붕이었을 가능성을 추정해볼 수 있지만 주상포이므로 맞배지붕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sup>23)</sup>

공포는 외단은 초각쇠서형이고 내단은 연화형으로 꾸미고 있다. 초제공부터 사제공까지 살미외단은 초각 쇠서형(연화양서형)이며, 오제공은 (연봉)익공형, 6제공은 봉(황)두형으로 구성하고 있다. 내단은 초제공부터 2제공까지 살미내단은 연화형이고, 3제공에서 4제공은 초각으로 처리하고 있다. 전각포도 같은 형식으로 처리하는 전형을 따르고 있다. 외출목 좌우대는 좌우대 부재를 첨차와 살미를 합한 부재로 살미부분은 족재이고 첨차부분은 단재로 꾸미고, 주심 좌우대는 족재로 꾸미고 있다. 그리고 내출목 좌우대는 단재로 꾸미고, 내출목에 병점을 사용하고 있다. 살미간의 접합 방식은 내단과 외단 모두 중첩판 구조로 중기에서 후기에 이르는 건물에 나타나는 형식이다. 공포의 형식을 통해 주로 조선 후기 공포의 범식화 경향<sup>24)</sup>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불갑사 대웅전의 공포와 같이 외부 최상단 봉두형 초각과 사제공 등이 유사하게 나타나지만 익공형 사제공 하부 연봉이 크게 초각되고 4출목으로 화려한 모습을 하고 있다. 내단의 연화형은 1-2제공 살미 내단에만 초각되고, 이러한 형식은 17세기에서 19세기 이후까지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귀포는 전각포<sup>25)</sup>로 귀한대를 외3출목 좌우대, 외2출목 좌우대, 외1출목 좌우대, 주심 좌우대, 내출목 좌우대, 내2출목 좌우대, 내3출목 좌우대, 인접 주간포 4제공 살미의 교차점에서 삼분턱 맞춤 된다. 귀포의 귀한대는 주심평방의 공포와 출평방의 공포 5기가 귀포를 중심으로 공포대가 연결되고 있다. 귀한대는 건너편 첨차까지 연장되어 공포의 첨차의 단부 면을 사절하고 있다. 이러한 형식은 조선후기 일반 전각에도 공포 간격의 배수로 주간 크기를 설정하여 인접 공포와 연결되어 일체화되는 경향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곡성 태안사 일주문은 겹처마 맞배지붕으로 측면에는 풍판을 설치하고 있다. 종도리에서 출목도리 위에는 장연을 설치하고 서까래 단부에는 부연을 올리고 있는 겹처마이다. 연목이나 부연의 소매건이는 약하게 나타나고, 말구도 135mm 정도로 작게 나타난다. 박공은 일반적인 맞배지붕과 같이 박공널, 목기연 등의 형식을 갖추고 있고, 박공널은 꺾쇠로 연결하고 있다. 양측면에는 풍판은 직선으로 사절된 육은 풍판으로 수평선과 사선이 만나는 절점에 풍판널을 조금 길게 처리하여 변화를 수용하고 있다. 맞배지붕은 기와로 마감하고 있고, 처마 끝에 막새기와를 설치하고 있다.

23) 사면의 기단 내밀기가 같아 팔각지붕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도 있지만 화려한 공포대와 겹처마 위에 팔각지붕을 올리는 것은 부담스럽고, 대웅전-보제루-일주문으로 이어지는 강한 축에 따라 전후면의 방향을 고려한 맞배지붕을 선택하는 대신 화려하게 공포대를 꾸몄을 것으로 추정된다.

24) 이러한 사례는 나주 불회사 대웅전이나 해남 미황사 대웅전, 영광 불갑사 대웅전 등의 공포에서 유사하게 나타난다. 불갑사 대웅전의 공포와 같이 내부 단부의 초각을 연봉우리 형태로 크게 강조하고 있다.

25) 전각포 사제공은 외 3출목 좌대와 우대, 외2출목 좌대와 우대, 외1출목 좌대와 우대, 주심좌대와 우대, 내1출목 좌대와 우대, 내2출목 좌대와 우대, 내3출목 좌대와 우대, 귀한대로 구성된다.

지붕 용마루의 양 단부의 명문망와가 있다. 세로로 3단으로 나누고 세로로 글씨를 쓰고 있어 망와로 사용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망와에는 수직으로 3단으로 구성되어 우측에는 “別坐 □□”, 중앙에는 “嘉慶 十四 己巳 造瓦片手 姜聖元”, 좌측에는 “都監 宜逸 住持 永惠”라고 기록되어 있다. 우측의 별좌 쓰촛로 추정되나 확실하지 않다. 좌측의 도감과 주지의 이름은 도감은 宜[宜]選 또는 宜[宜]逸로 보이기도 하나 태안사 사사적기 주지계보에 “宜逸”의 가능성이 크고, 주지 이름은 영혜(永惠)일 것으로 추정된다.<sup>26)</sup> 도감 의일(宜逸)과 주지 영혜(永惠)는 태안사사적기의 가경 12년 정묘 10월에 있었던 대웅전 칠성탱과 부도전 산신탱 조성에 대시주로(大施主)로 의일, 시주(施主)에 영혜가 확인되고 있다. 중앙의 연대를 알 수 있는 간지는 1809년(가경 14)이고 조와편수 강성원이라고 기록되어 기와를 제작한 연도가 확인된다. 이는 기와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809년은 능파각의 중수<sup>27)</sup>가 있었던 해이므로 능파각을 중수할 때 일주문의 기와를 제작해 올렸을 것으로 추정된다.<sup>28)</sup>

곡성 태안사 일주문의 구조와 조형을 살펴보면, 자연석기단 위에 자연석 초석을 놓고 자연 그대로의 도량주인 주기둥과 전면 팔각주와 후면 원주의 보조기둥을 세우고 있다. 보조기둥의 상부 창방을 받치는 주두를 연화 하엽형 초각으로 기둥과 맞추고 있어 계획된 의장적인 조형성을 드러내며 전라남도에서 주로 분포하는 지역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다. 축부 구성은 주기둥 전후면의 보조기둥을 세우고, 주심창방과 도리방향 출창방을 격자형 틀을 만들어 뿔목으로 결구하고 그 위에 보 방향 주심평방과 출평방을 뿔목으로 격자형으로 올리고 있다. 평방 위에 공포배열이 이단으로 전후면과 측면에 공포가 배열되는 이단사면배열의 공포배치를 하고 있다. 기둥뿌리에 문지방의 있던 흔적이 남아 있고, 기둥 몸통 가운데 기능을 알 수 없는 장부구멍이 있다.

가구구성은 5량가로 외4출목 내3출목의 다포계 오제공 위에 얹힌 주심보를 놓고 그 위에 주심도리를 얹고 있다. 대량 위에는 대공을 세우고 장혀 받친 납도리 종도리를 올리고 있다. 주심도리와 출목도리는 팔각 단면이고, 출목도리는 장혀를 받치고 있다. 기둥머리의 안쪽에 용두형 장식은 주심창방이 눌러주는 단순한 턱물림장부맞춤(반턱맞춤)으로 수평적으로는 기둥의 단면이 커서 비례가 맞지 않아 분절하고, 수직적으로는 창방보다 평방이 크지만 기둥 단면이 더 커서 제3의 요소인 용두형 장식을 통해 의장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보조기둥형의 공포배열이 이단으로 전후면과 측면에 공포가 배열되는 이단사면배열의

26) 사적기의 주지연보에서 1807년(순조 7년) 봄에 의일, 가을에 영혜, 1808년 가을에 영혜가 다시 주지를 하게 되어 앞의 명문망와의 내용과 일치하게 된다. 영혜스님은 1808년 주지를 마지막으로 이후 기록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의 1809년 능파각 중수와 일주문 등의 기와 제작이 마지막 불사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27) 태안사 사적기에 <능파각중수상량문> 전함, 가경 14년, 기사 6월 1일,

28) 능파각의 지붕 기와는 모두 신재로 교체하여 확인하기 어렵지만 보제루의 용마루 양측에도 같은 기와가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어 1809년은 전체적으로 변화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공포배치를 하고 있다. 외4출목 내3출목의 화려한 다포계 형식의 공포는 외출목이 내출목보다 많은 특이한 구성을 하고 있어 외4출목 내2출목의 선암사 일주문(18C), 외4출목 내3출목의 보림사 외호문(18C)과 송광사 조계문(19C) 등에 비해 조성 시기가 빠르며 전라도 지역에 집중되어 지역성을 드러낸다고 분석된다. 3-4출목은 16-17C에 구조적인 안정성을 위하여 사례가 적으나 18-19C에 많아지면서 자신있게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출평방 상부의 주간포는 중앙부가 넓고 단부에서 약간 좁게 설정하여 여러 번의 중수와 중건을 거치면서 주칸 크기와 공포 간격, 공포 양식과 형식 등의 차이를 보일 가능성도 있으나 시각보정을 위한 의도적인 설정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공포 외단의 초각쇠서형은 용추사 조계문과 직지사 자하문 등과 같이 17세기와 18세기에 주로 나타나고, 내단의 연화형도 17세기에서 19세기까지 이어지는 형식을 보이고 있다. 살미 간의 접합 방식은 내외단 모두 중첩판 구조로 중기에서 후기에 이르는 형식이다. 공포의 형식은 조선 후기 공포의 법식화 경향을 보인다고 추정된다. 특이한 사항은 불갑사 대웅전과 같이 외부 최상단 봉두형 초각과 사제공 등이 유사하면서도 익공형 사제공 하부 연봉이 크게 초각되고 4출목으로 화려한 모습을 하고 있다. 내단의 연화형은 17세기에서 19세기 이후까지 꾸준히 나타나는 형식이다. 귀포의 귀한대는 주심평방의 공포와 출평방의 공포가 귀포를 중심으로 공포대를 연결하는 형식은 조선후기 일반 전각에도 공포 간격의 배수로 주칸 크기를 설정하여 인접 공포와 연결되어 일체화되는 경향과 맥을 같이하고 보인다. 귀포의 전각포 처리나 제공 단부의 초각은 18세기 경의 법식화 경향의 앞선 17C를 보이며, 용두나 내출목에 의한 강조된 연봉형 초각은 조선 후기 특히 18-19세기에 나타나지만 17C부터 이어지는 형식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공포 간격과 주칸 크기를 중심을 넓게 하고 측면으로 갈수록 좁은 간격으로 배분한 것은 시기가 올라갈 수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상량기문에 따르면 1521년 창건된 이후 1648년 중창, 1702년 중중창(3중창), 1766년 4중건에 이르는 형식이 반영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규명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세부 형식을 통해서 다양한 시기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다각도로 분석하여 제시하여 보았다.

지붕은 겹처마 맞배지붕이고, 측면에는 풍판을 설치하고 있다. 박공은 일반적인 맞배지붕과 같이 박공널, 목기연 등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 풍판은 직선으로 사절된 육은 풍판으로 수평선과 사선이 만나는 절점에 풍판널을 조금 길게 처리하여 변화를 수용하고 있다. 처마내밀기는 주심에서 2,100mm 정도로 크지만 외4출목이므로 처마가 크게 느껴지지 않고 공포의 체감비에 맞추어 올린 것과 같이 날렵하게 보이기도 한다. 한편으로는 외4출목 위의 봉두와 출목도리가 안으로 들어가 있어서 겹처마와 구분되면서 지붕이 가볍게 떠있는 느낌이 든다. 석축의 계단을 오르면서 공포와 겹처마에서 시각적으로 올려다볼 때 느껴지는 것을 고려한 구성이라고 추정된다. 연목이나 부연의 소매걸이가

약하게 설정된 것도 같은 이유로 추정된다. 일반적으로 기단 내밀기는 전후면과 양측면이 차이가 없어서 일반적인 불전에서처럼 팔각지붕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도 있지만 화려한 공포대와 겹처마 위에 팔각지붕을 올리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추정된다. 또한 대응전-보제루-일주문으로 이어지는 강한 축을 형성하므로 전후면의 방향을 고려한 맞배지붕을 선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역으로 중심축에 맞추어 맞배지붕으로 처리한 대신 시각적으로 노출되는 공포대를 화려하게 장식하였을 수도 있다고 추정된다.

이상과 같이 정면 1칸으로 정면과 측면을 2:1 정도의 비율로 내외부에 대하여 영역 구분을 하면서 축방향으로 출입 통과에 대한 전이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주기둥은 도랑주목재의 자연스런 형태를 최대한 살린 조형성을 드러내고 있다. 보조기둥은 원주과 팔각주로 의장적으로 다르게 나타내고 보조기둥의 상부 주두는 연화 하엽형 초각으로 팔각과 원형의 기둥과 맞추고 있어 계획된 의장적인 조형성을 드러내고 있다. 보조기둥형은 조선시대에 건립된 대상 중 주로 전라남도에 주로 분포하는 지역적인 특성이 잘 나타나고 있다. 보조기둥형 위에 이단배열의 사면에 공포 배치를 하고 있다. 기둥뿌리에 문지방의 있던 흔적이 남아 있다.

5량가의 외4출목 내3출목의 다포계 공포에서 기둥 머리의 안쪽 용두형 장식은 수평적으로는 기둥의 단면이 커서 비례가 맞지 않아 분절하고 수직적으로는 창방보다 평방이 크지만 기둥 단면이 더 커서 제3의 요소인 용두형 장식을 통해 의장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외출목이 내출목보다 많은 특이한 구성을 하고 있어 같은 형식의 사례 중에 조성 시기가 빠르며 전라도 지역에 집중되어 지역성을 드러낸다고 분석된다. 3-4출목은 16-17C에 구조적인 안정성을 위한 형식으로 추정된다. 주간포는 중앙부가 넓고 단부에서 약간 좁게 설정하여 여러 번의 중수와 중건을 거치면서 차이일 가능성도 있지만 시각보정을 위한 의도적인 설정으로 추정된다. 공포 외단의 초각쇠서형은 17세기와 18세기에 주로 나타나고, 내단의 연화형도 17세기에서 19세기까지 이어지는 형식이다. 내외단의 살미 간의 접합 방식은 중첩판 구조로 중기에서 후기에 이르는 형식이다. 공포의 형식은 조선 후기 공포의 법식화 경향으로 보이나 불갑사 대응전과 유사하며 익공형 사제공 하부 연봉이 크게 초각되고 4출목으로 화려한 모습을 하고 있다. 귀포의 귀한대는 주심평방과 출평방의 공포대를 연결하는 형식은 조선후기 전각의 일체화 경향으로 추정된다. 귀포의 전각포 처리나 제공 단부의 초각은 18세기 경의 법식화 경향으로 이어지고, 18-19세기에 나타나는 용두나 연봉형 초각으로 이어지는 형식으로 추정된다. 공포 간격과 주칸 크기를 중심을 넓게 하고 측면으로 갈수록 좁은 간격으로 배분한 것은 1521년 창건된 이후 1648년 중창, 1702년 중중창(3중창), 1766년 4중건에 이르는 형식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확실한 것은 시각적인 보정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풍관은 직선으로 사절된 육은 풍관으로 수평선과 사선이 만나는 절점에 풍관널을 조금

길게 처리하여 변화를 수용하고 있다. 처마내밀기는 주심에서 2,100mm 정도로 크지만 외4출목이므로 처마가 크게 느껴지지 않고 공포의 체감비에 맞추어 올린 것과 같이 날렵하게 보이고, 봉두와 출목도리가 안으로 들어가 있어서 겹처마와 구분되면서 가볍게 떠있는 느낌이 든다. 석축의 계단을 오르면서 공포와 겹처마에서 시각적으로 올려다볼 때 느껴지는 것을 고려한 구성이라고 추정된다. 대웅전-보제루-일주문으로 이어지는 강한 축을 형성하므로 전후면의 방향을 고려한 맞배지붕을 하고 대신 시각적으로 노출되는 공포대를 화려하게 장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 3. 지정가치 및 근거기준

곡성 태안사 일주문에 대한 역사적 가치는 다음과 같다.

곡성 태안사는 신라 하대 742년 창건되어 혜철선사의 동리산에 선문으로 성장하면서 광자 윤다스님이 주석하여 사세를 떨치게 되는 동리산문 사찰로 수많은 한국불교사의 중요한 인물들을 배출하는 등 구산선문의 연구에 중요한 사찰이다. 신라 하대의 지방호족세력의 지원으로 동리산에 개창한 선문으로 성장한 역사적인 배경과 혜철선사 당시 태안사의 규모와 건물 그리고 경제력 등과 사원 규모를 짐작하게 한다. 그리고 이후 □ 여스님의 다음으로 윤다(允多)가 법을 계승하여 동리산문을 이끄는 분파와 발전을 역사적으로 지니고 있다. 고려시대 광자스님 당시 고려왕실의 지원으로 증흥을 맞아 126칸에 이르는 대규모 가람으로 발전하나 이후 동리산문이 약화되면서 지방불교적 성격이 나타난다. 조선시대에는 태종의 둘째아들인 효령대군이 원찰로 삼으면서 국가적 비호를 받으며 발전해간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으로 전란의 화를 입은 후 1683년(숙종 9) 정심(定心)에 의해 중창을 시작으로 중수와 중건이 이루어지면서 증흥기를 맞이한다. 일제강점기에도 지속적으로 중건과 중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다시 한국전쟁으로 대웅전을 비롯한 15채의 건물이 화재로 소실되고 소실되지 않은 전각은 해회당·보제루·염화실·선원·능파각·일주문 등이고 다른 건물들도 복원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 이 지역의 유서깊은 고찰이다.

혜철선사의 부도와 탐비인 적인선사 조륜청정탑·윤다의 부도와 탐비인 광자대사탑·광자대사탑비·능파각·일주문 등 국가문화재 5개, 도문화재 4개를 보유하고 있다. 적인선사탑비·철제불수(철조약사여래상)·팔각원당형 승탑 2기 등 12기와 태안사 관련 필사혜철국사비명, 성기암신창기, 원당완문, 선생안 등의 문서류, 동리산태안사, 동리산태안사 등의 편액, 보제루중창기, 봉두산미타전중창기, 호좌곡성현동리산태안사능파각재중수기 등의 현판 등이 있다.

곡성 태안사 일주문은 2017년 보수공사에서 종도리 하부의 걸상량 목서와 <태인사선공의>, <대안사적인선사 비송>, <태안사 중창기> 등의 속상량을 통해 1521년(중종 16

년) 조계문(曹溪門)으로 창건되었고, 1648년 회하스님의 중창, 1702년 대선사 응섬스님, 삼보 각현스님 등의 중중창(3중창), 1766년 총옥스님의 4중건, 1917년 영월스님의 5중수 되었고, 이후의 수리기록을 보면 1980년, 1993년, 2017년 원형을 유지하기 위한 보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태안사는 한국전쟁으로 거의 소실되었으나 일주문은 능파각과 더불어 남아 있는 건물 중의 유일한 건물로 창건에서 중창 중수 등이 확인되고 1766년 중건 이후의 모습으로 추정되는 역사성을 확인할 수 있다. 많은 변화가 있었으나 일주문이 역사성을 보존하면서 틀을 유지하고 있어 능파각에서 옛길을 통해 접근하여 석축으로부터 일주문에 이르는 과정과 일주문에 보제루와 대웅전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공간의 흐름을 유지하는 과거 식재의 복원 등은 사찰을 골격을 유지하는 중요한 가치라고 판단된다.

곡성 태안사 일주문은 1754년 해남 미황사 대웅보전의 3중창 시 상편수 쾌연(快演, 가선)과 부편수 현정, 정심(定心)이 참여하였고, 1759년 보성 대원사 극락전 중건 시 현정이 도편수로 참여할 때 손유천, 태윤이 부편수로 참여한다. 1766년 곡성 태안사 일주문과 능파각은 화주겸 편수로 태윤과 부편수인 기현이 참여하고, 1799년 태안사 대웅전 중창 시 통정 품계에 올라 편수를 맡아 대웅전의 총 책임자로 이어지는 계보를 확인할 수 있다. 쾌연-현정, 정심-태윤, 손유천으로 이어지는 계보와 앞으로 태윤-쾌행, 기현 등으로 이어지는 계보 등도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계보를 이으면서 미황사 대웅보전, 보성 대원사 극락전, 영광 불감사 대웅전, 곡성 태안사 능파각 및 일주문, 태안사 대웅전 등으로 이어지는 연관성 등을 연구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해남 미황사 대웅전과 보성 대원사 극락전 그리고 태안사 일주문의 공포 및 공포의 구성에서 조선 후기 장식성이 강조되는 법식화 경향을 보이는 공포 및 초각 형태 등과 유사하다고 추정된다. 또한 승장으로서 도편수의 활동 범위 등을 통해 지역 승장의 계보와 전수 및 활동 범위 그리고 관계성 및 지역성 형성 등도 연구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 중심에 통정 품계에 오른 태윤이 있으며 쾌행의 기법이 전수되는 과정과 이후에 전수되는 과정도 파악되기를 기대해본다. 승장 집단의 활동과 전수 그리고 지역성과 건축 구조 및 공포 등의 특성에서 역사적 가치를 갖는다.

예술적 가치는 다음과 같다.

곡성 태안사 주변은 봉두산 태안사를 중심으로 하는 문화재를 중심으로 지역적 특성을 이루고 있다. 일주문은 봉두산에서 흐르는 주맥에 현재 가람의 주불전인 대웅전-마당-보제루를 잇는 축선상의 앞쪽에 자리하고 있다. 새로 조성된 길을 따라 만나는 일주문은 연못과 사찰 전경 등이 펼쳐지면서 일주문이 왜소화되어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된다. 따라서 태안사 능파각을 건너 옛길을 따라 높은 돌계단 위에 자리한 일주문을 만나도록 해야 위엄 있는 자태와 주변 지형과 어우러져 아름다운 경관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경관적인 측면에서 충혼탑이나 일주문 서북쪽에 연못 등이 수평적으로 확장되

어 일주문-보제루-대웅전에 이르는 주축이 약화되어 있다. 이에 1980년 태안사 항공사진(국토지리정보원)을 보면 일주문을 들어서 보제루로 이어지는 길에 나무가 심어져 과정공간으로서의 공간구성을 고려하여 조성하는 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평면구성은 2:1의 비율로 내외부에 대하여 영역 구분을 하면서 축방향으로 출입 통과에 대한 전이성을 드러내고 있다. 기단은 경사에 대응하여 전면 2단이고 후면은 외별대 자연석기단이고 전면으로는 1단의 계단이 부가되어 있다. 주기둥 초석은 전후면으로 긴 방형에 가까운 자연석초석이고, 보조기둥의 초석은 원형에 가까운 자연석 초석이다. 주기둥은 도랑주로 가공을 하지 않고 목재의 자연스런 형태를 최대한 살린 조형성이 드러나고 있다. 보조기둥의 형식이 원주과 팔각주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하중을 분담하기도 하지만 의장적인 요소로서 작용하고 있다. 보조기둥의 주두를 연화 하엽형 초각으로 팔각과 원형의 기둥과 맞추고 있어 계획된 의장적인 조형성을 드러내고 있다. 보조기둥형은 조선시대에 건립된 대상 중 주로 전라남도에 주로 분포하는 지역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보조기둥형 위에 이단배열의 사면에 공포배치를 하고 기둥뿌리에 문지방의 있던 흔적이 남아 있다. 5량가의 외4출목 내3출목의 다포계 공포에서 기둥 머리의 안쪽 용두형 장식은 수평적으로는 기둥의 단면이 커서 비례가 맞지 않아 분절하고 수직적으로는 창방보다 평방이 크지만 기둥 단면이 더 커서 제3의 요소인 용두형 장식을 통해 의장적으로 통합하고 있다. 외출목이 내출목보다 많은 구성은 같은 형식의 사례 중에 조성 시기가 빠르며 전라도 지역에 집중되어 지역성을 드러내고 있다. 3-4출목은 16-17C에 구조적인 안정성을 위한 형식으로 추정된다.

주간포는 중앙부가 넓고 단부에서 약간 좁게 설정하여 여러 번의 중수와 중건을 거치면서 차이일 가능성도 있지만 시각보정을 위한 의도적인 설정으로 추정된다.

공포 외단의 초각쇠서형은 17세기와 18세기에 주로 나타나고, 내단의 연화형도 17세기에서 19세기까지 이어지는 형식이다. 내외단의 살미 간의 접합 방식은 중첩판 구조로 중기에서 후기에 이르는 형식이다. 공포의 형식은 조선 후기 공포의 법식화 경향으로 보이나 불갑사 대웅전과 유사하며 익공형 사제공 하부 연봉이 크게 초각되고 4출목으로 화려한 모습을 하고 있다. 귀포의 귀한대는 주심평방과 출평방의 공포대를 연결하는 형식은 조선후기 전각의 일체화 경향으로 추정된다. 귀포의 전각포 처리나 제공 단부의 초각은 18세기 경의 법식화 경향으로 이어지고, 18-19세기에 나타나는 용두나 연봉형 초각으로 이어지는 형식으로 추정된다. 공포 간격과 주칸 크기를 중심을 넓게 하고 측면으로 갈수록 좁은 간격으로 배분한 것은 1521년 창건된 이후 1648년 중창, 1702년 중중창(3중창), 1766년 4중건에 이르는 형식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확실한 것은 시각적인 보정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풍관은 직선으로 사절된 육은 풍관으로 수평선과 사선이 만나는 절점에 풍관널을 조금

길게 처리하여 변화를 수용하고 있다. 처마내밀기는 주심에서 2,100mm 정도로 크지만 외4출목이므로 처마가 크게 느껴지지 않고 공포의 체감비에 맞추어 올린 것과 같이 날렵하게 보이고, 봉두와 출목도리가 안으로 들어가 있어서 겹처마와 구분되면서 가볍게 떠있는 느낌이 든다. 석축의 계단을 오르면서 공포와 겹처마에서 시각적으로 올려다볼 때 느껴지는 것을 고려한 구성이라고 추정된다. 대웅전-보제루-일주문으로 이어지는 강한 축을 형성하므로 전후면의 방향을 고려한 맞배지붕을 하고 대신 시각적으로 노출되는 공포대를 화려하게 장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곡성 태안사 일주문은 봉두산에서 흐르는 주맥에 현재 가람의 주불전인 대웅전-마당-보제루를 잇는 축선상에 위치하여 기준을 잡아주고 있다. 태안사의 경계에 있지만 중심 축선상에 위치한 상징적인 건물로 주불전 못지않은 화려함을 지니고 있다. 평면구성에서 축방향으로의 전이성, 경사에 대응한 기단, 주기둥의 자연스런 형태를 최대한 살린 조형성, 보조기둥 원주과 팔각주의 의장적인 요소, 보조기둥의 주두의 연화 하엽형 초각과 기둥에 맞춘 계획된 의장적인 조형성, 보조기둥형으로 전라남도에서 분포하는 지역성 등을 보여주고 있다.

공포는 보조기둥형 위에 이단배열의 사면에 배치하고 있다. 기둥 머리의 안쪽 용두형 장식은 기둥 단면이 더 커서 제3의 요소를 사용하여 의장적으로 통합하고 있다. 외4출목 내3출목은 구조적인 안정성을 위한 16-17C 형식으로 전라도 지역에 집중되어 지역성을 드러내고 외출목이 많은 형식 중에 조성 시기가 빠르다.

공포형식은 18세기 공포의 범식화 경향까지 이어지고 있으나 1766년 중건 이후의 모습으로 추정되나 어느 시기를 나타내는지 알기 어렵다. 다양한 공포 부재의 시기별 특성을 살펴보면, 공포 외단의 초각쇠서형은 17세기와 18세기, 내단의 연화형도 17세기에서 19세기까지 이어지는 형식, 내외단의 중첩판 살미 간의 접합 방식은 조선 중기에서 후기에 이르는 형식, 귀포의 귀한대는 주심평방과 출평방의 공포대를 연결하는 형식은 조선후기 전각의 일체화 경향, 귀포의 전각포 처리나 제공 단부의 초각은 18세기 경의 범식화 경향, 용두나 연봉형 초각은 18-19세기에 나타나는 형식 등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불감사 대웅전과 유사하며 익공형 사제공 하부 연봉이 크게 초각되고 4출목으로 화려한 모습을 하고 있다. 또한 쾌행-현정-태운-쾌행이나 기현 등으로 이어지는 승장 계보의 측면에서 미황사 대웅보전, 보성 대원사 극락전, 영광 불감사 대웅전, 곡성 태안사 능파각 및 일주문, 태안사 대웅전 등과의 공포 및 공포의 구성과 초각 등에서 결구법을 바탕으로 한 장식성이 강조되는 범식화 경향 연관성도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처마내밀기는 주심에서 2,100mm 정도이지만 외4출목이므로 느껴지지 않고 공포의 체감비에 맞추어 올린 것과 같이 보이고, 봉두와 출목도리가 안으로 들어가 있어서 가볍게 떠있는 느낌이 든다. 이는 석축의 계단을 오르면서 공포대를 올려다보는 것을 고려한 구성으로 보인다. 나아가 대웅전-보제루-일주문 중심축선상의 전후면에 대응하는 맞배

지붕을 올리고 대신 시각적으로 노출되는 공포대를 화려하게 장식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공포 간격과 주칸 크기를 중심을 넓게 하고 측면으로 갈수록 좁은 간격으로 배분한 것은 1521년 창건된 이후 1648년 중창, 1702년 중중창(3중창), 1766년 4중건에 이르는 중수와 중건의 흔적일 가능성도 있지만 시각적인 보정을 위한 의도적인 설정으로 추정된다.

학술적 가치는 다음과 같다.

곡성 태안사는 지역의 중심 사찰로 봉두산에서 흐르는 주맥에 주불전인 대웅전-마당-보제루를 잇는 축선상의 앞쪽에 자리하여 사역의 경계를 상징하는 건물이다. 중심축선상의 앞뒤로 대응하는 맞배지붕을 올리고 대신 시각적으로 노출되는 공포대를 주불전에 뒤지지 않는 화려하게 장식하고 17세기 전후의 기술력이 집대성된 사례로의 학술적인 가치가 있다.

곡성 태안사 일주문의 곁상량과 속상량을 통해 1521년(중종 16년) 조계문(曹溪門)으로 창건되어 1648년 회하스님의 중창, 1702년 대선사 응섬스님, 삼보 각현스님 등의 중중창(3중창), 1766년 총욱스님의 4중건, 1917년 영월스님의 5중수 등의 기록이 잘 남아있어 일주문의 형식에서 시대적인 특성을 찾는 데 기대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화주 겸 편수인 태운은 곡성 태안사 일주문 중건을 비롯하여 1766년 태안사 능파각의 중수 그리고 1799년 곡성 태안사 대웅전의 중창 편수 및 1809년 태안사 능파각 중수도 맡고 있어 각 건축의 구조 및 수법 등과의 관계도 연구할 가치가 있다. 공포는 불감사 대웅전과 유사하나 익공형 사제공 하부 연봉이 크게 초각되고 4출목으로 화려한 모습을 하고 있어 연관성도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의 승장 쾌연-현정, 정심-태운, 손유천으로 이어지는 계보와 앞으로 태운-쾌행, 기현 등으로 이어지는 계보를 이으면서 미황사 대웅보전, 보성 대원사 극락전, 영광 불감사 대웅전, 곡성 태안사 능파각 및 일주문, 태안사 대웅전 등으로 이어지는 연관성 등을 연구해 볼 수 있는 학술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 태운은 해남 미황사 대웅보전의 3중창에 참여한 후 1766년 곡성 태안사 일주문과 능파각은 화주겸 편수로 태운이 참여하여 1799년 태안사 대웅전 중창 시 통정 품계에 올라 편수를 맡아 대웅전의 총 책임자로서 학술적인 가치가 있다.

곡성 태안사 일주문은 1766년 중건 이후의 모습이 많을 것으로 추정되나 초창 당시의 모습이 남아 있을 수도 있고 외4출목 내3출목, 법식화 경향, 공포 외단의 초각쇠서형과 내단의 연화형, 내외단의 중첩판 살미 간의 접합 방식, 귀포의 전각포 처리나 제공 단부의 초각, 용두나 연봉형 초각 등에 대한 시기별 특성이나 지역적 성격 등의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맞배지붕 형식, 처마내밀기, 공포의 체감비 그리고 공포 간격과 주칸 크기 등을 통해 시기별 중수와 중건의 흔적을 짚어보고 시각적인 보정을 위한 연구 등이 이어져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축방향으로의 전이성, 경사에 대응한 기단, 주기등의 자연스런 형태를 최대한 살린 조형성, 보조기둥 원주과 팔각주의 의장적인 요소, 보조기둥의 주두의 연화 하엽형 초각과 기둥에 맞춘 계획된 의장적인 조형성, 외4출목 내3출목의 형식과 보조기둥형으로 전라남도에서 분포하는 지역성 등에서 학술적 가치가 있다.

일주문은 합천 해인사 홍하문과 북한 안변 보현사 일주문이 조선 초기 16세기에 건립되고, 보은 법주사 일주문(1630년 조성, 소실), 구례 천은사 일주문(1678년 중건, 1775년 중건), 대구 동화사 봉황문(1680년 조성, 이건) 그리고 곡성 태안사 일주문(1683년), 예천 용문사 일주문(1687년), 대구 용연사 자운문(1695년), 경산 환성사 일주문, 괴산 공림사 영하문 등이 17세기에 건립되었다. 보은 법주사 일주문은 1630년에 조성되었으나 소실되었고, 구례 천은사 일주문이 1678년 중건 이전의 양식을 갖추고 있다고 하여도 1773년 실화에 의하여 1775년 중건되었고, 대구 동화사 봉황문은 위치를 옮겨 위치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곡성 태안사 일주문은 17세기에 조성된 일주문 중 그 자리를 옮기지 않고 그 자리에 남아 있는 일주문 중 가장 오래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측면에서 국가지정 문화재로서 가치를 지닌다고 판단된다. 곡성 태안사 일주문은 1521년(중종 16년) 조계일주문으로 창건되고, 후면 현판에는 봉황문으로 되어 있고 일주문으로 지정되어 있어 명칭에 대해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종합의견>

곡성 태안사 일주문은 역사적 측면에서 상량과 기문을 통해 1766년 중건 후의 모습으로 일주문 중 자리를 옮기지 않고 남아 있어 가장 오래되고 1521년 초창에서부터 1648년 중창, 1702년 중중창(3중창), 1766년 4중건, 1917년 5중수 등의 변화가 확인되는 시대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된다.

예술적 측면에서 이단사면배열의 공포 기둥 머리의 안쪽 용두형 장식, 외4출목 내3출목은 구조적인 안정성, 귀포의 전각포 처리나 제공 단부의 초각, 통제공을 통한 일체화, 용두나 연봉형 초각 등에서 의장성이 드러나고, 공포 외단의 초각쇠서형, 내단의 연화형, 내외단의 중첩판 살미 간의 접합 불갑사 대응전 공포와 유사하나 익공형 사제공 하부 연봉이 크게 초각되고 4출목으로 화려한 모습 등의 특수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된다.

학술적 측면에서 쾌행-현정-태운-쾌행이나 기현 등으로 이어지는 승장 계보의 측면에서 미황사 대응보전, 보성 대원사 극락전, 영광 불갑사 대응전, 곡성 태안사 능파각 및 일주문, 태안사 대응전 등과의 공포 및 공포의 구성과 초각 등에서 결구법을 바탕으로 한 장식성이 강조되는 법식화 경향 연관성 등의 계보성이 잘 드러나고, 축방향으로의 전이성, 경사에 대응한 기단, 주기등의 자연스런 형태를 최대한 살린 조형성, 보조기둥

원주과 팔각주의 의장적인 요소, 보조기둥의 주두의 연화 하엽형 초각과 기둥에 맞춘 계획된 의장적인 조형성, 외4출목 내3출목의 형식과 보조기둥형으로 전라남도예 분포하는 지역성 등이 잘 드러나고 있다. 또한 맞배지붕 형식, 처마내밀기, 공포의 체감비 그리고 공포 간격과 주칸 크기 등을 통해 시기별 중수와 중건의 흔적을 짚어보고 시각적인 보정 등도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 ※ 대상 문화재의 핵심 보존가치

- 1766년 중건되어 자리를 옮기지 않은 가장 오래된 사례이고 이후 변화가 확인되는 시대성
- 이단사면배열의 공포 기둥머리 안쪽 용두형 장식, 외4출목 내3출목은 구조적인 안정성과 지역성, 귀포의 전각포 처리나 제공 단부의 초각, 통제공을 통한 일체화, 용두나 연봉형 초각 등의 의장성
- 공포 외단의 초각쇠서형, 내단의 연화형, 내외단의 중첩판 살미 간의 접합 불감사 대응전 공포와 유사하나 익공형 사제공 하부 연봉이 크게 초각되고 4출목으로 화려한 모습 등의 특수성
- 쾌행-현정-태운-쾌행이나 기현 등으로 이어지는 승장 계보의 측면에서 미황사 대응보전, 보성 대원사 극락전, 영광 불감사 대응전, 곡성 태안사 능파각 및 일주문, 태안사 대응전 등과의 공포 및 공포의 구성과 초각 등에서 결구법을 바탕으로 한 장식성이 강조되는 법식화 경향 연관성 등의 계보성
- 축방향으로의 전이성, 경사에 대응한 기단, 주기둥의 자연스런 형태를 최대한 살린 조형성, 보조기둥 원주과 팔각주의 의장적인 요소, 보조기둥의 주두의 연화 하엽형 초각과 기둥에 맞춘 계획된 의장적인 조형성
- 외4출목 내3출목의 형식과 보조기둥형으로 전라남도예 분포하는 지역성
- 맞배지붕 형식, 처마내밀기, 공포의 체감비 그리고 공포 간격과 주칸 크기 등을 통해 시기별 중수와 중건의 흔적과 시각적인 보정 등의 의장성

##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23.01.27	대상문화재	곡성 태안사 일주문	
조사자	성 명	○○○	전공 분야	건축역사
	소 속	○○대학교	직위(직책)	부교수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문화재 명칭	곡성 태안사 일주문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세부내용 별첨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3 년 3 월 20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 1.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1.1 입지 현황

곡성 태안사 일주문은 곡성군 죽곡면 원달리 산 18-1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태안사는 동리산 서쪽 능선에 있으며 대한불교조계종 화엄사의 말사이다. 782.9m 높이의 동리산은 봉두산이라 불리우기도 한다. 사역의 남서쪽에 위치한 비래산, 선주산, 삼산 등을 안산으로 하고 있다. 태안사를 진입하기 전에 경찰충혼탑이 있다. 충혼탑을 지나면 타원형의 연못과 연못 중앙섬에 삼층석탑이 있다.

경내 전각들은 거의 남서향을 하고 있으며, 대웅전과 보제루, 일주문의 거의 일직선상에 위치한다. 대웅전과 보제루의 사이에 해회당과 적목당이 자리하여 대웅전의 안마당을 형성하였다. 태안사 경내에는 대웅전, 천불보전, 염화실, 선원, 보제루, 해회당, 능파각 등이 위치한다. 산내 암자로는 명적암, 금강선원(혜철암), 봉천암, 성기암, 봉서암이 있다.

태안사 일주문은 능파각에서 약 200m쯤 지나 부도전 앞의 높직한 돌계단 위에 건립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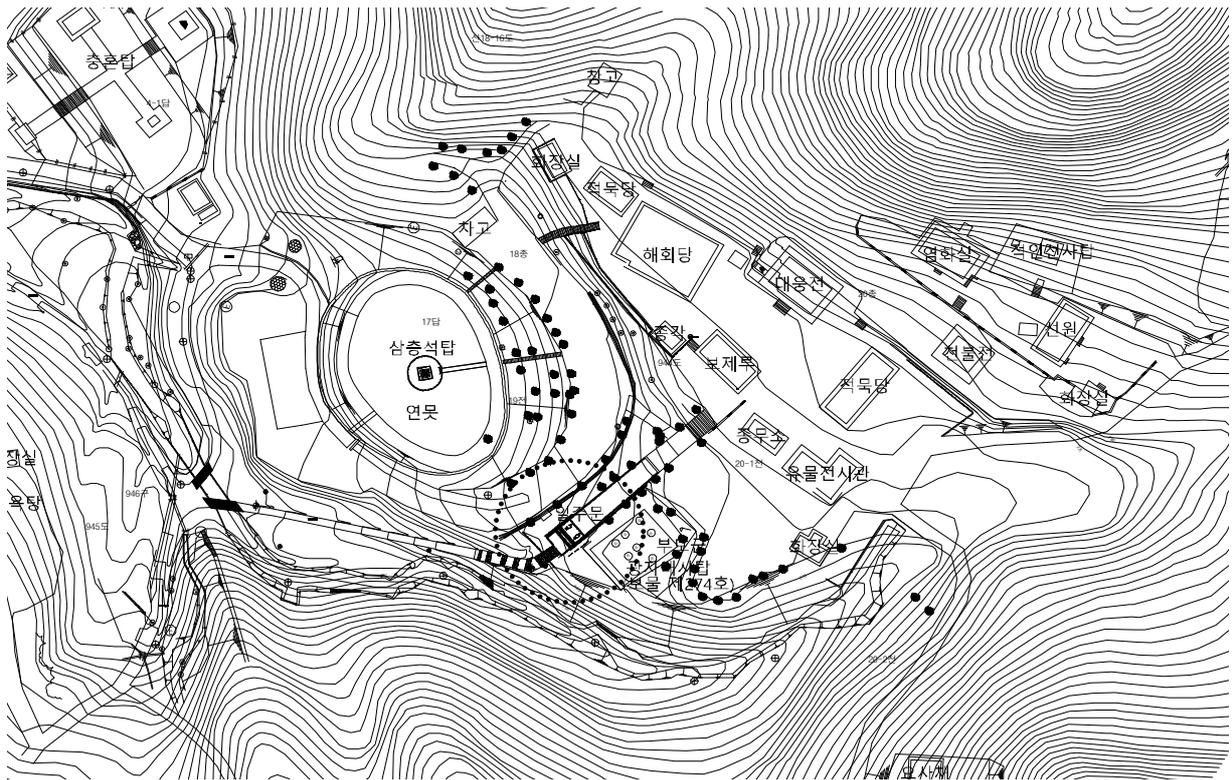


그림 1. 태안사 배치도

## 1.2 역사문화환경

혜철 스님에 의하여 태안사에서 선법을 전하면서 구산선문 중에서 동리산문이 형성되었다.

태안사에는 혜철의 부도인 적인선사탑(보물, 1963년 지정), 윤다의 부도인 광자대사탑(보물, 1963년 지정), 광자대사탑비(보물, 1963년 지정), 청동 대바라(보물, 1988년 지정), 동종(보물, 2002년 지정) 등 5개의 국가지정문화재 보물이 있다. 그리고 전라남도 유형문화재인 곡성 태안사 능파각, 전라남도 문화재 자료인 태안사와 태안사 삼층석탑, 이렇게 3개의 전라남도 지정문화재가 있다. 태안사 일주문은 1981년 전라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태안사에 진입하는 입구쪽에 효령대군영당이 있던 자리로 추정되는 장소에 경찰 충혼탑이 있다. 경내로 들어서면 타원형 연못을 지나 일주문으로 접근하게 된다. 태안사는 통일신라기인 742년에 창건하였다. 조선시대에는 효령대군 영당이 되어 조정의 지원을 받았다. 그리고 효령대군영당은 그림이 남아 있어 그 가치가 높다. 경찰 충혼탑은 한국전쟁기 산화한 경찰관 48분의 영혼을 봉안하고 있다. 이렇게 통일신라에서 현대기까지 긴 역사를 이어가는 좋은 역사문화환경을 가지고 있다.

## 2. 연혁·유래 및 특징

### 2.1 연혁 및 유래

태안사는 통일신라기인 742년에 창건되어 곡성군 관내에서는 가장 역사가 깊은 고찰이다. 적인선사 혜철스님과 광자대사 윤다스님이 주석하여 널리 이름이 알려진 구산선문 중 하나인 동리산문 명찰로서 중요한 사찰이다. [동리산태안사사적]에 기록된 광자윤다스님의 주석시 가람의 규모는 모두 126칸의 대규모 사원이었다고 되어 있다. 예전에는 대안사(大安寺)로 불렸으나 조선초기 이전부터 태안사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태종의 둘째 아들인 효령대군의 원찰이 되면서 국가적 비호를 받게 되었으며, 다른 사원들이 꺾박받고 통합되는 가운데서도 발전을 거듭해 나갔다. 효령대군의 발원으로 1447년 세종과 왕비, 왕세자의 수복을 빌기 위하여 태안사에 국내 최대 청동 바라를 발원하고 제작하였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시기에 태안사는 화를 입었으나 다시 사찰을 일으키고 중흥기를 맞은 태안사는 근래까지 사찰이 잘 유지되어 오다 한국전쟁 시 몇 동의 옛 건물만 남겨두고 전소된다. 이후 다시 여러 건물들을 세우고 다시 발전하고 있다.

태안사 일주문은 기록에 의하면 중종2년 (1521)에 ‘조계문’으로 창건되었다. [태안사 개창기]에는 ‘조계일주문’으로 시창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1648년 회하스님에 의한 중창, 1702년 대선사 응섬스님, 삼보 각현 스님등에 의한 중중창, 1766년 총옥스님에 의한 4중건, 1917년 영월스님에 의한 5중수 되었다. 태안사 일주문은 한국전쟁당시 능파각과 더불어 보존되었다. 현대에 와서는 1976년 단청을 보수하였으며 1980년과 1993년 수리 보수하였다. 1981년 전라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그리고 2015년 안전진단을 하여 2017년 해체보수하였다. 그리고 2019년 해체수리후 교체된 부재에 대하여 단청을 보수하였다. 현재 일주문은 [태안사 개창기]에 의하면 1766년 4중건의 건물로 보인다.

2017년 보수공사에서 종도리 하부의 결상량이 확인되었고, 종도리 하부 흙에서 <태안사선공의>, <대안사적인선사 비송>, <태안사개창기> 등의 기문이 확인되었다. 이 기록들은 1917년 주지 영월선사에 의해 수리되면서 모두 필사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공의에서는 효령대군의 수결의 필사까지 확인되어 왕실 원당 사찰로서의 모습도 엿볼 수 있으며, 효령대군대에 적인선사비의 변화도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용마루 양단의 명문 망와에는 좌측부 別坐 □□, 중앙 嘉慶 十四 己巳 造瓦片手 姜聖元, 우측 都監 宜逸 住持 永惠로 되어 있어 1809년에 기와 보수공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주지와 감독을 알 수 있다.

## 2.2 건축적 특징

일주문은 정면 1칸 다포계 맞배지붕으로서 주기둥과 보조기둥을 세웠다. 기단 내밀기는 원주를 중심으로 전면으로 1,950mm, 배면 1,750mm이며 측면으로 1,650mm이다. 초석의 방향은 전후방향으로 긴 형태이다. 주기둥의 직경은 약 900mm이며 보조기둥은 정면(외부쪽)은 팔각주, 배면은 원주를 사용하였다. 태안사 일주문과 같은 방식으로 보조기둥을 세우는 형식은 구례 천은사 일주문, 구례 화엄사 일주문, 하동 쌍계사 일주문, 완주 송광사 일주문, 순천 선암사 일주문 등 많은 사례에서 확인된다. 보조기둥 상부 창방을 받치는 주두는 연화문 모양으로 매우 장식적으로 조각하였다.

기둥 상부의 내부 쪽으로는 나중에 끼워 넣은 것으로 보이는 용두형 장식이 있다. 이것은 건립이후 나중에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여러 일주문에서 보이는 장식이다.

창방과 평방으로 연결하여 격자형 틀을 구성하였다.

공포는 외4출목 내3출목의 화려한 다포계 형식이다. 외4출목이지만 6제공까지 설치되어 있어 높이가 높아 보인다. 외부 공포는 평신포와 전각포를 사용하였는데 단부와 중앙부의 포 간격이 달라 전체 길이를 설정한 후에 공포의 간격을 배분할 것으로 보여 공포의 형식과 전체길이와는 시기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러 번의 중창을

거치며 기존 규모에서 공포 부분의 변화를 짐작할 수 있다. 공포 초각의 형태는 하부에서부터 보면 연화양서형, 연봉수서, 익공, 운공, 봉두형 조각을 사용하였다.

5량가이며 주심도리와 중도리는 팔각 단면이며, 중도리는 말각방형이다. 겹처마로서 처마내밀기가 2,100mm 가량된다. 풍관이 설치되어 있다.

앞면에는 ‘동리산태안사’, 뒷면에는 ‘봉황문’라는 현판이 걸어져 있으며, 앞면 좌우에는 주련“歷千劫而不古 亘萬世而長今”이 걸려 있다.

### 3. 지정 가치 및 근거 기준

#### 3.1 역사적 가치

태안사는 한국전쟁 당시 거의 소실되었으나 일주문은 능파각과 더불어 남아 있는 건물 중의 유일한 건물로 절대연대를 확인할 수 있고 각종 기록에 의해 역사성이 확인된다.

일주문은 2017년 수리공사에서 확인되는 기문과 겹상량에 의해 1766년 중건후의 모습임을 알 수 있으며, 초창에서부터 중창, 중중창, 4중건, 5중수의 변화를 알 수 있다. 상량문에 의해 절대연대가 확인되고, 변화와 역사성을 확인할 수 있다.

또 1766년 중건 당시 편수를 맡은 태윤은 미황사 대응전의 상편수·부편수, 보성 대원사 극락전 중건의 도편수·부편수 등과 연결되어 당시 전남지역 승장 계보를 짐작할 수 있는 중요한 인물이다.

#### 3.2 건축사적 가치

건립연대를 확인할 수 있어 유사한 건축형식의 다른 일주문의 기준연대를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맞배지붕의 화려한 다포계 공포를 가진 일주문이다. 지름이 큰 주기둥을 사용하고 주기둥 전후로 작은 보조기둥으로 공포를 받치고 있다. 보조기둥의 장식성이 아주 높다. 공포의 초각 및 형태는 아래부터 연화양서형, 연봉수서, 익공, 운공, 봉두형으로 화려하게 구성되어 있다. 통제공을 사용하고, 내부 귀포에서는 귀한대와 양측면의 공포 제공과 결합하여 일체성을 확보하고 있다. 태안사 일주문은 주변의 나주 불회사 대응전, 해남 미황사 대응전, 영광 불갑사 대응전에서 주로 보이는 18세기 공포의 형식을 가진다. 승장계보와도 연결되어 있으며 지역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조선후기 공포의 장식적 경향을 따르면서 일주문의 건축형식에 적절한

기법을 사용하여 완결되고 안정적인 기법을 사용한 것이다.

### 3.3 학술적 가치

태안사의 사적기로는 『동리산태안사사적』(20세기 초)과 『태안사사적』(기산석진, 1943년)이 있어 사찰의 역사를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청허당대사집(淸虛堂大師集)』(1666년)과 『대승기신론소(大乘起信論疏)』(1681년)도 태안사가 중창되던 임란 이후 무렵에 판각되었다.

2017년 보수공사에서 종도리 하부의 상량이 확인되었다. 종도리 하부의 흙에서 [태안사선공의], [태안사 적인선사 비송], [태안사 개창기] 등의 찬문이 있었다. 1917년 주지인 영월선사에 의해 필사된 것으로 보인다.

선공의에서는 효령대군 수결의 필사로 확인되어 학술적 가치가 있다. 그리고 태안사의 주변에는 홍살문이 있고 담장을 둘러싸인 효령대군영당이 있었다. 이렇기에 원당으로서 연구할 수 있는 학술적 가치가 높다.

#### <종합의견>

태안사의 위치는 동리산을 기반으로 좋은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태안사는 742년 창건되어 고려시대 크게 번창하였고 조선시대에도 효령대군의 영당이 있어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 현대기에는 경찰충훈탑이 주변에 있어 좋은 역사문화환경을 가지고 있다.

태안사 일주문은 1521년 초창되었으며 현재의 일주문은 기록상으로 1766년에 건립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서 태안사 일주문은 건립년대가 어느정도 명확하여 다른 일주문의 시기 편년에 기준이 될 수 있어 그 가치가 높다.

건축적으로는 주기등과 전후로 보조기등을 가지고 있으며 맞배지붕의 다포계 공포를 가지고 있다. 주변의 나주 불회사 대웅전, 해남 미황사 대웅전, 영광 불갑사 대웅전에서 주로 보이는 18세기 공포의 형식을 가진다. 또한 승장 계보에서도 지역적인 성격을 같이 보여준다. 지역성을 찾을 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

구산선문중 동리산문의 일주문으로서 역사적 가치가 높다.

이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서 지정가치가 있다고 사료된다.

※ 대상 문화재의 핵심 보존가치

- 구산선문 중 동리산문의 사찰 일주문으로서의 가치
- 직경이 큰 주기둥과 화려한 보조기둥을 가지고 있는 맞배지붕의 다포계 일주문
- 건립년대가 어느정도 명확하여 기준이 될 수 있는 일주문으로서의 가치
- 형태로서 또는 승장계보로서 대표적인 지역성을 가진 가치

## 4. 하동 쌍계사 일주문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 가. 제안사항

경남 하동군 소재 「하동 쌍계사 일주문」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사항을 심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경남 하동군 소재 「하동 쌍계사 일주문」을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항은 2023년 건축문화재분과 제8차 회의(2023.08.17.)에서 원안가결된 사항으로, 예고기간('23.08.28~'23.09.27) 동안 별도의견 없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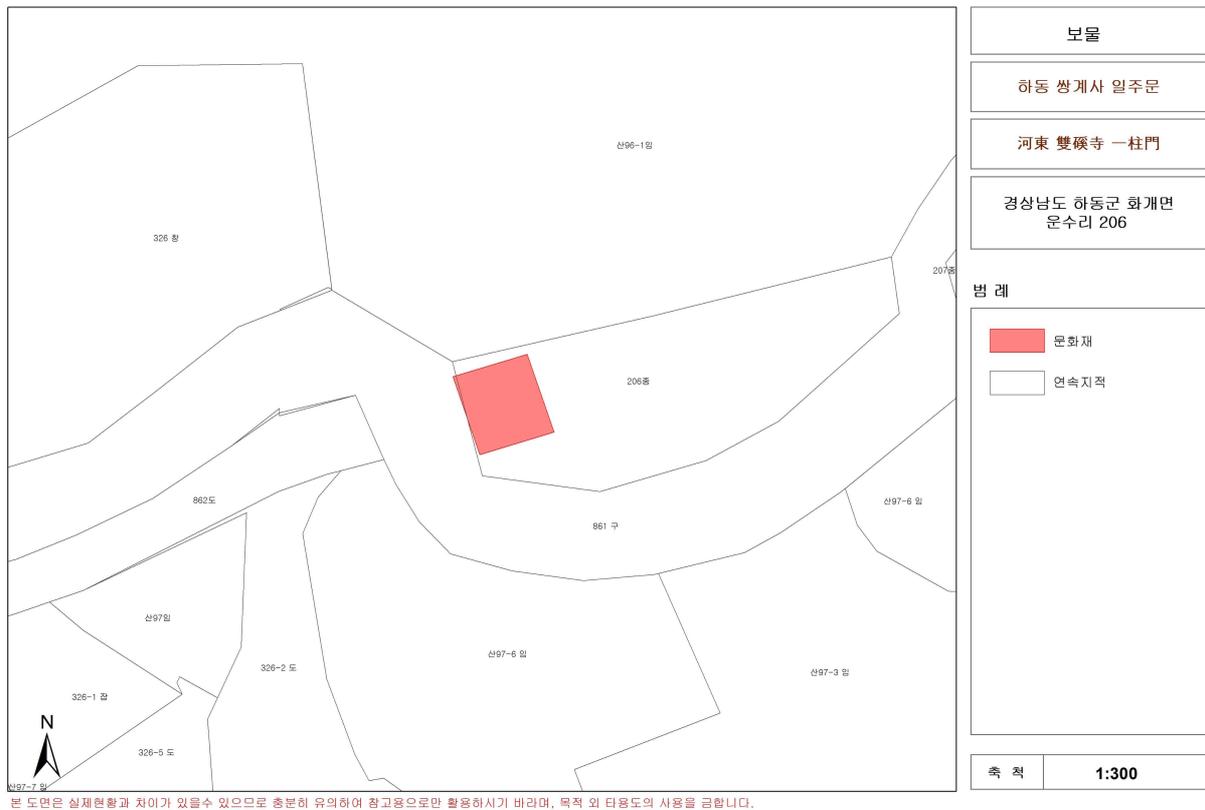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경상남도지사
- (2) 대상문화재 :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하동 쌍계사 일주문」
  - 소재지 :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운수리 206
  - 지정일 : 1974. 02. 16.
- (3) 신청내용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 명칭 : 하동 쌍계사 일주문(河東 雙磎寺 一柱門)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쌍계사
  - 소재지 :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운수리 206
  - 조성연대 : 조선시대
  - 수량 : 1동
  - 지정면적 : 64.12㎡
  - 구조/형식/형태 : 목조 / 다포계 / 팔작지붕

라. 현지조사 의견(2023.02.21. /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 문화재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 문화재전문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 문화재전문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마. 지형도면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원안가결 8명

##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23.02.21	대상문화재	하동 쌍계사 일주문	
조사자	성 명	○○○	전공 분야	건축
	소 속	○○○○○○○학교	직위(직책)	부교수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문화재 명칭	하동 쌍계사 일주문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세부내용 별첨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08월 02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 1.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하동 쌍계사 일주문은 하동군 화개면 운수리 206번지에 위치하며, 1974년 2월 16일 경상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쌍계사는 지리산과 섬진강이 절묘한 조화를 이룬 곳에 자리잡았다. 지리산 자락 쌍계사 주변 사찰로 서쪽에는 화엄사(華嚴寺), 천은사(泉隱寺), 연곡사(鸞谷寺)가 동쪽에는 법계사(法界寺), 대원사(大源寺)가, 북쪽에는 실상사(實相寺)가 있다.

쌍계사는 크게 금당영역과 대웅전영역으로 구분되며, 두 영역이 서로 직교하는 가람배치를 이루고 있다. 금당영역은 국사암의 계곡으로부터 흘러드는 계류 건너편에 남북축을 위치한다. 영역의 전각들은 경사가 급한 지형에 따라 하단, 중단, 상단에 나누어 위치하며, 청학루, 팔상전, 금당 등이 각각 배치되어 있다. 금당은 육조정상을 모시므로 이는 선종의 성지라 할 수 있고, 그 위계가 법당보다 상단에 위치하고 있다. 그 다음은 법당과 선방(禪房), 조사(祖師)를 모신 영모 전이 중단에, 마지막 단계로 방장실이 하단에 위치한다. 이러한 3단의 구성은 산지사찰로서 산기슭의 고저차를 이용하여 자연스럽게 그 위계를 결정하고 있다. 대웅전영역은 금당영역과 직교하여 동서의 긴 축선으로 삼신봉을 기준으로 펼쳐지는데 동·서 경사지형의 직선축에 따라 일주문, 금강문, 천왕문을 차례로 진입하면 중정에 팔각구층석탑이 세워져 있으며, 여기서 한 단 높은 곳에 팔영루가 자리 잡고 있다. 팔영루의 맞은편에는 다시 한 단을 높게 하여 주불전인 대웅전이 자리하고 그 앞에는 오층석탑과 석등을 쌍탑 형식으로 배치하고, 전면 중정 가운데에 국보인 하동쌍계사진감선사탑비가 축선에 무관하게 정남향으로 배치되어 있다.

국보로 지정된 ‘쌍계사진감선사대공령탑(雙溪寺眞鑑禪師大功靈塔)’은 진감선사 혜소의 덕을 기려 세운 탑비로 887년에 세워졌다. 이 비석의 글은 왕명으로 최치원이 짓고 쓴 것으로 가치가 높다. 보물로 지정된 ‘하동쌍계사승탑’은 진감선사의 승탑으로 탑비와 함께 9세기 후반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쌍계사 대웅전은 정면 5칸, 측면 3칸의 건물로 1636년에 상량했으며 삼존불과 사보살을 모셨다. 대웅전 안의 목조 삼세불좌상 및 사보살입상은 1639년에 조성되었으며 조각 수법이 매우 자연스럽게 사실적이어서 작품성이 뛰어나다. 이외에도 동종, 감로왕도, 괘불, 팔상탱, 삼세불탱, 영산회산도 등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 2. 연혁 · 유래 및 특징

### 1) 하동 쌍계사 및 일주문의 건축 연혁

하동 쌍계사는 신라말 진감선사 혜소(眞鑑禪師 慧昭, 774~850)가 개창한 옥천사(玉泉寺)를 기원으로 삼는다. 「진감선사대공영탑비명(眞鑑禪師大空靈塔碑銘)」(887)에 따르면, 진감선사는 화개곡에서 삼법(三法) 화상이 남긴 절터를 발견하여 840년(신라 문성왕 2)에 불전을 짓고 옥천사라 이름하였다. 그러나 동일한 이름의 사찰이 이웃에 있었기 때문에 헌강왕(憲康王, 재위 875~886)이 쌍계사(雙溪寺)로 사명을 고쳤다고 한다.

하동 쌍계사에 관한 고려시대 문헌자료는 드물다. 조선시대의 문헌으로는 1549년(명종 5)에 청허 휴정(淸虛 休靜, 1520~1604)이 쓴 「지리산쌍계사중창기(智異山雙溪寺重創記)」, 18세기 말에 경암 응윤(鏡巖 應允, 1743~1804)이 작성한 「중록쌍계사사적기(重祿雙溪寺寺蹟記)」, 1857년(철종 9) 침명 한성(枕溟 罕醒, 1801~1876)이 지은 「영남하동쌍계사사적기문(嶺南河東雙溪寺事蹟記文)」 등이 있어서 개략적인 건축 연혁을 구성해볼 수 있다.

기문들에 따르면, 1466년(세조 12)에 선비대사가 팔상전(捌相殿)을 중수했고, 1506년(중종 1)에 진주목사 한사개(韓士价, 1453~1521)가 전반적인 중수를 추진했다. 그러나 곧 황폐한 상태로 방치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1540년(중종 35)에 승려 중섬(仲暹)이 조정에 나아가 진감선사탑비가 지극한 보배임을 알리고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간청한 결과, 예조에서 반경 5리 내 금표를 세워 훼손을 막았고, 팔영루(八詠樓) 5칸의 지붕을 다시 잇고, 진감선사탑비의 앞뒤에 석대를 쌓았으며, 연못을 만들어 물을 흐르게 하였다. 1543년(중종 38) 여름에는 승려 혜수(惠修)가 중창할 뜻을 세우고 시주를 모집하여, 몇 해에 걸쳐 대웅전을 세우고 차례로 금당과 방장을 지어나갔다. 1549년(명종 5)에는 서산대사 청허 휴정(淸虛 休靜, 1520~1604)이 사역을 중수하였다. 그러나 임진왜란에 닥쳐 전란으로 사역의 대부분이 피해를 입게 되었다.

17세기 초 인조 재위 시, 1628년에서 1644년까지 대대적인 중창이 이루어졌다. 기존 영역에 원래 있었던 육조영당, 고법당, 팔상전, 영주각, 동방장, 서방장, 봉래당, 청학루, 대석조 등의 전각이 복구되었다. 동시에 벽암 각성(碧巖覺性, 1575~1660)의 주도 아래 옛터의 바깥쪽으로 새로운 터를 마련하여 삼여래와 사보살을 봉안한 대법당, 응진당, 명부전, 화엄각, 팔영루, 요사채 등을 새롭게 건립했다. 새로운 사역의 중심에는 진감선사탑비가 자리 잡게 되었다. 새로 지어진 대웅전의 연혁은 2007년 대웅전 해체수리 당시 종도리에서 발견된 목서를 통해 확인되었다. 이에 따르면, 대웅전은 1636년(인조 14)에 벽암 각성(碧巖

覺性, 1575~1660)과 소요 태능(逍遙 太能, 1562~1649)이 창건한 후, 1695년(숙종 21)에 백암 성충(栢庵 性聰, 1631~1700)이, 1735년(영조 11)에 법훈(法訓) 등이 중수하였다. 이후 19세기 초에 팔상전이 중수되었고, 19세기 중반에는 화엄전·천왕문·금강문이 중수되었다. 1864년(고종 1)에 담월(潭月)과 용담(龍潭)이 육조정상탑전에 7층 보탑을 건립하였고, 1975년을 전후로 고산(杲山, 1933~2021) 화상이 대대적으로 중창불사를 시행하였다.

하동 쌍계사의 건축 기록에서 일주문에 관한 연혁은 찾기 힘들다. 대신에 여러 유람기에서 쌍계석문(雙碕石門)이 반드시 등장하는데, 오래전부터 쌍계사의 경계를 표시하는 일주문과 같은 역할을 해왔을 것이라 예상된다. 15세기의 기록인 청과 이륙(靑坡 李陸, 1438~1498)의 「유지리산록(遊智異山錄)」(1463), 추강 남효온(秋江 南孝溫, 1454~1492)의 「지리산일과(智異山日課)」(1487), 탁영 김일손(濯纓 金駟孫, 1464~1498)의 「두류기행록(頭流紀行錄)」(1489) 등을 종합해 보면, 하동 쌍계사로의 여정은 쌍계석문에서 시작해서 진감선사탑비를 감상하고 최치원이 심었다고 전해지는 느티나무의 뿌리로 자연스럽게 형성된 다리를 통해 개울을 건너 팔영루의 옛터와 금당, 그리고 방장으로 향하는 과정이었다. 즉, 산문-부도-다리-누문-불전으로 구성되는 사찰의 서사구조를 이미 갖추고 있었다고 간주할 수 있다. 쌍계석문은 고운 최치원(孤雲 崔致遠, 857~908)이 쓴 글씨가 좌우로 각자 된 쌍바위로서 오래전부터 명승으로 자리잡았으며, 화개천에서 쌍계사로 들어가는 계곡의 입구에 있어서 산문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하동 쌍계사 일주문의 창건은 1630년대부터 1640년대에 걸쳐 진행되었던 왜란 후 중창사업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존 금당 영역의 복구와 신규 대웅전 영역의 창건은 경내 진입 동선과 방식에 큰 변화를 초래했을 것이다. 예를 들어, 1616년에 쌍계사를 방문한 부사 성여신(浮查 成汝信, 1546~1632)은 「방장산선유일기(方丈山仙遊日記)」에서 팔영루를 지나 요학루 앞에서 말에서 내렸다고 했는데, 1651년에 쌍계사를 방문한 양곡 오두인(陽谷 吳斗寅, 1624~1689)은 「두류산기(頭流山記)」에서 말을 두고 여를 타고 올라가서 쌍계사에 도착하였다고 했다. 즉, 17세기 초에는 말을 타고 요학루까지 접근이 가능했지만, 17세기 중반에는 가마를 타고 오르는 방식으로 바뀐 것이다. 이는 쌍계사 중창 공사의 결과로 건물의 숫자가 증가하고 계단과 문을 통해 진입하는 동선이 발생한 것을 암시하는 듯하다. 현재와 같이 일주문, 금강문, 천왕문 등이 사역의 앞쪽에 도열한 상황을 예상해볼 수 있다.

쌍계사 관련 기록에 처음 등장하는 문은 조계문(曹溪門)이다. 우담 정시한(愚潭 丁時翰, 1625~1707)의 「산중일기(山中日記)」 중 1686년(숙종 12) 8월 16일자에 따르면, 우담이 쌍계사 앞 냇가에 이르러 동행했던 두 스님 중 청언 스님과 헤어지고 호열 스님과 함께 독

목교(獨木橋)를 건너서 조계문(曹溪門)으로 들어가 고방장실(古方丈室)에 이르렀다고 한다. 상황을 현재에 맞게 재구성해보면 화계천의 쌍계석문 앞에서 청언 스님과 헤어진 후 외나무 다리를 건너 400m 정도를 걸어서 일주문에 다다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독목교가 유명한 최치원의 느티나무 다리를 가리키는 것이라면 조계문은 북쪽의 고법당 영역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어야 한다. 조계문으로 들어가 고방장실에 이르렀다는 문장은 조계문이 북쪽 고법당 영역의 정문이었을 가능성을 높여 준다. 만약 후자의 해석이 타당하다면, 조계문은 임진왜란 이전부터 갖추고 있었던 오래된 건물일 수 있다.

문헌에 쌍계사 일주문(一柱門)이 분명하게 등장하는 것은 18세기 이후이다. 최초의 기록은 이계 황도익(夷溪 黃道翼, 1678~1753)의 「두류산유행록(頭流山遊行錄)」(1744)이다. 일기의 9월 5일자에는 일주문(一柱門)을 지나 정문(正門)에 도착하니 깜짝 놀랄만큼 맑고 빼어나 진실로 아름다운 경관이었다는 문장이 있다. 이어서 훼손된 전각들이 많아서 절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데, 흉년에다 부역이 많아서 절의 승려들이 감당하기 어려웠으리라 추정하는 대목이 있다. 18세기 중반에는 쌍계사의 사세가 많이 기울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계가 언급한 일주문을 지나 정문에 도착하는 과정은 아마도 일주문, 금강문, 천왕문을 지나 팔영루에 다다른 모습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일주문·금강문·천왕문의 삼문 체계를 갖추고 중층 누각을 정문으로 인식하는 개념은 조선 후기의 일반적인 상식이었다. 이렇게 본다면, 18세기 초반에는 지금 위치에 일주문 등이 건립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삼문 체계가 언제 완성되었는가 하는 문제가 일주문 연혁의 중요한 실마리가 된다. 1630년대 이후 새롭게 조성된 대웅전 영역에는 팔영루와 진감선사비, 대웅전이 동서로 축선을 이루는 가운데 학사당과 적묵당이 대웅전의 좌우를 감싸는 배치가 완성되어 있었다. 일주문·금강문·천왕문은 이 동서축을 강화하는 위치에 도열했기 때문에 대웅전 공사 이후에 완료되었을 것이다. 삼문 중 건축연대가 비교적 명확한 것은 천왕문뿐이다. 천왕문의 수리공사시 지국천왕상 내부에서 한지 묵서(墨書)의 복장문(腹藏文) 6매가 나와 천왕상이 1705년(숙종 31) 제작된 작품임이 확인되었다. 천왕문 건물은 한해 전인 1704년에 박봉 화상이 지었고, 1854년에 성침(聖沾) 화상이 중수한 것을, 1978년에 고산 화상이 다시 수리한 것이다. 금강문은 일주문과 마찬가지로 창건 연대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1854년 성침 화상에 의해 중수된 기록이 남아 있고, 1979년에 고상 화상이 수리하였다.

현재 사중에서는 일주문과 금강문이 1641년에 벽암 각성에 의해 건축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벽암 각성의 행장을 보면, 각성은 1640년, 66세 무렵에 화엄사에서 쌍계사로 옮겨가 사찰을 중창 불사하였다고 한다. 이를 근거로 경내의 많은 건물들이 당시에 건립된 것으

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각성은 쌍계사에 그리 오래 머무르지 않았다. 그해 8월, 조정의 요청으로 무주 적상산성(赤裳山城)에 갔다가 후반에는 완주 송광사에 주석하였고, 또 1641년에는 해인사에 머물렀다가 백운산(白雲山) 상선암(上仙庵)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그러므로 각성은 쌍계사 중창 불사의 전반을 주도하였다기보다는 기본적인 계획방침을 지도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대웅전까지의 진입축을 강조하는 일주문·금강문·천왕문을 일렬로 세우는 배치계획이 수립되었을 수 있다. 그러나 천왕문의 건축이 1704년에 완료되는 것을 고려해본다면 일주문과 금강문 역시 18세기의 건축일 가능성이 있다.

하동 쌍계사 일주문 공포의 양식적 특징은 18세기 건립설에 힘을 신는다. 1636년에 건축된 것이 증명된 하동 쌍계사 대웅전의 공포는 소로를 사이에 두고 위아래 쇠서가 분리되어 있는 소위 저울대 형식으로 구성되었지만, 일주문의 공포는 위아래 채공이 중첩되어 일체화된 형식이다. 이러한 경향은 17세기 중반 이후에 나타나 18세기에 전형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현 일주문 공포의 형식은 1641년의 중건에 따른 결과물이라기보다는 1704년 천왕문 건립과 연계된 삼문 체계의 성립과 연결될 가능성이 더 높다.

1854년에는 성첨(聖沾) 화상이 천왕문과 금강문을 중수하였는데, 이때 일주문은 대상이 아니었다. 경제적 사정으로 훼손이 심한 것부터 수리한 것으로 짐작되지만, 일주문이 천왕문과 금강문보다 나중에 건립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태가 양호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18세기 후반에 쌍계사는 한번 더 어려움에 처했던 것으로 보인다. 18세기 말에 작성된 경암 응운(鏡巖 應允, 1743~1804)의 「중록쌍계사사적기(重錄雙溪寺寺蹟記)」에는 지금 쌍계사에 법전(法殿), 정루(正樓), 현당(玄堂), 향로전(香爐殿)만 유일하게 남아있다고 하여 삼문의 존재를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1705년에 제작된 사천왕상을 1880년에 개채(改彩)한 기록이 있고, 사천왕상과 천왕문이 현재까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나머지 건물들도 쇠락한 상태로나마 근근히 유지되어 왔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일주문 수리에 관해서는 1977년 고산(杲山, 1933~2021) 화상의 중수 이전까지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1990년에 금강문, 천왕문과 함께 번와공사 및 단청공사를 실시하였으며, 1991년에는 박석공사를 시행하였다. 이후 2008년에는 일주문에 대한 전면 해체보수가 시행되었으며, 2021년에는 일주문에 대한 데이터 자료 구축을 위하여 정밀실측 기록화 작업을 실시하였다.

## 2) 하동 쌍계사 일주문의 건축 특징

하동 쌍계사 일주문의 기둥은 하부 지름 612~658mm, 상부 지름 570~648mm의 곧은 목재를 이용해 민흘림을 주었다. 기둥의 높이는 약 3m 내외이고 기둥간 거리는 3.6m 내외이다. 기둥의 하부에는 보방향으로 통장부를 내어 신방목을 결구하고 도리방향으로는 문지방을 달았다. 두 기둥 머리에는 창방을 끼운 후 평방을 올렸다. 창방의 단면은 200×265mm이고, 평방의 단면은 390×240mm이다. 창방 뺄목은 300mm 내외로 다소 짧다. 평방을 창방보다 조금 더 길게 내밀었으며, 창방과 평방의 뺄목은 직절했다.

창방과 평방은 口자 모양의 사각틀을 형성하였다. 창방과 평방이 이루는 사각형의 중심선 치수는 가로 3,664~3,665mm, 세로 2,732~2,762mm로 실측되어 영조척 약 305mm로 각각 12척(尺)과 9척에 대응하고 있다. 4:3의 평면비는 일주문 건축에서는 드물게 정방형에 가까운 것으로서 웅장한 지붕을 표현하기에 효과적이다. 그러나 기둥 두 개로 하중을 받는 일주문 건축의 특성상 공포대의 평면비례가 정방형에 가까울수록 구조적 취약점이 증가하므로 네 귀에 보조기둥을 받친 것은 필수불가결했다고 할 수 있다.

하동 쌍계사 일주문의 공포는 정면과 후면에 주간포 3구씩, 측면에 각각 주간포 2구씩, 네 귀에 귀포 1구씩, 총 14구가 배열되었다. 정면의 주간포가 3구인 사례는 많지만 측면 주간포가 2구인 사례는 매우 드물다. 일주문 측면에서 짝수의 주간포는 하중을 좌우로 분산시켜 평방과 창방의 부담을 가중시키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팔작지붕 일주문에서 측면 주간포는 1구가 설치되며, 대구 동화사 봉황문(17), 함양 용추사 일주문(18), 북한 소재 석왕사 조계문(18)과 같이 주간포가 3구 설치된 사례도 종종 발견된다. 그러나 측면 주간포가 2구 설치된 사례는 쌍계사 대응전을 제외하면 대구 용연사 자운문(17세기) 정도를 발견할 수 있을 뿐이다. 대구 용연사 자운문은 두터운 기둥 옆으로 주선을 달고 아래로 넓어지는 사부재를 한 번 더 덧대어 사실상 창방 아래를 대부분 받치는 형식을 취했다. 이를 통해 달성한 최외곽 외목도리 간 거리는 약 3.8m 정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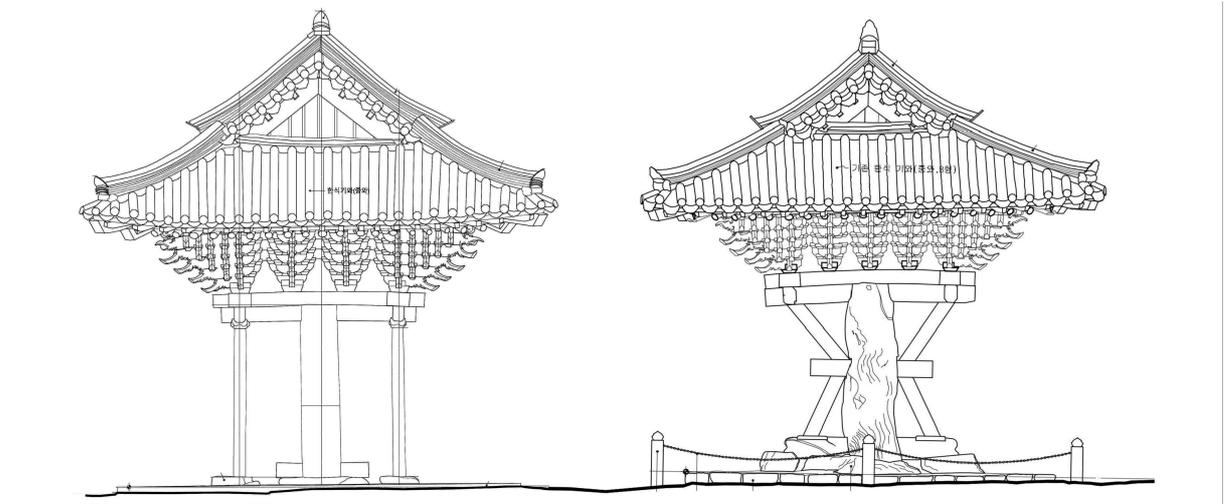


그림 1. 측면 공포의 비교  
(좌)하동 쌍계사 일주문 (우)함양 용추사 일주문

그러나 하동 쌍계사 일주문의 전후 외목도리 간격 실측치는 4,596mm로서 현존하는 조선 시대 일주문 중 가장 큰 치수를 갖는다. 측면에 주간포를 3구씩 올린 용추사 일주문의 4,481mm보다도 더 크다. 하동 쌍계사 일주문과 용추사 일주문의 공포는 모두 내외4출목 9포작 형식이지만 쌍계사의 공포가 규모가 크고 넓게 배열되었다. 일주문 공포의 외목도리와 내목도리 사이의 수평거리는 공포의 전후방향 크기의 지표가 될 수 있는데, 용추사 일주문의 공포는 약 5.5척 내외로 측정되지만, 하동 쌍계사 일주문 공포의 치수는 약 6척에 달한다. 또한 용추사 일주문 공포가 2.25척 간격으로 배열된 것에 비해, 하동 쌍계사 일주문 공포는 3척 간격으로 배열되었다. 결과적으로 두 일주문의 측면 규모를 비교해볼 때, 주간포가 3구 설치된 용추사 일주문이 형식적으로 더 복잡하지만, 주간포가 2구 설치된 하동 쌍계사 일주문이 실제 치수는 더욱 크다.

다동 쌍계사 일주문의 공포는 내외 4출목 9포작이다. 내외 4출목 9포작은 일주문에 사용된 공포 중 가장 큰 것이다. 이 규모를 갖는 일주문은 구례 천은사 일주문(17세기), 함양 용추사 일주문(18세기) 정도이고 모두 지리산 주변의 내륙지역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공포의 살미 구성은 소로 앞쪽에서 제공들이 상하로 연접하여 일체화된 중첩판 형식이다. 공포 외부는 초제공부터 4제공까지 연화쇠서형, 5제공은 연화익공형, 6제공은 봉두형으로 처리했다. 공포 내부는 쇠서를 표현하지 않는 대신 연화의 성장을 표현했다. 초제공부터 연봉이 점차 피어올라 4제공에 연봉이 드러나고 5제공에서 만개하였다가 6제공에서 오므라드는 모습이 표현되었다. 귀포는 팔작지붕의 처리방식에 따라 평방틀의 네 모서리에 모두 구성되었다. 귀한대는 살미와 동일하게 4제공까지는 연화쇠서형으로 처리하고 5제공은 연화익공형, 6제공은 운공형으로 장식하였다. 귀포 좌우대의 경우 6제공은 운공형과

봉두형을 각각 2개씩 교차로 사용하였다. 제공이 일체화되어 판상형으로 나타나고 연화 조각이 화려해지는 경향은 18세기 이후 크게 유행한 공포 양식이다. 살미와 수직으로 결합되는 첨차는 대첨차와 소첨자로 구성되며, 주심첨차와 출목첨차 모두 위치에 상관없이 첨차의 치목 형태는 동일하다. 양 끝단을 높이의 1/3지점에서 반원 형의 호를 그리며 밑단을 둥글렸다. 주두는 크기에 차이가 있어 수리과정에서 규격이 섞인 것으로 보이며 한 변이 360mm~380mm이고 높이가 205mm 정도이다. 소로는 150mm×150mm×90mm의 크기이다. 주두와 소로는 모두 사절된 평굽형식을 따랐다.

지붕가구에서 도리는 주심도리, 외목도리, 내목도리, 종도리를 모두 설치하여 총 7개의 도리를 올렸다. 도리의 단면은 지름 250mm로 약간 굽은 부재를 사용하였다. 실측도에 따르면, 대들보는 하나만 구조되어 건물의 중심을 가로지른다. 대들보 위에는 중보와 종보를 두지 않았다. 대신에 판대공과 동자주로써 내목도리와 종도리를 받치고 있다. 주심과 내목에는 도리 높이까지 장여를 증첩시켜 판상형 구조를 완성했다. 장여 부재는 단면 치수는 90mm×150mm이다. 겹처마 팔작지붕을 구성하기 위해 네 모퉁이에 추녀와 사례를 설치했다. 외목도리와 주심도리의 왕지부분을 따내고 추녀의 바닥을 앉혔으며, 추녀의 뒷뿌리는 내목 외기 상단을 지나 종도리 위에서 결구되었다. 추녀와 사례는 곡이 거의 없는 직선형에 가까운데 아래쪽에서 약한 경사를 주었다. 종도리 위에서는 단연을 ×자로 교차시킨 후 덧도리를 올려 고정했다. 장연은 내목도리에서 시작해서 처마까지 뻗었고 단면은 직경 150mm 정도이다. 장연 끝에는 평고대를 걸고 부연을 달았다. 부연의 단면 크기는 90mm×135mm이고, 부연 내밀기는 460mm 정도이며, 부연착고와 부연개판이 설치되었다. 전체적인 처마내밀기는 2.3m 정도이다. 기와는 중와가 사용되었다. 용마루 끝과 내림마루, 추녀마루에는 망와를 올리고, 처마 끝은 막새기와로 마감하였다.

창방과 평방으로 구성된 구조들의 귀퉁이에는 각각 보조기둥을 받쳤다. 일주문에 보조 기둥을 세운 사례는 순천 송광사 일주문, 구례 화엄사 일주문, 구례 천은사 일주문, 곡성 태안사 봉황문, 장흥 보림사 일주문 등으로서 전라남도 지역의 지역색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쌍계사 일주문은 측면 공포대의 치수가 큰 사례로서 보조기둥의 존재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보조기둥은 하부 두께가 210mm, 상부 두께가 179~191mm인 원기둥으로 민흘림을 주었고, 자연석 초석 위에 그랭이질하여 세웠다. 연꽃 모양으로 장식한 주두는 귀한대 제공을 받기 위해 6갈을 내었다. 초석은 모두 자연석을 사용하였으며, 주기둥을 받치는 초석과 보조기둥을 받치는 초석을 독립적으로 구성했다. 주기둥의 초석은 폭 1,165~1,857mm의 큰 부재를, 보조기둥의 초석은 폭 667~1,407mm의 비교적 작은 부재를 사용하였다.

일주문 전면에는 ‘삼신산쌍계사(三神山雙溪寺)’, 후면 평방에는 ‘선종대가람(禪宗大伽藍)’

현판이 걸려 있다. 글씨는 근대 서화가로 이름을 떨친 해강 김규진(海岡 金圭鎭, 1868~1933)이 쓴 것으로 알려졌다. 배면 현판의 크기는 1,700mm×440mm 정도이다. 주기동에 걸린 현판은 불기 2529년(1985년)에 우송 민효식(友松 閔孝植, 1926~)이 쓴 글씨이다. 우측 주련에는 ‘입차문래막존지해(入此門來莫存知解: 이 문을 들어서면 아는체 하지마라)’, 좌측 주련에는 ‘무해공기대도성만(無解空器大道成滿: 아는 것이 없는 빈 그릇에 큰도가 가득찬다)’이 쓰여있다. 『조선고적도보』 13권에 수록된 일제강점기의 사진에는 글씨의 크기 및 형태가 다른 현판이 걸려 있어서 지금의 현판은 이후에 교체한 결과로 파악된다.

### 3. 지정가치 및 종합의견

하동 쌍계사 일주문은 임진왜란 이후 사찰의 구성 체계가 크게 변모한 17세기 중반 이후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며 주요한 문화재적 가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임진왜란 이후 중창 불사에서 산문 체계가 확립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1630년대에 진행된 하동 쌍계사의 중창 불사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남북 방향의 언덕에 자리잡았던 유래 깊은 육조영단, 고법당, 팔상전 등의 복구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진감선사탑비를 중심으로 동서 방향의 새로운 대웅전 영역을 조성하는 공사가 시행되었다. 1636년 대웅전의 상량식을 정점으로 하는 중창 사업은 팔영루, 진감선사탑비, 대웅전이 새로운 축을 이루고 요사채가 마당의 양옆을 막아서는 중정형 배치를 채택했다. 대웅전 영역으로의 진입축에 맞추어 일주문, 금강문, 천왕문이 도열하면서 하동 쌍계사의 배치구조는 완전히 변모했다. 전란 이후 조선의 사찰은 통불교적 성격이 강해지고 수륙재 등 불교의식을 적극적으로 설행하기 위해 배치의 변화를 꾀하게 되었다. 이때 기존의 법당 영역과 별도로 새로운 공간구조를 계획하는 경우가 많았다. 새로운 사찰의 진입동선은 일주문을 포함한 삼문, 정문을 대신하는 중층 누각, 중정의 중심에 자리한 석탑, 석가모니불을 안치한 대웅전이 축선 상에 위치하도록 하였다. 사찰 입구의 일주문, 금강문, 천왕문 등은 신자들의 종교적 체험을 강화하고 각종 의례를 설행하는 장소가 되었다. 하동 쌍계사 일주문은 일렬로 도열한 금강문, 천왕문과 함께 사찰 구조의 중심을 고법당에서 대웅전으로 교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둘째, 현존하는 조선시대 일주문 중 측면 규모가 가장 큰 사례에 속한다. 하동 쌍계사 일주문은 정면과 후면에 주간포 3구씩, 측면에 주간포 2구씩 설치하여 귀포를 합쳐 총 14구의 공포를 둘렀다. 정면의 경우 동화사 봉화문이나 용추사 일주문과 같이 주간포가 5구인 경우, 또 해인사 흥하문이나 보림사 일주문과 같이 주간포가 4구인 경우가 존재하므로 규

모가 크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측면 규모는 현존하는 조선시대 일주문 중 가장 큰 사례로 꼽힌다. 전후 외목도리 간격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일반적인 일주문 건축의 측면 규모는 4m를 초과하지 못하는 것에 비해 하동 쌍계사 일주문은 4.6m에 육박한다. 또한 내외 4층 목 9포작의 화려한 공포를 치수를 줄이지 않고 여유롭게 배열한 결과, 측면에 주간포가 3구 설치된 함양 용추사 일주문보다 측면 치수가 더 크게 계획되었다. 극도로 확장된 측면 규모로 평방틀의 평면비는 4:3을 이루며, 일반적인 2:1 비율의 일주문에 비해 웅장한 지붕과 깊이감을 표현할 수 있었다.

셋째, 조선 후기 공포 양식 발전의 전형성을 대표하고 있다. 조선 후기의 공포 양식은 소로를 사이에 두고 위아래 쇄서가 분리되어 있던 저울대 모양의 형식에서 위아래 제공이 중첩되어 일체화된 판 모양을 이루는 형식으로 변화한다. 이에 따라 공포의 장식이 화려해지고 구조적 안정성이 증대되는 효과가 수반되었다. 하동 쌍계사 대웅전의 외부 살미는 초제공부터 4제공까지 연화쇠서형, 5제공은 연화익공형, 6제공은 봉두형으로 처리한 조선 후기 공포 양식의 전형적인 기법을 구현하고 있으며, 내부에서는 초제공부터 연봉이 점차 피어올라 4제공에 연밥이 드러나고 5제공에서 만개하였다가 6제공에서 오므라드는 모습으로 장식의 서사성을 더했다. 이러한 양식적 특징은 17세기 중반에 사례가 등장해서 18세기 이후 크게 유행하는 건축 양식의 사조를 반영하는 것으로 조선 후기 건축사의 시대성과 지역성을 연구하는데 귀중한 사료가 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하동 쌍계사 일주문은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23. 2. 21.	대상문화재	하동 쌍계사 일주문	
조사자	성 명	○○○	전공 분야	전통건축
	소 속	○○○○○○대학	직위(직책)	겸임교수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문화재 명칭	하동 쌍계사 일주문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세부내용 별첨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4월 30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 1.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하동 쌍계사는 722년(신라 성덕왕 21)에 의상대사(義湘大師)의 제자인 삼법(三法) 스님에 의해서 개창된 절이다. 지리산 국립공원의 한 봉우리인 삼신산(三神山) 서쪽의 완만한 경사지인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쌍계사길 59에 대한불교조계종제13교구의 본사 쌍계총림 쌍계사(雙溪寺)가 자리하고 있다.

하동 쌍계사가 위치한 하동군은 서쪽으로 섬진강을 사이에 두고 전남의 구례·광양과 이웃해 있는데, 섬진강은 전북 진안에서 발원하여 하동군과 구례군이 만나는 화개면에 이르면서부터 강폭이 넓어져 하동의 서쪽 경계를 이루고 있다.

지리산 자락 쌍계사 주변 사찰로서 서쪽에는 화엄사(華嚴寺), 천은사(泉隱寺), 연곡사(鸞谷寺), 동쪽에는 법계사(法界寺), 대원사(大源寺), 북쪽에는 실상사(實相寺) 등이 있다. 쌍계사 부속 암자로 불일암, 국사암, 도원암과 60여개의 말사가 있다.

쌍계사는 칠불사와 고지도상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18세기 후기에 제작된 ‘해동지도’, ‘광여도’, ‘대동여지도’, ‘조선지도’ 등에 쌍계사로 표기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 지도들을 보면 함양계인 지리산 아래에 삼신산 아래 쌍계사가 그려져 있다.

그리고 옛 지도상의 하동부는 지금의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악양면, 화개면, 적량면, 황천면, 북천면 방화리·사평리, 양보면, 고전면, 진교면 북부를 포함하는 지역이었다. 옛 지도상에서 보면 칠불사(七佛寺) 아래에 쌍계사(雙溪寺)가 표기되어 있다.

쌍계사는 신라 성덕왕 21년(722)에 의상대사(義湘大師)의 제자인 삼법(三法)화상이 육조(六祖) 혜능대사(慧能大師)의 정상(頂相, 머리)을 봉안하고 난야(蘭若)를 세운 것이 그 시초이다. 삼법화상에 대한 기록은 자세하지 않으나 쌍계사 창건과 관련된 이야기가 쌍계사의 여러 기록들에 보이고 있다.

진감국사에 의해 비로소 쌍계사가 처음으로 가람으로서의 면모를 드러내게 되었는데, 당시에는 옥천사라 하였다. 헌강왕이 즉위하여 보니 이웃 산에도 같은 이름의 옥천사가 있으므로 백성들이 미혹할까 염려하다가, 그 절터를 살펴보니 동구에 두 시냇물이 마주 대하고 있으므로 ‘쌍계사(雙溪寺)’라는 제액을 내리게 되었다. 이로부터 옥천사는 쌍계사라는 이름으로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는 것이다.

쌍계사 입구 석문을 지나면 옥천교와 일주문을 맞이하게 되는데, 일주문에서 금강문, 천왕문을 지나 팔영루과 대웅전이 일직선축상에 위치한다. 대웅전을 마주보고 섰을 때, 진감선사탑비의 좌측으로는 적묵당이, 우측으로는 설선당이 위치하고 있어 네 개의 전각 가운데 탑을 둘러싸고 있는 형태라 볼 수 있다.

쌍계사는 크게 금당영역과 대웅전영역으로 구분되며, 두 영역이 서로 직교하는 가람배치를 이루고 있다. 금당영역은 국사암의 계곡으로부터 흘러드는 계류 건너편에 남북축을 위치한다. 영역의 전각들은 경사가 급한 지형에 따라 하단, 중단, 상단에 나누어 위

치하며, 청학루, 팔상전, 금당 등이 각각 배치되어 있다. 금당은 육조정상을 모시므로 이는 선종의 성지라 할 수 있고, 그 위계가 법당보다 상단에 위치하고 있다. 그 다음은 법당과 선방(禪房), 조사(祖師)를 모신 영모전이 중단에, 마지막 단계로 방장실이 하단에 위치한다. 이러한 3단의 구성은 산지사찰로서 산기슭의 고저차를 이용하여 자연스럽게 그 위계를 결정하고 있다.

대웅전영역은 금당영역과 직교하여 동서의 긴 축선으로 삼신봉을 기준으로 펼쳐지는데 동·서 경사지형의 직선축에 따라 일주문, 금강문, 천왕문을 차례로 진입하면 중정에 팔각 구층석탑이 세워져 있으며, 여기서 한단 높은 곳에 팔영루가 자리 잡고 있다. 팔영루의 맞은편에는 다시 한단을 높게 하여 주불전인 대웅전이 자리하고 그 앞에는 오층석탑과 석등을 쌍탑 형식으로 배치하고, 전면 중정 가운데에 국보인 「하동 쌍계사 진감선사탑비」가 축선에 평행하지 않고 정남향으로 배치되어 있다.

2개로 나누어진 주불전 영역은 쌍계사의 가장 큰 배치 특징으로, 이는 금당영역에서 확장되어 대웅전영역으로 분화 발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기문에 따르면 1630년대에 기존 금당영역의 전각들을 정비하고 대웅전영역으로 사찰을 확대하여 여러 전각들이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벽암선사의 중창 이후 금당 영역과 대웅전 영역은 1675년 인계, 1695년 백암 성충, 1735년 법훈, 1864년 담월과 용담에 의해 여러 차례 전각의 중수과정을 거쳤고 이후에도 전각이나 불상 등의 개체가 계속 이루어졌다. 이후 1975년을 전후하여 고산이 대대적으로 전각의 중수, 중건 등을 실시하여 현재와 같은 가람의 면모를 가지게 되었다.

사찰의 진입 과정상에는 일주문-금강문(천왕문)-불이문(해탈문)의 순으로 배치되어 점차 위계가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쌍계사의 경우에는 불이문이나 해탈문이 없고 사찰을 수호하는 신중을 모신 금강문과 사천왕문이 배치되어 있다. 이 처럼 사찰의 수호 기능을 가진 문이 2중으로 배치되어 있어 수호의 기능이 강화되어 나타난다.

이와 같은 상징적인 의미 외에 주공간으로 진입하는 통로로서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쌍계사의 진입과정은 사찰이 산지에 입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직선으로 형성되어 있다. 산지에 입지한 사찰은 직선축의 구성이 드물며 일주문에서 대웅전까지 이르는 축선은 대개 지형에 따라 약간씩 휘어 있는 것이 보통이나 쌍계사는 산지사찰임에도 일직선상에 정확하게 배치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 2. 연혁 및 특징

쌍계사에 관한 고려와 조선 전기의 자세한 문헌자료는 없으나 세조 12년(1466) 선비대사의 팔상전 중수, 중종 1년(1506) 진주목사 한사개(韓士价)의 중수, 명종 5년(1549) 서

산대사(西山大師)의 중수가 이어진 것으로 보아 사격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임진왜란 이후의 기록들로서, 청학루(淸鶴樓)와 성보박물관에 보관된 현판류 및 개인 문집 등에 단편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다. 자료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857년(철종 9년) 침명한성(枕溟罕醒, 1801~1876)이 쓴 「영남하동 쌍계사 사적기문」 현판을 보면, 임진왜란으로 폐허가 된 사찰을 인조 14년(1636) 승려 덕화(德化)가 화주가 되고 벽암당(碧巖堂) 각성(覺性)과 소요당(逍遙堂) 태능(太能) 등이 협력하여 협소한 옛터에서 벗어나 지금의 자리에 별도로 중창하였다. 이때 응진당·명왕전·관음전을 비롯하여 화엄전·팔영루와 여러 요사를 건립하고 뜰 가운데에 현재의 진감선사대공령탑비를 두었다. 그 뒤 숙종 1년(1675)에 인계(印戒), 숙종 21년(1695)에 백암당(栢庵堂) 성충(性聰), 영조 11년(1735)에 법훈(法訓)이 중수하였으며, 고종 1년(1864) 봄에 담월(潭月)과 용담(龍潭)의 원력으로 육조정상탑전의 7층 보탑을 건립하게 되었다. 이후에도 전각이나 불상 등의 개체가 계속되었으며, 1975년을 전후하여 고산(杲山)스님에 의해 현재 모든 전각의 중수가 이루어졌으며, 지속적으로 주변 전각의 수리 등을 통해 가람을 유지관리하고 있다.

하동 쌍계사 일주문(一柱門)은 벽암(碧巖, 1574~1659)스님이 조선(朝鮮) 인조(仁祖)19년(1641)에 창건 하였으며, 1974년 2월 16일에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86호로 지정된 이후 1977년 고산(杲山)스님이 중수하였다.

지리산의 대표 대찰인 쌍계사의 첫 번째 관문으로, 진입로에서 대웅전까지 이어지는 일직선상의 중심축에 따라 전각의 위계를 구분하고 연결한 산지가람배치형식이 잘 보존되어 있다.

쌍계사의 사역이 확대되던 17세기 중반에 건립되어 당시 쌍계사의 위세를 파악할 수 있는 건축물로, 이단사면배열형 공포구성, 보조기둥의 설치, 화려한 다포식 포작, 섬세한 부재표현 등 조선 후기 다포계 일주문의 건축양식이 잘 보존되어 있는 역사적·건축적 가치 있는 문화재이다.

1990년에는 금강문과 일주문을 함께 지붕 변화보수 공사와 단청공사를 시행하였으며, 1991년에는 옥천교와 천왕문 박석공사가 시행되었다. 2008년 8월 21일부터 2008년 11월 18일에 일주문 해체보수를 통해 교체부재 단청공사 및 기단 해체정비를 하였다.

2008년 보수내용을 살펴보면 보수대상인 일주문은 기둥상부 결구부분의 목재의 뒤틀림과 훼손이 심하고 팔작지붕의 제일 취약한 추녀부분과 사래부분의 훼손으로 시급히 보수를 하고자 하였다. 당시 목부재의 뒤틀림과 훼손으로 인해 포가 뒤틀려 있으며 소로가 이탈한 부분이 확인되었다. 또한 일주문의 초석이 기단에 묻혀 초석의 입면상태를 알 수 없는 상태이다. 초석 상부와 기단 상부가 평행하여 기둥하부의 부식이 진행되고 있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단을 해체하여 초석을 노출시키며 해체한 기단을 기존기단보다 낮게 설치하였다. 교체된 목부재는 기존 단청과 같이 도채하였다.

[표-1] 일주문 해체수리 사진 자료(2008년)

공사 내용	공사 내용
	
기단 보수 전	기단 보수 후
	
산자해체 후	산자 및 평고대 조립
	
기동 동바리 현황	지붕 산자역기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조선고적도보” 13권 내용 중 쌍계사 일주문의 사진자료는 다음과 같이 1933년에 발행된 자료로 현 일주문과 같은 형식으로 구성되어있다. 다만 자연석 외

별대 기단이 조성된 점은 현재 화강석판석 기단으로 변경된 것과 막새기와의 변경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1] 일주문 전경(출처:조선고적도보)1933년



[그림-2] 일주문 전경1960년대(추정)



[그림-3] 일주문 전경1970년대(추정)



[그림-4] 일주문 전경1974년 경남 유형문화재 지정 당시 전경

쌍계사 일주문은 1974년 2월 지정조사 사진자료에 따르면 이미 기단은 화강석 판석마감으로 변형되어 있어 정확한 기록은 확인 할 수 없다. 쌍계사 일주문은 1977년에 중수된 이후 2008년에 해체 보수되었는데 원기둥을 370cm의 간격으로 세워서 네 귀기둥에 창방을 가로 지르고 그 위에 평방을 놓아 내외 4출목 9포로 구성된 다포계 팔작집이다. 귀기둥 위에는 4열의 살미첨차를 두고 쇠서를 만들어 모서리를 화려하게 강조하였다. 처마를 하여 처마를 돌출시킴으로 지붕의 비례감을 더욱 강조하였다. 이는 하부 구조와 역 삼각형의 모습을 불안함을 느끼게 한다. 내부 공간에서는 천정에 연꽃조각이 있으며, 모두 포작으로 이루어진 독특하고 화려한 모습을 보이는데 특히 천정에서 네 귀통이의 귀한대가 만나는 구조를 하고 있다. 첨차는 단부에서 수직으로 끊기고 하부는 완만한 교두형이며 주심첨차, 출목첨차의 길이가 동일하고 살미첨차의 단부는 양서형으로 연봉이 하부에 조각되어 있고 돌출이 길며 가늘고 예리하다. 지붕은 팔작으로 이루어 졌고 단칸의 구조에

3구의 주간포를 엮었다. 특이한 점은 꽃모양의 포벽이 있는 것으로 또 다른 일주문의 포벽은 통도사 일주문에서도 볼 수 있으며 단청은 금단청이다.

하동 쌍계사가 위치한 삼신산(三神山)은 두류(頭流), 방장(方丈), 지리산(智異山)을 삼신산이라 하는데 일주문의 편액 ‘삼신산 쌍계사’의 글씨와 ‘선종(禪宗) 대가람(大伽藍)’이란 글씨는 해강(海岡)의 글씨다.

쌍계사 일주문 주요 연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2] 하동 쌍계사 일주문 주요 연혁

시대	내용	비고
1641년(조선 인조 19)	벽암이 창건	-
1974년	경상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	-
1977년	고산이 중수	-
1990년	번와 보수 및 단청공사	금강문 포함
1991년	박석공사 및 정비	옥천교, 천왕문 포함
2008년	일주문 해체공사	교체부재 단청, 기단해체정비
2021년	일주문 정밀실측 기록화	-

쌍계사 일주문은 좌우로 2분의 기둥을 세우고 그 위로 출목창방과 평방을 걸어 포작을 배열한 일반적인 일주문의 형식을 이루고 있다. 화강석판석으로 기단바닥을 마감한 후 자연석 초석을 두었으며, 그 위로 기둥을 세우고, 기둥 전후에 보조기둥을 설치하여 상부의 하중을 지지하고 있다. 중앙의 기둥은 신방목으로 받치고 기둥 간 문지방은 초석상부마감에 따라 그랭이질하여 걸었다.

기단은 장대석을 사용하여 한단으로 조성하였으며, 상부는 판석으로 마감하였으며, 초석은 모두 자연석을 사용하였다. 기둥은 지붕의 하중을 받는 기둥 2분이 위치하며, 도리방향과 보방향의 출목부분 부분의 하중을 받치기 위하여 기둥 전후로 4분의 보조기둥을 설치하였다. 기둥은 모두 원기둥으로, 끈게 자란 목재를 민힐림 형태 그대로 사용하였다.

창방은 좌우의 중앙 기둥과 보조기둥을 보방향으로 연결하고, 도리방향으로 네 개의 보조기둥과 결구되어 있다. 창방은 중앙 평주 상부에 주먹장으로 내리맞추는 일반적인 결구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보조기둥은 ‘十’자형으로 창방뺨목을 두어 반턱맞춤으로 결구하고 맞춤부분은 하부에 주두를 화통가지형식의 연화문양으로 조각하여 보조기둥을 받치고 있다. 4분의 평방이 창방 위로 얹혀 있으며, 그 위로는 공포를 받치고 있다. 창방과 마찬가지로 보방향으로는 받을장으로 결구되고 도리방향으로는 옆힐장으로 결구되어 있다. 도리방향 출목창방과 평방에 공포의 하중이 집중되는 구조적 특성상 반턱

맞춤된 평방아래 창방과 보조기둥이 지지하고 있다.

쌍계사 일주문은 다포계 팔작집으로 공포는 내외 4출목 9포작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4면에 모두 주간포를 둔 형식으로, 정면과 배면에는 3구의 주간포를 두어 주간을 4등분하고, 측면은 2구의 주간포를 두어 주간을 3등분하였다.

각 포작마다 1개의 주두가 배치되어 모두 14개의 주두와 보조기둥 상부 창방을 받치는 주두 4개가 사용되었다. 각 주두의 크기에 차이가 있으나 형태나 치목기법은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며, 사절된 평굽형식을 사용하였다. 각 모서리에 사용되는 주두는 일반적으로 평주 주두에 비해 크기가 큰 것을 사용하지만 쌍계사 일주문에서는 평주주두와 크기가 비슷하거나 작게 치목하였다.

소로는 주두와 모양이 같으나 크기는 작게 치목되었다. 침차와 침차, 살미와 살미 사이, 장여 밑에 놓여 상부 하중을 지지하고 있다. 일주문의 소로는 크게 그 형태에 따라 이갈소로, 사갈소로, 접시소로의 3가지로 구분되며 모두 사절된 평굽형식을 이룬다.

침차는 위치에 따라 주심침차와 출목침차로 구분되는데 일주문의 주심침차는 주두 위에 바로 놓여 초제공살미와 결구되는 주심소침과 주심소침 위에 놓여 2제공 살미와 결구되어 장여를 받는 주심대침으로 구분된다. 주심소침 및 대침은 모두 중앙부분에 반턱의 받음장을 두어 업힐장의 제공살미와 결구된 일반적인 형식으로 처리되었다.

출목침차는 주심침차와 마찬가지로 출목소침과 출목대침으로 구분되며 모두가 중앙부분에 반턱의 받음장을 두어 업힐장의 제공과 결구된다. 제공은 내외 4출목의 침차구성에 따라 6개의 제공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공의 형태는 외부의 경우 초제공에서 4제공까지는 양서형으로, 5제공은 수서형, 6제공은 봉두형으로 처리하였다. 내부는 초제공과 3제공은 운문을 초각하고, 2제공과 4제공은 운문 끝에 연봉을 부가하였으며, 5제공은 운공형으로 처리하여 내단이 전체 연속적인 운문으로 처리하였다. 6제공은 반자에 가려 육안으로 확인이 어렵다.

일주문의 귀포는 팔작지붕의 처리방식에 따라 보조기둥 네모서리에 모두 구성되었으며, 귀한대는 공포와 동일하게 4제공까지는 양서형으로 처리하고 5제공은 수서형, 6제공은 운공형으로 장식하였다. 귀포 좌우대의 경우 6제공은 운공형과 봉두형을 각각 2개씩 교차로 사용하였다.

쌍계사 일주문은 2개의 기둥과 4개의 보조기둥 위에 도리 방향으로 2개, 보 방향으로 4개의 창방을 결한 후 평방을 올려 공포대를 구성하였다. 공포대의 주심에 장여를 2중으로 중첩하고 주심도리를 결구하였으며, 정면과 배면 제2주간포와 제4주간포에 주심도리와 같은 높이로 대들보를 걸었다. 대들보 위로 장여와 중도리를 구성하고 중도리와 동일한 높이에 대량 옆에 종량을 결구하였다. 추녀는 외기도리, 주심도리, 중도리에 걸쳐 구성되었으며, 종량 위로 대공을 세우고 중도리장여와 도리를 걸었다.

일주문의 보는 정면과 배면의 공포대를 보방향으로 연결하는 대들보만으로 구성하고

중량과 종량은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6제공 봉두까지 구성된 정면, 배면의 포작 상부에 대들보를 걸고 주심도리 장여를 2중으로 중첩하여 주심도리를 받치고 있다. 대들보 중앙부 상단에 동자대공을 세워 중도리와 장여를 지지하고 있으며, 중도리 부분에는 보를 결구하지 않고 정면과 배면의 중도리와 측면의 외기도리가 연귀반턱맞춤으로 교차되어 왕지도리를 구성하였다.

도리는 위치에 따라 중도리, 중도리, 주심도리, 출목도리가 사용되었으며, 모두 굴도리로 치목하였으며, 도리를 지지하는 장여는 주심도리장여와 중도리장여, 중도리장여, 출목도리장여가 평각기로 결구되었다.

쌍계사 일주문은 오랑가구로 대들보는 하단에서 주심공포대에 지지되는 일반적인 형태로 결구하고, 대들보 중앙 상단에 각형의 동자대공을 세워 중도리와 중도리를 장여를 받고 있다.

팔작지붕으로 구성된 쌍계사 일주문은 네 모퉁이에 추녀와 사례가 설치되어 있다. 출목도리와 주심도리의 왕지부분을 따내고 추녀의 바닥을 앉혔으며, 뒤뿌리는 중도리, 외기도리 상단을 걸쳐 중도리 상단에서 결구되었다.

쌍계사 일주문의 서까래와 부연은 추녀와 사례에 붙인 선자연과 선자부연이 설치되었다. 연목은 장연과 단연으로 구성되며, 장연은 중도리에서 외목도리까지 걸쳐 있는 일반적인 방식을 이루고 있으며, 단연은 중도리 상부에서 엇갈려 중도리에 결구되어 있다.

쌍계사 일주문의 지붕은 용마루와 내림마루, 추녀마루를 구성한 팔작지붕 형식으로 중와가 사용되었다. 용마루 끝과 내림마루, 추녀마루에는 망와를 올리고, 처마 끝은 막새기와로 마감하였다. 쌍계사 일주문의 기와는 중와로 암키와, 수키와, 착고기와, 막새기와, 망와가 사용되었으며, 막새에는 연화문이 양각되었으며, 암막새는 한 송이의 연꽃을 새겼다. 연꽃에서 자라난 연덩굴에는 연잎과 연꽃봉오리가 좌우대칭으로 자라난 모습을 표현하였다. 수막새의 드림새부분 하단에는 활짝 핀 연꽃으로 장식하고 그 위로 범자문을 새겼다. 일주문 용마루는 착고, 부고 위에 8단의 적새를 쌓고 숫마루장을 올려 마감하였다. 내림마루와 추녀마루는 6단의 적새를 쌓았는데 막새 끝단에서 내림마루는 2단의 적새를 추녀마루에서는 3단의 적새를 돌출시키고 아래는 머거불 1단을 가로로 올리고 적새 위에 보리문, 연화문의 망와로 마감하였다.

현재 기와의 교란 및 이탈 현상과 목부재의 이격 등으로 인해 문화재 훼손이 진행되고 있어 상부가구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금회 국가지정문화재 승격을 통해 일주문의 문화재 가치를 높이고, 보존을 위해서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요구된다.



[그림-5] 쌍계사 일주문 전경



[그림-6] 쌍계사 일주문 주상부 전경



[그림-7] 쌍계사 일주문 내부 공포부 전경

### 3. 지정 가치 및 근거

#### (1) 역사적·학술적 가치

하동 쌍계사 일주문은 1641년(인조 19)에 벽암이 건립한 건물로, 정면에는 ‘삼신산쌍계사(三神山雙磎寺)’, 배면에는 ‘선종대가람(禪宗大伽藍)’이라 쓴 현판이 걸려있다.

쌍계사는 60여개의 말사를 관리하고 불일암, 국사암, 도원암 등의 부속 암자를 가진 지리산의 대표 대찰로, 예로부터 많은 인물들이 찾아 심신을 닦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722년(신라 성덕왕 21)에 의상대사의 제자인 삼법이 창건한 후 840년(문성왕 2)에 진감선사가 사찰로서의 모습을 갖추었으며, 신라시대부터 오늘날 까지 그 역사와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하동 쌍계사 일주문은 1641년(인조 19)에 건립된 것으로, 그 이전에도 일주문이 존재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상량문, 기문 등 관련 기록이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연혁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다만 「영남하동부쌍계사사사적기문(嶺南河東府雙磎寺寺事蹟記文)」에 따르면 임진왜란으로 쌍계사가 훼손되었고 1628~1644년까지 벽암이 기존의 금당 영역을 수리하고 지금의 대웅전 영역까지 사역을 넓혔으며, 일주문도 이때 함께 조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1641년 건립 이후에는 1977년에 고산이 중수하였으며, 오늘날 까지 지속적으로 관리 및 정비가 이루어졌다.

쌍계사 일주문은 창건 및 중수 등 정확한 연혁을 파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부족하나, 임금의 명에 따라 쌍계사의 사역이 확대되던 17세기 중반 당시 건립되었다는 점에서 당시 쌍계사의 위세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일주문에서 대웅전으로 이르는 일직선상의 축에 따라 전각을 건립한 배치형식의 시작점으로서 건립 이후부터 오늘 날까지 그 모습을 잘 보존하고 있어 역사적 가치를 높게 평가할 수 있다.

#### (2) 건축적 가치

하동 쌍계사 일주문은 다포계 팔작지붕으로 2분의 기둥을 세우고 그 위로 공포를 올린 1칸 건물이다. 기둥 앞뒤로는 4분의 보조기둥을 세우고 4면에 창방과 평방을 설치하여 공포를 올렸다. 가구 형식은 팔작지붕 일주문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한 7량가 구조이며, 공포는 4출목의 9포형식을 이루고 있다.

하동 쌍계사 일주문은 주심포 사이에 주간포를 둔 다포계 추심창방과 평방, 그 밖으로 출목창방과 평방을 설치한 이단배열형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단배열형 구조에서도 상부 하중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사면에 공포를 놓은 이단사면배열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공포의 형식과 배열은 4면이 일정한 법칙으로 이룬다. 정면과 배면은 3구의 주간포를

배치하여 주간을 4등분하고, 측면은 2구의 주간포를 놓아 3등분하였는데 포의 간격은 유사한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다.

또한 측면에 설치한 보방향의 출목 창방과 평방이 건물의 비례에 비하여 다소 긴 부재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지붕의 규모를 크게 조성하여 위계를 높이기 위해 사용한 건축기법으로 판단된다.

쌍계사 일주문은 주심만으로 상부의 하중을 지지하는 한계를 보조기둥을 통해 구조적 보강을 기둥 외부로 창방과 평방을 내밀어 공포를 받치고 있는 구조이다. 이에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둥 앞뒤로 보조기둥을 설치한 보조기둥형 형식을 이루고 있다. 기둥의 하부에는 신방목을 설치하되었다.

쌍계사 일주문과 같이 기둥 전후로 보조기둥을 설치하여 상부의 구조를 지지하는 보조기둥형 형식은 조선후기 건립된 일주문 건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된 기법으로, 쌍계사 일주문에서도 당시의 건축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보조기둥 위에는 4열의 살미첨차를 두고 쇠서를 만들어 모서리를 화려하게 강조하였다. 처마를 돌출시켜 지붕의 비례감을 더욱 강조하였고, 기둥이 위치한 하부에 비하여 공포부와 지붕부를 크게 조성하여 사찰의 시작으로서 위계를 부여하고자 한 건축기법을 의도한 것이다.

내부 천장은 연꽃조각을 새겼으며 각 모서리에 설치된 귀포의 귀한대가 내부 중앙에서 만나는 독특하고 화려한 모습과 우물반자에 뇌록 바탕에 보상화문이 시문되어 있다. 보상화는 불교에서 숭앙되는 이상화(理想化)로 ‘만다라화’라고도 한다. 보상화는 다양한 화문의 특성이 결합되고 예술적으로 가공된 이상화로 반자에 시문함으로써 불교의 장엄한 상징성을 구현하였다.

첨차는 단부에서 수직으로 끊기고 하부는 완만한 교두형으로 꾸몄다. 주심첨차와 출목첨차는 길이가 동일하고 단부는 양서형으로 꾸미고 하부에 연봉이 조각하였으며, 돌출이 길며 가늘고 예리하다.

산지가람에서 일주문 건립이 성행하던 17세기에 건립된 쌍계사 일주문은 조선후기 다포계 팔작지붕 일주문에서 주로 나타나는 이단사면배열형 공포 구성과 기둥 앞뒤로 보조기둥을 설치한 보조기둥형 형식 등 건축기법이 확인된다.

또한 쌍계사의 시작부로서 위계성을 부여하기 위해 공포 및 지붕을 장엄하고 화려하게 꾸몄으며, 일직선상의 중심축을 따라 전각의 위계를 구분하고 연결하는 산지가람배치형식이 잘 보존되어 있다.

쌍계사 일주문은 중심축을 따라 일주문에서 대웅전으로 이어지는 산지가람배치 형식이 잘 보존되어 있으며, 사찰의 시작점으로 위계를 부여한 건축적 특징과 조선후기 다포계 일주문 건축기법이 잘 남아있는 지리산권의 중요 건축물로 국가지정문화재로서 지정·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문화재로 승격하여 보존할 만한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 4. 종합의견

하동 쌍계사는 722년(신라 성덕왕 21)에 의상대사의 제자인 삼범이 창건한 후 840년(문성왕 2)에 진감선사가 사찰로서의 모습을 갖추었으며, 신라시대부터 오늘날까지 그 역사와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하동 쌍계사 일주문은 1641년(인조 19)에 벽암이 건립한 건물로, 그 이전에도 일주문이 존재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상량문, 기문 등 관련 기록이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연혁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다만 「영남하동부쌍계사사사적기문(嶺南河東府雙僂寺寺事蹟記文)」에 따르면 임진왜란으로 쌍계사가 훼손되었고 1628년부터 1644년까지 벽암이 기존의 금당 영역을 수리하고 지금의 대웅전 영역까지 사역을 넓혔다. 이때 일주문도 함께 중수된 것으로 판단된다.

쌍계사 일주문은 임금의 명에 따라 쌍계사의 사역이 확대되던 17세기 중반 당시 건립되었다는 점에서 당시 쌍계사의 위세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일주문에서 대웅전으로 이르는 일직선상의 축에 따라 금강문, 사천왕문 등의 전각을 건립한 배치형식의 시작점으로서 건립 이후부터 오늘 날까지 그 모습을 잘 보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하동 쌍계사 일주문은 다포계 겹처마 팔작지붕 건물로 기둥 앞뒤로는 4분의 보조기둥을 세우고 4면에 창방과 평방을 설치하여 공포를 올린 7량가 구조이며, 공포는 4출목의 9포형식을 이루고 있다. 또한 주심포 사이에 주간포를 둔 다포계 추심창방과 평방, 그 밖으로 출목창방과 평방을 설치한 이단배열형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단배열형 구조에서도 상부 하중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사면에 공포를 놓은 이단사면배열형으로 이루어져 구성되어 있다.

일주문 측면에 설치된 보방향의 출목 창방과 평방이 건물 비례에 비해 다소 긴 부재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지붕의 규모를 크게 조성하기 위해 사용한 건축기법으로 보인다. 기둥 외부로 창방과 평방을 내밀어 공포를 받치고 보조기둥을 설치한 보조기둥형 형식을 이루고 있으며, 이처럼 기둥 전후로 보조기둥을 설치하여 상부의 구조를 지지하는 보조기둥형 형식은 조선후기 건립된 일주문 건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된 기법으로, 쌍계사 일주문에서도 당시의 건축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산지가람에서 일주문 건립이 성행하던 17세기에 건립된 쌍계사 일주문은 조선후기 다포계 팔작지붕 일주문에서 주로 나타나는 이단사면배열형 공포 구성과 기둥 앞뒤로 보조기둥을 설치한 보조기둥형 형식 등의 건축기법과 쌍계사의 시작부로서 위계성을 부여하기 위해 공포 및 지붕을 장엄하고 화려하게 꾸몄으며, 진입축 직선상의 중심축을

따라 전각의 위계를 구분하고 연결하는 산지가람배치형식이 잘 보존관리되고 있다.

따라서 쌍계사 일주문은 조선후기 다포계 일주문 건축기법과 가람배치의 특성을 고려하여 높은 건축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가지정문화재로 충분한 가치를 가진다고 사료된다.

##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23. 2. 21.	대상문화재	하동 쌍계사 일주문	
조사자	성 명	○○○	전공 분야	한국건축사
	소 속	○○○○연구원	직위(직책)	연구위원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문화재 명칭	하동 쌍계사 일주문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세부내용 별첨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7월 30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 1. 연혁

하동 쌍계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13교구 본사로 경남 하동군 화개면에 위치한 지리산 자락 위치하여 지리산 주봉인 천왕봉에서 형제봉으로 가는 길목에서 하나의 맥을 분지한 지락이 길게 늘어져있는 형태이다. 「조선불교통사(朝鮮佛敎通史)」 상중편 성덕왕조전(聖德王條傳) 등록(燈錄)에는 쌍계사의 초창은 신라 성덕왕 21년(722년)에 삼법화상(三法和尚)이 지금의 쌍계사 터에 난야(蘭若)를 짓고 이후 신라 문성왕2년(840년)에 진감국사(眞鑑國師) 혜소(慧昭)에 의해 (玉泉寺)의 유기(遺基)에 찬수당우(纂修堂宇)하였다라고 전해진다.

쌍계사와 관련된 기록으로는 「하동 쌍계사 진감선사탑비(河東 雙碓寺 眞鑑禪師塔碑)」, 「지리산쌍계사중창기(智異山雙碓寺重創記)」(명종 5년, 1549년), 「영남하동쌍계사사적기문(嶺南河東雙碓寺事蹟記文)」(철종 9년, 1857년) 등이 있다.

「하동 쌍계사 진감선사탑비(河東 雙碓寺 眞鑑禪師塔碑)」에서 “이웃 산의 절도 옥천(玉泉)이라고 불렀는데 이름이 서로 같아 여러 사람의 혼동을 일으켰다. 장차 같은 이름을 버리고 다르게 하려면 마땅히 옛 이름을 버리고 새 이름을 지어야 했는데 절이 자리 잡은 곳을 살펴보게 하니 절 문이 두 줄기 시냇물이 마주하는데 있었으므로 이에 제호를 하사하여 쌍계(雙碓)라고 하였다.”고 하여.“쌍계(雙碓)”의 유래를 파악할 수 있다.

2007년 대웅전 해체수리 당시 종도리에서 1850년(철종 1년)에 작성된 상량문과 1636년, 1850년의 목서가 확인되었으며, 이를 통해 17세기 당시 이루어진 대웅전의 중창에 대한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상량문에는 대웅전이 초창된 명확한 시기와 19세기까지 모두 3번의 보수가 이루어졌음이 기록되어 있으며, 그 내용에 따르면 1636년(인조 14)에 벽암과 소요가 초창한 후 1695년(숙종 21)에 백암당(栢庵堂) 성충(性聰)이, 1735년(영조 11) 법훈(法訓)이, 1850년(철종 1)에는 쌍운화상이 중수하였다고 기록되어있다. 1806년(순조 6)에 팔상전을 중수하고, 1825년(순조 25)에는 인정이 천왕문을 보수하였다. 1864년(고종 1)에 담월과 용담이 육조정상탑전의 7층 보탑을 건립하였다. 이후에도 현대까지 전각의 중수 및 불상의 개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1975년을 전후로 고산이 대대적으로 일주문을 포함한 사역 내 위치한 전각의 중수 및 중건을 실시하여 오늘 날과 같은 규모를 갖추었다.

일주문은 1641년(조선 인조 19)에 벽암(碧巖)이 창건 하였으며, 1974년 2월 16일 에 경상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이후 1977년 고산(杲山)이 중수하였다. 1990년에는 금강문과 함께 지붕 변화 보수 공사와 단청공사를 시행하였으며, 1991년에는 박석공사가 시행되었다. 2008년에는 일주문 해체보수를 통해 교체부재, 단청공사, 기단 해체등 정비가 이루어졌다.

## 2.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하동 쌍계사 일주문은 하동군 화개면 운수리 206번지에 위치한다. 쌍계사는 크게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동서의 강력한 축선을 중심으로 일주문, 금강문, 천왕문, 팔영루가 위치한다. 이곳을 통과하면 중정이 배치되고 이 중정을 중심으로 북측에는 나한전(羅漢殿), 설선당(說禪堂)과 부속건물이, 남측에는 명부전(冥府殿), 적묵당(寂默堂) 등이 그 부속건물과 함께 중정을 에워싸고 있다. 팔영루의 맞은 편에는 대웅전이 위치한다. 중정에는 5층석탑과 석등을 쌍탑형식(雙塔形式)으로 배치하였으며, 그리고 이들의 전면 마당 가운데에 진감국사대공탑비(眞鑑國師大空塔碑, 국보 47호인)가 축선에 평행하지 않고 약간 비스듬하게 자리하였다.

두 번째의 영역은 강력한 축선에 직교하여 남북축을 중심으로 일련의 건물들이 배치되어 있다. 이곳은 국사암(國師庵)쪽 계곡으로부터 흘러드는 계류(溪流)를 경계로 하여 첫 번째 영역과 확연히 구분되어진다. 대웅전을 중심으로 한 건물들이 비교적 완만한 경사의 대지에 놓여진 것과는 달리 남북축을 따른 건물들은 경사가 급한 지세에 따라 청학루(靑鶴樓), 팔상전(八相殿), 금당(金堂) 등이 3단을 형성하며 각각 배치되어 있다. 쌍계사 일주문은 이 영역의 주 출입구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찰의 배치를 살펴보면 2가지의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일주문, 금강문, 천왕문의 긴 도입과정을 거쳐 누각(樓閣)에 이르고, 이를 통과하면 대웅전과 함께 좌, 우의 건물들이 口자형의 중정을 이루는 방법은 범어사(梵魚寺), 통도사(通度寺), 해인사(海印寺), 화엄사(華嚴寺) 등에서도 볼 수 있는 산지형배치(山地型配置) 형태이다.

쌍계사 일원에는 역사문화환경으로는 국가지정문화재 국보 1기, 보물 9기와 일주문을 포함한 경상남도 지정 문화재 14기, 문화재자료 3기, 기념물 2기 등 모두 29기의 지정문화재가 있다. 주변으로는 지리산 자락 쌍계사 주변 사찰로서 서쪽에는 화엄사(華嚴寺), 천은사(泉隱寺), 연곡사(鵝谷寺), 동쪽에는 법계사(法界寺), 대원사(大源寺), 북쪽에는 실상사(實相寺) 등이 있다. 쌍계사 부속 암자로 불일암, 국사암, 도원암과 60여개의 말사가 있다.

### 3. 건축 현황 및 특징

건축양식은 다포식으로 겹처마의 팔작지붕을 이루고 있다. 좌우로 2분의 기둥을 세우고 그 위로 출목창방과 평방을 걸어 포작을 배열한 일반적인 일주문의 형식을 이루고 있다.

기단은 한단의 장대석 기단으로 구성하고 상부는 판석으로 마감하였다. 초석은 모두 자연석으로 기둥을 받치는 2개, 보조기둥을 받치는 4개로 구성된다. 기둥 2본과 보조기둥 4본은 모두 원기둥으로 민흘림 형태이다. 주간거리는 기둥의 중심을 기준으로 3,665mm이며 초석과 그랭이질을 하여 결구시키고 보방향으로 통장부를 내어 신방목을 결구하고 도리방향으로 문지방을 결구하였다.

창방은 좌우의 중앙 기둥과 보조기둥을 보방향으로 연결하고, 도리방향으로 네 개의 보조기둥과 결구되어 있다. 창방은 중앙 평주 상부에 주먹장으로 결구하고, 보조기둥은 ‘十’자형으로 창방뿔목을 두어 반턱맞춤으로 결구하고 맞춤부분은 하부에 주두를 화통가지형식의 연화문양으로 조각하여 보조기둥을 받치고 있다. 평방이 창방 위로 얹혀 있으며, 그 위로는 공포를 받치고 있으며 창방과 마찬가지로의 방식으로 결구되어 있다. 도리방향 출목창방과 평방에 공포의 하중이 집중되는 구조적 특성상 반턱 맞춤된 평방아래 창방과 보조기둥이 지지하고 있다. 뿔목의 형태는 창방과 마찬가지로 단부를 직절한 형태이다.

공포는 내외4출목 9포작 형식으로 구성되어있다. 전후좌우 4면에 모두 주간포를 둔 형식으로 전후면은 3개의 주간포, 측면은 2개의 주간포를 두었다.

첨차는 주심첨차와 출목첨차로 구분된다. 주심첨차는 주심소첨과 주심대첨으로 구분되며 중앙부분에 반턱의 받을장을 두어 제공사미의 업힐장과 결구되었다. 제공은 6개로 구성되며 외부의 제공은 초제공에서 4제공까지는 양서형, 5제공은 수서형, 6제공은 봉두형이다. 내부는 초제공과 3제공은 운문을 초각, 2, 4제공은 운문 끝에 연봉을 부가하였다. 5제공은 운공형으로 처리하였다.

이와 같이 2개의 기둥과 4개의 보조기둥 위에 도리 방향으로 2개, 보 방향으로 4개의 창방을 결한 후 평방을 올려 공포대를 구성하였다. 공포대의 주심에 장여를 이중으로 중첩

하고 주심도리를 결구하였으며, 정면과 배면 제2주간포와 제4주간포에 주심도리와 같은 높이로 대들보를 걸었다. 대들보 위로 장여와 중도리를 구성하고 중도리와 동일한 높이에 대량 열에 종량을 결구하였다. 추녀는 외기도리, 주심도리, 중도리에 걸쳐 구성되었으며, 종량 위로 대공을 세우고 중도리장여와 도리를 걸었다.

현관은 전후 각각 설치되었다. 전면에는 ‘삼신산쌍계사(三神山雙溪寺)’, 배면에는 ‘선종대가람(禪宗大伽藍)’가 걸려있는데, 이는 근대 서화가로 이름을 떨친 해강(海岡) 김규진(金圭鎭)이 쓴 것이다.

일주문 관련 자료 가운데 ‘조선고적도보’ 13권에 일제강점기 당시 촬영한 쌍계사 일주문의 사진이 수록되어 있다. 이는 1933년 촬영한 사진으로 지금과 같이 다포계 팔작지붕 건물로, 주기둥 2개의 앞뒤로 출목창방 및 평방을 받치는 보조기둥 4본이 위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정면에 ‘삼신산쌍계사’가 적힌 현관이 걸려있는데, 글씨의 크기 및 형태, 현관의 규모 등에서 지금의 것과 차이가 있다. 사진 속 일주문의 전체적인 모습은 지금의 것과 매우 유사하나 기단은 과거 자연석 외별대 기단으로 조성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후 여러차례 보수 및 변형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1933년 하동 쌍계사 일주문 전경(자료 : 조선고적도보)

1970년대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일주문 사진에서도 1933년 촬영된 사진과 같이 자연석 외별대 기단이 확인된다. 지붕부 용마루에서 의 변형이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일주문 전경(1970년대로 추정)

1974년 지정조사 당시의 보고서에서의 기단은 지금과 같이 화강석 판석으로 변형되어 있으며 지붕부의 용마루도 재정비한 것으로 보인다.



#### 4. 지정가치 및 종합의견

하동 쌍계사 일주문은 1641년(인조 10년)에 벽암선사가 건립한 건물로 창건, 중수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상량문이나 기문 등의 자료는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연혁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벽암선사에 의해 쌍계사 대웅전이 1636년(인조 14)에 창건된 후 1641년(조선 인조 19)에 일주문이 창건된 것으로 보아 대웅전과 그 역사적 흐름을 같이 하고 오늘날까지 그 모습을 잘 보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건축적으로는 2개의 기둥과 4개의 보조기둥을 세우고 그위에 창방과 평방을 설치하여 공포를 올린 다포계 겹처마 팔작지붕 건물이다. 상부 하중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지하기 위하여 사면에 공포를 둔 이단사면배열형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는 18세기 다포계 팔작지붕 일주문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창건 당시의 쌍계사의 위엄을 보여주기도 하듯이 공포와 지붕을 화려하게 장식과 수직으로 지지하는 축부에 의해 그 비례와 균형감이 우수하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하동 쌍계사 일주문은 역사적, 건축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지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 5. 달성 용연사 자운문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 가. 제안사항

대구 달성군 소재 「달성 용연사 자운문」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사항을 심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대구 달성군 소재 「달성 용연사 자운문」을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항은 2023년 건축문화재분과 제8차 회의(2023.08.17.)에서 원안가결된 사항으로, 예고기간('23.08.28~'23.09.27) 동안 별도의견 없었음.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대구광역시
- (2) 대상문화재 : 비지정 「달성 용연사 자운문」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읍 반송리 산54-7
- (3) 신청내용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 명칭 : 달성 용연사 자운문(達城 龍淵寺 慈雲門)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용연사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읍 반송리 산54-7
  - 조성연대 : 조선시대(1695년)
  - 수량 : 1동
  - 지정면적 : 49.12㎡
  - 구조/형식/형태 : 목조 / 다포계 / 팔작지붕

라. 현지조사 의견(2023.02.08. /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 문화재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 문화재전문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 문화재전문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마. 지형도면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원안가결 8명

##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23.2.8	대상문화재	달성 용연사 일주문	
조사자	성 명	○ ○ ○	전공 분야	건축사
	소 속		직위(직책)	대표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문화재 명칭	달성 용연사 자운문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검토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세부내용 별첨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3 년 7 월 24 일

제출자

○ ○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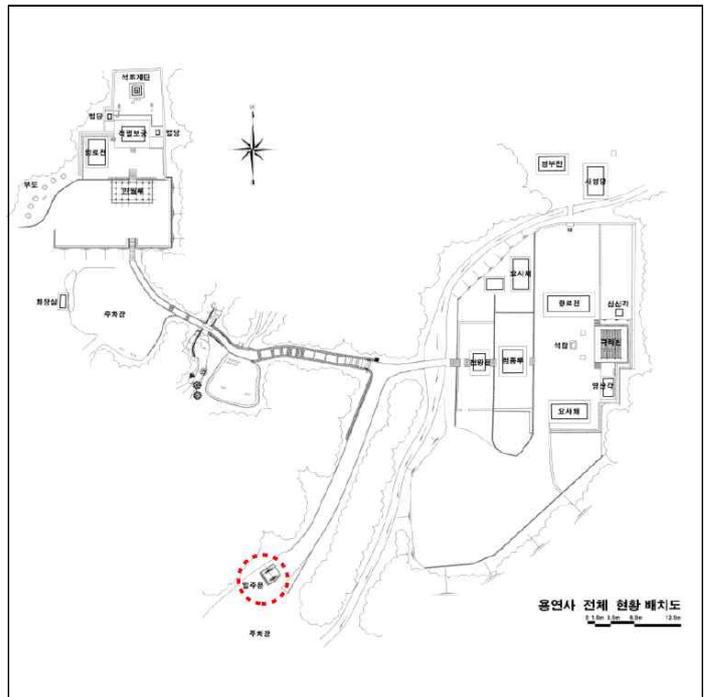
## 1. 입지현황 및 역사문화 환경

자운문이 있는 용연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읍 용연사길 260에 위치한 사찰로 용문산과 태봉산 사이 계곡에 자리하고 있다. 마을의 입구인 반송초등학교로부터 2.5km정도의 거리에 있으며 야트막한 산으로 길게 둘러싸여 아늑한 공간을 이루고 있지만 전면은 서남쪽으로 트여 있다.

용연사는 극락전, 명부전, 적멸보궁을 중심으로 하는 3개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극락전 영역은 극락전을 비롯한 영산전, 삼성각, 안양루, 천왕문, 요사, 종무소 등이 있는 곳으로 사찰의 중심 영역이다. 명부전 영역은 명부전을 포함하여 사명당, 독성각 등이 있으며 개울 건너편에 자리한다. 적멸보궁 영역은 서북쪽 산록에 위치하며 중심 영역과는 별개의 영역을 형성하고 있다. 예전에는 천왕문 왼쪽 언덕에 위치한 작은 일주문을 통해 진입하였으나 현재는 차량이 출입하는 별도의 도로가 개설된 상태다. 누문인 보광루, 적멸보궁, 금강계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용연사의 금강계단(보물), 극락전(대구시 유형문화재), 삼층석탑(대구시 문화재자료) 등이 국가 및 지방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관리, 보호받고 있다.



용연사의 배치 및 문화재지정현황 ©카카오맵



용연사 현황배치도

용연사의 일주문인 자운문은 사찰영역의 입구이자 극락전영역과 적멸보궁영역의 중간부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는 두 영역이 형성된 이후에 자운문이 건립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입지라 할 수 있다.

## 2. 자운문의 건립과 중수

### 1) 용연사 연혁<sup>1)</sup>

용연사의 창건에 관해서는 조선중기 문신인 임수간(任守幹, 1665~1721)이 지어 1722년(경종 2)에 세운 「龍淵寺重修碑」와 1748년(영조 24)에 금곡 선청(金谷 善淸) 스님이 지은 「龍淵寺寺蹟」에서 신라시대 관기(觀機), 도성(道成) 등 두 분의 성인과 보양(寶壤) 선사가 이룬 것으로 적고 있다. 하지만 조선시대 이전의 기록은 전하지 않아 명시하기는 어렵다. 「龍淵寺重修碑」(1722), 「龍淵寺寺蹟」(1748) 및 1676년(숙종 2) 문신인 권해(權階, 1648-1723)가 지은 「娑婆教主釋迦如來浮屠碑銘」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토대로 용연사의 연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912년(신덕왕 1) 창건 『용연사사적』 근거

914년(신덕왕 3) 창건 보양화상(寶壤和尚) 『용연사 중수기』 근거

1419년(세종 1) 중창 천일(天日)

임진왜란 소실

1603년 중창 대웅전을 비롯해서 5동

1621년 범종각 건립

1650년 법당, 요사 소실

1651년 설선당, 심검당 건립

1652년 동상실(東上室), 서상실(西上室) 건립

1653년 대웅전 건립, 명부전 건립

1654년 만월루(滿月樓) 건립

1655년 함허당(含虛堂), 관정료(灌頂寮) 건립

1656년 관음전 건립

1657년 반상료(返常寮) 건립, 명월당(明月堂) 건립

1659년 향로전(香爐殿) 건립

1660년 약사전 건립

1661년 두월료(斗月寮) 건립

1668년 대종(大鐘)과 금구(金口) 주조

1670년 천왕문 앞 석교 완성

1672년 법고(法鼓)를 완성

1673년 세존부도(世尊浮屠) 건립

1674년 부도암 건립

1) 달성군, 『대구 달성 용연사 자운문 보물지정 요청 자료보고서』 27~30쪽 참조.

1675년 사리각(舍利閣) 건립, 용문교와 법당 중종(中鐘) 조성

1676년 「과사교주석가여래부도비명」 건립

1682년 천왕문 건립

1688년 응진전(應眞殿)과 16나한 조성

1693년 영류당(咏流堂) 건립

### **1695년 일주문 건립(현 자운문)**

1708년(숙종 34) 석가여래 부도탑 중수

1711년 시왕탱(十王幀) 봉안, 명부전 단청

1715년 대웅전을 비롯하여 종각 등의 여러 건물을 중수하고 단청

1722년 용연사 중수비 조성

1726년 정월 대웅전 및 동서 별실과 좌우 승당 소실

1728년 2년 만에 가람 중건

근대에 들어와서는 1910년 한일합방 직후 발표된 사찰령(寺刹令)으로 용연사는 동화사의 수반말사(首班末寺)가 되었다. 1934년에 석가여래 사리탑의 중수 불사가 있었으며 이때 사리탑 주위에 석주를 세웠다. 이후 용연사는 근래까지 여러 차례 전각의 보수와 건립을 통하여 그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산내 암자로는 은적암(隱寂庵), 명적암(明寂庵), 광선암(廣仙庵)이 있으며 현재는 1728년에 세운 극락전과 적멸보궁, 금강계단, 안양루(보광루)를 비롯하여, 자운문, 천왕문, 영산전, 명부전과 사명당, 삼성각, 나한전, 요사 등이 있다.

### **2) 1695년\_일주문 건립**

「龍淵寺重修碑」(1722)에 따르면 용연사는 임진왜란으로 소실되었다가 1603년 중창되었지만 1650년 화재에 의해 다시 소실되었고 그 이후 계속된 중창불사로 사찰 터가 확장되었다고 한다. 용연사의 연혁으로 살펴볼 때 중창불사는 한꺼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시간에 걸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 가운데 일주문은 1695년에 건립되었으며 명칭은 ‘자운문’이 아닌 ‘一柱門<sup>2)</sup>’이라 했다는 사실도 「達城南巖琵琶山龍淵寺一柱門上梁文」(1695)에 기록되어 있다.

### **3) 1938년\_일주문 중수**

2012년 보수공사시에 발견된 ‘일주문중수기’에 따르면 1938년에 일주문이 무너져 이를 중수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1920년대 조선고적을 조사한 小川敬吉의 사진자료와 현황을 비교해 볼 때, 외관상 기단이 생기고, 포벽이 사라진 것을 제외하고는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인다. 또 편액이 걸려 있어 1695년 건립 때와 달리 자운문이라 불리고 있었음을 알 수

2) 石橋之右, 卽開寺門之, 新爲揭華名. 宜扁一柱.

있다.



小川敬吉의 <고적문화재자료>에 실린 자운문 전경

#### 4) 2012년\_자운문 보수공사

2012년 자운문은 평방과 창방의 균열, 하중으로 인한 기울어짐 상태가 확인되어 보수공사를 진행했다. 지붕해체 후 추녀와 사례는 전량교체하고 연목과 선자연은 부식된 것만 교체하였다. 대공과 동자주는 보수당시의 모습을 간직하도록 하되 부식된 박공판과 개판은 교체하였다.

좌측 기둥은 부후된 내부를 제거 후 집성목형태를 갖추어 수지와 혼합하여 내부를 채워 보수보강하였고, 창방과 평방은 측면부는 교체하고 정면과 배면부는 재사용하였다. 외목도리, 주심도리, 장여 등도 부식이 심한 것은 교체하였고, 보수당시 배면에 임시로 설치되어 있던 활주와 초석을 제거하여 일제강점기 때의 사진의 모습을 되찾도록 하였다.

### 5) 2012년 보수공사시 발견된 상량문과 현판교체

자운문의 1695년 건립과 1938년 중수를 알 수 있는 상량문과 중수기는 2012년 보수공사시 발견(발견위치 보고서에 수록되어 있지 않음, 확인 필요)되었으며, 퇴락한 ‘비슬산용연사자운문’ 현판도 이때 다시 제작되었다. 자운문 현판의 글씨는 회산 박기돈(晦山 朴基敦, 1873~1948)의 작품으로 그는 1920년대 활약한 서화가다. 통도사, 해인사, 운문사, 파계사 등에도 그의 작품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용연사 일주문에는 본래 ‘일주문’이라는 편액이 있었다고 하는 기록을 고려한다면 자운문으로의 개칭은 이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용연사 자운문 현황

## 3. 자운문의 건축적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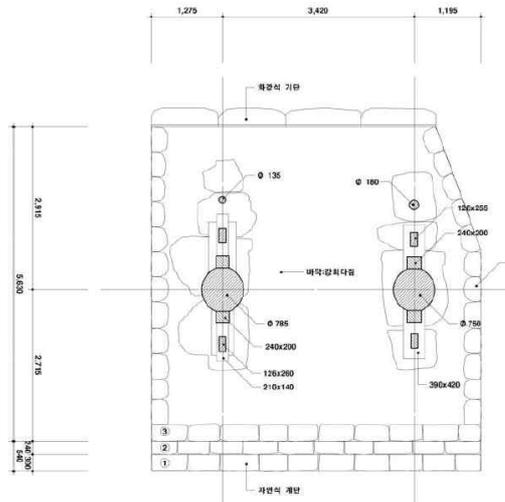
### 1) 건축적 구성

小川敬吉의 <고적조사문화재자료>에 실린 사진에 따르면 자운문의 기단과 초석은 다듬지 않은 돌을 사용하였으며, 기둥도 도랑주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기둥을 보조하는 주선이 전후에 설치되어 있으며 기둥상부에는 창방, 출창방, 평방, 출평방으로 틀을 짜고 그 위에 포작을 짜 올린 다포식 문이다. 가구는 3량이지만 허가를 얹어 용마루를 높이고 네 모서리에 추녀와 사래를 걸어 팔작지붕을 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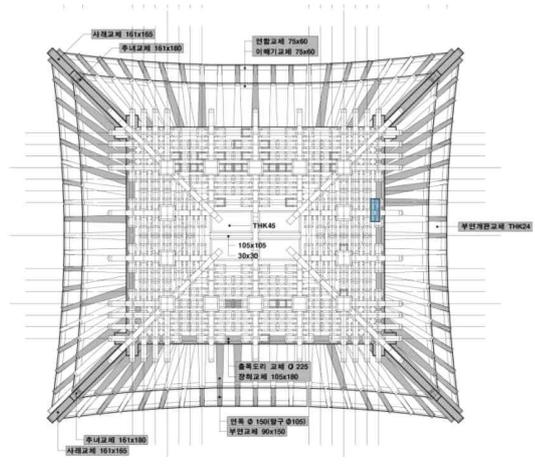
2012년 보수공사로 기단은 3단이 되었으며, 상당수의 부재가 교체되었지만 보수이전의 양상을 반영하고 있다. 小川敬吉의 자료에 실린 사진이 찍힌 각도로는 기둥하부에 경사부재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기는 어렵다.

### 2) 자운문의 건축적 균형과 비례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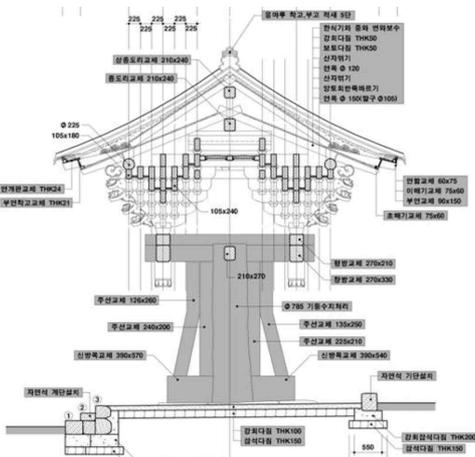
자운문의 기둥은 지름 2자 5치(750mm)이상 되는 두꺼운 것을 사용하였으며, 창방과 평방틀의 규모는 11자\*6자반 정도다. 처마내밀기도 전후면이 6자반으로 균형잡힌 형태를 취하고 있다. 초석부터 평방상면까지의 높이는 10자 3치, 평방상면부터 용마루상면까지는 12자 4치로 지붕의 비례를 더 크게하여 비례적 안정감을 주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포작은 전면 간포 셋, 측면 간포 둘을 동일한 간격으로 놓을 수 있도록 귀포의 길이를 조절하여 포작간 균형을 맞추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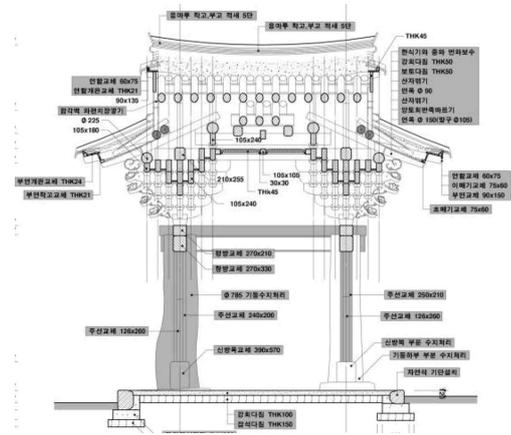
용연사 자운문 평면도



용연사 자운문 앙시도



용연사 자운문 종단면도



용연사 자운문 횡단면도



자운문에 재사용된 1721년 망와

### 3) 자운문의 건축사적 편년

자운문의 건립시기는 상량문을 통해 1695년이라는 점이 밝혀졌음에도 문을 구성하고 있는 부재들이 보여주는 건축적 시기는 그보다는 하향해 있다.

포작의 내부는 모두 두공(頭工, 교두형)이고 외부형태는 1~4제공(齊工)까지는 연화(蓮花, 연화쇠서형)를 조각하고 다섯 번째는 구름모양의 운공(雲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예는 18세기 중엽이후에 주로 보이는 모습이다. 즉 포작의 형태로 판단할 수 있는 자운문의 가구구조는 18세기 초중엽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지붕을 덮고 있는 기와는 현대에 생산된 기와가 주를 이루지만, 1721년의 망와도 잔존해 있어 기록이 존재하지 않던 시기의 수리 상황도 반영하고 있다.

수리가 잦은 포작, 가구, 지붕재는 건립시기는 18세기 이후일지라도, 기둥은 크기, 풍화마모도, 부후정도로 볼 때 최초 건립시기의 것일 가능성이 높다. 상량문에 정합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연륜연대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 4.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 1) 역사적 가치

일주문은 조계문(曹溪門)이라고도 하며 사찰경역의 입구에 위치하는 문이다. 대개의 사찰이 사세를 갖추고 난 후 사찰의 경계를 정하면서 건립하는 사례가 많은데 용연사 자운문도 그 건립연원이 유사하다. 극락전 중심영역과 금강계단이 있는 적멸보궁영역이 형성된 후 두영역을 아우르는 위치에 일주문이 건립되었다. 이로써 보자면 용연사 자운문은 당대의 시대상을 반영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중세사원제도에서 경계와 입구를 상징하는 보편성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역사적 가치가 있다.

### 2) 예술적 가치

일주문은 2개의 기둥만으로 1칸 규모의 지붕을 받들고 있는 독특한 구조다. 사찰의 입구임을 상징하기 위해서 장식적이면서도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비례를 갖추지 않으면 시각적 불안감을 조성한다. 용연사 자운문은 임진왜란 이후 건립된 많은 일주문 가운데서도 비례적 균형과 안정감을 갖춘 몇 안되는 사례에 해당한다. 지붕 속에 허가연을 만들어 기둥 높이보다 포작으로부터 용마루까지의 높이를 높게 하고, 귀포를 조절하여 간포의 간격을 동일하게 하였으며, 처마내밀기는 비례를 잘 맞추어 균형과 안정감을 만들어냈다. 이로 인해 용연사 자운문은 일주문임에도 일반 건축물과 같은 익숙한 안정감을 준다는 측면에서 뛰어나다고 평가할 수 있다.

### 3) 학술적 가치

2012년 보수공사를 통해 용연사 자운문의 상량문과 중건기가 발견됨으로 인해 최초건립 시기를 명시할 수 있다는 점, 명문 망와가 있어 수리이력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 상량문과 중건기를 통해 장인들의 명단 및 그 계보의 추적이 가능하다는 점 등은 자운문의 학술적 가치를 증명한다.

이상의 가치로 볼 때 보수를 통해 많은 부재가 교체되었다고는 하나, ‘달성 용연사 자운문’은 원형의 기법을 유지하여 수리되었기에 은’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보호관리하는 것이 적의할 것으로 판단된다.

##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22.06.30.	대상문화재	달성 용연사 자운문	
조사자	성 명	○○○	전공 분야	건축사
	소 속		직위(직책)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문화재 명칭	달성 용연사 자운문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세부내용 별첨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3 년 7월 31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 1.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용연사는 비슬산의 줄기에 있다. 비슬산의 최고봉은 대견봉(大見峰:1,084m)으로 산 정상에 바위모양이 신선이 거문고를 타는 모습을 닮았다 하여 ‘비슬’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비슬산을 중심으로 방사상 형태로 하천이 흐르고 있으며, 이 중 신천의 본류가 제일 큰 하천이고 그 물이 모여 기세마을에서 옥연지를 형성하고 있는데 신천 상류에 용연사(龍淵寺)가 있다.

용연사는 마을의 입구인 반송초등학교에서 안쪽으로 2.5km 정도를 들어와서 있다. 용연사의 뒤쪽은 비슬산에서 청룡산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산줄기의 입구에 위치하고 있다. 좌우에 야트마한 산으로 길게 둘러싸여 아늑한 공간을 이루고 있지만 전면은 트여져 전체적으로 서향하고 있다.

용연사 일주문인 자운문을 지나 올라가면 좌·우측으로 갈라진다. 오른쪽은 극락전을 향하고 왼쪽은 적멸보궁으로 향한다.

용연사의 가람배치는 좀 특이하다. 당우의 배치를 놓고 볼 때 극락전, 명부전, 적멸보궁을 각각 중심으로 한 세 구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극락전 구역으로는 극락전을 비롯해서 영산전, 삼성각, 안양루, 천왕문, 요사, 종무소 등이 있는데, 전체 가람의 중심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명부전 구역에는 명부전을 포함하여 사명당, 독산각 등이 있으며, 중심 영역 왼쪽의 개울 건너편에 자리한다.

자운문을 지나면 왼쪽에 언덕이 있고 적멸보궁영역을 알리는 작은 일주문이 나타난다. 이곳으로 들어서면 바로 적멸보궁 구역이 나온다. 적멸보궁구역은 누문인 보광루를 지나면 적멸보궁건물이 나타나고 그 뒤에 석조계단이 위치하고 있다.

## 2. 연혁·유래 및 특징

### 1) 연혁 및 유래

용연사(龍淵寺)의 역사를 전하는 기록으로는 문신인 임수간(任守幹, 1665~1721)이 지어 1722년(경종 2)에 세운 「龍淵寺重修碑(용연사중수비)」와 1748년(영조 24)에 금곡, 선청(金谷 善淸) 스님이 지은 「龍淵寺寺蹟(용연사사적)」 등 두 가지의 사적기가 가장 대표적이다. 그런데 이 두 사적기 모두 용연사의 창건을 신라시대 관기(觀機), 도성(道成) 등 두 분의 성인과 보양(寶壤) 선사가 이룬 것으로 보고 있다.

「용연사중수비」는 신라 말에 보양 선사가 용연사를 창건하였다고 하였고, 「용연사사적」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신라시대인 912년(신덕왕 1)이라는 창건연대 까지 명시하고 있다. 창건한 후 고려 시대의 사실은 기록에 보이지 않고 조선시대에 들어서야 사

적이 전한다.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419년 중창 천일(天日)

임란왜란 때 소실

1603년 중창( 대웅전을 비롯해서 5동) 인잠(印岑)·탄옥(坦玉)·경천(敬天) 승려 20여명

1621년 범종각 건립

1650년 법당, 요사 소실

1651년 설선당, 심검당 건립. 계환(戒環)·여휘(麗輝)

1652년 동상실(東上室), 서상실(西上室) 건립. 일언(一彦)·학신(學信)

1653년 대웅전 건립, 명부전 건립. 홍묵(弘默), 승안(勝安)

1654년 만월루(滿月樓) 건립. 일주(一珠)

1655년 함허당(含虛堂), 관정료(灌頂寮) 건립. 희감(熙鑑)과 홍묵(弘默)

1656년 관음전을 건립. 청진(淸振)

1657년 반상료(返常寮) 건립. 계홍(戒弘)

1658년 명월당(明月堂) 건립. 도행(道行)

1659년 향로전(香爐殿) 건립. 학신

1660년 약사전 건립 일순(一淳)

1661년 두월료(斗月寮) 건립 계홍

1668년 대종(大鐘)과 금구(金口) 주조

1670년 천왕문 앞 석교 완성

1672년 법고(法鼓)를 완성

1673년 세존부도(世尊浮屠) 건립 자진(自珍)

1674년 부도암 건립

1675년 사리각(舍利閣) 건립, 용문교와 법당 중종(中鐘) 조성

1676년 「파사교주석가여래부도비명」 건립 권해(權諧, 1648-1723)

1682년 천왕문 건립

1688년 응진전(應眞殿)과 16나한 조성

1693년 영류당(咏流堂) 건립

1695년 자운문 건립

1708년 석가여래 부도탑 중수

1711년 시왕탱(十王幀) 봉안, 명부전 단청

1715년 대웅전을 비롯하여 종각 등의 여 러 건물을 중수하고 단청. 찬화(燦和)

1722년 용연사 중수비 조성. 홍문관 교리 임수간

당시 용연사에는 명적암, 은적암, 보제암, 법장암이 있었으며, 절 앞의 시내를

따라 용문교·천태교 등 다섯 개의 돌다리가 있었다고 한다. 이들 전각은 무려 200여칸에 달하였으며, 거주하는 승려는 500 여명이나 되었다.

1726년 정월 대웅전 및 동서 별실과 좌우 승당 소실

1728년 2년 만에 가람 중건 혜조(慧照), 찬화 금곡, 선청이 새로운 사적기를 씀

용연사 자운문은 「達城南巖琵琶瑟山龍淵寺一柱門上梁文(달성남암비슬산용연사일주문상량문)」을 통해 1695년(강희34년)에 창건된 것으로 상량문에 “금사(金沙)의 소중한 땅에 조계(曹溪)의 문을 특별히 설치하였도다. -중략- 마침내 돌다리 우측에 새로이 절문을 세우고...”라 하여 창건임을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

이 후 「용연사 자운문 중수기」를 통해 1938년에 일주문이 무너져 이를 중수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2012년에 일주문에 대한 보수공사가 있었는데 모든 과정을 기록하여 보고서를 만들었다. 또한, 일주문의 망와는 옛것을 그대로 사용하였는데 ‘康熙六十年 辛丑三月 龍淵寺.....’라 는 명문이 있다. 1721년에 해당하며, ‘용연사 중수기’에 나타난 “신축년(1721)에 기와를 굽고 임인년(1722)에 전각을 수리하면서 먼저 법당을 고치고 그 다음에 종각을 수리하였다.”는 기록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로 그 가치가 크다.

현재의 자운문이 창건 이후 얼마만큼의 변화를 가졌는지에 대한 검증은 일제강점기 小川敬吉의 「고적문화재자료」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小川敬吉이 한국에서 활동한 시기는 1916년~1944년로 조선총독부에 근무하면서 문화재 수리공사와 유적조사를 담당하였으나, 1938년 이후에는 용연사를 다녀간 기록이 없고, 자운문의 퇴락 상태를 볼 때, 1938년 자운문이 무너지기 이전의 사진임을 추정할 수 있으며, 현재의 형태와 크게 변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자운문의 공포형식은 18세기 이후의 형태로 보여진다. 이 형태는 창건된 1695년의 양식으로 봐도 가능하고, 이후 중수하면서 변화된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그러나, 小川敬吉의 사진을 통해 조선후기 상당기간 이어져 온 양식임을 알 수 있으므로 현재 자운문의 역사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 2) 특징

기단은 막돌 바른층 쌓기형으로 구성하였으며 전면은 두벌대, 후면은 장대석을 외벌대로 구성하였다. 문화재청에서 1994년에 발간된 小川敬吉의 <고적조사문화재자료> 사진을 보면 그 당시에는 외벌대 기단이 많이 유실된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초석은 기단에 파문혀 상부만 노출되어 있는 실정인데, 주기둥과 신방목의 초석은 자연석으로 구성하였다. 보방향으로 주기둥 초석과 두 개의 신방석이 놓여져 있으며, 양신방목 북면에는 자운문이 뒤로 전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방향주 심창방의 단부하부를 지지하는 작은 기둥의 초석이 있다. 내부바닥 및 기단상면은 강희다짐으로 마감하였다.

축부는 주기동의 양 옆면에 주선을 붙여 세운 뒤, 또 하나의 부재를 주선 면에 덧붙여 결구하였다. 덧붙여 결구한 이 부재는 상단에서 중간까지는 주선과 나란하고 중간부터 하부까지는 신방목 단부 쪽으로 휘어져 내려와 신방목의 등에 장부맞춤으로 결구되었다.

창방은 보방향 주심창방, 도리방향 주심창방, 출창방이 있으며 보방향 주심창방은 받을장, 출창방은 업힐장으로 결구되어 있고 도리방향 주심창방은 주기동 사괘 안에 양단부가 턱물림 주먹장맞춤 되었다. 보방향 주심창방과 출목방의 뺄목은 마구리는 직절되어 있으며, 그 모서리는 둥글게 궁글렸다. 보방향 주심창방의 하중이 많이 실린다는 것을 고려하여 운두가 출목창방의 운두보다 크다. 보방향 주심창방과 출창방의 결구부분은 원형 달동자가 끼워져 있는데, 달동자 하부는 국화문으로 조각하였다. 배면 쪽 보방향 주심창방 하부를 작은 기둥으로 지지하게 하였는데 이는 후대에 첨가된 것으로 생각된다. 평방은 보방향 주심평방과 출평방이 있으며 보방향 주심평방은 받을장, 출평방은 업힐장으로 십자맞춤되어 있다

공포는 전면 3개 측면2개의 간포를 올렸고, 내·외 3출목으로 출목수가 같은 다포형식이다. 살미외단은 연화쇠서형이며 살미내단은 교두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살미 외부는 중첩판 구조이며, 내부는 교두형의 저울대 구조를 취하고 있다. 살미 외부의 소로는 살미에 함입되어 있고, 내부에서는 교두형이지만 내부소로의 결구는 단부에 결구되어 있지 않고 살미에 함입되어 있다. 현재는 설치되어 있지 않으나 小川敬吉 「고적조사문화재자료」 사진을 보면 원래는 포벽이 설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붕가구는 주기동 위에 위치한 귀공포 주심열상에 있는 오제공의 오살미가 보의 역할을 하고 있다. 외출목을 지지하는 부분은 일반 포부재의 폭과 동일하며 내부는 포부재의 폭 보다 큰 부재이다. 오살미 등에 2개의 대공을 세워 덧지붕의 도리를 지지하고 있다. 대공은 덧종도리를 받기 위한 것으로 좌우 양단 2개소에 대공을 세우고 중간에 동자주를 받혀 보강하였다. 대공은 2개의 부재를 사용하여 동자주를 만들고 그 위에 받침재를 세운 후 다시 그 위에 납도리형의 도리를 얹었다.

지붕은 우진각 지붕처럼 지붕틀을 구성한 뒤 이 위에 맞배형의 덧지붕을 씌워 팔작지붕을 구성하였다. 처마는 서까래와 부연으로 구성된 겹처마 형식이다. 박공은 기와로 장식한 회벽마감이다. 처마끝부분의 기와는 막새기와로 끝부분을 마감하였다. 측면내목도리와 외목도리에 의지에 추녀를 건 후 옆면에 마죽연으로 귀서까래를 구성하였다. 덧지붕을 만들기 위해 측면 주심열에 대공을 세운 뒤 덧종도리를 걸었다. 처마 서까래의 덧뿌리 위에는 덧도리를 설치하고, 덧도리와 덧종도리 위에 덧서까래를 걸어 덧지붕을 만들었다. 측면 처마 서까래 위에도 덧도리를 설치하여 측면부연의 덧뿌리 사이에 덧서까래를 설치하였다.

현판은 정면에 창방과 평방에 ‘비슬산용연사자운문’이란 편액을 걸어 놓았다. 현판의

글씨는 회산 박기돈(晦山 朴基敦, 1873~1948)의 작품이다. 많은 사찰에 현판과 주련등에 휘호를 남겨 통도사, 해인사, 운문사, 파계사 등에 그의 작품이 걸려있다. 팔공산 파계사의 진동루에 걸려있는 현판 가운데 '八公山 把溪寺(팔공산과 계사)' 현판글씨와 해인사의 팔만대장경의 현판글씨도 그의 작품이다.

### 3. 종합 의견

달성 용연사 자운문은 「達城南巖琵琶山龍淵寺一柱門上梁文(달성남암비슬산용연사일주문상량문)」을 통해 1695년(강희34년)에 창건된 것을 알 수 있다. 이후에는 1938년 「자운문중수기」를 통해 무너진 자운문을 중수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현재의 자운문이 창건 이후 얼마만큼의 변화를 가졌는지에 대한 검증은 일제강점기 小川敬吉의 「고적문화재자료」를 통해 조선후기부터 현재까지 형태가 크게 변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자운문은 상량문을 통해 1695년 창건이 명확하고, 공포형식은 18세기 이후의 형태로 보여지나, 小川敬吉의 사진을 통해 조선후기 상당기간 이어져 온 양식임을 알 수 있으므로 역사적·건축적으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23. 02. 08.	대상문화재	달성 용연사 자운문	
조사자	성 명	○○○	전공 분야	한국건축사
	소 속	○○○○연구원	직위(직책)	연구위원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문화재 명칭	달성 용연사 자운문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세부내용 별첨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7월 30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 1. 연혁

용연사(龍淵寺)의 창건과 관련된 기록은 「용연사중수비(龍淵寺重修碑)」(1722년, 경종 2년)와 「용연사사적(龍淵寺寺蹟)」(1748년, 영조 24년)이 있다. 「용연사중수비」는 신라 말에 보양 선사가 용연사를 창건하였다고 하였고, 「용연사사적」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신라시대인 912년(신덕왕 1)이라는 창건연대 까지 명시하고 있다. 두 기록 모두 용연사의 창건을 신라시대 관기(觀機), 도성(道成)과 보양(寶壤) 선사가 이룬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 외에도 석가모니 사리의 봉안과 관련된 내용이 새겨진 「파사교주석가여래부도비명」(娑婆教主釋迦如來浮屠碑銘, 1676년, 숙종 2년) 등이 전해져 용연사와 관련된 역사적 변화 과정을 알 수 있는 기록 자료가 풍부하다.

자운문과 관련된 기록으로는 용연사 일주문 상량문(강희 34년 을해, 1695년 4월)과 용연사 자운문 중수기(불기2966년 무인, 1938년 6월 20), 자운문의 망와 명문(1721년)이 있다.

상량문에서는 “...창건한 세월 이미 깊으니, 기미를 반드시 다 들어줄 것이로다. 이미 가람(伽藍)의 장려함을 얻었으니 이 없을 수 있겠는가.....마침내 돌다리 우측에 다가 새로이 절문을 세우고, 아름답다운 이름을 걸어야 하는데, 마땅히 일주(一柱)라고 편액하였도다. 운근(雲根)을 끊어 기초를 만드니, 그 광채가 해를 쏘고, 섬계(蟾桂)를 찍어내어 동량을 만드니 그림자가 달 속에 숨었도다.....“ 라고 기록되어 1695년에 창건된 것을 알 수 있다.

중수기에는 “...봉교(奉敎)5) 청사(淸土) 자혜(慈惠)가 아직◎◎를 보수하지 못하였는데, 오래지 않아 통문(通門자운문)이 무너졌다. 참관하여 보던 자들이 눈물을 머금었고, 모두가 (슬픔을) 이기지 못하였다. 대구의 김복, 김여문이 중수를 주도하여서 이 공을 칭송할 만하니...”라고 기록되어 자운문이 도괴되었고 이를 김복, 김여문의 도움으로 중수한 것을 알 수 있다.

자운문의 망와에 ‘康熙六十年 辛丑三月 龍淵寺.....’ 라는 명문이 있다. 강희60년은 1721년에 해당하며, ‘용연사 중수기’에 나타난 “신축년(1721)에 기와를 굽고 임인년(1722)에 전각을 수리하면서 먼저 법당을 고치고 그 다음에 종각을 수리하였다.”는 기록에 비추어보아 이 시기에 자운문의 기와도 수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2.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용연사는 비슬산에서 청룡산으로 이어져오는 산맥의 입구에 위치하며 좌우에 낮은 산으로 둘러싸여 전면이 개방되어 전반적으로 서북향을 하고 있다. 자운문을 통과하여 좌우측으로 영역이 나뉘게 된다. 좌측의 적멸보궁 영역과 우측의 극락전 영역이다. 극락전 영역은 극락전, 영산전, 삼성각, 안양루, 천왕문, 요사, 종무소와 명부전을 포함하여 사명당, 독산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적멸보궁 영역은 보광루, 적멸보궁으로 이루어져 있다.

용연사 사역 내에 달성 용연사 금강계단(보물), 용연사 삼층석탑(문화재자료)가 있으며 주변으로 비슬산을 중심으로 용천사 대웅전(시도유형문화재), 대견사지 삼층석탑(시도유형문화재), 소재사 대웅전(문화재자료), 초곡산성,(시도기념물), 달성 조길방 고택(국가민속문화재) 등이 분포하고 있다.



용연사 영역

### 3. 건축 현황 및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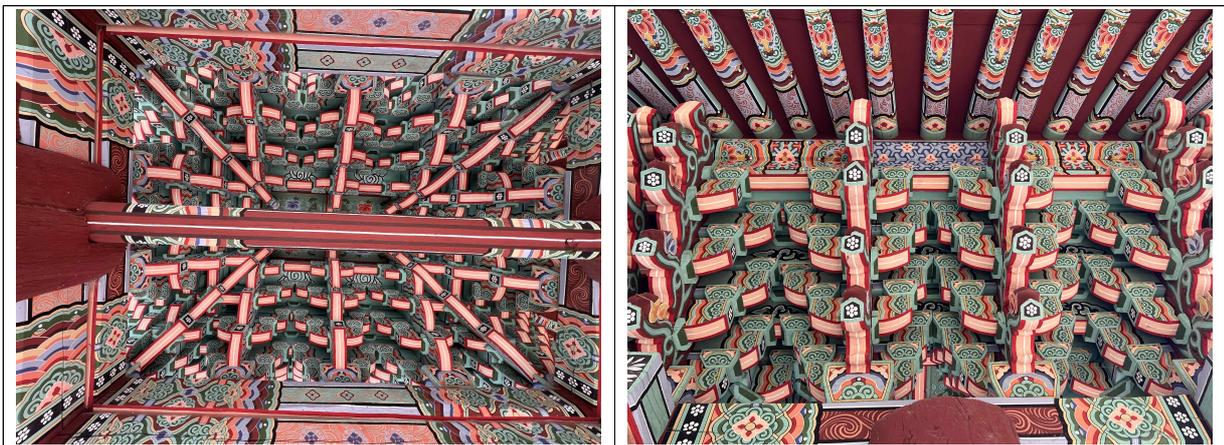
기단은 막돌 바른층 쌓기로 구성하였으며 남면은 두벌대, 북면은 대층 다듬은 장대석을 외벌대로 구성하였다. 남면기단은 계단을 결한 기단으로 구성하였으며 북면은 바닥면보다 100mm 정도 높게 설치하였다.

축부에서는 주기둥의 양 옆면에 주선을 붙여 세운 후 주선의 위에서 중간까지 주선과 나란히 붙이고 중간에서 신방목까지 휘어져 내려와 신방목에 장부맞춤으로 결구되는 하부사재형이다. 좌측면의 기둥은 도량주이고 우측면의 기둥은 민흘림이다. 주선은 보방향 중심창방과 신방목에 장부맞춤되고 주기둥에 맞추어 그랭이를 하였다.



도리방향 주심창방은 주기둥 사괘 안에 양단부가 턱물림 주먹장맞춤을 하였고 보방향 주심창방과 출창방은 받을장과 업힐장으로 결구하였다. 창방 뿔목은 직절되었고 창방이 결구되는 부분에 국화문으로 조각된 달동자를 설치하였다. 평방은 주심평방과 출평방이 있으며 창방의 형식으로 십자맞춤하였다.

공포부는 내외 3출목의 포작을 올려 상부 장식이 화려하다. 주간포는 정면 3개, 측면 2개로 구성되 있다. 살미외단은 연화쇠서형, 내부에서는 교두형 내부소로의 결구는 단부에 결구되어 있지 않고 살미에 함입되어 있는데 교두형일 때 대부분 소로는 단부에 위치하는 것을 볼 때 특징적인 면이다. 귀포에서는 주심열에서는 주간포와 동일하고 귀한대에서는 초제공은 연잎쇠서형 그 위로는 연화쇠서형으로 구성하였다.



기둥 위에 위치한 구포에 있는 오제공의 살미가 보의 역할을 하고 있다. 도리는 외목도

리, 내목도리, 종도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목도리는 측면에만 사용되었다. 내목도리는 내3출목 장여 위에 격자형 틀을 두고 그 상부 측면에 설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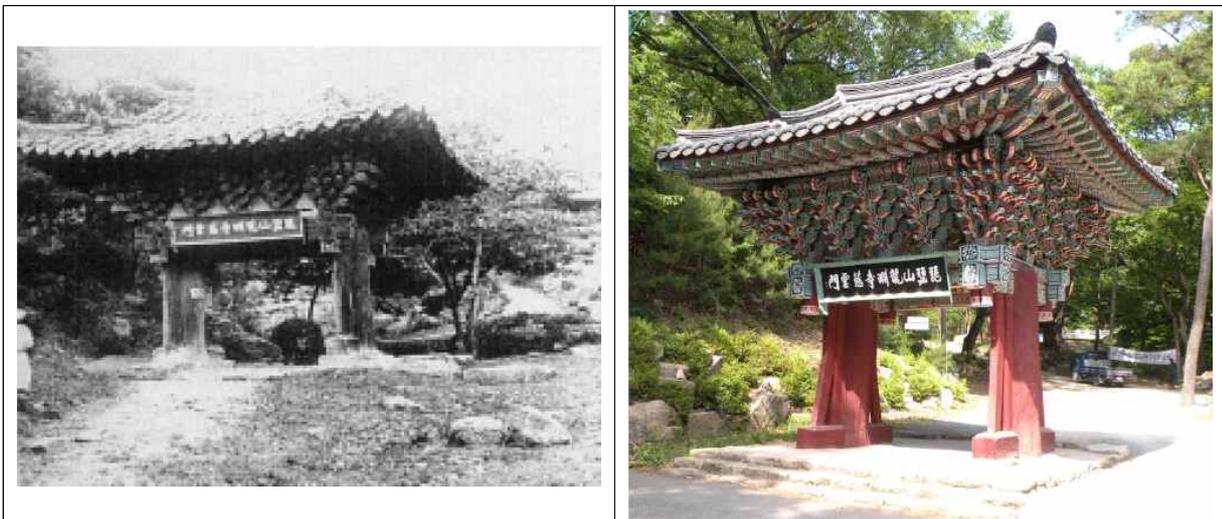
지붕은 팔작지붕, 겹처마 형식이다.

전체적으로 상부의 화려함과 이를 받쳐주는 하부구조의 안정감으로 균형잡힌 입면을 형성하고 있다.

#### 4. 지정가치 및 종합의견

대구 달성 용연사 자운문은 용연사 일주문 상량문으로 창건년대(1695년), 용연사 자운문 중수기로 중수년대(1938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망와의 명문을 통하여 중수기의 내용에 부합하는 것을 뒷받침하며 1721년에 최소한 기와를 수리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기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일주문 가운데 상량문이 발견된 것은 처음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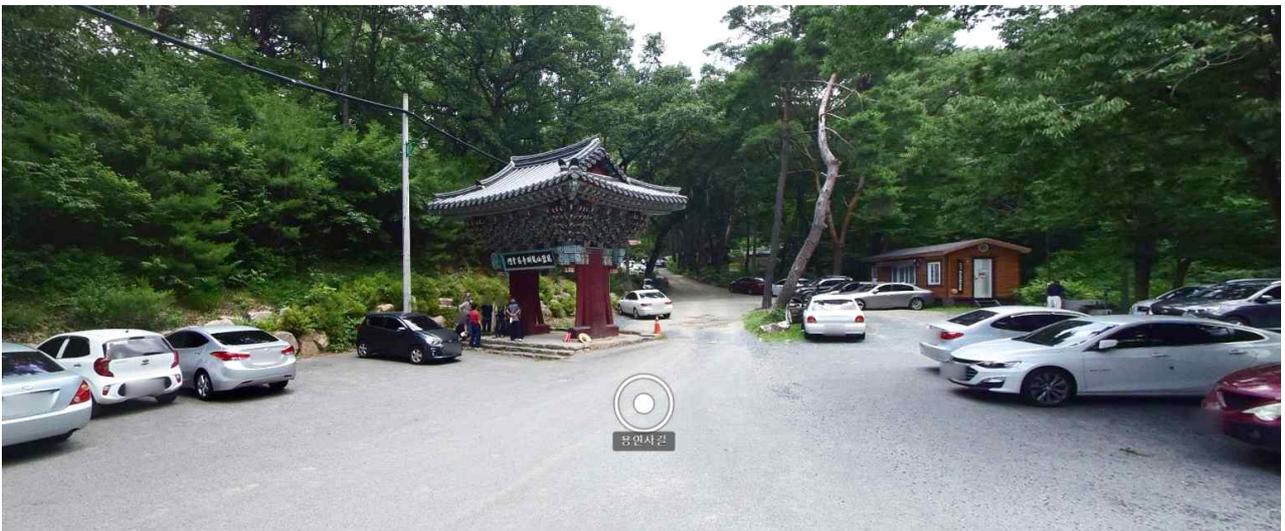
자운문은 공포를 올리기 위하여 보방향 주심창방, 도리방향 주심창방, 출창방을 ‘日’자형으로 구성하고 평방은 보방향 주심평방과 출평방을 ‘口’자형으로 구성하여 화려한 공포를 올렸다. 공포의 내부에서 교두형 내부소로의 결구를 살미에 함입시킨 점과 하부사재형 구성등 흔하지 않은 사례이다. 또한 「오가와 케이키치조사 문화재자료」(1994년, 국립문화재연구원)의 사진자료와 비교해보면 포벽이 사라진 점과 기단의 차이 외에는 건축물에서 크게 변경된 것이 없어 원래의 모습대로 보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오가와 케이키치는 1916년~1944년 조선총독부에 근무하며 문화재 수리공사와 유적조사를 담당하였다.)



기록물을 통한 역사적 근거가 명확하고 화려한 공포, 가늘고 섬세한 살미와 첨차 등 18

세기 다포계 후기 건축양식을 잘 보여주며, 균형잡힌 안정적인 입면을 가진 사료로써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지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 현재 위치는 별도의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주변에 차량 주차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운문 바로 옆으로 차량 통행로가 개설되어 있어 향후 안전문제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고 일주문 건너 조립식 건축물은 경관상 좋지 않으므로 대한 정비가 필요함.



## 6. 순천 송광사 일주문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 가. 제안사항

전남 순천시 소재 「순천 송광사 일주문」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전남 순천시 소재 「순천 송광사 일주문」을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항은 2023년 건축문화재분과 제8차 회의(2023.08.17.)에서 원안가결된 사항으로, 예고기간('23.08.28~'23.09.27) 동안 사찰측에서 '순천 송광사 일주문' → '순천 송광사 조계문'으로 명칭 변경 요청.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전라남도지사
- (2) 대상문화재 : 비지정 「순천 송광사 일주문」
  - 소재지 :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3
- (3) 신청내용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 명칭 : 순천 송광사 일주문(順天 松廣寺 一柱門)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송광사
  - 소재지 :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3
  - 조성연대 : 조선시대
  - 수량 : 1동
  - 지정면적 : 44.32㎡
  - 구조/형식/형태 : 목조 / 다포계 / 팔작지붕

라. 현지조사 의견(2023.02.07. /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 문화재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 문화재전문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 문화재전문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마. 지형도면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바.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명칭은 ‘순천 송광사 조계문’으로 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조건부가결 8명

##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23.02.07.	대상문화재	순천 송광사 일주문	
조사자	성 명	○○○	전공 분야	건축사
	소 속	○○○○○○○학교	직위(직책)	부교수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문화재 명칭	순천 송광사 일주문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세부내용 별첨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08월 02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 1.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순천 송광사는 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조계산에 위치하고 있다. 조계산은 호남정맥의 한 봉우리를 형성하는 산이다. 호남정맥(湖南正脈)은 서쪽에 만경강, 동진강, 영산강 등을 두고 동쪽에 섬진강을 따라 서남쪽으로 뻗어내려간 정맥이다. 호남정맥은 정읍의 내장산, 담양의 추월산, 광주의 무등산 등 큰 산봉 우리를 뺏은 후 순천에 이르러 해발 887m의 조계산을 뺏었다. 「대동여지도」에 의하면 동리산이 서쪽으로 흘러 아미산을 뺏었고 여기서 하나의 지류가 나와 멀리 서남쪽에 조계산을 뺏고 있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 조계산은 송광산이라고 부르는데 사찰의 명칭이 송광사인 것은 산의 명칭을 따라 지어진 것이다.

조계산 자락 안에 넓고 아늑한 공간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곳에 송광사가 위치하고 있다.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송광사도」를 통해 사찰 주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진락대(眞樂臺) 뒤편에 높게 솟은 봉우리를 주산(主山)으로 표현했으며 주산 오른쪽의 높은 봉우리를 호령봉(號令峯), 사찰 정면의 왼쪽편 높은 봉우리를 조계산(曹溪山)이라고 하였다. 오른쪽편 봉우리는 망수봉(望水峯)이다. 또 사찰 정면의 낮은 봉우리가 당산(堂山)인데, 당산을 넘어 멀리 동북(同福)의 모후산(母后山)이 위치하고 있다. 송광사를 감싸고 있는 계류인 신평천은 사찰의 좌측 호령봉에서 발원해 사찰을 감싸 흐르고 있으며 사찰 우측에서도 하나의 계류가 흘러 서로 모여 주암호로 흘러간다. 사찰의 좌향은 갑좌경향(甲坐庚向)이다. 갑좌경향은 서향에 가깝다. 사찰이 위치한 대지는 높은 축대로 양분되는데 산간에 위치한 상대와 하부에 위치한 하대로 구분된다. 하대에도 그리 높지 않은 축대로 양분할 수 있다. 사찰의 입구에는 계류가 흐르고 있어 이를 건너야만 사찰 내부에 진입할 수 있다.

순천 송광사의 대표적인 건축 문화재로 국사전을 들 수 있다. 송광사 국사전은 역대 국사 16분의 영정을 모시고 그 덕을 기리기 위해 세운 건물로서 소박하고 아담한 형태와 주심포 형식의 모범을 보여주는 건물이다. 국보인 송광사 목조삼존불감은 매우 작으면서도 세부묘사가 정확하고 정교하여 신라말 고려초의 우수한 조각 기술을 보여준다. 또, 혜심고신제서(惠諶告身制書)는 고려 고종 3년(1216)에 조계산 송광사 제2세 진각국사 혜심에게 대선사의 호를 내릴 것을 제가한 문서로서 고려시대 승려에게 하사한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송광사 화엄경변상도는 화엄경의 7처9회(七處九會)의 설법내용을 그린 변상도로, 현존하는 조선시대 화엄경변상도 중 조성 시기가 가장 빠른 물론, 설법내용을 매우 충실하게 효과적으로 그려내고 있는 기준작이라는데 사료적 가치가 있다. 이밖에 경내의 송광사 하사당, 송광사 약사전, 송광사 영산전이 모두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 2. 연혁 · 유래 및 특징

### (1) 순천 송광사 일주문의 건축연혁

순천 송광사의 건축연혁은 일제 강점기에 정리된 『조계산송광사사고(曹溪山松廣寺史庫)』에 상세히 정리되어 있다. 1928년 10월에 완성된 137장 분량의 「건물부」에는 송광사 내 각 건물의 창건 및 중수 관련 기록과 지도, 도면, 사적 등이 집대성되었다.

이에 따르면, 송광사의 창건은 신라말 승려 혜린(慧璘)이 송광산(松廣山)에 지은 길상사(吉祥寺)에서 유래한다. 그 후 고려시대에 보조국사 지눌(普照國師 知訥, 1158~1210)이 정혜결사(定慧結社)를 결성하면서 길상사 터에서 1197년부터 1205년까지 추진한 대공사를 최초의 중창으로 기념하고 있다. 이때 산의 이름을 조계산(曹溪山)으로 바꾸고 절의 이름을 수선사(修禪社)로 고쳤다고 한다. 제2중창은 1210년 보조국사의 입적 후 진각국사 혜심(眞覺國師 慧諶, 1178~1234)이 제2세 법주로 주석하면서 강종(康宗, 재위 1211~1213)의 후원으로 수선사가 크게 증축된 사업을 가리킨다.

제3중창부터는 전란과 화재에 따른 복구 사업이 주를 이루었다. 제3중창은 고려말에 폐사 직전까지 쇠락했던 사찰을 16국사의 마지막 인물인 고봉화상 법장(高峰和尚 法藏, 1350~1428)이 1400년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90여 칸을 증축한 공사이다. 현재 송광사 건축 구성의 기본틀이 이때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제4중창은 임진왜란 이후 1609년 부휴 선수(浮休 善修, 1543~1615)가 제자 400여 명을 이끌고 송광사에 주석하면서 수백 칸의 건물을 중창한 공사이다. 제5중창은 1842년의 대화재를 복구하기 위한 불사로, 1843년부터 1856년까지 2,150여 칸을 다시 세웠다. 제6중창은 주지 설월 용섭(雪月 龍燮, 1868~1938)이 1924년부터 1928년까지 퇴락한 건물을 수리하고 기와를 바꾸는 등 사찰 건물 전체를 정비한 사업이다. 제7중창은 한국전쟁이후 1955년부터 1960년대까지 금당(錦堂)과 취봉(翠峰)을 주축으로 추진된 재건사업이다. 제8중창은 1983년부터 1988년까지 방장 구산(九山)과 주지 현호(玄虎)의 노력으로 대웅전을 비롯한 30여 동을 건립한 불사이다.

순천 송광사 일주문과 관련한 기록으로는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수선사형지기(修禪社形止記)」가 가장 오래되었다. 이 기록은 왕실 관리가 수선사의 실태를 조사한 보고서로서 당시 사찰의 규모와 건축 상황을 살펴보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수선사형지기」에 사문(沙門)이 등장하는데, 사문은 일주문의 기원으로 볼 수 있다. “사문은 1칸으로 경향(庚向)이다. 기둥은 넷으로 각각 길이 5척 8촌이다. 들보는 둘이고 각각 길이 10척이다. 도리

는 합쳐 셋이다. 실내는 길이 8척, 너비 8척이다. 전면기단의 높이는 1척이고, 후면기단의 높이는 3촌이다. (沙門壹間庚向 柱肆 各長伍尺捌寸 楹貳各長拾尺 梁申并參 通內長捌尺 廣捌尺 前階高壹尺 後高參寸)” 여기서 사문은 경사지에 자리 잡은 사방 3m 내외의 삼랑가 맞배집으로 묘사되었다. 또한 가로로 긴 일주문 형식이 아니라 정방형 평면의 사주문 형식을 가리키고 있다. 그러므로 고려시대의 수선사 사문은 현재와 같은 일주문의 형식이 아니었다. 또한, 경향(庚向)을 한 것은 북동쪽을 등지고 남서쪽을 향하여 앉은 것이므로, 북서쪽을 향하고 있는 현재의 일주문과는 위치와 방향이 맞지 않는다. 송광사의 주요한 전각들이 경향으로 배치되어 있으므로 당시 사문은 전각과 같은 향을 취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현 일주문의 연혁을 확인할 수 있는 확실한 기록은 2007년 3월에 시행된 일주문 조사에서 발견되었다. 팔각형 단면 종도리의 긴 면에서 사중창기(四重創記) 목서가 확인되었고, 동일한 내용이 기록된 한지가 종도리 부재 안에 납입되어 있었다. 한지에 쓰인 기문의 제목은 「전라도순천부조계산송광사조계문사중창기(全羅道順天府曹溪山松廣寺曹溪門四重創記)」이다. 사중창기의 내용은 삼중창기에 의거해 시작한다. 삼중창기의 기록은 다시 중창기를 인용한다. 이와 같이 거듭된 중창의 내용이 소급되면서, 신빙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내용이 전개된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조계문을 최초로 건립한 것은 신라 말의 혜린(慧隣) 화상일 것이다. 왜냐하면 제9세 담당국사(湛堂國師) 대에 조계문을 지으면서 중창이라는 용어를 썼기 때문이다. 그러나 담당국사에 의한 최초의 중창은 자세한 기록을 남기지 않아서 정확한 연대를 알 수 없다. 2중창은 1464년에 이루어졌는데, 담당이 지은 조계문의 두 기둥을 보존한 것이 큰 의미를 갖는다. 3중창은 1676년에 이루어졌는데, 이때도 기존 조계문의 두 기둥을 보존했다. 그러나 1802년에 이루어진 4중창에서는 기둥의 상태가 좋지 않아 모두 새것으로 교체할 수밖에 없었다. 즉, 13세기 말 또는 14세기 초에 담당국사에 의해 중창된 조계문은 1464년 2중창과 1676년 3중창을 거치는 동안 두 기둥을 유지해왔으나 1802년 4중창에서 크게 바뀌었다. 사중창기에서는 두 기둥을 폐기할 수밖에 없었던 아쉬운 상황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아! 사물이 오래되면 변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데, 담당 화상이 세운 두 기둥이 비록 성인이 남긴 물건이라도 어찌 파괴되지 않겠는가? 이번에 중수를 하면서 만약 옛것을 그대로 쓴다면 두 기둥머리가 깨져 문을 만들기 어렵고 아교로 기둥을 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새 부재로 재건하면서 옛 뜻을 따르고자 한다. (噫物久成化理之常 湛堂所建兩柱 雖云聖人授記之物 豈不破壞哉. 當此重修之際 若依旧存用 則兩頭壞破 難以成門 未免膠柱. 故更謀新者 以修先志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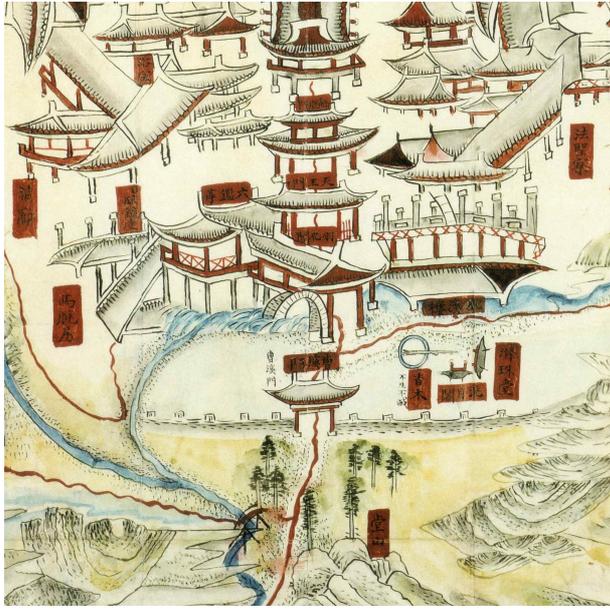
3중창의 상량식은 1676년 5월 27일에 대중 200여 명이 모여 진행하였다. 3중창을 주도한 것은 처심(處心)과 후상(後祥) 두 노승이었다. 4중창의 상량식은 1802년 6월 28일 오시(午

時)에 거행되었다. 그해 5월 8일에 공사를 시작해서 6월 9일 8시에 입주(立柱)하고 6월 28일 12시에 상량한 것이다. 「사중창기」 연화질(緣化秩)에 따르면, 학송당(鶴松堂) 정준(正浚)이 화주(化主)가 되어, 식천(湜天)을 도감(都監)으로, 일영(日英)을 별좌(別座)로 삼았으며, 도편수 조득진(趙得秦)과 부편수 우정(宇正)이 건축일을 맡아 여러 장인들을 통솔했다. 중창기에 기록된 장인들의 이름은 좌편장 1인, 우편장 1인, 장무(掌務) 11인, 인거(引鉅) 1인, 야공 1인, 석공 2인 등 스무 명에 달한다. 중창기는 당시 주지였던 성홍(性洪) 화상이 글씨를 썼다. 송광사 조계문 사중창기는 조선 후기 건축생산사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도편수 조득진은 1800년 태안사 봉두산 미타전 중창기에 도편수로 등장하는 인물과 동일인일 것으로 추정되며, 이외에도 인거장 신광택(申光宅), 야공 권목동(權木同) 등 승장이 아닌 민간장인의 이름이 등장하는 점이 흥미롭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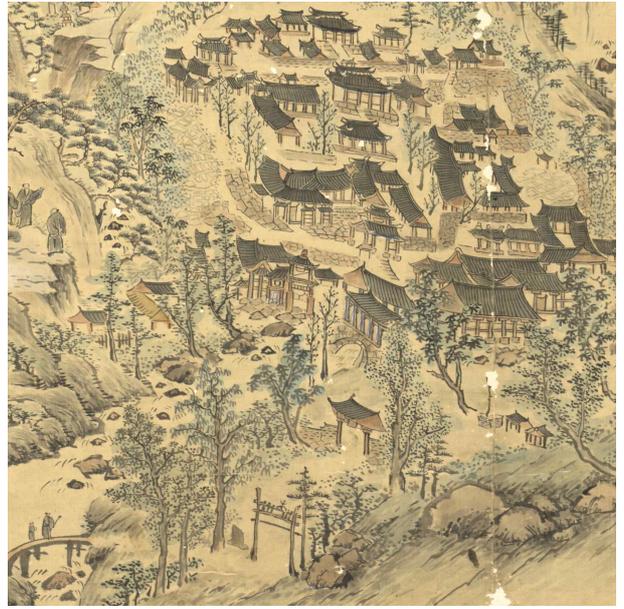
다섯 번째 중수는 1977년 5월 1일에 상량하였다. 당시 주지는 도연법흥(度然法興)이었고 경전 5책이 발견되었으나 수리 후 재봉안했다. 2007년 3월 15일에 상량한 여섯 번째 중수는 원광영조(圓光永照) 주지 때이고, 안에서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 간행된 불경 8책이 발견되었다. 일주문 현판의 뒷면에서도 목서가 발견되었는데, ‘건륭17년(乾隆十七年)’, ‘맹춘개서(孟春改書)’가 양쪽 끝에 쓰여져, 1752년에 현판이 새로 제작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일주문이 네 번째로 중창된 1802년보다 50년 앞선 것으로서, 3중창 이후에 걸쳐있던 현판을 재사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 (2) 순천 송광사 일주문의 건축특징

19세기에 편찬된 『송광사사적(松廣寺事蹟)』(규장각 소장)에는 당시 사찰 전경을 묘사한 「송광사지도(松廣寺地圖)」가 수록되어 있다. 지도에는 일주문인 조계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우화각, 천왕문, 해탈문, 대장전, 종루, 법왕문, 대웅전, 진여문, 설법전이 종축에 맞추어 배치되었다. 사찰배치의 구조가 도상화된 것으로 이해된다. 사찰의 입구인 조계문의 좌우에는 담장이 묘사되어 있는데, 마치 성벽과 같이 여장이 그려져 있다. 즉, 순천 송광사 일주문 좌우의 담장은 근대에 성립한 것이 아니며 유래를 19세기 이전으로 소급할 수 있다. 염재 송태회(念齋 宋泰會, 1872~1942)의 「송광사지전도」(1915)는 배치와 향이 보다 사실적으로 묘사되었다. 과장되지 않은 모습으로 맞배지붕의 일주문이 묘사되었으며, 일주문 앞에 홍살문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송광사지도(부분), 19세기



송광사지전도(부분), 송태회, 1915

순천 송광사 일주문은 지름 600mm 정도의 약한 민흘림이 있는 기둥 두 개를 3,700mm 간격으로 세우고, 기둥 머리에 창방을 끼운 후 평방을 올렸다. 창방의 단면은 210×300mm이고, 평방의 단면은 360×240mm이다. 창방과 평방의 뿔목은 직절했고 평방을 창방보다 조금 더 길내 내밀었다. 창방과 평방은 ㄱ자 모양의 사각틀을 형성하였다. 사각틀 위에는 정면과 후면에 주간포를 3구씩, 측면에 각각 주간포를 1구씩 배열하고, 네 귀에 귀포를 두어, 총 12구의 공포를 올렸다. 공포의 간격은 정면에서는 925mm, 측면에서는 940mm로 측면 간격이 약간 크지만 시각적으로 차이를 느끼기는 어렵다. 평방틀의 중심치수는 가로 3,700mm, 세로 1,880mm로 평면비 2:1에 근접한다.

공포는 외4출목 내3출목으로 내부의 출목을 작게 구성했다. 일주문 공포를 외4출목 내3출목으로 구성한 경우는 곡성 태안사 일주문(17세기), 장흥 보림사 일주문(18세기) 정도로 전라남도 지역의 건축 전통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살미는 소로 앞쪽에서 제공들이 상하로 연결하여 일체화된 중첩판 형식이다. 공포 외부는 초제공부터 4제공까지 연화쇠서형, 5제공은 연화익공형, 6제공은 봉황두로 장식하였다. 공포 내부는 쇠서를 두지 않고 초제공은 연화, 2제공은 연밥, 3제공은 연화, 4제공과 5제공은 초각으로 장식했으며, 6제공은 통제공으로 처리했다. 또한 좌우의 기둥 상단에 용두를 끼워 화려한 장식이 어우러지도록 했다. 제공이 일체화되어 판상형으로 나타나고 연화 조각이 화려해지는 경향은 18세기 이후 크게 유행한 공포 양식이다. 살미와 수직으로 결합되는 첨차는 대첨차와 소첨차로 구성되며, 대첨차의 길이는 750mm, 소첨차의 길이는 550mm이다. 주심첨차와 출목첨차 모두 상단은 직절하였고, 하단은 호형으로 둥글리지 않고 직선으로 사절했다. 첨차의

앞뒤 간격은 외부와 내부가 차이가 있는데, 평방에서 종도리까지 거리가 940mm인 반면 평방에서 외목도리까지 간격은 860mm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포는 비대칭을 이루지만 실내와 실외의 차이이기 때문에 육안으로 한 번에 확인하기는 어려우며 단면도를 통해서 파악이 가능하다.

도리는 외목도리와 종도리만 설치되었고 주심도리와 내목도리는 생략하였다. 도리의 지름은 210mm이고 단면을 팔각형으로 다듬은 부재를 이용했다. 보와 대공의 사용 여부는 현시점에서 확정하기 어렵다. 순천시에서 2023년에 제출한 자료보고서에 실린 종단면도와 횡단면도면에는 공포 위에 보를 올리지 않고 통제공과 장여를 중첩시켜 종도리와 서까래를 직접 받치고 있는 방식이 묘사되어 있다. 그러나 2007년에 간행된 『송광사 중요 목조 건축물 정밀실측보고서(상)』(문화재청, 2007)의 종단면도에는 6제공과 수평위치에 보가 결구되고 판대공이 종도리와 장여를 받친 모습이 그려져 있다. 또 같은 보고서의 횡단면도에서는 보의 위치가 주심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보의 위치는 일주문의 지붕이 맞배지붕인지 팔작지붕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주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조속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일주문 건축에서 맞배지붕은 주심에 보가 올라가고 팔작지붕은 주간에 보가 올라가는 것이 보통이다. 종도리 위에는 서까래를 ×자로 교차시킨 후 덧도리를 올려 고정했다. 서까래 끝은 특별한 처리없이 직절했다. 서까래 위에는 평고대를 돌린 후 부연을 엮었다. 평고대와 부연 착고, 부연 개판에 모두 단청을 하였다. 맞배지붕의 측면에는 목기연을 설치하고 풍판을 달았다. 풍판 하단은 직선형으로 처리하여 측면 공포가 잘 드러난다.

창방과 평방으로 구성된 구조틀의 귀통이에는 각각 보조기둥을 받쳤다. 일주문에 보조 기둥을 세운 사례는 하동 쌍계사 일주문, 구례 화엄사 일주문, 구례 천은사 일주문, 곡성 태안사 봉황문, 장흥 보림사 외호문 등으로서 전라남도 지역의 지역전통으로 해석할 수 있다. 송광사 일주문의 보조기둥은 팔각형 단면인 점이 특이하며 상부에 연꽃 모양의 주두를 두고 창방 교차부를 받쳤다. 일주문 정면에는 세줄 세로쓰기로 ‘조계산 대승선종 송광사(曹溪山 大乘禪宗 松廣寺)’ 현판이 걸렸고, 후면 평방에는 ‘승보종찰조계총림(僧寶宗刹 曹溪叢林)’ 현판이 가로로 길게 달렸다. 기단 위 초석은 넓은 자연석을 이용했고, 일주문의 전면으로 좌우에 소맷돌을 가진 장대석 계단을 두었다. 소맷돌의 유래에 대해 밝혀진 바가 없으나 끝에 사자 또는 원숭이처럼 생긴 서수(瑞獸)가 앉아있는 모습이 조각되어 있다.

### 3. 지정가치 및 종합의견

순천 송광사 일주문은 1802년에 건립되었지만 오랜 연원을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물로서 지속적인 중수를 통해 사찰의 입구로서의 역할을 계승해왔다. 순천 송광사 일주문의 문화재적 가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적어도 15세기 이후 같은 자리에서 일주문의 기능을 수행해 왔다. 2007년에 발견된 송광사 일주문의 사중창기(四重創記)는 건물의 오랜 연원을 확인해주었다. 통일신라 시대의 혜린(慧隣)이나 고려시대의 담당국사(湛堂國師) 이야기를 전설로 치부하더라도, 1464년의 2중창, 1676년의 3중창, 1802년의 4중창은 내용이 상세하고 신뢰가 가는 기록이다. 즉, 적어도 1464년 이후에는 동일한 위치에서 일주문이 지속적으로 재건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건축 부재에 특별한 역사적 의미를 부여했다는 점이다. 일주문 건축의 가장 상징적인 부재인 양쪽의 두 기둥을 성인(聖人)의 수기지물(授記之物)로 여겨 이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은 목조건축 문화에서 접하기 힘든 사례일 것이다. 1464년의 2중창과 1676년의 3중창에서는 이를 지켜낸 것을 신통하게 여기고 자랑으로 삼았다. 그러나 1802년의 4중창에서는 어쩔 수 없이 기둥을 교체해야 하는 아쉬움이 중창기에 기록되었다. 그러므로 순천 송광사 일주문은 1802년에 완전히 새로 지어진 것이 확실하지만 선인의 유지를 지키기 위해 노심초사했던 정신을 계승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조선 후기 건축양식의 시대성과 지역성을 대표하고 있다. 조선 후기의 공포 양식은 소로를 사이에 두고 위아래 쇄서가 분리되어 있던 저울대 모양의 형식에서 위아래 제공이 중첩되어 일체화된 판 모양을 이루는 형식으로 변화했다. 이에 따라 공포의 장식도 화려해지고 구조적 안정성이 증대되는 효과가 수반되었다. 순천 송광사 대웅전의 외부 살미는 초제공부터 4제공까지 연화쇠서형, 5제공은 연화익공형, 6제공은 봉두형으로 처리한 조선 후기 공포 양식의 전형적인 기법을 구현하고 있으며, 내부에서 초제공은 연화, 2제공은 연밥, 3제공은 연화, 4제공과 5제공은 초각으로 장식했으며, 6제공은 통제공으로 처리했다. 또한 좌우의 기둥 상단에 용두를 끼워 화려한 장식이 어우러지도록 했다. 이러한 양식적 특징은 18세기 이후 성숙해진 건축 양식의 사조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일주문에 보조기둥을 세운 사례는 하동 쌍계사 일주문, 구례 화엄사 일주문, 구례 천은사 일주문, 곡성 태안사 봉황문, 장흥 보림사 일주문에서 나타나고, 일주문 공포를 외4출목 내3출목으로 구성한 경우는 곡성 태안사 일주문, 장흥 보림사 일주문에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구조와 양식에서 남도 지역의 지역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셋째, 건립 연대와 경위가 분명하여 양식사적 편년자료로서 학술적 가치가 높다. 순천 송광사 일주문의 4중창 공사는 1802년 5월 8일에 공사를 시작해서 6월 9일 8시에 입주(立柱)하고 6월 28일 12시에 상량하였다. 연화질(緣化秩)에 따르면, 학송당(鶴松堂) 정준(正浚)이 화주(化主)가 되어, 식천(湜天)을 도감(都監)으로, 일영(日英)을 별좌(別座)로 삼았

으며, 도편수 조득진(趙得秦)과 부편수 우정(宇正)이 건축일을 맡아 여러 장인들을 통솔했다. 중창기에 기록된 장인들의 이름은 좌편장 1인, 우편장 1인, 장무(掌務) 11인, 인거(引鉅) 1인, 야공 1인, 석공 2인 등 스무 명에 달한다. 중창기는 당시 주지였던 성홍(性洪) 화상이 글씨를 썼다. 이와 같이 자세한 내용이 기록된 송광사 조계문 사중창기는 조선 후기 건축생산사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도편수 조득진은 1800년 태안사 봉두산 미타전 중창기에 도편수로 등장하는 인물과 동일인일 것으로 추정되며, 이외에도 인거장 신광택(申光宅), 야공 권목동(權木同) 등 승장이 아닌 민간 장인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는 승장 중심의 불사 건축에 민간 장인이 참여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19세기의 경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순천 송광사 일주문은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 된다. 다만, 중창기에 ‘송광사 조계문’으로 호칭하고 있으므로 지정명칭은 ‘순천 송광사 조계문’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23.02.07	대상문화재	순천 송광사 일주문	
조사자	성 명	○○○	전공 분야	건축역사
	소 속	○○대학교	직위(직책)	부교수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문화재 명칭	순천 송광사 일주문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세부내용 별첨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3 년 3 월 20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 1.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1.1 입지 현황

순천 송광사 일주문은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3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순천 송광사는 명승으로 지정된 조계산 성광사 선암사 일원의 일부로서 조계산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다. 해발 887m 높이의 조계산은 호남정맥의 한 봉우리를 형성하고 있는 산이다.

송광사의 전체 영역은 크게 4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대지의 높이에 따라 상대, 중대, 하대로 구분 할 수 있고, 계류 건너편에 따로 담장으로 설정된 화엄전 영역이 있다.

계류 근처에 위치한 사찰의 입구 및 하대 영역은 이전과 비교해 커다란 변화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기존 건축물들이 대부분 그대로 위치하고 있으며 몇 채의 건물들이 새롭게 영건되었다. 사찰의 입구인 조계문(일주문)과 세월각, 척주각이 그대로이며 우화각, 천왕문, 침계루, 임경당, 해우소가 기존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침계루 뒤편의 법성료는 크기가 축소되었고 새롭게 거대한 정혜사를 건립했다. 또한 침계루 동쪽 편으로 계류를 따라 육화당, 강원, 안양원, 선열당을 새롭게 건립했다. 기존에 이곳에는 향노전과 원불당 등이 위치하고 있었다. 임경당 서쪽 편 땅에도 몇 개의 건물이 신축되었다. 가장 커다란 건물로 탐진당을 들 수 있는데 현재 사찰의 종무소로 사용되고 있다. 탐진당 서쪽 편에는 선방 및 체력단련장이 만들어졌고, 탐진당 북쪽에는 화진당을 건립했다. 탐진당 정면에는 커다란 마당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 마당을 통해 화진당과 효봉영각에 진입할 수 있다. 효봉영각은 비록 중대에 위치하고 있는 건물이지만 탐진당 마당을 통해서 진입할 수 있게 만들었다. 탐진당 및 선방이 위치하고 있는 곳에는 원래 마구방, 여관 등이 위치했으며, 효봉영각 및 화진당이 있는 곳은 원래 산자락이었다.

송광사는 화엄일승법계도(華嚴一乘法界圖)의 구성방식이 송광사의 건물배치를 이루는 기본적인 개념이라는 설이 있다. 그래서 송광사를 법계도량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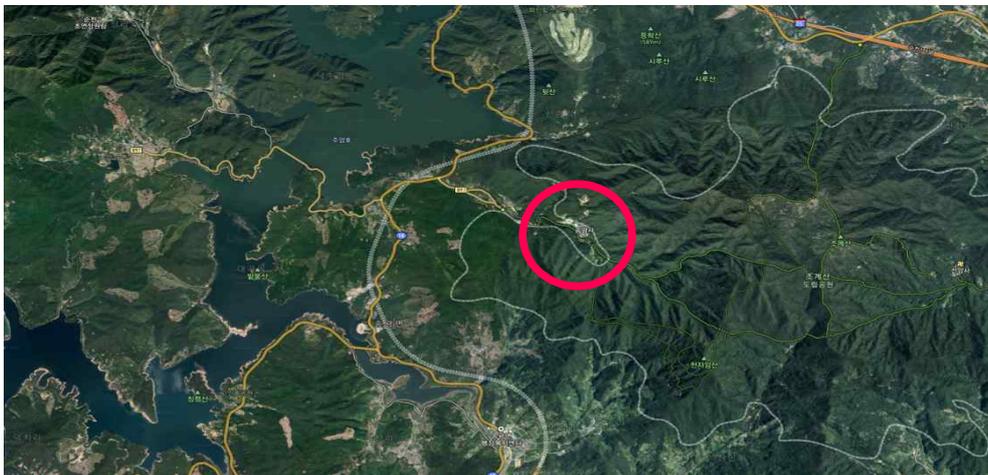


그림 1 1886년 순천조계산송광사사적 위치도



그림 2 1886년 순천조계산송광사사적의 송광사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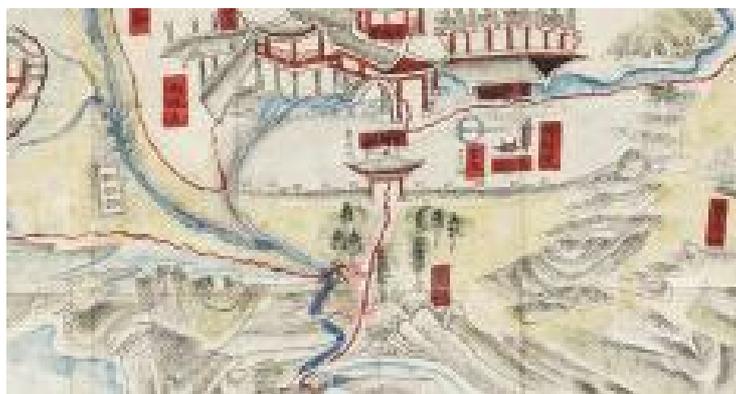


그림 3 순천조계산송광사사적 배치도의 일주문 부분

일주문은 1886년 제작된 것으로 알려진 「순천조계산송광사사적」에 포함된 송광사 배치도에서도 그 위치와 역할을 확인할 수 있다.

일주문은 청량각을 지나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 나오며, 일주문을 통해 경내에 들어선 후, 삼청교와 천왕문 방향인 동쪽으로 돌면 주불인 대웅전 영역이 나온다. 현재 송광사의 영역은 계곡을 따라 넓어져서 일주문의 앞에 성보박물관, 템플스테이 등이 위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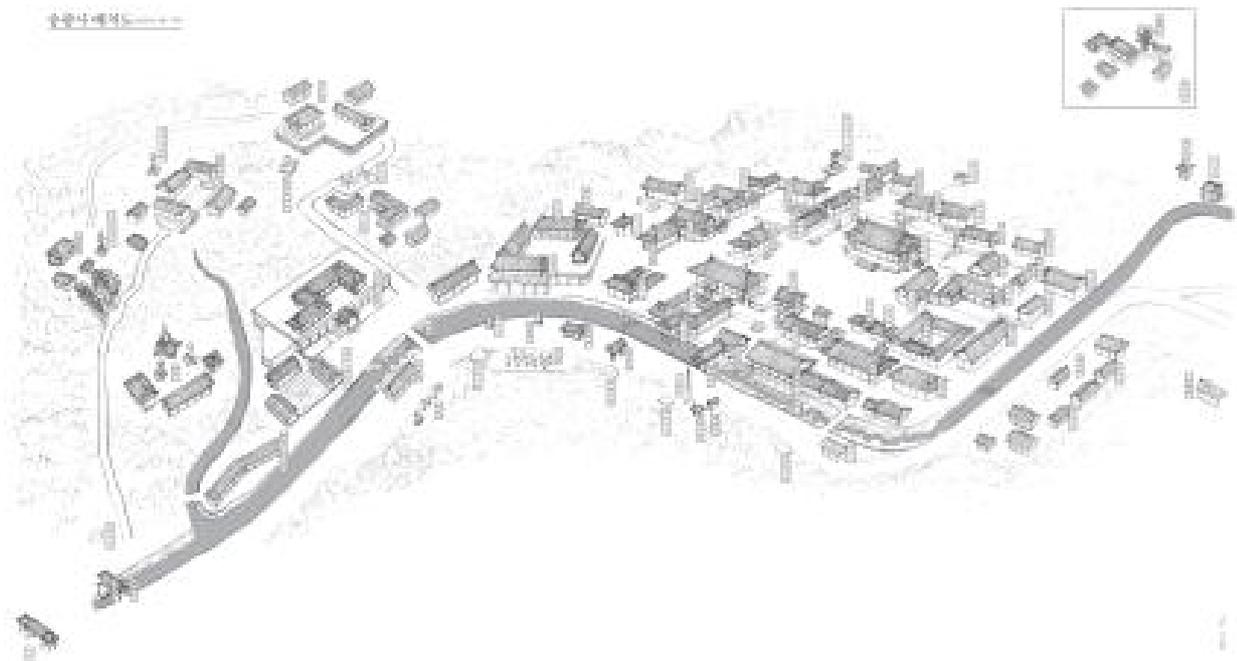


그림 4 송광사 홈페이지의 배치도(2020)

일주문의 양옆으로는 담장이 설치되어 있다. 일주문 앞으로는 비림 하마비 선정비 등이 있으며 일주문을 지나면 우화각, 척주당, 세월각 등이 있으며 신평천 건너 육감정 등이 보이게 된다.

## 1.2 역사문화환경

송광사 일주문은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된 조계산 송광사 선암사 일원에 속해 있으며 국가지정 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된 순천 송광사의 일주문이다. 그리고 대한불교조계종 제21구 본사인 송광사 입구를 상징하고 있다.

「대동여지도」에 의하면 동리산이 서쪽으로 흘러 아미산을 뚫었고 여기서 하나의 지류가 나와 멀리 서남쪽에 조계산을 뚫고 있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 조계산은 송광산이라고 부르는데 사찰의 명칭이 송광사인 것은 산의 명칭을 따라 지어진 것이다. 사적기에 의하면 송광(松廣)이라는 뜻은 十八명의 공이 차례로 계속 배출되어 널리 불법을 펼친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한다.

순천 송광사는 삼보사찰중 승보사찰이자 조계총림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어 한국의

불교를 대표하는 중요한 성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순천 송광사에는 국가지정문화재가 총 33점(사적 1점, 명승 1점, 국보 4점, 보물 27점)이 있으며 전라남도 지정문화재 12점(유형문화재 12점)이 있어 좋은 역사문화 환경을 가지고 있다.

## 2. 연혁·유래 및 특징

### 2.1 연혁 및 유래

순천 송광사는 신라 말 혜린선사(慧麟禪師)가 창건했다고 전하며, 창건 당시 명칭은 ‘송광산 길상사’였다고 한다. 고려시대에는 인종 대 석조대사(釋照大師)가 중창하고자 했지만, 완성을 보지 못하고 입적하였다. 그 후 송광사가 역사의 전면에 나서게 되는 것은 보조국사(普照國師) 지눌(知訥)[1158~1210]이 팔공산 거조사(居祖寺)에서 이곳으로 와서 정혜결사(定慧結社)를 개설하면서부터이다. 현재의 송광사는 9차례의 중창불사를 통해 현재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일주문에 대한 기록은 고려시대인 1310년 1차 중창을 했다는 기록부터 확인된다. 이후 1464년 2차중창, 1676년 3차중창, 1721년 단청, 1802년 4차중창을 거치게 된다. 1977년 5차 중창을 하였으며 2007년 6차 중창으로서 해체보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확인된다.

年度	干支	年號	韓國	月日時	內 容	備考
新羅末			新羅		始設 慧隣 (松廣寺 創建主)	① ②
1310 前後			高麗 忠宣王		1次 重創 第9世 湛堂國師 (?~1312경.9.5 ; 1308경~1312경 修禪社主) 兩柱 세움	① ②
1464	甲申	天順8	朝鮮 世祖10		2次 重創	① ②
1676	丙辰	康熙15	肅宗2	5.27	3次 重創. 上樑 處心 · 後祥	① ②
1721	辛丑	康熙60	景宗1		丹青(正門) 化主 時習, 都監 起還, 別座 起幻	③
1802	壬戌	嘉慶7	純祖2	6.28 12:00	4次 重修. 上樑 5.8 始役, 6.9. 08:00 立柱 化主 鶴松正浚, 都監 樂天, 別座 日英, 都片手 趙得秦, 副片手 宇正 *1次 重創時 湛堂國師所立 兩柱 교체	① ② ③ ④

年度	干支	年號	韓國	月日時	內 容	備考
1855	乙卯	咸豐5	哲宗6		改瓦(正門)	③
1977	丁巳			5. 1	5次 重修 住持 度然法興 * 經典 5冊發見. 再奉安	⑤
2007	丁亥			3. 15 12:00	6次 重修. 上樑 住持 圓光永照 * 經典 8冊 發見	
* 資料						
① 順天 松廣寺 曹溪門 四重創記(韓紙) 1802.6.28						
② 順天 松廣寺 曹溪門 四重創記(上樑道里 墨書) 1802.6.28						
③ 曹溪山 松廣寺 史庫 1928.						
④ 曹溪山 松廣寺志 1965 (2001 개정)						
⑤ 重修緣化秩 1977.5.1.						

표 1 송광사 정보박물관 제공 조계문 연혁

일주문은 조계문으로 불리웠기 때문에 사료상으로는 조계문으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4차 중창인 1802년에 기록된 순천 송광사 조계문 사중창기가 남아 있으며 순천 송광사 조계문 사중창기 상량 도리 목서가 발견되었다. 2007년 순천 송광사 조계문 중수시 발견된 경서들이 7종8책이 있어 독특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일주문의 중수 또는 건립의 시기를 유추할 수 있다.

經 典	冊數	年 代	刊行所	備 考
大方廣佛華嚴經疏 卷第3·4	1	1635.5 崇禎 8 仁祖 13	順天 松廣寺	
妙法蓮華經 卷第1	1	1615. 秋 萬曆 43 光海君 7	順天 松廣寺	1583年板 改板 <重修緣化秩> 佛記二五二一 西紀一七七年(丁巳)五月一日(別到 附着)
妙法蓮華經 卷第1	1	1634. 6 崇禎 7 仁祖 12	淳昌 福泉寺 (剛泉寺)	<重修緣化秩> 佛記二五二一 西紀一七七年(丁巳)五月一日(別到 附着)
妙法蓮華經 卷第1	1	1660. 3 順治 17 顯宗 1	順天 仙岩寺	<重修緣化秩> 佛記二五二一 西紀一七七年(丁巳)五月一日(別到 附着)
妙法蓮華經 卷第1	1	1664. 5 康熙 3 顯宗 5	順天 興國寺 (麗水)	<墨書> 甲戌閏四月二十二日 證遇 頓首 (1754)

經 典	冊數	年 代	刊行所	備 考
金剛般若波羅密經	2	1721 康熙 60 肅宗 47		〈施主刊記〉 康熙五十九(1720)
蒙山和尚六道普說	1	1537. 10 嘉靖 16 中宗 32	興德 水月寺 (高敞)	重刊
計				7種 8冊

표 2 송광사 정보박물관 제공 2007년 보수공사시 발견된 경서 목록과 자료

발견된 경서 중에서 가장 후기에 만들어진 金剛般若波羅密經이 1721년에 제작 된 것으로 보아서는 1721년 이후 일주문에 봉인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일주문의 현판 중에서 파란색 바탕에 세로로 금색 글씨가 ‘대승선종 조계산 송광사’라고 써 있는 현판이 있다. 현판의 뒤쪽에 건륭17년이라는 목서가 있어 1752년에 현판이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 2.2 건축적 특징

지름 650~600mm의 주 기둥 2본은 3,700mm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다. 2본의 기둥을 지지하는 4본의 팔각주는 약 900mm의 간격으로 정면과 배면에 각 2본씩 배치되어 있다. 기단은 자연석기단으로 형성되어 있으나 일주문 신축 시기인 1802년 이전부터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장대석 계단이 정면에 연결되어 있다. 계단 소맷돌에는 원숭이 혹은 사자처럼 보이는 구슬 목걸이가 걸린 석수(石獸)가 조각되어 있다.

기둥의 전후로 창방과 평방을 놓고, 다시 좌우로 창방과 평방을 건너질러 공포를 놓기 위한 받침틀을 형성하였다. 기둥 사이에는 전후로 주간포를 3조, 좌우 기둥 위에 1

조를 놓아 전형적인 다포계로 꾸몄는데, 외4출목, 내3출목으로 외부 쪽의 출목수를 하나 많도록 구성하였다. 외부 제공은 1~4제공은 하부에 연봉을 조각한 앙서이고 5제공은 연봉을 조각한 수서모양이며, 그 위에 봉황두(鳳凰頭)로 장식한 운공이다. 제공 내단(內段)은 연봉 및 연화로 장식한 연결된 초각으로 처리하였으며, 첨차는 끝면을 직절하고 하단을 호형으로 가공한 교두형 첨차를 사용하였다.

기둥의 안쪽에는 좌우의 기둥 상단에 용두를 두었으며, 지붕은 맞배지붕에 겹처마로 처리하였다.

독특한 문양의 단청이 칠해져 있어 단청의 연구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단청의 문양은 임시로 칠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 3. 지정 가치 및 근거 기준

#### 3.1 역사적 가치

승보사찰이자 조계총림으로서 송광사의 가치가 높고 정혜결사와 관련된 역사 등 송광사의 역사적 가치가 높다. 게다가 문화유산이 많이 있어 좋은 역사문화환경을 가지고 있다.

현재의 일주문의 정확한 건립 시기는 확인되고 있지 않다. 조계문의 두 기둥이 약 500여년간 지탱되었으나, 1802년에 새로운 기둥으로 교체되었다는 기록이 있어 조계문이 오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주문에 대한 기록은 1310년 1차 중창, 1464년 2차 중창, 1676년 3차중창, 1721년 단청, 1802년 4차중창을 거쳐 2007년 해체보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확인된다.

4차중창에 대한 기록으로서 『송광사 사고』에 1802년(순조 2) 중창된 기록이 확인된다. 2007년 해체수리에서 드러난 상량문 등의 기록에서도 그 가치가 나타난다.

봉인되었던 경서의 제작시기가 1534년부터 1721년까지의 경서이므로 경서의 가치도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대승선종 조계산 송광사’ 현판도 1752년에 제작되었고 형식과 생각도 특이하여 그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자료에서도 역사적 가치를 찾을 수 있다.

### 3.2 건축사적 가치

2007년 해체보수에 찾아낸 경서도 그 역사적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 봉인되었던 경서의 제작시기는 1537년부터 1721년까지로 드러나고 있으므로 1721년 이후로 볼 수도 있다. 또한 ‘대승선종 조계산 송광사’ 현판도 1752년에 제작되었다. 『송광사 사고』에 1802년(순조 2) 중창된 기록이 확인된다. 또한 『조계산 송광사 사고』에 의하면, 1842년(헌종 8) 송광사는 큰 화재로 대부분의 전각이 소실되었다고 한다. 「임인화재보」의 기록에 화재로 소실된 부분과 살아남게 된 전각이 기록되어 있다. 일주문(조계문)은 여존부(餘存部)에 포함되어 1842년 이전에 건립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18세기 후반경에 건립된 건축물로도 볼 수 있다.

송광사 일주문은 정면 1칸, 다포, 맞배지붕이다. 송광사 일주문은 내부의 출목이 외부보다 적은데, 유사한 사례로는 곡성 태안사 일주문, 순천 선암사 일주문, 구례 화엄사 일주문, 지리산 천은사 일주문 등이 있다. 이렇게 송광사 일주문은 지역적 성격을 보여주는 사례로서도 가치가 높다.

기둥 안쪽에 서 마주보게 용두를 조각하여 끼워 넣었는데 조선후기에 자주 보이는 장엄이다. 이러한 장엄은 공포에도 용두를 장식하여 봉과 용이라는 법수를 장엄하여 불법을 수호하는 상징성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공포의 양식으로 보아, 인근의 지리산 천은사 일주문과 비슷한 시기에 건립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본 건물을 건립할 때보다는 늦은 시기에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빨간색의 선형이 그려진 독특한 문양의 단청이 칠해져 있어 단청의 연구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

### 3.3 학술적 가치

송광사는 보조국사 지눌에 의해 정혜결사를 개설하였고 승보사찰이자 조계총림으로서의 역사적 학술적 가치를 가진다. 많은 문화유산과 인물들이 배출되었으며 많은 문헌 자료들을 가지고 있다.

현재 일주문에 대한 건립시기를 확인할 수 없으나 다양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찾아낸다면 좋은 학술적 가치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가 자료를 찾을 필요성이 있다. 또한 각종 사료들을 정리하여 아카이브로 만들고 보관하여 일

주문의 가치를 높일 필요가 있다.

중창시기에 봉안되었던 경서에 대한 학술적 가치와 현판에 대한 학술적 가치가 높다.

송광사 일주문의 건축 형식과 유사한 사례로는 곡성 태안사 일주문, 순천 선암사 일주문, 구례 화엄사 일주문 지리산 천은사 일주문 등이 있다. 이렇게 송광사 일주문은 지역적 성격을 보여주는 사례로서도 가치가 높다.

인근 지역에 있는 선암사 일주문과 비교하여 비슷한 점이 많은 것도 주목할 만하다. 기둥 양쪽에 토석담장과 연결된다거나, 선암사 일주문은 일부만 남았을지라도 보조 기둥을 둔 점, 기둥 안쪽에 안초공 역할을 하는 용두조각을 장엄한 점, 일주문 전면 계단 소맷돌에 동물상을 두었다는 점 등이 그러하다.

### <종합의견>

승보사찰이자 조계총림으로서 송광사의 가치가 높고 많은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일주문 또한 이러한 가치를 같이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조계산 영역 전체를 보아도 선암사와 함께 좋은 불교역사문화환경을 가진 가치가 있다.

일주문의 건립시기를 명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조선 후기의 건축 양식을 잘 가지고 있다. 여러 자료를 보아 18세기 중반으로 유추할 수 있는 건립연대를 보다 윗 시기로 올려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2분의 기둥을 지지하는 4분의 팔각주는 약 900mm의 간격으로 정면과 배면에 각 2분씩 배치되어 있다. 기단은 자연석기단으로 되어 있다. 계단 소맷돌에는 석수가 새겨져 있다. 기둥 사이에는 전후로 주간포를 3조, 좌우 기둥 위에 1조를 놓아 전형적인 다포계로 꾸몄는데, 외4출목, 내3출목으로 외부 쪽의 출목수를 하나 많도록 구성하였다. 외부 제공은 1~4제공은 하부에 연봉을 조각한 양서이고 5제공은 연봉을 조각한 수서모양이며, 그 위에 봉황두(鳳凰頭)로 장식한 운공이다. 제공 내단(內段)은 연봉 및 연화로 장식한 연결된 초각으로 처리하였으며, 첨차는 끝면을 직절하고 하단을 호형으로 가공한 교두형 첨차를 사용하였다.

기둥의 안쪽에는 좌우의 기둥 상단에 용두를 두었으며, 지붕은 맞배지붕에 겹처마로 처리하였다.

조선후기 사찰 일주문의 일반적인 가구형식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그러면서도 곡성 태안사 일주문, 순천 선암사 일주문, 구례 화엄사 일주문 지리산 천은사 일주문등과 유사한 건축적 형식을 가지고 있어 지역적 성격을 보여준다.

기존의 각종 자료와 함께 2007년 찾은 상량문과 경서 등에 대한 학술적 가치도 높다. 이에 따라 국가지정 문화재 (보물)로 지정할만한 가치가 있다.

※ 대상 문화재의 핵심 보존가치

- 승보사찰, 조계총림으로서의 송광사와 조계산의 좋은 자연환경화 함께 불교역사문화환경을 잘 보여주는 요소이다.
- 조선 후기 송광사 배치도에서도 그려진 것처럼 송광사의 산문으로서 가치가 높다.
- 송광사 일주문은 송광사에 오랜 기간동안 있어왔던 산문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 현재 일주문은 건립시기를 명확하게 알수 없으나 경서 및 현판 등 자료를 통하여 18세기 중반의 산문으로 유추할 수 있다.
- 경서 및 현판, 상량문 등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다.
- 전남지역의 유사한 일주문의 건축적 특징을 같이 하고 있어 지역성을 보여준 수 있다.

##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23. 02. 07.	대상문화재	순천 송광사 일주문	
조사자	성 명	○○○미	전공 분야	전통 건축
	소 속	○○○○○연구소 ○○	직위(직책)	대표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문화재 명칭	순천 송광사 일주문(조계문)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세부내용 별첨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3 년 07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 1.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송광사는 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조계산에 위치하고 있다. 조계산은 호남정맥의 한 봉우리를 형성하는 산이다. 호남정맥(湖南正脈)은 서쪽에 만경강, 동진강, 영산강 등을 두고 동쪽에 섬진강을 따라 서남쪽으로 뻗어내려간 정맥이다. 호남정맥은 정읍의 내장산, 담양의 추월산, 광주의 무등산 등 큰 산봉우리를 뺏은 후 순천에 이르러 해발 887m의 조계산을 뺏었다. 「대동여지도」에 의하면 동리산이 서쪽으로 흘러 아미산을 뺏었고 여기서 하나의 지류가 나와 멀리 서남쪽에 조계산을 뺏고 있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 조계산은 송광산이라고 부르는데 사찰의 명칭이 송광사인 것은 산의 명칭을 따라 지어진 것이다. 사적기에 의하면 송광(松廣)이라는 뜻은 十八명의 公이 차례로 계속 배출되어 널리 불법을 펼친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한다.

조계산 자락 안에 넓고 아늑한 공간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곳에 송광사가 위치하고 있다. 규장각에 소장 되어 있는 『순천송광사사적』의 「송광사도」를 통해 사찰 주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진락대(眞樂臺) 뒤편에 높게 솟은 봉우리를 주산(主山)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주산 오른쪽의 높은 봉우리를 호령봉(號 令峯), 사찰 정면의 왼쪽편 높은 봉우리를 조계산(曹溪山)이라고 하고 있고, 오른쪽편 봉우리를 망수봉(望水峯)이라고 표현했다. 또한 사찰 정면의 낮은 봉우리를 당산(堂山)이라고 하고 있고 당산을 넘어 멀리 동북(同福)의 모후산(母后山)이 위치하고 있다. 송광사를 감싸고 있는 계류인 신평천은 사찰의 좌측 호령봉에서 발원해 사찰을 감싸 흐르고 있으며 사찰 우측에서도 하나의 계류가 흘러 서로 모여 주암호로 흘러간다. 사찰의 좌향은 甲坐庚向이라고 하고 있다. 갑좌경향은 서향에 해당한다. 사찰이 위치한 대지는 높은 축대로 양분되는데 산간에 위치한 상대와 하부에 위치한 하대로 구분된다. 하대에도 그리 높지 않은 축대로 양분할 수 있다. 사찰의 입구에는 계류가 흐르고 있어 이를 건너야만 사찰 내부에 진입할 수 있다.

## 2. 송광사 일주문의 연혁·유래 및 건축적 특징

### 1) 연혁 및 유래

송광사의 역사와 관련된 문서 중 현재 가장 오래된 기록은 1207년에 최선(崔詵; ? ~ 1209)이 기술한 「대승선종조계산수선사중창기(大乘禪宗曹溪山修禪社重創記)」 7)이다. 이 기록에 의하면 송광사 창건은 신라말 혜린(慧麟)이라는 승려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한다. 이후 송광사의 창건과 관련된 모든 기록에서 사찰의 창건은 신라시대 혜린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일관되게 기록하고 있다. 혜린이 어느 시대 어느 종파의 승려인지 알

려진 바는 없다. 자료에는“昇平郡管内富有縣曹溪山者古之松廣山也 修禪社者古之吉祥寺也 新羅時僧慧璘者始創而居 厥後星霜屢換風飄搖遷棟 壞崩堂宇略盡 雖村夫野 之居不穀於此矣”라고 기록 하고 있다. 당시 산의 이름은 송광산, 사찰명은 길상사라고 했음을 알 수 있다.

「대승선종조계산수선사중창기」에서는 이후“仁廟朝山僧釋照將欲創成大刹鳩材集工而不幸身沒其所成 立更皆以爲墟迫二十餘年”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다른 모든 사적기에서 이 부분을 인용하고 있다. 후에 보조국사가 사람들을 시켜 새로운 땅을 구하기 위해 강남을 유람하던 중 길상사의 땅을 보고“사 우의 범위가 100여간에 지나지 못하고 거주하는 승려는 겨우 3·40을 넘지 못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100여간의 사찰이 실제 경영되고 있었다면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사찰이라고 할 수 있다. 송광사의 중창과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송광사 중창>

순번	구분	내용
1	보조국사의 중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산(公山) 거조사(居祖寺) 득재(得才)선사가 보조국사(普照國師)를 요청하여 정혜결사(定慧結社)를 결성</li> <li>• 「대승선종조계산수선사중창기」 명종 27년 정사년(1197) 나무를 베고 흙을 나르기 시작해 사찰을 경영하였는데 80여 간이었음. 공역을 마친 시기는 1205년이며 그해 10월 1일 조지(朝旨)를 받들고 약 120일간 경찬법회를 열었다고 전함</li> <li>• 「송광사사원사적비(松廣寺嗣院事蹟碑)」 1197년에 공사가 시작되었다고 하며, 경신년(1200년)에 보조국사가 이 절로 본사(社)를 옮겼으며 이에 그 건물을 백여간으로 넓혔다고 함. 9년 만인 1205년 공사를 끝냄</li> </ul>
2	진각국사의 제2중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각국사비(眞覺國師碑)」 강종(康宗 ; 1211~1213 재위)은 유사(有司)에게 수선사의 증축(增築)을 명해 공사를 시작하고, 여러 차례 중사(中使)를 보내 역사(役事)를 감독하게 한 끝에 크게 확장</li> <li>• 『고려사절요』 31권 신우 2편 : 우왕(禑王) 6년(1380) 3월에 왜적이 순천 송광사를 침범했다는 기록</li> </ul>
3	고봉화상의 제3중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계산수선사중창조고봉화상행장」의 문서명에 중창조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현재 송광사의 기본틀이 이때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li> <li>• 1448년 5월에 번와관련 기록 (大施主 李末金伊兩主從山田貴孫兩主令音文里, 박물관 기와 보관)</li> <li>• 1461년 5월 11일에 하사당을 상량</li> <li>• 1504년 응진당을 건립</li> <li>• 1490년 6월 11일 彌勒殿(龍華堂)을 상량</li> <li>• 1533년 4월19일에는 鎮南門을 상량했으며, 1543년에는 부사 沈通源의 도움으로 臨鏡堂을 창건함. 1588년과 1592년에는 說法殿을 중수한 기록</li> </ul>
4	응선, 선수대사의 제4중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경당수각천자암보조암중창기」 임진, 정유란을 거치면서 수각, 임경당, 보조암, 천자암 만 이 피해를 입었다고 기술</li> <li>• “普照庵臨鏡堂祖殿天王門 大木 學正 …… 天王門化土 智 ”천왕문이 수각에 포함되는 건물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화재 당시 보이지 않던 천왕문이 이때 새롭게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음</li> </ul>
5	임인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842년 송광사에 큰 화재 발생</li> </ul>

순번	구분	내용
	회록과 제5중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재 결과 소실된 부분은 총 2,152칸이며 남은 부분이 750칸.</li> <li>• <b>조계문은 여존부(餘存部)에 포함되어 있어 최소한 1842년 이전에 건축되었던 것으로 짐작 (현 일주문관련 기록)</b></li> </ul>
6	제6중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885년에 도성당(道成堂)에서 발생한 화재로 발운요(拔雲寮)를 포함해 도합 150여칸, 공루(空樓) 32칸이 소실</li> <li>• 1922년 경 주지 설월(雪月)이 송광사를 중신(重新)하고자 함. 다음해 울암(栗庵)이 관부와 교섭해 1923년 5월에 인가를 받음. 이후 1924년부터 사찰 내 대규모 중수가 순차적으로 진행. 주로 보수하고 변화하는 일이 대부분이었음. 《송광사 사고》에 전해지고 있는 많은 상량문과 기문들은 이때 당시에 구해진 것이 정리 되어 전하는 경우가 많음.</li> </ul>
7	제7중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25 전쟁 때 산중에 숨어지내던 공비의 방화로 사찰의 대부분이 소실</li> <li>• 주지 금당(錦堂)이 1955년부터 사찰 재건의 계획을 세웠고 취봉(翠峰)이 화주가 되어 1957년 박물관을 건립</li> <li>• 주불전인 대웅전은 1958년부터 건립하기 시작해 1960년에 완공</li> <li>• 1960년에는 해탈문이 있던 자리에 종고각(鐘鼓閣)을 새롭게 건립</li> </ul>
8	제8중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83년 3월부터 5년간에 걸쳐 방장 구산(九山)과 주지 현호(玄虎)의 노력으로 8차 중창불사가 시작</li> <li>• 8차 중창불사는 과거 송광사의 영예를 다시 회복하기에 충분한 거대한 규모의 중창</li> <li>• 거대한 亞자형 평면의 대웅보전(大雄寶殿)을 새롭게 건축</li> <li>• 그 외 지장전, 성보각, 목우헌, 인월암 등 다수의 건물 건립</li> </ul>

송광사 일주문의 정확한 건립연대는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몇 가지 사료와 고지도 등에서 조심스럽지만 확인과 유추가 가능하다. 먼저 사료 중 4차 중창인 1802년에 기록된 ‘순천 송광사 조계문 사중창기’가 남아 있고 조계문 사중창기 상량 도리에서 목서가 발견되었다. 또한 1842년 화재에 소실되지 않고 남은 전각에 일주문이 포함된 기록이 담긴 ‘제 5차 중창 임인년회록’의 내용으로 기록시기 이전에 건립된 일주문이 잔존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1886년 제작된 것으로 전해지는 고지도 ‘순천조계산송광사적’에서도 일주문의 대략적인 위치 확인이 가능하다. 그 외 1926년에 제작된 ‘조선건축사론’ 내 배치도에서는 전각명은 없지만 현재의 위치와 동일한 곳에 장방형의 건물이 서향으로 위치하고 있으며, 1965년 ‘송광사지’ 내 배치도에는 曹溪門이라는 전각명칭과 함께 위치가 확인된다. 건립과 관련된 직접적인 확인은 현 일주문 현판에서도 확인된다. 정면에 설치된 현판의 뒷편에는 건륭17년 목서가 있는데 이를 통해 1752년 현판 제작시기가 유추되며, 적어도 중수의 과정은 감안하면 건립과의 연관성도 유추된다.



현판 뒷편 목서(건륭17년)

제작시기가 유추되며, 적어도 중수의 과정은 감안하면 건립과의 연관성도 유추된다.

<송광사 일주문 수리보수 이력>

시기		내용	비고
조선시대	1802년	일주문(조계문) 중창	『松廣寺史庫』 1편 4장 初創重建重修記 文類 37절 편사잡록
현대	1977년	일주문 보수공사	『불일보조국사와 조계산 송광사』
현대	2000년대 중반	일주문 보수공사 (연목이상 해체보수)	송광사 중요목조건축물 정밀실측조사보고서(상)

## 2) 건축적 특징

송광사의 전체 영역은 크게 4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대지의 높이에 따라 상대, 중대, 하대로 구분 할 수 있고, 계류 건너편에 따로 담장으로 설정된 화엄전 영역이 있다. 일주문이 위치한 곳은 계류 근처 하대 영역으로 청량각을 지나 계곡을 따라 오르면 일주문의 위치한다. 이 문을 통해 경내에 들어서게 되며 삼청교와 천왕문 측으로 축을 꺾어 진입하면 대웅전 영역이 나온다.

일주문 위치한 사찰의 입구 및 하대 영역은 이전과 비교해 커다란 변화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기존 건축물들이 대부분 그대로 위치하고 있으며 몇 채의 건물들이 새롭게 영건되었다. 사찰의 입구인 조계문과 세월각, 척주각이 그대로이며 우화각, 천왕문, 침계루, 임경당, 해우소가 기존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침계루 뒤편의 법성료는 크기가 축소되었고 새롭게 거대한 정혜사를 건립했다. 또한 침계루 동쪽 편으로 계류를 따라 육화당, 강원, 안양원, 선열당을 새롭게 건립했다. 기존에 이곳에는 향노전과 원불당 등이 위치하고 있었다. 임경당 서쪽 편 땅에도 몇 개의 건물이 신축되었다. 가장 커다란 건물로 탐진당을 들 수 있는데 현재 사찰의 종무소로 사용되고 있다. 탐진당 서쪽 편에는 선방 및 체력단련장이 만들어졌고, 탐진당 북쪽에는 화진당을 건립했다. 탐진당 정면에는 커다란 마당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 마당을 통해 화진당과 효봉영각에 진입할 수 있다. 효봉영각은 비록 중대에 위치하고 있는 건물이지만 탐진당 마당을 통해서 진입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일주문은 정면에 돌계단을 두고 조성된 기단위에 건립되어 있다. 건축물 양 측에 담장에는 자연석 담장이 있는 높지 않고 담장의 끝단을 통해 충분히 이동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 방법의 기능보다는 영역의 경계하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 일주문은 단층 다포계 맞배건물로 주심에는 포작이 형성되지 않는 口자형 구성이다. 공포는 외4출목 내3출목으로 측면에는 주간포를 구성하였다.

### <기단 및 계단>

경사면에 입지한 일주문은 정면에 건물 주간 너비의 돌계단을 두고 배면에는 외벌대

기단을 두었다. 기단 상부는 강회다짐을 하였고 이용이 잦은 만큼 기단 면 파손이 우려 되기에 자연석 박석을 함께 깔아 마감하였다. 정면 계단 양 측면에는 좌우 높이가 다른 낮은 석축을 두고 전면 보조 기둥 옆에 담장을 설치하였다. 유리건판과 비교하면 과거 층단 구성된 담장의 높이와 면석 구성이 현재와 달라 변화된 것이 확인된다. 계단 양 옆 소맷돌에는 송광사 내 관음전에서도 확인되는 석수(石獸)가 있는데, 구슬 목걸이를 하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 사찰 내 계단 소맷돌 석수는 형태는 다르나 송광사 뿐만 아니라 해남 대흥사 대웅보전, 완주 송광사 대웅전, 부산 범어사 하층계단 등에서 확인된다. 특히 귀산사의 석수는 터의 기운을 누르기 위해 석수를 설치했다는 것으로 보아 비보(裨補)로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얼굴을 강조한 다른 예와 달리 송광사의 석수는 얼굴 뿐만 아니라 몸체 부분까지 공들여 치석한 점이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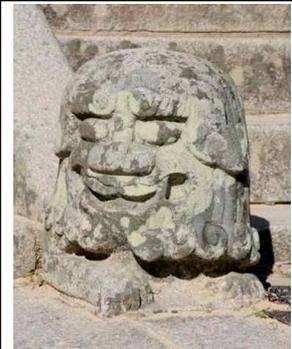
송광사 일주문



해남 대흥사 대웅보전



완주 송광사 대웅보전



부산 범어사 하층계단

### <평면>

송광사 일주문의 평면은 기둥을 일직선상에 일렬로 세운 형식으로 정면 1칸이다. 기둥의 크기는 대략 600~660mm 크기의 원주를 사용하였고 주간의 너비는 약 3,700mm이다. 기둥 앞과 뒤에는 상부 포작 구성을 위해 설치한 창방, 평방을 지지하는 보조 팔각주가 각 2본씩 설치되어 있다. 보조기둥 상부에는 꽃봉오리 형태의 주두를 두었다. 민흘림이 가공된 주기둥 하부에는 자연석 초석을 두었는데 높이를 확보하기 위해 초석을 이중으로 구성한 점이 특이하다. 기둥의 단면 보강을 위해 주선이나 사선재의 사용이 아닌 보조 기둥을 둔 일주문 평면 구성은 전남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보이는 양상으로 송광사를 비롯해 태안사, 보림사, 화엄사, 천은사, 쌍계사 에서도 확인된다.

### <가구>

다포계 일주문의 상부 가구 구성은 크게 공포 배치와 연관되어 있는데 주 기둥열에 구성하는 ‘일단 배열’과 주기둥 전후에 설치한 평방 위에 구성하는 ‘이단 배열’로 구분되며, 이단 배열은 또 정면과 배면에만 구성하는 것과 측면에도 평방을 두고 주간포를

구성하는 방법으로 구분된다.<sup>1)</sup> 송광사 일주문은 이단배열로 구성하였으며 측면에도 공포를 배치하였다. 이 때문에 과거 연구<sup>2)</sup>에서는 팔작으로 지붕이 개수되었을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공포>

주 기둥에서 보 방향으로 출목 구성된 창방과 평방은 네 모서리에서 보조기둥이 지지하는 口자형 구성으로 정면을 기준으로 기둥상부에 주심+귀포 1조, 주간포 3조를 두고 측면에 주간포 1조를 두었다. 외 4출목, 내 3출목으로 외부에 출목수가 하나 더 많으며 제공은 5단으로 구성하였다. 일주문 건축에서도 일반 불전 건물과 같이 내·외출목수를 동일하게 하거나 내출목을 외출목보다 1개 크게 한 경우가 주를 이룬다. 그런데 외출목을 더 크게 구성한 경우는 주로 보조기둥을 둔 전남지역의 사찰로 송광사 일주문도 이에 포함된다. 이는 보조기둥 사용으로 축부의 안정성을 확보한 후 과감한 외출목 구성을 통해 화려하고 장엄한 공포를 조영하고자 한 노력으로 보인다.

외부 제공은 연화쇠서형으로 쇠서부리 부분에 초각과 함께 연봉이 모각된 형태이다. 이러한 쇠서형은 의장적 효과가 크기 때문에 조선말기까지 성행한 유형이다.<sup>3)</sup> 1~4제공은 연화쇠서형, 5제공은 수서형, 6제공은 봉황두를 둔 통제공이 사용되었다. 통제공은 건물의 전후 길이가 짧고, 단칸형 건물인 일주문 건축에 필연적인 부재로 전후면 공포를 연결하여 안정성을 확보하는 역할과 통제공 등 위에 대공을 결구하는 보의 역할을 겸하기도 한다. 제공 내단은 연봉 및 연화가 연결된 초각으로 화려하다. 첨차는 양 끝단을 직절하고 하단을 호형으로 가공한 교두형으로 공간은 없다. 측면 주기둥 상부에는 용두를 두었다. 평방과 창방의 뺨목은 직절형으로 평방은 모를 접지 않았고 창방 하단의 두 모서리만 굴려 모를 접었다.



1) 정대열, 「다포계 일주문의 건축형식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14.  
 2) 배병선, 「다포계맞배집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3) 양윤식, 「조선중기 다포계 건축의 공포의장」,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 <지붕>

지붕은 맞배지붕으로 겹처마이다. 전후면 공포 위에 출목도리와 주심도리를 배치한 후 서까래를 걸고 단부에 부연을 설치하여 지붕가구를 완성한다. 측면에는 구조 보호를 위해 풍판을 두었는데 하단 직선형이다. 처마끝은 막새로 마감하였고, 용마루는 적새 5단, 내림마루는 3단으로 구성하였다. 과거 유리건판 사진을 확인하면 처마 끝이 와구토인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용마루 6~7단, 내림마루 4~5단으로 약간 변형이 있었음이 확인된다. 수키와는 등무늬 기와로 면에 장식이 되어 있다.

측면 공포 구성과 함께 팔작지붕에서 맞배로의 변형을 추정해볼 수는 있으나 연구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다.

## 3. 지정 가치 및 근거 기준

### 1) 역사적 가치

순천 송광사는 승보사찰이자 조계총림으로 중요하며 역사적으로도 정혜결사 관련 역사적 가치가 확인된 중요한 절이다. 특히 경내에는 국가지정을 포함해 시도지정 역사문화자원을 다수 가지고 있다. 검토 대상인 일주문의 정확한 건립연대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몇 가지 사료와 고지도 등에서 확인과 유추가 가능하다. 먼저 사료 중 4차 중창인 1802년에 기록된 ‘순천 송광사 조계문 사중창기’가 남아 있고 조계문 사중창기 상량 도리에서 목서가 발견되었다. 또한 1842년 화재에 소실되지 않고 남은 전각에 일주문이 포함된 기록이 담긴 ‘제 5차 중창 임인년회록’의 내용으로 적어도 기록 시기 이전에 건립된 일주문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건립과 관련된 직접적인 확인은 현 일주문 현판에서도 확인된다. 정면에 설치된 현판의 뒷편에는 건륭17년 목서가 있는데 이를 통해 1752년 제작시기가 유추되며, 적어도 중수의 과정을 감안하면 건립과의 연관성도 유추된다.

### 2) 건축사적 가치

송광사의 전체 영역은 크게 4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대지의 높이에 따라 상대, 중대, 하대로 구분 할 수 있고, 계류 건너편에 따로 담장으로 설정된 화엄전 영역이 있다. 일주문이 위치한 곳은 계류 근처 하대 영역으로 청량각을 지나 계곡을 따라 오르면 일주문의 위치한다. 일주문 위치한 사찰의 입구 및 하대 영역은 이전과 비교해 커다란 변화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경사면에 입지한 일주문은 정면에 건물 주칸 너비의 돌계단을 두고 배면에는 외벌대

기단을 두었다. 계단 양 옆에는 소맷돌에는 송광사 내 관음전에서도 확인되는 석수(石獸)가 있는데, 구슬 목걸이를 하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 사찰 내 계단 소맷돌 석수는 형태는 다르나 송광사 뿐만 아니라 해남 대흥사 대웅보전, 완주 송광사 대웅전, 부산 범어사 하층계단 등에서 확인되는데, 비보(裨補)로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얼굴을 강조한 다른 예와 달리 송광사의 석수는 얼굴 뿐만 아니라 몸체 부분까지 공들여 치석한 것이 다르며 궁궐 석조물과 달리 사찰에서는 그 예가 드물기에 가치가 있다.

평면은 기둥을 일직선상에 일렬로 세운 형식으로 정면 1칸으로 주 기둥과 함께 보조 기둥이 둔 구성이다. 기둥의 단면 보강을 위해 주선이나 사선재의 사용이 아닌 보조 기둥을 둔 일주문 평면 구성은 전남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보이는 양상으로 송광사를 비롯해 태안사, 보림사, 화엄사, 천은사, 쌍계사에서도 확인되기에 지역적 특징으로 보여진다.

주 기둥에서 보 방향으로 출목 구성된 창방과 평방은 네 모서리에서 보조기둥이 지지하는 口자형 구성이며 공포는 외 4출목, 내 3출목으로 외부에 출목수가 하나 더 많다. 외출목을 더 많게 한 경우는 주로 보조기둥으로 평면을 구성한 전남지역의 예에서 주로 확인된다. 보조기둥 사용으로 축부의 안정성을 확보한 후 과감한 외출목 구성을 통해 화려하고 장엄한 공포를 조영 했던 것으로 보인다. 평면 구성과 함께 일주문 건축의 지역적 특징의 사례로 가치가 있다. 또한 제공의 경우 연화쇠서형과 연봉이 모각된 형태인데 의장적 효과가 크기 때문에 조선말기까지 성행한 유형이다. 6제공은 봉황두를 둔 통제공으로 전후면 공포를 연결하여 안정성을 확보하는 역할과 통제공 등 위에 대공을 결구하는 보의 역할을 겸하기도 한다. 초제공에서부터 통제공을 사용하는 예에 비해 의장성과 구조미가 조화를 이룬 구성이다.

### 3) 학술적 가치

순천 송광사는 보조국사 지눌에 의한 중창과 함께 승보사찰로써 중요한 사찰이다. 특히 사중의 관리를 통해 많은 사료와 문헌자료를 가지고 있어 중창과 관련된 실증적 확인이 가능하다. 특히 일주문의 경우 1842년(헌종 8) 송광사의 큰 화재 때 살아남은 전각으로 「임인화재보」에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일주문(조계문)은 여존부(餘存部)에 포함되어 1842년 이전에 건립되었음을 추정가능하며 현판의 목서명과 연관하면 최소 1752년 이전까지로도 보여진다. 다만 확정할 수 없기에 추가 사료 분석을 통해 가치를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평면과 가구의 구성, 공포의 형식 등에서 일주문 건축의 지역적 특성이 확인되기에 그 가치가 크다. 또한 기둥 안쪽에 서 마주보게 용두를 조각하여 끼워 넣었는데 조선후기에 자주 보이는 장엄이다. 이러한 장엄은 공포에도 용두를 장식하여 봉과 용이라는 법수를 장엄하여 불법을 수호하는 상징성을 나타내고 있다. 계단 소맷돌의 석수

사용과 비보를 위한 장엄 조영이 돋보인다.

### <종합의견>

순천 송광사는 여러번의 화재와 중창으로 변화를 겪었지만, 꾸준한 중창과 노력으로 현재의 승보사찰로써 기능과 문화유산 보존의 가치를 유지하고 있다. 그간 관리된 각종 사료와 함께 2007년 찾은 상량문과 경서 등에 대한 학술적 가치가 높다.

일주문은 건립시기를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지만 사료와 현판 등을 통해 최소 18세기 중반으로의 유추가 가능하다.

보조기둥형 평면과 내출목보다 외출목이 더 많은 가구의 구성에서 일주문 건축의 지역적 특성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연화쇠서형 공포 초각 등에서 조선후기 다포의 구성이 잘 확인된다. 또한 용두와 봉두의 사용, 계단 소맷돌의 석수에서 범수를 장엄하여 불법을 수호하는 상징성과 비보를 위한 장엄 조영이 돋보인다.

최근 여러 차례의 보수공사가 이루어졌지만 중창 당시의 위치와 형태도 잘 유지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조선 중·후기 일주문 건축 구성이 확인되는 예로 건축의 구성에서 지역적 특성과 구조적 완결성이 돋보인다. 이에 따라 국가지정 문화재(보물)로 지정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 ※ 대상 문화재의 핵심 보존가치

1. 순천 송광사는 여러번의 화재와 중창으로 변화를 겪었지만, 꾸준한 중창과 노력으로 현재의 승보사찰로써 기능과 문화유산 보존의 가치를 유지하고 있음.
2. 일주문의 건립시기를 유추할 수 있는 사료의 실증적 확인이 가능함.
3. 보조 기둥을 통한 평면구성과 이를 통한 축부의 안정성을 확보, 과감한 외출목 구성을 통해 화려하고 장엄한 공포 구성 등이 지역적 일주문 건축 특성과 연관됨.
4. 조선 후기 다포의 구성과 용두와 봉두, 석수 장엄을 통해 불법 수호의 상징성과 비보를 위한 조영이 돋보임.

## 7. 보성 벌교 흥교 주변 벌교천 재해예방사업

### 가. 제안사항

전남 보성군 소재 보물 「보성 벌교 흥교」 주변에서 벌교천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 벌교천 재해예방사업(보축 및 하상정비)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문화재 보호구역 및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개별심의”에 해당됨.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보성 벌교 흥교
  - 소재지 :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벌교리 895번지 12호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벌교리 895번지 12호
    - 문화재와 이격거리 : 0m
  - 사업내용 : 벌교천 재해예방사업
    - 사업기간 : ‘24~‘27년
    - 제방보축 : 좌안 219m, 우안 262m
    - 하상준설 : 12,230㎡(하천연장 700m)
    - 데크설치 : 95m

- 문화재 안정성 검토 결과(전라남도, (주)○○○○○○○ \*수자원개발기술사 자격 보유)
  - 계획홍수량 유하 시 벌교천 하상정비(A=12,230m<sup>2</sup>) 계획에 의한 수리적 영향성 검토결과, 봉림교 직하류 구간~홍교 구간까지 홍수위는 0.40EL.m~0.43EL.m 저감되며, 유속 및 소류력\*은 0.25m/s~0.82m/s 및 31.33N/m<sup>2</sup>~70.29N/m<sup>2</sup> 저감되는 것으로 나타남.
    - \*소류력 : 수로에서 물의 흐름으로 인해 수로바닥의 토사를 움직이게 하는 힘
  - 유속 및 소류력 등은 저감되고 금회 계획하상경사(S=1/1,035)는 완류구간 (기준 : S=1/1,000보다 완경사)으로 급격한 하상변동\* 및 하상세굴\*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금회 설계유속(V=2.28m/s~2.93m/s)은 「하천 설계기준(2018,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완류구간 평균유속(V=2.0m/s~3.0m/s) 범위 이내이므로 홍교(문화재)에 대한 홍수 시 세굴 발생가능성 및 구조적 영향성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 \*하상변동 : 하천에서 유로 바닥의 높이·형상·위치 따위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일
    - \*하상세굴 : 흐르는 물의 힘으로 인해 하천 바닥이 패는 일

##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시행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조건부가결 9명

## 8. 서울 흥인지문 주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 건설공사

### 가. 제안사항

서울 종로구 소재 보물 「서울 흥인지문」 주변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 건설공사를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건설공사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개별심의”에 해당됨.

#### ※ '23년 문화재위원회 제10차 사적분과 심의결과('23.10.11) : 원안가결

##### [사적분과 안건 주요내용]

- 대상문화재 : 서울 청계천 유적(수표교지·오간수문지)(사적 / 2005.03.25. 지정), 서울 한양도성(사적 / 1963.01.21. 지정)
- 신청위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자동~성동구 상왕십리동 일원
  - 서울 청계천 유적 수표교지와 오간수문지 내외(지정구역, 1구역-건축물 높이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처리)
  - 서울 한양도성 연결유적지(송례문 주변 한양도성에서 약 400m 이격, 흥인지문 주변 한양도성에서 약 155m 이격)
- 사업내용
  - 총 연장 : 제2공구 5.76km(GTX-B노선 용산~상봉간 19.9km)
  - 사업기간 : '23.01.16. ~ '24.03.15.
  - 구 조 물 : 터널 5.56km / 서울역(정거장) 0.20km / 환기구 2개소
  - 부설심도 : 지하 46.8m ~ 77.1m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2) 대상문화재 : 서울 흥인지문

○ 소재지 : 서울 종로구 종로 6가 289번지 49호

○ 지정일 : 1963. 01. 21.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서울 용산구 동자동~성동구 상왕십리동 일원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문화재보호구역에서 57m

○ 사업내용

- 총연장 : 제2공구 5.76km (GTX-B노선 용산~상봉간 19.9km)

- 사업기간 : '23.01.16.~'24.03.15.

- 구조물 : 터널 5.56km / 서울역(정거장) 0.20km / 환기구 2개소

- 부설심도 : 지하 50m~90m

○ 문화재 보존 영향성 검토 및 저감 대책

- 문화재 보존 영향성 검토를 위해 지하 50m의 철도 건설로 지상부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며, 공사 시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구조물 안정성, 발파진동영향 검토 등을 시행함.

- 문화재 영향 저감을 위해 대심도에서의 개발, 발파진동저감공법, 지하수위 계측, 문화재 정밀계측,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겠음.

##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원안가결 9명

## 9. 대구 동화사 대응전 주변 종교시설(사명대사 교육관 및 체험관) 건립

### 가. 제안사항

대구 동구 소재 보물 「대구 동화사 대응전」 주변에 종교시설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 종교시설 신축 행위에 대하여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개별검토”에 해당됨.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대구 동화사 대응전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산로201길 41 (도학동)
  - 지정일 : 2008. 04. 28.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대구광역시 동구 도학동 산124-1 외 1필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약 60m
  - 사업내용 : 종교시설(사명대사 교육관 및 체험관) 건립
    - 1) 대지면적 : 4,981.76㎡
    - 2) 건축면적/연면적 : 813.8㎡ / 2,960.26㎡
    - 3) 건폐율/용적률 : 16.33% / 25.17%

4) 용도 : 종교시설

- 지상 1층, 2층 : 기획전시실 / 지하 1층 : 휴게공간, 영상관 기계실 등

5) 규모 : 지하1층 지상2층, 최고높이 15.55m

6) 구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7) 마감

- 외벽 : 노출콘크리트 문양찍기, 전통무늬창호(로이복층유리), 점토벽돌

- 지붕 : 한식기와잇기(동와)

##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조건부가결 9명

## 10. 강릉 보현사 낭원대사탑비 주변 요사채 신축공사

### 가. 제안사항

강원 강릉시 소재 보물 「강릉 보현사 낭원대사탑비」 주변에 요사채 신축 공사를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요사채 신축 공사를 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개별심의”에 해당됨.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강릉 보현사 낭원대사탑비
  - 소재지 : 강원 강릉시 성산면 보현길 396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강원 강릉시 성산면 보현길 396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문화재로부터 50m 내외
  - 사업내용 : 요사채 신축(1층 화장실, 2층 요사채)
    - 바닥면적 : 47.52㎡
    - 높이 : 9.64m(1층 5.88m, 2층 3.76m)
    - 구조 : 1층 - 철근콘크리트조 / 2층 - 전통한식 목구조(동기와)

라. 현지조사 의견('23.10.10. /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 신청부지는 사찰 중심사역의 전면부에 해당되고, 기존에 자리 잡고 있는 재래식 화장실이 사찰 주변 경관을 저해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 다만, 신청 건물은 사찰 전면부를 가리게 되어 경관저해 우려가 있으므로 건물의 배치, 평면 등을 조정하는 것이 좋겠음.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현지조사 의견을 반영토록 함.
  - 난간 설치 등은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시행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조건부가결 8명

## 11. 양평 용문사 정지국사탑 및 비 주변 미소전(나한전) 개축 및 배수로 설치(재심의)

### 가. 제안사항

경기 양평군 소재 보물 「양평 용문사 정지국사탑 및 비」 주변의 미소전(나한전) 개축 및 배수로 설치를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 미소전(나한전) 개축 및 배수로 설치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개별심의”에 해당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해당됨.
- ※ ‘23년 문화재위원회 제9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23.09.21)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심의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양평 용문사 정지국사탑 및 비
  - 소재지 : 경기 양평군 용문면 신점리 산99-6번지 용문사
  - 지정일 : 1971. 07. 07.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기 양평군 용문면 신점리 618번지 용문사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문화재에서 315m

○ 사업내용 : 미소전(나한전) 개축 및 배수로 설치

- 사업예산 : 500백만원(국비 225백만원, 지방비 225백만원, 자부담 50백만원)
- 대지면적 : 1,395m<sup>2</sup>
- 건축면적 : 43.74m<sup>2</sup>
- 건축규모 : 정면 3칸, 측면 2칸
- 건축양식 : 5량가, 팔작지붕, 겹처마, 이익공양식
- 최고높이 : 6.8m
- 거친돌 배수로 설치 : 20m 구간

라. 현지조사 의견(2023.10.16. / 문화재위원 ○○○)

- 개축하는 미소전은 나한을 모신 건물로 약 30년 전에 건립되었고, 현재 지붕의 누수 등으로 퇴락하여 보수 또는 개축이 필요한 상황임.
- 미소전은 측면과 배면의 석축이 높아 습기에 약하고, 지붕 누수의 원인이 되므로 신축 건물은 기존 석축과 이격하면서 사찰 주축에 맞춰 배치를 조정하고, 주변의 배수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좋겠음.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현지조사 의견대로 시행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조건부가결 8명

## 12. 순천 동화사 삼층석탑 주변 극락전 신축

### 가. 제안사항

전남 순천시 소재 보물 「순천 동화사 삼층석탑」주변에 극락전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 극락전 신축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개별심의”에 해당됨.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순천 동화사 삼층석탑
  - 소재지 :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동화사길 208
  - 지정일 : 1985. 01. 08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동화사길 208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10m
  - 사업내용 : 극락전 신축(법회 및 설법 공간으로 활용)
    - 건축면적 : 54㎡(16.33평)
    - 건축규모 : 정면 3칸, 측면 2칸
    - 건축구조 : 5량가, 익공식
    - 지붕구조 : 겹처마, 팔작지붕
    - 최고높이 : 7.2m

## 라. 의결사항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심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보류 8명

## 13. 영주 영주동 석조여래입상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 가. 제안사항

경북 영주시 소재 보물 「영주 영주동 석조여래입상」 주변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하여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개별심의”에 해당됨.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영주 영주동 석조여래입상
  - 소재지 : 경상북도 영주시 중앙로 7 (가흥동)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상북도 영주시 가흥동 1482 일원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1.5m, 문화재에서 30m
  - 사업내용 : 도시계획도로(고가도로) 신설
    - 도로길이 : L=1.06km
    - 도로폭 : 20m, 4차로
    - 주요구조물 : 290m 교량 1개소
    - 사업예산 : 600억원
    - 사업기간 : '24. 9. ~ '26. 8.

## 라.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유산 보호 방안 마련 필요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부결 8명

## 14. 김천 직지사 대응전 주변 만세루, 황악루 보수 및 주변정비

### 가. 제안사항

경북 김천시 소재 보물 「김천 직지사 대응전」 주변 만세루, 황악루 보수 및 주변정비를 실시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 건물 보수에 대하여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해당함.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김천 직지사 대응전
  - 소재지 : 경북 김천시 대항면 북암길 89 (운수리)
  - 지정일 : 2008. 09. 03.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북 김천시 대항면 직지사길 95
    - 1) 만세루 : 문경 도천사지 동·서 삼층석탑(보물) 인접
    - 2) 황악루 : 문경 도천사지 삼층석탑(보물) 인접
  - 사업내용 : 복합문화센터 건립(2개동)
    - 1) 만세루 : 누하주 판매점 리모델링, 기존 장판 제거 후 돌타일 깔기, 한식 벽체 해체/설치, 목재창호 설치, 창고설치, 누상주 목재창호 및 자동문 신재설치, 강마루 깔기, 화강석 난간설치
    - 2) 황악루 : 누상주 마루 해체/설치, 화강석 계단 신재설치

## 라. 의결사항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심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보류 8명

## 15. 안동 이천동 마애여래입상 주변 연미사 불량시설 개선

### 가. 제안사항

경북 안동시 소재 보물 「안동 이천동 마애여래입상」 주변에 연미사 불량시설을 개선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 불량시설 개선에 대하여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개별심의”에 해당됨.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안동 이천동 마애여래입상
  - 소재지 : 경상북도 안동시 이천동 산2번지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상북도 안동시 제비원로 672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약 40m
  - 사업내용 : 임시 가건물 철거 및 관리사 건립
    - 1) 임시관리사 철거(컨테이너 3×6m)
    - 2) 바닥면적 : 46.80㎡, 14.16PY
    - 3) 구조양식 : 한식목구조, 정면 4칸, 측면 3칸, ‘ㄱ’자형, 5량가+3량가, 홀처마, 팔작+맞배지붕
    - 4) 초석 및 기단 : 화강석 초석, 화강석 기단

- 5) 벽체 : ALC블록 위 전용몰탈 마감(백색)
- 6) 지붕 : 한식토기와 잇기, 팔작+맞배지붕, 막새기와 마감, 용마루 5단,  
내림마루 3단, 추녀마루 3단
- 7) 사업기간 : '23. 11. ~ '24. 07.

####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관계전문가 자문 받아 시행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조건부가결 8명

## 16. 경주 마동 삼층석탑 주변 단독주택 신축

### 가. 제안사항

경북 경주시 소재 보물 「경주 마동 삼층석탑」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 단독주택 신축 행위에 대하여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개별심의”에 해당됨.
- ※ ‘23년 6월 제1차 자체회의결과(2023.06.09.) : 부결(역사문화경관 저해)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경주 마동 삼층석탑
  - 소재지 : 경상북도 경주시 마동 101-2, 101-3
  - 지정일 : 1987. 03. 09.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상북도 경주시 마동 106-20, 104-2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약 58m
  - 사업내용 : 단독주택 신축
    - 대지면적 : 674m<sup>2</sup>
    - 건축면적/연면적 : 124.1m<sup>2</sup> / 98.94m<sup>2</sup>
    - 건폐율/용적률 : 18.41% / 14.68%
    - 건물규모 : 1개동 지상 2층, 최고높이 7.9m

-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 토공 : 터파기, 되메우기 없음, 절토 0.65m
- L형 옹벽 : 길이 14m, 높이 1m

#### 라.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경관 저해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부결 9명

## 【검토사항】

안건번호 건축 2023-10-017

### 17. 밀양 영남루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검토

#### 가. 제안사항

경남 밀양시 소재 「밀양 영남루」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경남 밀양시 소재 「밀양 영남루」를 국가지정문화재(국보)로 지정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 받고자 하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경상남도지사
- (2) 대상문화재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밀양 영남루」
  - 소재지 : 경남 밀양시 내일동 40번지 등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신청
  - 명칭 : 밀양 영남루(密陽 嶺南樓)
  - 소유자(관리자) : 국유(밀양시)
  - 소재지 : 경남 밀양시 내일동 40번지 등
  - 조성연대 : 조선시대
  - 수량 : 1동(대루, 능파각, 침류각, 여수각)
  - 지정면적 : 693.60㎡
  - 구조/형식/형태 : 목조 / 화가 / 팔작지붕

라. 현지조사 의견(2023.03.17. / 문화재위원 ○○○·○○○, 문화재 전문위원 ○○○)

- 문화재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가치 있음.
- 문화재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가치 있음.
- 문화재전문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가치 있음.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원안가결 9명

##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23.03.17	대상문화재	밀양 영남루	
조사자	성 명	○○○	전공 분야	건축역사
	소 속	○○대학교	직위(직책)	교수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국보)		
	문화재 명칭	밀양 영남루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세부내용 별첨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3 년 8 월 1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 1. 입지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경상남도 밀양시 내일동 40번지에 위치한 밀양 영남루는 조선시대 밀양 도호부의 객사에 부속된 관영 누정으로, 중앙에 ‘영남루’라 편액한 정면 5칸, 측면 4칸의 대루(大樓)를 두고, 좌우에 부속 시설인 능파각(凌波閣)과 침류각(枕流閣), 그리고 대루와 침류각을 잇는 층층각인 여수각(麗水閣)을 포함한 일군의 건물을 이룬다.<sup>1)</sup> 영남루와 객사 등이 자리한 절벽 위의 평평한 대지(臺地)는 밀양강(또는 南川江, 凝川)의 북면 높은 절벽 위에 있으며, 북쪽과 서쪽으로는 밀양 읍내를 내려다보고, 동쪽으로는 아동산(衙東山, 88.1m)이 있고 남쪽으로는 밀양강과 건너 들판 주위의 경관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경승지이다. 따라서 강변 절벽 위에 우뚝 솟은 영남루는 최초 그 자리에 누정이 세워졌다는 고려시대 이래 조선시대에는 물론, 현재에 이르기까지 시민은 물론 밀양을 방문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찾는 명소로, 밀양을 대표하는 랜드마크의 역할을 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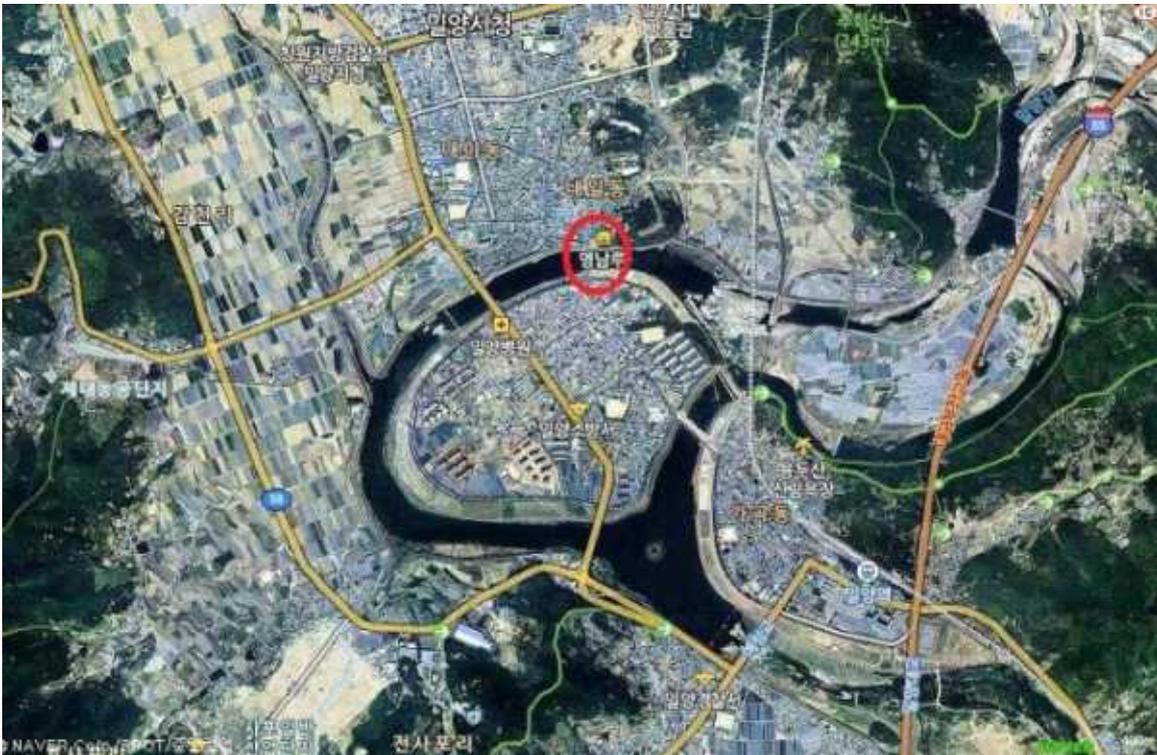


그림 1 영남루의 위치와 현재의 밀양 시가지 개발 상황, 영남루의 북편이 과거의 밀양 읍내이고, 밀양강 아래 쪽은 근래에 개발된 신시가지이다. KTX밀양역 역시 밀양강 남편에 자리한다. (『밀양 영남루 국보 승격신청 보고서』(밀양시, 2023, 이하 『보고서』로 약함)에서 전재)

조선시대 밀양의 관아는 현재의 시청이 위치한 아북산(衙北山, 118.6m) 아래 남사면에

1) 그러나,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밀양대호뿌 누정조에 지금의 침류각의 전신인 소루(召樓)를 영남루와 별개의 항목으로 기재하고, 대루만을 영남루라고 기재하고 있어, 좁은 범위에서 영남루라고 하면 대루만을 이룬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있었으며, 관아의 앞에서 남쪽으로 뺀 대로가 밀양읍의 중심축이 되고, 객사와 영남루는 밀양읍성 내 남문을 들어와 바로 동편 언덕 위에 있다. 이처럼 객사와 관아가 떨어져 있는 것은, 대개 객사가 읍성의 중심에 위치하고 그 옆에 관아가 있는 일반적인 읍성의 구조와 다르다. 이는 영남루가 갖는 위상을 보여줌과 함께, 객사를 통 채로 이곳에 건립할 정도로 이 장소가 누정을 건립하기에 적합한 장소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밀양 객사의 본 건물들은, 영남루가 자리한 대지의 북변에 남향으로 자리하고 영남루와의 사이엔 마당이 있다. 객사의 정청 건물이었던 천진궁(天真宮)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익공계 공포를 가진 단층 팔작집이고, 객사의 내삼문이었던 만덕문(萬德門)은 정면 3칸의 솟을삼문 형식을 가지며, 지붕은 역시 팔작지붕이고, 공포는 특이하게 다포계의 공포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동쪽으로는 아동산으로 오르는 비탈진 경사지가 있고, 북쪽과 서쪽으로는 시내로 내려가는 경사지가 있다. 영남루 권역으로 오르는 주 출입은 서쪽의 경사를 이용하는데, 서쪽의 경사지에 놓은 계단 위에 객사와 영남루의 외대문인 사주문이 있다. 사주문은 직사각형 평면에 4개의 기둥만으로 팔작의 지붕을 받치고 있는데, 하방이나 지방, 벽체 등이 전혀 사용되지 않아 쾌활한 인상을 준다.

영남루의 동쪽 강변으로 조금 내려간 비탈지엔 전설 속의 열녀 아랑(阿娘)을 기리는 아랑각이 있으며, 늦어도 고종 연간에는 건설되었으리라 추정한다. 아랑각의 동쪽, 성 밖의 비탈에는 무봉사(舞鳳寺)라는 사찰이 있으며, 조선 후기의 지도 자료들에서 확인된다. 또 아동산 위에는 밀양 읍성의 동남 모퉁이에 자리한 망루인 무봉대(舞鳳臺)가 있고, 아동산에서 직각으로 꺾인 성벽은 절벽을 따라 영남루 앞을 지나가 서쪽에서 남문으로 이어진다.

영남루 일원의 역사적 문화적 중심지로서의 역할은 현재에도 이어져서, 아동산 기슭에 밀양에서 태어난 사명대사의 동상(1971년), 밀양아리랑 노래비(1989년), 20세기 중반의 유명한 대중가요 작사가인 박시춘 노래비와 생가(2001년) 등의 기념비들이 있으며, 시에서 행하는 각종의 문화 행사들이 영남루 앞마당에서 이루어진다. 시에서도 이 장소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주변에 난립하였던 많은 주택과 건물들을 매입하여 정비하고 관광객 수용을 위한 주차장을 만드는 등 주변 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그림 2 『여지도』 중 「밀양부지도」(조선후기, 『보고서』에서 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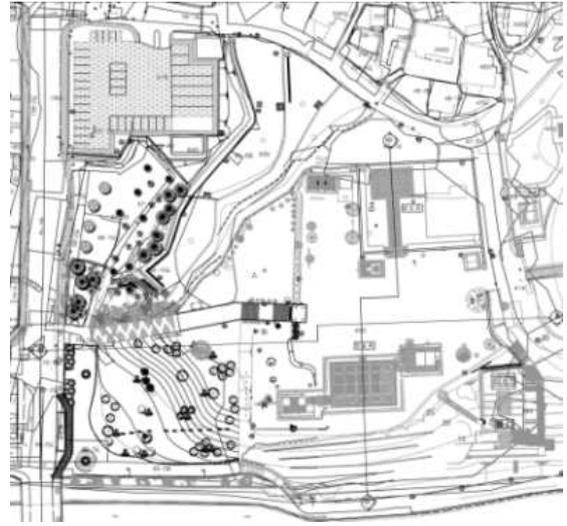


그림 3 영남루 일원의 배치현황도(『보고서』에서 전재) 왼쪽의 남북으로 뻗은 도로가 과거 밀양읍의 중심축이다.



그림 4 밀양강(남천) 건너편에서 바라본 영남루 전경. 전면에 밀양읍성의 남벽이 있고, 성벽 너머로 침류각과 여수각, 대루, 능파각이 나란하다.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이 아랑가. 그리고 그 위에 언덕위에 있는 것이 무봉사이다. (2023.03.17. 촬영)

## 2. 연혁

이 장소에 영남루(嶺南樓)라고 이름한 관영의 누정이 창건된 것은 고려말 공민왕 14년, 1365년의 일이다. 그러나 일찍이 12세기까지 이르는 고려시대의 여러 시문을 통해 이곳에 영남사(嶺南寺)라고 하는 사찰이 있었으며, 그 사찰 부속의 종각인 금벽루(金壁樓) 혹은 소루(小樓)나 죽루(竹樓)라고 부르는 작은 루가 있었고, 또 그 소루(죽루)를 그냥 간단히 영남루라고 부르기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루는 비록 관영의 누정은 아니었지만, 승경지에 자리하여 시인 묵객의 탐방 장소로 사랑받았다는 점에서 이후 영남루의 성격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이후 고려말에 이르러 1365년 밀양의 지군(知郡)으로 온 김주(金湊, 1339-1404)가 폐사가 된 영남사의 소루가 낡은 것을 보고 이를 헐고, 진양(晉陽) 축석루(矗石樓)의 제도를 좇아 새로 누정을 짓고, 영남사의 이름을 따서 영남루라 명명하였다고 한다.<sup>2)</sup> 『고려사』 「열전」에 따르면, 김주는 1389년에는 도평의사사 신청사의 건축공사를 감독하고, 1391년에는 도성(개성)의 수축에 관여하였으며, 조선 개국 초에는 계룡산 하의 신도 건설 사업을 총괄하는 등 건설 사업과 관련이 깊은 인물이다. 김주는 1389년 관찰사가 되어 다시 영남루를 찾아 현장을 확인하였다.

조선 개국 후에는 부사 안질(安質, ?-1447)이 대루를 중수하고, 천순 경진(天順 庚辰)년 즉, 1460년(세조 6) 부사 강숙경(姜叔卿, 1428-1481)이 재차 중수하였다고 한다. 이때의 내용은 신숙주(申叔舟, 1417-1475)의 「영남루기(嶺南樓記)」에서 확인된다. 이 기문에서는 특히, “영남에 고을이 60여 개로 이들 중 누각이나 정자(樓榭臺觀)가 없는 곳이 없으나, 오로지 이 집만이 ‘영남’이란 이름을 얻은 것은 경치의 아름다움이 영남에서 으뜸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서, 이미 조선 전기에도 영남루의 빼어남은 널리 인정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부사 안질이 영남루를 중수할 때 대루의 서쪽 옆에 작은 루를 추가로 지었는데, 특별한 이름 없이 민간에서 그저 소루(小樓)라고 불리던 것을, 1442년(세종 24) 영남 도사 권기(權技, ?-?, 1432년 식년시)가 주나라 때의 유명한 관리이자 목민관의 모범과 같았던 소공(召公)<sup>3)</sup>의 이름이 마침 발음이 같은 것에 착안하여 소루(召樓)로 명명하였으며, 그 후 부사 이충걸(李忠傑, 1465?-1527?)<sup>4)</sup>이 임경당(臨鏡堂)으로 개명하였다고 하

2) 「嶺南樓重修記」 (1365, 金湊) (『密州誌』 卷之一, 「嶺南樓條」 소수)

3) 주 왕실의 일족으로, 주공(周公)과 함께 무왕을 도와 상(商)을 무찌르고 주를 세우는데 기여하였으며 연(燕)을 분봉받아, 전국 칠웅의 하나인 연나라의 시조가 되었다. 소공식(召公奭), 소백(召伯), 소강공(召康公), 주소공(周召公)이라고도 불린다. 주나라 초기 주 왕조의 기반을 확립하는데 공이 크고, 특히 그가 다스리던 주나라의 서쪽 지역에선 후백에서 서인까지 실직자가 없을 정도로 모범적인 통치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조선시대 여러 글에서 모범적인 목민관의 모델로 인용되는 것을 보면, 권기가 굳이 소루라고 명명한 것은 이곳이 관영의 누정이었던 점을 고려한 것으로 생각된다.

4) 李忠傑은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상에 李世傑의 개명으로 등장한다. 이세걸은 이충걸 외에 李忠純의 이름도 사용한 것으

니, 지금의 침류각(枕流閣堂의 전신이다.

또, 연산군 때인 홍치(弘治, 1488-1505) 연간에는 부사 김영추(金永鍾)<sup>5)</sup>가 대루의 동북 모퉁이에 망호당(望湖堂)을 지어 빈객들의 숙소로 삼았는데, 이것이 능파각(凌波閣)의 전신이다. 이처럼 늦어도 15세기 말에는 지금 영남루를 구성하고 있는 세 건물의 전신들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다시 중종 37년(1542)에는 대루의 보수가 있었고, 같은 해에 망호당을 지금처럼 대루 가까이로 옮기고 바닥의 높이도 대루에 맞추어 축대를 쌓아 올리고, 규모도 한 칸 더 키워서 새로 짓고 능파각이라 이름하였으며,<sup>6)</sup> 임경당(소루) 역시 중수하고 침류각으로 개명하였다. 모두 부사 박세후(朴世煦, 1494-1550)의 일이다.<sup>7)</sup>

이때가 현재 남아있는 영남루의 세 누정 건물의 체제가 완성된 시기로 볼 수 있다. 한편, 『보고서』에서는 「밀양십이경도」(또는 今是堂十二景圖,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 308호) 중 영남루의 그림이 이러한 임진왜란 이전의 상황을 전하는 것으로 적고 있으나, 낙관의 상태나 화풍 등으로 볼 때 이 그림을 18세기 경의 작품으로 보는 의견도 있어서 단정하기 어렵다.



그림 5 「밀양십이경도」 중 「영남루」  
(『보고서』에서 전재)

하지만 영남루는 임진왜란 때 객관과 함께 모든 부속 시설이 소실되고, 이후 중창과 중

---

로 나온다. 여기의 생물년은 이세걸의 것을 따른 것이고, 이세걸은 장수 이씨로, 1486년(성종 17) 식년시에 병과로 등과하였고, 벼슬은 대사헌과 전라감사 등을 지냈다.

5) 金永鍾은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상에서 검색이 되지 않으나, 비슷한 시기에 같은 이름을 쓰는 인물로는 신안동 김문의 중흥기 중심인물인 김계권(金係權, 1410-1458)의 오형제 가운데 5자로 영천군수와 사헌부 장령을 지낸 김영추가 있다.

6) 「凌波堂小記」(申光漢, 1542)에 자세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이때 비로소 대루와 연결되는 난간을 만들고 삼면에 단청을 하였다.

7) 박세후는 1540년부터 1544년까지 밀양 부사를 지냈다.

수를 거듭하였다. 객사는 정유재란 후인 1599년(선조 32) 임시로 초옥을 능파각 터에 지어서 역석당(億昔堂)이라 편액하였고, 1608년(선조 41)에는 침류각과 능파각을 중건하기도 하였으나, 1642년(인조 20) 소실되고, 그 직후 곧바로 대루를 중건하고 1651년(효종 2)에는 대루의 서북편에 객사를 새로 지어 공진관(拱辰館)이라 편액하였다.

영남루는 이후, 1661년(현종 2), 1724년(경종 4)<sup>8)</sup>, 1793년(정조 17)<sup>9)</sup>, 1806년(순조 6)<sup>10)</sup>, 1825년(순조 25)<sup>11)</sup>, 1832년(순조 32)<sup>12)</sup> 등에 크고 작은 중수 공사가 있었다. 또 ‘崇禎後再甲辰仲春(1724년)’, ‘乾隆十四年乙巳仲春都瓦匠金運明의(1749)’ 등의 명문 기와가 발견되어 이들 시기의 중수 기록들과 연결되어 있다. 특히 1806년(순조 6)의 공사는 그해 7월부터 9월까지 64일간 재목 290여 개와 공장 1,139명이 동원된 대규모 수리 공사로서 섞은 서까래를 갈아 끼우고 단청을 새로 하였으며, 남은 물력으로 능파각을 수리하고 읍승지정(揖升之亭)을 개건하고, 담장에 기와를 올리고 문에 채색을 하였다. ‘읍승(揖升)’이란 사례(射禮)에서 절하고 당에 오르는 것을 이르는 것이니, 읍승정이란 사정(射亭)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영남루의 마지막 화재는 1834년(순조 34)에 일어났으며, 영남루 경내의 모든 건물을 태웠다. 이에 밀양부사 이인재(李寅在)가 1843년(헌종 9) 공사를 시작하여 1844년(헌종 10)에 마쳤다. 이때 대루의 규모를 확장하고, 능파각과 침류각을 복원하는 한편, 여수각을 짓고, 객사인 밀주관(密州館)을 크게 확장하여, 비장청(裨將廳), 동해(東廡), 서해(西廡), 공주(公廚), 대문 등 수백 칸을 지었다. 이때의 「중건상량문」은 당시의 세도가 안동 김흥근(金興根, 1796-1870)이 지었으며,<sup>13)</sup> 2002년 능파각 번와공사시에는 「능파각상량축문」(1844)이 발견되었다. 이때가 최종적인 영남루의 현황 조성기로 볼 수 있다.

그 이후 변화는 주변 영역의 변화는 있었지만, 영남루 자체에는 커다란 현상 변화 없이 수리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1890년(고종 27)의 수리가 있었고, 1894년 동학농민운동 시 일본 헌병대의 주둔지로 사용되기도 하고, 이후 고종 대에 화재가 있기도 하였으나, 영남루의 주요 구성 건물은 화재를 피하였다. 객사의 제도가 혁파되면서 객사와 그 부속 시설들의 변화는 불가피하였다. 그러나 영남루에 대한 가치는 일찍부터 인정되어, 1917년에 총독부에 의한 수리공사가 있었고<sup>14)</sup>, 1918년 조선총독부는 영남루 전체에 대한 수

8) 「嶺南樓重建記」(李熙疇, 1724)

9) 「嶺南樓重修記」(金光默, 1793)

10) 「嶺南樓重修記」(金載華, 1806)

11) 「凌波堂記」(李和淵, 1825)

12) 「嶺南樓修重上樑文」(趙基復, 1832)

13) 「嶺南樓重建上樑文」(金興根, 1844)

리계획을 수립하였는데, 당시 수리의 대상으로 대루, 능파각, 침류각, 여수각과 정문(사주문) 등으로 삼았다. 나머지 부속 시설은 모두 철거할 계획을 세우고, 영남루 북편에 자리하였던 객사는 중심 건물인 정청과 만덕문만 남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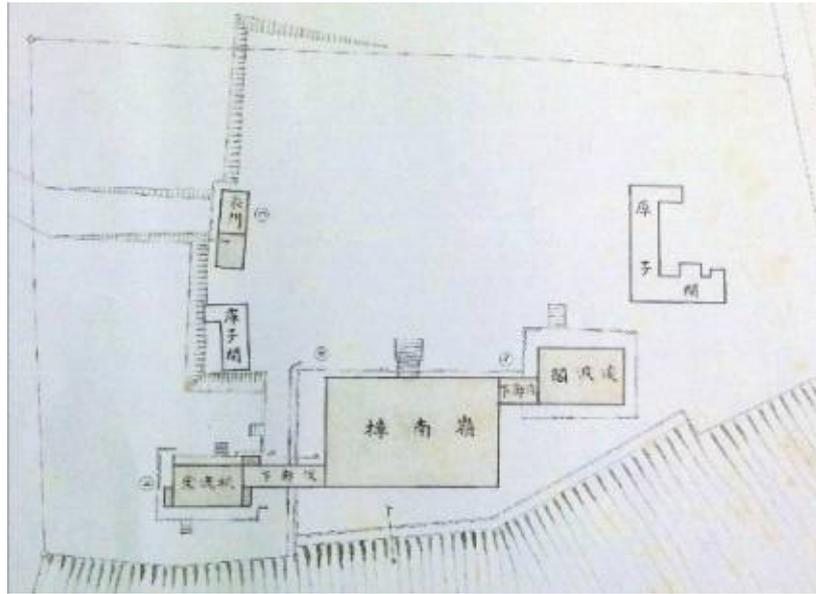


그림 6 밀양 영남루 배치도 (1918년경, 국가기록원 소장, 『보고서』에서 전재) 표문(表門)이라 표기한 정문 외에 고자각(庫子閣)이라 표기한 창고건물들이 부속되어 있다.

이후 1926년에는 민간인의 회사로 전등이 설치되고,<sup>15)</sup> 1929년 임시 수선공사가 있었고,<sup>16)</sup> 1930년에는 군수 최두연(崔斗淵)의 주도로 민간의 문화유산 보존조직인 밀양보승회(密陽保勝會)가 설립되어,<sup>17)</sup> 영남루의 보존에 힘쓰는 등의 노력으로 총독부의 지원과 민간의 모금으로 1930~31년에 걸쳐 대대적인 중수 공사가 행해지고, 1931년에는 조선 16경의 하나로 선정되었으며, 1932년에는 일본 공원의 아버지로 일컬어지는 혼다 세이로투(本多靜六) 박사에 의해 공원화 계획이 만들어지기도 했다.<sup>18)</sup>

1936년 5월 23일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에 따라 ‘보물’로 지정되었다. 이때 함께 보물로 지정된 건조물은, 京城 文廟, 京城 東廟, 修德寺 大雄殿, 開心寺 大雄殿, 寶林寺 大雄殿, 通度寺 大雄殿, 深源寺 大雄殿, 龍門寺 大藏殿, 觀龍寺 藥師殿, 安州 百

14) 「釜山日報」 1917년 10월 14일자.

15) 「每日新報」 1926년 7월 6일자.

16) 「동아일보」 1929년 6월 26일자.

17) 「동아일보」 1930년 11월 19일자.

18) 「每日新報」 1932년 8월 16일자.

祥樓, 安邊 駕鶴樓, 道岬寺 解脫門, 江陵 客舍門, 成川 東明館, 海印寺 藏經板庫 등으로, 관영 누각 가운데, 안주 백상루 및 안변 가학루, 성천 동명관과 함께 처음으로 보물로 지정되었다.<sup>19)</sup> 또 단일 건물이 아닌 여러 건물을 지정할 때 사용하는 단위인 곽(郭)으로 표기하고 있다.<sup>20)</sup> 그러나 1936년 여름 장마에 피해를 입고, 빈민과 립펜들이 모여드는 등의 상황에서 수리를 촉구하는 기사가 여러 신문에 기사화되는 중 마침내 1938~9년에 걸쳐 수리공사가 이루어졌다.

영남루 일원은 일제강점기에도 여러 행사가 일어나는 공공 공간으로 사용되었다. 영남루와 구 객사만 남은 경내의 빈터를 이용하여, 1920년경 밀양 박씨의 시조단인 밀성대군지단(密城大君之壇)이 설치되고, 이때에도 공원화 구상이 검토되었으나 실현되지 못하였고, 1940년에는 아동산 자락에 일본 신사가 설치되면서 그 오르는 길 한편에 누각을 세우기도 하였다.

해방 후인 1952년에는 민간에서 단군봉안회가 조직되어 구 객사의 정청을 수리하여 단군 봉안전으로 바꾸어 요선관(현 天眞宮)으로 편액하였다. 1960년에는 영남루 경내에 지어진 민가들을 철거하고 주변 환경을 정비하였고, 1962년 새로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보물 제147호로 지정되었다. 신법 제정 이전 1955년 영남루는 국보 제245호로 승격된 적이 있으나 이는 단지 일제강점기의 구법령에 따른 ‘보물’을 일괄적으로 ‘국보’로 조정하는 조치에 의한 것으로서, 앞서 1936년의 지정 목록 그대로를 따라 심지어 북한에 소재하는 것까지를 함께 재지정하였으며, 단지 한국전쟁 후 전소된 寶林寺 大雄殿만을 제외하였다.

이후 주변 정비사업과 영남루에 대한 보수 사업이 1967년, 1982년, 1988년, 1991년, 1994년, 1996년 2001년, 2004년 등 계속 진행되어 현재에 이른다.

이처럼 밀양 영남루는, 그 기원은 고려 중기에 세워진 사찰 영남사의 누정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고려말 1365년에 영남루라 이름한 관영의 누정이 최초 건립되었고, 조선 개국 후인 15세기 중엽에 여러 차례 중수와 확충 공사가 이루어진 후, 1542년에는 마침내 영남루의 특징적인 구성인, 대루를 가운데 두고 좌우에 익루를 두는 복합누정군을 이루었다. 그러나 임진왜란으로 영남루와 객사는 모두 전소하고, 17세기의 여러 대에 걸쳐 중건해 옛 모습을 되찾았으나, 1834년 다시 한번 큰불로 전소한 것을 1844년 중건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 1936년 지정은 「조선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령」에 따른 2차 지정이고, 1937년 의주 통군정과 진주 축석루가 3차 지정 때 보물로 추가된다.

20) 「朝鮮總督府官報」 제2806호 (昭和11년 5월 23일)

이처럼 오랜 기간에 걸쳐 한 자리에 계속해서 같은 이름을 가진, 비슷한 형식의 누정이 운영된 것은, 영남루가 위치한 장소가 가지는 특별함과 객사 부속의 관영 누정이자 빈객이 유숙하는 객관의 역할을 겸한다고 하는 기능상의 요구가 만든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영남루가 위치한 남천강 북변 절벽 위의 평평한 대지는 누정을 지을만한 최적의 장소이며, 보통의 객사 건물이 꺾패와 전패를 모신 정청을 가운데 두고 그 양옆에 빈객의 유숙을 위한 동서 익헌을 두는 것과 달리, 여기선 동서 익헌을 두지 않고 그 유숙처를 영남루 대루 옆에 지은 능파각 및 침류각으로 대신한 것도 이러한 장소가 갖는 특별함에서 비롯된 것이다.

연혁과 관련하여 또 한 가지 주목할만한 점은, 고려말 이래 조선 시기에 걸친 거의 모든 중건 및 중수기록이 상량문과 중건기, 중수기 등의 형태로 세세하게 남아있을 뿐 아니라 그 기문의 작성자가 지역의 인물을 뛰어넘어 전국적으로 이름 높은 명사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나아가 영남루와 관련된 문학 작품은 조려 전기의 문신 정지상(鄭知常, ?-1135)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정도로 오래되며, 영남루를 노래한 한시 작품이 고려말 이래 조선시대에 걸쳐 468명, 974수에 이른다는 사실은 누구라도 밀양에 오면 이 누각에 올라 시를 짓지 않을 수 없었다는 말을 실감케 한다. 하물며 밀양은 조선시대 영남대로의 주요 거점이기도 하였으므로 영남루의 명성이 전국으로 퍼져나갔음은 쉽게 짐작할 수 있고, 심지어 중국의 도해 사전인 『삼재도회(三才圖會)』에 등재되어 있는 유일한 조선의 누정이기도 하다.

근대에 들어와서도 이미 1930년 군수와 관내 유지 등이 밀양보승회를 만들어 영남루의 보호에 진력하였으며, 이에 동조한 전 군민의 참여로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영남루를 밀양을 대표하는 역사문화유산으로 가꾸어 왔다. 이러한 민관 협력의 전통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져서, 영남루의 보존과 관리, 현양 사업에 관내의 모든 민간 단체와 사회 조직이 함께 하는 것은 다른 지역에서 쉽게 보지 못하는 점으로 특기해 둔다.

### 3. 건축적 특징

#### 1) 건물 구성

영남루의 가장 큰 특징은 대루를 가운데 두고 그 좌우에 작은 건물 두 개를 월랑과 현랑으로 연결하여 하나의 건물군을 이루고 있는 모습이다. 이처럼 익루 또는 익헌을 갖는 경우는 남원의 광한루의 예가 있으나, 광한루가 하나의 익루를 갖는 것과 달리 영남루는 좌우에 두 개의 건물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좌우에 있는 두 개의 작은 건물 즉, 능파각(동)과 침류각(서)는 각각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작 단층집으로, 누각 이라기보다는 온돌과 마루를 갖는 단층의 정사(精舍)와 비슷한 형태를 띤다. 그러므로 정면 5칸, 측면 4칸의 큰 다락집과는 우선 건축 형태부터 크게 차이가 나며, 두 건물 사이에도 위치 뿐 아니라, 시단의 높이, 실내 공간 구성 등에서 차이를 가져서 그 성격과 용도에 차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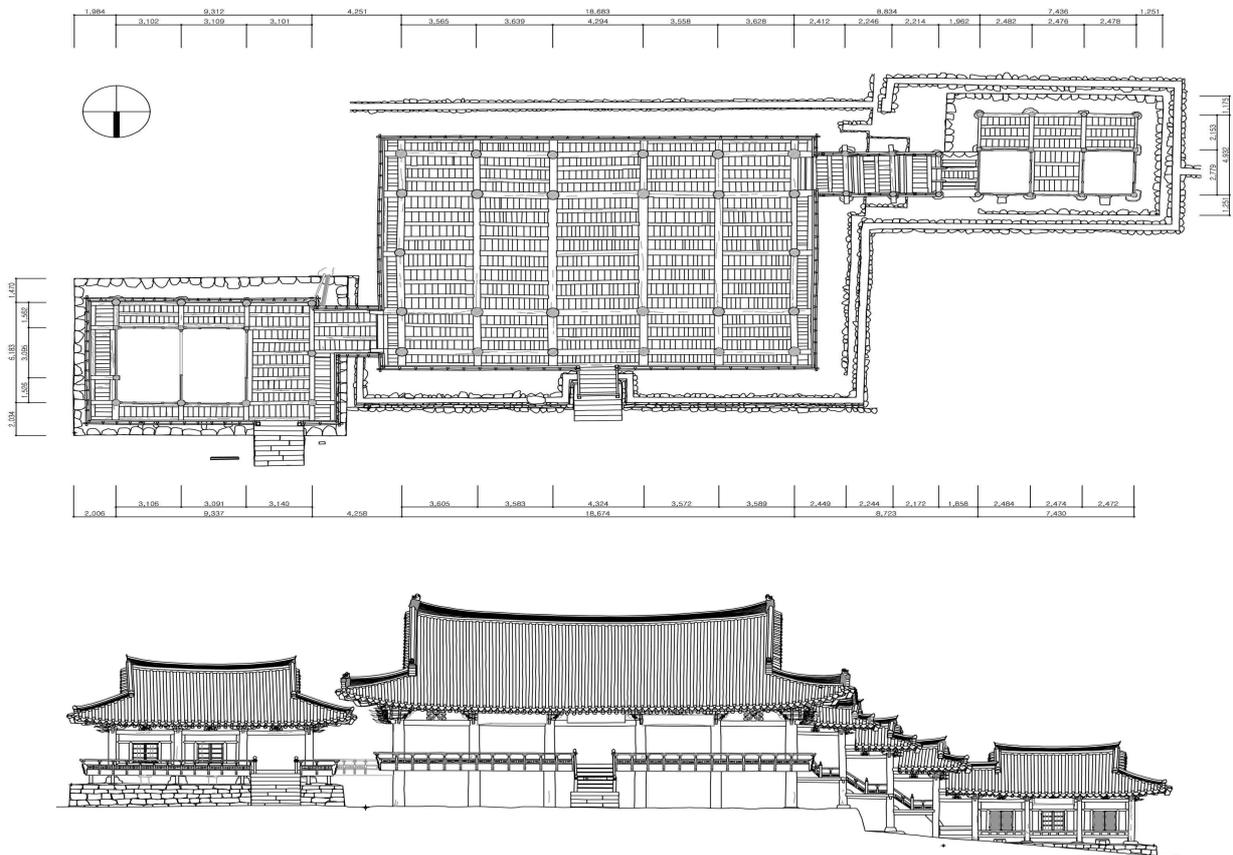


그림 7 영남루 평면도와 북측(마당쪽) 입면도 (왼쪽부터 능파각, 대루, 여수각, 침류각, 『보고서』에서 전재)

먼저, 능파각은 대루와 같은 높이의 대지 위에 있으며, 능파각 아래로 높은 석축형 기단을 쌓아 실내 바닥 높이를 대루와 비슷하게 맞추고, 두 건물 사이를 난간을 둘러싼 현랑으로 연결하였다. 그래서 대루에서 언제나 편하게 이동할 수 있고, 대루에서 행사를 하는 동안, 혹은 그 전후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사적이고 난방이 되는 공간(온돌)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에 반해, 침류각은 좀 더 독립적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일단 침류각이 세워진 장소는 대루 및 능파각에서 한단 아래로 내려온 장소여서, 기단을 높이 쌓는다고 하더라도 실내 바닥의 높이를 대루와 맞추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침류각은 일반적인 기단의 높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대루와의 연결에는 계단을 덮은 층층각을 이용하였다. 이러한 폭 한칸 길이 세칸의 층층각은, 매칸마다 지붕과 바닥틀의 높이를 달리한 층층각으로 꾸미고, 그 바닥틀 위에 계단을 설치한 독특한 것이다.

평면의 구성에서도 능파각은 사방으로 난간을 두른 뒷마루를 두고, 거의 한 가운데에 3칸을 온돌 두 칸과 마루 한 칸으로 꾸몄는데, 침류각은 앞뒤 두칸폭을 전후로 구획하여, 밀양강에 면한 전면의 세 칸은 다 마루로 하고, 후열의 세 칸은 가운데칸만 마루로 하고 양 옆칸은 온돌로 하였다. 이러한 침류각의 구성은 영남지역에 있는 계변(溪邊) 누정의 일반적인 형식이다.

말하자면, 능파각은 실내 공간 전체가 탁 트인 마루로 되어 있는 대루가 완전한 누정의 역할을 하기 위해 필요한, 폐쇄적인 실내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한 보조적인 건물이라는 성격이 강하고, 이 비슷한 사례가 남원의 광한루에도 있다. 한편, 침류각은 그 자체가 독립적인 강변 누정과 같은 성격을 가지며, 대루와는 어느 정도 독립된 기능을 담당하는 건물로 보인다. 이는 능파각이 대루와 같은 높이로 연결하는 현랑의 제도가 이미 1542년에 만들어진데 비하여, 침류각을 대루와 연결하는 월랑은 영남루의 현랑 조성기인 1844년에 비로소 만들어지는 연혁과도 상통한다.

## 2) 대루

각 건물의 건축적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대루는 정면 5칸, 측면 4칸의 당당한 다락집으로, 정면 5칸은 가운데 정칸만 14.4척(4,295mm)으로 크게 하고, 좌우의 협칸과 퇴칸은 모두 12척(3,579mm~3,679mm)으로 맞추어 전체 길이가 18.7m에 이르고, 측면 4칸은 가운데 두 칸은 정면의 협칸과 같이 12척(3,619mm~3,644mm)으로 한 대신 앞뒤의 두 협칸은 크기를 줄여 8척(2,454mm~2,486mm)으로 하여 전체 12.3m에 달하여 전체적으로 가로세로 3:2의 비례를 갖는다. 전체 바닥면적은 약 70평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건물이라 할 수 있는 경복궁의 경회루(289평)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것을 제외한 누정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것이다. (표1. 참조) 사방으로 마루를 1.1m 정도 튀어 나간 현

함을 만들고 계자각 난간을 둘렀기 때문에 실제 공간은 더 넓어 보인다.

표 1. 주요 누정의 규모 비교 (보물로 지정된 것 중 발췌)

건물명	칸수 (정면×측면)	정면 크기 (mm)	측면 크기 (mm)	가로/ 세로 비	면적(㎡/ 평)
밀양 영남루 (대루)	5×4	18,688	12,278	1.522	229.45 (69.5평)
제주 관덕정	5×4	17,402	12,920	1.347	224.83 (68.1평)
남원 광한루 (본루)	5×4	15,420	10,821	1.425	166.86 (50.6평)
창덕궁 주합루	5×4	13,662	9,312	1.467	127.22 (38.6평)
강릉 경포대	5×5	11,960	9,770	1.224	116.85 (35.4평)
정읍 피향정	5×4	11,860	8,260	1.436	97.96 (29.7평)
* 경북궁 경회루	7×5	33,797	28,246	1.197	954.63 (289.3평)
** 구례 화엄사 각황전	7×5	26,661	18,222	1.463	485.82 (147.2평)

기단은 막돌 허튼층 쌓기로 하였는데, 북쪽의 마당쪽과 남쪽의 강변 사이에 원지형의 고저차가 약 1.5m 정도 있어서, 경사형 기단으로 쌓아 그 윗면을 평탄하게 하였다. 기둥열의 구성은 누하에서는 정면 5칸, 측면 4칸의 주망의 교차선에 모두 기둥을 세워 모두 30본의 누하주를 두었고, 누상에서는 종도리 선에 맞추어 한 가운데 있는 내고주 4본을 감주하였기 때문에, 둘레의 평기둥이 모두 18본, 전후의 내고주가 8본 해서 모두 26본의 기둥이 사용되었다. 기둥은 모두 원기둥이 사용되었고, 누하주는 대개 지름 550mm~600mm 의 것을 사용하였지만, 측면 변주에서는 이보다 한 치 이상 작은 것도 사용하였고, 특별히 두치 이상 큰 것도 있어서 일정치 않다. 높이도 2,427mm~2,636mm 의 크기를 갖고 있어서 편차가 큰데, 이는 자연석 주초와 지면의 높이차 등에서 비롯된 것이다. 누상주의 경우 둘레기둥은 지름 489mm~504mm로 비교적 균질하고, 다만 네 모퉁이의 우주는 545mm~585mm로 큰 지름의 것을 사용하였다. 높이는 2,655mm~2,708mm로 하여 누하주보다 조금 가늘고 높은 부재를 사용하였다. 내고주는 지름을 529mm~593mm 정도로서 누하주나 우주와 비슷하지만, 높이는 둘레기둥보다 약 1m 가량 높은 것을 사용하였다. 주심도리와 하중도리 사이의 높이차가 1,330mm~1,403mm 정도 있기 때문이다.

상부 가구는 2고주 7량가의 구성을 갖는데, 평주 위에서 내고주 위로 걸리는 뒷보는 우미량과 같이 큰 곡률을 가진 보가 사용되었고, 특히 좌우 측면의 중앙 기둥 위에서 사용된 층량은 그 내단이 대들보 위에 걸리기 때문에 특별히 곡률이 크다. 그 외 측면 협간에 있는 층량은 내단이 내고주 위에 걸리기 때문에 일반적인 뒷보와 같은 곡률을 갖는다. 즉, 층량과 뒷보가 비슷한 모양이라는 뜻인데, 일반적으로 뒷보가 수평으로 뻗어 내고주의 상부에 꼽히는 것을 감안하면, 뒷보가 층량을 따라했다고 보는 것이 적당할 것이다. 내고주 위에 걸구된 뒷보의 내단 보뿔목에 용두를 초각한 것 역시, 일반적인

뒷보의 경우와 다르고, 층량에서 흔히 사용하는 수법이다. 특히, 측면 가운데 들레기둥 위에 있는 곡률 선 층량은 대들보 선에 맞추어 가설한 눈썹 천장을 뚫고 올라가 그 내단부가 대들보 위에 걸치는데, 그 끝을 용두로 조각하여 눈길을 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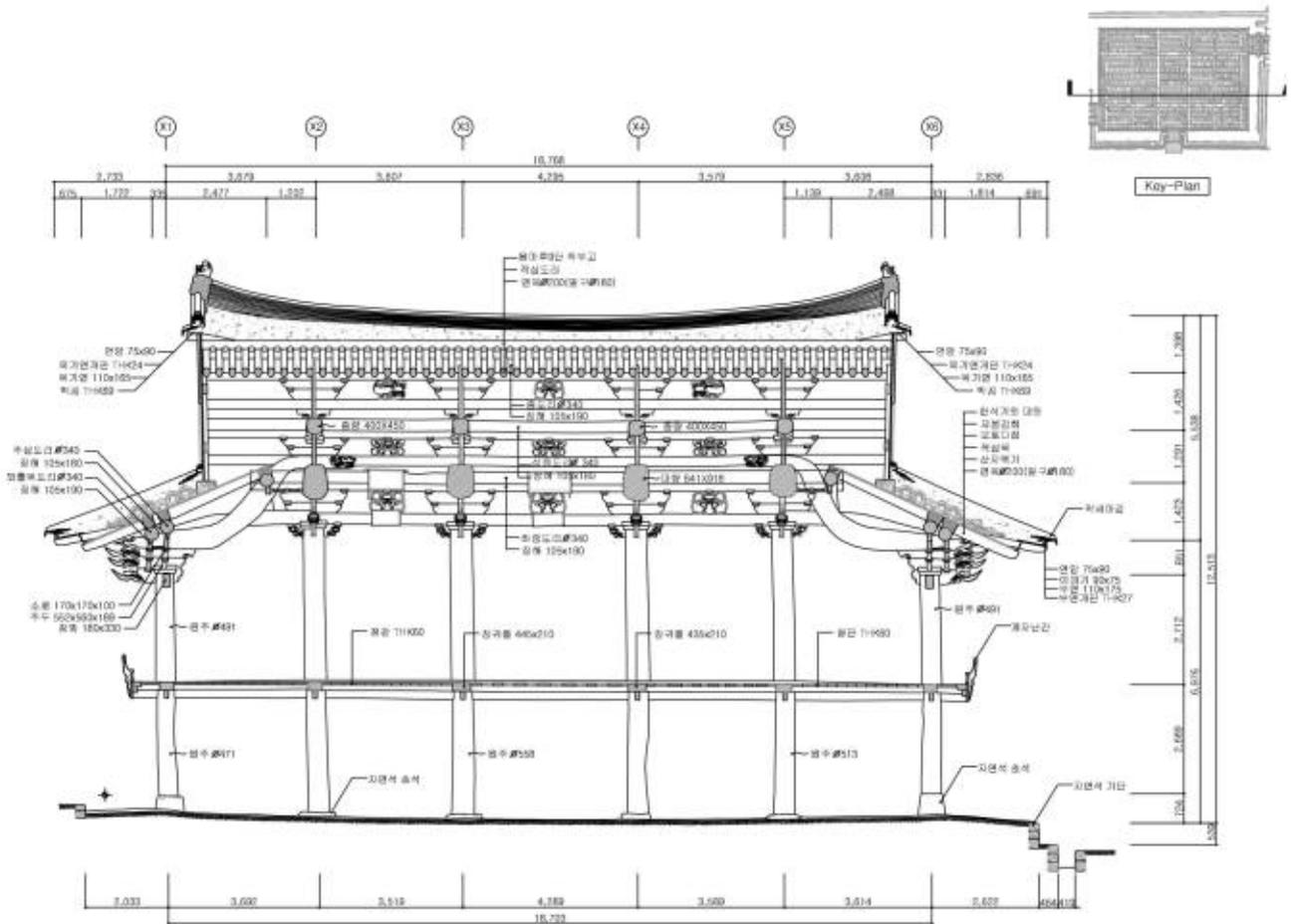


그림 8 영남루 대루의 황단명도 (『보고서』에서 전재) 독특한 곡률의 측면 중앙의 층량과 별장여 등의 도리 방향 보강재, 첨차, 화반, 대들보와 종보의 구성 등을 볼 수 있다.

지붕틀은 대들보의 양단에서 하중도리를 받치고, 그 윗면 중간에 2분의 판재와 첨차로 짠 동자주를 두어서 상중도리와 종보를 받친 다음, 종보 윗면 한 가운데에 대공을 두어 종도리를 받치는 7량가의 구성이다. 내고주가 들레 기둥에 비해 1m 가량 높지만, 그것만으로 필요한 도리의 높이차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내고주 위에 다시 뒷보의 내단과 짜이는 뜯 장여를 두고, 그 위에 대들보 보아지와 짜이는 2단의 첨차를 쌓은 다음, 하중 도리와 장여를 받치고 있다. 상중 도리와 종대공 아래의 판대공에도 역시 직각 방향으로 첨차를 두어 짜임을 단단히 하고 있다. 또, 보칸의 길이가 12m가 넘기 때문에, 서까래는 하중도리에서 처마도리 사이의 장연 외에, 하중도리와 상중도리 사이에, 그리고 상중도리와 종도리 사이에 각각 단연을 두는 3단 구성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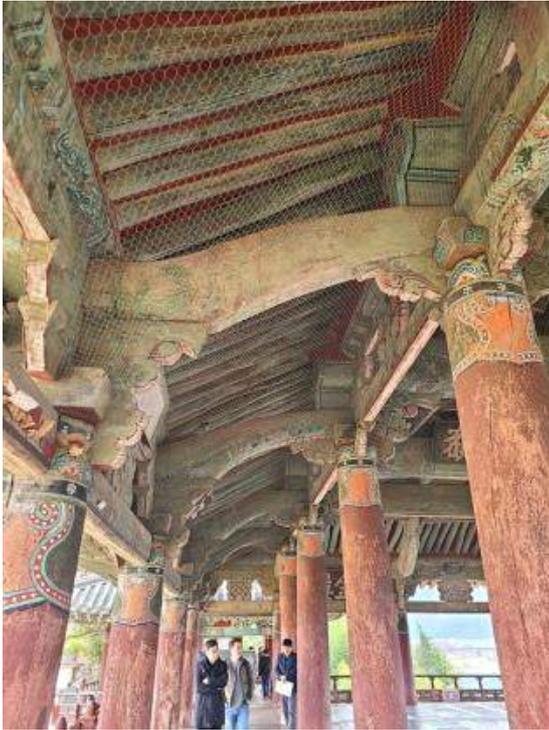


그림 9 전면(북측면) 뒷보의 모습. 마치 일반적인 층량처럼, 둘레 기둥 위에서 내고주 위로 곡률을 가지고 걸쳐져 있다.(2023.03.17.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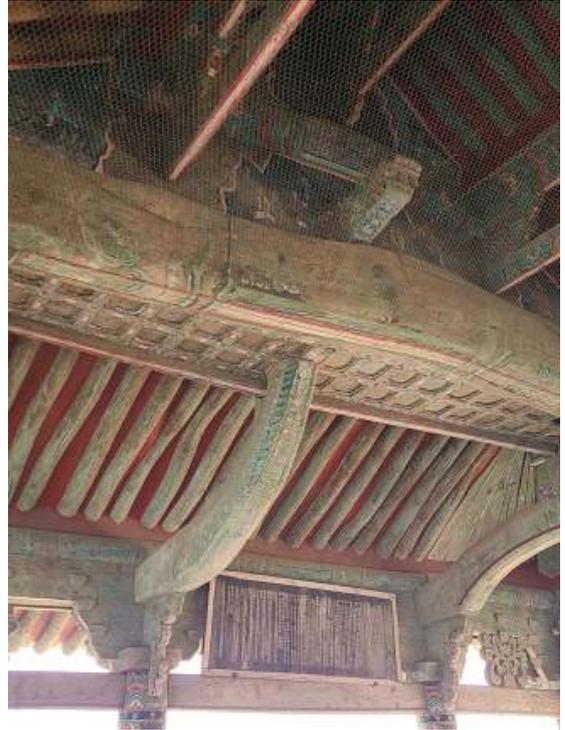


그림 10 측면 중앙 기둥 위에 있는 층량의 모습, 내만곡한 곡선을 이루며 눈썹지붕을 뚫고 올라가 대들보 위에 걸려 있다. (2023.03.17. 촬영)

공포는 외1출목 3익공 형식을 갖는다. 익공 외단의 초각은 모두 양서형 위에 연화와 연봉 등을 덧붙여 화려하게 가공하고, 내단은 주두 아래에서부터 보 아래까지 한 몸으로 운궁 보아지 형태로 짜고 2익공 위에 연봉을 초각하였다. 귀포에서는 전각포를 사용하였으며, 귀한대의 가공은 다른 익공과 같이하고, 출목 소첨과 대첨은 좌우대를 사용하였다. 3익공 위 보빨목에 봉두를 초각하여 붙였고, 전각포에서는 같은 자리에 역시 봉두를 초각을 한 4익공을 끼워 외목도리의 짜임을 받쳤다. 주심도리 아래엔 가침 장여를 붙여 출목도리의 장여 선에 맞추어 순각판을 설치하였다.

첨차는 주심 첨차와 출목 첨차의 하단 초각이 확연히 구분되는데, 주심 소첨과 대첨의 경우 소로 아래를 직선으로 수직 및 경사지게 가공한 소박한 형태로 한 데 비해, 출목 소첨과 대첨은 양단부에 익공의 내외단에서 볼 수 있는 연봉을 초각한 화려한 형태로 초각한 점이 다르다. 크기는 소첨 대첨 모두 주심 첨차가 출목첨차보다 크다.

채주두를 두지 않은 점, 외1출목에 화려하게 추각한 소첨차와 대첨차를 사용한 점 등은 조선후기 출목익공의 특징으로 볼 수 있고, 익공의 가공을 판재를 이용한 평면적 가공에 충실하게 한 점, 익공의 초각을 양서와 연화가 함께 있는 모양으로 한 점 등 역시 조선후기 다포계 공포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정리하여, 이러한 공포 형식은 1844년

중수의 시점과 부합하는 양식사적 특징을 보여준다.



그림 11 들레 기둥 위에 있는 1출목 3익공의 공포 (2023.03.17. 촬영)



그림 12 귀포에 사용된 전각포의 모습. (『보고서』에서 전재)

공포 이외에도 여러 곳에서 조선 후기의 장식화 경향이 보인다. 내고주의 상부에서는 텃보(혹은 충량)과 하중도리의 장여가 주두 위에서 직각으로 짜이는데, 이 주두 아래 보아지 겸 장여받침의 역할을 하는 부재에도 익공 제공에서와 비슷한 초각이 보이고, 동자주 및 대공에 사용된 보아지 혹은 첨차와 화반 모양으로 가공한 판대공과 동자주 자체에서도 비슷한 초각이 사용되었다. 또 측면 중앙의 충량 2본과 전후면 가운데에 있는 모두 8본의 텃보 내단에 용머리를 입체적으로 가공하여 실내 공간을 꾸미고 있고, 귀면(鬼面), 서수(瑞獸), 화병(花瓶)과 연화 등 다양한 장식문양으로 초각된 화반이 사용되었다.

용모양은 대들보의 단청에서도 확인되며, 이는 진기한 사례이다. 또 네 모퉁이 있는 선자연의 아랫부분에 녹색으로 바탕을 칠하고 그 위에 청룡, 백호, 주작, 현무의 사신도를 그려 넣었는데, 이 역시 다른 예를 찾기 힘들다.



그림 13 영남루의 천장 지붕틀의 구성 (2023.03.17. 촬영)



그림 14 추녀 선자연 하부에 그려진 사신도 단청 (2023.03.17. 촬영)

### 3) 능파각

능파각은 높은 석축형 기단 위에 있는 단층의 팔작지붕 집으로, 정면 3칸 측면 2칸의 규모를 갖는다. 그러나 실내 공간의 구성은 동측의 2칸은 한 칸 반 크기의 온돌방과 반 칸 크기의 뒷마루로 구획해서 사용하고, 맨 서측 한 칸은 두 칸을 터서 통칸의 개방적인 마루로 하였다. 이 부분은 바로 서쪽에 있는 대루와 이어지는 공간이어서 그 과정 공간, 준비 공간의 역할을 위해 전체를 마루로 만든 것으로 보인다. 대루와의 사이에 한칸 폭의 연결마루인 현랑이 있는데, 대루의 바닥과 높이차가 있어서, 대루쪽에 붙여서 2단의 계단이 있다.

한편 뒷마루가 없는 나머지 3면, 즉 동서의 양 측면과 마당으로 향하는 북쪽 면에는 추가로 기둥 바깥으로 현함을 설치하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집 전체로 계자각 난간이 딸린 현함이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게다가 남쪽에 있는 뒷마루의 폭은 1,510mm이고, 나머지 세면에 있는 현함은 1,390mm의 폭으로서, 그 차이가 적기 때문에 실제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은 그 차이를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

석축형 기단의 높이는 마당측(북쪽)이 1,148mm, 강변에 있는 남측이 1,584mm이고, 마당에서의 진입은 서쪽의 마루방 앞으로 난 9단의 거칠게 다듬은 자연석 계단을 이용하여 단면에 실내 바닥의 높이까지 오르게 하였는데, 이처럼 기단으로 오르는 것이 아니라 실내 공간으로 바로 이어지는 계단은 이례적인 것이다. 『보고서』에서는 근대 이후의 개변으로 보고 있다.

주칸은 정면과 측면 모두 매칸 3,043mm~3,109mm로 큰 차이가 없어, 시공 오차나 오랜 시간이 흐른 것을 감안하면 모두 같은 칸치수로 계획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쪽 2칸과 서쪽 1칸의 실내 공간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기둥의 배열 역시 이에 따라 다르게 처리하였다. 서쪽 마루가 있는 부분은 원래의 주망에 맞추어 기둥을 배열하였지만, 온돌방이 있는 동쪽 부분은 방의 크기에 맞추어 기둥을 두었다. 이 기둥은 다른 기둥과 달리 대들보(서측면의 경우 충량)와 직접 짜이는 것이 아니라 대들보 아래를 지탱하는 셋기둥으로 처리하였으며, 따라서 기둥의 형태와 규격도 다르게 하여, 240mm 사방의 각기둥이 사용되었다. 일반적인 기둥이 400mm~450mm 지름의 원기둥이 사용된 것과 차이가 난다.

이 셋기둥은 모두 4본이 사용되었는데, 서측벽을 이루는 부분에는 원기둥이 하나도 없이 중도리를 기준으로 대칭되는 자리에 한 쌍의 셋기둥이 사용되었고, 나머지 두 개의 각기둥은 온돌방의 전면 뒷마루와 만나는 부분에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 셋기둥은 중도리선과도 일치하지 않아서, 상부 구조와 하부의 공간 구성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자유로움을 보여준다. 즉 지붕틀의 도리 간격은 북쪽 주심도리에서 중도리까지가 1,941mm,

두 개의 전후 중도리 사이가 2,159mm, 그리고 중도리에서 남쪽 주심도리까지가 2,097mm로 해서, 조금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3분 변작의 기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뒷마루의 폭은 1,551mm 밖에 되지 않는다.

이 경우 또 하나의 문제는 팔작지붕의 합각부분을 받치기 위한 충량을 어디에 둘 것인가의 문제이다. 서측면의 경우 중앙의 원기둥 위에 충량의 외단을 두면 되지만, 동측면의 경우 충량의 외단을 받칠 기둥이 없다. 그래서 동측면에서는 충량의 외단을 동측면 중앙의 두 각기둥 사이에 있는 장여 위에서 받치고 있다.



그림 15 대루에서 본 능파각의 모습      그림 16 능파각의 익공 (2023.03.17. 촬영)  
(2023.03.17. 촬영)

전체적으로 들레 기둥은 전후면이 각 4본씩 8본, 그리고 동측면엔 각기둥으로 해서 2본, 서측면은 원기둥이 1본 등 총 11본이 사용되었으며, 이 11개의 바깥 들레 기둥 위에 이익공식 공포가 사용되었다. 기둥머리에서 초익공이 창방과 짜여서 주두를 받치고, 그 위에 이익공이 주심첨차와 짜여서 주심도리 장여를 받친다. 익공의 외단은 모두 양서형의 초각과 연봉을 조합한 화려한 초각을 하였고, 주심 첨차는 대루의 주심 첨차와 같이 직선으로 가공하였다. 역시 재주두는 사용되지 않았다. 이익공 위 대들보의 뿔목에는 봉두를 초각하여 끼웠고, 동서 양측벽에서는 측면 주심도리 장여의 끝을 돌출시켜 봉두를 초각하였다. 내주로 사용된 두 개의 각기둥으로 된 셋기둥에는 공포가 사용되지 않고, 다만 보아지와 주두를 두어 대들보를 받치고 있고, 익공이 차지하는 높이만큼 높은 기둥을 사용하였다.

중도리 아래의 동자주와 중도리 아래의 대공 모두 판대공으로 짜서 받치고 이에 직각으로 장여아래에 첨차를 두어 결구를 단단히 하였다. 기둥 사이엔 독특한 모양의 호반을 매 주간에 사용하였다. 천장은 온돌방에서는 지천장으로 서까래를 가렸고, 마루에서는 합각의 아래 부분을 가리기 위한 눈썹천장을 우물천장 형식으로 짜넣었다. 창호는 온돌방과 마루 사이에는 4분합의 들어열개를 동측벽의 두 각기둥 선에 맞추어 설치하였고, 온돌방의 남측과 북측벽엔 머름을 둔 위로 쌍여단이 살창을 중앙에 두었다. 온돌방 두 칸 사이벽에도 미단이가 설치되었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재는 문열굴만 남아있다.



그림 17 능파각의 온돌방 내부 (2023.03.17.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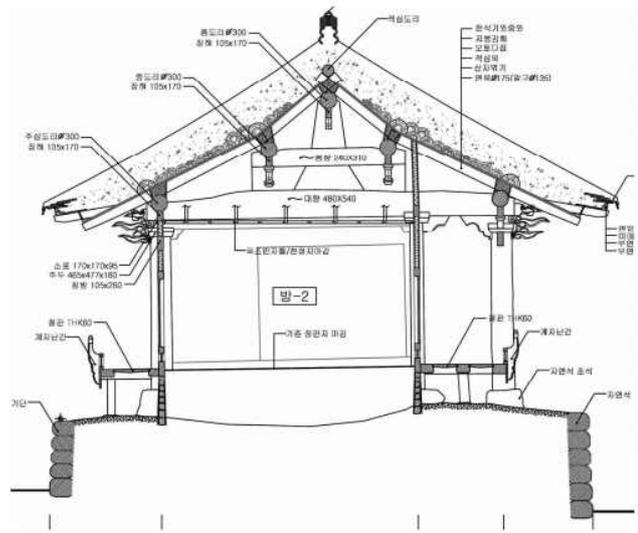


그림 18 능파각 단면도 (『보고서』에서 전재)

#### 4) 침류각

침류각은 대루의 서편 한 단 낮은 지대에 있는 정면 3칸 측면 2칸의 단층 팔작집이다. 대루와의 사이엔 도리칸 4칸, 보칸 1칸의 층층각인 여수각으로 연결되어 있다. 칸수는 능파각과 같으나, 칸치수는 도리칸으로는 모두 2,476mm~2,482mm, 즉 8자를 기준으로 하고, 보칸으로는 남쪽의 마루쪽은 2,153mm(7자), 북쪽의 온돌방이 있는 곳은 2,779mm(9자)로 하여서 능파각이 가로세로 모두 10자를 기준으로 칸살이한 것보다는 조금 작다. 전체적인 평면의 가로세로 비례는 약 3:2로 대루, 능파각과 모두 같다.

평면의 구성은 능파각과 확연하게 달라서, 밀양강을 향한 남쪽의 3칸은 전무 마루로 되어 있고, 북쪽의 3칸은 가운데 칸만 마루로 하고 양옆에 온돌방을 들였다. 이러한 구성은 전면은 계곡으로 열린 경치를 감상하고, 후면 중앙의 마루는 출입구로 사용하며, 그 좌우의 온돌방으로 겨울의 추위에 대비하고 좀 더 사적인 용도에 대응하는, 영남 지역의 계변(溪邊) 정자에서 즐겨 사용하는 형식이다.

건물 전체는 낮은 기단 위에 있고, 건물이 놓인 곳의 미세 지형이 대루쪽이 높고 서쪽

으로 낮아지는 완만한 경사가 있는 데, 이것을 기반으로 극복하였다. 기단은 거칠게 방형으로 다듬은 자연석을 사용하였는데, 동측은 한 단으로 쌓고, 서측은 돌의 크기에 따라 2~4단을 이루고 있다. 초석은 모두 자연석 초석을 사용하였다.

기둥은 전후 바깥 열에 위치한 8분의 기둥은 원기둥으로, 가운데 열에 위치한 4분의 기둥은 각기둥으로 하였다. 그런데 이익공으로 된 공포는 바깥 둘레에 있는 10분의 기둥 위에는 모두 두고, 안에 있는 2분의 내주에는 두지 않았기 때문에, 내주 2분은 다른 기둥들보다 그만큼 높이가 더 높다.

익공의 초각도 능파각과 비슷하게 연봉과 쇠서를 조합한 형식으로 가공하였고, 대들보와 층량의 뿔목에 봉두를 초각하여 끼운 것도 같다. 전각포를 사용하였으며, 귀한대 익공 위에도 봉두를 초각하였다.

상부가구는 전후의 바깥 둘레기둥에 걸쳐 대들보를 올리고, 그 위에 역사다리꼴의 판자형 동자주로 종보와 중도리를 받치고, 종보 위에서 이번에는 사다리꼴의 판대공으로 중도리를 받치는 5량가의 구성을 갖는다. 도리의 간격은 후면(남쪽) 주심도리에서 중도리까지가 1,637mm, 두 개의 중도리 사이가 1,580mm, 전면 중도리에서 전면(북쪽) 주심도리 사이가 1,738mm로서, 조금 오차가 있지만 대개 3분 변작법을 기준으로 짠 것으로 보이며, 이 역시 능파각과 같다.



그림 19 영남루의 전경. 오른쪽에서부터 침류각, 여수각, 대루, 그리고 멀리 능파각이 보인다. 자연의 원지형을 그대로 살리면서 기단과 층층각 등을 이용하여 전체를 연결하고 있다. (2023.03.17. 촬영)

천장은 온돌방에만 종이반자를 두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는 상부의 지붕가구가 그대로 노출된다. 전후의 동자주 위에서 종보가 짜이고, 그 위에서 중도리와 장여를 받치는데, 종보의 채목 규격이 도리와 비슷하고, 또 대들보와 달리 정방형에 가까운 모를

죽인 방향의 단면을 가지고 있어서 마치 보가 아니라 창방재처럼 보인다. 나아가 중도리 아래엔 장여가 있고, 이를 다시 동자주와 직각으로 짜인 첨차가 받치고 있는데 비해, 종보는 단독으로 동자주 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마치 보보다 도리가 강조되는 묘한 구성을 갖는다. 또, 중앙에 일렬로 위치한 각기둥 4분의 사이엔 창방을 두어서 온돌방의 천장이 짜이는 틀을 만들고, 구조를 튼튼히 하는 역할을 한다. 전체적으로 도리 방향의 부재들이 돋보이는 구성이다.

중도리는 좌우로 연장되어 외기도리와 왕지로 짜이고, 외기도리는 측면의 기둥 위에서 대들보에 걸친 층량 위에서 동자주로 받치고 있다. 층량도 종보와 같은 모양으로 가공하였다. 외기도리 안쪽으로도 따로 눈썹천장을 달지 않고 그대로 노출하여 중도리와 판대공이 보인다.



그림 20 침류각의 상부 가구 구성. 중도리 아래에 직각 방향으로 (2023.03.17.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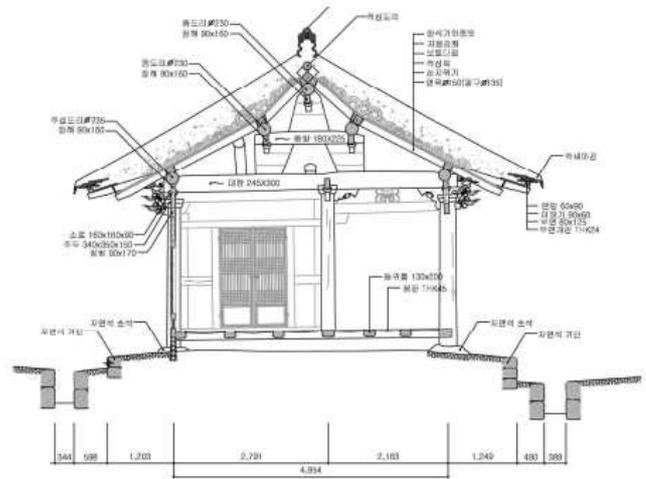


그림 21 침류각의 단면도 (『보고서』에서 전재)

창호는 두 온돌방에는 전후와 서쪽 온돌의 서쪽벽 등 외부와 면하는 곳은 모두 아래에 머름을 둔 쌍여단이 세살창을 달았고, 동쪽 온돌의 동측벽, 즉 여수각과 접하는 벽은 전체를 흙심벽으로 막았다. 그리고 두 온돌이 가운데 마루에 면하는 사이벽에는 세살문을 두어 출입에 사용하였고, 가운데 마루의 후면벽만 판장문으로 하였다.

### 5) 여수각

여수각은 서로 높이차가 나는 침류각과 대루 사이를 연결하는 계단과 이를 지붕으로 덮은 길이 4칸, 폭 1칸의 월랑이다. 폭 방향의 칸치수는 2,469mm로서 대루의 서측면 협칸의 치수에 맞추었는데, 침류각의 동측면 칸치수와는 일치하지 않아서, 침류각 쪽에서는 한쪽 도리는 기둥 위에 놓이지만, 다른 한쪽 도리는 기둥이 아닌 창방 위에 걸쳐 있다. 길이 방향 각 칸의 치수는 대루 쪽에서부터 차례로, 2,412mm, 2,246mm,

2,214mm, 1,962mm의 크기를 갖는다. 대루와 침류각이 먼저 있었고, 그 두 건물의 외곽 벽면선 사이의 간격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3칸으로 나누면 너무 크고, 4칸으로 나누면 좀 작아서 고민한 흔적이 느껴진다. 실제로 4칸 길이지만 지붕은 3단으로 나누었는데, 침류각에 접한 마지막 제4칸은 여수각의 제3칸의 지붕과 침류각의 처마로 겹쳐 덮였다.

전체 구조는 간단하여 가운데 3쌍의 기둥을 나란히 두고, 양 끝은 각각 대루와 침류각의 기둥 및 창방에 기대어 상부 가구를 짜서 전체 4칸의 몸체를 만든 다음, 매 칸마다 층바닥을 먼저 짜고, 그 위에 계단을 2단씩 두어 차례로 오르내릴 수 있게 연결한 것이다. 제일 아래층의 층바닥은 다시 침류각 기단 면에서 2단의 계단을 올라와야 하므로, 전체적으로 층바닥 4단과 계단 10단(즉 5x2단)을 합하여 모두 14단의 계단을 만들어서 침류각의 기단 면과 대루의 바닥면을 연결하였다. 침류각의 기단면에서 대루의 바닥면까지의 높이가 약 4.6m가 되므로, 각 단은 30cm 가량의 높이를 갖는다.



그림 22 여수각의 남측 입면 (『보고서』에서 전재)



그림 23 여수각 내부 계단 (2023.03.17. 촬영)

평면 구성이 간단한 것과 달리, 지붕들은 팔작지붕을 3층 겹쳐 이은 대단히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갖는다. 단칸의 폭에 팔작지붕을 이어야 하고, 계다가 한쪽은 박공이고 다른 쪽은 합각을 갖는 반쪽 팔작지붕을 좁은 간격으로 위아래 겹쳐 쌓아야 하고, 또 그 양 쪽 끝에 있는 대루 및 침류각의 처마와 충돌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남원 광한루 전면의 월랑과 비교할 만 한데, 광한루의 월랑은 길이 3칸에 지붕도 3층이지만, 위의 두 층은 맞배지붕으로 간략히 처리하였다. 영남루의 여수각에 비하면 한결 단순한 처리 방식이다.

단칸 폭에 합각을 갖는 팔작지붕을 올리기 위해 여수각에서는 좌우의 칸 사이의 서로 높이차가 있는 주심도리 위에 곡선으로 경사진 마루대를 걸고, 이에 지탱하여 추녀와 선자서까래를 걸쳐 놓는 방법을 택하였다. 이러한 마루대의 사용은 농가의 부엌이나 모정 등의 소규모 초가집에서 우진각 지붕(모지붕)의 지붕틀을 만들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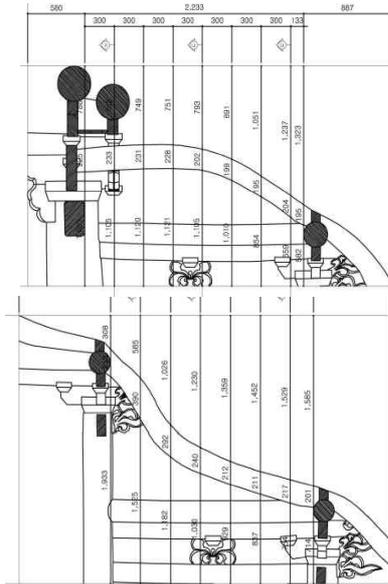


그림 24 동측 제1칸과 제3칸에 사용된 곡선의 마루대( (『보고서』에서 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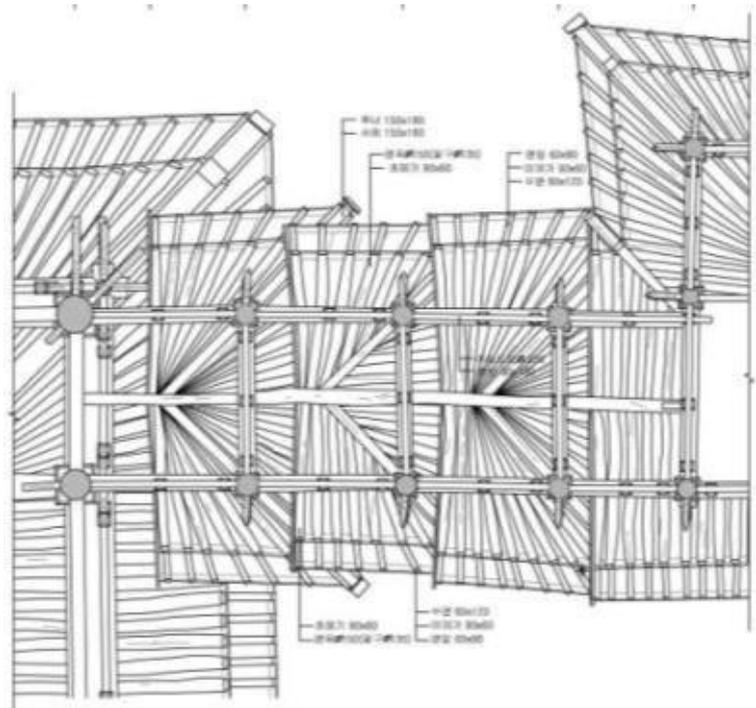


그림 25 여수각의 천장 양시도 (『보고서』에서 전재)

여수각의 가운데 있는 3쌍의 기둥 중 대루 쪽에 있는 것은 대루의 기단 위에, 침류각 쪽에 있는 것은 침류각의 기단에 초석을 두고, 기둥의 길이를 달리하여 전체적인 높이를 맞추었으나, 한 가운데 있는 한 쌍의 기둥은 이를 위한 별도의 석축형 기단을 쌓고 기단면을 만들어 초석을 두고 기둥을 세웠다.

공포는 영남루의 다른 건물에서 보는 것과 비슷한 무출목 이익공식 공포를 사용하였다. 여수각은 1844년이라는 명확한 연혁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통 목조건축의 구법을 이용하여, 경사진 계단실을 수용하는 층층각이라는 독특한 기능의 건축물을 만들어내었다는 점, 그러면서도 지붕을 여러 층으로 분절하고, 단칸 폭이라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보기 좋은 팔작지붕을 겹쳐 쌓아 완성하였다는 점에서 우리 건축 전통의 다양성과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모범사례로 특기할만하다.

## <종합의견>

밀양 영남루는 경상남도 밀양시 내일동 40번지, 밀양강의 북변 절벽 위에 서 있는 객사 부속의 관영 누정으로서, 중앙에 대루를 두고 그 좌우에 능파각과 침류각을 나란히 늘어놓고, 그리고 이들 사이를 연결하는 현랑과 월랑으로 구성된 복합 누정이다.

영남루가 서 있는 장소는 밀양읍성의 남단, 밀양강에 면한 절벽 위의 경승지로, 일찍부터 이 지역의 명소로 인식되어 불교 사찰이 있기도 하였으며, 고려말 공민왕 때 처음 관영의 누정이 만들어지고 영남루라 이름하였다. 조선시대에 들어서도 그 전통은 이어지고 확장되어, 역대 밀양 부사들에 의하여 계속해서 중축과 중수가 이루어져서, 1542년(중종 37)에는 현재와 같이 대루와 능파각, 침류각의 세 건물의 구성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이 건물들은 임진왜란을 만나 전소하고, 곧바로 중건하고 중수를 거듭하였으나, 또다시 1844년(순조 34)에 대화재로 소실된 것을, 1844년(헌종 10)에 중건한 것이 현재에 이른다. 이때 침류각과 대루 사이에 여수각을 설치하였다.

영남루의 명성은 이미 고려시대부터 전국적으로 알려졌으며, 밀양을 방문하는 사람치고 영남루를 올라가 시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밀양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서의 위상을 유지해 왔다. 현재 영남루 안에 걸려있는 많은 편액과 더불어, 영남루를 제한 시문만 해도 모두 468명이 지은 874수에 이른다는 것이 이러한 사정을 반증하며, 멀리 중국 명말의 백과사전인 『삼재도회』에도 우리나라 누정 가운데 유일하게 등재될 정도로 영남루의 명성은 높았다.

영남루의 대루는 정면 5칸, 측면 4칸의 당당한 팔작 다락집으로, 궁궐을 제외한 관영의 누정 가운데 최대의 규모를 자랑하며, 가운데 열의 기둥을 감주하고 도리 방향으로 가로채를 보강하여 간결하고 힘있게 구성한 2고주 7량가의 상부 가구 짜임, 우미량 형태를 갖는 뒷보와 거꾸로 만곡된 층량 등 축 부재의 크기와 형태, 용과 사신도의 단청과 용머리 초각 등의 세부 의장의 측면에서 다른 곳에서 찾아보기 당당하고 힘찬 세부 기법이 돋보인다.

능파각과 침류각은 그 자체로는 작은 누정 및 정사와 같지만, 대루와 더불어 객사 부속의 관영 누정이 가져야하는 기능을 완성하는 주요한 구성 요소이다. 이들이 각각 현랑과 월랑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복합 누정을 만든 것은 우리나라에서 다른 예를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것으로서 가치가 크다.

층층각인 여수각은 그 구성의 정교함과 아름다움이 다른 예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우수하여서 우리나라 전통 건축의 외연을 확장하는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영남루는 1844년 중건된 것으로서 현황 조성 시기는 조금 뒤이지만, 같은 이름과 거의 같은 형식으로 오랜 기간 같은 장소에 존재해왔으며, 그 장소가 갖는 탁월한 경관과 어

우리져 수많은 인사들이 탐방하고 교류하고 시문을 남기는 등의 역사성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누정 건축의 역사성을 평가하는데 인문적, 경관적 가치는 매우 중요하다. 건축적인 측면에서도 지방 관영 누정 중 최대의 규모를 자랑하는 대루와 좌우의 익루, 그리고 이를 연결하는 현랑과 월랑 등으로 된 복합누정이라는 점과 상부 가구의 구성과 세부 의장에서 다른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탁월함이 돋보여서, 가히 지방 관영 건축의 최고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아가 영남루의 공간을 가꾸고 사랑하는 지역민들의 정성이 조선시대는 물론, 일제강점기의 밀양보승회 활동을 비롯하여 한국전쟁 후의 복구사업과 여러 수해 피해의 복구사업, 그리고 현재의 영남루 일원 정비사업 등 쉼 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도, 역사문화자산이 지역에서 갖는 역할과 의미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만하다.

이상의 상황을 종합하여, 밀양 영남루의 국보 지정승격이 적당하다고 추천한다.

#### ※ 대상 문화재의 핵심 보존가치

대루와 능파각, 침류각, 그리고 현랑과 월랑인 여수각을 포함한 건축군 일체의 구성.  
대루에 남아있는 부재 초각과 단청 등의 세부 의장.  
대루에 남아있는 각종의 현판과 시문의 편액.  
영남루가 자리한 장소 주변의 자연과 식생 및 사주문과 구 객사 등의 부속 시설.  
영남루에서 바라보는 경관.

##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23.03.17.	대상문화재	밀양 영남루	
조사자	성 명	○○○	전공 분야	건축
	소 속	○○○○○○○학교	직위(직책)	부교수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국보)		
	문화재 명칭	밀양 영남루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세부내용 별첨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9월 1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 1.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밀양 영남루는 영남대로(嶺南大路)와 낙동강수로(洛東江水路)가 지나가는 밀양을 대표하는 경관으로 알려져 왔다. 15세기 중엽 이후에 조선 초 왜구 문제가 해결된 다음 통신사의 왕래가 본격화되고 경상도 남부지역이 집중적으로 개발되면서, 동래에서 내륙으로 들어와 있는 첫 번째 도시이자 경상도 남부의 중심에 자리한 밀양의 위상이 더욱 높아졌다. 밀양 읍성은 이 시기인 1479년(성종 10)에 축조되었는데, 동북쪽으로는 자연 지형을 이용하고 서남쪽의 평지에 길이 4,670척, 높이 9척의 성벽을 쌓았다. 밀양 영남루는 밀양 읍성의 남쪽 가운데를 차지하고 남천강에 면해 있다. 읍치가 서쪽으로 치우쳐 있고 동쪽으로는 가파른 지형이 시작되기 때문에 밀양 영남루는 자연과 도회의 사이에 위치한다. 이곳에는 밀양의 객관(客館)이 자리했는데, 영남루는 객관의 부속 누각으로 기능했지만 규모와 입지 조건이 오히려 객관의 정청을 능가할만큼 당당한 위용을 자랑했다. 특히, 객사의 양 익현이 담당해야 할 역할을 누각의 익루가 담당하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심화되었다.

밀양 영남루는 빼어난 경관과 교통로 상의 수월한 접근성으로 인해 수많은 관료들과 문인들이 방문하여 글을 남기는 명소가 되었다. 직접 오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이 지은 글을 보고 상상 속에서 글을 짓기도 하였다. 심지어 영남대로와 낙동강수로를 통해 사행(使行)하는 일본인들까지 시를 남긴 경우도 있었다. 밀양 영남루 제영(題詠) 시문 작품 중에서 문헌으로 확인되는 초기의 작품은 고려시대 정지상(鄭知常, ?~1135)의 한시 작품이며, 고려 중기 임춘(林椿, 1148~1186)이 영남루의 전신인 영남사(嶺南寺)의 죽루(竹樓)를 제재로 여러 작품을 남겼다. 영남루에 대한 글은 한시 작품이 가장 많지만, 기문(記文)과 상량문(上樑文)도 적지 않고, 서사 작품과 한글 가사, 시화와 탐방기 등도 전한다. 글의 작자는 조선 전기까지는 관료문인들이 중심이 되다가 조선 후기에는 일반문인들로 확대되었고, 또 밀양을 방문하는 외지 인사들뿐만 아니라 밀양 출신 문인들까지 참여하였다.

영남루 제영 시문작품은 한시작품이 468인에 의한 973수, 산문작품이 24인에 의한 27편, 아랑전설 5인 5편으로, 총 497인이 1,005편을 남긴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중 문과에 급제한 사람은 341인이고, 시호를 받은 사람이 111인이다. 이들 대부분은 당대의 중앙문단을 주도하던 인사들이었고, 그중 후대에까지 영향력을 크게 미쳤던 인사들도 적지 않다. 영남루 제영 한시작품은 고정된 운자를 사용한 엄격한 제약을 바탕으로 발전한 특징이 있고, 이러한 제약이 작자들의 창작 의욕이나 경쟁 심리를 더욱 고취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 결과, 밀양 영남루는 조선 전기부터 일찍이 시(詩)로 이름을 떨치는 누각, 곧 시루(詩樓)로서 명성이 높았다. 평양의 부벽루(浮碧樓)가 중국 사신과의 수창(酬唱)에 집중하고,

진주의 축석루(矗石樓)가 삼장사(三壯士)와 논개(論介)로 주제가 특화된 것에 비해, 밀양 영남루는 누각 자체가 시상(詩想)이 되는 특징이 있었다. 밀양 영남루의 명성은 중국까지 알려져 명나라의 『삼재도회(三才圖繪)』에도 소개되었다.

## 2. 연혁 · 유래 및 특징

### (1) 밀양 영남루의 건축연혁

고려시대 영남루는 사찰 영남사(嶺南寺)에 속한 작은 누정이었다. 정지상(鄭知常, ?~1135)은 고려 예종대(1106~1122)에 쓴 한시 「영남사루(嶺南寺樓)」에서 영남루에서 바라본 아름다운 야경(夜景)을 표현했다. 또, 서하 임춘(西河 林椿, 1148~1186)이 1175년 봄에 남긴 「영남사죽루(嶺南寺竹樓)」라는 시도 전한다. 이처럼 영남사의 작은 죽루는 일찍이 빼어난 경관으로 사랑을 받았던 누정이었으며, 영남사가 폐사된 이후에도 자리를 지켰다. 이에 고려 말 밀양군수로 부임한 김주(金湊)는 낡고 훼손된 누각을 중창하기로 마음먹고, 관장(官匠)에게 진주 축석루의 건축제도를 보고 오도록 했으며, 이윽고 1365년에 영남루를 크게 중창했다. 당시 김주가 쓴 「영남루중수기(嶺南樓重修記)」(1365)에는 집을 반듯하게 넓히고 처마를 겹쳐서 깊게 하니 마루와 기둥이 넓고 높아서 바람과 비를 물리칠 수 있게 되었으며, 마침내 단청을 하니 사치스럽지도 않고 누추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다만, 김주가 새로 지은 영남루는 영남사 죽루의 원래 자리가 아니라 동쪽에 새로 터를 만들어 지은 것이었다.

조선 초기에 밀양부사 안질(安質)은 영남루를 크게 중수하고, 서편의 옛 영남사루 터에 다시 소루(小樓)를 지었다. 소루의 한자는 1442년(세종 24)에 경상도사 권기(權技)가 소루(召樓)로 바꾸어 고대에 선정을 베푼 소부(召父)와 소백(召伯)의 뜻을 잇는다는 의미를 부여했다. 이후 밀양부사 이충걸(李忠傑)이 소루를 증축하고 편액을 임경당(臨鏡堂)으로 고쳤다. 1460년(세조 6)에는 밀양부사 강숙경(姜叔卿, ?~1481)이 영남루를 2칸 증축하고 기둥을 교체하고 단청했다. 보한재 신숙주(保閑齋 申叔舟, 1417~1475)가 써준 「영남루기」(1460)에 따르면, “지금 새롭게 하여 무릇 세 기둥에 주위를 둘러 마룻대를 추가하고, 단청을 베푼니 사치하지도 누추하지도 않다.(今爲新之. 凡三楹, 周以補棟. 施以丹雘, 不侈不陋.)”고 하였다. 이것으로 당시 건축형식을 확정하기는 어려우나, 정면 3칸의 구조에 사면으로 퇴를 두른 모습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정면 5칸, 측면 3~4칸 정도의 규모로서, 현재 영남루의 규모와 유사하다.

이후 1542년(중종 37)에 밀양부사 박세후(朴世煦)가 영남루를 대대적으로 수리했으며, 이때 대루 서쪽에 있던 임경당도 함께 중수하여 당호를 침류당(枕流堂)으로 바꿨다. 한편 대루 동북쪽에는 밀양부사 김영추(金永鍾)가 홍치(弘治, 1488~1505) 년간에 지은 망호당(望湖堂)이 있었는데, 이를 대루 곁으로 옮겨 1칸을 증축하고 빈객들이 오르내리는데 편리하도록 했다. 망호당의 당호는 능파당(凌波堂)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능파당 동북쪽 모퉁이에 처마를 맞댄 3실(室)을 건축하고 각각 심약검율방(審藥檢律房), 사성종자방(使星從者房), 포진의약고(鋪陳醫藥庫)로 사용했다. 이 과정은 기재 신광한(企齋 申光漢, 1484~1555)이 「능파당소기(凌波堂小記)」(1542)에 기록했다. 이로써 영남루는 대루를 중심으로 좌우에 익루(翼樓)를 거느린 대형 누각이 되었다. 현 영남루의 건축 구성은 이때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임진왜란의 피해로 영남루와 경내 부속건물들이 모두 소실되었다. 1608년(선조 41)에 밀양부사로 부임한 기효복(奇孝福)이 먼저 침류당과 능파당을 중건했다. 1642년(인조 20)에 밀양부사 심기성(沈奇成)은 화재로 소실된 능파당을 복구하면서 대루를 함께 재건했다. 1651년(효종 2)에 밀양부사 김응조(金應祖, 1587~1667)가 대루 서북쪽에 전패(殿牌)을 봉안하는 객사를 건축하고 공진관(拱辰館)이라 했다. 밀양읍성의 남문 안에 있었던 객사가 영남루의 서북편으로 옮겨 중건되면서, 영남루 대루 및 익루들에 객사의 성격이 강화되는 계기를 맞았다. 능파당과 침류당은 객사의 익현으로 인식되었다. 1661년(현종 2)에 밀양부사 이지온(李之醜)이 능파당의 마루를 수리하고, 대루·능파당·침류당·공진관 등 경내 주요 건물에 모두 단청을 올렸다.

1722년(경종2)에 다시 화재가 발생하여 대루와 익루가 모두 불에 탔다. 그해 가을에 부임한 밀양부사 이희주(李熙疇)가 공진관을 이건하고, 능파당을 복원하여 객사로 사용했다. 1724년(경종 4)에 비로소 영남루 대루와 침류당을 중건할 수 있었다. 당시 수리공사는 이희주가 「영남루중건기(嶺南樓重建記)」에 기록하였다. 이로부터 70년이 경과한 1793년(정조 17)에 밀양부사 조휘진(曹翬振)이 대대적인 중수 공사를 실시하였다. 1806년(순조 6)에 밀양부사 김재화(金載華, ?~1807)가 영남루 대루의 동편 대량(大樑)을 해체하고 수리했으며, 부식한 서까래를 교체하고, 퇴색한 단청을 새로 칠했다. 1825년(순조 25) 가을에 밀양부사 이화연(李和淵)이 능파당을 수리하였고, 1832년(순조 32)에도 밀양부사 조기복(趙基復)이 기와와 동량(棟樑)을 교체하는 등 전면적인 수리가 있었다.

1834년(순조 34)에 큰 화재가 발생하여 영남루 경내가 다시 전소하였다. 밀양부사 이인재(李寅在)가 1843년(현종 9)에 영남루 중건에 착수하여 이듬해인 1844년(현종 10)에 공사를 마쳤다. 이때 대루의 규모를 확장하는 한편, 대루 서편에 여수각(如水閣)을 지어 대루

와 침류각을 연결했다. 밀양도호부 객사 밀주관(密州館) 또한 크게 확장하였다. 1890년(고종 27) 봄에 밀양부사 정병하(鄭秉夏, 1846~1896)가 2개월 동안 누각을 수리했다. 1894년(고종 31)에는 일본헌병대가 영남루를 옥사(獄舍)로 사용한 적이 있으며, 이후 밀양군수 이도재(李道宰, 1848~1909)가 경내를 정비하고 손상을 입은 대루를 수리했다. 1936년에 밀양 영남루는 보물로 지정되었으며, 당시 화폐 4천원을 투입하여 크게 수리했다. 1955년에 국보 제245호로 승격되었으나,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보물 제147호로 재지정되었다.

## (2) 밀양 영남루의 건축적 특징

밀양 영남루는 중앙의 대루가 남향하고 있고, 동쪽에 능파각이, 서쪽에 침류각이 부속되어 있다. 언덕 아래 위치한 침류각은 여수각이 연결하고 있다.

대루(大樓)는 규모가 큰 장방형 평면의 대형 목조 누각으로, 규모는 정면 5칸, 측면 4칸이다. 정면 길이는 약 18.6m, 측면의 길이는 약 12m로서, 평면비는 약 3:2 정도이다. 칸 치수는 정면에서 정칸이 14척이고 차칸과 협칸이 12척씩이다. 측면에서는 중앙 두 칸을 12척씩 잡고 퇴칸은 8척으로 삼았다. 누상 기둥은 6개의 기둥을 4열 배치하고, 양 측면 중앙에 각각 하나씩 더해 총 26개의 기둥을 사용하였고, 누하에는 용마루선을 따라 중앙부의 마루 하부에도 기둥을 배치하여 총 30개의 기둥을 세웠다. 기둥은 모두 약한 민흘림이 있는 원주이며, 자연스럽게 휘어진 재목도 그대로 사용했다. 초석은 모퉁이의 우주 하부에만 장주형 초석을 사용하고, 그 외 기둥에는 주로 자연석을 거칠게 다듬은 형태의 키가 작은 초석을 사용했다.

대루의 상부가구는 이고주 칠량가 형식이다. 전후 고주 사이에 굽고 긴 대량을 올리고, 고주와 평주 사이에 퇴량을 걸어 지붕틀을 형성하였고, 양 측면에는 충량을 걸었다. 대량 위에는 포대공 형식의 받침을 만들어 종량을 지지하도록 했다. 대량은 상부에 2~3개의 재목을 포개 올리는 수법으로 단면이 큰 부재를 만든 것이 특징이다. 단면 형태는 원형에 가까운 것도 있으나 대개 상부보다 하부의 단면이 더 큰 향아리 모양과 유사하다. 대량의 윗면은 평평하고 바닥면은 전체를 약하게 둥글려 사용했다. 대량의 중앙부는 폭이 약 610mm, 출이 약 808mm 정도의 평균치를 가지며, 단면비는 약 1:1.3 정도이다. 퇴량의 머리는 평주 상부의 삼익공 위에서 주심도리를 받치고, 뒷몸은 고주 위에 놓여 중대공을 받친다. 퇴량의 형태는 충량과 유사하며, 내외 기둥의 높이차에 맞추어 재목을 우미량(牛尾樑)의 형태로 다듬어 사용한 점이 특징이다. 또한 내단에 사실적인 형태의 용두(龍頭)를 조각했

는데 조각 수법이 뛰어나다. 층량은 측면에 3개씩 사용되었는데, 가운데 층량은 대량 위에 내단을 걸치고 용두를 끼웠으며, 나머지 층량은 고주의 주두 위에서 뜯장여과 결구되었기 때문에 높이가 서로 다르다. 층량의 형태는 높이 차를 고려하여 우미량의 형태로 치목하였으므로 주변 퇴량과 형태적으로 유사하다.

대루의 공포는 일출목 삼익공식으로 구성했다. 익공살미의 외단은 쇠서가 길게 뻗어 나온 양서형이며, 쇠서 안쪽에 연봉을 조각했다. 익공살미의 내단은 끝을 초각한 보아지형이다. 세 겹의 판재형 익공살미를 짜 올린 다음 맨 위에 봉두(鳳頭)를 놓아 장식했다. 침차는 대침차와 소침차의 조합으로 구성되며, 주심침차와 출목침차의 형태가 다른 점이 특징이다. 주심침차는 다포식 침차처럼 마구리를 사절(斜切)했으며, 출목침차는 침차의 하단에 연봉 등을 새겨 장식했다. 우주 상부에 사선 방향으로 걸린 귀한대는 익공 살미가 되어 출목침차와 견고하게 짜였다. 귀한대가 결구된 부분에는 사각형의 접시소로가 놓이고, 귀한대 위에는 용두(龍頭)를 조각했는데, 다른 위치의 익공 위에 봉두를 둔 것과 차이가 있다. 익공 사이 매 칸의 중심에는 화반이 놓였다. 여섯 종류의 방형 화반은 판재를 사용하여 측면 가장자리를 아름답게 초각한 것으로, 화반의 중앙 상부에 1개의 소로를 두었다. 화반에 사용된 문양은 호랑이, 연꽃, 해태 등 모두 여섯 종이다. 단청은 육색(肉色)을 많이 사용한 우수한 단청으로 평가되며, 특히 선자연에 표현된 사신도(四神圖)가 특색이 있다.

능과각은 대루의 동쪽에 자리한 익루로서, 객사의 익헌 기능은 물론 때때로 밀양부사가 정사를 처리하던 관아(官衙) 용도로도 사용되었다. 능과각의 평면은 동측에 치우쳐 2칸 온돌방을 두고, 그 서측에 개방된 대청을 꾸민 형태이다. 칸 치수는 모두 10척으로 구성했고, 퇴칸은 이를 반분한 5척으로 잡은 정면 3칸의 전후퇴집이다. 전체적으로 가로 30척, 세로 20척의 규모가 된다. 온돌방과 대청의 남측에는 폭이 좁은 뒷마루가 길게 놓여 있고, 남측을 제외한 삼면에는 쪽마루로 현함(軒檻)을 꾸며, 대루와 마찬가지로 계자각 난간을 둘렀다. 능과각 대청 북쪽에는 건물로 오르는 폭이 넓은 돌계단이 있으며, 이 계단을 이용하면 대루로도 출입할 수 있다. 온돌방 북측에는 현함 하부에 아궁이를 두었다. 상부가 구는 오량가로, 중도리의 위치를 삼분변작법으로 잡았기 때문에 퇴칸의 크기와 상부 도리 배열이 일치하지 않는다. 삼분변작은 대개 처마를 키우기 위한 수법이며, 삼면을 둘러 현함을 꾸몄기 때문에 더 넓은 처마가 필요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능과각의 처마는 주심으로부터 약 2m 가까이 내밀었다.

침류각은 대루의 서쪽에 자리한 익루로서, 정면 3칸, 측면 2칸의 규모이며, 평면은 가운데 마루를 두고 그 좌우에 온돌방을 둔 형식이다. 정면 3칸의 치수는 각각 8척씩이고, 측면

은 통로가 되는 남측을 7척, 방을 드린 북측을 9척으로 잡았다. 기둥의 위치는 상부가구와 무관하게 공간의 크기에 따라 설정되었고, 밀양강과 전방의 아름다운 산수경관을 조망하기 위해 마루를 넓게 잡은 것이 특징이다. 공포는 이익공식으로 연화(蓮花)를 초각한 양서형 쇠서에 봉두(鳳頭)를 결합했으며, 내단은 판재에 연봉을 조식한 보아지형으로 꾸몄다. 매 주칸의 창방과 처마도리 사이에는 화반을 놓아 도리가 처지지 않도록 했다. 침류각에 사용된 화반은 한 종류로, 꽃병에 만개한 꽃이 꽃혀 있는 모양이며, 이는 능파각에 사용된 화반과 유사하다.

여수각은 대루와 침류각 사이에 위치하는 월랑(月廊)으로, 1843~1844년의 영남루 재건 공사에서 새로 지은 건물이다. 여수각의 규모는 정면 3칸, 측면 1칸이며, 독특한 3단의 층단형 공간을 형성한다. 빈객(賓客)들이 대루에서 침류각으로 출입할 때 사용했다. 주칸은 대루의 서측 퇴칸 크기인 8척에 맞추어 0.5척 정도를 줄여가며 조절했다. 여수각의 지붕 구조는 높이차에 맞추어 종도리를 우미량 모양으로 처리한 점이 특징이다. 공포는 이익공식으로 능파각, 침류각과 같은 형식이며, 연화쇠서형을 기본으로 상부에 봉두를 달았다. 주간에 놓인 화반 역시 침류각의 것과 같으며, 판재를 사용하여 초화문을 새겼으며, 상부에 소로를 두고 처마도리 받침장여를 지지한다.

### 3. 지정 가치 및 종합의견

밀양 영남루는 고려시대 사찰의 작은 누각에서 출발했지만, 빼어난 입지 조건과 절경으로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누각으로 자리 잡았으며, 여러 차례의 중수 과정을 통해 복합적인 구성을 강화해왔다. 밀양 영남루의 문화재적 가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시대 관영 누각의 복합적 이용 양상을 보여준다. 밀양 영남루는 대루의 좌우에 능파각과 침류각을 거느린 모습으로 기능한다. 능파각과 침류각은 15세기 말에서 16세기 초 사이에 성립한 익루로서 밀양을 찾는 빈객들의 숙소로 사용되었다. 특히 영남루 일대가 객사로 활용되면서 두 익루는 객사의 좌우 익헌(翼軒)의 기능을 수행했다. 이에 따라 17세기 중엽의 밀양 객사 정청인 공진관은 좌우 익헌이 생략된채 건축된 것으로 추정된다. 밀양 영남루의 대루와 침류각, 능파각은 부사의 집무처, 관리 및 빈객의 숙영처의 기능이 강화된 형태로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를 위해 조망을 중시하는 일반적인 누각의 건축적 특징에 더해 양 익루로의 접근을 편리하게 하는 월랑(月廊)과 현랑(軒廊) 등의 건축적 장치를 갖추게 되었다.

둘째, 유교문화를 대표하는 범국가적 누정 문단의 거점으로 인식되었다. 고려 시대 이후 문과 급제자 341인과 시호를 받은 인사 111인이 포함된 쟁쟁한 문사(文士)들이 영남루를 방문하여 시문을 남겼다. 현재 확인된 바 영남루에 관한 제영 시문은 한시 작품은 468인에 의한 973수, 산문은 24인에 의한 27편, 아랑전설 5편 등이 있다. 나아가 일본의 문인들이 참여하고, 중국 문헌에 소개되는 등 시루(詩樓)로서의 명성이 높았다. 글의 작자는 조선 전기까지는 관료문인들이 중심이 되다가 조선 후기에는 일반문인들로 확대되었고, 또 밀양을 방문하는 외지 인사들뿐만 아니라 밀양 출신 문인들까지 참여하였다.

셋째, 조선후기 목조기술의 화려한 발전상을 대표한다. 밀양 영남루 대루의 공포는 일출목 삼익공식으로 주심첨차는 다포식에 가깝고 출목첨차는 익공식을 취했으며, 쇠서는 상하에 연화와 연봉을 장식하고, 보머리에 봉두를 끼워 장식하였다. 조선 후기 다포식 공포의 세부가 가미된 익공식 목조의 절충적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견실하게 구조된 목조에서 뒷보에 용신을 단청하고, 내단에는 용두를 조각하여 위엄있는 내부를 형성했다. 익루와의 연결을 위해 각루를 확장하였는데, 특히 침류각을 연결하는 여수각의 층단 지붕과 특징적인 상부구조는 독창적인 발상으로 평가된다. 대량 부재를 여러 목재를 합성해서 만든 것 또한 조선후기에 발생한 기술로 추정된다.

밀양 영남루는 면적 약 235㎡의 누각으로서, 여수 진남관, 통영 세병관, 경북궁 경회루 등 특수하게 거대한 누각 다음으로 대형 누각의 범주에 속한다. 현재의 건축물이 비록 1844년에 중건된 결과이나 공간의 기능과 구성은 과거의 오랜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밀양 영남루의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를 종합해볼 때 국보로 승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23.03.17	대상문화재	밀양 영남루	
조사자	성 명	○○○	전공 분야	한국건축사
	소 속	○○○○대학교	직위(직책)	교수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국보)		
	문화재 명칭	밀양 영남루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세부내용 별첨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3 년 8 월 26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 1.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 환경

밀양 영남루는 경상남도 밀양시 내일동 40번지에 위치한 중층 누정건축이다. 밀양 영남루는 아동산(88.1m) 서쪽 구릉에 주변으로 산과 강이 둘러진 밀양강(凝川江)변 절벽에 위치하여 경치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밀양시청에서 2km 정도 거리에 있는데, 시청로를 따라 817m 이동 후 중앙로에서 영남루 방향으로 좌회전한 후 735m 이동하여 밀양관아지를 지나 89m 정도 가서, 영남루1길을 방면으로 143m 정도 이동하여 이르거나, 100m 가서 계단을 통해 이르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영남루 주변에는 경남도기념물 제167호인 밀양읍성<sup>1)</sup>이 아동산을 감싸 돌며 지나고, 영남루 북쪽 후면 60여 m 거리에 경남유형문화재 제117호인 천진궁<sup>2)</sup> 및 만덕문(舊 밀양 객사 내삼문)이 있고, 영남루 아래 동쪽 50m 거리의 대숲 속에 경남도문화재자료 제26호인 아랑각과 동쪽 150m 거리에 보물 제493호인 밀양 무봉사 석조여래좌상이 있다. 그 외에 북서쪽 20여 m 거리에 사주문, 북동쪽 75m 거리에 박시춘옛집과 그 후면 60m 거리에 사명대사유정동상 등이 있다. 아동산을 중심으로 영남루를 비롯한 천진궁 등이 잘 보존되어 있다. 영남루 후면 35m 거리에 만덕문 서쪽 밀성박씨(密城朴氏) 시조인 밀성대군을 추모하는 ‘밀성대군비’가 자리잡고 있는데 추후에 이전 문제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만덕문 동쪽 4~5m 거리의 마당에는 석화(石花)가 드러나 있고 들어나 있고 영남루 남서쪽 강가에도 같은 바위가 드러나 암반으로 이어져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밀양 영남루는 밀양강 벼랑 위에 천진궁 영역 앞으로 마당을 두고 영남루 영역을 이루고 있다. 영남루는 대루를 중심으로 동서 양측에 익루인 능파각, 침류각이 인접 배치되어 있고, 대루와 침류각 사이에 층층각 형태의 여수각이 배치되어 있다. 이는 조선시대 밀양도호부의 객사(천진궁)와 부속 누각(영남루)의 배치와 공간구성 및 건축형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밀양 영남루는 관영 누각으로 밀양부사가 정사를 보거나 각종 의례 및 접빈객하던 공간이고, 대루를 사면으로 개방하여 사방으로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하도록 한다. 밀양천이 굽이 돌아가는 절벽 위에 자리하여 밀양 영남루에서 조망되는 경관은 도시화로 인하여 훼손되었지만 영남루십경이나 밀양십경 등으로 불리고 있어 잘 보존되어야 할 것이다<sup>3)</sup>. 대루가 높은 절벽에 자리하여 침류각 사이의 연결통로는 지형을 이용한 층층각

1) 조선 말기까지 영남루의 남측 절벽 위에는 밀양읍성이 축조되어 있었으나 근대 이후에 철거되었다.

2) 천진궁은 경남 유형문화재 제117호. 조선후기에 지은 객사 정청으로, 공진관(拱振館)이라고도 하고 있다. 정면 3칸, 측면 2칸의 주심포식 단층 팔작지붕 건물이다. 내부에 단군 이래 역대 팔 왕조의 시조 위패를 모시고 제향을 드리는 공간으로, 매년 음력 3월 15일 어천대제 음력 10월 3일 개천대제(開天大祭)를 봉행하고 있다.

3) 이호열, 밀양 영남루 연혁 및 건축형식 변천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제9권 1호 22호, 2000년 3-6월, 8쪽. 1931년 총독부 주관으로 16경의 하나로 선정되었다고 한다.

으로 지형적 누각으로서의 구성이 돋보이고 있다.

## 2. 연혁·유래 및 특징

밀양 영남루에 관련된 역사 관련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밀양 영남루에 대한 문헌기록은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여지도서(輿地圖書), 경상도읍지(慶尙道邑誌)를 비롯하여 밀양 향토사 관련 문헌인 밀주구지(密州舊誌), 밀주지(密州誌), 밀주징신록(密州徵信錄), 향토사자료집(鄕土史資料集) 등이 있다. 그리고 건축 기사와 중수기문 외에도 영남루를 다녀간 시인 묵객들의 제영(題詠), 고지도, 그림 등을 통해 누각의 연혁 및 형식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밀양 영남루는 조선시기 밀양도호부 객사에 속한 관영누각으로, 사신이나 문인 등을 접대하거나 접빈객 등을 하던 건물로 추정된다. 동국여지승람, 신증동국여지승람, 密州誌 등의 기록<sup>4)</sup>에 영남사 유래설<sup>5)</sup>, 해우(廡宇) 동쪽 누각설<sup>6)</sup> 등이 있다. 영남사에 부속된 작은 누각이던 영남루가 규모가 크고 독립된 누각이 된 것은, 고려 말 김주(? ~ 1404)의 중창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고려 예종 때 정지상(鄭知常, ?~1135)의 「영남사루(嶺南寺樓)」<sup>7)</sup>에서 야경을 시로 표현한 것을 보면 당시에 영남루가 존재했음을 보여 준다. 1175년 봄에 임춘(林椿)은 ‘영남사죽루(嶺南寺竹樓)’, ‘제영남사(題嶺南寺)’ 그리고 서하집(西河集)에 실려있는 ‘二月十五夜對月并序’라는 서문<sup>8)</sup>을 통해, 영남루의 전신으로 보이는 죽루(竹樓)가 영남루의 전신인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영남루라고 부르고 있다. 1344년 성원도의 기록과 1354년 이인복의 칠언율시 등을 통해, 김주가 1365년에 중창하기 이전에도 영남루가 존재했음을 보여 준다. 성원도가 영남루를 복주(福州, 현 안동)의 영호루(映湖樓), 울주(蔚州)의 대화루(大和樓), 금주(金州)의 연자루(燕子樓), 진주

4)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제26권 樓亭 成元度の 시 “내가 사방을 유람하면서 좋은 누관을 관람한 것이 많은데... 至正 갑신년(1344) 봄...”

『보한집(補閑集)』 卷下, 一守大尉 崔滋 撰한 내용에 “...鄭舍人(정지상)의 「영남사루(嶺南寺樓)」와 같은 것이니...”

5) 東國輿地勝覽에 “옛날 영남사의 작은 누각이었는데 절은 없어지고 1365년(공민왕(恭愍王)14, 乙巳)에 김주(金湊)가 밀양의 지군(知郡, 군수)으로 와서 본래 있던 작고 초라한 누각을 철거하고 진양(晉陽, 현 진주) 축석루의 제도를 본떠서 개창(改創)하여 영남사(嶺南寺)의 이름을 따서 영남루라 했다.”라고 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밀양의 邑誌인 密州誌에 “(영남루는) 무봉산 아래에 있다. 곧 옛날 영남사의 작은 누각인데 절이 없어졌다. 고려 1365년(공민왕 14)에 김주가 지군(知郡)이 되어 예전대로 고쳐 세우고 절 이름을 따서 嶺南樓라 하였다. 김주(金湊)의 기문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國譯 密州誌 地理篇 嶺南樓)

6) 新增東國輿地勝覽, 제26권 密陽都護府(국역 신증동국여지승람III) 樓亭 嶺南樓條, 민문고, 1989.

..在客館東。卽古嶺南寺之小樓, 寺廢。至元乙巳, 金湊爲知郡, 因舊改創, 因以寺名名之, 後府使安質重修。天順庚辰, 府使姜叔卿又重修, 恢拓舊規, 壯麗無比。高麗金湊記: “密城在慶尙爲名區, 而其廡宇東有樓曰嶺南...”

7) 최자, 보한집(補閑集). 一溪明月灑欄夜 萬里清風捲箔天

8) 영남사에 놀면서 저녁에 누각(영남루)에 올라 망월(望月)을 하면서 시를 지었다는 언급이 있다. 시구(詩句)에서 “今春二月十五夜 我向嶺南樓上適”이라며 영남루라는 명칭을 쓰고 있다.

(晉州)의 축석루(矗石樓), 합주(陝州, 합천)의 함벽루(涵碧樓), 단양의 봉소루(鳳韶樓)와는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sup>9)</sup>고 한 것은, 비교되는 누정을 보면 큰 규모로 되었던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영남루’라고 한 것은 작은 누각이었지만 입지 때문에 경관이 뛰어나, 문인들과 관리들의 장소로 이용되어 커졌으며, 고려 초부터 영남사(嶺南寺)에 속한 누각을 부르던 이라는 점을 나타내기 위해 불렀을 것으로 보인다. 1365년(공민왕 14) 김주의 중창으로 영남루를 공식적인 명칭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밀양 영남루의 주변 경관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면, 근경으로 (무)봉산 기슭에 있고 영남사는 대밭 속에 있으며 강가에는 용암의 바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고,<sup>10)</sup> 중경과 원경은 성원도가 “내가 사방에 돌아 좋은 누관(樓觀)을 본 것이 많으나 전망이 확 트이고 끝이 없기로는 이만한 데가 없다”고 한 것을 보면, 산과 강이 사방으로 펼쳐진 전망하는 파노라마 뷰를 언급하고 있다. 이인복은 “산은 서쪽으로 꺾여 구름 끝에 비껴 있고, 물은 동쪽에서 흘러와 기슭을 에워쌌네(중략)”라고 하여 풍수지리적인 특성을 언급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영남루는 붉게 단청한 난간이 있고 주렴이 있는 누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영남사의 작은 누각으로 단청한 난간과 주렴을 있는 건축적 구성을 하고 있었으며 주변 경관이 뛰어났던 것을 알 수 있다. 영남루에 대한 글에서 나타나는 경관 요소로는 간략하게 살펴보면 긴 회수의 강, 줄지은 산봉우리, 큰 들판, 포구, 마을 다리, 배, 언덕 대숲 등이고 달, 노을, 저녁연기, 밭농사, 가축, 고기잡이 등을 보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현재의 밀양 영남루의 기원은 1365년 지군사(知郡事) 김주(金湊)가 영남사(嶺南寺)에 부속된 낡은 누각을 중창<sup>11)</sup>하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 고려말 김주(金湊)의 영남루중수기(嶺南樓重修記, 1365)에 따르면 김주는 진주 축석루를 보고 온 관장(官匠)을 시켜 영남루를 크게 중창하게 한 것이다. 우선 군노(郡奴) 중에 좋은 공장(工匠)을 진양(晉陽)에 보내서 축석루(矗石樓)의 제도를 그려오게 하여 재목을 거두고 척도(尺度)를 헤아려 승묵(繩墨)을 보는 과정을 언급하고 있다. 중창한 후에는 정확한 규모는 알 수 없으나 “...누각을 네모지게 넓히고 추녀를 겹쳐서 깊게 하니, 마루와 기둥이 넓고 높아서 바람과 비를 물리치게 되었다. 이윽고 단청을 하니, 사치스럽지도 않고 누추하지도 않았다고 한다...”고 하여 이전의 누각보다 규모가 커지고 기둥을 높이고 주간도 더 넓히고 있다. 또한 추녀를 겹쳐서 깊게 한 것은 겹쳐마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단청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김주의 중수는 이전의 누각보다 규모를 넓히고 주고(柱高)를

9) 吾遊於四方，觀覽樓觀之勝者多矣。不離跬步，登臨眺遠，豁然無極者，莫斯樓之若也。南方之美者有福之映湖、蔚之大和、金之燕子、晉之矗石、陝之涵碧焉，皆不能並肩於斯樓...(新東國輿地勝覽)，제26권 밀양도호부(국역 신증동국여지승람.Ⅲ), 樓亭條, 嶺南樓, 민문고, 1989.

10) 밀양문화원, 밀양지(密陽誌, 449쪽). 이연중, 「사박치암혜차(謝朴趾庵惠茶)」, “少年爲客嶺南寺 茗戰屢從方外戲 龍巖岩畔鳳山麓 竹裏隨僧摘鷹菟”

11) 『新增東國輿地勝覽』 제26권, 樓亭 嶺南樓.

높이고 주간(柱間)을 넓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겹처마에 단청을 하여 축석루를 바탕으로 한 규모나 양식에서 격식을 갖춘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 개국 이후 영남루는 화재와 전란 등으로 여러 차례 소실과 중건 및 중수를 거듭하였다. 조선 초기에 밀양부사 안질(安質)이 영남루(대루로 추정)를 중창하면서 대루 서편 옛 터에 소루를 지었다. 1442년(세종 24)에 경상도사 권기(權技)가 당호를 소루(召樓)라 하고, 소루기(召樓記, 1442)를 지었다.<sup>12)</sup> 그 후 밀양부사 이충걸(李忠傑)이 소루(召樓)를 증축하고 편액을 임경당(臨鏡堂)으로 고쳐 지금의 침류당(枕流堂, 침류각)이 된다.<sup>13)</sup> 보한재(保閑齋) 신숙주(申叔舟, 1417~1475)의 기문에 따르면 1460년(세조 6)에 밀양부사 강숙경(姜叔卿, ?~1481)이 영남루 대루의 규모를 2칸 증축하고 기둥을 교체하고 단청을 하고 있다.<sup>14)</sup> 연산군 때 밀양부사 김영추(金永鍾)는 영남루의 대루(大樓) 동북쪽에 부속건물인 망호당(望湖堂, 현 능파각)을 지어 빈객들의 숙소로 삼고 있다.<sup>15)</sup> 15세기말~16세기 초에 이르러 영남루는 대루(大樓)를 중심으로 동서 좌우에 익루(翼樓)인 능파당(凌波堂, 현 능파각)과 침류당(枕流堂, 현 침류각)을 갖춘 현재와 같은 규모의 누각이 되고 있다.(「밀양십이경도-남루화동도」 참조) 그러나 좌우의 건물을 침류당과 능파당이라고 하면, 능파당은 인접해 있으나 연결이 되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고, 침류당은 대루와 거리를 두고 배치되어 있다.

1542년(중종 37)에 밀양부사 박세후(朴世煦)가 전(前) 부사 강 숙경이 중수하고 80여년이 경과하여 기울고 퇴색한 대루(大樓)를 대대적으로 수리하고 있다.<sup>16)</sup> 대루의 서편에 있던 임경당(臨鏡堂<sup>17)</sup>, 옛 소루도 중수하고 당호를 침류당(枕流堂)으로 바꾸고 있다.<sup>18)</sup> 1543년 망호당(望湖堂)<sup>19)</sup>을 옛터에서 남쪽으로 옮겨 대루의 동북쪽으로 옮겨 능파당이라고 하고,<sup>20)</sup> 이때 터를 높여 영남루-능파당의 오고감에 불편함을 줄였다고 한다.<sup>21)</sup> 그

12) 新增東國輿地勝覽, 제26권 密陽都護府(국역 신증동국여지승람III) 樓亭 嶺南樓條, 민문고, 1989 : 嶺南樓題詠詩文, 밀양문화원, 2002, p.271-272.

13) 國譯 密州誌 地理篇 府內面 ‘枕流堂條’

14) 新增東國輿地勝覽 제26권 密陽都護府 樓亭 嶺南樓 : 國譯 密州誌 地理篇 府內面 嶺南樓 ‘신숙주의 기문’. 신숙주(申叔舟)의 영남루기(嶺南樓記, 1460) 密陽守姜君叔卿 既新嶺南樓 書遺僕曰 樓爲邑勝觀 而窄陋傾側不稱於名. 今爲新之 凡三楹 周以補棟 施以丹雘 不侈不陋...

15) 密州誌, 卷之一, 凌波堂條. 홍치 연간(弘治, 1488~1505)

16) 國譯 密州誌 地理篇 府內面 嶺南樓 ‘申光漢의 기문’ : 嶺南樓題詠詩文, p.274.

17) 臨鏡堂은 지금의 침류각(당)의 전신으로, 小樓·召樓, 瀛洲閣 등으로도 불렸다.

18)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제26권 樓亭 嶺南樓 『기재집 (企齋集)』 企齋文集卷之一 記 능파당소기(凌波堂小記, 1542) 신광한(申光漢). 능파당소기(凌波堂小記, 1542) 樓之東北隅 舊有堂 名曰望湖. 在弘治年中 府使金永鍾創之 爲賓客燕寢之所. 固爲美制也. 然堂卑而樓高 賓客地由是樓按宿者 甚妨於步降. 且作之日月既舊 基圯棟傾 殆不愜居處. 朴侯病之 撤其舊少移于南 築石臺 崇其址. 視舊制 增加一間. 堂始得與樓聯楹. 飾其三面而丹雘之. 虛其南 以臨江流 改名曰凌波堂. 高明爽豁 正所謂於焉嘉客者也.

19) 望湖堂은 지금의 능파각으로 凌波堂, 蓬萊觀 등으로 불렸다.

20) 國譯 密州誌 地理篇 府內面 嶺南樓 ‘朴世煦의 중창기’. (밀양강)강류(江流)에 임했다는 뜻에서 망호당이란 당호를 능파당(凌波堂)으로 바꾸었으며, 기문은 부사 박세후가 지었다.

리고 능파당 동북쪽 모퉁이에 처마를 맞댄 3실(室)을 건축하고 각각 심약검율방(審藥檢律房), 사성종자방(使星從者房), 포진의약고(鋪陳醫藥庫)로 사용했다. 영남루는 16C 중반 객사의 별관으로 중앙의 대루와 좌우에 침류당과 능파당이 배치되고, 경내에는 납청당(納淸堂, 북별실) · 전월당(餞月堂, 서별실) · 연훈당(延薰堂, 남별실) · 신당(新堂) 등의 부속건물이 있어 웅장한 규모의 밀양 객관(客館)으로서 면모를 갖추게 된다. 1592년 임진왜란으로 영남루 및 경내 부속건물들이 소실되고 있다. 1599년(선조 32)에 부사이영(李英, ?~1616)이 폐허가 된 경내의 능파당 터에 임시로 초옥(草屋)을 지어 처음으로 객사(客舍)로 사용하고 있다. 1608년(선조 41)에 밀양부사 기효복(奇孝福)이 객사와 영남루 복구 계획을 세우고, 1637년(인조 15)에 먼저 침류당(각)과 능파당(각)을 중건하고 있다.<sup>22)</sup> 1642년(인조 20)에 화재로 능파당이 불에 타자 밀양부사 심기성(沈奇成)이 대루(大樓)를 중건하고 능파당도 새로 짓는 등 복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1651년(효종 2)에 밀양부사 김응조(金應祖, 1587~1667)가 영남루 대루(大樓) 서북 편에 전패(殿牌)을 봉안하는 공진관(拱辰館)을 짓고 있다. 1661년(현종 2)에 새로 지은 능파당에 또다시 화재로 마루 청판(廳板)이 불에 타 밀양부사 이지온(李之醜)이 능파당의 마루를 수리하고, 재정난으로 미루어 놓았던 영남루 대루(大樓) 및 능파당 · 침류당 · 공진관(객사)에 단청을 하고 있다. 1722년(경종 2)에 화재가 발생하여 영남루 대루(大樓)와 능파당 · 침류당 등의 부속 건물이 소실되고, 가을에 밀양부사 이희주(李熙疇)가 먼저 공진관(객사) 건물을 이건(移建)하고, 능파당을 복원하여 객사(빈객 숙소)로 사용하고 있다. 1724년(경종 4)에 2차로 영남루 대루(大樓)와 침류당을 중건하여 옛 모습을 회복하고 있다.<sup>23)</sup> 영남루 지붕 귀면의 암막새에 ‘崇禎後再甲辰仲春’이라는 명문으로 보아 1724년 기와임을 알 수 있다. 1749년에도 ‘乾隆十四年乙巳仲春都瓦匠金運明’이라는 명문 암막새를 통해 기와 공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793년(정조 17)에 밀양부사 조휘진(曹翬振)이 대대적인 중수공사를 실시하고 있다. 1806년(순조 6)에 밀양부사 김재화(金載華, ?~1807)가 영남루 대루의 동편 대량(大樑)을 해체하고 수리하고 있다. 이때 부식한 서까래는 교체하고, 퇴색한 단청도 새롭게 했으며, 남은 물력으로 능파각, 읍승정(揖升亭, 여수각으로 추정)도 수리하고 있다.<sup>24)</sup> 1825년(순조 25) 가을 밀양부사 이화연(李和淵)이 영남루에서 빈관(賓館)으로 사용하는 능파당(각)을 수리하고 있다. 1832년(순조 32, 임진)에 밀양부사 조기복(趙基復, 생몰년 미상)이 번와 및 동량(棟樑)을 교체하는 등 전면적인 해체 수리

21) 기재집(企齋集)』 企齋文集卷之一 記 능파당소기(凌波堂小記,1542) 신광한(申光漢)

22) 國譯 密州誌 地理篇 府內面 ‘凌波堂條’와 ‘枕流堂條’

23) 嶺南樓題詠詩文, p.279. 밀양부사 이희주(李熙疇)의 영남루중건기(嶺南樓重建記, 1724)

嶺南樓 卽嶺南第一名勝 而載於輿地者也. 樓居中間傑然高出 而凌波閣枕流堂爲左右翼 宏構勝觀 足以貴飾江山 而爲一路之所艷稱矣. 歲壬寅春 不幸被回祿之災 樓與凌波枕流 同時延燒 (중략) 卽召匠謀之 先起凌波一閣 役數旬始斷手. 時日南至也 是夕外表弟尹侍讀遊 掌試左道 試訖 取迂路來訪, 靈山倅李君師尹 自如丞李君重觀 皆會焉. 相與劇遊於是閣 盃酒之歡 絲管之樂 亦浮世難得事也. 數君因以樓之不可無 勸余重成甚勤. 余亦唯唯 而歲適大侵民事重困於興作 事有未遑焉.(하략)

24) 밀양부사 김재화(金載華)의 영남루중수기(嶺南樓重修記, 1806)

를 하고 있다.<sup>25)</sup> 거듭되는 중수로 정비하였으나 1834년(순조 34, 甲午)에 큰 화재가 발생하여 영남루 경내 모든 건물이 소실되었다. 소실 전 경내에는 영남루, 능파당, 침류당을 비롯하여 객사, 납청당(納淸堂, 北別室), 전월당(餞月堂, 西別室), 연훈당(延薰堂, 南別室), 신당(新堂) 등이 있었으나 건축시기와 배치형식을 정확히 알기 어렵다.<sup>26)</sup> 다만 1834년 소실 전 18세기 당시 밀양 읍성 내에 동쪽 객사에는 밀주관(密州館), 하선관(遐仙館)을 비롯하여 영남루, 침류당, 능파당 등의 모습은 『해동지도(18c)』<sup>27)</sup>에서 일부 확인할 수 있다. 또한 1724년도 유사한 모습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당시에도 옛 모습대로 중건하였다면 1642년 모습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843년(헌종 9)에서 1844년(헌종 10)까지 밀양부사 이인재(李寅在)가 영남루를 중건하고 있다. 이때 대루(大樓)의 규모를 확장하고 능파당과 침류당을 동서 익루(翼樓)로 삼고 있다. 또한 대루 서편에 여수각(如水閣, 층층각)을 지어 대루(大樓)와 침류각을 연결하고 있다. 영남루가 부속되어 있는 밀양도호부 객사 밀주관(密州館)을 크게 확장하여 비장청(裨將廳), 동해(東廡), 서해(西廡), 공주(公廚), 대문 등 수백 칸의 건물을 짓고, 관원(官員), 빈객(賓客)을 접대하고 이들이 유숙(留宿)하는 공간으로 사용되었다.<sup>28)</sup> 1844년 중건 이후 수리기록과 건축도면을 통해 고종연간 대부분의 건물이 소실되어 영남루 대루와 능파당, 침류당 외에 객사 일부 건물만 남게 된다. 1844년 중건 이후 고종연간 소실되기 전의 과정과 상태는 『영남루중수기, 1844』, 『영남루중건상량문, 1844』, 『능파각상량축문, 1844』<sup>29)</sup>, 『영남루중수기, 1848』, 『남루기, 1890』, 『광여도, 18c』, 『1872년의 지방도』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현재의 영남루는 대루와 능파각, 침류각 그리고 여수각을 갖춘 1843~1844년에 중건한 모습으로 객사의 누각 기능을 하면서 읍치를 상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sup>30)</sup> 그리고 옛 모습대로 복원하였다면 임란 소실 후 복원한 1642년 모습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임란 소실 이전 15세기말~16세기 초에 이르러 대루를 중심으로 동서 좌우에 익루인 능파당(능파각)과 침류당(침류각)을 갖추었으나 위치는 알기 어렵다.

25) 嶺南樓題詠詩文, p.300, 김홍근의 영남루 중건상량문 참조.

26) 이호열, 앞의 논문.

27) 규장각소장 『해동지도, 海東地圖, 18c』 동쪽 객사에는 밀주관(密州館), 하선관(遐仙館)을 비롯하여 영남루, 침류당, 능파각이 묘사되어 있는데, 능파각은 건물명칭 표기가 생략된 것으로 보인다.

유휘문(柳徽文)의 『유영남루기(1768)』(국역)의 중 ‘...영남루는 동편으로 능파각과 통하는데...’라는 내용과 함께 대루 좌우에 전각을 각각 배치하고 있는 모습이 현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짐작케 한다.

28) 영남루 제영 시문(嶺南樓題詠詩文), p.306. 병조판서 유관(遊觀) 김흥근(金興根, 1796~ 1870)이 영남루중건상량문(嶺南樓重建上樑文)을 지었다. 향사(鄕土) 유남 이장한(李章漢)도 따로 상량문을 지었다.

29) 『능파각상량축문』의 경우 2002년 10월 능파당 번와 공사 때 마룻대 아래에서 발견되었으나 축문 형식으로 자세한 수리 내역은 알기 어렵다.

30) 조인영(趙寅永), 『운석유고(雲石遺稿)』 권10, 영남루중수기(嶺南樓重修記), 1868이호열, 『밀양 영남루 연혁 및 건축형식 변천에 관한 연구』 한국건축역사학회논문집 <건축역사연구> 제9권 1호, 2000, 조인영(趙寅永), 『운석유고(雲石遺稿)』 권10 영남루중수기(嶺南樓重修記, 1844), 1868김홍근(金興根) 『유관집(遊觀集)』 권7 경상도함안군총쇄록 영남루중건상량문(嶺南樓重建上樑文, 1844) 『능파각 상량축문(凌波閣上樑祝文, 1844)』은 2002년 10월 능파당 번와 공사 때 마룻대 아래에서 발견된다.

그러나 16C 중반에는 대루와 좌우에 침류당(침류각)과 능파당(능파각) 그리고 터를 높여 영남루-능파당의 오고감에 불편함을 줄이는 배치가 되었다고 추정된다.<sup>31)</sup>

1890년(고종 27) 밀양부사 정병하(鄭秉夏, 1846~1896)는 봄 누각의 단청, 난간, 창, 추녀, 편액 등을 2개월 동안 수리하여 회복하고 있다. 1894년(고종 31, 甲午) 동학농민운동 때 일본군이 주둔하기 시작하여 고종 때 화재로 많은 건물이 소실되었으나 대루(大樓)와 능파당, 침류당, 여수각 및 요선관(邀仙館, 밀양부 객사 부속건물), 동해(東廡), 사주문, 일주문 등은 화재를 면하고 일부만 훼손되었을 때도 지속되고 있다. 밀양군수 이도재(李道宰, 1848~1909)가 화재로 황폐된 영남루의 경내를 정비하고 손상을 입은 대루를 수리하고 있다. 1910년 이후에는 일본 관헌(官憲)에서 영남루를 함부로 사용하여 건물에 비가 새고 바람이 쳐서 도괴의 위험에 직면하기도 하여 관리가 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1918년 조선총독부는 수리 계획을 수립하여 대루를 비롯 동쪽의 능파각(凌波閣), 서쪽의 침류당(枕流堂), 여수각, 정문(사주문) 등을 대상으로 침류당과 문사(門舍)에 접한 부속 건물을 모두 철거하고,<sup>32)</sup> 주변의 부속건물을 철거 정비하여 지금처럼 구(舊)밀양부 객사(현 천진궁과 만덕문)과 영남루(대루, 능파각, 침류각, 여수각) 및 서측의 사주문만 남게 되었다. 당시 영남루를 명소로 보존해야 하는 문화재라고 인식하고는 있었지만 1920년 초까지만 해도 영남루와 일부 공간을 행사나 다른 용도로 활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추정된다. 1920년대 밀양박씨 문중에서 밀성대군지단(密城大君之壇)을 조성하는 등 객사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1930년 밀양군수 최두연(崔斗淵)이 대규모의 영남루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현존하는 대루, 능파당, 침류당 등 주 건물은 물론 여수각(층층각), 사주문, 객사(邀仙館), 일주문 등이 중수되고 있다. 1931년 영남루는 조선총독부 주최하는 조선의 16경중의 하나로 선정되고 있다. 1933년 대풍수해로 경내 건물이 무너지고 박락되는 등 큰 피해를 입어서 급하게 수리하고자 현장에 관리인을 상시 배치하여 관리하고 있다. 1933년 8월 조선총독부의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에 따라 '보물 제245호'로 지정되고, 4천원을 투입하여 크게 수리하고 있다. 1940년을 전후하여 무봉산(아동산) 자락에 일본신사가 건립된 후 영남루는 신사로 출입하는 통로가 되고 있다.

1945년 해방 후 신사가 철거되고 방치되는 가운데에서도 문화재 보존 운동이 일어나 영남루를 자치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1952년 '단군봉안회'를 발족하여 침류당에 본부를 두고 있다. 1953년 대루 북쪽에 있는 객사 정청과 삼문(현 만덕문)을 전면 보수하고 주위에 담을 쌓아 정청을 단군 봉안전으로 사용하고 있다. 객사가 천진궁(天真宮)으로 공간 성격이 변화되고 있다. 1955년 6월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에 따라 영남

31) 영남루의 독특한 건축구성과 배치형식은 1542년 중건 시 처음 나타난 후 중건 과정에서도 그대로 유지 발전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이호열, 「밀양 영남루 연혁 및 건축형식 변천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9권 1호, 2000년, pp.17-23.) 그러나 1543년 이후로 추정된다.

32) 자료 : 국가기록원 나라기록포털

루는 국보 제245호로 승격되고 있다. 1957년 '밀양고적보존회'에서 성금과 지방비, 국고 보조비 등 공사비 1,200만환을 마련하여 영남루의 지붕 변화, 기둥 교체, 단청 등 대대적인 수리 공사를 하고 있다. 그 후에도 국비 또는 지방비를 조달하여 대루와 사주문, 만덕문 등 부속건물을 보수하고 있다. 1950년대 이후에도 각종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보존과 더불어 활용을 통하여 장소의 중요성을 유지하고 있다. 1960년에는 영남루 경내 민가 18세대를 철거하고 주변 환경정비를 하고 있다. 1962년 1월 10일 「문화재보호법」이 공포되면서 '보물'로 재지정 된다. 1965년을 전후로 민가를 철거한 사주문 밖에 '충혼탑'을 세우고 능파당 동측에 독립의열사(獨立義烈士) 승모비를 세우고 있다. 1967년 대루와 침류당 사이의 여수각(如水閣, 충충각)의 계단마루와 기둥, 지붕 등을 보수하고 있다. 그 후 조경, 아자(亞子) 울타리 설치, 조명시설, 죽림(竹林)의 보호설비 등을 정비하고 있다. 1982년에 대루 남쪽의 부식한 마루 청판을 부분적으로 교체하고, 탈락한 천정 양토를 보수하고 있다. 1988년 대루의 누하주 상부의 동귀틀 하부 보조목과 파손된 기둥을 각각 감잡이 쇠와 띠쇠로 감아 보강하고 있다. 또한 능파각의 마루를 드잡이하면서 귀틀·동바리기둥 및 마루 널을 교체하고, 침류당(각)도 연목 이상을 해체하여 수리하고 교체한 부재는 고색(古色) 땀 단청을 하고 있다. 1991년 영남루 대루의 지붕을 해체수리하면서 암수기와 45%를 교체하고 있다. 또한 능파당 지붕도 해체하여 노후한 기와를 교체하고, 세살창 네 짝도 교체하고 고색(古色) 단청을 하고 있다. 1994년에 대루 주위 부식한 계자각 난간을 해체하여 신재로 교체하고 일부 부식한 기둥 4본은 수지처리하고 있다. 창방을 제외한 주두 하부 전 부재에는 고색 단청을 하고 있다. 1996년에 영남루 마당 서편의 사주문 지붕을 변화하면서 부러진 도리는 교체하고 기울어진 기둥은 드잡이하고 있다. 2001년 침류각을 기둥 이상 해체하고 일제에 의해 변형된 평면을 원형대로 복원하고 있다. 2004년에는 밀양 영남루 수해 복구공사로 탈락한 지붕기와의를 보수하고, 대루의 구조 안전진단 및 주변 정비를 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5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수리를 하면서 보존하고 다양한 행사의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연혁을 정리하면, 1365년 영남루 대루가 개창된 이후 1592년과 1722년에 소실되었지만 1642년 중건, 1793년 전면 중수, 1832년 해체 수리, 1844년 중건하고 있다. 능파각은 1488년 망호당으로 건축되어 1592년과 1722년 화재로 소실되고 1542년 이건, 1608년 중건, 1722년 중건하고 있고, 1661년, 1825년, 고종대, 1930년, 1988년에 보수하고 있다. 침류각은 조선 초기 건축된 후 1442년 중수, 1642년 복원, 1724년 재건, 1832년 전면 해체 수리, 1844년 중건하고, 1661년, 고종대, 1930년, 1975년, 1988년에 보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근현대의 보수공사는 원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추정된다. 밀양 영남루는 650여 년 동안 소실과 중창 및 중수를 거치는 변천과정을 통해 기본 골격인 객사와 부속누각인 영남루를 유지하면서 주변 환경에 대응하는 창의적인 배치 및 건축유형 등을 조성하고 있음이 확인된다고 할 수 있다.

밀양의 서북쪽에 진산인 화악산이 흘러 옥교산을 타고 추화산으로 이어지고 다시 동쪽으로 틀어 아북산으로 흐르고 있다. 동북쪽으로는 가지산을 주산으로 재약산으로 어이치고 운문산에서 구만산으로 흘러들고, 남동쪽은 천태산이 있다. 북에서 흘러드는 밀양강(凝川 또는 南川江)과 동쪽에서 흘러드는 단장천이 합류하여 추화산을 감싸돌며 태극모양으로 남쪽으로 응천이 흘러나가고 있다. 가까이는 밀양 영남루의 북쪽으로 아북산이 흘러 동쪽의 아동산으로 에워싸고 있고, 북서쪽으로 관아지가 있고 서쪽으로 구도심 상업지역이 자리하고 있다. 아동산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능선 절벽 위에 자리하고 있다. 남쪽으로는 밀양강(凝川 또는 南川江)이 굽이치면 돌아나가는 절벽 위에 누각으로 절경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밀양강 절벽 위에 대루를 중심으로 동서축으로 능파각과 여수각·침류각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누각군을 형성하여 장관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입지는 조선시대 유명한 누각들에서 볼 수 있으나 사면에 대응하는 탁트인 조망이 뛰어나다. 또한 밀양읍성, 객사 정청인 천진궁 등은 밀양읍치와 관련되며 아랑각과 관련된 이야기, 지질과 관련된 석화 등의 다양한 자원이 산재해 있다. 다른 관영누각에서 나타나는 죽죽선녀나 춘향이 그리고 논개 등과 같이 영남루에도 아랑의 정절을 기리는 아랑각이 자리하고 있다. 만덕문 앞에 석화(石花)가 드러나 있고 영남루 남서쪽 강가에도 같은 바위가 드러나 암반으로 이어져 있으며 영남루는 바위 위에 놓인 것으로 추정되며 보호구역 및 보존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영남루에서 조망되는 중첩되는 산과 굽이도는 강과 넓은 들판으로 이루어진 자연경관이 시원하게 펼쳐지고 있다. ‘영남루 십경(十景)’ 또는 ‘밀양십경(密陽十景)’으로 꼽히며 일제강점기에 조선의 16경 중의 하나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이는 아동산의 능선에 동서축으로 능파각·대루·여수각·침류각이 지형을 따라 연결된 누각의 조형성이 밀양강과 더불어 아름다운 경관을 이루고 있다. 밀양 영남루는 역사적이고 상징적인 장소이면서 안에서의 파노라믹한 경관과 밖에서의 조망대상으로서의 경관이 조화를 이루는 역사문화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조선시대 객사는 모든 군현에 설치되고 전패를 두고 예를 표하는데 부속 누각인 밀양 영남루는 접대와 향연 그리고 휴식을 하는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건물이 된다. 나아가 대루 동서쪽에 배치되어 있는 능파각과 침류각이 객사 정청에 부속된 좌우 익현의 기능을 겸하고 있어 관리나 빈객의 유숙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밀양부사가 업무를 보는 관아로도 사용되는 등 복합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아랑각과 연관된 아랑의 이야기는 또 다른 스토리텔링으로 풍성하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누각의 쓰임새 외에도 개창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각종 행사 등을 거행하는 장소가 되고 있어 앞으로 관영누각에서의 각종 의례를 밝히고 재현하여 관련 의례를 계승해가는 장소로 발전해가기를 기대한다.

밀양 영남루에서 북쪽 후면 마당을 두고 밀양부 객사(천진궁과 만덕문)와 함께 자리하고 있어 객사의 입지와 객사의 부속누각으로 배치 관계가 잘 드러나고 있다. 객사 영역

은 밀양부 객사의 정청인 천진궁(밀주관) 앞에 마당을 두고 내삼문(현 만덕문)에 면해서 담장으로 둘러싸고 있다. 1599년 이영이 능파당 터에 초옥을 지어 객사로 사용하면 서부터 17세기 복구계획을 세워 대루 서북쪽에 전패을 봉안하는 공진관(拱辰館)을 지어, 소실 이후 밀주관으로 확장될 때까지 객사의 부속 누각으로서의 성격을 부각하고 있다. 이는 밀양 영남루는 객사의 기능을 보완하고 있고 이러한 관계에서 대루와 익루의 배치 구조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밀양 영남루는 절벽 위에 능선을 따라 대루를 중심으로 누각이 연결된 누각군을 형성하고 객사와 더불어 부속누각으로 객사의 배치 및 공간구성이 잘 드러나고 있다.

밀양 영남루 배치는 대루를 중심으로 동쪽에 능파각, 서쪽에 침류각이 자리하고, 능파각과 대루 사이에 연결 마루(軒廊)인 여수각을 남향하여 배치하고 있다.<sup>33)</sup> 접대 및 향연 등을 위한 대루와 휴식을 위한 익루가 지형 차이를 극복하고 월랑과 현랑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체화된 구성 내에서 다양한 연결을 통한 독창적인 공간구성을 하고 있고 지형에 따라 층간으로 구성된 지형적인 누각으로서의 조형성은 탁월하다고 보인다. 대루를 중심으로 능파각과 침류각을 연결하여 군을 형성하는 배치는 영남루의 독특한 배치와 건축구성은 1844년 중건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연혁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이경홍의 『밀양십이경도(密陽十二景圖)』에는 여수각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월랑과 현랑으로 세 건물을 연결하여 군을 형성한 조형미를 갖춘 누각으로 완성된 것은 17-18세기로 추정된다. 그러나 15세기 말에서 16세기 초에 대루를 중심으로 위치는 알기 어려우나 능파당과 침류당의 익루를 갖추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16C 중반에 대루, 침류당, 능파당 그리고 터를 높여 영남루-능파당의 오고감에 불편함을 줄이는 배치를 이어온 것으로 추정된다.

밀양 영남루는 객사 부속 누각으로 영남루인 대루, 능파각, 침류각과 객사인 천진궁(시도유형문화재), 내삼문, 사주문 등이 있다. 관영 누각으로 밀양부사가 정사를 보거나 각종 의례 및 접빈객하는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밀양 영남루에 대한 문헌은 『신증동국여지승람』, 『조선왕조실록 현종실록』을 비롯한 기문(記文)과 시문(詩文), 고지도, 도면 등이 있다.

자연지형을 존중하고 지형을 이용하여 대루와 그 좌우에 능파각 및 침류각을 배치하고 여수각으로 연결하고 있는 수법은 영남루만의 특징이고, 규모면에서 현존하는 누각 중 가장 큰 특징을 갖고 있다. 대루는 정면 5칸, 측면 4칸 규모의 장방형 평면의 대형 누각으로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솔직한 구조형식의 조형미가 있고, 세부적으로는 외1출목 삼익공식의 공포 등이 특징을 이루고 있다. 능파각과 현랑(연결마루)으로 수평적으로 연결되고 침류각과 월랑(복도각)으로 수직적으로 연결하는 지형에 따라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특히 여수각은 여러 단의 지붕을 지형에 따라 낮아지면서 침류각과 연결되

33) 1918년경에는 능파각 동북쪽에 고자각(庫子閣), 침류당 북쪽에 고자각과 서측에서 영남루로 출입하던 2칸 규모의 문이 있다.

어 독창적인 외관을 구성하고 있다. 곡강변(曲江邊) 단구형 입지에 축석루의 체도를 살피며 중창한 기록과 같이 입지, 규모, 지붕형식, 가구형식 등에서 진주의 축석루와 비슷하다고 추정된다. 그러나 변천과정에서 지형적인 조건에 대한 영남루만의 공간구성이 이루어져 독창적인 외관을 형성하고 있다.

대루는 정면 5칸, 측면 4칸 규모의 큰 팔작지붕 누각으로 장방형의 평면이다. 정면과 측면은 약 1.5 : 1 정도로 전형적인 비율을 보이고 있다. 주간은 전후면 협간 12척과 뒷간 8.3척이고 정간은 14.4자로 추정된다. 큰 규모를 이루기 위하여 주간을 넓게 잡고 있으며, 정면 정간(14.4자)의 주간을 협간(12자)과 퇴칸(12자)보다 넓게 잡고 측면은 전후 협간(12자)은 같고 전후 뒷간(8.2자)은 좁게 잡고 있다. 정칸을 크게 하여 위계적인 구성을 하고 있으며 측면에서 뒷간을 협간보다 좁게 잡아 시각보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면에서 협간과 뒷간을 같은 주간으로 잡은 것은 객사와 마주하고 마당에서 보았을 때 뒷간 사이에 측면 기둥이 중첩되어 시각보정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밀양강 쪽이나 사주문에서 보았을 때 측면이 뒷간을 좁게 한 것은 넓어 보이는 것을 보정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루가 놓인 자리가 후면 마당보다 낮게 조성되고 있고, 기단 형식이 드러나기보다는 사면으로 외진주 중심에서 대략 2.8-3m 정도 처마선의 낙수면에 맞추어 둘러진 배수로로 통해 주변과 구별되고 있다. 누하 흠바닥의 기단면은 외진주에서 배수로 쪽으로 10-20cm 정도 구배가 있고, 남서쪽 침류각과 연결되는 방향으로 배수되고 있다. 배수로는 자연석 막돌로 마감하고 있고 근·현대에 수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기단은 주변과 구분되도록 하고 있으나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고 있어 우천 시 지붕의 낙수를 고려한 처리라고 추정된다. 북쪽 정간에 계단이 설치되어 있고, 4면에 계자난간을 설치하여 동쪽의 능파각과 서쪽의 침류각으로 연장하여 설치하고 있다. 초석은 외진주와 중앙부를 포함하는 내진주의 형식이 다르게 나타나 위치에 따라 다른 형식을 하고 있다. 외진주 초석(18개)은 기둥 단면보다 약간 큰 40cm 정도 높이의 거칠게 다듬은 높은 원형초석 형태이다. 내진주와 중앙부 4개의 초석(12개)은 낮고 평편한 자연석초석이다. 초석의 높이는 50~163mm(지상 돌출부) 정도이며, 북측이 높고, 동측, 서측, 남측으로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기둥은 초석이 놓인 것이 다르므로 누하와 누상이 차이가 있다. 누하주는 초석에 맞추어 정면 6주가 5열로 배열되어 30개의 기둥으로 되어 있다. 덩병주초로 누하주는 비교적 단면이 작은 기둥을 세우고 있다. 누하주(42mm)는 누상주(39mm)보다 약간 크다. 누상주는 가운데 4개의 내진주를 감주하여 통칸으로 처리하고, 평주와 고주 각각 2열로 24개와 양측면 가운데 기둥을 부가하여 26주를 놓고 있다. 기둥은 목재의 형상을 살린 두리기둥으로 약한 민흘림이 있다. 누상의 외진주는 평주이고 내진고주는 평주보다 500mm 정도 높고 40mm 정도 굵은 고주이다. 밖으로는 대루의 사면을 개방하여 사방을 바라보며 아름다운 경관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하고 안으로는

넓은 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마루는 우물마루이고, 난간은 계자난간을 두르고 동쪽 능파각과 서쪽 침류각으로 이어지는 여수각의 계단부분까지 연장되고 있다. 누하주에 멩에(120×180mm)를 걸고 장선(120×150mm)을 걸구한 다음 그 위에 장귀틀과 동귀틀로 마루귀틀을 짜고 청판을 끼우고 있다. 누상에는 내진주를 없애 가운데가 넓은 마루공간을 형성하고, 누마루를 높게 꾸미고 있다. 귀틀과 청판은 조선 후기 중창 당시의 구조 및 치목 기법 등이 잘 남아있다. 특이한 것은 서측 면 퇴칸에 사용된 청판의 수가 적은 점이고, 다른 부분의 청판보다 폭이 넓은 청판을 사용했다. 이는 공간사용과 관련된다고 가정하면 위계가 높게 구성된 것이라고 추정된다. 대루의 계자난간은 누하주의 기둥머리에 멩에를 파 넣고 되맞춤 걸구한 다음 장선을 멩에와 걸구한 형태이고 청방의 옆면에 처마널을 대고 설치하고 있다. 대루와 능파각의 2칸 마루 중 1칸이 서측으로 연장되어 연결되는데 대루의 계자각 난간과 같은 형식이다. 여수각에 접한 대루의 남서 측에도 계자난간이 설치되어 있다.

가구형식은 내진 고주를 세우고 종도리, 중상도리, 중도리, 주심도리, 외목도리가 설치된 2고주 7량가 규모이다. 기둥 위에 창방을 설치하고 창방 위 중앙에 화반을 1개씩 33구를 설치하여 소로를 놓고 뜯장여나 장여를 받고 있다. 화반은 여섯 종류로 판재를 사용한 방형으로 촛가지를 초각하고 있다. 즉 종도리 하부에 호랑이, 주심도리 하부에 해태, 그 외에 위치에 따라 다른 연화문으로 되고 있다. 주심도리를 받는 화반은 문양에 따라 크게 세 종류로 나뉘고 화반의 너비와 높이도 다르다. 또한 주간이 좁은 양 측면 좌우 끝 칸의 화반은 크기가 작다. 이와 같이 화반은 사용 위치에 따라 문양이 다르고 문양의 종류에 따라 위계적인 의장을 하고 있다. 평주 머리에는 보 방향으로 퇴량과 도리 방향으로 충량을 걸고 있다. 내진고주와 외진주에 퇴량을 걸고, 양측면 기둥머리에 바깥쪽에서 내측 대량 위로 크게 곡선을 이루며 용두를 조각한 충량을 걸고 있다. 뒷보는 높이 차가 커서 우미량과 같이 보인다. 충량 머리에는 봉두를 조각하여 충량의 단부와 연결하고 있다.

외진 평주 상부의 공포와 내진고주 사이에 놓은 뒷보는 삼익공 위의 주심도리와 외출목도리 그리고 내진고주 위의 뜯장여와 걸구되어 중대공을 받고 그 위에 대량을 받고 있다. 중대공은 긴 판재형으로 외단을 직절하고 내단을 초각하고 있다. 퇴량은 충량과 유사하나 내외 기둥의 높이 차에 맞추어 우미량(牛尾樑)과 같이 보이고 있고, 내진 고주 위의 뒷보 뒷몸 내단에 세밀한 용두를 조각하고 있는데 의장적으로 사실적이다. 대량은 대부분 춤이 폭보다 큰 향아리형 단면으로 단일부재가 아니라 2-3개의 목재를 합쳐 큰 단면을 갖도록 하는 특성이 있다. 이는 흔하지 않은 수법으로 조선 후기 조성 당시 목재 수급이 어려워 목재를 적층하여 일체화하는 구조적 단면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창방은 세로가 긴 장방형으로 모서리를 모두 궁글린 형상으로 조선중·후기에 일반

적으로 사용된 형식이다. 대량 위에 포대공 형식의 종중대공을 놓아 장여 받친 상중도리와 결구되어 종량을 받고 있다. 종중대공은 파련대공처럼 초각한 3단 판재를 쌓고 도리방향으로 장여와 뜯장여 사이에 소침차와 대침차 그리고 좌두를 놓아 종량을 받치고 있다. 종량은 하부를 곡면으로 굴린 구형으로 종량의 양 단부에 홈을 파서 상중도리를 받고 있다. 종량 위에 도리방향으로 소침차와 대침차를 놓고 뜯장여와 장여 받친 종도리를 받고 있고, 보 방향으로 6단 판재를 쌓아 올려 짜 맞춘 판대공의 양단부를 초각한 파련대공 형식의 마룻대공을 놓고 장혀 받친 종도리를 효율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공포는 익공계통으로 외진주 상부에 18기가 올려져 있다. 공포는 외1출목 3익공 공포로 장식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기둥머리에 춤이 폭보다 큰 장방형 단면의 모서리를 굴린 창방을 결구하고 주두를 올려 도리방향으로 소침차와 대침차를 올리고 있다. 주심침차 위에 장혀와 별장혀를 놓고 그 위에 장혀 받친 주심도리를 받치고 있다. 외출목출목침차는 초익공 위에 소로를 놓고 소침차 위에 대침차를 올려 장혀 받친 외목도리를 받치고 있다. 출목침차는 마구리에 상세하게 연봉을 초각하여 위계를 표현하고 있다. 보 방향으로 연화와 연봉을 초각한 판재형 살미를 삼중으로 놓고 보머리에 봉두를 올리고 있다. 익공의 내단은 초각으로 처리하고 있다. 주심도리 하부의 별장여와 외목도리 받침장여 사이의 소로 상부는 판재형 순각판을 설치하고 있다. 귀포는 우주 상부에 45° 방향으로 익공 살미의 귀한대를 놓아 외1출목 침차와 결구하고 그 위에 용두조각을 놓고 있다. 침차는 마루대공과 중대공은 장여와 뜯장여 사이에 소침차와 대침차가 사용되고, 종중대공도 마루대공과 중대공과같이 장여와 뜯장여 사이에 소침차와 대침차를 짜고 있다. 중대공에 사용된 대침차는 침차 중 가장 길고, 춤이 마룻도리나 종중도리보다 커서 하중을 효율적으로 지지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모퉁이 내진고주 상부에는 퇴칸 쪽에 퇴량과 뜯장여 그리고 총량이 결구되는데 총량과 뜯장여의 결구부의 소침차 춤을 줄여 상면을 맞추어 올리고 있다.

천장은 연등천장이고, 외기에는 우물반자의 외기반자로 정교하게 치목한 선자연을 걸고 있다. 우물반자는 소란반자 형식의 정방형 격자반자틀이다. 우물반자로 위계를 부여하고 소란반자 형식으로 의장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서까래는 장연(長椽), 단연(短椽), 동연(棟椽) 등이 있고 장연과 부연 그리고 단연과 동연의 수가 같다. 장연은 끝부분을 걸어 올린 형태로 다듬은 다음 마구리를 직절하고, 부연의 마구리는 역사다리 꼴이다. 지붕은 겹처마 팔작지붕으로 처마 끝에 막새를 설치하고 있다. 기와는 대와로 북쪽 정면을 새기와를 얹고 나머지는 옛기와이다. 용마루는 착고와 부고를 올리고 그 위에 8단으로 적새를 쌓고, 용마루 양단부에는 적새를 12단 쌓아 양곡을 잡고 있다. 내림마루는 용마루에 접한 4단 적새에서 끝에는 10단 적새로 증가시켜 양곡을 형성하고 있다. 귀마루는 부고 위에 5단 적새에서 망와 부근에서 10단으로 양곡을 형성하고 있다. 용마루와 정면 내림마루 및 귀마루 끝의 용두 망와는 마지막 번와 때 교체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전에 사용된 망와, 막새기와 등이 발견되어 여러 차례 중수 흔적이 나타나고 있다.<sup>34)</sup> 제작자 이름이 기록된 1844년 중건 외에도 1873년 변화가 있고, 1830년 중건 때 변화도 확인할 수 있다. 지붕은 밀양지역에 많이 나타나는 안허리곡이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직선에 가까운 형태로, 최대 만곡점이 동쪽 1/4 지점으로 치우치거나 튀어나오는 등 많이 변형된 형태이다. 추녀는 폭보다 춤이 큰 장방형으로 추녀 뒷뿌리는 하중도리와 외기도리가 교차되는 부위에 놓여있고 뱃바닥이 위로 휘어 오른 형태이고, 추녀의 마구리는 밑면 가운데가 약간 배부른 형태이다. 추녀 부분은 방구매기에 가까운 형태이다. 처마 내밀기는 일정했을 것으로 추정되나 북쪽이 2,627mm로 크고, 서측이 2,611mm로 짧다. 추녀 위의 사례는 대개 뒷 뿌리의 폭이 마구리보다 약간 더 크고, 마구리면에 귀면와를 설치하여 부식을 막고 있다. 사례의 내밀기는 916mm 정도로, 가장 짧은 남서쪽 추녀가 836mm, 가장 긴 북서쪽 추녀가 993mm이다. 합각 머리 부분이 넓고 내려오면서 좁아지는 형태로 만곡된 박공널을 맞댄 부분에 지내철을 설치하고 있다. 목기연은 동측은 후대에 교체하고, 풍판은 졸대를 촘촘히 설치하고 있다.

영남사(嶺南寺) 누각이었을 당시에 단청에 대한 기록이 확인되며 1365년 중창하면서 단청을 하고 있다. 그러나 1834년 소실되면서 1844년 중건하면서 현재와 같은 단청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영남루의 외부 단청은 1971년 개철된 것으로 추정되나 내부의 부재 문채는 내부 도리, 종량, 퇴량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1843년 중건 시 단청 양식이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변형된 부분은 추후 고증에 의해서 원형으로 보존해야 할 것이다. 영남루는 일반적인 양식과 달리 육색(肉色)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나 각 머리초 먹기화 시분을 동시에 시채(施彩)한 것 등 고급 채화로서 화려하게 단청하고 있다. 대량머리초의 용실 문양과 선자연에 표현된 사신도 등은 섬세하고 독창적인 조형미를 나타내고 있다.

능파각(능파당)은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겹처마 팔작지붕이다. 1488년에 창건되었으나 여러 차례 소실되어 1661년(현종 2)에 중건한 후 소실되어 1843~44년에 중건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능파각은 능파당, 망호당, 봉래관 등으로 불리며 부사가 업무를 보거나, 사신이나 빈객의 유숙 기능 및 작은 연회를 위해 지은 건물이다. 밀양객사는 일반적인 객사가 좌우에 익헌을 설치하는 것과 달리 정청만으로 구성되고 있다. 이에 객사의 익헌의 기능을 대루에 접한 능파각과 침류각이 담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대루가 능파각, 침류각 그리고 현량과 월량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것은 객사와 관련되며 변천 과정에서 여기만의 방식으로 정착된 것으로 추정된다. 대루 동쪽에 인접한 능파각은 객사의 좌익헌의 기능을 하면서 밀양부사가 정사를 처리하기도 한 것으로 추

34) 망와 중 “道光二十年六月”명문망와(1830년 중건 전에 제작), 귀면문양 망와(여수각과 대루의 동쪽 측면에 막새로 사용), “甲辰夏平洞李等內重建” 암막새 명문 세 종류(1844년 중건), ‘甲辰’명문 수키와(1844년 여름 평동 이등내(平洞 李等內) 제작), ‘癸酉’ 명문 기와(서 측면 지붕, 1873년 제작) 등이고, 여러 종류의 막새기와의 와당 문양, 인물문 막새 등도 있다.

정된다.

배치는 대루보다 북쪽 마당쪽으로 나와 있고, 남쪽으로 규모가 작아서 대루보다 안쪽으로 들어와 있다. 대루 동쪽에 위치한 좌익헌으로 서쪽의 1칸 현랑(연결마루)으로 연결되고, 서쪽 칸에 장대석 진입계단이 설치되어 있다.

평면은 동쪽부터 2칸 온돌방, 1칸 개방된 대청으로 되어 있고, 경관이 좋은 남쪽으로 전퇴를 놓고 있다. 남쪽을 제외한 삼면에는 현함(軒檻)을 꾸미고 대루의 난간과 같은 계자난간을 설치하고 있다. 능파각의 서쪽 대청 북쪽으로 폭이 넓은 자연석 계단을 놓아, 대청으로 오르고 연결마루를 통해 대루로 연결되도록 하고 있다. 주간은 어칸과 양협칸이 10척으로 같아 같은 영조척을 사용하고 대루와 같은 295~313mm 정도의 영조척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면과 측면의 비는 1:1.5로 조형미를 고려한 것으로 추정된다. 측면 간살은 서측면이 2칸이고, 동측면이 남쪽에 전퇴를 꾸미면서 공간사용을 위한 후퇴도 부가된 형태로 추정된다. 후퇴는 온돌방에 통합되어 있으나 벽장이 설치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벽장도 설치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복구하면서 온돌방으로 통합되어 공간사용을 잃은 것이 아쉽다고 판단된다.

계단은 기단까지 오르도록 설치하고 기단면에 디딤돌을 놓아 대청마루로 올라가도록 하지만, 능파각은 지면에서 대청마루로 바로 연결하는 계단을 설치하고 있다. 객사와 마주해 있고 객사의 축에서 약간 동쪽으로 벗어나 있지만 정면에서 직선적으로 연결되어 좌익헌으로서의 위계를 갖는 건물이라고 추정된다. 방과 마루로 구성된 익헌을 꾸미기 위한 고유의 가치를 갖는다고 추정된다. 이에 대루에 오르던 계단과 같은 형식으로 대청으로 바로 오르도록 하면서 대루의 높이와 차이를 두는 세밀한 계획으로 설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객사와의 연결 관계를 중요하게 다룬 장치로 추정되며 자연스럽게 대루로 오르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기록은 1543년 망호당(望湖堂)을 옛터에서 남쪽으로 옮겨 대루의 동북쪽으로 옮겨 능파당이라고 하고, 이때 터를 높여 영남루-능파당의 오고감에 불편함을 줄였다고 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고 추정된다.

능파각은 전후좌우면의 높이 차가 있는 지형을 고려하고 대루의 높은 누마루와 맞추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방형 막돌, 잡석 등을 섞어 쌓은 높은 기단을 조성하고 있다. 지형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고 전면에서 후면으로 흐르고 있어 정면 기단은 서측면과 남측면쪽으로 갈수록 기단이 높아지고 있다. 기단 내밀기는 서북측이 가장 커서 출입 및 대루와의 연결을 고려하고 있다고 추정된다. 그 위에 거칠게 다듬은 초석을 놓고 두리기둥을 세우고 있다. 두리기둥 하부에는 원형에 가까운 초석이고 네모기둥에는 방형에 가까운 거친 자연석을 사용하여 위계적인 구성을 반영하고 있다. 기둥은 모두 평주로 남·북·서측면 외진주에 두리기둥을 사용하고 온돌방 남면과 내진평주만 네모기둥을 사용하고 있다. 북·서측에 사용된 두리기둥은 마루의 상하로 구분되지만 남측 외진주는 통재를 사용하고 있다. 두리기둥은 주요 조망점을 고려하여 배치하고 있고 동측은 공간

사용에 따라 네모기둥으로 결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흘림율은 두리기둥이 1치 정도이고 네모기둥은 그보다 작다 두리기둥의 흘림이 서측이 큰 것은 대루와의 관계에서 설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외진의 평주 머리에 폭보다 춤이 큰 장방형의 창방을 걸고 직교하여 초익공과 결구하고, 주두를 놓은 후 그 위에 이익공을 올리고 그 위에 봉두를 조각한 대량을 얹고 있다. 익공에는 연봉을 조각하고 있으며 우주의 초익공 쇠서는 수서형, 이익공은 양서형에 가깝게 처리하고 있다. 이는 귀솟음으로 익공이 드러나 보이므로 날렵하게 보이기 위한 처리라고 추정된다. 공포는 출목이 없는 이익공계통으로 무출목 이익공이다. 이는 삼익공계통의 대루와 같은 형식이지만 위계를 구분하기 위하여 간단하게 처리하고 있다. 창방 위 주간에 화반을 놓고 소로를 올린 후 장여 받친 되를 받치고 있다. 연봉형 익공, 봉두, 화반 조각 등이 대루와 같은 형식이지만 간략하게 장식하여 차별을 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조선 후기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추정된다.

가구는 긴보 5량가이다. 이익공계통의 공포 위에 대량을 건너지르고 장여 받친 주심도리를 받고 대량 위에 삼분변작하여 외단은 직절되고 내단은 안으로 빗 자른 판대공 형식과 조각된 첩차로 결구된 중대공을 설치하여 장혀 받친 중도리와 종량을 결구하고 있다. 대량과 같으나 크기가 작은 종량 위에 판대공형식의 마룻대공을 설치하여 장여 받친 중도리를 받치고 있다. 폭보다 춤이 크고 모를 굴린 장방형 단면의 대량은 보 방향으로 외진 평주를 건너지르면서 도리 방향으로는 동서측 층량을 받고 있다. 층량은 가운데가 휘어 오른 홍예형으로 외단으로 외진주의 주두와 보아지 위에 놓여 주심도리를 받고 내단으로 대량 위에 올리고 있다. 중앙부가 위로 굽은 대량과 위로 굽은 층량이 대청의 조형미를 잘 드러내고 있다. 도리는 굴도리이고 온돌방 남측에는 남도리이다. 도리는 주심도리, 중도리, 종도리 등이고 도리의 하부에는 폭보다 춤이 큰 통장여를 설치하고 있다.

대청은 연등천장이고 외기도리 안쪽에만 소란반자의 우물반자로 처리하고 있다. 마루는 우물마루이고 남측 툇마루와 서측 남쪽 1칸을 제외하고 현함을 설치하고 있다. 대청마루와 현함을 구분하여 위계적인 동선으로 처리하고 있다. 현함은 북측에는 보 방향으로 장귀틀을 걸고 도리방향으로 동귀틀을 걸어 청판을 끼우고, 동·서측은 보 방향으로 동귀틀을 걸어 방향이 다르게 구성하고 있다. 서측 남쪽 1칸 현랑(연결마루)도 우물마루이다. 사면의 계자난간은 마루틀 위에 지방을 대고 그 위에 난간동자인 계자각을 세우고 난간두겹대를 두른 형태이며, 계자각 사이에는 안상을 새긴 궁창 널을 끼워 막았고 있다. 창호는 동측면을 제외한 삼면에 설치되고, 2칸 온돌방 사이에도 귀갑살의 사분합미서기 문을 달아 공간을 구분하면서 연결하도록 하고 있다. 온돌방 전후 면의 창호는 머름 위에 시설하여 창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청방간(廳房間)에도 주선을 꾸미고 사분합문을 설치하고 있다. 2칸 온돌방의 북측에도 방형 문얼굴을 형성하기 위해 문인

방과 머름중방 사이에 문설주를 세웠으며, 상하 인방재와 문설주는 고식의 연귀맞춤을 하고 있다. 겹창으로 내측에 두 짝의 완자살 미단이창을 설치하고, 바깥에 띠살창(남측) 또는 널창(북측)을 달고 있다. 대청에서 온돌방으로 출입하는 들문은 두 짝씩 접어 들쇠에 들어 올려 고정하는 사분합문이다. 문짝은 방형 불발기가 있는 들문으로 맨 하부에 세살대신 궁창널을 끼운 형태이다. 온돌방 북측의 쪽마루 하부에는 아궁이를 설치하고 굴뚝은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온돌방 앞 시간에 설치하고 있다. 대루 동쪽에 위치한 좌익루로 대루 북동쪽 정면 협간과 능과각 서측 배면쪽 협간과 현랑으로 연결되고 있다. 능과각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연결마루는 대청마루 장귀틀을 경계로 하여 도리방향으로 동귀틀을 놓고 청판을 설치하고 있다. 대루와 능과각은 누마루 레벨차가 있어 2단의 목계단(木階)을 설치하여 대루로 오르도록 되어 있다. 서까래는 곡척 0.9~1.2자 정도를 기준으로 장연과 단연 그리고 합각부를 구성하는 허가연(덧서까래)으로 구성되고 네 귀는 선자연이다. 가지부연이 없이 서까래와 부연은 각각 126개로 북측 36개, 남측 37개, 동측면 25개, 서측면 28개이다. 대루 쪽으로 화려하게 처리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붕은 겹처마 팔작지붕이다. 처마 폭보다 큰 장방형의 추녀는 사례 끝에 토수를 끼우고 있다. 추녀는 북서측을 많이 내밀고 사례는 북동쪽을 많이 내밀고 있다. 추녀 내밀기는 원래 7.0자(尺), 사례내밀기가 2.5자(尺), 전체 내밀기는 9.5자(尺)로 추정된다. 남동측의 추녀와 사례가 202mm 정도 짧아 양곡과 안허리곡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내림마루는 전후면 서측면이 전면 77mm, 후면 130mm 정도 약간 높고, 길이도 동측이 서측보다 약간 크다. 또한 처마 내민 길이는 대루와 접한 서측면이 적게 나타나 대루의 지붕과 맞추고자 하는 의도로 추정된다. 귀마루는 전면은 북서측이 108mm 정도 높고 후면은 남동측이 64mm 정도 남서측보다 높아 귀솟음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지붕 물때는 전후면 바닥기와의 수직 길이와 수평 길이가 거의 1:2 정도로 전통한옥의 물때와 같은 5치(寸) 물때이다. 지붕은 중앙부보다 약간 위쪽으로 전면 110mm, 후면 165mm 정도로 약한 곡면을 이루고 있다. 합각은 양 측면 외진기둥 열보다 안쪽에 위치하고 있다. 박공널에는 끝부분이 약간 휘어 오른 재목을 사용하고, 목기연은 박공널마다 3개씩 배열하고 있다. 합각부의 벽은 박공널 안쪽에 위치하며 종도리가 합각벽 밖으로 노출되고, 그 밑에 원통형의 통기구가 있다. 지붕에는 암키와, 수키와, 내림새, 막새, 망와 및 귀면와가 사용되었다. 귀면와는 사례 끝에 고정되어 있으며, 본래 4개가 사용되었다. 귀솟음은 외진 평주보다 꺾기둥이 약간 높지만 대루와 연결되는 서측의 꺾기둥은 약간 낮게 나타나고 서측면 가운데 기둥의 높이보다 북쪽 꺾기둥이 높고 남쪽 꺾기둥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기단과 초석의 부동침하로 변형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대루에 접하고 있어서 귀솟음을 크지 않게 조절한 것으로 추정된다. 각주를 중심으로 귀솟음 정도를 살펴보면 북측 47mm, 남측 65mm 정도로 남측(밀양강 쪽)보다 북측의 귀솟음이 뚜렷하여 주요 조망점이 북쪽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남쪽은 밀양강이나 강

건너편에서 보았을 때 대루의 귀솟음이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우주의 안솔림은 귀솟음과 같이 대루와 연결된 서북측 우주의 안솔림이 동북측 우주보다 적게 나타나다. 이는 대루와 시각적으로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약화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초매기와 이매기의 양곡은 남북측면 모두 동쪽이 서쪽보다 크게 나타나 자체적으로 팔작지붕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대루와 연결되므로 의도적으로 시각적인 보정을 위한 조형적 통일성을 주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후면의 양곡은 북쪽이 남쪽보다 크게 나타난 마당으로 대루가 돌출해 있으므로 시각적인 것을 고려한 것으로 추정된다. 처마곡선도 남북측 모두 동쪽이 서쪽보다 치켜 올라가게 처리하여 대루와 일체감있는 구성을 하면서 좌익헌으로서의 격식을 갖도록 하고 있다. 안허리곡은 중앙이 가장 낮고 좌우로 가면서 안쪽으로 들어 처마를 유려하게 보이게 하고 있다. 남동측의 추녀와 사래가 다른 쪽보다 작고, 서측은 대루 끝선보다 안쪽 부분과 북쪽으로 돌출된 부분이 있어 안허리곡이 차이가 난다. 대루에 접한 부분에 맞추어 안허리곡을 형성했기 때문이고, 남측과 북측면을 완만하게 안으로 휘어진 것은 대루의 처마선에 맞추는 익헌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보정된 것이라고 추정된다. 단청은 간결한 모로단청으로 대루와 같이 육색(肉色)을 많이 사용하고, 능파각의 기능과 성격에 맞는 단청을 하고 있다. 이는 화려하지 않으면서 자체 성격이 잘 드러나고 상대적으로 대루가 드러나도록 하고 있다.

침류각(枕流閣)은 조선 초 소루라고 명명하면서부터 枕流堂, 臨鏡堂, 小樓·召樓, 瀛洲閣 등으로 불리며 소실과 중창 및 중수를 거듭하면서 1442년 1843~44년에 중건된 건물이다. 정면 3칸, 측면 2칸의 소박하고 작은 건물이지만 객사에 부속된 우익헌이라고 할 수 있다. 객사에 정정만 있고 좌우에 익헌이 없어 침류각이 사신이나 관리 등의 유숙 등을 하는 익헌으로서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객사와 대루와 능파각을 현랑이 연결하고 침류각을 여수각으로 연결된 유기적인 배치를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침류각은 대루 서편 지형이 낮은 곳에 자리하고 있다. 또한 침류각이 자리한 지형도 동쪽이 높고 서쪽과 남쪽으로 완만하게 경사져 있다. 능파각이 대루 동쪽에 인접하게 배치하여 현랑으로 연결한 것과 달리 침류각은 서쪽의 낮은 지형에 배치하여 여수각을 통해 지형을 극복하여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있다.

평면은 정면 3칸, 측면 2칸으로 가운데 마루를 두고 그 좌우에 온돌방을 두고 있다. 정면과 측면의 평면비는 약 1.5:1로 대루와 비슷한 비를 보이고 있다. 주간은 정면이 동측 협칸 2,481mm, 정간 2,478mm, 서측 협칸 2,464mm이고, 측면이 뒷마루가 놓인 전면 칸 2,150mm, 후면 온돌방 2,770mm이다. 정면 주간은 같은 주간이지만, 측면 주간은 온돌방이 전면의 뒷마루보다 2자 정도 넓지만 뒷마루가 넓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밀양강 쪽 남향으로 전면 1칸에 넓은 뒷마루로 이어져 정면과 사면으로 삼분하고 측면까

지 파노라믹한 경관을 조망하도록 하고 있다. 산수뿐만 아니라 동서로 흐르는 밀양강의 흐름을 연속되게 조망하는 평면계획으로 추정된다. 전퇴와 정간 후면은 우물마루를 깔고, 후면 협간에 온돌방을 놓고 있다. 정간을 남북으로 열고 전면과 측면으로 마루를 크게 설치하여 숙소와 연회 그리고 조망에 잘 대응하고 있다. 방에는 동쪽면을 제외한 사면에 창호를 설치하고 있다. 동측으로는 여수각을 통해서 대루와 연결되어 다양한 공간사용에 대응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단은 동에서 서쪽으로 급하게 흐르는 지형에 대응하여 경사진 지형에 따라 아랫단을 조성하고 서측을 높게 쌓아 수평이 되도록 윗단을 조성하여 2단으로 쌓고 있다. 전후면 기단은 지형에 따라 1-3단의 자연석 허튼층쌓기로 경사가 적은 부분에 작은 돌을 사용하고, 큰 부분에는 큰 돌을 사용하고 있다. 서측 기단은 지반고가 가장 낮아 맨 아래에 큰 돌을 놓고 그 위에 자연석을 눕히거나 세워쌓는 방식으로 자연석 허튼층쌓기 수법으로 3~4단을 조성하고 있다. 동측 배면은 자연석 외벌대기단으로 조성하고 폭을 좁혀 여수각의 기단부분과 맞추어 연결하고 있다. 동측은 여수각과 접해 배수로가 기단 역할도 하고 있다. 경사진 지반에 2단의 기단면도 고르지 않아 초석의 높이도 일정하지 않다. 초석은 모양과 크기가 일정하지 않은 넓고 편평한 자연석을 사용한 덩빙주초이다. 덩빙주초 위에 외진에 평주와 내진에 고주를 올리고 있다. 기둥은 외진주에는 두리기둥과 정간 마루 양쪽과 측면 가운데에는 네모기둥이다. 기둥은 약한 민흘림이 있고 자연스러운 곡면을 살려 치목하고 있다. 남쪽은 밀양강이나 들판에서 보게 되므로 같은 형식과 간격으로 하고 있다. 반면 북쪽은 정간의 기둥이 네모기둥(232×240)이고 우주가 두리기둥(293-314mm)으로 되어 있다. 이는 같은 간격이지만 정간의 기둥이 상대적으로 작아 넓고 단일 건물로서 안정감을 주고 있다. 기둥머리의 창방과 처마도리 사이에 가운데 꽃병에 만개한 꽃이 꽃혀있는 모양의 화반을 놓고 상부에 소로를 놓아 처마도리 받침 장여를 처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는 능파각의 화반과 같은 형태이지만 능파각 화반이 가로로 긴 형태인데 비해 가로와 세로의 균형이 잘 잡혀 있다. 이러한 의장은 능파각의 좌익헌에 대해서, 침류각은 우익헌으로 같은 의장적인 처리를 하면서 건물 자체의 균형이 잡힌 의장을 하고 있다고 추정된다.

가구형식은 5량가로 공포는 무출목 이익공계통이다. 전후면의 평주 위에 대량(245×300)을 걸고 그 위에 삼분변작하여 3단으로 판재를 내단으로 빗 자르고, 외단으로 직절판 판대공 상단에 침차와 소로를 짜서 장여 받친 중도리와 결구하여 폭보다 춤이 큰 모굴린 장방형의 종량을 받고 있다. 그 위에 제형판대공을 놓고 상단에 침차와 소로를 짜서 장여 받친 중도리를 받고 있다. 그리고 양 측면 장여 받친 처마도리에 종량의 외단을 결구하고 내단을 대량과 직교하여 올리고 있다. 서측면의 전후열을 보방향으로 터서 온돌방을 두고 나머지 칸은 현재 통칸으로 구성하고 있고, 동측면의 전면칸 상부에는 여수각의 마루대가 연장되어 도리와 같이 보이는 부재를 대어 여수각과 결구되고 있다.

방은 동·서측면의 전면 칸을 대량 상부에서 벽체로 막고, 고주창방 하부에 수평으로 막아 천장을 꾸미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칸은 연등천장의 마루로 조성하여 방과 마루를 결합하고 있다.

공포는 출목이 없는 이익공계통이다. 기둥머리에 연봉수서형의 초익공 살미와 창방을 직교하여 결구하여, 그 위에 주두를 놓고 그 위에 연화 양서형 쇠서의 이익공을 도리방향 주심침차와 직교하여 짜 올리고, 그 위에 장여 받침 처마도리와 봉두를 조각한 대량 뿔목을 결구하고 있다. 귀포는 기둥머리에 창방 뿔목에 연화를 조각한 양서형 쇠서를 직교하여 끼우고, 주두를 놓아 침차가 외기로 연화를 조각한 양서형 쇠서를 직교하여 결구하고, 그 위에 처마도리 받침 장여 뿔목에 봉두를 조각하고 있다. 익공과 화반의 조각 등은 대루와 유사하나 간략하게 표현하고 있고 봉두나 봉화 등은 조선후기 양식으로 추정된다.

도리의 굴도리이고 위치에 따라 크기가 차이가 있다. 지붕 하중을 받는 처마도리에 단면이 큰 부재를 사용하고 있고, 여수각과 접하는 침류각 동측 주간의 상부에는 여수각 종도리가 연장되어 있어 마치 침류각 내부에 도리를 하나 더 쓴 것처럼 보인다. 여수각의 종도리는 중도리와 처마도리 사이에 놓여 서까래를 직접 받으며, 여수각 대량 위에 동자주 대공(직경 210mm)을 세워 종도리를 지지하고 있다. 장여는 모를 죽이지 않은 각재의 통장여로 크기는 위치에 상관없이 폭은 90mm(3푼), 춤은 150mm(5푼) 정도이다.

지붕은 겹처마 팔작지붕으로 동쪽 배면 2/3 정도는 여수각과 중첩되는 부분은 맞배지붕이다. 침류각 기둥머리에서 도리와 창방을 여수각 기둥에 연결하고 있다. 침류각 위로 여수각의 지붕이 겹치도록 하고 처마는 홑처마이다. 동측은 여수각의 종도리와 나란히 짧은 중도리를 걸고 남북 방향으로 연목을 걸고 있다. 동측 합각부 아래에 남동 측 귀마루와 같은 방향으로 회침골을 만들어 우수를 처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격식화된 지붕의 형식과는 달리 여수각과 이어지면서 다른 형식을 조화를 이루도록 자의적인 지붕형식을 나타내고 있다. 침류각은 대루와 능과각보다 간결한 단청을 하였는데 이는 건물 간 위계를 나타내고 있다. 서까래는 끝을 걷어 올리고 마구리를 사절하여 330mm 정도 간격으로 놓고 있다. 부연은 서가래 수와 같으며 마구리가 역사다리꼴 각재로 연단(緣端)을 조금 후리고 마구리를 사절하여 345mm 정도 간격으로 놓고 있다. 천장은 가운데 마루만 연등천장이고, 좌우 온돌방의 천장은 종이반자 형식이다. 선자연의 내단이 모이는 네 귀의 외기반자는 보 방향의 대량과 외기도리 받침장여 사이, 도리방향 중도리 받침장여 사이에 반자틀을 만들고 반자청판으로 막아 놓은 우물반자 형식이다. 침류각의 처마 양곡을 살펴보면, 초매기 양곡은 중앙부가 가장 낮고 동, 서쪽 추녀 쪽으로 갈수록 휘어 오르는 양곡을 형성하고 있다. 전후면 좌우 처마높이 차를 살펴보면 전면(남측)의 좌우 높이 차는 167mm, 후면(북)의 높이 차는 79mm로 건물의 중앙부를 중

심으로 서(西)측으로 갈수록 더 들려지고 동(東)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측면 역시 정상적인 양곡선을 유지하면서도 북측(후면), 남측(전면)의 처마높이에 차이는 40mm 정도로, 건물 전면이 높고 후면이 낮다. 침류각 처마의 양곡과 안허리곡은 오랜 기간 동안의 이루어진 구조 변형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정확도에 의문이 있다. 귀솟음은 미미하게 나타난 오랜 기간 건물이 변형되었거나 수리 시 기법으로 추정하고 있다. 우주의 기울기는 전면(남) 12mm, 동 측면 38mm, 후면(북) 43mm, 서측면 30mm로 일정하지 않으나 대략 12-48mm의 안쏠림이 있어 영조척 약 1치(寸) 정도로 추정된다. 서측면 처마의 안허리곡은 가장 많이 안쪽으로 들어간 부분은 서까래 195mm, 부연 207mm이다. 팔작지붕의 용마루와 내림마루는 대체로 급한 경사를 이루고 있다. 내림마루와 귀마루에서는 편차를 보이고 있어 지붕과 구조부에 변형이 확인된다. 용마루의 와곡(瓦曲)은 내림마루의 최대 깊이가 좌측이 173mm, 우측이 192mm이고, 귀마루의 와곡은 좌측이 75mm, 우측이 78mm 정도이다. 지붕의 양 측면 합각부에는 합각벽이 있는데, 큰 원호를 이루는 만곡형의 박공널을 두고 상부에는 목기연을 걸고 하부를 벽으로 처리하고 있다. 암·수막새 와당의 문양은 모두 화문(花紋)이나 세부 형태는 다르다.

기둥과 인방 사이의 바름벽은 심벽 구조로 방의 안쪽만 벽지로 마감하고 나머지는 모두 회반죽으로 마감하고 단청하고 있다. 동서 측면 전면 칸의 대들보와 고주창방 상부의 바름벽 그리고 보와 도리 위의 서까래 사이를 막은 당골벽 회삼벽이고, 하인방 하부의 고막이벽도 회로 마감하고 있다. 합각부의 합각벽은 바름벽 위에 붉은 칠로 마감하고 있다. 온돌방에는 주로 세살창을 설치하고 마루 배면에는 고졸한 형식의 두 짝 울거미 널문을 설치하고 있다. 동·서측 온돌방은 전후 면과 청방간(廳房間)에만 창호가 있다. 전후 면에는 벽 중앙에 창호를 설치하고 방 밖에는 두 짝 띠살 창과 안쪽에 두 짝의 용자살 미단이창을 설치하고 있다. 온돌방과 마루 사이의 청방간(廳房間)에는 하부에 궁창널이 있는 두 짝의 키 큰 띠살창을 설치하고 있다. 대루(大樓)의 서편 낮은 곳에 배치되어 있는 침류각은 입지와 건축 규모, 형식 및 기록 등으로 살펴볼 때 주 건물인 대루나 동의현인 능과각보다 낮은 위계를 반영하여 간결하게 표현하고 있다. 지금의 단청은 침류각을 해체하여 수리하고 2002년에 시공한 것이다.

여수각(如水閣, 層層閣)은 대루와 침류각을 잇는 정면 4칸, 측면 1칸의 계단식 월랑으로 1843~1844년 중건한 건물이다. 높은 지형에 위치한 대루와 서측 낮은 지형에 위치한 침류각을 연결하는 독특한 형태의 누각이다. 대루의 남서측 퇴칸과 침류각의 동측면 전퇴로 주간에 단을 이루어 계단참을 형성하여 빈객들이 대루와 침류각을 계단으로 출입할 때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붕은 층단마다 팔작지붕 형식과 우진각지붕을 혼합한 형식으로 중첩되어 있는 독특한 형태이다. 대루의 서측면 협칸과 연결되면서 지붕이 이어

져 있고 침류각과 중첩된 부분은 침류각 지붕의 모양을 조정하여 중첩하고 있다. 목조 계단과 단마다 난간을 설치하고 있다.

경사지에 지형 변화에 따른 높이 차이를 3단의 층단형의 여수각으로 연결하여 독창적인 형태의 월랑을 형성하고 있다. 침류각에 접한 서쪽 주간은 7.0척이고 대루에 접한 주간은 8.0척으로 지형 특성을 반영하면서 조형미를 강조하기 위한 비례를 구성하고 있다. 여수각은 경사지에 위치하여 층단형 기단과 흘림기단을 절충한 형식으로 형성하고 있다. 중간 기단은 대루 기단의 자연석보다 작은 자연석과 활석을 섞어 쌓고 있다. 기단 좌우에 배수로를 만들어 우수를 처리하고 있다. 서측은 침류각 기단에 맞추고, 동측은 대루 기단과 같이 맞추어 층단을 이루며 지형의 변형을 최소화하여 조성하고 있다. 초석은 자연석을 일부 잔다듬한 높은 원형주초이다. 하층각의 고주를 받는 초석은 침류각 기단 상면에 놓고, 중층각의 기둥을 받는 초석은 중간 기단에 놓고 있다. 대루 기단면의 누하기둥을 받는 초석은 대루와 같은 높은 원형주초이고, 중층각과 침류각 기단에 고주를 받치는 초석은 자연석을 다듬어 침류각 초석에 맞추어 의도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 위에 높이차를 고려한 303mm 정도의 약한 민흘림이 있는 두리기둥으로 누상주보다 누하주를 굵게 하여 구조적 안정성과 시각적 안정감을 주고 있다.

가구형식은 변형된 3량가이다. 기둥과 기둥 사이는 귀틀로 결구하고 기둥머리는 창방으로 결구하고 있다. 하층각은 고주 머리와 누상주 중간에 창방을 결구하여 무출목 이익공의 공포와 화반을 올려 남북서쪽으로 장여 받친 주심도리를 걸고 그 위에 연목을 걸고 있다. 종도리 대신 하층각 주심도리 가운데에서 중층각의 주심도리 가운데로 우미량을 걸어 지붕가구를 받고 있다. 다시 중층각도 하층각과 같은 형식을 반복하고 있다. 상층각은 고주 머리와 대루의 누상주에 창방으로 결구하고 이익공의 공포와 화반을 올려 남북서쪽으로 장여 받친 주심도리를 걸고 그 위에 연목을 걸고 있다. 종도리 대신 상층각 주심도리 가운데에서 대루 서측면의 창방 위 화반 가운데로 우미량을 걸고 있다. 우미량은 모서리를 굴린 형태로 하층각과 상층각은 약하고 중층각은 자연 재를 약간만 다듬어 사용하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일반적인 팔작지붕과 달리 종도리 대신 우미량과 같이 휘어 올라간 곡재를 사용하여 지붕가구를 받고 있어 지붕 높이가 다른 층각의 주심도리를 건너지르고 있다.

공포는 무출목 이익공계통으로 능파각이나 침류각과 같은 형식이다. 초익공은 창방뿔목에 연화형 익공살미를 새기고 그 위에 주두를 놓고 다시 보 방향으로 연화쇠서형의 이익공살미와 내단의 침차를 결구하고 있다. 그 위에 보와 도리가 서로 직교하여 왕지도리를 짜고 뿔목으로 처리하고 장여뿔목에는 봉두를 초각하고 있다. 이익공과 직교하는 주심침차의 양단에는 이갈소로를 놓아 장여 받친 주심도리를 받고 있다. 쇠서는 수평에 가까운 연봉수서형으로 침류각과 같은 형식으로 자체적으로 화려하면서도 대루의 삼익

공 형태보다 간결하게 위계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주간 사이 창방과 장여 받친 주심도리 사이에 설치된 연화를 새긴 화반도 침류각과 대루의 화반과도 유사하지만 대루보다 간략하게 처리하여 위계적인 구성을 하고 있다.

지붕은 겹처마 팔작지붕 형식에 우진각지붕을 혼합한 형식으로 중첩되고 있다. 팔작지붕의 가지부연 없이 서까래와 부연을 같은 수로 간격을 조정하고 반을 사절한 팔작지붕계통으로 팔작지붕과는 다른 형식을 하고 있다. 천장은 연등천장으로 하층각과 상층각에 전후면의 말굽서까래 외에는 전자서까래이고, 중층각에 3면은 추녀와 말굽서까래로 구성하고 있다. 가운데에서 추녀귀까지 말굽서까래를 평행하게 놓은 형식은 초가에 보이는 형식이다. 기와는 대루와 능파각, 침류각과 동일하고, 사례 끝에 끼워져 있는 귀면와는 능파각과 동일하다. 귀솟음도 미미하고 갈모산방 없이 주심도리 위에 연목을 배열하여 처마 양곡이 잘 나타나지 않고 있다. 중층각의 처마 내밀기는 하층각이나 상층각보다 9치(寸), 5치(寸) 정도 적게 하여 처마내밀기가 같으면 중층각의 지붕이 앞으로 전출되어 보이는 시각보정을 고려한 것으로 추정된다.

계단참은 우물마루로 전후면 장귀틀을 경계로 동귀틀을 짜서 청판을 끼우고 있다. 장귀틀은 층각의 경계를 이루며 하부에는 장여 모양의 청방을 사용하고 있다. 보 방향의 장귀틀은 청방과 같이 빨목으로 처리하고 있다. 서쪽 끝에는 목조 계단과 계단참이 놓여 있고, 계단참의 전후 면에는 각각 2단의 디딤판이 설치되어 있다. 하층각·중층각·상층각의 장귀틀에 2단의 계단 디딤판과 마루청판을 결구하는 방법으로 목조 계단과 마루를 만들어 오르내리도록 했다. 계단의 너비는 다양하며, 단 높이도 지형 레벨 차와 부재의 치목 등에 의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수각은 계단 기둥 사이에 평난간을 설치한 ‘평란 층제(層梯)’의 건물이다. 장귀틀 위에 엄지기둥을 중심으로 좌우 기둥 사이에 지방을 대고 중앙에 동자주를 세우고 그 위 누상주와 엄지기둥 사이에 돌란대를 시설한 형태이다. 동자기둥과 엄지기둥, 동자기둥과 누상주 사이에 띠장을 놓고 그 가운데 안상을 새긴 궁창널을 끼웠다. 난간의 구조는 각층의 계단이 시작되는 곳에 엄지기둥을 세우고 좌우에 1개씩 난간동자를 세운 고졸한 형식이다. 단청은 부재 끝에 머리초를 그린 모로단청으로 능파각과 침류각과 유사하다. 도리와 장여를 하나로 묶어 단청 문양을 그려 넣고, 머리초는 연화머리초 문양이다. 기둥 상부에는 직휘 띠 문양으로 그려져 있다. 지붕의 연목 단청은 가칠단청으로 하였고 우미량과 첨차는 굿기단청을 하고 있다.

### 3. 지정가치 및 근거기준

밀양 영남루에 관련된 역사적 가치는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여지도서(輿地圖書), 경상도읍지(慶尙道邑誌)를 비롯하여 밀양 향토사 관련 문헌인 밀주구지(密州舊誌), 밀주

지(密州誌), 밀주징신록(密州徵信錄), 향토사자료집(鄕土史資料集) 등의 문헌기록, 『영남루중수기(嶺南樓重修記)』(1365), 『영남루중건상량문(嶺南樓重建上樑文)』(1844) 등의 조영기록, 제영(題詠), 고지도, 그림, 일제강점기 도면, 근현대 보수기록 등을 통해 누각의 연혁 및 형식 등을 확인할 수 있다.

12세기 정지상의 ‘嶺南寺樓’, 임춘의 ‘嶺南寺竹樓’와 ‘西河集’서문 등에 영남루의 전신으로 보이는 영남사의 죽루(竹樓)가 영남루의 전신인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영남루라고 부르고 있다. 영남사의 소루 14세기 성원도의 기록과 이인복의 칠언율시 등을 통해 김주가 1365년에 중창하기 이전에도 영남루가 존재했음을 보여준다. ‘영남루’라고 한 것은 작은 누각이었지만 입지 때문에 경관이 뛰어나 문인들과 관리들의 장소로 이용되어 커졌으며 고려 초부터 영남사에 속한 누각으로 불렸을 것으로 보인다. 1365년 김주의 중창으로 영남루를 공식적인 명칭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주의 중수는 이전의 누각보다 규모를 넓히고 주고를 높이며 주칸을 넓혔고, 겹처마에 단청을 하여 축석루를 바탕으로 한 규모나 양식에서 격식을 갖춘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 초기 안질(安質)이 영남루(대루)를 중창하면서 대루 서편 옛 터에 소루를 지은 이후 화재와 전란 등으로 여러 차례 소실과 중건 및 중수를 거듭하였다. 15세기말~16세기 초에 이르러 영남루는 대루를 중심으로 동서 좌우에 익루인 능파당과 침류당을 갖춘 현재와 같은 규모의 누각이지만 연결이 되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고 침류당은 대루와 거리를 두고 배치되어 있다. 영남루는 16C 중반 객사의 별관으로 중앙의 대루와 좌우에 침류당과 능파당이 배치되고, 부속건물들이 있어 웅장한 규모의 밀양 객관(客館)으로서 면모를 갖추게 된다.

임란으로 소실된 능파당 터에 임시로 초옥을 지어 객사로 사용하기 시작하여 16세기 복구 계획을 세워 침류당(각)과 능파당(각)을 중건하고 있다. 17세기 중반에는 화재로 능파당이 불에 타자 심기성이 대루를 중건하고 능파당도 새로 짓는 등 복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18세기에 화재가 발생하여 영남루 대루와 능파당 · 침류당 등의 부속 건물이 소실되고, 이희주가 먼저 공진관(객사) 건물을 이건하고, 능파당을 복원하여 빈객 숙소로 사용하고 있다. 다시 2차로 영남루 대루(大樓)와 침류당을 중건하여 옛 모습을 회복하고 조휘진도 대대적인 중수 공사를 하고 있다.

19세기초 수리와 중수가 거듭되어 영남루, 능파당, 침류당을 비롯하여 객사, 납청당, 전월당, 연훈당, 신당 등이 있었으나 1834년에 큰 화재가 발생하여 영남루 경내 모든 건물이 소실되었다. 18세기 해동지도와 같이 밀양 읍성 내에 동쪽 객사에는 밀주관, 하선관을 비롯하여 영남루, 침류당, 능파당 등의 모습이었을 것이다.

1843년에서 1844년까지 이인재가 영남루를 중건하면서 대루의 규모를 확장하고 능파당과 침류당을 동서 익루로 삼고 대루 서편에 여수각(층층각)을 지어 대루와 침류각을 연

결하고 있다. 현재의 영남루는 「밀주관(密州館)」 일곽의 건물을 정비하고자 원형대로 4동 일체형의 대형 누각으로 중건한 것으로 추정된다. 밀양 영남루는 객사와 부속누각 일곽이 남아 있고 영남루와 부속누각을 연결하여 일체화하고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중수 후 19세기 후반에는 동학농민운동 때 일본군이 주둔하기 시작하여 고종 때 화재로 많은 건물이 소실되고 대루와 능파당, 침류당, 여수각 및 요선관, 동해, 사주문, 일주문 등만 남게 된다.

20세기에는 조선총독부에서 수리 계획을 수립하여 대루를 비롯 동쪽의 능파각(凌波閣), 서쪽의 침류당(枕流堂), 여수각, 정문(사주문) 등을 대상으로 침류당과 문사(門舍)에 접한 부속 건물을 모두 철거하고, 주변의 부속건물을 철거 정비하여 지금처럼 구(舊)밀양부 객사(현 천진궁과 만덕문)과 영남루(대루, 능파각, 침류각, 여수각) 및 서측의 사주문만 남게 되었다. 보존해야 한다는 인식하고는 있었지만 행사나 활용에 중점을 두고 있었으며 객사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1930년 최두연이 대규모의 영남루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현존하는 대루, 능파당, 침류당 등 주 건물은 물론 여수각(층층각), 사주문, 객사(邀仙館), 일주문 등이 중수되고 있다. 조선의 16경 중의 하나로 선정되기도 하였으며 1933년 보물 제245호로 지정되었고, 1955년 6월 국보로 승격되었으나, 1962년 1월 10일 보물로 재지정 되고 있다.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보수하여 보존하고 다양한 행사의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예술적 가치와 학술적 가치는 다음과 같다.

아동산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능선 절벽 위에 자리하고 있다. 남쪽으로는 밀양강(凝川 또는 南川江)이 굽이치면 돌아나가는 절벽 위에 누각으로 절경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밀양강 절벽 위에 대루를 중심으로 동서측으로 능파각과 여수각 · 침류각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누각군을 형성하여 장관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입지는 조선시대 유명한 누각들에서 볼 수 있으나 사면에 대응하는 탁트인 조망이 뛰어나다. 만덕문 앞에 석화(石花)가 드러나 있고 영남루 남서쪽 강가에도 같은 바위가 드러나 암반으로 이어져 있기에 영남루는 바위 위에 놓인 것으로 추정되며 보호구역 및 보존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아동산의 능선에, 동서측으로 능파각 · 대루 · 여수각 · 침류각이 지형을 따라 연결된 누각의 조형성이 밀양강과 더불어 아름다운 경관을 이루고 있다. 밀양 영남루는 역사적이고 상징적인 장소이면서 안에서의 파노라믹한 경관과 밖에서의 조망대상으로서의 경관이 조화를 이루는 역사문화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조선시대 객사는 모든 군현에 설치되고 전패를 두고 예를 표하는데 부속 누각인 밀양 영남루는 접대와 향연 그리고 휴식을 하는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건물이 된다. 나아가 관리나 빈객의 유숙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밀양부사가 업무를 보는 관아로도 사

용되는 등 복합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아랑각과 연관된 아랑의 이야기는 또 다른 스토리텔링으로 풍성하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누각의 쓰임새 외에도 개창부터 근 현대에 이르기까지 각종 행사 등을 거행하는 장소가 되고 있어 앞으로 관영누각에서의 각종 의례를 밝히고 재현하여 관련 의례를 계승해가는 장소로 발전해가기를 기대한다. 밀양 영남루는 절벽 위에 능선을 따라 대루를 중심으로 누각이 연결된 누각군을 형성하고 객사와 더불어 부속누각으로 객사의 배치 및 공간구성이 잘 드러나고 있다. 밀양 영남루 배치는 대루를 중심으로 동쪽에 능파각, 서쪽에 침류각이 자리하고, 능파각과 대루 사이에 연결 마루(軒廊)인 여수각을 남향하여 배치하고 있다. 접대 및 향연 등을 위한 대루와 휴식을 위한 익루가 지형 차이를 극복하고 월랑과 현랑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체화된 구성 내에서 다양한 연결을 통한 독창적인 공간구성을 하고 있고 지형에 따라 층간으로 구성된 지형적인 누각으로서의 조형성은 탁월하다고 보인다.

대루를 중심으로 능파각과 침류각을 연결하여 군을 형성하는 영남루의 독특한 배치와 건축구성은 1844년 중건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연혁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이경홍의 『밀양십이경도(密陽十二景圖)』에는 여수각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월랑과 현랑으로 세 건물을 연결하여 군을 형성한 조형미를 갖춘 누각으로 완성된 것은 17~18세기로 추정된다. 그러나 15세기 말에서 16세기 초에 대루를 중심으로 위치는 알기 어려우나 능파당과 침류당의 익루를 갖추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16C 중반에 대루, 침류당, 능파당 그리고 터를 높여 영남루~능파당의 오고감에 불편함을 줄이는 배치를 이어온 것으로 추정된다.

밀양 영남루는 객사 부속 누각으로 영남루인 대루, 능파각, 침류각과 객사인 천진궁(시도유형문화재), 내삼문, 사주문 등이 있다. 관영 누각으로 밀양부사가 정사를 보거나 각종 의례 및 접빈객하는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밀양 영남루에 대한 문헌은 『신증동국여지승람』, 『조선왕조실록 현종실록』을 비롯한 기문(記文)과 시문(詩文), 고지도, 도면 등이 있다.

자연지형을 존중하고 지형을 이용하여 대루와 그 좌우에 능파각 및 침류각을 배치하고 여수각으로 연결하고 있는 수법은 영남루만의 특징이고, 규모면에서 현존하는 누각 중 가장 큰 특징을 갖고 있다. 대루는 정면 5칸, 측면 4칸 규모의 장방형 평면의 대형 누각으로,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솔직한 구조형식의 조형미가 있고 세부적으로는 외1출목 삼익공식의 공포 등이 특징을 이루고 있다.

능파각과 현랑(연결마루)으로 수평적으로 연결되고 침류각과 월랑(복도각)으로 수직적으로 연결하는 지형에 따라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특히 여수각은 여러 단의 지붕을 지형에 따라 낮아지면서 침류각과 연결되어 독창적인 외관을 구성하고 있다. 곡강변(曲江

邊) 단구형 입지에 축석루의 제도를 살펴 중창한 기록과 같이 입지, 규모, 지붕형식, 가구형식 등에서 진주의 축석루와 비슷하다고 추정된다. 그러나 변천과정에서 지형적인 조건에 대한 영남루만의 공간구성이 이루어져 독창적인 외관을 형성하고 있다.

대루는 정면 5칸, 측면 4칸 규모의 큰 팔작지붕 누각으로 장방형의 평면이다. 정칸을 크게 하여 위계적인 구성을 하고 있으며 측면에서 뒷간을 협칸보다 좁게 잡아 시각보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면에서 협칸과 뒷간을 같은 주간으로 잡은 것은 객사와 마주하고 마당에서 보았을 때 뒷간 사이에 측면 기둥이 중첩되어 시각보정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밀양강 쪽이나 사주문에서 보았을 때 측면이 뒷간을 좁게 한 것은 넓어 보이는 것을 보정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기단은 주변과 구분되도록 하고 있으나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고 있어 우천 시 지붕의 낙수를 고려한 처리라고 추정된다. 초석은 외진주와 중앙부를 포함하는 내진주의 형식이 다르게 나타나 위치에 따라 다른 형식을 하고 있다. 기둥은 목재의 형상을 살린 두리기둥으로 약한 민흘림이 있다. 누상의 외진주는 평주이고 내진고주는 평주보다 500mm 정도 높고 40mm 정도 굵은 고주이다. 밖으로는 대루의 사면을 개방하여 사방을 바라보며 아름다운 경관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하고, 안으로는 넓은 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귀틀과 청판은 조선 후기 중창 당시의 구조 및 치목 기법 등이 잘 남아있다. 특이한 것은 서측 면 퇴칸에 사용된 청판의 수가 적은 점이고, 다른 부분의 청판보다 폭이 넓은 청판을 사용했다. 이는 공간사용과 관련된다고 가정하면 위계가 높게 구성된 것이라고 추정된다.

내진고주와 외진주에 퇴량을 걸고, 양측면 기둥머리에 바깥쪽에서 내측 대량 위로 크게 곡선을 이루며 용두를 조각한 충량을 걸고 있다. 뒷보는 높이 차가 커서 우미량과 같이 보인다. 충량 머리에는 봉두를 조각하여 충량의 단부와 연결하고 있다. 퇴량은 충량과 유사하나 내외 기둥의 높이 차에 맞추어 우미량(牛尾樑)과 같이 보이고 있고, 내진 고주 위의 뒷보 뒷몸 내단에 세밀한 용두를 조각하고 있는데 의장적으로 사실적이다. 대량은 대부분 춤이 폭보다 큰 항아리형 단면으로 단일부재가 아니라 2~3개의 목재를 합쳐 큰 단면을 갖도록 하는 특성이 있다. 이는 흔하지 않은 수법으로 조선 후기 조성 당시 목재 수급이 어려워 목재를 적층하여 일체화하는 구조적 단면을 갖도록 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창방은 세로가 긴 장방형으로 모서리를 모두 궁글린 형상으로 조선중·후기에 일반적으로 사용된 형식이다.

기둥머리에 보 방향으로 익공 살미를 끼우고, 주두를 놓고 살미와 주심첨차 그리고 출목첨차(행공첨차)를 직교되게 중첩하여 결구하고 있다. 그 위에 보머리에 봉두를 조각하고 있다. 익공 살미의 외단은 양서형으로 쇠서 하부에는 연봉과 상부에는 연꽃을 초각하고, 내단은 보아지형으로 끝을 초각하고 있다. 조선 중기 이후에는 대부분 보 방향으로 살미나 익공재가 짜이고 도리 방향으로 첨차가 짜이지만, 영남루는 보 방향으로

기둥머리와 주두 위에 살미를 놓고 도리 방향으로 주심첨차와 출목첨차를 설치해 놓았다.

공포의 구성에서 마구리 부분을 사절한 주심첨차와 첨차 하부를 조각한 출목첨차의 형태가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다. 출목첨차도 위치에 따라 장식된 조각이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다. 공포는 외1출목 3익공 공포로 조선 중기 이후에 많이 사용되는 일출목과 같으나 3출목으로 장식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살미의 화려한 장식적 요소와 쇠서가 길게 돌출한 모습 등은 조선후기의 장식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화반은 여섯 종류로 판재를 사용한 방형으로 좃가지를 조각하고 있다. 즉 종도리 하부에 호랑이, 주심도리 하부에 해태, 그 외에 위치에 따라 다른 연화문으로 되고 있다. 화반은 사용 위치에 따라 문양이 다르고 문양의 종류에 따라 위계적인 의장을 하고 있다.

지붕은 겹처마 팔작지붕으로 처마끝에 막새를 설치하고 있다. 우물반자로 위계를 부여하고 소란반자 형식으로 의장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제작자 이름이 기록된 1844년 중건 외에도 1873년 번와가 있고, 1830년 중건 때 번와도 확인할 수 있다. 지붕은 밀양지역에 많이 나타나는, 안허리곡이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직선에 가까운 형태이다. 영남루는 일반적인 양식과 달리 육색(肉色)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나 각 머리초 먹기화 시분을 동시에 시채(施彩)한 것 등 고급 채화로서 화려하게 단청하고 있다. 대량머리초의 용실 문양과 선자연에 표현된 사신도 등은 섬세하고 독창적인 조형미를 나타내고 있다.

능파각은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겹처마 팔작지붕이다. 1488년에 창건되었으나 여러 차례 소실되어 1661년(현종 2)에 중건한 후 소실되어 1843~44년에 중건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객사의 익헌의 기능을 대루에 접한 능파각과 침류각이 담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대루가 능파각, 침류각 그리고 현랑과 월랑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것은 객사와 관련되며 변천 과정에서 여기만의 방식으로 정착된 것으로 추정된다. 대루 동쪽에 인접한 능파각은 객사의 좌익헌의 기능을 하면서 밀양부사가 정사를 처리하기도 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루 동쪽에 위치한 좌익헌으로 서쪽의 1칸 현랑(연결마루)으로 연결되고, 서쪽 칸에 장대석 진입계단이 설치되어 있다.

평면은 동쪽부터 2칸 온돌방, 1칸 개방된 대청으로 되어 있고, 경관이 좋은 남쪽으로 전퇴를 놓고 있다. 남쪽을 제외한 삼면에는 현함(軒檻)을 꾸미고 대루의 난간과 같은 계자난간을 설치하고 있다. 능파각의 서쪽 대청 북쪽으로 폭이 넓은 자연석 계단을 놓아 대청으로 오르고 연결마루를 통해 대루로 연결되도록 하고 있다. 측면 간살은 서측면이 2칸이고 동측면이 남쪽에 전퇴를 꾸미면서 공간사용을 위한 후퇴도 부가된 형태로 추정된다. 후퇴는 온돌방에 통합되어 있으나 벽장이 설치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벽장도 설치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복구하면서 온돌방으로 통합되어 공간사용을 잃은 것이 아쉽다고 판단된다.

객사와 마주해 있고 객사의 축에서 약간 동쪽으로 벗어나 있지만 정면에서 직선적으로 연결되어 좌익헌으로서의 위계를 갖는 건물이라고 추정된다. 방과 마루로 구성된 익헌을 꾸미기 위한 고유의 가치를 갖는다고 추정된다. 이에 대루에 오르던 계단과 같은 형식으로 대청으로 바로 오르도록 하면서 대루의 높이와 차이를 두는 세밀한 계획으로 설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객사와의 연결 관계를 중요하게 다룬 장치로 추정되며 자연스럽게 대루로 오르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기록은 1543년 망호당(望湖堂)을 옛터에서 남쪽으로 옮겨 대루의 동북쪽으로 옮겨 능파당이라고 하고, 이때 터를 높여 영남루-능파당의 오고감에 불편함을 줄였다고 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고 추정된다.

온돌방 북측의 쪽마루 하부에는 아궁이를 설치하고 굴뚝은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온돌방 앞 시간에 설치하고 있다. 능파각은 전후좌우면의 높이 차가 있는 지형을 고려하고 대루의 높은 누마루와 맞추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방형 막돌, 잡석 등을 섞어 쌓은 높은 기단을 조성하고 있다. 지형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고 전면에서 후면으로 흐르고 있어 정면 기단은 서측면과 남측면쪽으로 갈수록 기단이 높아지고 있다. 기단 내밀기는 서북측이 가장 커서 출입 및 대루와의 연결을 고려하고 있다고 추정된다. 두리기둥 하부에는 원형에 가까운 초석이고 네모기둥에는 방형에 가까운 거친 자연석을 사용하여 위계적인 구성을 반영하고 있다. 두리기둥은 주요 조망점을 고려하여 배치하고 있고 동측은 공간사용에 따라 네모기둥으로 결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두리기둥의 흘림이 서측이 큰 것은 대루와의 관계에서 설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공포는 출목이 없는 이익공계통으로 무출목 이익공이다. 우주의 초익공 쇠서는 수서형, 이익공은 양서형에 가깝게 처리하고 있다. 이는 귀솟음으로 익공이 드러나 보이므로 날렵하게 보이기 위한 처리라고 추정된다. 이는 삼익공계통의 대루와 같은 형식이지만 위계를 구분하기 위하여 간단하게 처리하고 있다. 연봉형 익공, 봉두, 화반 초각 등이 대루와 같은 형식이지만 간략하게 장식하여 차별을 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조선 후기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추정된다.

가구는 긴보 5량가이다. 중앙부가 위로 굽은 대량과 위로 굽은 중량이 대청의 조형미를 잘 드러내고 있다. 서까래와 부연은 대루쪽으로 화려하게 처리한 것으로 추정된다. 내림마루는 대루의 지붕과 맞추고자 하는 의도로 추정된다. 귀솟음은 외진 평주보다 컷기둥이 약간 높지만 대루와 연결되는 서측의 컷기둥은 약간 낮게 나타나고 대루에 접하고 있어서 귀솟음을 크지 않게 조절한 것으로 추정된다.

남측(밀양강 쪽)보다 북측의 귀솟음이 뚜렷하여 주요 조망점이 북쪽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남쪽은 밀양강이나 강 건너편에서 보았을 때 대루의 귀솟음이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우주의 안솔림은 귀솟음과 같이 대루와 연결된 서북측 우주의 안솔림이 동북측 우주보다 적게 나타나 대루와 시각적으로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약화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양곡은 자체적으로 팔작지붕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대루와 연결되므로 의도적으로 시각적인 보정을 위한 조형적 통일성을 주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후면의 양곡은 북쪽이 남쪽보다 크게 나타난 마당으로 대루가 돌출해 있으므로 시각적인 것을 고려한 것으로 추정된다. 처마곡선도 남북측 모두 동쪽이 서쪽보다 치켜 올라가게 처리하여 대루와 일체감있는 구성을 하면서 좌익현으로서의 격식을 갖도록 하고 있다. 대루에 접한 부분에 맞추어 안허리곡을 형성했기 때문이고, 남측과 북측면을 완만하게 안으로 휘어진 것은 대루의 처마선에 맞추는 익현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보정된 것이라고 추정된다. 단청은 간결한 모로단청으로 대루와 같이 육색(肉色)을 많이 사용하고, 능파각의 기능과 성격에 맞도록 화려하지 않으면서 자체 성격이 잘 드러나고 상대적으로 대루가 드러나도록 하고 있다.

침류각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소박하고 작은 건물이지만 객사에 부속된 우익현이라고 할 수 있다. 객사에 정정만 있고 좌우에 익현이 없어 침류각이 사신이나 관리 등의 유숙 등을 하는 익현으로서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객사와 대루와 능파각을 현랑이 연결하고 침류각을 여수각으로 연결된 유기적인 배치를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면 주간은 같은 주간이지만 측면 주간은 온돌방이 전면의 뒷마루보다 2자 정도 넓지만 뒷마루를 넓게 하여, 밀양강 쪽 남향으로 전면 1칸에 넓은 뒷마루로 이어져 정면과 사면으로 삼분하고 측면까지 파노라마틱한 경관을 조망하도록 하고 있다. 정간을 남북으로 열고 전면과 측면으로 마루를 크게 설치하여 숙소와 연회 그리고 조망에 잘 대응하고 있다.

기단은 동고서저 지형에 대응하여 아랫단은 지형에 따라 조성하고 윗단은 서측으로 약간 높여 수평으로 쌓아 2단으로 하고 있다. 또한 경사가 적은 부분에 작은 돌을 사용하고, 큰 부분에는 큰 돌을 사용하고 있다. 덩벙 주초 위에 외진에 평주와 내진에 고주를 올리고 있다. 기둥은 외진주에는 두리기둥과 정간 마루 양쪽과 측면 가운데에는 네모기둥이다. 남쪽은 기둥이 형식과 간격이 같고, 북쪽은 정간의 기둥이 네모기둥이고 우주가 두리기둥으로, 정간의 기둥이 상대적으로 작아 단일 건물로서 안정감을 주고 있다. 화반은 능파각과 같지만 가로로 긴 능파각보다 가로와 세로의 균형이 잘 잡혀 있어 능파각의 좌익현에 대해서, 침류각은 우익현으로 같은 의장적인 처리를 하면서 건물 자체의 균형이 잡힌 의장을 하고 있다고 추정된다.

가구형식은 5량가로 공포는 무출목 이익공계통이다. 동측면의 전면칸 상부에는 여수각의 마루대가 연장되어 도리와 같이 보이는 부재를 대어 여수각과 결구되고 있다. 익공과 화반의 초각 등은 대루와 유사하나 간략하게 표현하고 있고 봉두나 봉화 등은 조선 후기 양식으로 추정된다.

지붕은 동쪽 배면이 여수각과 중첩되고 맞배지붕으로 침류각 기둥머리에서 도리와 창

방을 여수각 기둥에 연결하고, 여수각의 종도리와 나란히 짧은 종도리를 걸고 남북 방향으로 연목을 걸고 있다. 일반적으로 격식화된 지붕의 형식과는 달리 여수각과 이어지면서 다른 형식을 조화를 이루도록 창의적인 지붕형식을 나타내고 있다. 침류각은 대루와 능파각보다 간결한 단청을 하였는데 이는 건물 간 위계를 나타내고 있다. 귀솟음은 미미하고 우주는 약 1치 정도의 안솟림이 있다. 팔작지붕의 용마루와 내림마루는 대체로 급한 경사를 이루고 있다. 이는 지형적인 조건이 대루보다 낮은 지형이고 경사지형에 놓여 의도적으로 약하게 처리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은 여수각의 서쪽 끝이 침류각 동측 벽에 막혀 있어 침류각 안으로 바로 출입할 수 없다. 여수각과 침류각의 연결부의 마감 및 개변(改變)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수각은 경사지에 지형 변화에 따른 높이 차이를 3단의 층단형으로 연결하여 독창적인 형태의 월랑을 형성하고 있다. 여수각은 경사지에 위치하여 층단형 기단과 흘림기단을 절충한 형식으로 형성하고 있다. 서측은 침류각 기단에 맞추고, 동측은 대루 기단과 같이 맞추어 층단을 이루며 지형의 변형을 최소화하여 조성하고 있다. 중간 기단은 대루 기단의 자연석보다 작은 자연석과 활석을 섞어 쌓아 위계를 표현하고 있다. 대루 기단면의 초석은 대루와 같은 높은 원형주초이고, 중층각과 침류각 기단에 고주를 받치는 초석은 자연석을 다듬어 침류각 초석에 맞추고 있다.

공포는 무출목 이익공계통으로 능파각이나 침류각과 같은 형식이다. 쇠서는 수평에 가까운 연봉수서형으로 침류각과 같은 형식으로 자체적으로 화려하면서도 대루의 삼익공 형태보다 간결하게 위계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주간 사이 창방과 장여 받친 주심도리 사이에 설치된 연화를 새긴 화반도, 침류각과 대루의 화반과도 유사하지만 대루보다 간략하게 처리하여 위계적인 구성을 하고 있다. 여수각의 화반은 침류각의 것과 같으며, 대루의 화반과도 유사하다. 하지만 주 건물인 대루에 사용된 화반은 전반적으로 세밀하고 화려한 문양이 특징인데 반해 여수각의 화반은 대루보다 간략하게 처리하여 위계적인 구성을 하고 있다.

여수각은 일반적인 팔작지붕과 달리 종도리 대신 우미량과 같이 휘어 올라간 곡재를 사용하여 지붕가구를 받고 있어, 지붕 높이가 다른 층각의 주심도리를 건너지르고 있다. 지붕은 층단마다 팔작지붕 형식과 우진각지붕을 혼합한 형식으로 중첩되어 있는 독특한 형태이다. 팔작지붕의 가지부연 없이 서까래와 부연을 같은 수로 간격을 조정하여 팔작지붕과는 다른 형식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영남루는 12세기 영남사의 작은 누각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되고 1365년 고려말 부사 김주에 의해 축석루를 바탕으로 개창된 후 수차례 중건과 중수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의 건물은 1843-1844년 부사 이인재에 의해 영남루를 포함한

객사 일원을 증진한 것이다.

15세기말~16세기 초에 이르러 대루를 중심으로 동서 좌우에 익루인 능파당과 침류당을 갖춘 현재와 같은 규모의 누각이지만, 연결이 되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고 침류당은 대루와 거리를 두고 배치되어 있다. 밀양 영남루는 16C 중반 객사의 별관으로 중앙의 대루와 좌우에 침류당과 능파당이 배치되고, 부속건물들이 있어 웅장한 규모의 밀양 객관(客館)으로서 면모를 갖추게 된다.

1843년에서 1844년까지 증진하면서 대루의 규모를 확장하고 능파당과 침류당을 동서 익루로 삼고 대루 서편에 여수각(층층각)을 지어 대루와 침류각을 연결하고 있다. 현재의 영남루는 「밀주관(密州館)」 일곽의 건물을 정비하고자 원형대로 4동 일체형의 대형 누각으로 증진한 것으로 추정된다. 밀양 영남루는 객사와 부속누각 일곽이 남아 있고 영남루와 부속누각을 연결하여 일체화하고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1933년 보물 제 245호로 지정되었고, 1955년 6월 국보로 승격되었으나, 1962년 1월 10일 보물로 재지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아동산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능선 절벽 위에 자리하여 조선시대 유명한 누각들에서 볼 수 있는 입지이나 사면에 대응하는 탁트인 조망이 뛰어나다. 또한 남쪽으로는 밀양강(凝川 또는 南川江)이 굽이치면 돌아나가는 절벽 위에, 누각으로 대루를 중심으로 동서 축으로 능파각과 여수각 · 침류각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누각군을 형성하여 장관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누각에 대하여 『동국여지승람』 등에 한시 973수, 산문 27편 등이 전하고 있다.

또한 밀양 영남루는 조선시대 읍치의 공간 구조 내에 밀양도호부 객사 부속 누각이다. 능선을 따라 대루를 중심으로 누각이 연결된 누각군을 형성하고 객사와 더불어 부속누각으로 객사의 배치 및 공간구성이 잘 드러나고 있다.

배치는 대루를 중심으로 동쪽에 능파각, 서쪽에 침류각이 자리하고, 능파각과 대루 사이에 연결 마루(軒廊)인 여수각을 남향하여 배치하고 있다. 접대 및 향연 등을 위한 대루와 휴식을 위한 익루가 지형 차이를 극복하고 월랑과 헌랑으로 연결되고 있다. 이러한 일체화된 구성 내에서 다양한 연결을 통한 독창적인 공간구성을 하고 있고, 지형에 따라 층간으로 구성한 지형적인 누각으로서의 조형성은 탁월하다고 판단된다.

군을 형성하는 영남루의 독특한 배치와 건축구성은, 이경홍의 『밀양십이경도(密陽十二景圖)』에는 여수각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월랑과 헌랑으로 세 건물을 연결하여 군을 형성한 조형미를 갖춘 누각으로 완성된 것은 17-18세기로 추정된다. 그러나 15세기 말에서 16세기 초에 대루를 중심으로 위치는 알기 어려우나 능파당과 침류당의 익루를 갖추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16C 중반에 대루, 침류당, 능파당 그리고 터를 높여 영남루~능파당의 오고감에 불편함을 줄이는 배치를 이어온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객사 부속누각으로 입지와 배치 및 일체화된 건축 공간을 이루고 있다.

밀양 영남루는 객사 부속의 관영 누각으로 밀양부사가 정사를 보거나 각종 의례 및 접빈객하는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대루는 정면 5칸, 측면 4칸 규모의 장방형 평면의 대형 누각으로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솔직한 구조형식의 조형미가 있고, 세부적으로는 외1출목 삼익공식의 공포 등이 특징을 이루고 있다.

능파각과 헌랑(연결마루)으로 수평적으로 연결되고 침류각과 월랑(복도각)으로 수직적으로 연결하는 지형에 따라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특히 여수각은 여러 단의 지붕이 지형에 따라 낮아지면서 침류각과 연결되어 독창적인 외관을 구성하고 있다.

곡강변(曲江邊) 단구형 입지에 축석루의 제도를 살펴 중창한 기록과 같이 입지, 규모, 지붕형식, 가구형식 등에서 진주의 축석루와 비슷하다고 추정된다. 그러나 변천과정에서 지형적인 조건에 대한 영남루만의 공간구성이 이루어져 독창적인 외관을 형성하고 있다.

대루는 정면 5칸, 측면 4칸 규모의 큰 팔각지붕 누각으로 장방형의 평면이다. 정칸을 크게 하여 위계적인 구성을 하고 있으며 측면에서 뒷간을 헐칸보다 좁게 잡아 시각보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면에서 헐칸과 뒷간을 같은 주간으로 잡은 것은 객사와 마주하고 마당에서 보았을 때 뒷간 사이에 측면 기둥이 중첩되어 시각보정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밀양강 쪽이나 사주문에서 보았을 때 측면이 뒷간을 좁게 한 것은 넓어 보이는 것을 보정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루는 밖으로는 난간을 돌리고 사면을 개방하여 사방을 바라보며 아름다운 경관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하고 안으로는 넓은 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서측 면 퇴칸에 사용된 청판의 수가 적고, 다른 부분의 청판보다 폭이 넓은 청판을 사용했다. 이는 공간사용과 관련된다고 가정하면 위계가 높게 구성된 것이라고 추정된다.

가구형식은 내진 고주를 세운 통칸의 2고주 7량가 규모이다. 화반은 종도리 하부에 호랑이, 주심도리 하부에 해태, 그 외에 위치에 따라 다른 연화문 등으로 되어 문양의 종류에 따라 위계적인 의장을 하고 있다. 퇴량은 중량과 유사하나 내외 기둥의 높이 차에 맞추어 우미량(牛尾樑)과 같이 보이고 있고, 내진 고주 위의 뒷보 뒷몸 내단에 세밀한 용두를 조각하고 있는데 의장적으로 사실적이다. 대량은 대부분 춤이 폭보다 큰 향아리형 단면으로 단일부재가 아니라 2~3개의 목재를 합쳐 큰 단면을 갖도록 하는 특성이 있다. 이는 흔하지 않은 수법으로 조선 후기 조성 당시 목재 수급이 어려워 목재를 적층하여 일체화하는 구조적 단면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창방은 세로가 긴 장방형으로 모서리를 모두 궁글린 형상으로 조선중·후기에 일반적으로 사용된 형식이다. 기둥머리에 보 방향으로 초익공 살미를 끼우고, 주두를 놓고 살미와 주심첨차 그리고 출목첨차(행공첨차)를 직교되게 중첩하여 결구하고 있다. 그 위에 보머리에 봉두를 조각하고 있다. 익공 살미의 외단은 양서형으로 쇠서 하부에는 연봉과 상부에는 연꽃을 조각하고, 내단은 보아지형으로 끝을 조각하고 있다. 조선 중기 이후에는 대부분 보 방향으로 살

미나 익공재가 짜이고 도리 방향으로 침차가 짜이지만, 영남루는 보 방향으로 기둥머리와 주두 위에 살미를 놓고 도리 방향으로 주심침차와 출목침차를 설치해 놓았다.

공포는 외1출목 3익공 공포로 조선 중기 이후에 많이 사용되는 일출목과 같으나 3출목으로 장식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공포의 구성에서 마구리 부분을 사절한 주심침차와 침차 하부를 초각한 출목침차의 형태가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다. 출목침차도 위치에 따라 장식된 초각이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다. 살미의 화려한 장식적 요소와 쇠서가 길게 돌출한 모습 등은 조선후기의 장식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우물반자로 위계를 부여하고 소란반자 형식으로 의장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제작자 이름이 기록된 1844년 중건 외에도 1873년 변화가 있고 1830년 중건 때 변화가 있을 확인할 수 있다. 지붕은 밀양지역에 많이 나타나는 안허리곡이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직선에 가까운 형태이다. 영남루는 일반적인 양식과 달리 육색(肉色)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나 각 머리초 먹기화 시분을 동시에 시채(施彩)한 것 등 고급 채화로서 화려하게 단청하고 있다. 특히 대량머리초의 용실 문양과 선자연에 표현된 사신도 등은 섬세하고 독창적인 조형미를 나타내고 있다.

만덕문 앞에 석화(石花)가 드러나 있고 영남루 남서쪽 강가에도 같은 바위가 드러나 암반으로 이어져 있어 영남루는 바위 위에 놓인 것으로 추정되며 보호구역 및 보존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만덕문 서쪽 밀성박씨(密城朴氏) 시조인 밀성대군을 추모하는 ‘밀성대군비’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 <종합의견>

밀양 영남루는 누각 중 가장 규모가 큰 것만이 아니라 치목이 건실하게 결구된 누각의 완성형이라고 할 수 있다. 자연경관을 활용하여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입지가 잘 나타나고 사방으로 탁트인 조망도 뛰어나다. 15세기 말에서 16세기 초에 대루를 중심으로 능파당과 침류당의 익헌을 갖추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16C 중반에 대루, 침류당, 능파당 그리고 터를 높여 영남루-능파당의 오고감에 불편함을 줄이고자 하는 배치를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월랑과 현랑으로 세 건물을 연결하여 군을 형성한 조형미를 갖춘 누각으로 완성된 것은 17-18세기로 추정된다.

일체화된 구성 내에서 다양한 연결을 통한 독창적인 공간구성을 하고 있고 지형에 따라 층간으로 구성된 지형적인 누각으로서의 조형성이 나타난다. 지형을 따라 대루와 능파각, 대루와 침류각을 현랑과 월랑으로 연결하여 창의적이고 조형적으로 우수하다고 판단된다. 대루와 익헌과 함께 연결하여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면서 세부 요소들을 위계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건축형식과 구조, 공포, 단청, 조형 등에서 조선후기의 건축양식

을 잘 보여주고 있다.

## ※ 대상 문화재의 핵심 보존가치

### 역사적인 측면

- 12세기 영남사의 작은 누각에서 유래하여 1365년 고려말 부사 김주에 의해 축석루를 바탕으로 개창된 후 수차례 중건과 중수가 있었고, 현재의 건물은 1843~1844년 부사이인재에 의해 영남루를 포함한 객사 일원을 중건한 연혁의 명확성
- 15세기말~16세기 초에 이르러 대루를 중심으로 좌우에 익루인 능파당과 침류당을 갖추고 16C 중반 객사의 별관으로 중앙의 대루와 좌우에 침류당과 능파당이 배치하고, 1843년에서 1844년까지 대루 동서에 능파당과 침류당을 익루로 현랑과 여수각(층층각)으로 연결한 4동 일체형의 대형 누각으로 중건
-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누각에 대하여 한시 973수, 산문 27편 등이 전하는 인문적인 공간
- 객사의 배치 및 공간구성에 따른 부속누각으로서의 장소성과 능선을 따라 대루를 중심으로 동쪽에 능파각, 서쪽에 침류각을 현랑과 월랑으로 연결된 누각군을 형성한 배치 특성
- 건축군을 형성한 것은 17~18세기로 추정되나 15세기 말에서 16세기 초에 대루를 중심으로 능파당과 침류당을 갖추고, 16C 중반에 대루 능파당의 오고감에 불편함을 줄이는 배치 및 일체화된 구성 형성
- 능파각은 대루와 현랑으로 수평적으로 연결되고 침류각은 대루와 월랑으로 수직적으로 연결하는, 지형에 따른 방법을 선택하고, 여수각은 여러 단의 지붕을 지형에 따라 낮아지는 독창적인 외관을 구성

### 학술적, 예술적 측면

- 지형에 따라 층간으로 구성된 지형적인 누각으로서 독창적인 장소성
- 대루는 정면 5칸, 측면 4칸 규모의 대형 누각으로 솔직한 구조형식의 조형미
- 평면에서 정간을 크게 한 위계적인 구성과 뒷간을 헐칸보다 좁게 잡아 시각보정
- 위치와 문양에 따른 화반, 청판, 출목첨차 등에서 대루와 위계적 표현
- 퇴량은 층량과 유사하나 높이 차에 맞춘 우미량과 같고, 내진 고주 위의 뒷보 뒷뿔 내단에 세밀한 용두를 조각한 사실적 의장
- 대량은 2~3개의 목재를 일체화하여 구조적 단면을 갖도록 하는 특성
- 창방은 세로가 긴 장방형으로 모서리를 모두 궁글린 형상으로 조선중·후기 형식
- 공포는 외1출목 3익공 공포로 조선 중기 이후의 일출목과 같으나 3출목으로 장식화

되는 경향

- 살미의 화려한 장식적 요소와 쇠서가 길게 돌출한 모습 등은 조선후기의 장식화 경향
- 우물반자로 위계를 부여하고 소란반자 형식으로 의장적으로 처리
- 지붕은 안허리곡이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직선에 가까운 형태로 지역성
- 단청은 고급 채화로서 대량머리초의 용실 문양과 선자연에 표현된 사신도 등은 섬세하고 독창적인 조형미
- 능파각은 대루 동쪽에 위치한 좌익헌으로 헌랑으로 연결되고 서쪽 칸에 장대석 계단 설치
- 전망을 고려한 전퇴와 공간사용을 고려한 후퇴를 부가
- 계단은 객사에서 대청으로 바로 오르도록 하면서 대루의 높이와 차이를 두는 계획적 고려
- 높이가 차가 다른 지형을 반영하고 대루의 높은 누마루와 맞추기 위한 높은 기단 조성
- 기단 내밀기는 서북측이 가장 커서 출입 및 대루와의 연결을 고려
- 두리기둥 하부의 원형 초석과 네모기둥 하부의 자연석 초석으로 위계적인 구성
- 두리기둥의 흘림이 서측이 큰 것은 대루와의 관계 고려
- 우주의 초익공 쇠서는 수서형, 이익공은 양서형으로 처리
- 익공계통 공포와 세부 등이 대루와 같지만 간략하게 차별을 주는 조선 후기의 경향
- 중앙부가 위로 굽은 대량과 위로 굽은 층량이 대청의 조형미
- 대루와의 관계를 고려한 의장적인 처리
- 내림마루는 대루의 지붕과 맞추고자 하는 의도
- 북쪽을 귀솟음이 뚜렷하고, 서까래와 부연은 대루쪽으로 화려하게 처리
- 우주의 안솔림은 대루와 연결된 서북측이 동북측보다 약하게 하여 시각적으로 고려
- 양곡은 팔작지붕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대루와 연결되므로 시각적인 보정
- 처마곡선은 동쪽을 치켜 올라가게 하고 서쪽을 대루와 일체감있는 구성
- 남측과 북측면을 완만하게 안으로 휘어져 대루의 처마선에 맞추기 위한 보정
- 침류각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소박하고 작은 건물이지만 객사에 부속된 우익헌
- 객사와 연계되어 대루와 능파각을 헌랑, 침류각을 여수각으로 연결하는 유기적 관계 형성
- 정면 주간은 같은 주간이지만 측면 주간은 뒷마루를 넓게 하여 파노라믹한 경관을 조망
- 기단은 동고서저 지형에 대응한 2단으로 구성 하고 남쪽은 기둥의 형식과 간격을 통한 안정감 부여
- 공포와 세부 형식 등은 대루와 유사하나 간략하게 표현하는 조선후기 양식
- 화반은 능파각과 같지만 능파각의 좌익헌에 대한 침류각은 우익헌으로 의장적인 처리
- 여수각과 이어지면서 다른 형식을 취한 독창적인 지붕형식
- 대루와 능파각보다 간결한 단청으로 위계적 표현
- 여수각은 경사지에 지형 변화에 따라 3단의 층단형으로 연결한 독창적인 형태
- 경사지에 위치하여 층단형 기단과 흘림기단을 절충한 형식

- 공포는 무출목 이익공계통으로 능과각이나 침류각과 같은 형식이나 대루의 삼익공 형태보다 간결하게 위계적으로 표현
- 화반도 침류각과 대루의 화반과도 유사하지만 대루보다 간략하게 처리하여 위계적인 구성
- 지붕은 높이가 다른 층각을 건너지르는 종도리 대신 우미량과 같이 휘어 올라간 곡재를 사용
- 지붕은 층단마다 팔작지붕 형식과 우진각지붕을 혼합한 형식으로 중첩되어 있는 독특한 형태

<밀양 영남루 현판>

1) 편액(扁額)

편액사진	번역
	<p>송하 조운형-영남루(嶺南樓)</p> <p>송하는 어려서부터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서체인 동국진체(東國眞體)를 완성한 원교(圓嶠) 이광사(李匡師; 1705~1777)에게 글씨를 배웠으며, 각 체의 글씨에 능했다. 특히 획이 굳세고 예스러운 해서와 초서·예서를 잘 썼다. 원교의 스승인 백하(白下) 윤순(尹淳; 1680~1741)의 사위이기도 한 그는 벼슬을 하지 못하고 지내다가 1766년 글씨로 벼슬길에 올랐다. 원교를 이어받아 진경시대 글씨를 빛낸 대가인 그는 정조가 가장 총애했다는 인물이기도 하다. 그림에 정선과 김홍도가 있다면, 글씨에는 조운형이 있다는 이야기가 회자될 정도였다. 이처럼 글씨로 벼슬을 할 정도로 당대 명필로 이름이 났던 송하는 당시 관청의 금석과 편액 글씨를 도맡아 썼다고 한다. 진주 축석루(矗石樓) 편액, 수원 화성행궁의 신평루(新豐樓), 봉수당(奉壽堂), 낙남헌(洛南軒), 영주 풍기의 금선정(錦仙亭), 공주 마곡사의 심검당(尋劔堂), 김천 직지사의 황악산직지사(黃嶽山直指寺) 편액 등이 남아 있다.</p>

편액사진	번역
	<p>이유원-‘교남명루(嶠南名樓)’ 및 ‘강좌웅부(江左雄府)’ 이 두 개의 편액의 글씨는 굴산(橋山) 이유원(李裕元, 1814~1888)의 작품으로 송하 조운형의 ‘영남루(嶺南樓)’ 양 옆에 두 개의 편액이 나란히 걸려 있다. 수려한 예서 작품으로, 판자를 12개씩이나 붙여 만든 대형 편액이다. 좌측의 ‘교남명루(嶠南名樓)’는 문경새재 이남, 즉 영남지역의 유명한 누각이란 뜻이다. 우측 ‘강좌웅부(江左雄府)’는 낙동강 왼쪽에 있는 아름답고 큰 고을이라는 의미다. ‘영남루’ 편액과 반대로, 흰색 바탕에 검은 글씨 편액이라 서로 잘 어울린다.</p> <p>굴산은 고종 초에 좌의정에 올랐으나 흥선대원군과 반목해 좌천되었다가 대원군이 실각하자 다시 영의정까지 오른 문신이다. 학문에도 능해 ‘임하필기(林下筆記)’ ‘굴산문고(橋山門稿)’ 등을 남기기도 한 그는 서예에서는 예서에 특히 능했다.</p>

편액사진	번역
	<p>이현석-영남루(嶺南樓)  영남루에 오르면 여러 개의 대형 편액 중 가장 눈길을 끄는 편액은 ‘영남루(嶺南樓)’와 ‘영남루제일루(嶺南樓第一樓)’이다. ‘영남루(嶺南樓)’ 편액을 보면 7세 아이가 썼다는 기록이 있다. ‘癸卯初夏澣李玄石七歲書(1843년 초여름 이현석이 7세 때 쓰다)’라는 글귀이다. 보는 이들의 탄성을 자아내는 이 편액 글씨는 서예가들로부터 불가사의한 필력으로 회자되어 왔다.</p>

편액사진	번역
	<p>이증석-영남루제일루(嶺南樓第一樓)  누각 안 중앙 대들보에 걸려 있는 ‘영남루제일루(嶺南樓第一樓)’ 편액은 ‘영남루(嶺南樓)’를 쓴 이현석의 형인 이증석이 11세 때 같은 시기에 썼다. ‘癸卯初夏澣李憎石十一稅書(1843년 초여름 11세의 이증석이 쓰다)’라는 작은 글씨가 적혀 있다. 이 두 형제는 건물을 중수할 당시 밀양부사로 있던 이인재(李寅在) 부사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었다. 서예 신동으로 불리던 이 어린 형제에게 편액 글씨를 쓰게 한 것으로 보인다. 1844년 누각을 준공한 것으로 되어 있으니 글씨는 1년 전 준공 전에 쓴 것이다. 두 편액 글씨는 비슷한 필체의 해서체이다.</p>

편액사진	번역
	<p>강성여화(江城如畫)  영남루 대루 북쪽 도리에 걸려 있는 강성여화(江城如畫) 편액. 가림지조(嘉林之趙)와 동당한관(東堂漢館)이란 낙관이 있다. 격안리공명월(隔岸里共明月)이란 두인(頭印)이 이채롭다. 강성여화(江城如畫)’는 밀양강과 밀양읍성이 함께 어울려 하나의 그림과 같다는 의미이다.</p>

편액사진	번역
	<p>이상억- 현창관(顯敞觀)  대루 대들보에 걸린 현창관(顯敞觀) 편액. 병인(丙寅) 5월 이상억(李象億)의 필적이다. 현창관(顯敞觀)은 영남루에 오르니 넓고 높은 세상이 눈앞에 펼쳐진다는 의미이다.</p>

편액사진	번역
	<p>용금루(湧金樓)  대루 동편 도리 위에 걸린 용금루(湧金樓) 편액, 산하(山河)라는 낙관이 있다. 용금루(湧金樓)는 높은 절벽에 우뚝 솟아있는 아름다운 누각이라는 뜻이다.</p>

편액사진	번역
	<p>하동주-영남루(嶺南樓)  1931년 대루 보수공사 때 星坡 하동주(河東州)가 쓴 영남루 편액. 대루 남쪽 정면에 걸려 있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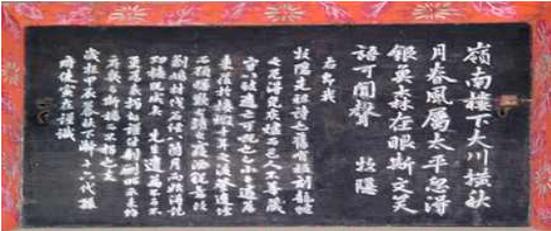
편액사진	번역
	<p>배수환-능파각(凌波閣) 및 '침류각(枕流閣)  능파각과 침류각의 건물명인 '능파각(凌波閣)', '침류각(枕流閣)'이라고 새긴 편액이 이들 건물 정면에 걸려있다. 두 편액은 1957년(단기 4290)에 배수환(裴綉煥)이 쓴 것이다.</p>

2) 제영(題詠)

필자	번역
<p>임춘(林椿)의 시-題嶺南寺                      임춘(1148~1189)                      고려 명종 때의 문인</p>	
원문	
<p>樓閣玲瓏駕巨鼇                      鼇傾海動群仙駭                      茫茫失去一峯高                      飛來恍惚移於斯                      磅礴千古當古壕                      突起連空如疊玉                      百丈清潭橫鴨綠                      水泛桃花出洞中                      居人宛如泰餘俗                      青山影裡兩三家                      垂柳陰中千萬屋                      日暮郊原牛馬歸                      春深洲渚鳧鷖浴                      漁舟之子棹如飛                      溪岸不知盤幾曲                      洛城遷客來何時                      樓上欲窮千里目                      山耶雲耶遠一色                      應點長空行斷續                      天涯晚色正蒼然                      其奈思家必更速                      不用重來登此樓                      煙波好處使人愁</p>	<p>(題 영남사)                      누각이 영롱히 큰 자라 등에 세워졌는데                      자라가 기울이니 바다가 흔들려 여러 신선이 놀랐고                      높은 봉우리 하나를 아득히 잃어버렸다지.                      그것이 날라와서 황홀히 이곳으로 옮겨져서                      옛 성 해자 앞에 천고동안 웅크리고 있네.                      우뚝 솟아 하늘에 닿아서 옥을 곁친 듯하고                      백 길의 맑은 연못에는 질푸른 물이 비끼고,                      물에 뜬 복숭아꽃이 골짜기 속에서 나오니                      사는 이들은 완전히 진(秦)나라의 남은 풍속이 있네.                      푸른 산 그림자 속에 두 세 집이 있고                      수양버들 그늘 안에는 천만 집이 있네.                      해 저무는 교외 들판에 소와 말은 돌아오고                      봄 깊은 물가에는 물오리가 헤엄치네.                      어부가 젓는 배는 나는 듯한데                      계곡을 몇 구비나 돌았는지 모르겠구나.                      서울을 떠난 손은 어느 때 떠나왔나,                      누각 위에서 천 리 먼 곳까지 다 보려하네.                      산인가? 구름인가? 아득히 한 빛인데                      기러기는 긴 하늘을 점점이 끊겼다 이어지며 가네.                      하늘가의 저녁 빛이 정히 어슴프레 한데                      집 생각은 어찌 그리 또한 바쁜가?                      다시는 이 누각에 오르지 않으리라.                      풍경 좋은 곳이 시름을 자아내나니.</p>

필자	번역
<p>성원도(成元度)의 시서-嶺南樓 성원도(1344년경). 도첨의찬성사, 집현전 태학사를 지낸 성사홍의 본 이름이 원도라 함.</p>	<p>붉은 난간이 우뚝 솟아 구름 하늘에 닿아 있고 즐지은 산봉우리가 눈앞에 다 모여 있네. 아래에는 긴 강물이 끊임없이 흐르고 남쪽에는 큰 들판이 끝없이 드넓네. 마을 다리에는 온 숲의 비에 버들이 어둡고 관로(官路)에는 십 리 안개 속에 꽃이 밝구나. 올라가 풍경을 감상하려 하지 않나니 사람들이 환영 잔치를 베풀까 두려워서라네.</p>
<p><b>원문</b></p> <p>朱欄突兀出雲天 列岫連峯湊眼前 下有長江流不盡 南臨大野闊無邊 村橋柳暗千林雨 官路花明十里烟 不欲登臨賞風景 恐人因此設歡筵</p>	

필자	번역
<p>이인복(李仁復)의 시-嶺南樓 이인복(1308~1374). 충숙왕 13년 문과 급제 및 충혜왕 복위 3년 원나라의 제과(制科) 급제</p>	<p>더위에 부대끼다 오르니 가을이 하늘에 가득한데 눈 앞의 장관을 예전에는 알지 못했었네. 산은 서쪽으로 꺾여 구름 끝에 비껴 있고 물은 동쪽에서 흘러와 기슭을 에워쌌네. 관현악 흥겨운 곡조에 세월이 한가롭고 긴 숲 무성한 풀에 바람과 안개가 좋구나. 좋은 경치 속에 머물러 있으니 무슨 일이 꺼리끼랴? 흠뻑 취해서 끝내 비단 자리를 밟으리라.</p>
<p><b>원문</b></p> <p>觸熱登臨秋滿天 眼中壯觀覺無前 山從西折橫雲表 水自東流繞岸邊 急管繁絃閑日月 長林豐草好風煙 留連光景何妨事 爛醉終須踏錦筵</p>	

필자	번역
<p>이색(李穡)의 시-嶺南樓 이색(1328~1396). 고려 말의 문신이며 학자.</p>	<p>영남루 아래로 큰 내(川)가 비껴 가을 달 봄바람이 태평이로다. 문득 눈앞에 삼삼한 은어, 사문의 웃음소리 귀에 들리는 듯. 목은 이색</p>
원문	
<p>嶺南樓下大川橫 秋月春風屬太平 忽得銀魚森在眼 斯文笑語可聞聲 牧隱</p>	

필자	번역
<p>문익점(文益漸)의 시-嶺南樓 문익점(1329~1398). 경남 산청 출생으로 고려시대의 학자이며 문신</p>	<p>신선이 사는 곳에 있었던 골짜기를 여섯 자라 머리에 이고 이 앞에 옮겼다지. 개인 내의 우거진 풀에는 산들바람 일고 외로운 따오기 지는 노을은 석양 가에 있네. 넓은 들에 말과 소는 나그네의 길을 분간하고 먼 마을 닭과 개 짓는 소리 인가가 이어졌네. 특별한 곳 풍경을 말로 다하기 어려워 그림으로 그려다가 임금님께 바치려네. 문익점</p>
원문	
<p>聞說神仙有洞天 六鰲頭戴忽移前 晴川芳草好風裡 孤鷺落霞斜日邊 曠野馬牛分客路 遠村鷄犬接人煙 別區光景言難竟 畫取吾將獻御筵 文益漸</p>	

필자	번역
<p>이승인(李崇仁)의 시-題嶺南樓 이승인(1349~1392). 공민왕 때 문과에 급제. 정몽주 등과 성균관의 학관 역임</p>	<p>높은 누각에 올라 바라보니 하늘에 오른 듯한데 경치가 어지러이 앞뒤로 변화무쌍하구나. 청명한 바람과 달은 예나 지금이나 같고 십 리의 강과 산은 가운데와 가를 따라 있네. 가을 깊은 관도(官道)에는 단풍이 비취고 해 저문 어촌에는 흰 연기가 이네. 나그네 오래도록 읊어도 시를 짓지 못하는데 사군의 잔치 상은 손님 맞아 반듯하네.</p>
원문	
<p>高樓登眺若登天 景物紛然後忽前 風月雙清是古今 江山十里自中邊 秋深官路映紅樹 日暮漁村生白煙 客子長吟詩未就 使君樽俎秩初筵</p>	

필자	번역
<p>도원흥(都元興)의 시-嶺南樓 성주 도씨로 고려 공민왕 때 밀직부사로서 정몽주의 당파로 몰려 유배되었던 도흥으로 추정.</p>	
원문	<p>단청한 밝은 누각이 물을 누르고 있는데 지난날 누가 이 누각을 봉우리 앞에 지었나? 장대 하나 어적(漁笛)은 빗소리 밖에 들리고 십 리의 행인은 산 그림자 가에 있네. 난간으로 들어오는 구름은 무협(巫峽)의 새벽에 생기고 물 따라 흐르는 꽃잎은 무릉(武陵)의 연기에서 나오네. 모래 벌의 갈매기는 양관곡(陽關曲)을 들을 뿐이니</p>
<p>金碧樓明壓水天 昔年誰構此峰前 一竿漁笛雨聲外 十里行人山影邊 入檻雲生巫峽曉 逐波花出武陵煙 沙鷗但聽陽關曲</p>	

필자	번역
<p>유관(柳觀)의 시-嶺南樓 유관(1346~1433). 1371년 문과에 급제하여 전리정랑, 성균사예를 역임, 조선 개국 후 대제학을 거쳐 세종 때 우의정 역임.</p>	
원문	<p>올라온 것이 바로 가을 9월인데 끝없는 봉우리들이 앞뒤를 감싸네. 외로운 따오기는 노을 너머 가지런히 날고 기러기는 석양 무렵에 놀라 일어나네. 붉은 난간 푸른 기와는 모래밭에 달빛 맑고 큰 들판 평평한 숲은 푸른 안개에 비껴 있네. 기둥에 기대어 시를 읊다가 언뜻 잠이 드니 꿈속에서 경연(經筵)에 들어가 임금을 모시네.</p>
<p>登臨正是九秋天 無限峰巒獲後前 孤鷺齋飛落霞外 斷鴻驚起夕陽邊 朱欄碧瓦淡沙月 大野平林橫翠烟 倚柱吟詩成一睡 夢中時復侍經筵</p>	

필자	번역
<p>하륜(河崙)의 시-嶺南樓 하륜(1347~1416). 공민왕 14년 문과에 급제, 우왕 때 첨서밀직사사 역임. 조선 개국후 태종 때 영의정 역임.</p>	
<p>원문</p>	
<p>誰構岑樓上接天 壁間題詠盡廬前 流年滾滾臨川裡 往事悠悠倚柱邊 十里桑麻深兩露 一區山水老雲煙 晚來已見斜陽好 月滿長江更肆筵</p>	<p>하늘에 달을 듯한 높은 누각 누가 지었나? 벽에 걸린 제영은 모두가 전대의 시 넋가에 임하니 세월은 늙실늙실, 기둥에 기대니 지난 일 아득하네. 십 리의 우거진 들판은 비와 이슬에 젖었고 온 지역의 산과 물은 구름과 안개로 깊은데, 저물녘에 와서 석양의 아름다움을 이미 보았으니 달빛 가득한 긴 강가에 다시 술자리를 베풀네.</p>

필자	번역
<p>권근(權近)의 시-次密城嶺南樓韻 권근(1352~1409). 공민왕 16년(1367) 문과 급제, 우왕 때 성균 대사성, 예의판서를 역임, 조선 개국 후 예문관 대제학, 의정부 찬성사 역임.</p>	
<p>원문</p>	
<p>高樓百尺控長天 風景森羅几案前 川近水聲流檻外 雲開山翠滴簷邊 千畦壟畝禾經兩 十里閭閻樹帶煙 匹馬南遷過勝地 可堪登眺忝賓筵</p>	<p>(밀양 영남루 운을 따라) 일 백 척 높은 누대가 긴 하늘을 당기니 온갖 풍경이 책상 앞에 널려 있네. 시내가 가까워 물 소리가 난간 밖으로 흐르고 구름이 걷혀 푸른 산빛이 처마 끝에 떨어지네. 일 천 이랑 벼논은 비를 맞아 푸르고 십 리 여염집에 나무는 연기를 띠었네. 필마로 남방에 와서 명승지를 지나다가 빈객 자리 차지하여 올라 볼 만 하구려.</p>

필자	번역
<p>이원(李原)의 시-次嶺南樓詩 이원(1368~1429) 고려 말 조선 초의 문신. 우왕 11년 문과 급제, 예조좌랑 등 역임. 조선 개국 후 세종 때 좌의정 역임.</p>	<p>(영남루 시를 따라)</p> <p>높다란 누각이 영남 하늘에 솟아 있어 십 리의 진기한 풍경이 한 눈에 보이네. 낮에도 고요하여 여울 소리가 배갯머리에 시끄럽고 해질녘의 소나무 그림자가 뜰 앞에 떨어지네. 농부들이 봄 농사에 분주하니 마을마다 비가 내리고 들판 주막에서 새벽밥을 지으니 곳곳마다 연기가 이네. 아버님께서 일찍이 잔치 열었던 일이 생각나는데 도리어 내가 다시 잔치를 여는 것이 부끄럽구나.</p> <p>관찰사 이원</p> 
<p><b>원문</b></p> <p>危樓高架嶺南天 十里奇觀一望前 晝靜灘聲連枕上 日斜松影落庭邊 田夫春務村村雨 野店晨炊處處烟 憶得先君會過此 還慚小子復張筵 觀察使 李原</p>	

필자	번역
<p>하연(河演)의 시-題嶺南樓 하연(1376~1453). 조선 태조 5년(1396) 문과에 급제하여 대제학과 영의정을 역임.</p>	<p>영남루에서</p> <p>영남루는 낙동강 동쪽 하늘에 있어 왕명 받기 전부터 명승지라 들었네. 발 걸으면 달 오르고 바람이 들며 난간에 기대면 술개 날고 물고기 뿜다. 한 시내는 일 천 댕기 들에 굽이치고, 두 골짜기는 일만 그루의 숲을 나누었구나. 한스럽다 강하의 침석을 깔지 못하니 어찌 홀로 서늘한 곳에 자리 펼치리? 홍희원년 을사 8월 일 관찰사 경재 하연</p> 
<p><b>원문</b></p> <p>題嶺南樓 嶺南樓在洛東天 勝地會聞受命前 月到風來捲簾外 鳶飛魚躍凭欄邊 一川曲折千畦野 兩峽分開萬樹烟 却恨未陳江夏枕 豈宜涼處獨鋪筵 洪熙元年乙巳八月日觀察使敬 齋河演</p>	

필자	번역
<p>김종직(金宗直)의 시-嶺南樓次韻 김종직(1431~1492). 세조5년 문과 급제후 경상도 병마평사 역임. 성종 때 한성부윤, 형조판서, 지중추부사 역임.</p>	<p>(영남루 시운을 따라) 등림한 날이 정녕 기수에 목욕하던 모춘이라 기둥에 기대어 서니 얼굴에 뿌리는 바람이네. 남국의 산천경개는 바다에서 실어오고 사방의 관현악 소리는 구름까지 퍼지네. 들소는 코를 내놓은 채 나루터를 비껴 건너가고 해오라비는 새끼를 데리고 어둑한 밤 안개를 뚫고 가네. 바야흐로 내가 다니는 것이 외롭지 않음을 알겠거니 늘 어머님을 뵈러 올 때마다 손님 자리에 참여하네</p>
<p><b>원문</b> 登臨正值浴沂天 灑面風生倚桂前 南國山川輸海上 八窓絃管鬧雲邊 野牛浮鼻橫官渡 巢鷺將雛割暝烟 方信吾行不牢落 每因省母忝賓筵</p>	

필자	번역
<p>김계창(金季昌)의 시-嶺南樓 세조 8년 문과 급제후 이조참판 역임</p>	<p>눈은 동남 만 리의 하늘에 탁 트였고 한 고장의 절경이 술병 앞에 있네. 시는 비내리는 무심한 곳에서 이루어지고 긴 강을 따라 끝없이 흥이 쫓아가는데, 갈매기에게 채인 놀랜 물결은 흰 물살을 일으키고 소가 졸고 있는 꽃다운 풀에는 푸른 이내가 이네. 주인께서 유람하는 사람의 마음을 잘 알아서 웃으며 봄바람이 술취한 자리로 들어오게 하네.</p>
<p><b>원문</b> 眼豁東南萬里天 一區形勝屬樽前 詩成片雨無心處 興逐長江不盡邊 鷗蹴驚波晴湧雪 牛眠芳草綠生烟 主人慣識遊人意</p>	

필자	번역
<p>신부(申溥)의 시-嶺南樓 신부는 고려 출신으로 신숙주의 아들임. 예종 원년 진사시에 합격. 관찰사 역임.</p>	<p>나그네 남쪽 고을에 오래 있어 한 해가 저무는데 몇 밤이나 화산 고향으로 돌아가는 꿈을 꾸었던가? 서리는 수국(水國)의 푸른 오리 밖에 날리고 나뭇잎은 강성(江城)의 흰 기러기 가에 떨어지네. 양쪽 기슭의 갈대밭에는 외로운 배에 비가 내리고 숲 너머 울타리에는 두어 집에서 연기가 나네. 실컷 놀아도 올라와 노는 흥이 다하지 않았는데 난간에 기대어 시 지으니 달이 잔치 자리로 올라오네.</p>
<p><b>원문</b> 客久南州歲暮天 幾宵歸夢華山前 霧飛水國青鳧外 木落江城白鴈邊 兩岸蘆花孤艇雨 隔林籬落數家烟 倦游不盡登臨興 倚篇欄干月上筵</p>	

필자	번역
일본인 용장(龍章)의 시-嶺南樓	
<b>원문</b>	
登臨絲管悅鈞天 袞袞談鋒舞袖前 晴靄遠攷山郭外 暝禽低下水村邊 蒹葭剩占三更月 桑柘平分萬戶烟 滿酌叵羅君莫讓 明朝海上憶離筵	등림하니 음악이 천상의 음악인 듯 황홀한데 춤추는 기생 앞에서 이야기가 끊어지지 않네. 맑은 안개는 멀리 산 마을 밖에 걷히고 저녁 새는 나지막이 물가 마을로 내려오네. 갈대는 한밤의 달빛을 넉넉히 차지하고 뽕나무는 온 집의 연기를 고르게 나누었네. 가득 찬 술잔을 그대는 사양하지 마시오, 내일 아침이면 바다 위에서 이별 자리가 생각나리니.

필자	번역
남효온(南孝溫)의 시-密陽嶺南樓謁 佔畢齋 남효온(1454~1492). 조선초 생육신의 한 사람.	
<b>원문</b>	
甌峰道士下靑牛 紫府仙曹冠佩稠 千載一人金佔畢 百年勝地嶺南樓 城根浪打寒潭秀 沙岸霜淡栗葉秋 聾耳漸明歌管發 他鄉聽樂揔堪愁	[밀양 영남루에서 점필재를 뵈옵고] 증봉(시루봉)의 도사가 푸른 소에서 내리니, 자부의 신선들 의관 패옥 가득하네. 천년의 한 인물은 점필재요 백년의 명승지는 영남루로다. 성 뿌리에 물결 치고 찬 못은 수려한데 모래 언덕 서리 깊어 밤나무 잎 가을일세. 노래 소리 일어나자 먹은 귀 점차 밝아지나 타향의 음악 소리 모두 근심인 것을.

필자	번역
유순정(柳順汀)의 시-嶺南樓 유순정(1459~1512). 김종직의 문인. 연산군 때 평안관찰사 역임중 추국을 당한후, 중종반정에 참여, 경오년 영의정을 역임.	
<b>원문</b>	
從倚湖山萬里天 依然身世廿年前 數村水竹牛鳴外 一簇雲嵐鳥去邊 夢斷落花江館雨 詩成斜日柳橋烟 白頭詞客偏懷舊 奈此尊傾月滿筵	호산(湖山) 만 리의 하늘을 떠돌아 다녀도 신세는 20년 전 그대로이구나. 두어 마을의 물가 대나무에는 소가 울고 한 덩어리의 구름과 이내에는 새가 날아가네. 꿈은 꽃 지는 강가 누각의 내리는 비에 깨고 시(詩)는 해지는 버드나무 다리의 연기에 지었네. 늙은 시인은 자못 옛날을 생각하는데 어찌 술잔을 기울임에 달빛이 자리에 차는가?

필자	번역
이윤(李胤)의 시-嶺南樓 이윤(1462~?). 성종 병오년(1486) 문과 급제. 부제학 역임.	<p>홀로 높은 난간에 기대어 먼 하늘을 바라보니 한 점 봉우리가 줄지어 나는 기러기 앞에 있네. 현달한 사람은 고금의 목은 자취 속에 있고 강산의 그림은 이 누각 가에 있다네. 중첩한 숲의 나뭇잎은 가을비에 밝고 먼 마을의 인가에는 저녁 연기가 이네. 흠뻑 취해 소리 높여 노래하고 꺾꺾 웃나니 늙은이가 좋은 자리에 가는 것을 개의치 말라.</p>
<p>원문</p> <p>獨憑危檻望遙天 一點螺岑鴈陣前 賢達古今陳述裡 江山圖畫此樓邊 層林木葉明秋雨 遠巷人家裊夕烟 爛醉高歌仍大噓 白頭遮莫赴芳筵</p>	

필자	번역
권벌(權機)의 시-嶺南樓次前人韻 권벌(1478~1548). 중종 2년 문과 급제. 무술년 경상도관찰사로 부임.	<p>높고 웅장한 누각을 영남 하늘에 높이 지어 이름난 고을의 절경이 한 눈에 다 보이네. 바쁜 중에 몸을 빼내어 먼길을 치달리고 돌아가는 기러기가 사라질 때까지 눈길 보낸다. 다하지 않는 긴 강은 비단처럼 평온하고 끝없는 들판 기운은 안개처럼 담박하네. 허공에 기대어 봄바람에게 알리노니 어찌 날리는 꽃잎을 춤자리에 들어오게 하는가?</p>
<p>원문</p> <p>高架雄樓嶺外天 名區形勝一望前 抽身長路馳驅裡 送眼歸鴻滅沒邊 不盡長江平似練 無垠野氣淡如煙 憑虛爲報春風道 肯遺飛花入舞筵</p>	

필자	번역
주세붕(周世鵬)의 시-次嶺南樓韻 주세붕(1495~1554). 중종 17년 문과 급제. 백운동서원을 창건. 명종 때 도승지, 대사성을 역임.	<p>(영남루 운을 따라, 밀양으로 부임하는 사군 안태고를 전송하며)</p> <p>영남루의 풍경은 남방에서 으뜸이라 은하수 비껴 흘러 난간 앞을 감싼다네. 삼신산(三神山)의 구름과 노을이 다리 아래로 오고 하늘의 북두성(北斗星)이 머리 위에 가깝다네. 사물을 살찌게 하는 온 숲의 비는 사사로움이 없고 풍년 들어 집집마다 연기가 날 조짐이 있겠지. 전원에 돌아갈 날이 다만 지척인데 어느 때에야 사또의 잔치에서 흠뻑 취할꼬?</p>
<p>원문</p> <p>送安使君太古之任密陽 南樓風景冠南天 銀漢橫流繞檻前 三島雲霞來脚底 九霄星斗近頭邊 無私潤物千林雨 有象豐年萬戶烟 歸去田園纔咫尺 何時一醉使君筵</p>	

필자	번역
퇴계 이황(1501~1570)의 시-嶺南樓	<p>난간이 높다랗게 거울 속 하늘을 놀려          바라보면 남방 산천이 눈앞에 다 보이네.          강은 거친 들 밖에서 해문(海門)으로 밀려들고          땅은 왜국의 산 녹녹한 구름 곁에 끝난다.          시를 재촉하여 해 저물자 이슬비 내리고          그림인 듯 평림(平林)에는 가느다란 연기로다.          맑은 술잔 잡고 먼 경치 완상하니          박자 치며 좋은 자리 소란케 할 것 없네.</p>
원문	
<p>欄干高壓鏡中天          一望荊吳盡眼前          江蹙海門荒野外          地窮蠻嶺瘴雲邊          催詩晚日纖纖雨          入畫平林細細煙          好把清樽供遠賞          不須檀板鬧芳筵</p>	

필자	번역
류성룡(柳成龍, 1542~1607)의 시-嶺南樓	
원문	
<p>歸雲拖雨渡江天          銀竹橫絲忽滿前          何處亂峯晴靄外          幾村燃火夕陽邊          英豪袞袞空遺躅          佳會忽忽似散煙          鄉思晚來禁不得          夜深愁坐月侵筵</p>	<p>돌아가는 구름은 비를 뿌리며 강을 건너는데          은빛 대나무는 가로 비껴 문득 앞에 가득하네.          맑게 갠 너머의 어지러운 봉우리는 어디인가?          석양 무렵에 불 사르는 연기는 몇 마을인가?          영웅들은 연달아 자취를 남겼는데          좋은 모임은 홀연히 흩어지는 연기와 같구나.          저물녘에 고향 생각을 금할 수가 없는데          깊은 밤에 근심스레 있노라니 달이 자리로 들어오네.</p>

필자	번역
<p>이안눌(李安訥)의 시-嶺南樓重題長律          이안눌(1571~1637). 선조 32년 문과급제.          정묘호란후 함경도관찰사 등 역임.</p>	
원문	
<p>嶺南樓重題長律          落日來登城上樓          海門天闊鳥飛愁          山如坐峽排雲出          川作邑江遶郭流          兩岸平沙白雨過          一郊寒樹碧煙浮          夜深孤月上遙渚          風露淒淒蘆荻秋</p>	<p>[영남루에서 다시 읍시를 짓다]          해질 무렵에 와서 성 위의 누대에 올랐더니          바다 문에 하늘 넓어 새가 근심스레 난다.          산은 무협 같아서 구름을 밀고 솟았고          내는 파강처럼 성곽을 돌아 흐르는데          강 언덕 백사장에 소나기 지나가니          온 들판 차가운 나무에 푸른 안개 떠오르네.          밤 깊어 외로운 달이 멀리 물가에 오르면          바람과 이슬은 가을 갈대밭에 처량하겠지.</p>

필자	번역
<p>임의백(任義伯)의 시 - 嶺南樓  임의백(1605~1667). 인조 27년  별시 문과에 급제, 효종 때  동래부사를 거쳐 경상도관찰사로  부임. 6세손 익상이 만든 시판이  영남루에 걸려있음.</p>	<p>은빛 촛불 붉은 난간 밤은 깊어가는데  앉았더니 바람과 이슬 옷깃에 가득하다.  맑은 통소 한 곡조에 찬 강물 목이 메고  흐린 달빛 창창하게 고목 숲을 비춘다.  관찰사 임의백</p>
<p>원문</p>	
<p>銀燭朱欄夜向深  坐來風露滿衣襟  清簫一曲寒流咽  微月蒼蒼映古林  觀察使任義伯</p>	

필자	번역
<p>조형(趙珩)의 시-嶺南樓  조형(1606~1679). 인조 8년  식년문과에 급제, 효종 5년 일본  통신사 통술.</p>	<p>이름난 명승지라 이 누각을 말하기에  지친 나그네 올라와 근심을 씻으려네.  먼 멧부리 병풍 되어 구름 가에 솟았고  긴 내는 들을 안고 난간 앞을 흐른다.  손으로 별을 만질 듯 하늘이 가깝고  시야가 동남으로 열려 땅의 형세 떠오르네.  굽은 난간에 옮겨 기대니 정신이 상쾌하여  계절마저 도리어 봄 가을을 잃어버릴 듯.  병신년(1655) 봄 통신상사 취병 조형</p>
<p>원문</p>	
<p>名區形勝說茲樓  倦客登臨爲滌愁  遠岵作屏雲際聳  長川抱野檻前流  手摩星斗天文近  眼豁東南地勢浮  徙倚曲欄精魄爽  四時還恐失春秋  丙申春 通信上使 翠屏 趙珩</p> <p>天地東南第一樓  洗來千古丈夫愁  雲開大野退青岵  江得長風湧碧流  疑是金鰲山上載  何如彩蜃海中浮  欲題墨沼重書後  吾祖詩垂不記秋  丁巳夏五世孫東海琮鎮謹積  戊辰榴夏六世孫靈山縣監雲漢謹書</p>	<p>천지 동남쪽에 첫째가는 누각이라  천고에 대장부의 근심을 씻어주었네.  큰 들에 구름 견히자 푸른 산이 물러나고  긴 바람 받은 강에는 푸른 물이 용솟음친다.  아마도 금오산 위에 있었던 누각이나,  떠 있는 신기루가 아닐런지.  시를 지어 거듬 뒤에 쓰나니  시를 영원히 전하려 하네.  정사년 여름에 5세손 동해 종진이 삼가 지음  무진년 유하(榴夏)에 육세손인 영산현감 운한이 삼가 쓴다.</p> 

필자	번역
김창흠(金昌翕)의 시-嶺南樓贈主 李季常 김창흠(1653~1722). 안동출신. 영의정 수항(壽恒)의 아들이며 영의정 창집(昌集)의 아우.	객과 주인이 모두 부평초와 같은데 봄날 영남제일루에서 만났네. 동풍에 흰 머리카락을 날리고 남포에서 가벼운 배에 기대었네. 언덕의 대나무는 처마 그림자에 일렁이고 강가의 매화는 뱃노래에 떨어지네. 아득한 삼랑강(三浪江) 어귀 바라보니 거슬러가면 두류산에 갈 수 있다네.
<b>원문</b> 賓主俱萍水 逢春第一樓 東風散華髮 南浦倚輕舟 岸竹搖簷影 江梅落棹謳 微望三浪口 溯可向頭流	

필자	번역
권만(權萬)의 시-嶺南樓 권만(1688~1749) 영조 때의 문신. 안동 출신. 영조 1년 증광문과에 급제 후 병조정랑을 역임. 이 시편은 현재 영남루에 걸려있음.	영남 하늘에 높은 누각 치솟았는데 명원의 시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네. 고금의 근심은 산 그림자 속에서 생기고 풍진세상의 꿈은 물소리 가에서 깨는구나. 외딴 성 화각 소리에 큰 달은 밝은데 옛 절 차가운 종소리 저녁 연기에 덮이네. 선조께서 부임하여 머무셨던 고을이라 몇 번이나 봄이 돌아 좋은 잔치 보냈던고?
<b>원문</b> 高樓聳出嶺南天 明遠詩成未到前 今古愁生山影裡 風塵夢醒水聲邊 孤城畫角晴殷月 古寺寒鍾晚翳烟 先祖桐鄉曾駐節 幾回春到遣華筵	



필자	번역
손병로(孫秉魯)의 시-嶺南樓會席拈韻得樓字 손병로(1747~1812). 정조 정유년(1777) 진사 합격.	[영남루 모임 석상에서 루자 운을 뽑아] 창주에서 수조가첫머리를 낭랑하게 읊나니 중국의 삼재도회에 올라 있는 누각이라네. 넓디넓은 하늘과 땅은 우리들을 용납하고 창창한 갈대와 이슬은 또 새로운 가을이네. 부럽다 그대는 노을 생각에 훌쩍 떠날 수 있지만 가련하다 나는 연잎에 절뚝거리며 숨었네. 이별한 뒤 그리는 마음을 알려고 하는지 강물은 분명하게 갈라져서 흐르지 않네.
<b>원문</b> 滄洲朗咏水調頭 中國三才圖上樓 納納乾坤容我輩 蒼蒼葭露又新秋 羨君霞思能標舉 憐我荷衫已蹙幽 欲知別後相思意 江水分明斷不流	

필자	번역
<p>김리탁(金履鐸)의 사(嶺南樓敬次三淵先祖板上韻) 안동출신. 삼연 김창흡의 증손. 1781년 밀양부사 부임. 이 시 네 수의 판은 현재 영남루에 걸려있음.</p>	<p>곱고 고운 강의 달은 몇 번이나 등글었나? 높은 누각 오른 것이 이십 년만이라도. 멀리 밤의 종소리 꽃 너머 절에서 울리고 봄바람에 사람은 거울 속 하늘에 앉았네. 성의 구름 거꾸러진 그림자 술잔에 맑게 흔들리고 물가의 대나무 짙은 그늘 배에 가득 떨어지네. 거문고를 치고 나니 산과 바다는 넓은데 사또의 그윽한 생각 정녕 시원하구나. 누각 그늘 바둑판은 몸을 따라 옮겨가고 구름과 물이 처마 끝에 달아 새가 사람 가까이 오네. 그윽한 풍경 한 소리는 먼 나무에 밝고 긴 강 아홉 구비 푸른 마름을 띠었네. 석양에 돛단배는 여뀌꽃의 비 속에 지나가고 흐르는 물처럼 술잔에 죽엽춘 술을 돌리네. 남국의 산천을 마음 흡족히 감상하고 요선관 안에서 맑고 참된 기운을 함양하네.</p>
<p>원문</p>	
<p>娟娟江月幾回圓 憶上高樓二十年 遙夜鍾鳴花外寺 春風人坐鏡中天 城雲倒影清搖酒 水竹濃陰落滿船 彈罷瑤琴山海曠 使君幽思正泠然 樓陰碁局動隨身 雲水齊簷鳥近人 幽磬一聲明遠樹 長江九曲帶青蘋 夕陽帆過蓼花雨 流水盃行竹葉春 南國山川心賞愜 邀仙館裏養清眞</p>	<p>우리 조상 쓰신 편액 오래이더니 남방에 이 누각이 있었구려. 새는 강가의 대숲에서 울고 사람은 목란주에 의지하였네. 물가의 갈대는 고기잡이 피리를 불고 산의 꽃은 야인의 노래에 오르는데 바다 하늘 아득하여 끝이 없고 난간에 앉으니 한 강물이 흘러가네.</p>
<p>吾祖題扁古 南州有此樓 鳥鳴篁竹岸 人依木蘭舟 水葦吹漁管 山花上野謳 海天杳無極 凭檻一江流</p>	<p>&lt;첫 구절은 빠짐&gt; 난장을 저어 상류로 올라갔더니, 달은 소나무 사이 절에서 뜨고 바람은 대밭 너머 누각으로 오네. 한 가닥 연기는 마암 섬에서 생기고 고인 물은 교룡의 늪으로 어둡다. 감상을 하면 진정한 경계가 있으니 강과 산에는 묵은 비가 걷히네.</p>
<p>○○○○○ 蘭槳上游浮 月出松間寺 風來竹外樓 孤烟生馬島 積水暗蛟湫 延賞有眞境 江山宿雨收 曾孫府使履鐸</p>	<p>증손 부사 리탁</p> 

필자	번역
<p>조기복(趙基復)의 시-嶺南樓 3수 1831년 밀양부사 부임 후 상주목사 부임. 임진년(1832)에 영남루를 개건. 이 시는 조기복의 중수상량문 뒤에 첨부되었고 영남루에 시판이 걸려 있음.</p>	
<p><b>원문</b></p>	
<p>殘魂零落鬢成銀 去國登樓空復春 祇幸江山無定主 不關笙瑟有嘉賓 風吹漁火遙歸港 月滿仙槎近泊津 沈醉忽聞蕭寺磬 白雲深處會尋眞</p> <p>老病登樓若上天 坐來奇勝伍無前 飛甍復聳禪鍾後 幽石偏多畫艇邊 細白冰紈收暖汗 鷗黃○樹語涼烟 殊鄉未遽增悵恨 分付殘花媚酒筵</p> <p>綺閣重成此日功 居然雲物翼樓崇 名區未是無興廢 舊制仍非有異同 一望青煙橫馬島 四時繁吹蕩蛟宮 映湖矗石風斯下 今古江南許獨雄</p>	<p>쇠잔한 정신 영락하여 머리카락 은빛 되고 서울 떠나 누각 오르니 다시 부질없는 봄이네. 그래도 다행인 것은 강산에 정한 주인 없고 관련 소리 관계 없이 좋은 손님 있음이네. 바람 불자 어화는 멀리 포구로 돌아오고 달빛 가득 신선 배는 나루 가까이 대었네. 잔뜩 취해 홀연히 절간의 풍경 소리 듣고 흰 구름 깊은 곳에서 참된 경계를 찾았네.</p> <p>늙고 병들어 누각에 오르니 하늘에 오른 듯 자리에 앉으니 기묘한 경치 짝할 데 없네. 나를 듯한 기와지붕 선종이 울린 뒤 다시 치솟고 그윽한 바위는 그림배 곁에 많기만 하네. 가늘고 흰 깃으로 따듯한 땀을 닦고 피꼬리는 나무 숲에서 서늘한 연기와 이야기하네. 타향에서 갑자기 서글픔 더하지 못하는 것은 시든 꽃에게 분부하여 술자리 시중들게 함이네.</p> <p>화려한 누각 다시 이룬 오늘의 이 공으로 의연한 온갖 경물에 날아갈 듯 누각 솟았네. 명승지엔 본디부터 흥폐가 없는 법이나 옛 규모 지켜가는데는 같고 다름이 있네. 바라보면 푸른 연기 대마도에 비껴 있고 사시사철 바람 불어 인어 궁궐 뒤흔드네. 영호루와 축석루는 이 보다 아래이리니 고금의 강남 땅에 홀로 웅대함을 허락하리.</p>
	

필자	번역
<p>장승원(張承遠)의 시-嶺南樓 장승원(1853~1917). 조선시대 문신. 영남루에 걸려 있는 이 시의 현판에는 관찰사로 왔을 때 지은 것으로 기록됨.</p>	<p>위태한 누각 영남 하늘에 높게 지어 아스라이 옛 성곽 앞에 등림하였네. 소 잔등의 석양은 넓은 들 너머요 시퍼런 봄 물결은 끊어진 다리 곁이로다. 일천 집 푸른 대는 강의 비를 매달았고 일만 리 천둥치는 수레는 바다 연기를 채어간다. 삼십 칠 년 만에 다시 온 나그네는 동풍에 꽃 지는 자리가 근심에 곁네. 관찰사 윤정 장승원</p>
원문	
<p>危樓高架嶺南天 迢遞登臨古郭前 牛背斜陽平楚外 鴨頭春浪斷橋邊 天家翠竹懸江雨 萬里雷車掣海烟 三十七年重到客 東風愁殺落花筵 觀察使 雲庭 張承遠</p>	

필자	번역
<p>작자 미상 시-謹次板上韻 이 시는 영남루에 걸려 있으나, 시판의 아래 일부가 누락되어 전문판독이 불가해 번역되지 않음.</p>	<p>謹次板上韻 此樓迢出嶠 天百里形觀 眼前漁子 微雨裏行 船夕陽邊 先得千峰 水層生萬 我欲凌波 遠聊將詩 開筵 丁亥菊秋 完山人 李</p>
원문	
<p>此樓迢出嶠○天 百里形觀○眼前 漁子○○微雨裏 行○○船夕陽邊 ○○先得千峰○ ○水層生萬○○ 我欲凌波○○遠 聊將詩○○開筵 丁亥菊秋 完山人 李○○</p>	

필자	번역
<p>오횡묵(吳弘默)의 시-顯敞樓  오횡묵(1834~?). 1889년 이후  4년간 함안군수를 지내며 밀양을  집중적으로 다녀간 기록이 풍부함.  아래 시는 1890년 4월 16일  밀양부사 정병하에게 써 준  「현창루(顯敞樓)」 시인데, 현창루는  편액 '顯敞觀'을 지칭한 것으로  현창관을 직접 시제로 한 것은 이  시가 유일함.</p>	<p>현창의 높은 누각 푸른 하늘에 치솟았고  만물이 화창함은 성인의 공덕이라.  초록 비단 같은 벼들은 태평세월 그림이고  백성들은 본디 태고의 기풍을 품었도다.  현가의 소리가 노나라 시절처럼 들리고  위아래 모두가 우공의 산하에서 나왔네.  부사의 후덕한 정사 분명함으로 칭송되듯  백리의 고을이 우로의 은택 흠뻑 받았구려.</p>
원문	
<p>顯敞高樓湧碧空  暢和萬物聖人功  秧如綠錦昇平○  民是素襟太古風  魯區日月歌絃誦  禹貢山河上下中  使君德政稱分命  百里桑麻雨露通</p>	

## 18. 삼척 죽서루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검토

### 가. 제안사항

강원 삼척시 소재 「삼척 죽서루」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강원 삼척시 소재 「삼척 죽서루」를 국가지정문화재(국보)로 지정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 받고자 하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강원도지사
- (2) 대상문화재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삼척 죽서루」
  - 소재지 : 강원 삼척시 성내동 9-3번지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신청
  - 명칭 : 삼척 죽서루(三陟 竹西樓)
  - 소유자(관리자) : 국유(삼척시)
  - 소재지 : 강원 삼척시 성내동 9-3번지
  - 조성연대 : 조선시대
  - 수량 : 1동
  - 지정면적 : 247.1㎡
  - 구조/형식/형태 : 목조 / 와가 / 팔작지붕

### 라. 현지조사 의견(2023.03.24. / 문화재위원 ○○○·○○○, 문화재 전문위원 ○○○)

- 문화재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가치 있음.

- 문화재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가치 있음.
- 문화재전문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가치 있음.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원안가결 9명

##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23.03.24	대상문화재	삼척 죽서루	
조사자	성 명	○○○	전공 분야	건축역사
	소 속	○○대학교	직위(직책)	교수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국보)		
	문화재 명칭	삼척 죽서루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세부내용 별첨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3 년 8 월 7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 1. 입지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삼척 죽서루의 소재지는 강원도 삼척시 죽서루길 44(성내동9-3번지)이다. 죽서루는 삼척 객사인 진주관(眞州館)에 부속된 관영의 누정으로서, 조선시대의 삼척도호부 읍성안 서쪽의 오십천변의 절벽위에 있으며, 인접하여 객사와 관아터 등이 있다. 이 일대는 신라시대 이래 삼척 관아의 중심 치소였으며, 조선시대에도 객사와 동헌 등이 있었으나, 죽서루 외에 다른 건물들은 모두 멸실되고, 최근 발굴조사를 통하여 일부가 복원되어 있다.

삼척에 읍성을 쌓은 것은 고려시대의 일이나, 이때는 토성이었으며, 이를 석성으로 쌓은 것은 조선 전기인 1510년(중종 5)의 일이다. 이 같은 내용은 『세종실록지리지』(1454년)에는 읍성이 토성이고 둘레가 540보라고 되어있던 기록이, 『신증동국여지승람』(1530년)에는 읍성이 석성이고 둘레가 2,054척, 높이가 4척이며, 서편 성벽 431척은 절벽을 이용하였다고 하는 기록에서도 확인된다.<sup>1)</sup> 2010년부터 2016년 걸쳐 5차례 시행된 관아터 발굴조사와 구 지적도 등을 통해 그 모양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2. 참조)



그림 1 삼척 관아지 일대의 배치 현황. 빨강색 네모 상자가 죽서루의 위치다.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신청자료-삼척 죽서루-』(삼척시, 2023)에서 전재, 이하 『신청자료』로 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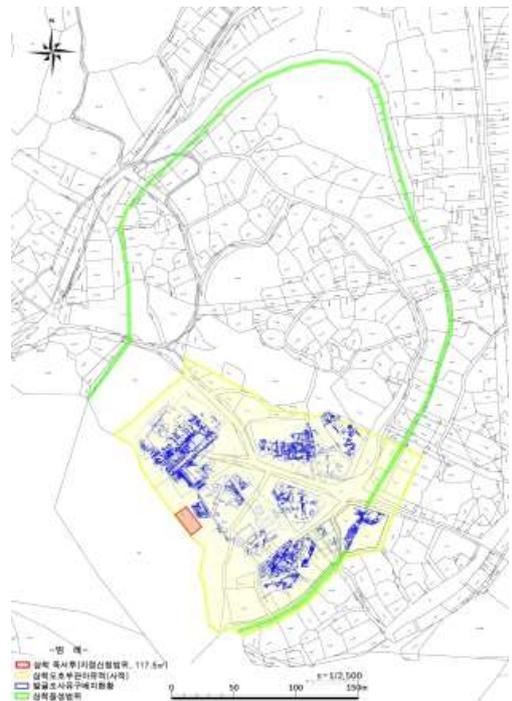


그림 2 삼척읍성(석성)과 객사 및 관아터. 오십천변에 관아터가 있다. (『신청자료』에서 전재)

1) 한 보(步)가 6척(尺)이니, 2,054척이면 342보가 되고, 절벽 구간을 합하여 2,485척이라고 해도 414보 밖에 되지 않는다. 단위의 변화가 없었다면 조선시대의 읍성이 고려시대보다 조금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객사와 동헌을 비롯한 관아터는 현재 죽서루가 있는 읍성 내의 서쪽 절벽 옆 대지에 모여 있다. 죽서루는 객사의 부속 누정이므로 그 가까이 있는 것이 기본이지만, 밀양 영남루와 같이 객사와 누정이 함께 있고 동헌과 따로 있는 경우, 남원 광한루와 같이 객사와 동헌은 읍성 안에 두고 누정만 읍성 밖에 따로 있는 경우, 그리고 이처럼 큰 관영의 누정이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객사와 동헌과 누정이 모두 한 장소에 있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는 없다. 오십천변의 절벽이 경승지이면서 동시에 멀리 해구를 바라보는 높은 장소로서 방어에 유리하고, 삼척 읍성의 둘레가 크지 않은 점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삼척 객사 진주관(眞州館)은 죽서루의 북쪽에 있는데, 남향하여 외삼문과 담장으로 정면을 만들고, 그 뒤로 내삼문과 회랑을 두고, 그 안에 중정을 건너 정청과 동서의 익헌이 있는 구성이고, 그 서쪽에 죽서루와 같이 절벽 가에 응벽헌(凝碧軒)이라는 부속 누정이 있다. 응벽헌에 대해선 허목의 『척주지』에도 “절벽 위에 3개의 누가 있는데, 제일 장려한 것이 응벽헌으로, 진주관의 서헌이다”고 기록되어 있다. 장려하다는 표현은 화려하게 꾸몄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1518년(중종 13)년 현 자리로 이건하였으며, 이후 여러 차례의 중수를 거쳐 조선 후기까지 사용지만, 1902년에는 객사의 기능을 다하고, 1908년에는 삼척 군청사로 전용되었으며, 1934년 신청사를 지으면서 철거되었다. 최근 발굴조사를 거쳐 복원되었다.

관아의 중심 건물인 동헌과 내아로 추정되는 건물지는 국도 38호선 길 건너편에 있다. 남향을 주축으로 하는 중심 건물과 회랑 등으로 추정되는 건물지 등이 발굴되었으나 정확한 위치 비정은 아직이다. 최만희의 『진주지(眞州誌)』에 따르면, 삼척 관아는 1685년(숙종 11) 향청의 옛터로 이전하였으며, 1730년(영조 6)에는 다시 동헌의 옛터로 이전하고, 1766년(영조 42)에는 다시 이전하는 등 여러 차례의 이건 기록이 있는데, 발굴조사에 나온 여러 시기에 걸친 중첩된 유구가 그러한 상황을 보여준다.

이 밖에도 죽서루 앞마당의 남쪽,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공간은 민가들이 들어섰던 곳인데, 이곳의 발굴을 통해 고려시기와 조선시대의 여러 건물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들은 관아의 부속 건물로 생각된다. 이 구역에서, 역시 허목이 『척주지』에서 언급한 절벽 위 세 누정 가운데 하나인 연근당(燕謹堂)의 유구라고 추정되는 건물지도 발굴되었다.

죽서루는 이들 관아 및 객사가 군집한 관아지의 서편 오십천의 절벽 위에 있다. 오십천은 삼척시와 태백시의 경계인 백병산(白屏山, 1,259m)에서 발원하여 북서쪽으로 흐르다가 도계읍 삼포리에서 북동동으로 흐르며 삼척시 마평동에서 동쪽으로 꺾여 동해로 빠져드는 길이 48.8km의 하천이다. 급한 경사가 석회암 지대를 통과하면서 구비가 많고 절벽도 많은 다양한 지형을 보여준다. 죽서루가 위치한 지형은 오십천이 거의 끝나 바

다로 들어가기 전 삼척 시내를 관통하는 초입에 해당한다. 오십천은 원래 죽서루를 지나 다시 한번 북쪽으로 크게 만입하여 휘돌아나가는 형상이었으나, 1960년대에 진행된 남산 절단 공사로 흐름이 직선화되고, 원래 강이 흐르던 물길과 강이 돌아가는 길 안쪽의 땅은 매워져서 시가지로 개발되었다.

죽서루가 위치한 자리는 오십천이 크게 휘돌아가면서 만든 수직의 절벽 위이기 때문에 그 아래의 강심은 깊고, 반대편으로는 완만한 경사를 이루어, 강 건너편에 모래밭이 형성되어 있다. 서쪽의 높은 산과 동쪽의 바다, 그리고 누정 앞을 흐르는 강과 절벽과 모래사장이 만드는 경치는 일찍부터 이름을 얻어서, 관동 팔경의 하나로 불리었다.

관동 팔경은 1군 1경의 원칙에 따라 북쪽으로부터, 통천의 총석정, 고성 삼일포, 간성 청간정, 양양 낙산사, 강릉 경포대, 삼척 죽서루, 울진 망양정, 평해 월송정 등이다. 이 가운데 해변이 아닌 바다에서 조금 떨어진 계변에 위치한 것은 삼척 죽서루가 유일하며, 객사 부속의 관영 누정으로 사용된 것도, 관동 팔경 가운데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도 죽서루가 유일하다.

마수 허목은 「죽서루기」에서 관동의 여러 누정들이 모두 바닷가에 있는데 반하여, 죽서루는 바다와 떨어져 높은 산봉우리가 보이는 강가의 가파른 절벽 위에 있어서 그 경관이 관동 제일이라 하였고, 1710년(숙종 36) 부사 이성조(李聖祚)는 ‘關東第一樓’라는 편액을 써 걸었다.



그림 3 오십천 건너편에서 바라본 죽서루. 왼쪽에 객사가 보인다. (2023.03.24. 촬영)

부사를 지낸 허목 뿐 아니라, 숙종과 정조 등의 두 임금, 이승휴, 율곡 이이, 송강 정철 등 이름난 문사들의 시문, 겸재 정선, 단원 김홍도, 표암 강세황 등의 그림 등 최고의 시서화가들의 작품 대상이 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예부터 죽서루를 그림 그림들은 오십천 건너편에서 절벽과 오십천을 한 화면에 담은 장면을 주로 그렸으며, 이와 대조적으로 죽서팔경이나 시문들에서는 죽서루에서 바라보는 건너편의 경관을 주로 노래하였다. 이외에도 죽서루에는 많은 현판과 기문의 편액들이 전하고, 죽서루가 자리한 자연 암반의 여기저기에는 ‘琴石’, ‘石壇濃陰’, ‘錦繡壁’, ‘射壇’, ‘觀德之所’, ‘眞珠壁’, ‘舞雩臺’, ‘老松亭’, ‘魯山松竹’, ‘龍門(또는 巖門)’, ‘凝壁潭’, ‘凝壁潭’, ‘第一壁’, ‘武夷九曲’, ‘朴灘의 시’ 등 많은 각자가 남아 있다.

이처럼 죽서루는 삼척 관아 읍치의 한 영역을 담당하는 공공 공간이면서, 동시에 뛰어난 경승지로 고려시대부터 조선 후기까지 전국적으로 많은 인사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은 명소로 지위를 유지하여 왔으며, 그 가치를 평가받아서 1962년 ‘삼척 죽서루’는 보물 제213호로 지정된 이후에도, 2007년에는 ‘삼척 죽서루와 오십천’이 명승 제28호로 지정되고, 2010년부터 시작된 5차례의 발굴조사의 결과 관아지의 유적을 확인하면서 2021년에는 ‘삼척도호부 관아지’가 사적으로 추가로 지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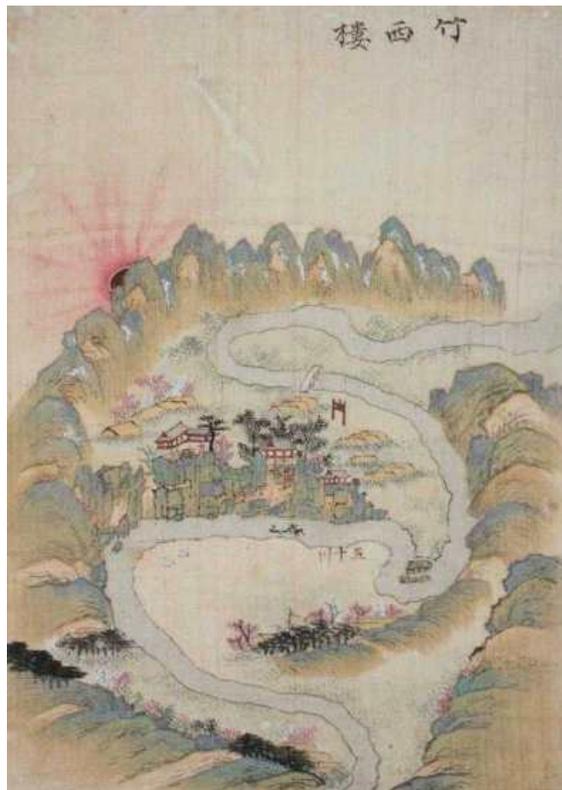


그림 4 「죽서루도」 『관동십경첩』, 서울대 규장각 소장 (『신청자료』에서 전재)

## 2. 연혁

12세기 고려 명종(1171-1197)대에 활동하였던 김극기(金克己)의 시 두 편이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남아있어, 이미 고려시대에도 누정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 한편, 죽서루에는 1253년(고려 고종 40) 홀어머니를 뵈러 삼척에 왔다가 몽고의 침략을 만나 두타산 구동(頭陀山 龜洞)에 들어가 용안당(容安堂)을 짓고 10년 넘게 은거하며 『제왕운기』를 지었다는 이승휴(李承休, 1224-1300)와 관련된 고사와 함께, 그가 지었다고 전하는 「陪安集使兵部陳侍郎(諱子俟)登眞珠府西樓次板上韻」라는 시가 남아있다. 다만 이때는 죽서루가 아니라 진주부(眞州府) 서루(西樓), 즉 삼척객사의 서루로 기록되어 있다. 이처럼 서루(西樓)라고 칭한 시는 안축(安軸, 1282-1348)이 지은 「三陟西樓夜坐」도 있다. 죽서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고려 공민왕과 우왕 대에 활동하였던 이구(李玖)의 시 「趙副令出按關東記關東隱君子」이 처음이며, 이 시구 중에 “삼척의 관루(官樓)는 ‘竹西’”라고 분명히 하였다.

종합하면, 고려시대 삼척의 관영 누정은 12세기에 이미 있었으며, 처음에는 단지 객사의 서루, 혹은 삼척의 서루로 불리다가, 14세기 후반에 들어서 죽서루라고 불리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관찬의 기록에서 죽서루가 등장하는 것은, 조선 최초의 관찬 지리지라 할 수 있는 『세종실록지리지』(1454년)이다. 여기서, 죽서루는 읍성 안에 있으며, ‘죽서 8경’을 소개하는 정도로 간략히 기술되어 있다. 조금 더 자세한 기록은, 『신증동국여지승람』(1530년)에 나오는데, 그 내용을 옮기자면, “죽서루는 객관의 서쪽에 있다. 절벽이 천 길에 이르고 기암이 뿔뿔이 늘어선 위에 날듯이 누를 만들었는데, 죽서루라 한다. 아래론 오십천에 면했고, 냇물이 휘돌아가면서 못을 만들었는데, 물이 매우 맑아 햇빛이 밑바닥까지 닿고, 헤엄치는 물고기도 날날이 헤아릴 수 있다. 영동의 절경이다”고 묘사하고, 고려시대의 정추(鄭樞, 1333-1382)와 김극기(金克己), 조선시대의 안성(安省, 1344-1421)의 시를 소개하고, 홍귀달(洪貴達, 1438-1504), 이육(李陸, 1438-1498), 정수강(丁壽崗, 1454-1527) 등의 시를 증보하였다. 이로써, 이미 세종 연간에는 죽서루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죽서루의 창건 연대에 대해선, 조선 세종대에서부터 성종대에 걸쳐 활동한 김수온(金守溫, 1410-1481)의 문집인 『식우집(拭疣集)』에 실려 있는 「竹西樓丹青記」에 기록이 있는데, 이에 따르면, 죽서루는 영락(永樂) 계미(癸未) 즉, 1403년(태종 3) 부사 김효손(金孝孫, 1373-1429)이 옛터에 창건하였다고 한다.

같은 내용이, 역시 1660년부터 1662년까지 삼척부사를 지낸 허목(許穆, 1595~1682)의 시

문집인 『記言』(1689)에서도 확인되는데, 그 책 「棟宇」조에 실려 있는 「竹西樓記」에는, “官府故事, 樓不知作於何代, 而至皇明永樂元年, 府使金孝孫, 修廢墟起此樓”라고 하여, 누를 처음 지은 것은 언제인지 알 수 없으나, 명나라 영락 원년 즉, 1403년(태종 3)에 부사 김효손이 폐허 위에 새로 세웠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 같은 글에서 죽서루의 명칭에 대하여, 누 아래에 죽장사(竹穡寺)라고 절이 있었는데, 그 서쪽에 있는 누라고 하여 죽서루라 이름 붙였다고 하는 설을 소개하고 있다.

또 창건을 비롯한 죽서루의 연혁에 관한 내용이 그가 편찬한 『척주지(陟州誌)』와 1662년(헌종 3)에 써서 달은 「죽서루기(竹西樓記)」 현판에도 반복되어 실려있다. 이들 기록에 따르면, 1403년(태종 3) 부사 김효손이 옛터에 누를 만들고(作此樓), 1425년(세종 7) 부사 조관(趙貫, 1383-?)이 단청하고, 1471년(성종 2) 부사 양찬(梁瓚, 1443-1496)이 중수하였으며, 1530년(중종 25) 부사 허확(許確)이 남쪽 처마를 증축(增作南檐)하였고, 그 61년 후 1591년(선조 24) 부사 정유청(鄭惟淸, 1534-1598)이 다시 중수하였다.

이로써, 삼척 죽서루는 고려시대부터 누정이 있던 터에, 1403년(태종 3) 부사 김효손에 의하여 처음 죽서루란 이름의 관영 누정이 지어졌으며, 1530년(중종 25)에 남쪽 처마를 증축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척주지(陟州誌)』의 전통은 1848년(헌종 14) 김종언(金宗彦, 1818-1888)의 『척주지』로 이어지는데, 김종언은 허목의 『척주지』의 편재와 내용을 그대로 따르면서 이후의 기록을 ‘부(附)’라 표기하여 추가하는 등 허목의 책에 대한 속편의 성격을 가지면서도, 「樓亭條」를 신설하여 죽서루에 대한 보다 자세한 기록을 남긴다.

여기서 추가된 내용을 보면, 1726년(영조 2) 부사 최도문(崔道文, 1676-1729)이 중창하고, 그 후 부사 조재연(趙載淵)이 개조(改造)하고, 1788년(정조 12) 부사 서탁수(徐琢修, 1735-1794)가 뒤쪽 처마를 증축하고 【增作後檐】, 그 다음해인 기유년(1789)에 부사 김성규(金聖規)가 서울에서 화공 이대근(李大根)을 초빙하여 단청하였다고 한다.<sup>2)</sup>

여기서 특별히 ‘중창’과 ‘개조’와 ‘증작후첨’의 구절이 눈에 띄는데, 중창(重創)과 중수(重修)가 다분히 구분 없이 혼용되어 사용되는 상황은 이미 여러 상량 기문에서 살펴본 바가 있다. 즉, 기둥부터 전부를 새로 세우다시피 한 것을 중수라 하기도 하는 한편, 겨우 서까래 이상의 지붕을 고쳐 지은 것을 중창이라고도 하는 등 뚜렷한 기준 없이 두 단어가 사용된다. 한편 개조라는 표현은 드문데, 형태에 변화가 생긴 것을 의미하는 것

2) (附)英廟丙午 府使崔道文 重創 竹西樓 其後 府使趙載淵 改造 正廟 府使徐琢修 增作後檐 後己酉 府使金聖規 超京畫工 李大根 丹青 (삼척시립박물관, 국역 척주지, 2001, 원문판. (김왕직, ‘삼척 죽서루의 건축사적 고찰’ 『신청자료』 소수,에서 재인용)

같은데, 그 내용은 알 길이 없다. 마지막으로 주목할 말이, ‘증작후침’으로, 이는 앞선 『척주지』에서 ‘증작남침’이라 한 것과 짝을 이루어, 이제는 북쪽 부분을 증축한 것이 아닐까는 짐작을 하게 한다.

이후 1870년 부사 서증보(徐曾輔, 1813-?, 1844년 증광시)가 개수하고, 1898년 군수 이구영(李龜榮)이 중수 및 단청을 하였다.

해방 이후로도 여러 차례 중수와 개와 공사가 이루어졌으며, 1982년 대대적인 개수 및 변화작업이 있었고, 1998-9년에 걸쳐 실측조사가 이루어졌고, 2010년에서 2021년 사이에 다섯 차례 주변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후, 2018년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정비공사가 뒤따랐다. 가장 최근의 공사는 2021년의 외부 단청 공사와 난간 및 마루 정비사업이었다.

### 3. 건축적 특징

죽서루는 오십천의 깎아지른 듯한 절벽 위 자연 암반 위에, 원 지형을 그대로 두고 그 윗면을 조금 다듬어 기둥을 세운 팔작의 다락집으로서, 전체 규모는 정면은 7칸이고, 측면은 남측면(향좌측)은 3칸, 북측면(향우측)은 2칸으로 서로 다른 구성을 갖는다. 게다가 가운데 5칸의 보칸 치수와 양측 단부에 있는 마지막 칸의 보방향 크기가 다르고, 그래서 기둥머리를 연결하는 창방도 가운데 5칸에만 있고 좌우단의 증축한 부분에는 없다. 기둥의 구성도 가운데 5칸은 누하주와 누상주로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반해 양측벽은 암반 위에 선 기둥 한 층으로 그치고, 공포의 형식도 달라서, 이 건물은 일찍부터 가운데 5칸 부분이 먼저 만들어지고, 양단의 두 칸은 시차를 두고 후대에 따로 증축되었다고 생각되어왔다.

이러한 차이는 서로 다른 시기의 증축으로 생긴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우 측면의 칸수가 다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다. 보칸의 총 크기가 6,540mm 즉, 22자에 채 미치지 못하는 규모이고, 이에 따라 상부 가구의 짜임 역시 전후 둘레 기둥에 대들보를 걸고 그 위에 동자주로 종보와 중도리를 받치고, 대공을 올려 중도리를 받치는 5량가의 간단한 규모로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북측면처럼 측면 2칸으로 하는 것이 적당한 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북측의 두 번째 칸, 즉 북측으로 한 칸이 증축되기 이전에는 측면 마구리였을 자리도 측면 중앙에 기둥을 두어 보칸을 2칸으로 구획하였다. 이것이 원래 건물의 측면 구성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남측면을 3칸으로 한 것이 상례를 벗어난 특별한 처리로 보이는데, 아마도 이는 남측면이 주 출입구로 사용되는 용도와 관련이 있을 것

으로 생각된다. 즉, 진입 정면에 중심성을 주기 위하여 일부러 3칸으로 나누어 가운데 정칸과 양측의 협칸으로 구분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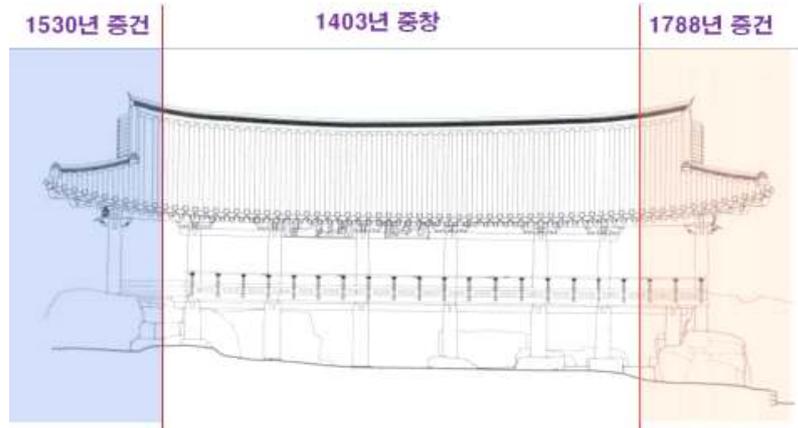


그림 5 죽서루의 증축 과정. 동편 마당에서 본 입면으로, 왼쪽이 남측, 오른쪽이 북측이 된다. (『신정자료』에서 전재)

게다가 그 증축한 남측 한 칸은 바닥에 마루를 깔지 않고, 자연의 암반을 그대로 둔 채로 출입을 돕기 위해 가운데 한칸 부분만 고르게 다듬은 돌을 깔았다. 1530년이라고 추정되는 증축의 시점을 감안하면, 당시는 아직 누를 오를 때 신발을 벗는다든지 하는 행위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며, 다만 기존의 암반의 높이가 누의 마루높이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올라와 있고, 또 주된 용도가 출입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굳이 마루를 깔지 않고 바닥의 레벨을 조정하는 것에 그쳤던 것 같다. 마루를 깔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마루 공간과 같은 계자각 난간을 두지 않았고, 다만 절벽에 면한 서측 면의 기둥 사이에 중방을 2본 가로질러 낙하 위험에 대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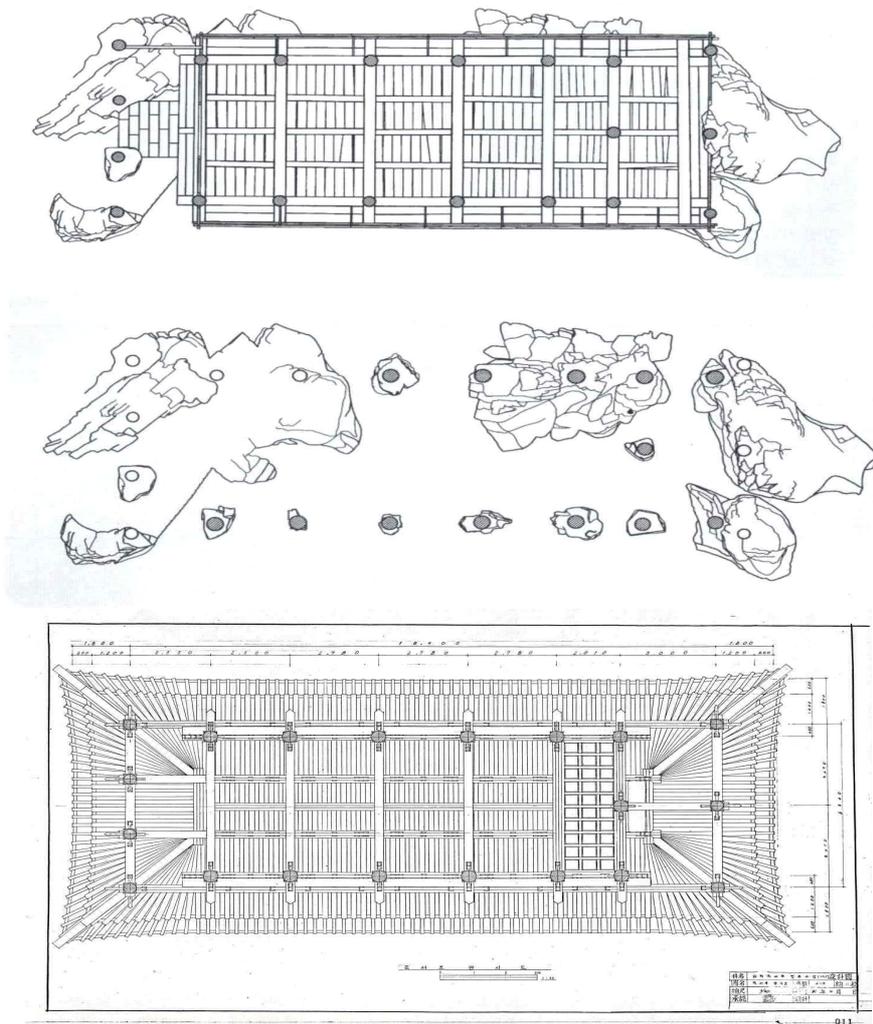


그림 6 죽서루의 누상층, 누하층 평면도 및 지붕 양시도 (『신청자료』에서 전제)

한편, 북측 마지막 칸은 이와 사뭇 다른데, 마지막 칸에도 우물마루를 깔았으며, 가운데 기둥 좌우로 약 1m씩은 출입을 위해 비워놓았지만, 나머지 부분은 삼면을 둘러 가며 모두 계자각 난간을 두었다. 즉 이 공간 역시 자연 암반이 부분적으로 마루높이까지 올라와 있어서 진출입할 수 있지만, 그 출입은 제한적이고 기본적으로는 실내 공간으로 계획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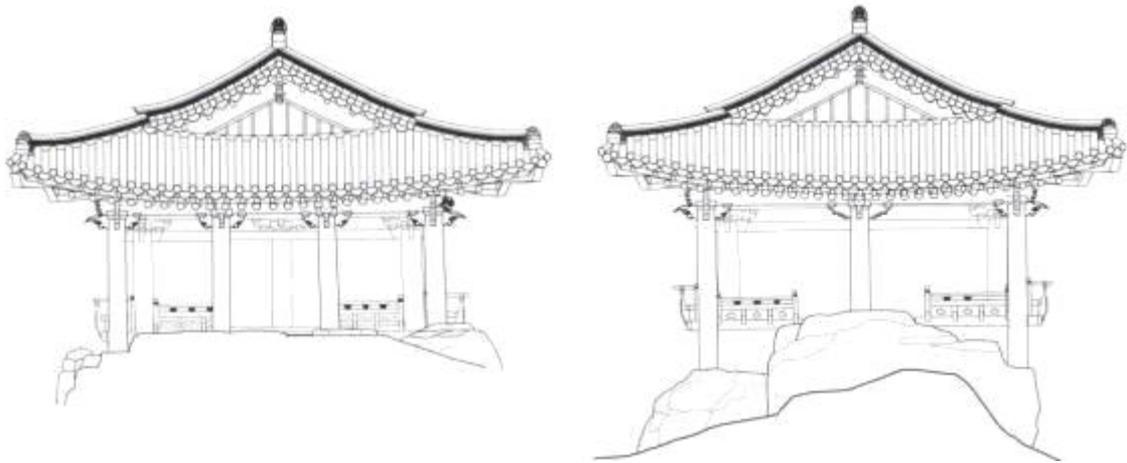


그림 7 죽서루의 남측과 북측 입면 (『신청자료』에서 전재)

더욱 흥미로운 것은, 북측에서 두 번째 칸에만 천장을 가설하고 우물반자를 짜 넣었다는 점이다. 팔작지붕의 합각부를 가리기 위한 눈썹천장은 마지막 칸에 따로 있다. 이것은 이 공간이 죽서루 내에서 가장 위계가 높은 공간 즉, 상석이라는 점을 말해준다. 남측 단부에 있는 땅바닥으로 된 첫 번째 칸이 주 출입구로 사용된다면, 이곳은 출입하면서 대청을 건너 그 맞은편으로 바로 바라보이는 정면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칸 뒤로 있는 마지막 칸, 즉 1788년으로 추정되는 시기에 증축된 칸은 상석의 기능을 보좌하는 배면의 부속 공간 겸 주인의 출입 공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전술하였다시피, 천장이 있는 칸의 북측에는 죽서루에서 유일하게 내주가 사용되었다. 이 내주의 사용에 대해서는, 옛 그림에서 그 존재가 엿보이는 방이 이 부분에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도 가능하다. 이러한 추정은 천장에 우물반자를 사용한 점 외에도, 보방향으로 상인방이 있는 점에서도 보장된다. 이 상인방은 벽체나 문을 설치하는데 사용되었을 것이다.

정리하자면, 이 건물은 원래 정면 5칸, 측면 2칸이었던 구조를, 남측은 한 칸 증축하면서 가운데 기둥을 없애는 대신, 단부를 3칸으로 구획하여 중심성을 갖는 주 출입구로 삼았고, 그보다 후에 북측은 기존 기둥을 그대로 둔 채로 한 칸을 덧대어, 상석을 보완하고 부속하는 공간으로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축의 과정에 대해선 아직 확인해야 할 것들이 남아있다. 먼저, 원래의 건물이었다고 생각되는 가운데 5칸 부분은 양단부에 비하여 보방향의 전체 치수가 작다. 구체적으로, 가운데 5칸의 경우 보방향 칸치수가 2,790mm씩 2칸 해서 5,580mm이고, 양측 단부의 증축된 부분은 보방향의 칸치수가 전체 6,540mm여서 960mm의 차이가 난다. 그래서 주심열이 일치하지 않고, 창방도, 주심도리도 한 줄로

쪽 이어서 놓을 수가 없다. 앞서 언급했듯이, 창방은 가운데 5칸의 기둥 사이에만 있고, 양단부의 주심도리는 가운데 5칸의 출목도리와 같은 선에 놓인다. 양 단부의 주심도리 장여가 그대로 연장되어 가운데 5칸의 외출목 첨차가 되는 이상한 결구법이 만들어졌다. (그림 8. 참조) 남북측이 후대에 증축되었다는 『신청자료』의 내용을 따른다면, 남측 단부를 증축할 때, 측면을 3칸으로 구성하기 위하여, 기존 건물의 외출목선에 맞추어 주칸을 조금 키운 것이라는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남측 단부만 증축되어 측면을 3칸으로 만들고, 북측면은 아직 원 건물의 작은 치수를 유지하고 있을 때 지붕은 과연 어떻게 처리하였을까? 즉, 북측 단부는 아직 증축하지 않은 채로, 측면 2칸으로 마감하고 있는 상황이었을 텐데, 이때는 원래의 지붕 형식으로 추정되는 맞배지붕이었을지, 아니면 이때 이미 현황과 같이 팔작지붕으로 고쳤을지, 혹은 한쪽은 맞배로 다른 한쪽은 팔작지붕으로 하였을지 단정하기 어렵다. 물론, 측면 2칸의 경우에도 안동 병산서원 만대루(보칸 치수 3,700mm) 처럼 작은 치수로도 팔작지붕을 올린 경우도 있으므로, 이 때 남측면을 3칸으로 만들면서 지붕을 팔작지붕에 맞추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림 8 좌우 측 마지막 칸의 기둥 구성 (2023.03.24. 촬영)

또 하나 어색한 점은, 도리칸으로도 주칸이 일정하지 않다는 점이다. 편의상 남측(향좌측)으로부터 제1칸, 제2칸, 제3칸,... 으로 순서를 매겨서 표기하면, 도리칸의 치수는 제1칸(증축한 칸)이 2,550mm, 제2칸이 2,500mm, 제3칸과 제4칸, 제5칸은 모두 2,780mm이고, 제6칸(원 건물의 마지막 칸)은 2,010mm, 그리고 후대에 증축한 마지막 칸인 제7칸

이 3,000mm 이다.<sup>3)</sup> 일반적인 구성이라고 생각한다면 원 건물의 도리칸 치수는 가운데 놓인 세 칸(제 3, 4, 5칸)을 9자에 맞추어 2,780mm으로 하고, 그 양쪽 단부(제 2, 6칸)를 조금 치수를 줄여 8자에 맞춘 2,500mm으로 할 것 같은데, 제6칸의 치수가 너무 작고, 대신 제7칸의 치수가 커졌다.

그런데, 제1칸과 제2칸을 합한 치수가 5,050mm, 제6칸과 제7칸을 합한 치수가 5,010mm로 거의 같다는 점에 착안하면, 북측을 증축하면서, 원래 있던 마지막 칸의 치수를 조금 줄이는 대신 증축한 부분의 치수를 조금 더 키워서 좌우의 균형을 맞춘 것은 아닐까하는 추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러한 북측 마지막 두 칸의 치수 조정이 혹시 팔작지붕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하는 추정도 가능하다. 즉, 제7칸의 전후 두 칸을 최대한 정방형에 맞추어 짜서 추녀를 받기 쉽게 하기 위한 조정이었다고 보는 것이다.

도리칸의 칸 치수에서 서로 차이가 나는 사실을 가지고 지붕의 형태 변화를 추정하는 것은 무리한 일이므로, 이 정도에서 그친다. 그렇지만, 죽서루의 팔작지붕을 받치는 축부의 구성이 좀 어색한 것 또한 사실이다.



그림 9 좌우측 마지막 칸의 상부 가구 구성 (2023.03.24. 촬영)

남측에서는 측면에 두 개의 기둥이 있으므로 두 개의 층량이 사용되었지만, 이 두 개의 층량은 제2칸의 대들보 측면에 꽂혀 있고, 그 위의 왕지로 짜인 외기도리를 받치는 역할은 하지 않는다. 이는 층량이 하나밖에 없는 북측에서도 마찬가지로여서 층량은 외기도리와 무관하게 축부의 강성을 유지하는 역할만 한다.(그림 9. 참조)

대신 중도리와 왕지로 짜인 외기도리는 대들보 위에 놓인 두 개의 동자주가 온전히 받

3) 이 수치는 『신청자료』에 있는 양시도 치수를 읽은 것이다. 한편, 같은 자료의 다른 곳(김종기 토론문)에서는, 각 치수를, 2,464mm, 2,464mm, 2,772mm, 2,772mm, 2,772mm, 2,002mm, 2,926mm 로 적고 있다. 조금 차이는 있으나 그 다음 논의를 진행하는 데는 이 수치를 사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뿐더러, 김종기 교수도 비슷한 내용을 질문하고 있다.

치고 있다. 이 동자주는 보방향으로 소침차와 대침차를 두고 그 위에서 보를 받쳤고, 도리 방향으로는 소, 중, 대의 3중으로 침차를 받쳐서 중도리 장여를 받치고 있는 포 모양의 동자주이다. 이때 도리 방향의 3출목에 사용된 대침차가 충분히 커서 그 상단부의 소로가 바로 왕지를 받치고 있다. 그러므로 죽서루 팔작지붕의 합각부의 주된 하중은 결국 중량의 도움 없이, 대들보가 거의 온전히 지탱하고 있는 셈이다.

기둥 배열과 관련하여 또 한 가지 특별한 점은, 제7칸에서 누상주와는 별도로 2개의 누하주가 추가로 더 있다는 사실이다. 제1칸에서는 마루를 깔지 않았으므로 아예 누하주가 없다. 제7칸에 사용된 두 개의 누하주는 가운데 5칸의 누하주와 나란하여 같은 보방향의 쪽을 가지고, 다만 도리 방향으로만 측면에서 조금 안쪽으로 들어선 자리에 있다. 이러한 누하주의 배치가 그 자리에 있는 자연 암반의 울퉁불퉁한 굴곡 때문에 우연히 생긴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자연 암반의 울퉁불퉁함이 비단 이 두 개의 기둥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형의 문제로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상면에서는 이 누하주에 맞추어서 우물마루의 장귀틀과 동귀틀이 짜인다. 즉, 우물마루의 하중을 이 누하주가 받치고 있다. 그리고 그 바깥으로 북측면 기둥이 있는 자리까지는 좀 더 간단히 장마루를 깔고 계자각 난간으로 막았다. 이것은 가운데 5칸 부분에서 앞뒷면의 기둥 바깥을 처리한 것과 같은 수법이다. 즉, 기둥 바깥의 현함(軒檻)과 같이 여긴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북측면의 누하주 역시 증축과 관련된 것은 아닐까 의심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북쪽 칸의 증축이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친 중수 과정에서 여러 시도들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의심할 수 있다.

이처럼 증축한 양측면부는 구조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가운데 5칸 부분과 다르고, 또 서로 차이를 갖는다. 이것이 여러 시기에 걸친 증축의 결과인지 아니면 의도된 세심한 고려의 결과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지만, 일부러라기에는 지나치게 복잡한 가구 구법을 가지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여러 시기에 걸친 증축의 결과라는 점은 분명해 보이고, 다만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결과는 매우 정밀하게 계획된 공간 사용 의도를 반영한 종합적인 결과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죽서루가 여러 시기에 걸쳐 증축으로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기둥머리에 사용된 공포의 형식에서도 볼 수 있다. 세부적으로 나누자면, 죽서루에는 주심포식과 익공식이라고 하는 두 종류의 공포가 사용되었으며, 세부적으로 보자면 이들 각각 위치와 초각 등에서 차이를 갖는 세부 유형으로 다시 나눌 수 있다.

먼저 주심포식 공포는, 주두 아래에서 초제공이 있고, 주두 위에 이제공이 있는 2출목 공포라고 할 수 있으나,<sup>4)</sup> 도리방향으로는 일출목에는 침차를 두지 않고, 2출목 소로 위

에 행공첨차를 두었을 뿐이다. 즉, 바깥쪽의 공포 구성으로만 보면 예산 수덕사 대웅전, 강릉 임영관 대문, 영암 도갑사 해탈문과 같은 헛첨차 계열의 주심포식 공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죽서루에선 내부에도 똑같이 2개의 제공첨차가 사용되며, 다만 내부로는 첨차를 사용하지 않고, 초제공 첨차의 단부를 이중 교두형으로 가공한 점 등에서 바깥쪽과 차이를 갖는다.

주심 첨차의 크기를 외2출목에 있는 행공첨차와 같은 규격의 것을 사용하였고, 길이가 길기 때문에 창방 위에서 따로 소로를 두어서 주심첨차 양 팔의 아랫부분을 받치고 있다. 주심 대첨차는 통첨차를 사용하였다. 초제공과 이제공 사이에 공간을 뚫어놓은 것과 그 사이를 매꾼 것이 섞여 있다. 이들 제공과 첨차는 모두 창방과 같은 수장 쪽으로 가공한 것도 특징이다. 2제공 위에서는 삼분두 형식으로 가공한 보뿔목을 받치고 있는데, 폭을 줄이지 않고 대들보의 폭으로 그대로 내밀었고, 외 출목 도리 장여 하단에 맞추어 순각판을 달았다.

다른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희귀한 공포 형식이며, 전체적으로 조선 전기의 주심포 및 다포계 공포에서 보이는 여러 특징이 뒤섞여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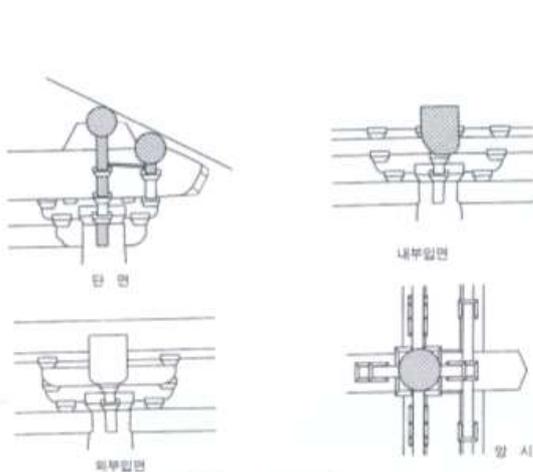


그림 10 동측면의 포작 (『신청자료』에서 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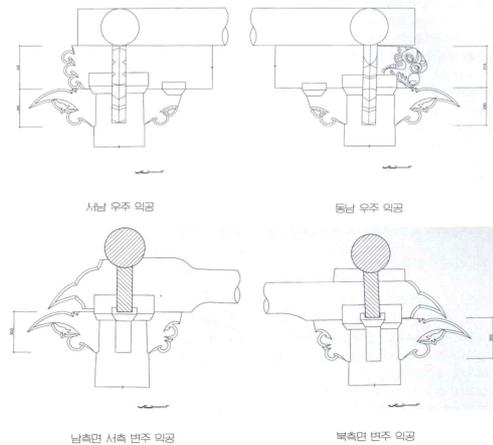


그림 11 남동측과 남서측 우주(위)와 남측과 북측의 변주(아래)의 익공 (『신청자료』에서 전재)

좌우측의 증축된 부분에서 사용된 익공식 공포는 초가지가 위쪽에서 아래로 둥글게 내려가는 수서형의 짧은 초가지 아래에 연봉을 가지고 있는 소박한 것으로 가공하고, 그 위에 놓이는 부재의 초각은 변주 익공과 우주 익공에서 서로 다르게 하였다. 일반적인 변주 위에서는 익공 위에 보(충량)이 없었는데, 그 끝을 마치 익공의 초가지 모양으로 초각하였고, 모퉁이에 있는 우주 위에서는 좌우 도리의 장여가 익공 위에 없었는데, 그

4) 주두 아래에 있는 초제공의 소로가 주두 위에 있는 2제공의 소로만큼 튀어나가지 못하고, 따로 첨차를 가지지 못하니, 1출목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서 길이가 다른 제공 2개가 사용되었고, 주심에서 튀어나간 소로의 위치도 2곳으로 나뉘어 있는 것에 주목하여, 2출목이라고 한다.

끝을 3개의 고리 모양으로 초각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남서측 우주 위에서만, 장여 끝에 황룡과 청룡의 조각을 달았다는 점이다. 아마도 이 기둥이 주 출입 동선에 접해있기 때문에 특별히 의장적 고려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12 경주향교 대성전과 동무의 공포 (2020.09.08. 촬영)

이렇게 짧고 아래로 흰 초가지를 가진 익공은 경주 향교의 동서무(1604년 중건)에 사용된 것과 비슷한데, 세부 형태는 다르다. 또 죽서루의 가운데 부분에 사용된 주심포식 공포는 경주향교 대성전(1602년 중건)의 것과 제공의 초가지는 다르지만, 짜임은 유사하다. 아무튼 익공 역시 현 단계에서는 그 제작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다. 대개 16세기가 되면 초기적인 익공 양식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구성 자체가 단순하고 또 다른 유례가 없는 독특한 초각을 하고 있어서이다.

대들보와 종보는 모두 모를 죽인 장방형 단면의 부재를 사용하였고, 대들보 위에 소침차와 대침차, 그리고 뜯장여가 서로 직교하는 포 모양의 동자주를 놓고 종보와 중도리 장여를 받치고 있다. 양 측면 단부에서는 도리방향의 침와 장여 뺄목을 이용하여 외기도리의 왕지를 받치고 있다는 것은 언급하였다. 종보 위에서는 가운데가 볼록한 화반형의 판대공을 놓고 중도리 장여를 받치고 있다.

### <종합의견>

삼척 죽서루는 조선시대 삼척도호부부 객사 진주관에 딸린 관영 누정이다. 주소지는 강원도 삼척시 죽서루길 44(성내동 9-3번지)이다. 죽서루가 자리한 곳은 객사와 관아 등이 모여있는 삼척의 중심부로, 죽서루는 이들 가운데 가장 서쪽 오십천변의 절벽가 자연 암반 위에 서있다.

정면 7칸 측면 2칸의 팔작 다락집으로서, 가운데 5칸을 먼저 짓고 그 후 양 끝으로 한 칸씩 더 늘려 지은 것으로 생각되며, 이 때문에 가운데 5칸과 양단부의 두 칸은 기둥의 배열, 상부 가구의 짜임, 천장과 바닥면의 처리, 공포 및 세부 의장 등에서 차이를 갖는

다.

원래의 5칸 건물은 조선 개국초인 1403년(태종 3)의 일이라고 하지만, 그 이전 고려시대에도 이미 이 장소에는 ‘서루’라고 통칭되는 누정이 있었던 것을 시문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남측의 한 칸이 증설된 것은 1530년(중종 25)의 일로 추정되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의 중수를 거쳤지만, 조선 중기 양란의 위험을 잘 넘겼으며, 1788년(정조 12)에 가서 북측으로도 한 칸이 증축되어 현재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남측의 증축된 칸은 측면 3칸의 구성을 가지며, 바닥은 자연의 암반을 살린 채로 가운데 칸 앞에만 다듬은 돌을 깔아 출입에 이용토록 하였고, 북측의 증축된 칸은 원 건물과 같이 두 칸으로 처리하였다.

죽서루의 건축적 가치는, 자연 암반의 원 지형을 그대로 살리고 그 위에 큰 루를 놓은 친자연적인 수법이 한국적 특색을 잘 드러내고, 1403년과 1530년, 그리고 1788년이라고 하는 세 시기에 걸친 건축적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건축사적 자료를 제공하며, 특히 임진왜란 이전의 건축적 기법을 부분적으로 살필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자료이고, 객사 및 관아터와 함께 조선시대 지방 읍성 내의 관영건축군의 구성을 보여주고, 관동지역의 누정 가운데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사례이면서 또 가장 큰 규모라고 하는 점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관영 누정이자 지역 명소로서 죽서루의 가치는 좁은 범위에서의 건축물의 가치에 가둘 수 없고, 죽서루가 자리한 주변 장소가 갖는 가치, 그리고 이 장소에서 벌어진 인문적 활동의 가치로 넓혀가야 할 것이다. 오십천변의 절벽이 만들어내는 산과 바다, 그리고 강이 합하여 이룬 아름다운 경치는 그 자체로 이미 명승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숙종과 정조 두 명의 임금의 임금을 비롯하여 송강 정처, 미수 허목, 단원 김홍도와 겸재 정선 등을 비롯하여 당대 최고 수준의 명사들이 두루 이곳의 경관을 대상으로 시와 그림과 기문을 남기고 있을 뿐 아니라, 주변의 바위들에도 많은 각자를 남기고 있다.

이상의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삼척 죽서루는 국보로 승격지정되는데 적합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생각된다. 다만, 죽서루의 가치를 유지하는데 특별하게 중요한 주변 경관의 유지에 보다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를 위하여, 국보로 지정된 건축물의 25동의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관리번호	명칭	지정일자	건축 시기	유형
1	서울 송례문	1962.12.20	1448년 중수	도성 문
13	강진 무위사 극락전		1476년	불교 전각
14	영천 거조사 영산전		1375년	불교 전각
15	안동 봉정사 극락전		14세기 중수	불교 전각
18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1376년 중건	불교 전각
19	영주 부석사 조사당		1377년	불교 전각
49	예산 수덕사 대웅전		1308년	불교 전각
50	영암 도갑사 해탈문		1473년	불교 문
51	강릉 임영관 삼문		14세기	관영 문
52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		1622년 중수	불교 전각
55	보은 법주사 팔상전		1626년 중창	불교 전각
56	순천 송광사 국사전		1501년	불교 전각
62	김제 금산사 미륵전		1635년	불교 전각
67	구례 화엄사 각황전		1702년	불교 전각
223	경복궁 근정전	1985.01.08	1867년 중건	궁궐 전각
224	경복궁 경회루		1867년 중건	궁궐 루각
225	창덕궁 인정전		1804년 중건	궁궐 전각
226	창경궁 명정전		1616년 중건	궁궐 전각
227	종묘 정전		1608년 중건	불교 전각
290	양산 통도사 대웅전 및 금강계단	1997.01.01	1645년 중건	불교 전각
304	여수 진남관	2001.04.17	1718년 중창	관영 루각
305	통영 세병관	2002.10.14	1605년	관영 루각
311	안동 봉정사 대웅전	2009.06.30	1435년 중창	불교 전각
316	완주 화암사 극락전	2011.11.28	1605년 중건	불교 전각
328	예천 용문사 대장전과 윤장대	2019.12.02	1655년 중수	불교 전각

※ 대상 문화재의 핵심 보존가치

죽서루 건물의 전체 구성과 축부 구성 및 상부 가구 및 지붕틀 전체  
공포의 세부  
죽서루가 서 있는 자연 암반과 주변의 지형  
죽서루에서 보이는 오십천과 주변의 경관

##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23.03.24.	대상문화재	삼척 죽서루	
조사자	성 명	○○○	전공 분야	건축
	소 속	○○○○○○○학교	직위(직책)	부교수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국보)		
	문화재 명칭	삼척 죽서루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세부내용 별첨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9월 1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 1.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삼척 죽서루(三陟 竹西樓)는 강원도 삼척시 성내동 죽서루길 37에 있는 누각으로 태백산에서 발원한 오십천(五十川)이 동북쪽으로 흘러 동해안으로 빠져나가는 하류 지점의 동쪽 절벽 위에 위치하고 있다. 1530년에 간행된 지리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의 삼척도호부(三陟都護府) 누정(樓亭)조에 이르길, “죽서루는 객관 서쪽에 있는데, 절벽이 천 길이고 기암이 층층 섰다. 그 위에 날아갈 듯한 누각을 지어 죽서루라 했다고 한다. 아래로 오십천에 임했는데, 냇물이 흘러 모여 깊은 못을 이루었다. 물이 맑아 바닥까지 환하고, 햇빛이 아래로 비친다. 헤엄치는 물고기도 날날이 헤아릴 수 있으니, 영동의 절경이다. (竹西樓, 在客館西. 絕壁千仞, 奇巖叢列. 其上架飛樓, 曰竹西. 下臨五十川, 川匯爲潭. 水清徹底, 日光下透. 游魚歷歷可數, 爲嶺東絕景.)”라고 하여, 죽서루와 오십천의 경관적 장점을 기록했다.

삼척 죽서루는 삼척도호부 관아 건물 중 홀로 남아 있었으나, 주변 유적의 발굴 결과 객사인 진주관과 그 주변 시설들이 확인되어 관영 건축의 일부로서 제 위치를 찾아가고 있다. 삼척 죽서루 일대의 발굴조사 결과, 신라시대 수혈 주거지, 고려시대 건물지 및 토성, 조선시대 관아 건물지와 석성 등이 확인되어, 이곳이 매우 오래 전부터 삼척 지역의 주요한 터전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에 947년(정종 2)에는 삼척에 성을 쌓았다는 기록이 있으며,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1454)에 이것이 토성이라는 기록이 있다. 그런데 『신증동국여지승람』(1530)에는 삼척 읍성이 삼면이 석성이고 둘레가 2,054척, 높이가 4척이며, 서편 성벽 431척은 절벽을 이용했다고 하여, 16세기 초에 다시 석성을 축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죽서루는 석성을 쌓지 않은 서쪽 절벽의 천혜의 요새 위에 자리 잡았다. 삼척도호부의 객사는 원래 죽서루 아래에 있었는데 1518년(중종 13)에 부사 남순종(南順宗)이 북쪽으로 옮겨 짓고 진주관(眞珠館)이라 했다. 진주관은 정청이 정면 3칸, 측면 2칸이고, 동·서 익헌은 정면 5칸, 측면 2칸이었던 것을 나중에 정면 3칸으로 축소하였다. 또한, 내삼문과 동서 익랑, 외삼문과 담장을 갖추고 있었고, 주위에 응벽헌과 죽서루 등 부속 시설이 있었다.

삼척 죽서루는 관동팔경(關東八景)의 하나로 예전부터 널리 알려졌다. 관동팔경은 통천(通川)의 총석정(叢石亭), 고성(高城)의 삼일포(三日浦),杆성(杆城)의 청간정(淸澗亭), 양양(襄陽)의 낙산사(洛山寺), 강릉(江陵)의 경포대(鏡浦臺), 삼척(三陟)의 죽서루(竹西樓), 울진(蔚珍) 망양정(望洋亭), 평해(平海)의 월송정(越松亭)을 가리키며, 때로 흙곡(歙谷)의 시중대(侍中臺)와 고성(高城)의 해산정(海山亭) 두 곳을 포함하여 관동십경(關東十景)으로 묶기도 한다. 관동팔경은 중국의 소상팔경(瀟湘八景)에서 유래하는데, 소상팔경은 중

국 호남성 장사현 영릉군(湖南省 長沙縣 零陵郡) 부근에서 소강과 상강이 만나는 지점의 여덟 경치로서, 팔경이 처음으로 그림과 시로 만들어진 사례이다. 팔경(八景) 개념은 고려 시대에 유입되었다. 고려 명종(明宗, 재위 1170~1197)이 문신들에게 소상팔경을 주제로 시를 읊게 하고, 이녕(李寧)의 아들인 이광필(李光弼)에게 소상팔경도를 그리게 했다는 『고려사(高麗史)』의 기록에서 확인된다. 김극기(金克己, 1150?~1204?)의 「강릉팔경시(江陵八景詩)」를 필두로 고려 말 신홍사대부 계층에 의해 자신의 고향이나 부임지, 유배지 등을 배경으로 하는 한국의 팔경시가 창작되었다. 이러한 팔경시들은 조선 초기에 서거정(徐居正, 1420~1488)에 의해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 수록되었으며, 서거정 자신도 27편의 팔경시 중 12편을 지은 작가이다.

「삼척서루팔영(三陟西樓八詠)」은 죽서루를 단일한 대상으로 삼아 여덟 경치를 읊은 시로서, 팔경을 시로 읊은 초기의 작품 중 하나이다. 근재 안축(謹齋 安軸, 1282~1348), 가정 이곡(稼亭 李穀, 1298~1351), 제정 이달충(霽亭 李達衷, 1309년~1385)이 반복적으로 「삼척서루팔영」을 지었으며, 조선시대에 서거정도 차운하여 팔영시를 남겼다. 삼척 죽서루의 팔경은 죽장고사(竹藏古寺), 암공청담(巖控淸潭), 의산촌사(依山村舍), 와수목교(臥水木橋), 우배목동(牛背牧童), 농두업부(壟頭媿婦), 임류수어(臨流數魚), 격장호승(隔牆呼僧)이다. 이후 이름난 문인이나 관료들이 죽서루에 들러 기행을 남기는 전통이 생겼다. 근재 안축의 『관동와주(關東瓦注)』에는 경기체가 형식의 「관동별곡(關東別曲)」이 수록되었고, 1553년 치재 홍인우(耻齋 洪仁祐, 1515~1554)가 일기체 형식의 「관동일록(關東日錄)」을 남겼으며, 1580년(선조 13)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한 송강 정철(松江 鄭澈, 1536~1593)은 가사문학의 대표작인 「관동별곡(關東別曲)」을 지은 것으로 유명하다.

18세기에 금강산과 관동팔경이 가장 인기 있는 유람지로 자리 잡으면서 더욱 많은 기행이 창작되었다. 양양 낙산사가 사찰로서 유교와 불교의 문화를 소통했던 교류 공간이었다면, 삼척 죽서루는 관아에 딸린 누각으로 사대부들의 문학 창작의 장소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정조는 단원 김홍도(檀園 金弘道, 1745~1806)에게 금강산과 관동팔경을 비롯한 영동지방 절경을 그려오도록 했다. 1788년에 그린 『금강사군첩(金剛四郡帖)』에서 삼척 죽서루는 어명에 따라 사실적이고 자세하게 묘사되었다. 함께 금강산을 유람했던 표암 강세황(豹菴 姜世晃, 1713~1791)은 『풍악장유첩(楓嶽壯遊帖)』에서 삼척 죽서루를 전형적인 문인화의 기법으로 표현했다. 정조는 김홍도의 그림을 보고 감흥을 얻어 칠언절구로 시를 지었다. 정조의 시에는 자신이 직접 죽서루에 가서 오십천 응벽담에서 뱃놀이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 있다. 이 밖에도 남종문인화풍이 강하게 드러나는 연객 허필(烟客 許佖, 1709~1761)과 관호 엄치욱(觀湖 嚴致郁, 19세기)의 죽서루 그림이 유명하다.

## 2. 연혁 · 유래 및 특징

### (1) 삼척 죽서루의 건축 연혁

현 삼척 죽서루 건축에 관한 기록으로 가장 오래된 것은 식우 김수온(拭疣 金守溫, 1410-1481)이 지은 「죽서루단청기(竹西樓丹青記)」(1472)이다. 이에 따르면 당시 죽서루는 영락(永樂) 계미(癸未)년인 1403년에 부사 김효손(金孝孫, 1373~1429)이 ‘옛터에 새로 창건(因舊址而創之)’하였다고 한다. 김효손은 1402년부터 1404년까지 척주 부사를 지냈으며, 이때 죽서루를 창건하는 등 삼척 지역 발전에 이바지했다. 이후 부사 조관(趙貫)이 1425년에 단청을 했고, 남포 양찬(蘭浦 梁瓚, 1443~1496)이 1471년에 단청을 새로 고쳤다. 죽서루 남쪽의 연근당(燕謹堂)은 원래 계해(癸亥, 1443)년에 부사 민소생(閔紹生, 1441~1444 삼척부사 재임)이 지은 것인데, 양찬이 여력이 있어서 단청을 함께 새로 했다고 한다.

다음으로 죽서루의 연혁을 알 수 있는 기록은 미수 허목(眉叟 許穆, 1595~1682)이 쓴 「죽서루기(竹西樓記)」(1662)이다. 허목은 1660년부터 1662년까지 삼척부사로 재임하였다. 「죽서루기」에 나타난 이전 연혁은 김수온의 「죽서루단청기」의 내용과 동일하고, 이후의 상황을 부가했다. 1530년 부사 허확(許確)이 남쪽 처마를 증축[增作南檐]한 일, 1591년 부사 정유청(鄭惟淸)이 다시 중수한 일 등이다. 허목은 이후 약 70년이 지난 1662년에 죽서루를 수리하였다고 한다. 「죽서루기」의 내용은 같은 해 허목이 편찬한 『척주지(陟州誌)』에도 수록되었다. 삼척시에서 발행한 『삼척죽서루정밀실측조사보고서』(1999)의 ‘죽서루 관리약사’에는 정유청의 중수 이후 1600년 부사 김권(金權)의 동변 2칸(東邊二間) 개수, 1619년 부사 이여검(李汝儉)의 중수, 1629년 부사 유시회(柳時會)의 중창이 추가되어 있다.

『척주지』는 1848년에 김종언(金宗彦)이 한 번 더 발행하였다. 기존 척주지의 내용을 본(本)으로 표기하고 이후 추가된 내용을 부(附)로 표기해 기록했다. 이에 따르면, 1726년 부사 최문도(崔道文)가 중창(重創)했고, 이후 부사 조재연(趙載淵)이 개조(改造)했으며, 1788년 부사 서탁수(徐琢修)가 뒤쪽 처마를 증축[增作後檐]했고, 1789년 부사 김성규(金聖規)가 서울의 화공 이대근(李大根)을 초청하여 단청을 했다고 한다. 이후 1870년 부사 서증보(徐曾輔)가 중수하였고, 1898년 군수 이구영(李龜榮)의 중수 및 단청, 1947년 중수, 1962년 단청, 1978년 보수 및 조경공사, 1982년 개수 및 번와 공사가 있었던 것이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중수는 대체로 새로 부임한 삼척 부사의 주도 아래 지역 유림들의 협력으로 추진되었다. 누각 전면에 걸린 ‘죽서루(竹西樓)’와 ‘관동제일루(關東第一樓)’ 현판은

1711년에 부사 이성조가 제액했고, 누 안의 ‘제일계정(第一 溪亭)’은 1662년에 쓴 부사 허목의 글씨이며, ‘해선유허지소(海仙遊戲之所)’는 1837년에 부사 이규현이 개칭한 것이다.

## (2) 삼척 죽서루의 건축적 특징

삼척 죽서루의 기둥은 절반 이상이 자연 암반 위에 올라서 있다. 22개의 기둥 중 자연 암반 위에 세워진 기둥이 13개이고, 9개는 자연석 초석을 두고 받쳤다. 자연 암반은 크고 작은 여러 개의 바위로 구성되어 있어서 큰 암반에는 서너 개의 기둥이 세워지고 작은 것에는 한두 개의 기둥을 세웠다. 22개 기둥 중 누하주는 모두 13개인데, 동측에 7개, 서측에 5개, 북측에 1개이다. 나머지 9개 기둥은 높은 암반 위에서 상층을 직접 받치는 기둥으로 일부는 하층의 기둥 열과 일치하지 않고 어긋나 있다. 상층에는 총 20개의 기둥이 세워져 있으며, 이중 양쪽 측면의 기둥들은 누상이 아니라 자연 암반 위에 직접 세운 것이다. 하층 기둥 직경은 직경 1.6척 정도를 사용하였고 미세한 흘림이 있다. 상층 기둥은 하층보다 조금 가는 1.4척 정도를 사용하였고 입구가 되는 남측면에는 이보다 조금 더 줄여 직경 1.2척 가량의 기둥을 사용했다.

삼척 죽서루의 평면은 남북 방향의 중앙 3칸을 정칸(正間)과 차칸(次間)으로 구성하고, 양옆으로 협칸(挾間)을 각 2칸씩 더한 형태로 총 7칸이 된다. 용척은 약 308mm로 추정된다. 이중 정칸과 차칸은 9척으로 구성하고, 남협칸은 각 8척으로 구성했다. 그러나 북협칸을 6.5척과 9.5척으로 구성한 점이 특별하다. 즉, 남협칸과 북협칸의 전체 너비는 16척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건물의 전체 형태는 정칸을 중심으로 대칭을 이루지만, 북쪽 칸살이 부분적으로 비대칭이 되었다. 북협칸의 규모를 조절한 이유에 대해서는 후대에 실을 드리면서 공간을 조정하였거나 팔작지붕을 증축하면서 개조된 것으로 추정할 수도 있으나, 자연 암반 위에 기둥을 두기 위한 방책일 가능성도 있다. 북협칸의 치수를 8척으로 맞추게 되면 두 암반의 사이에 기둥이 위치하게 되므로 기둥을 직접 세우거나 초석을 두기에 곤란한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상층 마루는 길이 18척의 장귀틀을 전후면 기둥에 걸치고, 장귀틀에 동귀틀을 건 후 청판을 깔았다. 기둥 밖으로는 마루를 3척 정도 내밀고 계자난간을 설치하였다. 출입이 이루어지는 측면에는 계자난간 대신 평난간을 설치했다. 남쪽 협칸은 평평한 암반이 누마루의 높이와 비슷하기 때문에 별도로 마루를 깔지 않았고, 북쪽 협칸에는 귀틀을 받치기 위해 별도의 누하주를 추가했다.

상부 가구는 전후면의 평주 사이 18척의 경간을 대량으로 가로지르고, 이를 삼등분한 위치에 중대공을 세워 종량을 올렸으며, 종량의 중심에 중대공을 세워 종도리를 받치도록

구성했다. 전체적으로 내부에 기둥을 두지 않은 무고주 오량가의 구성이지만, 북측 협칸에는 팔작지붕의 충량을 받치는 자리에 대들보 아래로 내주를 하나 설치했다. 외목도리와 주심도리의 간격은 1.5척, 주심도리와 중도리 간격은 5.5척, 그리고 중도리와 종도리 간격은 3.5척이다. 중도리를 받치는 중대공은 대들보 위에 주두를 얹고 첨차를 십자로 교차시켜 두 단을 쌓은 포대공(包臺工)으로 구성했다. 주두 위와 중도리 받침장여 아래에는 뜯장여를 2단으로 설치했는데, 뜯장여를 중첩하는 구성법은 부석사 무량수전 등 고려시대 건물에서 발견되는 특징과 유사하다. 중대공은 하부에 화반형 받침이 있는 파련대공(波蓮臺工)을 사용했다. 파련대공은 판재를 3단으로 겹쳐 구성했으며, 하부에는 복화반 형태의 받침재를 조각하고, 중간은 당초문을, 상부에는 파련 모양을 조각했다. 복화반과 당초문의 형태에 고식의 자취가 있다. 중대공에는 뜯장여를 설치하지 않았다.

대들보는 단면에서 상단이 방형이고 하단의 두 모서리를 둥글린 형태이다. 정간에 사용된 2개의 대량은 너비 1.15척, 춤 1.5척 정도이고, 협칸에 사용된 4개의 대량은 너비 0.9척, 춤 1.25척 정도이다. 보머리는 대부분 삼분두 형태로 다듬어져 고식(古式) 목구조 양식이 계승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종량은 대량 상부에 하나씩 설치되어 총 6개이다. 종량 머리는 대량 위 포대공의 이제공 위에서 중도리 받침장여와 뜯장여에 직교하여 결구되었다. 종량의 길이는 약 9척이며 단면 치수는 협칸에 사용된 대량과 유사하다. 종량 상면에는 방형의 홈이 파여 있는데, 중도리를 받치는 구름받이에도 방형의 홈을 발견할 수 있어서, 과거에 솟을합장재를 설치했던 홈으로 추정하고 있다. 남측과 북측 측면에는 기둥과 대량 사이에 충량을 걸었다. 충량 위에 대공을 세워 외기를 받치는 통상적인 수법에 비해, 삼척 죽서루의 충량 위에는 어떤 부재도 결구되지 않았다. 외기도리를 받치는 것은 대량 상부의 포대공이다. 그러므로 죽서루의 충량은 상부의 하중을 받치는 역할이 없으며 단순하게 수평력에 대응한다. 이러한 구성은 삼척 죽서루가 5칸 맞배지붕 건물에서 좌우의 협칸을 증축해서 7칸 팔작지붕 건물로 변모한 증거 중 하나로 제시된다.

증축의 흔적은 좌우 협칸의 도리와 장여의 구성에서 잘 드러난다. 삼척 죽서루는 중앙 5칸과 좌우 협칸의 구성이 매우 이질적이다. 중앙 5칸의 측면에는 도리와 장여가 맞배집에서의 빼도리 형태로 드러나 있다. 도리를 뺀 길이는 약 3척 정도로, 맞배지붕의 구성이 자체로 완결되어 있다. 기둥 머리의 창방은 너비 0.35척, 춤 0.7척 정도로서 단면비는 1:2인데, 창방 역시 중앙 5칸의 측면에서 뺄목으로 처리되었다. 창방 뺄목은 단부를 교두형으로 다듬고 상면에 소로를 얹어 주심첨차의 외단을 받치게 했으며, 그 위로 장여와 도리의 뺄목이 올라선다. 또한 기둥의 배열도 중앙 5칸의 기둥보다 양쪽 끝 칸의 기둥이 외출목 거리만큼 밖으로 빠져나와 있어서 기둥 열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증축된 부분에는 창방을 설치하지 않았고, 외목도리의 받침장여가 창방의 역할을 대신한다. 무엇보다도 중앙

5칸과 증축된 협칸은 공포 형식이 서로 다르다.

삼척 죽서루의 공포는 주심포와 익공 두 가지 양식이 함께 사용된 것이 특징이다. 동측과 서측의 긴 처마 아래에는 주심포 양식의 공포가 적용되었고, 북측과 남측의 측면에는 익공 양식이 적용되었다. 중앙 5칸에 사용된 주심포는 임진왜란 이전의 양식적 특징이 다분하다. 먼저 첨차는 도리방향의 주심첨차와 출목첨차, 보방향의 헛첨차과 대첨차 네 종류가 사용되었는데, 단부 처리 방식이 모두 교두형으로 동일하게 처리된 점이 특징이다. 특히 보방향 첨차가 교두형으로 처리되고, 내단부에서 일체화된 보아지 형태가 나타나지 않은 점이 고식 목구조에 가깝다. 또한, 장여 폭으로 만든 창방과 직교하여 헛첨차를 사용한 점 역시 고려말 조선초 주심포 형식의 특징과 상통한다. 헛첨차의 길이가 짧아 헛첨차가 받치는 소로의 위치가 외출목까지 이르지 못하고 주심과 출목 사이에 놓인 것도 16세기 이후 건축에서는 발견하기 힘든 모습이다. 이 밖에도 주심첨차 위로 뜯장여를 보내고 다시 간격을 띄워 주심도리 받침장여를 설치한 점, 뜯장여 위에 설치된 소로의 위치가 주심첨차 양측 단부의 소로 위치보다 약간 더 바깥쪽에 자리잡아 장여까지 공포의 일부로 보이도록 한 점 등도 고식의 특징을 이룬다. 보머리를 삼분두 형식으로 하고 뺄목 부분의 폭을 줄이지 않은 것도 15세기 이전 건축의 특징이다. 그러나 동측과 서측의 주심포는 세부적인 양식에서 차이가 있다. 서측의 주심포에서는 헛첨차가 기둥높이에 맞추어 정리된 후 그 위에 소로를 두고 대첨차를 얹었다. 반면, 동측의 주심에서는 기둥머리에 끼워진 헛첨차가 주두를 감싸고 올라와 상부의 대첨차와 직접 접하며, 소로는 헛첨차의 옆면을 따내고 끼웠다. 그러므로 동측의 주심포는 익공계 공포의 특징이 가미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전면과 후면 두 주심포의 조성 시기가 서로 다를 가능성이 있다. 익공은 초익공 형식으로 구성했다. 기둥머리에 창방 없이 도리방향 첨차와 보방향 익공을 직교해서 끼웠다. 익공은 춤이 높고 길이가 짧으며 위로 치솟아 강직하며 방아다리 사이에 연봉이 조각된 모습이다. 그 위에 주두를 놓고 장여와 충량을 설치했다. 쇠서는 수서 형태이고, 익공 부재의 뒷몸은 충량을 받치는 보아지가 된다. 충량의 보머리는 하부 쇠서와 비슷한 형태로 다듬어 마치 이익공 짜임처럼 보이게 했다. 꿇기둥은 장여 뺄목의 단부를 초각하여 장식하였다. 특히 동남쪽 꿇기둥 상부의 장여 뺄목은 청룡과 황룡으로 조각하였다.

삼척 죽서루의 처마는 겹처마이고, 처마 깊이는 출목도리 밖으로 서까래 4척과 부연 1.5척을 빼서 주심에서부터는 7척 깊이를 형성했다. 기와는 암키와, 수키와, 내림새, 막새, 망와가 사용되었으며, 용두나 잡상 등은 사용되지 않았다. 기와는 규격과 와당 문양이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 여러 번의 중수를 거친 자취를 남기고 있다. 전체적인 단청의 기본은 굿기단청으로 하였으나, 서까래와 부연에는 휘를 사용한 모로단청을 하였고, 출목도리의 순각판에는 흰 바탕에 먹선의 구름무늬로 장식하였다. 북측 협칸의 대들보 상부와 주심도

리 받침장여 사이에는 우물반자를 설치했고, 양측 외기도리 받침장여와 종량 사이에는 눈썽반자를 설치했다. 주심도리와 외목도리의 받침장여 사이에는 순각반자를 설치했다. 이외의 부분에서는 모두 서까래가 노출되는 연등천장을 적용했다. 실내에는 임금의 어제시를 비롯하여 유명한 시인과 명신들의 주옥같은 한시들이 빈틈없이 가득 차 있었는데, 1959년 9월 17일 태풍 사라의 영향으로 많이 유실되었다.

### 3. 지정 가치 및 종합의견

삼척 죽서루는 고려 중기에 창건된 이후 폐허가 되었다가 1403년에 새로 지어졌고, 1530년과 1788년에 남북 협칸을 증축하여 현재의 모습을 갖춘 관동 지역의 대표적 누각이다. 삼척 죽서루의 문화재적 가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누각을 중심으로 하는 명승의 발생을 보여준다. 12세기에 고려에 도입된 팔경(八景) 개념은 「강릉팔경시(江陵八景詩)」를 필두로 고려 말 신홍사대부 계층에 의해 자신의 고향이나 부임지, 유배지 등을 대상으로 여덟 승경을 선정하는 전통을 만들어냈다. 14세기에 안축(謹齋), 이곡(李穀), 이달충(李達衷) 등이 삼척 죽서루를 단일한 대상으로 삼아 여덟 경치를 읊은 「삼척서루팔영(三陟西樓八詠)」은 누각을 중심에 두고 절경을 읊은 초기의 사례이다. 부사 허목은 1662년 ‘제일계정(第一溪亭)’ 현판을 썼고, 부사 이성조(李聖肇)는 1711년 ‘관동제일루(關東第一樓)’ 현판을 썼다. 또한 정조는 김홍도(金弘道)를 파견하여 죽서루의 그림을 그리게 하였고, 강세황(姜世晃)은 김홍도와는 다른 필치로 죽서루를 표현한 바 있다. 이처럼 삼척 죽서루는 관동 지방 최고의 누각으로서 명성을 지켜왔다.

둘째, 임진왜란 이전의 목구조 양식을 일부 계승하고 있다. 삼척 죽서루의 정면과 배면에 사용된 공포는 조선 초기 이전 주심포 양식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삼척 죽서루의 주심포는 보방향 첨차가 교두형으로 처리된 점, 헛첨차를 사용했지만 길이가 짧아 헛첨차가 받치는 소로의 위치가 외출목까지 이르지 못한 점, 공포 위에 뜬장여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점, 보머리에 삼분두의 형태가 나타나는 점 등 15세기 이전의 주심포 양식을 계승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전후면 주심포에서 헛첨차의 접합 방식이 다소 차이가 있어서 전통적인 기법을 계승하면서 익공 등의 후기적 수법이 가미된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지속적인 중창 과정에서 공간의 확장과 기술의 누적을 반영하였다. 삼척 죽서루 건축의 기본틀은 1403년 부사 김효손이 지은 건물이다. 이후 지속적으로 중수와 단청 사업이 이루어졌다. 이중에서 주목되는 공사는 1530년에 부사 허확이 남쪽 처마를 증축[增作

南檐]한 일과, 1788년 부사 서탁수(徐琢修)가 뒤쪽 처마를 증축[増作後檐]한 일이다. 즉, 정면 5칸의 맞배 지붕이었던 삼척 죽서루는 16세기와 18세기의 증축 공사의 결과로 팔작 지붕이 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새로 증축한 부분은 주심포식이 아니라 익공식 공포를 취하였고, 남쪽과 북쪽의 칸수가 달라졌으며, 주심도리가 아니라 외목도리를 연장해서 공간을 확장하는 예외적인 공간구성을 실험했다.

삼척 죽서루는 고려시대에 관동팔경의 하나로 자리잡은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명루 중의 하나로서, 현재의 건물은 1403년에 건축된 목구조 양식을 일부 보존하고 있는 희소한 사례이고, 1530년과 1788년에 각각 남측과 북측 협칸이 증축되면서 공간구성이 복잡해지고 익공 양식이 결합된 독특한 형식을 갖추었다. 이와 같은 문화재적 가치가 현저하므로, 삼척 죽서루를 국보로 승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23.03.24	대상문화재	삼척 죽서루	
조사자	성 명	○○○	전공 분야	한국건축사
	소 속	○○○○대학교	직위(직책)	교수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국보)		
	문화재 명칭	삼척 죽서루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검토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세부내용 별첨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3 년 8 월 26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 1.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 환경

삼척 죽서루는 강원도 삼척시 성내동 9-3번지에 있는 조선시대 중층 누각이다. 삼척 죽서루는 관동팔경 중 하나로 바닷가가 아닌 오십천변 기암괴석 단애 위에 건립되어 ‘관동제일루’라는 별칭처럼 첫 번째 경치로 주목을 받아왔다.

삼척시청에서 대학로로 우회전하여 성내동복지센터를 지나 성당길 우회전 711m 이동하여 우회전하면 위치하고 있다. 삼척 죽서루 주변은 죽서루라는 역사문화공간을 중심으로 시청, 은행, 우체국, 삼척문화원 등 공공기관과 삼척중앙시장 및 소규모 상점들이 밀집되어 있어 삼척의 사회,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 지역 커뮤니티의 거점공간을 이루고 있다. 죽서루는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로 지정(1963년 보물 제213호 지정)되어 일대가 문화재보호지역으로, 죽서루 주변에는 죽서루가 자리한 암반과 단애에 면해 태극 형태로 감아 돌아 바다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경관의 오십천(삼척죽서루와 오십천, 명승 제28호, 2007.12.07. 지정), 북서쪽에 삼척도호부 관아유적에 대한 유적 발굴조사와 고증을 통하여 복원된 삼척도호부관아지(사적, 2021.12.20. 지정) 그리고 죽서루 맞은편에 동헌지 등이 자리하고 있어 문화경관이 조성되고 있다. 죽서루는 울퉁불퉁한 자연암반 위에 조성되고 죽서루 동쪽 옛 연근당 자리 가까이에는 바위문(龍門, 행초서)이 있고 바위 상부에는 성혈 유적이 있다. 이렇게 죽서루 오른쪽에 연근당과 왼쪽에 응벽헌이 배치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삼척 죽서루 주변은 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삼척 관아의 중심치소로 자리하여 신라시대 수혈주거지, 고려시대 건물지 및 토성, 조선시대 관아건물지와 읍성(석성) 등도 확인할 수 있다. 오십천 건너편에는 가람영화관, 삼척시립박물관, 삼척예술문화회관, 삼척청소년수련관 등 문화시설이 자리하여 역사적 가치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자연경관과 더불어 삼척 죽서루는 고려시대 중기에 창건되고 1403년 정면 5칸 측면 2칸의 규모로 재건되어 증축 및 변화를 겪으면서 현재까지 본 모습을 지키고 있다.

삼척의 모산인 두타산(1,357m)이 동북쪽으로 돌아 뻗어내린 맥이 갈야산(葛夜山, 178.4m)까지 이르러 남동향하여 흐르는 자락에 죽서루가 위치하고 있다. 산자락이 흐르는 경치 좋은 절벽 위에 세우기 위하여 자연암반을 기초로 하고 있다. 죽서루에서 보이는 경관은 태백준령이 병풍처럼 펼쳐지고 가까이는 남산(南山, 73.1m), 근산(近山, 505m), 봉황산(鳳凰山, 149m)이 솟아 있어 누각을 에워싼 형국으로 삼신산(三神山)의 선경을 느끼게 하는 경지라고 한다. 오십천은 백병산 발원지에서 동해바다까지 오십굽이나 굽이쳐 흐른다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죽서루 하부에 깎아지른 절벽에서 태극형상으로 돌아나간다. 죽서루 아래에서 물이 머물도록 응벽담(凝碧潭)이라는 깊은 소를 만들어 놓았다. 이중환이 『택리지』에 어떤 사람을 빌어 읍의 터가 공망혈<sup>1)</sup>에 위치하므

1) 풍수(風水)가 묘터 또는 집터를 정할 때 쓰는 용어로 혈은 터라는 뜻이다. 공망혈에다 터를 잡으면 글자의 뜻 그대로 사람과

로 인재가 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소가 깊어 안보이는 구멍이 있는 것과 연결하는 듯하다. 벼랑 위에서 맑은 응벽담을 내려다보면 고기떼가 노는 모습은 죽서루의 색다른 풍경이다. 관동팔경이 대부분 바다 풍경을 끼고 있지만 죽서루만은 오십천 풍경으로 봄가을로 백구(白鷗)가 노니는 모습은 풍경을 한층 더하게 된다. 죽서루의 맞은편에서 오십천과 죽서루 및 절벽의 경관이 어우러진 곳에 자리 잡고 있어 산과 물이 서로 아름다운 경관을 자아내고 있다.

죽서루 주변에는 고려시대에 죽장사, 조선시대에는 진주관, 응벽헌, 연근당, 서별당 등의 건물을 지어 경관을 즐기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죽서루 북쪽의 진주관은 조선시대 삼척도호부 객사로 1908년 삼척군청으로 이용하다가 1934년 헐어 없애고, 응벽헌은 응벽담 위쪽 진주관의 서헌인데 1518년 부사 남순종이 창건하여 1908년 헐어 없앴다. 서별당은 연근당 밑에 있었으며 1586년 부사 강세윤이 창건했다가 없어졌던 것을 1661년 부사 허목이 다시 지어 독서당으로 사용했다. 연근당은 죽서루 남쪽에 있는데 세종 임술에 부사 민소생이 창건하였으나, 죽서루의 별관으로 대소객의 안식처로 사용되었으며 근년까지 있다가 지금은 집터만 남아 있다. 죽서루 오른쪽에는 송강 정철이 관동별곡에서 죽서루를 찬양하여 “송강 정철 가사의 터 표석”라는 시비<sup>2)</sup>가 서 있다.

문화재현황을 보면, 삼척 죽서루(보물, 1963.01.21.지정,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성내동 9-3), 삼척도호부 관아지(사적, 2021.12.20.지정,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죽서루길 37외), 삼척 죽서루와 오십천(명승, 2007.12.07.지정,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죽서루길 61)의 국가지정문화재가 있다. 주변에는 응벽헌(객사 서헌 복원), 용문바위와 성혈유적, 송강 정철 가사의 터 표석 등이 있고, 동헌지, 관아(서별당), 연근당(죽서루 별관), 남문지<sup>3)</sup>, 동문루지(鎭東樓), 신라시대 수혈주거지, 고려시대 건물지 및 토성, 조선시대 읍성(석성) 등의 터가 있다. 그밖에 주변에는 죽장사지, 실직군왕릉(悉直郡王陵, 강원도기념물, 1971.12.16.지정,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성북동 43), 사금산 금표(四金山 禁標, 도기념물,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원덕읍 이천리 1591) 등이 있다. 고려시대에는 토성 바깥쪽에 죽서루가 위치하나 조선시대 들어서 석성으로 바뀌면서 남문과 동문 내에 위치하고 오십천을 해자로 그 위에 죽서루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주축에 객사와 아사, 군창 등이 있었음이 확인된다.<sup>4)</sup>

재물이 저절로 없어지고 아무 일도 되지 않는다 한다.

2) 1991년 2월을 송강 정철의 달로 정하고 우리나라 가사문학에 업적을 남긴 정철을 기념하는 표석을 2개소 중에 하나이다. 팔각형의 장대 표석과 8각형의 기단으로 이루어져 8각의 면마다 대표작과 진필, 수결, 세움말, 가사 창작의 배경을 담아 송강의 생애와 문학에 관해 소개하고 있다.

3) 주차장 부지

4) 18세기에 편찬된 광여도(廣輿圖)에는 남문과 동문만 표시되어 있으며 중앙에 객사가 있고 그 서쪽으로 죽서루와 아사가 그려져 있다. 편찬연대가 미상인 여지도(輿地圖)에서는 남문과 동문이 있고 중앙에 객사가 있으며 남쪽으로 아사, 북쪽으로 창고가 있다. 조선후기 편찬된 지승(地乘)에서는 남문과 동문이 있고 중앙에 객사 동문 아래 죽서루와 아사가 있고 객사 북쪽으로 군창이 있다. 광여도와 일치한다. 18세기 편찬된 해동지도에서는 남문과 동문이 있고 동문 아래에 죽서루와 아사가 있고 중앙에 객사 그 위쪽에 군창이 그려져 있다. 1872년 지방지도에서는 남문만 그려져 있다. 그리고 중앙에 읍기(邑基)라고 하여 중

중요 건축물은 삼척도호부 관아건물지(三陟都護府官衙建物址)를 중심으로 하며 삼척도호부 내에는 왕권을 상징하는 객사(客舍), 중앙에서 파견된 수령(守令)의 집무처인 동헌(東軒)과 수령의 생활공간인 내아(內衙), 지방민을 대표하여 수령을 보좌하는 향청(鄉廳), 창고(倉庫)와 감옥인 옥사(獄舍), 기타 지방 통치에 필요한 여러 부속 건물<sup>5)</sup>이 있었다. 일제 강점기에 삼척 죽서루를 제외하고 삼척읍성(三陟邑城)과 함께 대부분 파괴되고 훼손되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조사를 통해 복원이 이루어졌다. 발굴조사를 통한 배치를 보면, 갈야산 자락을 배산하여 남동향하여 객사 건물인 정면 3칸, 측면 2칸의 진주관(眞珠館 : 陟州館) 정청(政廳, 殿廳)과 정면 5칸, 측면 2칸의 동서익헌(東·西翼軒, 翼舍)을 중심으로 남서쪽에 직교하여 진주관의 서헌(西軒)으로 추정되는 정면 3칸, 측면 2칸의 응벽헌(凝碧軒), 그리고 진주관 정청 앞으로 박석(薄石)이 깔린 안마당을 두고 정면 3칸, 측면 1칸의 내삼문(內三門)과 좌우익랑(左右翼廊)을 배치하고, 서익랑에는 3칸의 북익랑을 날개채로 부가하고 있다. 그 앞으로 외삼문과 석축 담장을 설치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죽서루의 남쪽 길 건너편에는 동헌 및 내아, 안마당에 박석, 보도, 석축 담장, 집수시설 등이 있다. 조선 전기에서 후기까지 지속해서 증·개축이 이루어지고 있다. 동헌은 수령이 직무를 보던 중심 건물인 칠분당(七分堂)을 배산하여 설치하고 박석이 깔린 안마당으로 중심으로 뜰 口자 형태의 평면을 하고 있다. 남쪽에는 정면 5칸 및 측면 1칸의 규모 내삼문과 남행각이 있고, 오른쪽과 왼쪽에 아전(衙前)이 직무를 보던 작청(作廳)으로 추정되는 정면 3칸, 측면 1칸 규모의 동행각과 서행각을 배치하고 있다. 이러한 배치는 조선시대 관아유적(官衙遺蹟) 동헌 및 그 아청 배치와 유사하다.

동헌과 인접해 동쪽에 위치한 수령이 거주하는 내아는 정면 5, 측면 2칸 규모로 중앙에 대청을 두고 동쪽에 안방을 배치하고 서쪽에 부엌과 그에 딸린 작은 방을 배치하고 있다. 현재 죽서루 담장 남동쪽으로 관아의 부속 건물로 추정되는 건물지 5동이 확인되는데 기단 석축과 계단을 갖는 정면 8칸, 측면 1칸 규모의 건물이 죽서루의 별관인 연근당(燕謹堂)으로 추정된다. 많은 그림을 통해서도 확인되며 ‘연근당기’에 죽서루와 3보 거리에 온돌과 마루를 갖춘 손님을 위한 접객건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삼척도호부 문화경관 내에 죽서루 주변에는 동쪽 옛 연근당 자리 가까이에는 바위문(龍門)과 성혈 유적 등과 동쪽으로 접근하는 진입로 그리고 죽서루 동쪽에 인접해서 객사에서 연결되는 계단형 진입시설 등이 있다.

이상과 같이 조선시대 삼척도호부 관아와 관련한 객사, 동헌, 내아, 연근당 등의 공간

층누각이 그려져 있는데 표기상으로 ‘邑基’라고 하였으므로 관아를 일괄하여 표현한 것으로 추정된다. 오십천 절벽에 면해서 는 죽서루가 그려져 있다.

5) 『세종실록지리지』(1454년), 『신증동국여지승람』(1530년), 허목(許穆)의 『척주지』(1662년), 『여지도서』(1757년), 『관동지』(1829~1831년), 김종언(金宗彦)의 『척주지』(1848년), 『강원도지』(1940년), 최만희(崔晩熙)의 『진주지』(1963년) 등 여러 문헌과 읍지도(邑地圖) 참조

배치 구조를 확인할 수 있으며 지방 관아의 변천과 역사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유적이자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치를 통해서 보면 죽서루도 조선시대 삼척도호부의 객사였던 진주관(眞珠館)의 부속건물이자 관아시설로 활용되었던 누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공루(公樓)로서 공공의 성격을 갖는 시설로 지방에 파견된 중앙관리들의 숙소에 딸린 접대와 향연을 위한 연회 장소와 지방의 양반 사대부와 시인 묵객들의 정신수양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활용되었을 것이다.

삼척 죽서루 주변에는 유랑처로 각광받으면서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나 선비들이 방문하여 주변 바위벽에 방문자의 이름이나 관직 그리고 장소의 성격 등을 새긴 암각자가 바위(21건), 절벽(191건) 등 212건이 남아있어 죽서루와 주변 경관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sup>6)</sup> 琴石, 射壇, 觀德之所, 石壇濃陰, 舞雩臺, 老松亭, 龍門(또는 巖門), 凝碧軒, 凝壁潭 등은 주변 경관에 대하여 장소의 선택과 장소에서의 활동 그리고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한 장소적인 성격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조경사적으로도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武夷九曲과 비교할 수 있는 第一壁으로 錦繡壁, 眞珠壁, 魯山松竹 등으로 비유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장소적인 성격을 심상으로 풀어내어 시로 읊은 朴灘의 시 등이 있다.

삼척 죽서루와 관련된 인물은 시에 죽서루를 언급하여 창건연대가 1209년 이전으로 비정되는 김극기(金克己, 1148~1209), 1266년(원종 7) 문집 ‘동안거사집(動安居士集)’에 ‘안집사(安集使) 진자후(陣子厚)와 함께 서루(西樓, 죽서루)에 올라 시를 지었다.’는 기록과 기녀 죽죽선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 죽서루를 세웠다는 전설과 연관된 이승휴(李承休, 1224~1300), 본관은 의성(義城)이며, 삼척부사로 부임한 1403년(태종 3) 폐허인 죽서루를 재건한 김효손(金孝孫, 1373~1429), 1530년(중종 25) 삼척부사로 있으며 죽서루의 남쪽 처마를 덧대어 지은 허확(許確, 1466~1537), 1788년(정조 12년) 삼척부사로 있으며 죽서루의 북쪽 처마를 덧대어 지은 서탁수(徐琢修), 1662년 삼척부사로 있으면서 ‘죽서루기(竹西樓記)’와 ‘서별당기(西別堂記)’를 짓고, 「죽서서루기(竹西樓記)」에는 죽서루의 연혁과 왜 관동제일루인지 그 이유를 설명한 허목(許穆, 1595~1682), 죽서루 아래에는 방수제(防水提)를 쌓고 빙월루(氷月樓), 원풍루(願豐樓), 해선유희지소(海仙遊戲之所) 등 3개의 현관을 쓴 이규헌(李圭憲), 1580년(선조 13) 강원도 관찰사로 있으면서 지은 「관동별곡(關東別曲)」에 죽서루와 오십천의 절경을 노래한 정철(鄭澈, 1536~1593) 등이 있다.

이러한 주변의 뛰어난仙境(仙境)을 바라보는 누각(樓閣)으로 삼척 죽서루(竹西樓)는 시인 묵객들이 방문하여 시를 읊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를 남기고 있다. 삼척 죽서루는 관동팔경의 하나로, 가장 먼저 허목의 「죽서루기(竹西樓記)」에 동해안의 절경으로 통천의 충석정, 고성의 삼일포와 해산정, 간성의 영랑호, 양양의 낙산사, 강릉의 경

6) 가톨릭관동대학교박물관, 『삼척 죽서루와 오십천 주변 암각자 학술조사 보고서』, 2015.

포대, 삼척의 죽서루, 평해의 월송정을 들고 있다. 숙종(肅宗)은 1군(郡) 1경(景)을 기준으로 관동팔경을 시로 읊고 있다. 관동지방은 북쪽의 흡곡부터 남쪽의 평해까지 9개 군으로 되어 있어 군마다 선정할 경우 9경이 되므로 가장 북쪽과 남쪽 중 하나를 제외시키면서 관동팔경을 구성하고 있다. 죽서루를 으뜸으로 치는 것은 바닷가에 자리하고 있는 관동팔경 중 유일하게 강을 끼고 있어 오십천의 깊은 소에 그림자 드리우는 높은 암벽 위에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또한 다양한 경관을 즐기는 포인트가 있어 죽서루 아래 오십천에서 뱃놀이를 하면서 죽서루를 올려다보는 즐거움이나 바다도 함께 즐길 수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예부터 시인묵객이 찾아와 청유하면서 시 한편 남기지 않는 사람이 없어 시문이 많기로 이름이 있다. 고려 충렬왕 때 이승휴를 필두로 이곡, 안축, 정추, 김구용, 김극기 등과 조선시대 숙종과 정조의 어제시, 하륜, 이륙, 심언광, 율곡, 양사헌, 차운락, 송강, 허목, 신수광 등의 명인대가의 시문이 200여수 남아 있어 시문의 터라 하겠다. 특히 송강 정철이 관동별곡에서 죽서루를 크게 찬양하고 있다.<sup>7)</sup> 죽서루의 역사적인 규명과 관련된 문헌기록, 누정에서의 감상을 기록한 문학작품, 죽서루를 소재로 한 그림과 현판 등을 들 수 있다.

역사적인 규명과 관련된 문헌기록은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등 지리지와 허목(許穆)의 『척주지(陟州誌)』를 비롯한 읍지 그리고 시문 등에 나타나고 있다. 죽서루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고려 명종(1171-1197)대에 활동한 김극기(金克己)의 2편 시문(詩文)으로, “...登樓喜得片時閑...”이나 “庾樓夕月侵床下 滕閣朝雲起棟間”이라고 하여 누각에 올라 누각과 주변 경관에 대한 감흥을 읊고 있다. 이를 통해 죽서루가 최소한 고려 중기 이전에 건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역사지리서의 기록 중 가장 오래된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sup>8)</sup>에 읍성 가운데 있는 객사의 부속건물로 죽서팔경을 노래한 시가 많이 있다는 것은 김극기, 안축, 이달충, 이곡 등의 시를 말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 중기의 관찬지리서(官撰地理書)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1530)』에 죽서루의 위치, 주변 경관 요소, 날듯한 외관 그리고 정추(鄭樞), 김극기(金克己) 등 고려시대 인물과 조선 전기 안성(安省)을 비롯한 신증(新增)으로 홍귀달(洪貴達), 이육(李陸), 정수강(丁壽崗)의 시를 언급하고 있다.<sup>9)</sup> 조선 후기 영조 연간에 읍지를 모은 『여지도서(輿地圖書)』에 강원도 삼척도호부 「누정(樓亭)」조에 죽서루의 위치(관아의 서쪽, 성 안)와 위태로운 벼랑에 드높은 백척 누각으로 노래한 숙종의 어제시가 있다고 하고, 「제영(題詠)」조

7) 삼척시지, 1057쪽

8) 『세종실록』 153권, 지리지 강원도 삼척 도호부 누정조. “竹西樓。在邑城中，有八景。竹藏古寺、巖控青潭、依山村舍、臥水木橋、牛背牧童、隴頭饁婦、臨流數魚、隔牆呼僧、多前賢題詠”

9)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44권, 강원도 삼척도호부 누정조. 竹西樓。在客館西。絕壁千仞，奇巖叢列，其上架飛樓，曰竹西。下臨五十川，川匯爲潭，水清徹底，日光下透，游魚歷歷可數，爲嶺東絕景

에 김극기, 김구용(金九容), 성석인(成石因)의 시와 함께 죽서팔경을 노래한 이달충(李達衷), 안축(安軸), 이곡(李穀)의 시 그리고 신증(新增)으로 울곡 이이(李珣)와 차운로(車雲輅)의 시를 소개하고 있다.<sup>10)</sup> 1751년(영조 27)에 이중환이 쓴 지리지 『택리지(擇里志)』에는 석회암이 물에 녹아 구멍이 많이 있음을 소개하고, 오십천이 죽서루를 즐기는 사람들이 즐겨 뱃놀이를 했던 곳임을 알 수 있다. 읍지(邑誌) 중 죽서루를 기록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허목(許穆)의 『척주지(陟州誌)』는 차운로가 삼척부사에게 준 죽서루 시문을 소개하면서 죽서루의 역사와 두타산과 오십천, 남산 등 죽서루 주변의 경관을 소개하고 그곳에 객사에 소속된 응벽헌 연근당과 함께 죽서루가 있음을 기록하였다.<sup>11)</sup> 허목은 「죽서루기(竹西樓記)」를 지어서 다른 관동팔경과는 달리 강을 끼고 절벽에 자리한 죽서루가 관동팔경 가운데 가장 으뜸이라고 한다. 1848년(헌종 14)에는 김종언(金宗彦)이 쓴 삼척의 사찬(私撰) 읍지(邑誌)인 『척주지(陟州志)』에는 허목의 『척주지(陟州誌)』를 인용하면서 이후의 기록을 ‘부(附)’라고 첨가하면서 누정조를 별도로 만들어 죽서루를 소개하면서 죽서루를 소재로 한 대표적인 시문들을 수록하고 있다.

누정에서의 감상을 기록한 문학작품은 죽서루에 올라 느낀 감흥을 시문으로 남겼으며 죽서루를 노래한 시는 현재 알려진 것만 500수를 넘는데, 이승휴, 정조, 울곡 등이 대표적이다. 죽서루를 노래 시문(詩文) 중 가장 오래된 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고려 중기의 김극기(金克己)의 시이다. 고려 말기의 문인 안축(安軸)이 1330년 관동지방의 경관과 풍속을 읊은 『관동와주(關東瓦注)』에 죽서팔영(竹西八詠) 중 죽장고사(竹藏古寺)를 주제로 지은 시가 있고, 이후 죽서팔경은 이달충(李達衷), 이곡(李穀) 등 고려시대 문인들과 이원진(李元鎭), 민수천(閔壽千), 채세걸(蔡世傑), 최연(崔演) 등의 조선시대 문인들이 노래하고 있다. 고려시대 죽서루에 올라 당대의 최고의 문인들이 시로 표현하였는데 이승휴(李承休)도 안집사(安集使) 병부시랑(兵部侍郎) 진자사(陳子侯)와 함께 죽서루에 올라 판상(板上)에 있는 시의 운자(韻字)를 보고 그 운자대로 시를 지었다.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휴식의 공간인 동시에 연향(宴享)의 공간으로 대표적인 시는 숙종과 정조의 시이다. 정조의 시는 실경(實景)을 보고 싶어 김홍도에게 금강산과 관동팔경을 비롯한 영동지방 해산승경(海山勝景)을 그려오도록 하여 그림을 직접 보고 칠언 절구를 지으면서 오십천 응벽담에서 뱃놀이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 있다. 선인들이 죽서루를 노래한 시에 감동을 받아 차운을 한 울곡 이이의 시와 울곡의 시를 차운한 1728년(영조 4) 양정호(梁廷虎), 1804년(순조 4) 심공저(沈公著), 정규형(鄭奎亨) 등의 시가 있다. 죽서루를 노래한 기행문학 작품들은 고려 말기 문인 안축(安軸)이 지은 『관동와주(關東瓦注)』와 시집 안의 경기체가 「관동별곡(關東別曲)」, 조선시대 1553년(명종 8)에

10) 『輿地圖書』 上, 江原道, 三陟都護府, 樓亭條.

11) 허목, 『척주지(陟州誌)』 하(下) 매곡리(邁谷里).

홍인우(洪仁祐)가 쓴 「관동일록(關東日錄)」, 1580년(선조 13) 송강 정철의 「관동별곡(關東別曲)」 등이 있다. 18세기에는 금강산과 관동팔경에 대한 기행유람기가 유행되었다. 삼척부사를 역임한 허균(許筠)의 「죽루부(竹樓賦)」를 비롯한 수많은 명유와 문인들의 시가 있다.

죽서루를 소재로 한 그림과 현판 등의 작품은 정선(鄭敼, 1676-1759)의 『관동명승첩(關東名勝帖)』 죽서루도(간송미술관 소장), 『관동십경첩(關東十景帖)』 죽서루도(서울대 규장각 소장), 김홍도(金弘道, 1745- ? )가 44세에 그린 『金剛四郡帖』, 竹西樓(1788, 개인소장), 강세황(姜世晃)의 『풍악장유첩(楓嶽壯遊帖)』, 죽서루(국립중앙박물관 소장 1788년경, 33.0 ×48.0cm), 허필(許佖)의 『관동팔경도병(關東八景圖屏)』, 죽서루(선문대학교 박물관 소장), 엄치욱(嚴致旭)의 『가장첩(家藏帖)』, 죽서루(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등의 전통회화와 관동팔경도병 등의 민화가 있다. 그리고 죽서루에 걸려 있는 제액(題額) 현판은 누각의 동쪽에는 삼척부사를 지낸 이성조가 쓴 ‘죽서루(竹西樓)’라는 현판과 ‘관동제일루(關東第一樓)’라는 현판, 죽서루의 남쪽 측면의 ‘죽서루(竹西樓)’라는 현판, 삼척부사를 지낸 이규헌(李奎憲)의 ‘해선유희지소(海仙遊戲之所)’, ‘제일계정(第一溪亭)’ 등이 있다.

오랜 역사를 지닌 죽서루는 오십천의 굽이치는 강물과 절벽, 퇴적지역의 하얀 모래톱 그리고 고기떼 등이 어우러져 한 폭의 산수화를 이루고 있는 자리에 건립된 것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이러한 경관과의 관계에서 보면 오십천의 절벽 위에 지어진 죽서루는 관동팔경의 으뜸이라고 하여 우리나라 팔경문화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굽이치는 오십천은 곡류하천의 지형경관과 퇴적된 백사장 등이 이루는 구곡문화를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원림(園林)과 관련된 공루로서 공공적인 성격을 지닌다. 이러한 경관의 가치는 겸재 정선(鄭敼, 1676~1759), 표암 강세황(姜世晃, 1713~1791), 관호 엄치욱(嚴致郁) 등의 실경산수와 많은 시문을 통해서 죽서루를 중심으로 하는 두타산, 태백산, 봉우리, 일출 및 일몰, 달, 동해, 주변 산(갈야산, 봉황산 등), 물돌이 지형, 들판, 마을, 산기슭의 집, 오십천, 절벽 단애의 지형이나 수목(대밭, 소나무 등), 소와 여울, 백사장, 푸른 바위, 고기떼, 절, 뱃놀이, 목교, 물건 운반용 줄, 사다리, 새(갈매기, 물총새, 고니 등), 낚시, 사람(시인, 묵객, 목동, 미녀, 스님, 밥나르는 아낙), 소리(목동 피리, 나무꾼 노래, 행군하는 소리) 등을 주변 경관요소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경관 요소를 재분류하면 원경은 두타산, 태백산, 봉우리, 일출과 일몰, 달, 동해, 오십천, 물돌이 지형 등이고, 중경은 이어지는 지형, 주변 산(갈야산, 봉황산), 굽이치는 오십천, 물돌이 지형, 들판, 마을, 산기슭의 집 등이고, 근경은 오십천, 절벽 단애의 지형이나 수목, 소와 여울, 백사장, 푸른 바위, 고기떼, 절, 뱃놀이, 목교, 물건 운반용 줄, 사다리, 새, 낚시, 사람 등이다. 특징적인 요소는 굽이치는 오십천, 절벽 단애의 지형, 소와 여울, 백사장, 고기떼, 뱃놀이 등으로 죽서루에서 경관을 관리하는데 유의해야 할

것이다.

좌향은 객사의 누각으로 객사를 중심으로 좌향을 보았을 것으로 추정되고 누각은 객사의 주축에서 오십천과 경관을 고려하여 좌향을 잡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중에 삼척도호부관아의 부속건물인 죽서루를 중심으로 중요한 경관 요소인 오십천과 단애 위 암반 그리고 멀리는 태백준령과 두타산을 원경으로 크고 작은 산을 중근경의 지역성을 담는 중층 누각이라는 특징이 있다. 다만 1960년대 이후 자연곡류하천 형태가 변화되면서 퇴적층을 찾아볼 수 없으며 더 이상의 변화는 경관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죽서루에서 오십천 건너편 퇴적지형에 들어선 삼척시립미술관, 삼척세계동굴엑스포타운, 삼척청소년수련관, 삼척문화예술회관, 교량 등으로 원지형은 찾아보기 어렵지만 더 이상의 지형 훼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삼척 죽서루는 건물 자체로 보여지는 것만이 아니라 주변 조망점에서 경관을 이루는 요소들과 함께 어우러져 이루는 경관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죽서루를 조망점으로 보는 경관도 조망 요소와 더불어 잘 관리해야 할 것이다.

삼척 죽서루의 유래는 허목, 이승휴, 안축의 글을 통해 살펴보고, 죽서루라고 지칭한 시를 이구, 정추, 안성, 서거정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우선 미수(眉叟) 허목(許穆, 1595~1682)이 1660년부터 1662년까지 삼척부사를 지내며 진주관, 죽서루, 응벽헌에 편액을 올리고 쇠락한 관아건물을 수리하고 있다. 당시 「죽서루기」에 관동팔경 중 제1경으로 죽서루를 꼽고 있고, 누각 아래 죽장사라는 오래된 절이 있어 죽서루라고 이름 붙인 것은 이 때문인 것 같아 이를 기록하여 죽서루기로 삼는다고 하여 기원이라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sup>12)</sup> 허목은 『기언(記言)』에서 죽서루(竹西樓)라는 이름은 이 누각을 세울 당시 그 동쪽에 대나무 숲이 있었고, 그 속에 죽장사(竹藏寺)라는 절이 있어서 죽장사의 서편에 위치한 누각이라는 뜻으로 붙여진 것으로 추정<sup>13)</sup>하고 있다.

김종언(金宗彦)의 『척주지(陟州志)』에는 허목의 『척주지(陟州誌)』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후의 기록을 ‘부(附)’라고 달고 첨가하면서 누정조를 별도로 만들어 죽서루를 소개하고 죽서루 명칭의 유래를 죽장사설(竹藏寺說)과 더불어 기생 죽죽(竹竹)의 집이 누의 동쪽에 있어서 죽서루라고 하고 있다. 이승휴(李承休, 1224~1300)는 1266년(원종 7)간행된 문집 『동안거사집(動安居士集)』에 ‘안집사(安集使) 진자후(陣子厚)와 함께 서루(西樓, 죽서루로 추정)에 올라 시를 지었다.’고 하여 이승휴는 죽서루의 유래와 관련한 전설 속에 등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1275년에 이승휴에 의해 죽서루가 창건되었다는 것은 고려 명종연간에 활약한 김극기(金克己, 1148~1209)의 시 ‘죽서루(竹西樓)’가 확인되면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죽서루에 걸려 있는 한시 중 ‘陪安集使兵部陳侍郎(諱子侯)登眞珠府西樓次板上韻’을 이승휴가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동안거

12) 허목, 「竹西樓記」, 『記言』 卷13. … 樓下古有竹藏古寺樓有竹西之名蓋以此云仍誌之以爲竹西樓記 …

13) 허목, 記言, 卷之十三○中篇, 棟宇, 竹西樓記.

사집』에서 언급된 진자후와 죽서루에 편액된 한시에 나오는 진자사가 같은 사람이라면, 1266년에 이승휴가 지은 시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서루는 죽서루를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시의 울긋불긋한 절벽, 푸른 바위 날아가는 고니, 물고기, 들판을 둘러싼 산이 만든 둥근 경계, 누각으로 유명한 고을 등이 주변 경관을 연상하게 하고, 용마루 기둥, 붉은 난간, 절벽에 높게 얹혀진, 높은 누각 등이 죽서루를 읊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당시에 죽서루의 이름은 ‘西樓’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안축(安軸, 1282~1348)은 『관동와주(關東瓦注)』의 ‘三陟西樓八詠’과 『근재집(謹齋集)』의 ‘三陟西樓夜坐’란 시에 ‘삼척서루(三陟西樓)’라고 부르고 있다. 누각에 올라 난간 굽어보며 물소리 듣는다(登樓俯檻聽江聲)는 표현이 죽서루에서 오십천을 내려다볼 때 난간과 겹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1330년까지는 ‘서루’라고 부른 것으로 추정되며 앞에 삼척을 붙인 것은 대표적인 루라는 의미로 추정된다. 고려시대 예빈시승(禮賓寺丞)을 지낸 이구(李玖)는 심동로(沈東老, 1310~1380)에 대한 시를 읊으며 ‘삼척의 관루’로 죽서루를 처음으로 지칭하고 있다. 정추(鄭樞, 1333~1382)는 ‘次三陟竹西樓韻’과 ‘三陟竹西樓’를 지었고, 안성(安省, 1344~1421)도 ‘登竹西樓’를 지었다. 서거정(徐居正, 1420~1488)은 안축의 ‘삼척서루 팔영’에서 차운하여 ‘三陟竹西樓八詠稼亭韻’을 지었다. 이는 안축이 ‘서루’라고 하였지만 서거정은 차운하면서 ‘죽서루’라고 하여 조선시대 초기에는 죽서루라고 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죽서루는 고려시대 ‘西樓’로 불렸으나 고려말 14세기 중반부터 ‘竹西樓’라고 불렀던 것이 이후 조선시대를 지나 현재까지 죽서루라고 부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삼척 죽서루는 두타산과 태백산이 이루는 태백준령이 병풍처럼 펼쳐지고 가까이는 남산, 근산, 봉황산 등이 누각을 에워싼 형국으로 삼신산(三神山)의 선경을 느끼게 하는 경지이다. 그리고 오십천은 오십굽이나 굽이쳐 흐르다 죽서루 하부에 깎아지른 절벽에서 태극형상으로 돌아나간다. 벼랑 위에서 맑은 응벽담의 고기떼가 노는 모습은 죽서루의 색다른 풍경이다. 오십천과 죽서루 및 절벽의 경관이 어우러진 곳에 자리잡아 아름다운 경관을 자아내고 있다.

삼척 죽서루(보물)를 포함하는 삼척도호부 관아지(사적), 삼척 죽서루와 오십천(명승)의 국가지정문화재가 있고, 주변에는 응벽헌, 용문바위와 성혈유적, 송강 정철 가사의 터표석 등이 있고, 동현지, 관아(서별당), 연근당(죽서루 별관), 남문지, 진동루(동문루)지, 신라시대 수혈주거지, 고려시대 건물지 및 토성, 조선대 읍성(석성) 등의 터가 있다. 그리고 주변 바위벽에 琴石, 射壇, 觀德之所, 龍門(또는 巖門) 등의 암각자가 바위(21건), 절벽(191건) 등 212건이 남아있어 죽서루와 주변 경관에 대하여 장소의 선택과 활용 그리고 장소적인 성격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삼척 죽서루와 관련된 인물은 시에 죽서루를 언급하여 창건연대가 1209년 이전으로 비정되는 김극기, 1266년 문집 ‘동안거사집(動安居士集)’에 서루(西樓)에 올라 시를 지었다’는 기록과 기녀 죽죽선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 죽서루를 세웠다는 전설과 연관된 이

승휴, 1403년 폐허인 죽서루를 재건한 김효손, 1530년 죽서루의 남쪽 처마를 덧대어 지은 허확, 1788년 죽서루의 북쪽 처마를 덧대어 지은 서탁수, 1662년 '죽서루기(竹西樓記)'와 '서별당기(西別堂記)'를 짓고, 죽서루의 연혁과 왜 관동제일루인지 그 이유를 설명한 허목, 죽서루 아래에는 방수제(防水提)를 쌓고 빙월루(氷月樓), 원풍루(願豐樓), 해선유희지소(海仙遊戲之所) 등 3개의 현판을 쓴 이규현, 1580년 「관동별곡(關東別曲)」에 죽서루와 오십천의 절경을 노래한 정철 등이 있다.

삼척 죽서루는 조선시대 삼척도호부 발굴 및 복원을 통해 객사였던 진주관(眞珠館)의 부속건물이자 관아시설로 활용되었던 누각임을 확인할 수 있다. 공공시설로 지방에 파견된 중앙관리들의 숙소에 딸린 접대와 향연을 위한 장소와 지방의 양반 사대부와 시인 묵객들의 정신수양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활용되었을 것이다.

예부터 시인묵객이 찾아와 청유하면서 시 한편 남기지 않는 사람이 없어 시문이 많기로 이름이 있다. 죽서루의 역사적인 규명과 관련된 문헌기록, 누정에서의 감상을 기록한 문학작품, 죽서루를 소재로 한 그림과 현판 등을 들 수 있다.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등 지리지와 허목(許穆)의 『척주지(陟州誌)』를 비롯한 읍지 그리고 시문 등은 역사적인 규명과 관련된 문헌기록이 있다. 죽서루에 올라 느낀 감흥을 시문으로 남겼는데 죽서루를 노래한 시는 이승휴, 정조, 율곡 등을 비롯하여 현재 알려진 것만 500수를 넘을 정도로 죽서루에서의 감상을 기록한 문학작품이 있다. 그리고 정선의 『관동명승첩(關東名勝帖)』, 『관동십경첩(關東十景帖)』, 김홍도의 『金剛四郡帖』, 강세황(姜世晁)의 『풍악장유첩(楓嶽壯遊帖)』, 허필(許泌)의 『관동팔경도병(關東八景圖屏)』, 엄치욱(嚴致旭)의 『가장첩(家藏帖)』 등의 전통회화와 관동팔경도병 등의 민화 그리고 이성조의 '竹西樓'와 '關東第一樓', 이규현의 '海仙遊戲之所', '第一溪亭'등의 죽서루에 걸려 있는 현판 등 죽서루를 소재로 한 그림과 현판 등의 작품이 있다.

허목(許穆, 1595~1682)의 「죽서루기」에 죽서루를 관동팔경 중 제1경으로 꼽으면서 누각 아래 죽장사라는 오래된 절이 있어 죽서루라고 한 것이나 『기언(記言)』에서 죽서루를 세울 당시 동쪽에 대나무 숲이 있었고 그 속에 죽장사(竹穢寺)라는 절이 있어서 죽장사의 서편에 위치한 누각이라는 뜻으로 붙여진 것이 기원으로 추정된다. 김종언(金宗彦)의 『척주지(陟州志)』에는 죽서루의 유래를 죽장사설(竹穢寺說)과 더불어 기생 죽죽(竹竹)의 집이 누의 동쪽에 있어서 죽서루라고 하고 있다. 이 전설에 등장하는 이승휴가 1275년에 죽서루가 창건되었다는 것은 고려 명종연간에 활약한 김극기(金克己, 1148~1209)의 시 '죽서루(竹西樓)'가 확인되면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죽서루에 걸려 있는 한시 중 '陪安集使兵部陳侍郎(諱子侯)登眞珠府西樓次板上韻'은 1266년에 이승휴가 지은 시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당시 죽서루의 이름은 '西樓'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안축(安軸, 1282~1348)은 '삼척서루(三陟西樓)'라고 부르고 있고, 이구(李

玖)는 ‘삼척의 관루’로 죽서루를 처음으로 지칭하고 있다. 이후 정추(鄭樞, 1333~1382), 안성(安省, 1344~1421), 서거정(徐居正, 1420~1488) 등이 죽서루를 언급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삼척 죽서루는 고려시대 ‘西樓’로 불렸으나 고려말 14세기 중반부터 ‘竹西樓’라고 불렀던 것이 이후 조선시대 초기에는 죽서루라고 명명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삼척 죽서루는 삼척도호부관아지에서 사용하던 중층 누각으로 오십천과 단애 위 암반 그리고 멀리는 태백준령과 두타산을 원경으로 크고 작은 산을 중근경을 활용한 지역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그리고 죽서루의 역사적인 규명과 관련된 문헌기록, 누정에서의 감상을 기록한 문학작품, 죽서루를 소재로 한 그림과 현판 등이 남아 있어 김극기의 시를 통해 최소한 고려 중기 이전에 건립되었고 당시에는 ‘西樓’로 불렸으나 고려말 14세기 중반부터 ‘竹西樓’라고 불렀던 것이 이후 조선시대를 지나 현재까지 죽서루라고 부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삼척 죽서루는 삼척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죽서팔경 그리고 관동팔경 가운데 가장 으뜸인 관동제일루로서 지형적인 특성을 이루는 오십천과 바다가 만나는 절벽 위에 지어진 중층누정이다. 사적인 삼척도호부 관아지, 명승인 삼척 죽서루와 오십천, 주변 용문바위와 성혈유적, 동헌지, 관아, 연근당, 진동루지 등의 터와 주변 암각자 등이 죽서루를 중심으로 연관되고 있고 장소적인 성격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이고 인문학적인 문화를 보존하기 위하여 보호구역 범위에 이를 포함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 2. 연혁·유래 및 특징

삼척 죽서루와 관련된 역사 관련 기록을 통해 연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장에서 살펴본 연혁에서 건축과 관련된 연혁을 부가하여 다루고자 한다.

삼척 죽서루는 고려 명종 때 김극기의 시를 통해 창건연대가 고려 중기 이전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내용은 『신증동국여지승람』, 안축의 근재집<sup>14)</sup>, 이곡의 가정집<sup>15)</sup>, 이달충의 제정집<sup>16)</sup>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기록이나 언급이 없어서 초창 당시의 규모나 형태는 알기 어려우나 죽장사터 혹은 죽장이라는 옛 절터 서쪽 고려 중기에 창건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수온(金守溫, 1410-1481)의 『식우집(拭疣集)』에는 1403년(永樂 癸未)에 부사 김효손(金孝孫, 1373-1429)이 ‘옛 터에 새로 지었다(因舊址而創之)’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는 허목(許穆, 1595-1682)의 시문집인 『기언(記

14) 謹齋集, 卷二, 補遺○歌辭, “五十川, 竹西樓, 西村八景”(한국문집총간, 한국고전번역원)

15) 稼亭先生文集卷之二十, 詞, 眞州新妓名詞, “客路春風醉不歸。笙歌緩緩夜遲遲。竹西樓迥月參差。行樂雅宜無事地。尋芳却恨未開時。他年誰折狀元枝”(한국문집총간, 한국고전번역원)

16) 霽亭集 卷一, 三陟八景, “右竹藏古寺○今爲燕謹堂、竹西樓, 卽竹藏廢址也”(한국문집총간, 한국고전번역원)

言』에서도 “…고을의 고사를 살펴보아도 누가 언제 지었는지 알 수 없으나, 명나라 영락원년(1403)에 부사 김효손이 폐허에 이 누각(죽서루)을 세웠다”고 한다. 따라서 고려 중기 이전에 창건되었으나 점차 소실되어 터만 남았던 것을 1403년에 김효손이 그 터에 새로 지은 것으로 확인된다. 기록으로는 초창 당시의 규모나 형식을 알기 어렵듯 중창 이후에도 알기어렵지만 다른 견해<sup>17)</sup>에도 불구하고 5칸의 형식이나 기둥 배열 등을 볼 때 죽서루는 정면 5칸, 측면 2칸의 규모로 맞배지붕의 누정으로 중창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1425년(洪熙 元年, 세종 7, 을사)에 부사 조관(趙貫)이 단청을 하였고, 1471년(성종 2, 成化 7, 신묘)에 부사 양찬(梁瓚)이 중수하였다. 그리고 1530년(嘉靖 9, 중종 25, 경인)에 부사 허확(許確)이 남쪽 처마를 증축(增作南檐)<sup>18)</sup>하여 정면 6칸, 측면 3칸(북측면 2칸)의 남쪽 팔작지붕이고 북쪽은 그대로 맞배지붕이었을 것이다. 남쪽이 팔작지붕으로 증축하면서 남쪽으로 출입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1788년 부사 서탁수(徐琢修)가 누각 뒤의 처마를 더 내어 증축(增作後檐)하여 북쪽으로 출입이 이루어졌고 남쪽과 구분되었을 것이다. 이로서 정면 7칸, 측면 3칸(북측면 2칸)의 팔작지붕이 되었다고 추정된다.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213호로 지정된 후 현대의 크고 작은 보수를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1662년 허목의 척주지와 죽서루기, 1788년 김종언의 척주지에 서탁수가 쓴 중수기가 전하고, 1921년 이학규의 중수기, 1947년 홍백련의 중수기, 1971년 홍종범의 중건상량문, 1991년 김광용의 중수기 등이 편액으로 남아 있다. 이를 통해 조선시대 삼척 죽서루의 중창기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19)</sup>

구분	시기	내용	비고
조성기	고려 중기 이전	김극기의 시를 통해 창건시기 추정	김극기 시
	1403년(태종 3년)	부사 김효손 새로 지음(정면 5칸 측면 2칸 맞배 중창)	허목척주지
	1425년(세종 7년)	부사 조관 단청	허목죽서루기
	1471년(성종 2년)	부사 양찬 중수, 단청	
증작남침	1530년(중종 25년)	부사 허확 남쪽 처마 증축(增作南檐, 6칸 맞배+팔작 추정)	
	1591년(선조 24년)	부사 정유청(鄭惟淸) 중수	
	1600년(선조 33년)	부사 김권(金權) 동편 2칸(東邊 二間) 개수	
	1619년(광해 11년)	부사 이여검(李汝儉) 중수	
	1629년(인조 7년)	부사 유시회(柳時會) 중창	
	1662년(현종 3년)	부사 허목 중수	
	1696년(숙종 22년)	부사 이국방(李國芳) 태을선(太乙船)을 중수	
	1711년(숙종 37년)	부사 이성조(李聖肇) 중수 후 서액(竹西樓, 關東第一樓)	
	1715년(숙종 41년)	부사 정호(鄭濤) 죽서루 주변에 대나무 수전그루 식재	
	1726년(영조 2년)	부사 최도문(崔道文) 중창(重期) 이후 부사 조재연(趙載淵) 개조(改造)	김종언척주지
	1744년(영조 20년)	부사 최상정(崔尙鼎) 단청	
1757년(영조 33년)	부사 오수채(吳遂采) 태을연엽주(太乙蓮葉舟) 조성		

17) 이희봉, 죽서루 : 한국건축의 모든 것, 한국학술정보, 2013, 244쪽. 원래부터 7칸으로 지어졌으며 증축설을 부정하고 있다.

18) 허목, 『척주지』와 죽서루기에도 같은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19) 삼척시, 삼척 죽서루 정밀실측조사보고서, 1999. 35-36쪽. 김종언 척주지의 서탁수 중수기, 죽서루 편액 중수기 4편 참조.

증작후첩	1788년(정조 12년)	부사 서탁수 북쪽 처마 증축(增作後檐, 7칸 팔작)	繼修
	1789년(정조 13년)	부사 김성규(金聖規) 단청(京畫工 李大根)	
	1830년(순조 30년)	부사 이광도(李廣度) 기와를 새로 이음(蓋瓦)	
	1837년(현종 3년)	부사 이규헌(李奎憲) 서액(海仙遊戯之所) 제액 게첩	
	1870년(고종 7년)	부사 서증보(徐曾輔) 중수	
	1898년(광무 2년)	군수 이구영(李龜榮) 중수, 단청	
	1947년	중수	
	1960년	변와(飜瓦)	
	1962년	단청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213호로 지정	보물 지정
보수기록	1964년 11월	누각 아래 죽서루 표석비 건립	
	1970년	죽서루 앞 출렁다리 설치	
	1978년	누각 보수 및 조경공사	
	1979년	단청 및 정화사업(안내판 및 화장실 1동 신축)	
	1981년	담장공사 외 17건	
	1982년 12월	최규하 대통령의 지시로 죽서루 개수 및 변와, 담장과 평삼문	경내 확장
	1984년 6월	담장 확장공사(68.9m)	
	1987년 8월	누각 변와, 담장, 화장실, 평삼문 보수	
	1987년 12월	누각 전체 방충방연제 도포	
	1988년 3월	죽서루 안내표지판 설치	
	1988년 8월	안내판(A형) 보수	
	1990년 5월	벼랑 보호철책 196m 조성	
	1991년 4월~12월	화장실 보수, 배수로 조성, 송강 정철 가사터비 건립	
	1992년 10월	매표소 보수, 죽서루 앞 출렁다리 철거, 담장 보수,	
	1993년	가로등 교체 및 누전 보수, 평삼문 위에 죽서루(일중 김충현) 제액 게첩	주차장 부지 231평 매입
	1995년 8월~11월	죽서루 보수공사(기와 해체보수)	
	1997년 7월~8월	안내판 보수, 조명등 설치	
	1998년 8월~10월	죽서루 보수공사 - 화장실 보수, 담장 이축	
	1998년 ~ 1999년	죽서루 정밀실측조사	
	2005년	죽서루 산자 이상 해체 보수	
	2010년	죽서루 주변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 죽서루 주변 유적 시굴조사(토성, 건물지 등 21,780㎡)	
	2010년 ~ 2021년	삼척 죽서루 주변유적 발굴조사(내아, 동헌, 석성, 객사 등)	
	2015년 2월	죽서루와 오십천 주변 암각지 조사 학술용역	
	2015년 3월	죽서루 주변 유적 복원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2016년	방염제 도포, 4차 죽서루 주변 유적 발굴조사(석성, 옹성 1,950㎡)	
	2018년	주차장 조성공사	
2021년	외부단청, 난간 및 마루 정비		

이상과 같이 고려 중기 이전에 창건되어 그 터의 위치에 1403년 증창된 이후에 1530년 남쪽 처마를 내고 1788년 북쪽 처마를 내는 등 여러 차례 중수를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중요한 사실은 고려 중기 이후에 원위치에 증축 및 중수되어 장소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고, 맞배지붕을 팔작지붕으로 고치면서 남쪽 처마를 증축(增作南檐)하고 남쪽을 정면으로 했을 때 누각 후면의 처마를 더 내어 증축(增作後檐)한 것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연혁을 통하여 원지형에 원형을 유지하면서 변화의 흔적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특성과 증축 과정에서 공간사용에 따라 다르게 조성되는 지역성을 파악할 수 있다.

삼척 죽서루는 최초 창건은 알 수 없지만, 김극기(金克己)의 죽서루에 관한 시를 통해 고려 중기 이전에 창건되었음을 알 수 있다. 죽서루의 유래는 누각(樓閣) 동편에 죽죽선녀(竹竹仙女)의 집이 있었다 하여 죽서루라고 했다는 설도 있으나 누(樓) 동쪽에 죽림(竹林)이 있었고 죽림 속에 죽장사(竹臧寺)가 있었다 하여 죽서루라 했다는 설(說)이 유력하다.<sup>20)</sup> 죽서루는 1403년(태종 3) 부사 김효손(金孝孫)이 옛 터에다 중창한 후에 삼척도호부 관아와 객사인 진주관(眞珠館)에 부속된 건물로 수차례의 중건과 중창을 거듭하여 오가가 근대에 오면서 관아건물은 사라지고 죽서루만 남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서탁수의 중수기에 “...1788년 7월에 진주관을 개축하였고, 9월에 계속해서 죽서루를 중수했다.... 그전의 규모를 살펴 보태거나 줄이지 않고 다음 해 봄에 일을 끝마치게 되었다<sup>21)</sup>”라고 기록하여 변화 없이 중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삼척 죽서루는 오십천이 굽이쳐 흘러 동해안으로 빠져나가기 전 자른 듯한 기암괴석의 벼랑 자연암반 위에 자리하여 물과 절벽과 멋진 경관을 이루고 있다. 이는 『신증동국여지승람』(1530년)과 김종언의 『척주지(陟州誌)』에 나타나고 있다. 자연경관에 대한 입지와 배치는 1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원경으로는 태백준령이 한 폭의 병풍처럼 펼쳐지고 오십천이 굽이쳐 동해로 이어지고, 중경으로는 근산(近山)과 갈야산(葛夜山), 봉황산(鳳凰山)이 솟아 있어 삼신산(三神山)의 선계(仙界)와 같고, 근경으로는 오십천(五十川)은 누각 밑의 깎아지른 듯한 절벽에 응벽담(凝碧潭)을 이루어 다양한 경관 요소들을 즐길 수 있다. 이러한 경관 때문에 김극기(金克己), 이승휴(李承休), 이곡(李穀), 안축(安軸), 정추(鄭樞), 김구용(金九容), 정조(正祖), 하륜(河倫), 이륙(李陸), 심언광(沈彦光), 이율곡(李栗谷), 양사언(楊士彦), 정송강(鄭松江), 허목(許穆), 신광수(申光洙) 등의 수많은 시인 묵객들이 주옥같은 수백편의 시문을 남기고 있다. 삼척도호부 관아는 발굴과 문헌을 통하여 객사, 동헌과 내아, 응벽헌, 연근당<sup>22)</sup>, 서별당 등이 있었으며, 죽서루는 객사인 진주관에 딸린 부속건물로서 누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오십천을 비롯한 다양한 경관 요소에 대한 많은 시문 등으로 보아 죽서루는 관아와 객사에 부속된 접대와 향연 그리고 휴식 등을 목적으로 건립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오십천을 해자로 한 감시와 방비 등의 군사적 기능도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자연 암반으로 구성된 지형적인 조건을 활용하여 바위로 된 오솔길을 따라 진입하는 공간구성은 우리 건축의 특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바위 길 사이를 살짝 보이는 죽서루를 보면서 암반과 계단 그리고 흙바닥 등을 교차하면서 진입하고 있다. 연속되는 진입 공간을 만들기 위하여 남쪽 암반 사이의 꺼진 지형을 매워 인공석축을 쌓아 암반을 기단처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진입공간을 형성하여 암반 사이 오솔길을 따라 올라 바

20) 김종언(金宗彦)의 ‘척주지(陟州誌)’

21) 김종언 『척주지』, 서탁수, 중수기, “...是年七月改建眞珠觀七月繼修竹西樓...前制度無所增減...”

22) 서탁수의 중수기에 의하면, 이 건물은 죽서루 남쪽에 있던 죽서루 별관으로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하여 연회를 베풀기 적당하다고 한 것으로 보아 방으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위 기단 위에 3칸 남쪽 진입공간을 들어서면 가로로 긴 누정에 오르고 누정에서 왼쪽으로 돌면 펼쳐지는 태백산 준령의 에워싸고 절벽에서 오십천을 내려다보는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 남측을 3칸 팔작지붕으로 한 것은 주출입 방향을 유도하고 가운데 칸으로 진입하도록 좌우 협칸에는 평난간을 두르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남측면을 주출입으로 하기 위하여 인공암반을 메워 기단을 조성하고 3칸을 조성하고 팔작지붕으로 하는 등 많은 고려를 하고 있다. 북쪽으로도 동쪽에서 진입하는 계단을 지나 진입하기 위한 암석을 올라 진입하고 있다. 북쪽 진입은 부진입으로 보이는데 증축하면서 쓰임새에 따라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죽서루를 배치할 때 남쪽, 서쪽 그리고 북쪽으로 조성된 자연암반을 활용하여 절벽 쪽으로 배치하고, 흙바닥인 동쪽으로 자연 암반과 같은 자연석 주초석을 보완하여 자리하고 있다. 극적인 구성을 위하여 절벽 쪽으로 배치하기 위한 계획적인 의도가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평면구성은 상부를 기준으로 정면 7칸, 측면 북쪽 우측 2칸, 남쪽 좌측 3칸의 겹처마 팔작지붕이다. 상층과 하층의 중층으로 이루어졌으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기둥의 개수도 다르며 좌우측의 칸수도 다르고 그리고 가운데 칸과 양쪽 측면 칸의 크기가 차이가 나고 있다.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하층과 상층 기둥의 개수 차이는 하층 기둥 중 자연 암반을 초석으로 기둥을 기둥의 길이가 모두 다르게 세우면서 하층 기둥 없이 장주를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좌우측 칸수가 다른 것은 자연 암반이 놓여 있는 지형 자체가 다르므로 그에 따라 배치하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해석은 출입에 따른 이용자의 신분과 용도상의 기능과도 관련된다는 견해가 있다. 또한 남쪽을 주출입으로 방향을 유도하기 위해 3칸 홀수 칸으로 하여 중앙 어칸으로 드나들 수 있도록 의도하였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남쪽으로 출입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기암괴석을 돌아보며 접근할 수 있도록 되고 어칸 부분에 박석으로 포장을 하여 출입에 편리하도록 되나 북쪽에는 가운데 기둥 좌우로 자연암반을 던고 오르게 되어 있다. 남쪽의 박석 포장은 근래에 시설한 것으로 추정하지만 북쪽과 비교하면 주출입구로서 북쪽보다 많은 고려를 한 것으로 보인다. 북쪽을 2칸으로 한 이유는 중앙 기둥을 기점으로 좌우로 분리 출입할 수 있도록 의도한 것으로 추정된다. 동쪽보다 서쪽 주칸이 크게 조성되어 넓은 곳의 위계가 높다고 추정된다. 북쪽의 경우 북쪽의 2번째 칸이 부사가 착석하는 자리라고 하면 그 뒤에 병풍을 쳐서 음식을 마련하여 두는 공간으로 사용하여 음식이 대기하는 공간과 부사가 진입하는 동선을 고려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북쪽 진입 돌계단을 오르면 2개의 암혈(巖穴)에서 연회에 필요한 음식을 마련하여 두었다가 북쪽 출입구로 들이기 위한 의도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남측 하부 기둥 주칸을 2,177mm나 2,130mm의 협칸보다 어칸을 2,212mm로 크게 조성하고, 북측 전면 2,145mm보다 후면 주칸이 3,333mm로 넓어 위계

적인 구성을 하고 있다.

연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사 허락이 남쪽 처마 증축(增作南檐)하고, 부사 서탁수가 북쪽 처마 증축(增作後檐)을 하였다면 가운데 5칸에서 출발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주칸<sup>23)</sup>에도 나타나는데 자연석 초석에 기둥을 배치하므로 동쪽에서 본 하층기둥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왼쪽부터 2,444mm, 2,746mm, 2,780mm, 2,749mm, 1,982mm로 나타나 정간은 2,780mm, 협간은 2,746mm와 2,749mm, 뒷간은 2,444mm와 1,982mm이다. 주칸은 정간을 협간보다 약간 크게 잡고 있으나 9척으로 잡고 있다. 그리고 뒷간은 작게 잡아 남쪽 8척과 북쪽 6.5척으로 잡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남북측 주칸이 대칭은 아니지만 양단부 2칸의 길이는 16자로 같은 크기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뒷간을 작게 잡은 것은 정간이나 협간에 비해 뒷간이 넓어보이므로 의도적으로 시각보정을 위하여 작게 잡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북쪽 뒷간을 작게 잡은 것은 자연암반 위에 놓일 자리를 고려<sup>24)</sup>하고 상층으로 오르는 계단 그리고 북쪽을 상석으로 하기 위하여 의도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5칸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추정된다. 또한 가운데 5칸의 공포는 교두형 첨차의 주심포 형식으로 좌우의 2칸의 초익공 형식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가운데 5칸에 조선 초기의 전형적인 교두형 첨차나 고려시대에서 조선 초기의 주심포 형식이 나타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추정된다. 삼척도호부에서 접근하면서 동선체계를 보면 주로 남쪽 뒷간을 보고 접근하게 되므로 남측면을 중요하게 다룬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전면의 기둥이 외목도리선에 맞추어 앞으로 나오면 약간은 커 보이게 되고 나온 만큼 뒷기둥이 넓은 칸에 보이게 되므로 시각에 대한 대응이라고 추정된다.

그런데 좌 1칸 상부 주칸은 2,494mm이고 우 1칸 상부 주칸은 2,977mm이다. 좌 1칸은 1530년 남쪽 처마 증축(增作南檐)한 것이라고 보면 자연암반을 이용하여 진입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둥을 배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8척으로 잡은 것은 협간과 같은 용척으로 하였으나 뒷간은 넓어 보이므로 자연암반 위에 놓인 기둥의 위치를 조정하기는 어렵고 대신 기둥을 주요 조망점인 동쪽에 앞쪽 출목으로 내어 좁게 보이도록 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가운데 5칸과 다른 조선시대 중기 이후의 초익공 계통의 공포 형식이 나타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추정된다.

이는 1788년 부사 서탁수가 북쪽 처마 증축(增作後檐)한 것이라고 보면 자연암반을 이용하여 기둥을 배치하면 북쪽 측면의 자연 암반이 높아 우주의 귀틀을 걸칠 수가 없으므로 전후면 2개의 기둥을 하층에만 세운 것으로 추정된다. 뒷간이 넓어 보이는 것을 보정하기 위하여 기둥의 위치를 조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쪽 증축에서 사용한 방법을 이용하여 주요 조망점인 동쪽에서 보았을 때 외부쪽 출목으로 내어 좁게 보이도록 한

23) 삼척죽서루 정밀실측조사보고서, pp. 82-86. 주칸의 기본단위척을 306-308mm 사이로 잡고 있어, 정밀실측보고서에서는 죽서루의 용척을 308mm로 보고 있다.

24) 이는 암반의 모서리에 놓이는 것을 피하기 위한 임기응변이 아니라 의도된 위치 설정임을 추정할 수 있다.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남쪽 증축 부분에 따른 중기 이후의 초익공 계통의 공포 형식이 나타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추정된다.

이상과 같이 가운데 칸과 양쪽 측면이 차이가 나는 것은 가운데 5칸에서 남쪽과 북쪽으로 1칸씩 증축하면서 자연암반에 기둥을 놓을 위치와 안정적으로 처마를 받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도록, 시각보정을 통하여 주칸을 기존 건물의 외목도리선에 맞추어 주칸을 설정하고자 한 것으로 추정된다.

삼척 죽서루는 오십천 응벽담 기암괴석의 벼랑 위에 산재한 크고 작은 자연암반을 기초로 세우고 있다. 지형에 정면 7칸, 남측면 3칸, 북측면 2칸이므로 변주는 19개 되어야 하지만 하층에서는 자연암반 위에 설치되다 보니 이보다 적은 숫자의 기둥이 세워져 있다. 절벽 상부의 자연암반이 좌우 양쪽과 절벽 쪽에 자리하고 있어 13개소에 자연 석회석 암반을 초석대신 사용하고, 가운데가 움푹 들어가 땅을 이루는 곳에 앉히기 위하여 8개소에 자연석 초석인 석회석 덩벙주초를 사용하고 있다. 자연석 초석도 자연암반과 같이 형상과 크기를 불규칙하게 놓고, 암반과 자연석 초석에 기둥을 세워야 하므로 정교한 그랭이질을 하고 있다. 자연암반과 자연석 초석도 같은 재질로 하여 나뉠 어울리고 있다. 그리고 서쪽의 절벽으로 암반 위에 붙여 짓고자 하는 의도가 잘 드러나고 있다. 이는 죽서루가 놓이는 지형을 절벽 쪽에 선정한 의도대로 자연암반에 대응하여 그랭이질이라는 건축기법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연환경과 일체가 되는 특징을 이루고 있다고 판단된다.

자연암반의 상부는 기둥을 그대로 앉히거나 기둥 놓을 자리를 약간 다듬어 놓고 있다. 기둥은 모두 두리기둥이고 누하주는 민흘림이 있으며 누상주는 약한 배흘림이 있다. 자연암반과 자연석 초석의 높이가 모두 다르므로 누하주의 길이는 모두 다르게 되어 있다. 자연 암반이나 자연석 초석 위에 하층에는 13개의 기둥과 상층에는 20개의 기둥이 세워져 있다. 하층에 13개 중에 5개는 자연 암반 위에 세우고 8개는 자연석 초석에 세우고 있다. 기둥의 길이가 차이를 보이지만 가운데 5개의 기둥은 1,640~2,000mm 정도로 비교적 균일한 치수를 보여주고 있어서 5칸 규모에서 출발하였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양측의 기둥을 제외한 기둥의 기준 치수는 1.6척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sup>25)</sup> 상층과 하층은 대부분 같은 위치에 기둥을 세우고 있으나 북쪽 전후면의 2개 기둥은 하층에만 세우고 있다. 북쪽 측면의 기둥 3개 중 가운데 기둥은 자연 암반의 높이가 높아 우주의 귀틀을 걸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물마루 귀틀을 받치기 위해 세워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자연 암반에 기둥을 설치하고 마루를 놓으면서 지형적인 조건에 따른 이곳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좌우와 절벽 쪽 큰 자연 암반에는 3~4개의 기둥을 세우고 전면 좌우측 작은 암반에는 1~2개의 기둥을 세우고 있다. 내진주는 북측 협칸 안쪽에 상·하층 모두 1개씩 세워져 있다. 자연암반의 형상에 맞추어 세운 것으로 추정된다. 네 모서

25) 삼척 죽서루 정밀실측보고서, p.96

리에 설치된 4개의 우주는 마루면보다 하부 자연 암반 위에 길이가 긴 부재로 세워 상부 하중을 받고 있다. 같은 단면 크기라고 가정하면 다른 기둥보다 길어지는 압축재가 되므로 장주(長柱)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층기둥은 전체적으로 직경 1.4척 정도에 9-41mm 정도의 굵기 차이를 보여 흘림 편차가 큰 민흘림이 있고 의도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배흘림기둥도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하부 굵기에 대한 하층 기둥 길이의 비가 1: 1.79-4.38 정도로 상부 하중에 대한 안정성을 고려한 것으로 추정된다.

상층기둥은 우주 2,415~3,350mm, 남측면 변주 2,350mm와 2,390mm, 북측면 변주는 2,120mm, 내진주 2,105mm 그리고 정면과 배면의 변주들이 2,075~2,115mm이다. 308mm로 환산하면 우주 7.84~10.88척, 남측면 변주 7.63척과 7.76척, 북측면 변주 6.88척, 내진주 6.83척 그리고 정면과 배면의 변주 6.74~6.87척이다. 상부 기둥은 정면과 배면의 변주와 내진주는 6.8척(7척으로 의도된 것으로 추정)으로 의도된 계획이 보이거나 다른 기둥은 1~4척 정도 길게 자연 암반에 맞추고 공포 짜임에 맞추어 치수를 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굵기를 비교하면 남측면 정간 2개만 1.2척 정도로 가늘고 나머지 기둥은 1.37척으로 비슷하게 나타난다. 우주는 정면과 배면의 변주들에 비해 굵은 부재를 사용하지 않았으나 남측면 가운데 기둥을 가는 부재를 사용하여 상대적으로 남측면에서 우주가 굵어 보이도록 하고 있다. 서측면 우주 2개와 남측면 정간 동쪽 기둥 1개 그리고 내진주는 민흘림이 있고 나머지 기둥은 배흘림으로 되어 있다. 흘림이 잘 드러나지 않는 기둥은 재목의 생김새를 고려해 시각적으로 자연스럽게 세워져 있다.

중층 누각이므로 우물마루 위의 상층 중앙의 기둥으로부터 모서리 기둥 방향으로 갈수록 기둥 높이를 4푼에서 8푼 정도 약간씩 높게 함으로써 지붕 양쪽 모서리의 추녀 부분을 중앙보다 높게 한 귀솟음을 주고 있고, 이를 통해 변화과정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5칸이었을 경우는 동쪽 정면에 1치 정도와 서쪽 배면에 1.5치 정도의 귀솟음을 두고 있다. 증축된 남측과 북측면의 기둥과 우주를 비교하면 1치 정도의 높이차가 있어 증축 과정에서도 귀솟음을 두고 있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변화과정에서 시각보정을 고려한 기둥 배치와도 연계된다고 추정된다. 북측 면만 상부가 하부보다 넓고, 나머지 삼면은 5푼 정도의 안쏠림을 주어 우주가 바깥쪽으로 벌어져 보이는 착시현상을 교정하여 시각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있다.

양곡은 정간 부분에서 추녀 쪽으로 완만하게 휘어 오르다 추녀의 선자연에서 휘어 오르는 모습을 하고 있다. 선자연 아래의 갈모산방을 설치하여 양단부가 중앙부보다 1.5~1.9자 정도의 양곡을 하고 있다. 안허리곡은 도리 방향 정면 0.9자 정도와 후면 1자 정도이고, 보 방향 남측면 0.7자 정도와 북측면 1자 정도로 나타나고 있어 배면과 북측면이 곡이 많고 남측면 곡이 0.3자 정도 적게 나타나고 있다.

중층누각으로 상층기둥은 우물마루 위에 세워져 있다. 죽서루는 남3협칸을 제외한 모든

칸에 우물마루가 설치되어 상층바닥이 되고 하층의 천장이 된다. 누마루는 경간 18자의 장귀틀을 전후면의 평주에 걸고 장귀틀을 4등분하여 동귀틀을 걸어 24개의 우물을 만들어 청판을 설치하고 있다. 중측된 남측 끝 칸에는 자연 암반이 누마루와 높이를 맞추어 마루를 설치하지 않고, 북측 끝 칸에는 가운데 기둥의 초석이 높아 귀틀을 설치하기 어려워 북측 기둥에 150cm 정도 띄워 귀틀을 받는 별도의 기둥을 누하에 설치하고 그 위에 마루 귀틀을 걸고 있다.

정면과 배면의 기둥 바깥쪽으로 각 칸에 널 2장씩을 길이로 칸 장마루의 난간마루를 설치하고 있다. 후면 기둥 밖으로 3자 정도를 돌출시켜 계자난간을 설치하고, 측면에는 평난간을 설치하고 있다. 바닥은 동귀틀과 장귀틀 사이에 청판을 끼워 넣어서 바닥을 구성하는 우물마루로 되어 있는데, 바깥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계자난간을 바깥으로 설치해 놓았다. 우물마루를 둘러싸고 전후면에 계자난간과 남북측면에 출입구를 제외하고 평난간을 설치하고 있다. 계자난간은 기둥 바깥으로 귀틀에 중방을 설치하고 중방위로 띠장을 설치하고 있다. 중방과 띠장의 바깥쪽으로 계자각을 설치하고 계자각위로 계자각마다 하엽을 놓고 하엽 위로는 돌란대를 설치하고 있다. 계자각마다 중방 윗면과 띠장 아랫면에 난간공판을 설치하고 홈을 파고 있다. 평난간은 남측면의 출입구를 제외하고 우주에서 가운데 쪽으로 설치하고 있다. 중방을 설치하고 중방위로 띠장을 설치하고 있다. 중방 위 우주 옆 남측면 출입구 북측면 출입구과 반대편 끝 쪽에 엄지기둥을 세우고, 중방과 띠장 사이에 난간동자를 설치하고 있다. 띠장 위로는 하엽을 놓고 하엽 위로는 돌란대를 설치하고 있다. 난간동자와 하엽의 위치는 일치하지 않고 있다. 난간동자 사이 중방과 띠장 사이에는 난간공판을 설치하고 있다. 계자난간의 공판이 세련되어 보이는 것은 평난간이 고식의 느낌을 주고 있다. 기둥 위의 주두는 상층 기둥 위에 20개가 설치되어 있다. 주두는 굽받침 없는 사절된 빗굽주두이나 크거나 옆갈의 따냄 등이 차이가 있어 중수와 중창 과정에서 구부재와 신부재의 혼용으로 추정된다.

공포는 주심포와 익공계통의 두 가지 양식이 사용되고 있다. 주심포는 우주를 제외한 전후면의 동쪽과 서쪽 외진주 상부에 6틀씩 12틀이 짜여지고, 익공은 4틀의 우주 귀포를 포함하여 양쪽 측면 외진주 상부에 짜여져 남측면에 4틀과 북측면에 3틀 모두 7틀이 있다. 주심포는 내외 2출목 형태로 바깥쪽으로는 행공첨차가 결구되고, 내부 쪽으로는 도리 방향의 첨차가 설치되지 않고 있다. 주심포는 기둥머리에 도리방향으로 창방을 결구한 후 직교하여 보방향으로 소첨차를 결구하고 그 위에 기둥머리 주두 위 대첨차를 직교하여 설치하고 있다. (보 방향 소첨차 내외 단부와 창방 위 주심첨차의 양측 단부 위에 소로를 설치하고, 주두 위에 도리 방향으로 보방향의 소첨차보다 긴 대첨차인 주심첨차를 설치하고 있다. 주심첨차에 직교하여 보 방향으로 대첨차를 결구하고 주심첨차와 보방향의 대첨차 양측 단부 위에 소로를 설치하고 있다. 보 방향 주심 첨차 위

에는 뜯장여를 설치하고 바깥쪽 출목의 소로 위에 행공침차를 설치하고 있다. 뜯장여와 행공침차에 직교하여 소로를 놓거나 소로 형상을 새겨 그 위에 대들보가 설치되고 있다. 뜯장여 위에 소로를 놓고 장혀 받친 주심도리를 설치하고 있다.) 창방은 증축된 3협간을 제외한 정면과 배면의 정간, 그리고 남측과 북측의 2:3협간에만 설치되어 있다. 증축된 뒷간에 창방이 설치되지 않은 것은 익공계통으로 기존의 기둥보다 높게 설치되어 기둥머리를 연결하기 어렵다는 것<sup>26)</sup>은 결과론적인 추정이고 오히려 기둥열이 맞지 않고 대량보다 낮게 설치되면 비례가 달라지고 개방감이 줄어들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창방은 수장재와 비슷한 가로보다 세로가 긴 장방형 단면으로 칸마다 1개씩 전후면에 5개씩 모두 10개가 설치되어 있다. 가로보다 세로가 긴 장방형 단면의 네모서리를 둥글린 형상의 조선 중·후기와는 달리 장방형의 각진 그대로의 단면으로 조선 초기 이전의 형식으로 추정된다.

기둥머리에 짜인 보 방향 소침차의 높이는 전면에 대침차 아래까지 높으나 후면에 주두 하부에 맞추어져 있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면은 증축을 거치면서 새로운 양식에 맞추지만 후면은 이전에 양식이 그대로 있는 경우를 다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면은 익공계통의 특성을 보이고 후면은 주심포계통의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침차는 도리 방향의 주심침차와 행공침차, 보 방향의 기둥머리에 짜인 소침차와 주두 위에 짜인 대침차이다. 침차의 형태는 교두형으로 내측 소침차는 중간에 두 단으로 곡선 처리하고 다른 침차는 사분원의 곡선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길이가 모두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죽서루의 주심포는 보 방향으로 기둥머리와 주두 위에 소침차와 대침차를 결구하고 도리 방향으로도 주심침차와 행공침차를 결구하고 있다. 보 방향의 대침차는 교두형으로 내단부 위에 소로를 놓고 대들보를 받치고 있어 조선 중기 이후의 각된 보아지 형태로 변하기 이전의 기법으로 추정된다. 대침차에는 내외에 모두 공간이 새겨져 있고, 익공계통의 공포에는 기둥머리에 창방 없이 도리 방향으로 초각형 침차를 설치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부재의 형식과 구성은 고려시대와 조선 초기의 전형적인 주심포식 공포와는 다르지만 그 틀과 수법은 조선시대 중기 이전의 특성을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sup>27)</sup>

그리고 외1출목의 소로는 주심도리와 외목도리 중간이 아니라 외부 쪽으로 치우쳐 있으면서 보 방향 내측 소침차는 내부에서 둔중해 보이므로 두 단으로 곡선 처리하여 대침차까지 점승하는 듯 의장처리를 하고 있다. 주심침차 위에 뜯장여를 설치하고 소로를 끼우면서 간격을 띄워 장혀 받친 주심도리를 설치하고 있는데, 뜯장여 위에 간격을 띄우고 끼운 소로는 주심침차 양단부의 소로보다 더 바깥쪽에 설치하여 창방 위의 소로에서 주심침차 소로 그리고 뜯장여 위의 소로로 이어지는 의장적인 특성을 보여주고

26) 삼척 죽서루 정밀실측보고서, p.109

27) 조선 중기 이후에는 보 방향으로 살미나 익공계통의 공포가 결구되고 도리 방향으로 침차가 결구되나,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초기에는 보 방향이나 도리 방향에 같은 형태의 침차를 결구하고 있다.

있다. 주두 위의 주심첨차와 보 방향 첨차를 교차하여 소로 없이 그 위에 대량을 설치하고 있다. 그러나 대량과 결구되는 뜬장여와 출목첨차 사이에는 소로를 설치하거나 소로 형상을 새겨 놓기도 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부재의 형식과 구성은 조선 중기 이전의 특성을 간직하는 수법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공포의 형식과 구성은 조선 중기를 기점으로 이전의 수법을 보이고 있다고 추정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주심포의 구성 수법과 형태에서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 초기에 이르는 주심포 형식을 기본 틀로 하고 조선시대 중기 이후와 이전의 형식과 구성 수법이 혼재된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익공 계통의 공포는 양쪽 측면 외진주 상부에 짜여져 남측면과 북측면의 공포와 우주 위의 귀공포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우주 귀포를 제외한 양쪽 측면 외진주 상부에 짜여져 남측면과 북측면에 공포는 초익공 계통이다. 기둥머리에 창방 없이 도리 방향 첨차와 직교하여 초익공을 끼우고 있다. 익공의 쇠서는 짧은 수서 형태이고 익공 내부의 뒷몸은 보아지 형태로 충량을 받치고 있다. 기둥 위에 주두를 놓고 첨차의 양단부 위에 소로를 놓고 장혀 받친 도리를 놓고, 장혀에 직교하여 충량을 설치하고 있다. 주두 위 보뿔목은 쇠서와 같이 다듬어 초익공의 연속된 형식으로 보이도록 하는 의장적인 처리를 하고 있다. 우주 위의 귀공포는 창방 없이 기둥머리에 익공계통과 초각한 첨차를 직교하여 결구하고 주두를 놓고 그 위에 장여 받친 도리를 모두 초각한 뿔목으로 처리하고 있다. 쇠서는 모두 수서로 되어있고, 익공이 설치된 우주에는 창방 없이 익공 계통의 공포가 직교하여 설치되어 있다. 동남쪽 우주의 장혀 뿔목은 황룡과 청룡으로 초각하고 직교하여 운문처럼 초각하여 장식하고 있다. 동쪽에서 접근하여 정면성에 대한 의장적인 처리이고 죽서루로의 주진입은 남쪽과 북쪽으로 진입하는데 남쪽으로 위계를 드러내는 의장적인 처리로 추정된다. 익공계통의 형식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층축에 따른 변화이기도 하고 보수하면서 부분적으로 변형된 것으로 추정된다. 소로는 주두와 같이 사각형 빗굽소로로 굽은 사절되어 있다. 이갈소로는 창방 위 주심첨차의 하부, 출목첨차의 양단부, 주심도리 받침장여 하부와 뜬장여 사이, 서측 주심포 보 방향 소첨차와 대첨차 위 양단, 주심첨차 위 양단, 동측 주심포 보 방향 소첨차와 대첨차 위 양단 익공에 사용되고 있다. 사갈소로는 포대공에 사용되고, 부분적으로 큰 사갈소로도 사용되고 있다.

축부는 외목도리를 제외하고 삼분변작의 무고주5량가 1출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후면 평주 사이에 대들보를 건너지르고 삼분하여 5치 정도를 좁힌 위치에 주두를 놓고 소첨차와 대첨차를 직교하여 배치하여 뜬장혀와 결구하고 종보를 걸고 그 위에 장혀 받친 중도리를 놓고 있다. 종보 위 중앙에는 파련대공을 놓아 장혀 받친 중도리를 받고 있다. 장혀 받친 도리는 도리의 아랫면을 장여 상면에 맞추어 수평으로 다듬고, 장여 춤의 크기는 주심도리 장여, 중도리 장여, 종도리 장여, 외목도리 장여 순이다. 직경이 작았던 중도리는 받침장여를 키워 보강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외목도리 장여 뿔목은

동남 우주에 황룡과 청룡을 새기고 다른 우주에는 초각을 하여 의장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가구구성을 통해 포대공이 잘 짜여있고 5량가를 구성하는 비례와 균형, 하중을 적절하게 분배하기 위한 삼분변작 등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대들보는 증축된 양 측면을 제외한 모든 양통에 6개가 설치되어 있다. 대들보의 단면은 너비보다 축이 긴 장방형으로 하부 모서리를 궁글린 형태로 어칸에 사용된 것이 험칸에 사용된 것보다 큰 것을 설치하고 있다. 보머리는 출목 바깥으로 빼서 외목도리를 받치고 있다. 보머리는 삼분두 형태로 고식(古式)을 보여주고 있다. 정간 동측 보머리는 처마 내밀기가 짧으므로 많이 내민 특징을 보이고 있다.

종량은 대들보 위에 6개가 설치되어 있다. 양쪽 머리는 대들보 상면에 세워진 포대공의 이 제공 위에 놓여 중도리 받침장여와 뜯장여에 직교하여 결구 되어있다. 종량의 단면 형태는 대들보와 마찬가지로 너비보다 축이 긴 장방형이며, 하부 두 모서리를 궁글린 형태이다. 단면 규격은 대들보가 어칸과 험칸에 차이를 두었던 것과는 달리 6개 모두 비슷한 규격이다. 포대공은 대들보 위에 오른 사면 옆갈 주두 위에 소침차와 대침차를 보 방향으로 2단을 올리고, 도리 방향으로 뜯장여와 대침차를 십자로 반턱 맞추기를 하여 설치하고 있다. 크기가 다양하여 주두의 유형과 형태와 같이 중수와 중창의 흔적으로 추정된다. 대들보 위에서는 종보를 받치는 포대공을 사용하고, 종량 위에서는 장혀 받친 중도리 하부의 마루대공은 파련대공을 사용하고 있다. 뜯장여는 주심도리 받침장여 하부에 1단과 중도리 받침장여 하부에 2단이 설치되어 있다. 뜯장혀를 길게 하나로 건너지르고 초각이나 투각 없이 교두형의 소침차와 대침차로 간결하게 구성하면서 침차에는 공안을 표현하는 것 등이 다른 포대공의 사례와 비교해서 고려시대와는 다른 것으로 보아, 누정의 공포와 전체적인 통일감을 주기 위한 고려시대의 양식을 모방한 것인지 아니면 조선 초기의 형식인지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조선 초기에 건립된 당시의 형식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포대공을 설치하여 뜯장혀를 겹쳐서 사용하는 가구법은 측면의 횡력에 견디게 하는 역할을 하고 현존하는 고려시대나 조선 초기의 주심포 건물에서 볼 수 있는 수법이다.

대들보 위에서는 종보를 받치는 포대공을 사용하고, 종량 위에서는 장혀 받친 중도리 하부의 마루대공은 파련대공을 사용하고 있다. 마루대공은 북측 2번째 종량에서만 판대공을 설치하고, 나머지 종량에는 파련대공을 사용하고 있다. 파련대공은 판재를 3단으로 겹쳐 하부에는 복화반 형태의 받침재 초각, 그 위로 당초문 형태의 초각, 상부에 파련 형태의 초각을 하고, 테두리에도 초각을 하고 있다. 복화반과 중당초문 초각에서 고식(古式)의 흔적으로 보이고 있다.

총량은 장방형의 하부 두 모서리를 궁글린 형태로 남측에 2개와 북측에 1개 모두 3개가 사용되고 있다. 보머리 쪽에 측면 주두 위에 결구되고 꼬리 쪽은 대들보에 홈을 파서 걸치고 있다. 5칸의 맞배지붕에서 그대로 증축하였기 때문에 측면 기둥에서 대들보

와 연결시키는 역할 정도만을 하고 있다. 보머리는 하부의 익공 쇠서와 유사한 형태로 다듬어 놓아 이익공처럼 의장적인 처리를 하고 있으나, 보머리 너비는 쇠서처럼 줄이지 않고 몸통과 같이 다듬고 있다. 남측 배면 쪽의 층량의 형태는 주두에 짜여지는 쪽에 도리 위에 구름받이를 설치하지 않고 보아지 길이 정도까지만 층을 높여 처마도리의 하부 일부가 직접 층량 상부와 결구되고, 나머지 2개의 층량은 층량 위에 다시 구름받이를 놓아 처마도리를 받치고 있다.

외기는 대들보 위에 중도리 위치에 주두를 놓고 긴 뜯장혀를 뺄목으로 처리하고 첨차를 놓아 층이 높은 장방형의 통장혀를 놓고 직교하여 첨차를 3단으로 짜올려 장혀 받친 중도리와 직교한 장혀 받친 중보를 받치고 있다. 맞배지붕의 가구가 외기에 드러나고 있어 맞배지붕을 팔작지붕으로 변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천장은 다양한 형식이 공존하지만 위계적인 구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연등천장을 주로 하고 다양한 기능적인 천장을 설치하고 있다. 우물반자는 북2협칸 대들보 상부와 주심도리 받침장여 사이에 설치되고, 눈썹반자는 양측 외기도리 받침장여와 종량 사이에 설치되고 있다. 그리고 순각반자는 주심도리와 외목도리의 받침장여 사이에 설치하고 있다. 순각반자는 일반적으로 다포식에 많이 사용하지만 주심포 기둥 위에 사용하는 특징이 있다. 또한 연등천장을 주로 하면서 위계가 높은 부분에는 우물천장을 설치하고 있다. 천장은 서까래가 노출되어 보이는 연등천장과 우물정자 모양으로 마감된 우물천장으로 설치되어 있다.

지붕은 겹처마 팔작지붕이고, 중도리와 종도리 사이에 단연을 걸고 주심도리와 중도리에 장연을 걸어 물매를 잡고 있다. 정간과 협간의 연목은 평행서까래이고, 귀처마는 선자서까래로 배열하고 있다. 지붕 합각부는 목기연으로 솟을각의 것과 박공널마다 4개씩 설치되어 9개이다. 부연과 마찬가지로 끝건기와 불접기를 하고 있다. 추녀는 층이 너비보다 큰 장방형 부재를 배 바닥에 곡을 주어 다듬고, 뒷몸은 중도리와 외기도리가 교차하는 부분에 걸쳐있다. 사례의 너비는 추녀와 비슷하나 층은 사례가 추녀보다 커서 사례가 추녀보다 길게 돌출됨으로 인해 생기는 구조적 안정감과 형태적 의장성을 고려하고 있다. 공포의 차이나 가구 특성이 차이가 있어 도리칸이 5칸인 맞배지붕에서, 맞배지붕과 팔작지붕으로 된 6칸 그리고 7칸으로 증축되면서 현재와 같이 팔작지붕이 된 것으로 추정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운데 주심포이고 증축 부분은 익공으로 되어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 맞배지붕의 출목도리에 팔작지붕의 처마도리를 맞도리 형식으로 연결하고 있다. 양측면의 두 번째 기둥의 바깥쪽 상부 구성은 주심도리 그리고 장혀와 뜯장혀가 층단으로 뺄목으로 결구되어 맞배집 우주 구성과 같이 꾸미고 있다. 남측과 북측면의 층량은 대들보에 홈을 파서 끼워 증축에 따른 방식으로 보인다. 5칸 맞배지붕에서 팔작지붕으로 변화된 것은, 동쪽으로 진입하는 5칸 맞배지붕에서 남쪽으로 증축하면서 바위 사이로 진입하도록 하여, 정면을 남쪽으로 변화하면서 3칸의 팔작지붕

으로 변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남쪽의 후면인 북쪽으로 남쪽과 같이 증축하면서 완성되어 간 것으로 추정된다. 기능이 분화되면서 오히려 기존의 것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증축으로 인한 새로운 양식을 도입하는 것이 합리적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마도 5칸 맞배지붕으로 사용하면서 주변 자연암반을 활용한 진입과 위계 및 활용 등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증축하여 수평성이 강조된 팔작지붕으로 완성도를 높였다고 판단된다. 단청은 전체적으로 굿기단청으로 하였으나 서까래와 부연에는 휘를 사용한 모로단청이고 출목도리의 순각판에는 흰 바탕에 먹선의 구름무늬로 장식하였다.

죽서루의 구조와 조형을 살펴보면, 오십천의 응벽담 절벽 위에 남서북쪽으로 조성되어 있는 자연 암반을 인공석축 및 자연석 주초석으로 보완하여 자리하고 있어 절벽 쪽으로 배치하여 극적인 구성을 위한 계획적인 의도가 드러나고 있다. 진입공간은 3칸 남쪽을 주진입으로 하여 바위로 된 오솔길을 따라 지형적인 조건을 활용하여, 바위 기단 위에 놓인 누정에서 태백산 준령의 에워쌈과 절벽에서 오십천을 내려다보는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 북쪽을 2칸 부진입으로 동쪽에서 진입하는 계단을 지나 진입 암석을 올라 진입하고 있다.

평면구성은 정면 7칸, 측면 북쪽 우측 2칸, 남쪽 좌측 3칸의 겹처마 팔작지붕으로 자연암반을 기초로 하여 하층 17개 중 8개를 놓고 상층에 20개 기둥을 놓아 기둥의 개수도 다르고, 증축과 진입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좌우측의 칸수와 가운데 칸과 양쪽 측면칸의 크기가 차이가 나고 있다.

중층을 구성하면서 자연암반의 지형 조건에 따라 기둥을 자연암반에 놓거나 자연 초석을 놓아 올리고, 하층 기둥 없이 장주를 올리기도 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좌우측 칸수가 다른 것은 자연 암반의 지형에 따라 자연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출입에 따른 이용자의 신분과 용도상의 기능을 수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남측면을 3칸 홀수 칸 중앙 어칸으로 드나들도록 유도하여 주출입을 조성하고, 북쪽을 2칸으로 중앙 기둥을 기점으로 분리 출입하도록 부진입을 조성하고 있다. 이는 남측 하부 기둥 주칸을 어칸을 크게 조성하고, 북측 전면보다 후면 주칸을 넓게 조성하여 위계적인 구성을 하고 있다. 가운데 5칸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은 주칸에서 정간을 협간보다 약간 크게 9척으로 잡고 뒷간은 남쪽 8척과 북쪽 6.5척으로 작게 잡고 있다. 이는 정간이나 협간에 비해 뒷간이 넓어보이므로 의도적으로 시각보정을 위하여 작게 잡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북쪽 뒷간을 작게 잡은 것은 자연암반 위에 놓일 기둥 자리를 고려하고 상층으로 오르는 계단이나 북쪽을 상석으로 하기 위하여 의도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가운데 5칸의 공포는 교두형 첨차의 주심포 형식으로 좌우의 2칸의 초익공 형식과 차이를 보이고 있어, 가운데 5칸은 조선 초기의 전형적인 교두형 첨차나 고려시대에서 조선 초기의 주심포 형식을 드러내는 것으로 추정된다.

동쪽에서 보면 좌 1칸은 1530년 남쪽 처마 증축(增作南檐)하면서 자연암반을 이용하여

진입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둥을 배치하고, 협칸과 같은 8척으로 잡은 것은 뒷간이 넓어 보이므로 자연암반 위에 놓인 기둥의 위치를 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요 조망점인 동쪽에 앞쪽 출목으로 내어 좁게 보이도록 하고 긴 처마를 받치고 있는 우주의 위치가 시각적으로 안정감을 주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남쪽으로 진입공간을 만들기 위하여 도리와 장여 뺨목을 고려하여 3칸으로 구성하고 맞배에서 팔작지붕으로 증축한 것으로 추정된다. 남쪽으로 진입함에 따라 북쪽에 실을 설치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삼척도호부에서 접근하면서 주로 남쪽 뒷간을 보고 접근하게 되므로 남측면 시각보정을 위하여 가운데 칸의 기둥을 얇은 것을 사용하여, 우주가 상대적으로 굵어 보이고 외목도리선에 맞추어 앞으로 나오면서 더 굵어 보이도록 고려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나온 만큼 뒷기둥이 넓은 칸에 보이게 되고 남측 진입에서 남측면의 우주는 굵어 보이도록 시각에 대한 대응을 했으며, 처마가 길게 뻗어 우주가 안정적인 위치에 놓여지도록 한 것이라고 추정된다. 이는 가운데 5칸과 다른 조선시대 중기 이후의 초익공 계통의 공포 형식이 나타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추정된다.

이는 1788년 서탁수가 북쪽 후면으로 증축(增作後檐)하면서, 자연암반을 이용하여 기둥을 배치하면 북측면의 자연 암반이 높아 우주의 귀틀을 걸칠 수가 없으므로 2개의 기둥을 전후에 하층에만 세운 것으로 추정된다. 남북측 주칸이 대칭은 아니지만 남측과 같이 단부 2칸의 길이를 16자로 맞추고 있다. 또한 주요 조망점인 동쪽에서 보았을 때 외부쪽 출목으로 내어 좁게 보이도록 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남쪽 증축 부분에 따른 중기 이후의 초익공 계통의 공포 형식이 나타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추정된다. 이상과 같이 가운데 칸과 양쪽 측면이 차이가 나는 것은, 가운데 5칸에서 남쪽 처마 증축(增作南檐)과 북쪽 처마 증축(增作後檐)을 1칸씩 하면서, 자연암반에 기둥을 놓을 위치와, 안정감 있게 지붕을 받치기 위하여 시각보정을 통하여 주칸을 기존 건물의 외목도리선에 맞추어 주칸을 설정하고자 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쪽 협칸은 6.5척(2,002mm)으로 정칸과 비교하면 2.5척 정도 차이가 나고 있어 입면에서 다소 좁게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우물천장으로 구성되어 부사가 착석하는 위계가 높은 자리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우선 간살을 보면 북측 협칸이 좁아 남쪽 협칸(2,464mm)과 뒷간(2,464mm)에 대응하기 위해서 뒷간을 2,926mm로 넓혀 남측과 맞추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북측 하층 기둥을 세워 귀틀을 받치기 위한 기둥은 지형적인 조건에 따라 세우고 있다. 그렇다면 북쪽 후면을 증축하면서 남쪽 증축의 의도를 파악했다는 것이고, 북측 조건에 맞추어 대응하여 전체적으로 수평성이 강조된 완결성을 갖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럼에도 북쪽 협칸이 좁은데도 우물천장으로 위계를 높였는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북쪽 협칸에는 내진주를 세워 3평주로 한 것을 보면 실을 꾸미기 위한 가구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우물천장으로 꾸민 협칸에만 사면에 창방을 설치하고 있어 벽체가 설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에 나타난 죽서루는 협칸에만 있는지<sup>28)</sup>, 협칸에서 뒷간에 걸쳐 있는지<sup>29)</sup>, 반 칸에만 있는지<sup>30)</sup>, 양협칸에 있는지<sup>31)</sup> 등 어느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지만 실이 있었던 것은 확인할 수 있다고 보인다. 1788년 김홍도의 그림에는 실이 반 칸 뒷간에 설치된 것으로 보이고, 1788년 강세황의 그림에는 팔작지붕에 실이 협칸에 설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1738년 정선의 그림은 정면 7칸, 측면 3칸의 팔작지붕으로 보이고 뒷간도 표현하고 있어 비교적 정확하게 그린 것으로 보이는데 협칸에 2칸 방을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1738년이면 북쪽 후면 증축 이전인데 팔작지붕의 정면 7칸이고 협칸에 방이 있었음을 표현하고 있다. 이는 1788년 이전에 변형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1726년 최도문의 중창(重創) 때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이한 것은 협칸 누하의 반원형은 아궁이로 추정되는데, 그렇다면 온돌방을 놓았던 것으로 추정되므로 추후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또한 정선(1738), 전 이병언의 금강산도첩(조선후기), 김홍도(1788), 엄치옥(19세기) 등의 그림에는 누하에 벽체가 있었던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 앞으로의 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그림의 주요 조망점이 오십천 강가 쪽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조망점에서 그린 것으로 보아, 수목들로 인해 북측 협칸의 좁음을 읽기 어렵고, 보이는 조망점에서는 바깥쪽으로 세운 기둥이 길게 뻗은 추녀를 안전감 있게 받치며 기둥 사이로 기둥이 보이도록 의도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삼척부 객사에서 진입하는 북쪽 마당에서는, 협칸의 좁은 주칸은 인지가 잘 안되고 남쪽 뒷간은 바깥쪽에 기둥을 배열하여 안정감 있게 보인다. 남동쪽에서 보았을 때도 같이 인지되나 오히려 협칸이 좁음으로서 안정감이 보완되고 있다고 보인다.

구조는 절벽 상부의 좌우 양쪽과 절벽 쪽에 자리한 자연 석회석 암반을 초석으로 사용하고, 가운데가 움푹 들어간 땅에는 석회석 덩벙주초를 사용하여 기둥을 정교하게 그랭이질하여 올리고 있다. 이는 서쪽 절벽 암반 위에 짓고자 하는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그 조건에 맞추기 위하여 그랭이질이라는 건축기법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연환경과 일체가 되는 특징을 이루고 있다고 판단된다. 하층기둥은 상층기둥보다 굵고 큰 민흘림이 있고 일부는 배흘림도 나타나 안정성을 고려한 것으로 추정된다. 상층 기둥은 정면과 배면의 변주와 내진주는 7척으로 의도된 것으로 추정되나 다른 기둥은 1~4척 정도 길게 자연 암반에 맞추고 공포 짜임에 맞추어 치수를 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상층기둥 굽기는 남측면 가운데 칸만 가늘게 하여 상대적으로 우주가 굽어 보이도록 하고 있다. 기둥은 민흘림과 배흘림이 있고 흘림이 잘 드러나지 않는 기둥은 재목의 생김새를 고려해 시각적으로 자연스럽게 세우고 있다. 기둥은 누하 기둥 직경을 상층보다 굵은 직

28) 1738년 정선(관동명승첩), 간송미술관, 1788년 강세황(풍악장유첩), 국립중앙박물관

29) 19세기 작가미상(금강산도권), 국립중앙박물관

30) 1788년 김홍도(금강전도), 삼성문화재단도록

31) 조선후기 (전)이병언(금강산도화첩), 국립중앙박물관

경의 기둥을 사용하고, 가운데 기둥을 가늘게 하여 우주를 꺾어 보이게 하며, 하층 기둥은 민흘림을 주면서 상층기둥은 약한 배흘림을 주어 전체적으로 시각적인 안정감을 주고 있다. 가운데 5개의 기둥은 비교적 균일한 치수를 하고 있어 5칸 규모에서 시작하였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상층과 하층은 대부분 같은 위치에 기둥을 세우고 있으나, 북측면의 가운데 기둥은 자연 암반의 높이가 높아 우주의 귀틀을 걸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물마루 귀틀을 받치기 위해 별도로 도리칸 기둥열에 맞추어 세운 기둥은 지형적인 조건에 따른 이곳만의 특징이라고 추정된다.

누마루는 남3협칸을 제외하고 우물마루를 설치하고 있다. 전후면 기둥 밖으로 3자 정도를 돌출시켜 각 칸에 널 2장을 장마루의 난간마루를 설치하고, 우물마루를 둘러싸고 계자난간과 남북측면에는 출입구를 제외하고 평난간을 설치하고 있다. 5칸에서 6칸 그리고 7칸으로 증축하면서 외부의 경관을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5칸의 벽과 창호가 없는 개방된 평면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기둥 위의 주두는 굽받침 없는 사절된 빗굽주두이나 크기나 옆갈의 따냄 등이 차이가 있어 증수와 증창 과정에서 구부재와 신부재의 혼용으로 추정된다.

공포는 주심포와 익공계통의 두 가지 양식이 사용되고 있다. 주심포는 우주를 제외한 정면(동측)과 배면(서측)의 외진주 상부에 짜여 있고, 익공은 우주를 포함하는 양쪽 측면 외진주 상부에 짜여 있다. 보 방향 소첨차의 높이는 전면에 대첨차 아래까지 높으나 후면에 주두 하부에 맞추어져 있어 다르게 나타나기에, 전면은 익공계통의 특성을 보이고 후면은 주심포계통의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주심포는 내외 2출목 형태로 바깥쪽으로는 행공첨차가 결구되고, 내부 쪽으로는 도리 방향의 첨차가 설치되지 않고 있다. 주심포 첨차는 도리 방향의 주심첨차와 행공첨차, 보 방향의 기둥머리에 짜인 소첨차와 주두 위에 짜인 대첨차 등이 있고, 첨차의 형태는 교두형으로 내측 소첨차는 중간에 두 단으로 곡선 처리하고 다른 첨차는 사분원의 곡선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길이가 모두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보 방향의 대첨차는 교두형으로 내단부 위에 소로를 놓고 대들보를 받치고 있어 조선 중기 이후의 각된 보아지 형태로 변하기 이전의 기법으로 추정된다. 외1출목의 소로는 주심도리와 외목도리 중간이 아니라 외부 쪽으로 치우쳐 있으면서, 보 방향 내측 소첨차는 내부에서 둔중해 보이므로 두 단으로 곡선 처리하여 대첨차까지 점승하는 듯 의장처리를 하고 있다. 주심첨차 위에 뜯장여를 설치하고 소로를 끼우면서 간격을 띄워 장혀 받친 주심도리를 설치하고, 창방 위의 소로에서 주심첨차 소로 그리고 뜯장여 위의 소로로 이어지는 의장적인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주두 위의 주심첨차와 보 방향 첨차를 교차하여 소로 없이 대량을 설치하고 있으나 대량과 결구되는 뜯장여와 출목첨차 사이에는 소로를 설치하거나 소로 형상을 새겨 놓기도 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대첨차에는 내외에 모두 공간이 새겨져 있고, 익공계통의 공포에는 기둥머리에 창방 없이 도리 방향으로 초각형 첨

차를 설치하고 있다. 이와 같이 주심포식의 형식과 구성이지만 주두, 소로 그리고 침차 등의 규격이 다양하여, 고려 후기의 주심포식에 조선 초기의 전형적인 주심포식 공포와는 다르지만, 그 틀과 수법은 조선시대 중기 이전의 주심포에서 익공으로 변하기 전의 특성을 갖는 변화를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주심포의 구성 수법과 형태에서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 초기에 이르는 주심포 형식을 기본 틀로 하고, 조선시대 중기 이후와 이전의 형식과 구성 수법이 혼재된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익공 계통의 공포는 우주 귀포를 제외한 양쪽 측면 외진주 상부에 짜여져 남측면과 북측면에 공포는 초익공 계통이다. 기둥 위에 주두를 놓고 침차의 양단부 위에 소로를 놓고 장혀 받친 도리를 놓고, 장혀에 직교하여 층량을 설치하고 있다. 주두 위 보뿔목은 쇠서와 같이 다듬어 초익공의 연속된 형식으로 보이도록 하는 의장적인 처리를 하고 있다. 우주 위의 귀공포는 창방 없이 기둥머리에 익공계통과 초각한 침차를 직교하여 결구하고 주두를 놓았으며, 그 위에 장여 받친 도리를 모두 초각한 뿔목으로 처리하고 있다. 동남쪽 우주의 장혀 뿔목은 황룡과 청룡으로 초각하고 직교하여 운문처럼 초각하여 장식하고 있다. 동쪽에서 접근하여 정면성에 대한 의장적인 처리이고, 죽서루로의 주진입은 남쪽과 북쪽으로 진입하는데, 남쪽으로 위계를 드러내는 의장적인 처리로 추정된다. 익공계통의 형식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증축에 따른 변화이기도 하고 보수하면서 부분적으로 변형된 것으로 추정된다.

축부는 외목도리를 제외하고 하중을 분배하기 위한 삼분변작의 무고주5량가 1출목으로 포대공이 잘 짜여있고 가구의 비례와 균형 등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포대공은 크기가 다양하여 주두의 유형과 형태와 같이 중수와 중창의 흔적으로 추정되고, 3단의 장여가 도리 방향으로 건너지르게 되어 공간의 분할감을 주고 있다. 포대공을 설치하여 뜯장여를 겹쳐서 사용하는 가구법은 측면의 횡력에 견디게 하는 역할을 하고, 현존하는 고려시대나 조선 초기의 주심포 건물에서 볼 수 있는 수법이다. 증축된 틈간에 창방이 설치되지 않은 것은 익공계통으로 기존의 기둥보다 높게 설치되어 기둥머리를 연결하기 어렵다는 것은 결과론적인 추정이고, 오히려 기둥열이 맞지 않고 대량보다 낮게 설치되면 비례가 달라지고 개방감이 줄어들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창방은 각진 장방형의 단면을 하고 있어 네모서리를 둥글린 형상의 조선 중·후기와는 달리 조선 초기 이전의 형식으로 추정된다. 보머리는 삼분두 형태로 고식(古式)을 보여주고 있다. 정간 동측 보머리는 처마 내밀기가 짧으므로 많이 내민 특징을 이루고 있다. 층량은 하부의 익공 쇠서와 유사한 형태로 다듬어 놓아 이익공처럼 의장적인 처리를 하고 있으나, 보머리 너비는 쇠서처럼 줄이지 않고 몸통과 같이 다듬고 있다. 종보 상면에는 구멍이 있어 주심포식에 나타나는 솟을합장이 설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파련대공은 판재를 3단으로 겹쳐 하부에는 복화반 형태의 받침재 초각, 그 위로 당초문 형태의 초각, 상부에 파련 형태의 초각을 하고, 테두리에도 초각을 하고 있다. 복화반과 중당초문 초각에서 조산

초기의 고식(古式)의 흔적을 보이고 있다.

5칸이었을 경우 동쪽 정면에 1치 정도와 서쪽 배면에 1.5치 정도의 귀솟음을 두고 있고, 증축된 남측과 북측면의 기둥과 우주를 비교하면 1치 정도의 귀솟음을 두고 있어 시각보정을 고려하고 있다고 추정된다. 북측 면만 상부가 하부보다 넓고 나머지 삼면은 5푼 정도의 안쏠림을 주고 있다. 천장은 연등천장을 주로 하고 북2협칸 대들보 상부와 주심도리 받침장여 사이에 우물반자를 설치하고, 양측 외기도리 받침장여와 종량 사이에 눈썹반자를 설치하고 있다. 그리고 주심도리와 외목도리의 받침장여 사이에 순각반자를 설치하고 있다. 순각반자는 일반적으로 다포식에 많이 사용하지만 주심포 기둥 위에 사용한 특징을 보이고, 위계가 높은 부분에는 우물천장을 설치하고 있다. 지붕은 겹처마 팔작지붕이고, 사례는 추녀보다 춤이 커서 길게 돌출하여 구조적 안정감과 형태적 의장성을 고려하고 있다. 양곡은 정간 부분에서 추녀 쪽으로 완만하게 휘어 오르다 양단부가 중앙부보다 1.5~1.9자 정도의 양곡을 하고 있다. 안허리곡은 정면 0.9자 정도이고 후면 1자 정도, 남측면 0.7자, 북측면 1자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삼척 죽서루에는 삼척 죽서루에는 숙종과 정조의 어제시를 비롯한 글씨, 한시, 기문 등의 현판이 많았는데 1959년 9월 17일 태풍 사라의 영향으로 유실되고 현재는 28점이 남아 있다. 우선 ‘죽서루’ 2개(이성조, 작가미상), ‘관동제일루’(이성조), ‘제일계정’(허목), ‘해선유희지소’(이규헌) 등 별호(別號)를 새긴 현판이 5개는 건물을 바라보는 동쪽을 정면으로 하면서 출입을 위한 정면을 남쪽으로 하고 있고, 내부에서 바라보는 방향을 서쪽으로 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또한 기문(記文)을 쓴 현판이 4개, 기타 내용을 담고 있는 현판이 2개 걸려 있는데, 위치는 건물의 연혁 및 중수에 관련된 기록으로 주로 좌우 2협칸에 설치되고 있고 뒷간과 제1협칸에 설치하고 있다. 허목의 죽서루기는 북쪽 협칸에 설치하였는데 북쪽 증축이 이루어지기 전이므로 북쪽으로도 진입이 이루어졌거나 방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시문은 정조 어제시, 이율곡, 이구 등의 17개 안에 27편의 시가 들어 있다. 숙종의 어제시는 제1협칸에 설치하고 정조의 어제시는 정간에 설치하여 들어오면서 북쪽부터 위계적으로 배치하고 있다. 이승휴나 이구의 시는 제2협칸에 설치하고 정간에는 강정의 시가 설치되어, 5칸일 때 뒷간과 정간이 되므로 5칸에서 출발한 것으로 추정된다. 남쪽으로 증축 후에도 이율곡, 서성, 이준민, 양정호 등의 시를 정간과 협칸에 설치하고 있다. 북쪽으로 증축 후에도 정간과 협칸에 설치되나 북쪽 방향으로 설치하고 있다.

### 3. 지정가치 및 근거기준

삼척 죽서루에 대한 역사적 가치는 다음과 같다.

삼척 죽서루는 두타산과 태백산이 이루는 태백준령이 병풍처럼 펼쳐지고 가까이는 남

산, 근산, 봉황산 등이 누각을 에워싼 형국으로 삼신산(三神山)의 선경을 느끼게 하는 경지이다. 그리고 오십천은 오십굽이나 굽이쳐 흐르다 죽서루 하부에 깎아지른 절벽에서 태극형상으로 돌아나간다. 벼랑 위에서 맑은 응벽담의 고기떼가 노는 모습은 죽서루의 색다른 풍경이다. 오십천과 죽서루 및 절벽의 경관이 어우러진 곳에 자리잡아 아름다운 경관을 자아내고 있어 명승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러한 자연경관을 향유하도록 삼척 죽서루가 자리하게 되고 다시 자연과 하나 되어 풍광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누각이다.

삼척 죽서루(보물)를 포함하는 삼척도호부 관아지(사적), 삼척 죽서루와 오십천(명승)의 국가지정문화재가 있고, 주변에는 응벽헌, 용문바위와 성혈유적, 송강 정철 가사의 터표석 등이 있고, 동헌지, 관아(서별당), 연근당(죽서루 별관), 남문지, 진동루(동문루)지, 신라시대 수혈주거지, 고려시대 건물지 및 토성, 조선대 읍성(석성) 등의 터가 있다. 그리고 주변 바위벽에 琴石, 射壇, 觀德之所, 龍門(또는 巖門) 등의 암각자가 바위(21건), 절벽(191건) 등 212건이 남아있어 죽서루와 주변 경관에 대하여 장소의 선택과 활용 그리고 장소적인 성격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삼척 죽서루는 관영누각으로 일제강점기에 강제철거에도 남아 삼척도호부 관아유적이 사적으로 지정되고 복원되면서 옛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

삼척 죽서루와 관련된 인물은 시에 죽서루를 언급하여 창건연대가 1209년 이전으로 비정되는 김극기, 1266년 문집 ‘동안거사집(動安居士集)’에 서루(西樓)에 올라 시를 지었다’는 기록과 기녀 죽죽선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 죽서루를 세웠다는 전설과 연관된 이승휴, 1403년 폐허인 죽서루를 재건한 김효손, 1530년 죽서루의 남쪽 처마를 덧대어 지은 허확, 1788년 죽서루의 북쪽 처마를 덧대어 지은 서탁수, 1662년 ‘죽서루기(竹西樓記)’와 ‘서별당기(西別堂記)’를 짓고, 죽서루의 연혁과 왜 관동제일루인지 그 이유를 설명한 허목, 죽서루 아래에는 방수제(防水提)를 쌓고 빙월루(氷月樓), 원풍루(願豐樓), 해선유희지소(海仙遊戲之所) 등 3개의 현판을 쓴 이규현, 1580년 「관동별곡(關東別曲)」에 죽서루와 오십천의 절경을 노래한 정철 등이 있다.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숙종과 정조의 어제시부터 시인묵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이 죽서루를 소재로 한 현존시, 산문, 가사 등이 500여 편이 넘어 풍류공간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기록을 통하여 어떻게 삼척 죽서루와 주변 풍광을 향유했는지 각 시대별 정서와 풍취를 살펴볼 수 있다.

삼척 죽서루는 조선시대 삼척도호부 발굴 및 복원을 통해 객사였던 진주관(眞珠館)의 부속건물이자 관아시설로 활용되었던 누각임을 확인할 수 있다. 공공시설로 지방에 파견된 중앙관리들의 숙소에 딸린 접대와 향연을 위한 장소와 지방의 양반 사대부와 시인 묵객들의 정신수양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활용되었을 것이다.

예부터 시인묵객이 찾아와 청유하면서 시 한편 남기지 않는 사람이 없어 시문이 많기

로 이름이 있다. 죽서루의 역사적인 규명과 관련된 문헌기록, 누정에서의 감상을 기록한 문학작품, 죽서루를 소재로 한 그림과 현판 등을 들 수 있다.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등 지리지와 허목(許穆)의 『척주지(陟州誌)』를 비롯한 읍지 그리고 시문 등은 역사적인 규명과 관련된 문헌기록이 있다. 죽서루에 올라 느낀 감흥을 시문으로 남겼는데 죽서루를 노래한 시는 이승휴, 정조, 율곡 등을 비롯하여 현재 알려진 것만 500수를 넘을 정도로 죽서루에서의 감상을 기록한 문학작품이 있다. 그리고 정선의 『관동명승첩(關東名勝帖)』, 『관동십경첩(關東十景帖)』, 김홍도의 『金剛四郡帖』, 강세황(姜世晃)의 『풍악장유첩(楓嶽壯遊帖)』, 허필(許泌)의 『관동팔경도병(關東八景圖屏)』, 엄치욱(嚴致旭)의 『가장첩(家藏帖)』 등의 전통회화와 관동팔경도병 등의 민화 그리고 이성조의 ‘竹西樓’와 ‘關東第一樓’, 이규현의 ‘海仙遊戲之所’, ‘第一溪亭’등의 죽서루에 걸려 있는 현판 등 죽서루를 소재로 한 그림과 현판 등의 작품이 있다.

허목(許穆, 1595~1682)의 「죽서루기」에, 죽서루를 관동팔경 중 제1경으로 꼽으면서 누각 아래 죽장사라는 오래된 절이 있어 죽서루라고 한 것이나, 『기언(記言)』에서 죽서루를 세울 당시 동쪽에 대나무 숲이 있었고 그 속에 죽장사(竹藏寺)라는 절이 있어서 죽장사의 서편에 위치한 누각이라는 뜻으로 붙여진 것이 기원으로 추정된다. 김종언(金宗彦)의 『척주지(陟州志)』에는 죽서루의 유래를 죽장사설(竹藏寺說)과 더불어 기생 죽죽(竹竹)의 집이 누의 동쪽에 있어서 죽서루라고 하고 있다. 이 전설에 등장하는 이승휴가 1275년에 죽서루가 창건되었다는 것은 고려 명종연간에 활약한 김극기(金克己, 1148~1209)의 시 ‘죽서루(竹西樓)’가 확인되면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죽서루에 걸려 있는 한시 중 ‘陪安集使兵部陳侍郎(諱子侯)登眞珠府西樓次板上韻’은 1266년에 이승휴가 지은 시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당시 죽서루의 이름은 ‘西樓’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안축(安軸, 1282~1348)은 ‘삼척서루(三陟西樓)’라고 부르고 있고, 이구(李玖)는 ‘삼척의 관루’로 죽서루를 처음으로 지칭하고 있다. 이후 정추(鄭樞, 1333~1382), 안성(安省, 1344~1421), 서거정(徐居正, 1420~1488) 등이 죽서루를 언급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삼척 죽서루는 고려시대 ‘西樓’로 불렸으나 고려말 14세기 중반부터 ‘竹西樓’라고 불렀던 것이 이후 조선시대 초기에는 죽서루라고 명명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삼척 죽서루는 삼척도호부관아지에서 사용하던 중층 누각으로 오십천과 단애 위 암반 그리고 멀리는 태백준령과 두타산을 원경으로 크고 작은 산을 중근경을 활용한 지역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그리고 죽서루의 역사적인 규명과 관련된 문헌기록, 누정에서의 감상을 기록한 문학작품, 죽서루를 소재로 한 그림과 현판 등이 남아 있어 김극기의 시를 통해 최소한 고려 중기 이전에 건립되었고 당시에는 ‘西樓’로 불렸으나 고려말 14세기 중반부터 ‘竹西樓’라고 불렀던 것이 이후 조선시대를 지나 현재까지 죽서루라고 부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삼척 죽서루는 정확한 창건은 알기 어려우나 고려 중기에 활동하였던 김극기의 시를 통해 고려 중기 이전에 건립된 것을 알 수 있다. 이후 조선 전기에 재건되어 중창과 중수를 거듭하였지만 자리를 지키면서 변화와 함께 기록이 잘 남아있어 누정으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삼척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죽서팔경 그리고 관동팔경 가운데 가장 으뜸인 관동제일루로서 지형적인 특성을 이루는 오십천과 바다가 만나는 절벽 위에 지어진 중층누정이다. 사적인 삼척도호부 관아지, 명승인 삼척 죽서루와 오십천, 주변 용문바위와 성혈유적, 동헌지, 관아, 연근당, 진동루지 등의 터와 주변 암각자 등이 죽서루를 중심으로 연관되고 있고 장소적인 성격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이고 인문학적인 문화를 보존하기 위하여 보호구역 범위에 이를 포함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삼척 죽서루의 학술적 가치는 다음과 같다.

삼척 죽서루는 1662년 허목의 척주지와 죽서루기, 1788년 김종언의 척주지에 서탁수가 쓴 중수기가 전하고, 1921년 이학규의 중수기, 1947년 홍백련의 중수기, 1971년 홍종범의 중건상량문, 1991년 김광용의 중수기 등을 통해 조선시대 삼척 죽서루의 중창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고려 중기 이전에 창건되어 그 터의 위치에 1403년 김효손의 중창된 이후에 1530년 허확이 남쪽 처마를 내고 1788년 서탁수가 북쪽 후면 처마를 내는 등 여러 차례 중수를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중요한 사실은 고려 중기 이후에 원위치에 증축 및 중수되어 장소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고, 5칸 맞배지붕을 팔작지붕으로 고치면서 남쪽 처마를 증축(增作南檐)하고 남쪽을 정면으로 했을 때 누각 후면의 처마를 더 내어 증축(增作後檐)한 것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연혁을 통하여 원지형에 원형을 유지하면서 변화의 흔적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특성과 증축 과정에서 공간 사용에 따라 다르게 조성되는 지역성을 파악할 수 있다.

원경으로는 태백준령이 한 폭의 병풍처럼 펼쳐지고 오십천이 굽이쳐 동해로 이어지고, 중경으로는 근산(近山)과 갈야산(葛夜山), 봉황산(鳳凰山)이 솟아 있어 삼신산(三神山)의 선계(仙界)와 같고, 근경으로는 오십천(五十川)은 누각 밑의 깎아지른 듯한 절벽에 응벽담(凝碧潭)을 이루어 다양한 경관 요소들을 즐길 수 있다. 오십천을 비롯한 다양한 경관 요소에 대한 많은 시문 등으로 보아 죽서루는 관아와 객사에 부속된 접대와 향연 그리고 휴식 등을 목적으로 건립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오십천을 해자로 한 감시와 방비 등의 군사적 기능도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높이가 다른 자연암석 위에 기둥의 높이와 위치를 다르게 설치하여 지형 조건에 따른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 가운데 5개의 기둥은 비교적 균일한 치수를 하고 있어 5칸 규모에서 시작하였다고 추정된다. 남쪽으로 증축하고 남쪽을 정면으로 하였을 때 후면인 북쪽으로 다시 증축하고 있다. 북쪽 가운데 기둥은 자연 암반의 높이가 높아 귀틀을 걸기

어려우므로, 우물마루 귀틀을 받는 도리칸 기둥열에 맞춘 별도의 기둥을 세운 것은 지형적인 조건에 따른 이곳만의 특징이라고 추정된다.

이러한 자연조건에 자리한 지형적인 누정으로서의 공간 특성을 살펴볼 수 있다. 자연조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형적인 누정으로 계획하여 조성하고 있다. 오십천의 응벽담 절벽 위에 별도의 기단이 없이 남서북쪽으로 형성되어 있는 자연 암반을 초석으로 사용하고 부분적으로 인공석축 및 자연석 주초석으로 보완하고 있다. 바위로 된 길을 따라 3칸 진입공간을 통해 태백산 준령의 에워쌈과 절벽에서 오십천을 내려다보는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 진입공간을 남쪽으로의 주출입구와 북쪽을 2칸 진입 암석을 올라 부출입구를 조성하면서도 위계적인 구성을 하고 있다. 자연암반의 주어진 조건을 이용하여 주출입구와 부출입구로 활용하고 있다.

증축을 통해 이전의 형식을 유지하면서 이후의 창의적인 형식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칸에서 증축하면서 주출입구와 부출입구의 분리와 쓰임새에 따른 주칸 구성을 하고 있고, 우주를 도리통 주심열이 아니라 출목도리열에 맞추어 배열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헐칸에서 주심포와 익공의 다른 형식을 간결하면서 간결하게 맞추고 있고, 3칸 출입구에서 층량을 대들보에 끼워 연결하고 있다. 대들보가 외목도리까지 뻗어 그 상부에 주심도리와 출목도리를 받고 있다. 이러한 공간구성과 짜임새 그리고 세부수법 등을 통하여 증축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가운데 5칸은 맞배지붕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우주를 주심도리가 아니라 출목도리열에 맞추어 연장되어 주심도리는 증축에서 자유로워지며 증축 전 죽서루의 흔적을 남기고 있다. 주심도리 열의 단부는 헛첨차에서 장혀 받친 주심도리까지 교두형으로 4단을 내어 쌓아 올린 형태가 그대로 남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가운데 5칸은 주심포식이고 좌우뒤틀간은 익공계통으로 서로 다른 공포 양식을 사용하고 있다. 가운데 5칸의 주심포식은 주두 하부에 헛첨차와 직교하여 창방을 장혀 폭으로 하고 있어 여말선초의 형식으로 추정된다. 주심대첨차를 통첨차로 하여 보와 직교하여 결구하고, 보방향의 내부 헛첨차 위에 살미첨차를 통첨차로 하여 보를 받치도록 하고 있어 조선 초기 형식으로 추정된다. 헛첨차를 주심도리와 출목도리 사이에 놓아 하중을 받도록 하고 있어 주심포식 초기형식으로 추정된다. 보는 그대로 뿔목까지 빠지면서 보머리를 삼분두형식으로 하고 있어 조선 초기 형식으로 추정된다. 보 방향과 도리 방향의 첨차를 구분하지 않고 같은 형식으로 하여 교두형으로 하고 공간을 그림으로 처리하고 있어 차이는 있지만 부석사 조사당과 비슷한 고려 후기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고려 후기 주심포식이면서 장식을 절제한 부재 등에서 조선 초기의 양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남쪽을 1530년에 증축하면서 장혀의 춤을 높게 하고 뿔목을 용두로 초각하고, 뒤틀간의 초익공계통은 짧은 수서의 쇠서형으로 하고 간결하게 연봉을 새기고 있다. 남쪽의 후면

인 북쪽으로 1788년 처마를 증축하면서, 이전 익공계통의 형식을 따르면서 위계가 낮게 처리하는 양식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고려시대에서 조선 초기에 이르는 조선 중기 이전과 조선 중기 이후의 변화상이 혼재되어 시대변화에 따른 공포의 형식이 잘 드러나고 있다.

죽서루는 관아 누각의 부속건물로서 창건 이후 주변의 변화에도 자신의 자리에서 변화의 흔적으로 그대로 담고 있는 중요한 건축이다. 입지환경과 건축형태 등을 통해서 조선 초기의 건축양식으로 창건되었지만 이전의 양식과 증축하면서 조선 중기 이후의 양식을 지닌 누각이라고 할 수 있다.

삼척 죽서루의 예술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절벽 위에 놓인 누각이라는 보여지는 조건과 자연암반이라는 조건을 적극 활용하여 절벽 쪽으로 붙여 세워, 병풍처럼 둘러선 태백산의 에워쌈을 바라보고 오십천 응벽담을 내려다는 지역적인 특성을 활용한 지형적인 누각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판단된다. 죽서루가 누정으로서 웅장하고 아름다운 것을 넘어서 지형의 아름다움과 어우러진 장소성이 경관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관동팔경을 대표하는 ‘관동제일루’라는 것은 지역적인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명승으로 지정된 오십천과 사적으로 지정된 삼척 도호부 관아 등이 자연유산과 문화적인 가치가 어우러진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다. 나아가 누정을 통해서 태백산과 오십천의 아름다움을 절벽 위에서 조망하는 전망대를 통해 자연을 접하게 되는 누각이라고 판단된다. 즉 원경, 중경, 근경의 경관 요소를 활용한 관아의 누정으로, 접대와 향연 그리고 정신수양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나아가 이상세계를 표현하고 있다.

증축을 통해 이전의 형식을 유지하면서 이후의 창의적인 형식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구재에 대하여 신재를 같이 사용함으로써 변화의 흔적을 한 건물로 볼 수 있다. 5칸에서 증축하면서 남쪽을 진입공간으로 조성하여 주출입구와 부출입구의 분리와 쓰임새에 따른 주칸 구성을 하고 있다. 5칸 맞배지붕에서 남쪽 팔작지붕을 부가한 맞배지붕으로 북쪽 팔작지붕을 부가하여 증축되는 과정을 볼 수 있다. 기둥은 자연암반의 조건에 따라 우주를 출목도리열에 맞추어 배열하고 있고, 우물마루 귀틀을 받는 도리칸 기둥열에 맞춘 별도의 기둥을 세우고 있어 지형적인 조건에 따른 특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가운데 5칸은 고려 후기 주심포식이면서 장식을 절제한 1403년 조선 초기의 양식을 보이고 있고, 남쪽을 조선 중기 이전의 익공계통으로 증축하고, 남쪽의 후면인 북쪽을 조선 중기 이후의 익공계통의 양식으로 증축하여 서로 다른 공포 양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주심포와 익공의 결합을 창의적으로 이루어내고 있다.

남측면을 주출입구로 설정하기 위해 세칸으로 구성하여 중심성을 강조하고, 반면 북측

면은 2칸으로 구성하여 가운데 기둥을 중심으로 좌우로 음식이 들어오고 나가는 출입 구임을 강조하였다.

남동 우주 상부의 장여뿔목은 청룡과 황룡을 조각하여, 진입하면서 잘 보이도록 의장적 배려를 하고 있다. 이러한 장식화는 증축과 같은 시기로 보기는 어렵고 17C 후반 이후에 나타나는 경향으로 추정되므로 1726년 최도문에 의한 중창(重創) 때 부가된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게 추정해본다.

익공 위의 보머리를 쇠서 형태로 조각하여 이익공처럼 보이도록 장식하였다. 남측면 어칸 부분의 진입부에는 남측 첫번째 대량 중앙에 죽서루 현판을 걸어 놓아 출입 공간의 방향성을 고려하였다. 어칸에 사용된 2개의 대량이 협칸에 사용된 대량보다 단면이 큰 것을 사용함으로써 구조적으로 어칸에 보다 비중을 두었다. 천장을 구성하면서 기능상 연등천장이 주이고 보조적으로 눈썹천장과 순각천장이 사용되었지만, 공간적 위계성을 강조하기 위해 우물천장을 사용함으로써 계층별 사용 천장의 다양성을 보여준다. 출입과 관련하여 남·북측면에는 평난간을, 시선의 방향과 관련되는 정면과 배면에는 계자난간을 설치함으로써 기능적 측면과 미관적 측면을 고려하여 난간을 설치하였다.

죽서루는 주어진 지형 조건과 증축과정에서 안정감 있게 보이도록 시각 및 의장적인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기둥을 배열하는데 일반적으로 뒷간이 넓어보이므로, 좁게 하여 입면을 구성하는데 기둥을 놓는 자연암반의 조건에 따라 보정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운데 5칸은 주칸에서 정간을 협간보다 약간 크게 잡고 뒷간은 작게 잡아 시각적으로 뒷간이 넓어 보이는 것을 보정하고 있다.

1530년 남쪽으로 처마를 증축하면서 자연암반에 최대한 기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협칸과 같이 주칸을 잡고, 1788년 후면으로 처마를 증축하면서 자연 암반 때문에 우물마루 귀틀을 받는 도리칸 기둥열에 맞춘 별도의 기둥을 세우면서 남쪽과 같은 크기와 형식으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1530년과 1788년 증축에서 기둥을 외목도리선에 맞추고 있는 것은, 주요 조망점인 동쪽에서 보면 앞으로 나와 기둥이 굽어 보이도록 하고, 넓어 보이는 것을 후면의 기둥이 사이에 중첩되도록 하여 보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남쪽 진입에서 가운데 칸의 기둥을 약간 가늘게 해서 상대적으로 우주가 굽어보이도록 시각 보정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증축 과정에서 남쪽은 협칸과 같이 주칸을 잡고, 남쪽의 후면은 귀틀을 받는 별도의 하층 기둥을 세우면서 남쪽과 같은 주칸과 형식으로 설정하여 시각적인 보정을 하고자 하였다. 또한 기둥을 외목도리선에 맞춘 배열은 자연암반 조건만이 아니라, 주요 조망점인 동쪽에서 보면 앞으로 나와 기둥이 굽어 보이도록 하고, 후면 기둥이 넓어 보이는 것을 사이에 중첩되도록 하여 보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층기둥의 민흘림 기법과 상층기둥의 배흘림 기법을 통해 시각적인 안정감을 주고, 우주의 귀솟음을 통하여 시각보정을 하고 안솔림을 통하여 모서리 기둥이 건물바깥쪽으로 기울어져 보이는 착시현상을 보정하고 있다.

삼척 죽서루는 응벽의 절경에 자리하여 태백산과 오십천을 조망대상으로 하는 조망 가치로서의 누정, 명승 오십천과 사적 삼척도호부 등의 주변과의 관계에서의 집지, 자연 조건에 대한 지형적인 누정으로서의 공간특성, 증축을 통한 창의적인 세부수법과 구조적인 특성과 세부수법, 시각이나 착시 등에 대하여 시각적인 안정감을 주기 위한 특성 등이 잘 나타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삼척 죽서루는 장소적인 측면에서 주어진 자연적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여 죽서루를 동화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지형적인 누정건축을 계획하고 있다. 시대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조건을 반영하면서 이전의 양식을 존중하고 새로운 형식을 적용하여 다양성이 드러나지만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탁월한 구성을 통해 아름다운 이상세계를 구현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역사적인 측면에서의 연혁과 변화과정을 확인할 수 있고, 문화사적인 측면에서 문학작품 및 기여도가 우수하고, 예술적인 측면에서 증축과정의 흔적이 남아 특수성, 우수성, 창의성 등이 우수하고, 학술적인 측면에서 대표성, 지역성, 특이성 등에서 국가지정문화재(국보)로서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삼척 죽서루는 지형적인 특성을 이루는 오십천과 바다가 만나는 절벽 위에 지어진 중층누정으로 지형 및 경관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적인 삼척도호부 관아지, 명승인 삼척 죽서루와 오십천, 주변 용문바위와 성혈유적, 동헌지, 관아, 연근당, 진동루지, 토성 및 석성 등의 터와 바위 벽에 암각자 등이 죽서루를 중심으로 연관되는 장소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어 역사 인문학적인 문화를 보존하기 위하여 보호구역 범위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의 연구에 의해서 죽서루 그림에 나타나는 실의 위치와 규모, 하층의 벽체 및 아궁이 등을 밝혀가야 할 것으로 기대한다.

### <종합의견>

삼척 죽서루는 장소적인 측면에서 주어진 자연적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여 죽서루를 동화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지형적인 누정건축을 계획하고 있다. 시대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조건을 반영하면서 이전의 양식을 존중하면서 새로운 형식을 적용하여 다양성이 드러나지만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탁월한 구성을 통해 아름다운 선경을 구현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역사적인 측면에서 사적인 삼척도호부관아지에서 사용하던 중층 누각으로 명승인 오십천과 단애 위 암반 그리고 멀리 태백준령과 두타산을 원경으로 크고 작은 산을 중근

경을 활용한 문화지리적인 특성을 지닌다.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숙종과 정조의 어제시부터 시인묵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이 죽서루를 소재로 한 현존 시, 산문, 가사 등이 500여 편이 넘는 풍류공간의 산실이다. 정확한 창건은 알기 어려우나 고려 중기에 활동하였던 김극기의 시를 통해 고려 중기 이전에 건립되어 조선 전기에 재건되어 중창과 중수를 거듭하였지만 자리를 지키면서 변화와 함께 기록이 잘 남아있어 누정으로 시대적 특성을 지닌다는 가치가 있다.

### ※ 대상 문화재의 핵심 보존가치

-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숙종과 정조의 어제시부터 시인묵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이 죽서루를 소재로 한 현존 시, 산문, 가사 등이 500여 편이 넘는 풍류공간의 산실
- 정확한 창건은 알기 어려우나 고려 중기에 활동하였던 김극기의 시를 통해 고려 중기 이전에 건립
- 이후 조선 전기에 재건되어 중창과 중수를 거듭하였지만 자리를 지키면서 변화와 함께 기록이 잘 남아있어 누정으로 시대적 특성
- 사적인 삼척도호부관아지에서 사용하던 중층 누각으로 명승인 오십천과 단애 위 암반 그리고 멀리는 태백준령과 두타산을 원경으로 크고 작은 산을 중근경을 활용한 문화 지리적인 특성
- 삼척 죽서루는 1662년 허목의 척주지와 죽서루기, 1788년 김종언의 척주지에 서탁수가 쓴 중수기 그리고 중수기와 상량문을 통한 연혁의 명확성
- 고려 중기 이전에 창건되어 그 터에 1403년 김효손의 중창, 1530년 허확이 남쪽 처마 증축, 1788년 서탁수가 북쪽 후면 처마 증축한 관동팔경의 제일루로서 장소성
- 원경, 중경, 근경의 다양한 경관 요소들을 즐기면서 접대와 향연 그리고 휴식 등을 목적으로 건립되어 극적인 장면 연출
- 원지형에 원형을 유지하면서 변화의 흔적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특성과 증축 과정에서 공간사용에 따라 다르게 조성되는 특성
- 우주를 출목도리열에 맞추어 배열하는 과정에서 험칸에서 주심포와 익공의 다른 형식, 3칸 출입구에서 수평적인 층량을 대들보에 끼워 연결, 대들보가 외목도리까지 뻗어 그 상부에 주심도리와 출목도리 지지 등으로 증축하고. 주심도리 열의 단부는 헛침차에서 장혀 받친 주심도리까지 교두형으로 4단을 내어 쌓아 올린 흔적을 그대로 남기고 있어. 증축을 통해 이전의 형식을 유지하면서 이후의 창의적인 형식으로 이어지는 특이성
- 가운데 5칸은 주심포식이고 좌우뒤틀간은 익공계통으로 서로 다른 공포 양식을 사용한

## 특이성

- 주심포식의 주두 하부에 헛침차와 직교하여 창방을 장혀 폭으로 하고, 침차를 통침차로 보를 받치고 있고, 헛침차를 주심도리와 출목도리 사이에 놓아 하중을 받도록 하고, 보는 그대로 뺄목까지 빠지면서 보머리를 삼분두형식으로 하고, 보 방향과 도리 방향의 침차를 구분하지 않고 같은 형식으로 하고 교두형에 공간을 그림으로 처리하고 등 고려 후기 주심포식이면서 장식을 절제한 부재 등에서 조선 초기의 양식을 보이는 특성
- 관동팔경을 대표하는 ‘관동제일루’라는 것은 지역적인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명승으로 지정된 오십천과 사적으로 지정된 삼척도호부 관아 등이 자연유산과 문화적인 가치가 어우러진 조망가치
- 증축을 통해 주칸 구성, 지붕 형식 변화, 구재와 신재 혼용 등 이전의 형식을 유지하면서 이후의 창의적인 형식으로 이어지고 변화의 흔적을 확인
- 주심포와 익공의 결합을 창의적으로 표현하여 가운데 5칸은 고려 후기 주심포식이면서 장식을 절제한 1403년 조선 초기의 양식을 보이고 있고, 남쪽을 조선 중기 이전의 익공계통으로 증축하고 남쪽의 후면인 북쪽을 조선 중기 이후의 익공계통의 양식으로 증축하여 서로 다른 공포 양식을 사용
- 다양한 천장 형식과 난간 등에서 의장성과 공간적 위계성
- 기둥 배열과 중첩, 하층기둥의 민흘림 기법과 상층기둥의 배흘림 기법, 우주의 귀솟음과 안솔림 등 주어진 지형 조건에서 증축과정에서 안정감 있게 보이도록 시각 및 의장적인 창의성
- 남쪽을 증축하면서 장혀의 춤을 높게 하고 뺄목을 용두로 초각하고, 뒤틀간의 초익공계통은 짧은 수서의 쇠서형으로 하고 간결하게 연봉을 새기는 등의 의장성

## <삼척 죽서루 현판>

### 1) 편액(扁額)

편액사진	번역
	<p>이성조-죽서루(竹西樓)/관동제일루(關東第一樓) 죽서루의 정면에 걸린 '竹西樓'와 '關東第一樓' 현판은 이성조(李聖肇)의 글씨이다. 가 썼다. 이성조는 1710년(숙종 36) 11월에 삼척 부사로 왔다가 1712년(숙종 38) 10월에 장령(掌令)으로 옮겨갔다. 서체는 행서체(行書體)이다.</p>
	<p>이규헌-해선유희지소(海仙遊戲之所) 이 현판의 글씨는 삼척 부사를 지낸 이규헌(李奎憲)의 작품이다. 이규헌은 1835년(헌종 1) 7월에 삼척 부사로 왔다가 1839년(헌종 5)에 능주 목사로 옮겨갔다. 그는 재임동안 부세(賦稅) 감면, 유생 교육, 백성 교화에 노력하여 선정(善政)을 펼쳤고 많은 업적을 남겼다. 그가 떠난 후 선정비(善政碑)와 흥학비(興學碑)를 세웠다. 재임기간이 1년 남짓인 지방 수령의 평균 재임기간을 고려하면 상당히 오랜 세월 삼척부사로 재임하였다.</p>
	<p>작자미상-죽서루(竹西樓) 이 현판의 글씨 '竹西樓'는 누구의 작품인지 알 수 없다.</p>
	<p>허목(?)-제일계정(第一溪亭) 이 현판의 글씨 '제일계정(第一溪亭)'은 삼척 부사를 지낸 허목(許穆)의 작품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허목의 글씨는 아닌 듯하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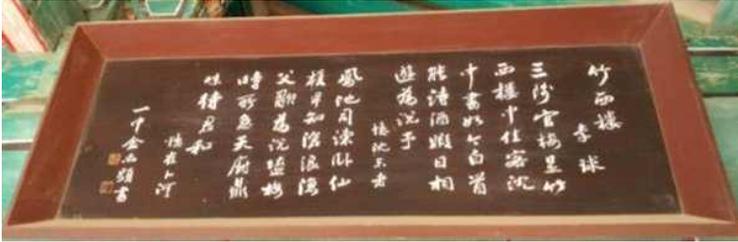
2) 제영(題詠)

필자	번역
<p>서성-五十川韻 서성(徐滂, 1558-1631).인조반정 후 병조·호조판서 역임. 이 현판에는 그의 시 5편이 새겨져있음.</p>	<p>우보산에서 흘러내린 오십천의 물 모래는 깨끗하고 이끼는 푸르구나 구불구불 휘돌아가니 몇 구비던가 마흔일곱 번이나 휘돌아서 흐르네 깊이는 허리나 또는 무릎까지인데 돌부리들이 나의 발을 찌르는구나 때맞추어 나타난 빨래하는 여인은 얼굴이 백옥과도 같이 새하얗구나 오십천 동서쪽에 자리잡은 집들은 사립문이 깊숙한 골짜기를 가리네 마음만 같아서는 쫓아가 노닐면서 은근하게 정담을 주고받고 싶지만 춘삼월에 만나자고 약속을 했기에 한번 승낙했으니 머물지는 못하네 물길을 따라서 쓸쓸히 돌아오려니 바람이 간간이 대나무숲을 울리네</p>
<p>원문</p> <p>川自牛山來 沙明苔蘚綠 縈紆何盤盤 四十七回曲 深厲淺則揭 石齒嚙我足 時見浣紗女 白皙顏如玉 家住水東西 柴扉掩幽谷 我欲從之遊 微辭屢往復 佳期在桃月 一諾終不宿 沿流惆愴歸 疎風響修竹</p>	



필자	번역
<p>서증보-敬次/忠肅先祖板上韻 서증보(徐曾輔, 1813~?). 1870년(고종 7) 3월 삼척부사로 부임. 이 현판에는 그가 쓴 시 3편이 새겨져 있음.</p>	<p>삼가 선조 충숙공의 판상시를 차운하다 바닷가에 있는 고을의 좋은 관리가 되어 공무 끝내고 죽서루에서 한가히 책 읽네 오십천은 신선들 사는 삼천리 약수 같고 누각은 바람 시원한 오백 칸 범왕궁일세 흐르는 물은 이처럼 밤낮으로 쉬지 않고 바라보매 더 멋진 산봉우리 그 몇이던가 선조의 시판을 닦으니 감회 더욱 새롭고 왕고가 남긴 현산비 같아 눈물이 나누나</p>
<p>원문</p> <p>敬次忠肅先祖板上韻 海上猶能做好官 竹樓公退讀書閒 仙居弱水三千里 梵宇清風五百間 逝者如斯無晝夜 望之尤美幾峯巒 己拚先祖詩多感 王考遺碑似峴山</p>	



필자	번역
<p>이구-竹西樓 이구(李球)는 고려 충정왕 2년(1350)에 생원이 되고, 후에 목사(牧使)에 이름. 이 현판에는 그가 쓴 시 ‘죽서루(竹西樓)’ 2편이 있는데, 일중 김충현의 글씨를 새겨 놓음. 하나는 심동로를 생각하며 쓴 시이고, 또 하나는 최복하를 생각하며 쓴 시임.</p>	<p>삼척의 관루는 바로 죽서루인데 누중 반가운 손님은 심중서로다 백발이면서도 시와 술을 잘하니 여가에 모여 놀면서 이야기하네 심동로를 생각하며</p> <p>봉지의 시간을 지내고 선사에 누워서 일찌기 창랑수의 어부가 뜻을 알았네 염매를 맛있게 만드는 것이 시급하니 수라간에서 그대 조리 솜씨 기다리네 최복하를 생각하며</p>
원문	
<p>三陟官樓是竹西 樓中嘉客沈中書 而今白首能詩酒 暇日相遊爲說予 憶沈東老</p> <p>鳳池司諫臥仙槎 早和滄浪漁父歌 爲說鹽梅時所急 天廚鼎味待君和 憶崔卜河</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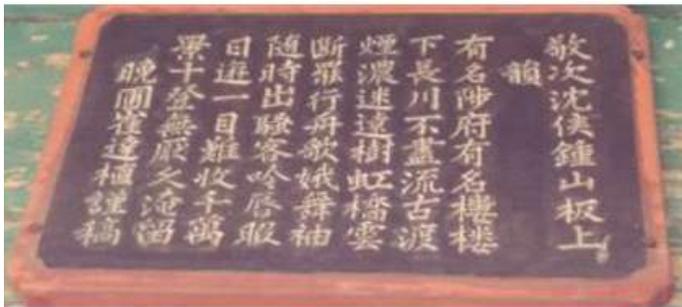
필자	번역
<p>숙종어제(肅宗御製) 이 현판에는 조선 19대 왕인 숙종이 쓴 시 ‘죽서루(竹西樓)’와 이 시를 죽서루에 걸게 된 사유를 설명한 삼척 부사 이상성(李相成)의 글이 새겨져 있다.</p>	<p>위태로운 벼랑에 드높이 솟은 백척 누각 아침 구름 저녁 달그림자 청류에 비치고 맑고 깨끗한 물결 속에 물고기 뛰노는데 한가히 누각 난간에 기대 물새 희롱하네</p>
원문	
<p>碑兀層崖百尺樓 朝雲夕月影清流 粼粼波裡魚浮沒 無事凭欄狎白鷗</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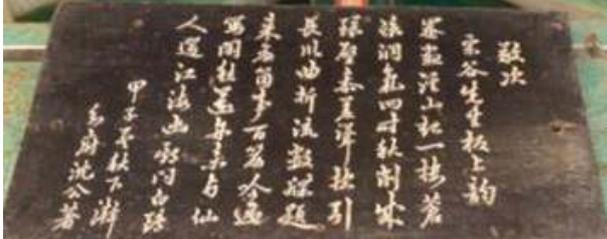
필자	번역
<p>이준민-敬次石川 이준민(李俊民)이 1559년에 석천의 시를 차운하여 쓴 시와 이준민의 증손 강릉 부사 이지무가 1657년(효종 8)에 역시 같은 운자로 쓴 시, 그리고 이준민의 5대 손으로 삼척 부사를 지낸 이성조가 1711년에 같은 운자를 사용하여 쓴 시가 새겨져 있음.</p>	<p>삼가 석천의 시를 차운하다 세상일에는 전혀 무심한 나그네가 강호에 살겠다 사람들과 약속했지 까마득한 죽서루에 저녁노을 지니 헛되이 옛 동산에서 봄을 보내노라 1559년 음력 5월 13일 全義李俊民 전의 이씨 이준민</p>
<p>원문 敬次石川 天地無心客 江湖有約人 斜陽樓百尺 虛送故園春 己未仲夏旬三</p>	

필자	번역
<p>서호순-敬次藥峯先祖板上韻 1846년 삼척 부사 부임. 1847년 자기 선조 서성의 시를 차운하여 지은 시 2편이 새겨져 있음.</p>	
<p>원문 敬次藥峯先祖板上韻 自憐潦到未休官 晚着名區特地閑 百尺樓臨湖海上 四時人在宕台間 川流自位逢層壁 蜃氣休侵障列巒 先蹟猶傳棠下詠 後孫空醉孟陽山 宦跡圻湖舊俗流 栖遲天餉七分樓 緬惟吾祖檐帷駐 非直當年麗藻留 坐對空濶渾是畫 俯臨澄碧自疑鷗 丹砂未必求句漏 白首眞堪寄此州 丁未孟冬後孫灝淳</p>	<p>삼가 약봉 선조의 판상시에서 차운하다 늙어서도 벼슬 그만두지 못한 것 서글웠는데 늘그막에 경치 좋은 곳에서 한가롭게 지내네 까마득한 누각 호수와 바닷가에 다가가서 있고 사계절 내내 사람들은 오재공의 터에 있나니 넋물은 저절로 흘러 높다란 절벽에 부딪히고 신기루는 늘어선 산들에 막혀 침범하지 않네 선조의 자취 외려 당하제명기 읊음에 전하고 후손은 맹양산에서 괜스레 술에 취해 있구나 벼슬살이의 자취는 기호의 옛 풍속에 흐르고 편히 쉬라고 하늘이 칠분루 고을에 보내셨네 돌아보면 우리 선조의 수레 머물렀던 곳인데 그때의 아름다운 글만 남아있는 것이 아닐세 앉아서 안개 바라보자니 온 천지가 그림같고 푸르른 오십천 내려다보니 갈매기라도 된 듯 단사를 꼭 구루산에서만 구할 필요가 있을까 늙었어도 이 고을에서 벼슬살이 할 만하구나 1847년 음력 10월 후손 호순</p>

필자	번역
<p>정조어제(正祖御製) 정조가 김홍도의 죽서루도를 보고 난 뒤 그 소감을 담아 지은 시가 실려 있음. 글씨는 김충현 작품.</p>	<p>바위 쪼고 절벽 깎아 누각을 세웠는데 누각 옆 푸른 바닷가에 갈매기 노니네 죽서루 있는 고을 태수 뉘집 아들인가 미녀들 가득 신고 밤새 뱃놀이 하겠네</p>
<p>원문</p>	
<p>彫石鑿崖寄一樓 樓邊滄海海邊鷗 竹西太守誰家子 滿載紅粧卜夜遊</p>	

필자	번역
<p>최달식-敬次沈侯鍾山板上韻 만포(晩圃) 최달식(崔達植)이 심 부사 종산의 시를 차운하여 쓴 시가 새겨져 있음. 최달식은 삼척향교의 전교(典敎)를 지냄.</p>	<p>삼가 심후 종산이 쓴 판상시를 차운하다 저 유명한 삼척부에서도 이름 난 죽서루 누각 아래 긴 오십천은 끝없이 흘러가네 나루터에 안개 끼니 먼 나무들 흐릿하고 홍교에 조각 구름 걸리자 뱃놀이 멈추네 미인 가수 춤추는 소매 때때로 휘날리고 시인은 노래하며 한가한 날 즐기고 있네 한 번에 감상하기 어려운 수많은 절경들 수없이 올라도 싫지 않아 오래 머무르네</p>
<p>원문</p>	<p>만포 최달식 삼가 쓰다</p>
<p>敬次沈侯鍾山板上韻 有名陟府有名樓 樓下長川不盡流 古渡煙濃迷遠樹 虹橋雲斷罷行舟 歌娥舞袖隨時出 騷客吟唇暇日遊 一目難收千萬景 十登無厭久淹留 晩圃崔達植謹稿</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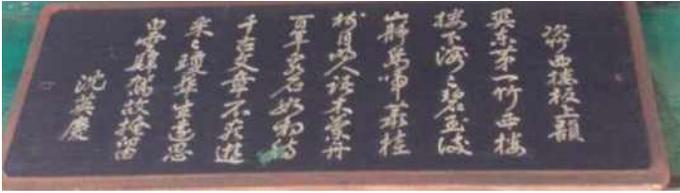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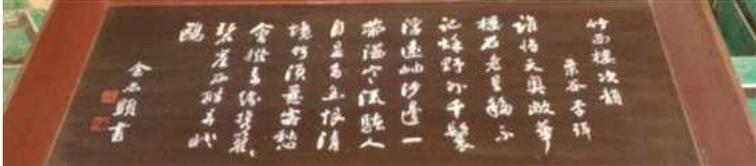
필자	번역
<p>심공저-敬次栗谷先生板上韻            심공저(沈公著)는 1804년(순조 4) 2월에 삼척 부사로 부임. 그가 1804년 율곡 이이의 시를 차운하여 쓴 시가 새겨져 있음.</p>	<p>삼가 율곡 선생의 판상시에서 차운하다 아름다운 강산에 누각 하나 우뚝 솟았는데 서늘한 골짜기 기운 사시사철 가을 같구나 깎아지른 듯한 환벽은 들쭉날쭉 솟아 있고 잡아늘인 듯한 긴 냇물 구불구불 흘러가네 몇 장의 공문서 가져왔지만 별일도 아니니 노래하며 지내는 건 근심 없애기 위함일세 연밥 따는 일엽편주는 신선 만나지 못하여 강과 바다의 비밀한 기약 백구에게 묻누나            1804년 음력 7월 하순 부사 심공저</p>
<p>원문            敬次栗谷先生板上韻            罨畫溪山起一樓            蒼涼洞氣四時秋            削成環壁參差聳            控引長川曲折流            數牒題來無箇事            百篇吟過寫閑愁            蓮舟未與仙人遇            江海幽期間白鷗            甲子孟秋下澣知府沈公著</p>	

필자	번역
<p>양정호-竹西樓敬次栗谷先生韻            양정호는 1728년 삼척 부사 부임. 그가 1728년에 율곡 이이의 시를 차운하여 쓴 시가 새겨져 있음.</p>	<p>삼가 율곡 선생의 죽서루 시에서 차운하다 높다란 절벽에 날아갈 듯이 솟은 누각은 삼복 찌는 더위에도 가을 같이 시원하네 먼 산봉우리 아지랑이 끼어 은은한 자태 시냇물은 방초 사이로 깊고 알개 흐르네 아름다운 난간과 온갖 물색은 시의 소재 술자리 울려 퍼지는 노래에 수심 사라져 명승에서 숨어 사는 관리 절로 부끄럽고 강호와 맺은 굳은 약속 물세에게도 졌네            1728년 몹시 더운 날 부사 양정호 쓰다</p>
<p>원문            竹西樓敬次栗谷先生韻            蒼崖陡起架飛樓            三伏炎蒸爽似秋            遠岵浮嵐濃淡態            晴川芳草淺深流            雕欄物色添詩料            錦席絃歌散客愁            吏隱名區翻自愧            江湖一約負沙鷗            戊申流金日知府梁廷虎稿</p>	

필자	번역
<p>정규형-謹次/栗谷先生板上韻 정규형(鄭奎亨)이 을곡 이이의 시를 차운하여 쓴 시가 새겨져 있음. 또 낙정의 후손 정연택이 그의 시를 차운하여 쓴 시와 글도 있음.</p>	
원문	
<p>謹次栗谷先生板上韻 羸驂御却倚高樓 三伏炎天爽似秋 簾外碧峯浮遠黛 檻前蒼壁帶清流 千年勝地逢佳節 一夕奇遊洗客愁 形役半生頭欲白 幾時投綬伴沙鷗 樂靜 鄭奎亨</p>	<p>삼가 을곡선생의 판상시를 차운하다 지친 마부 돌려보내고 높은 누각에 기대어 서니 삼복 더운 날씨에 시원함이 가을 같구나 발 너머 푸른 산봉우리는 미인의 눈썹처럼 떠있고 난간 앞 푸른 절벽에는 맑은 물 빙 둘러 있네 천년 명승지에다 좋은 계절 만났으니 하루 저녁 특별한 놀이에 나그네 근심 사라지네 마음 고생 반평생에 머리가 백발이 되려 하니 어느 때 사직하고 모래 위 갈매기와 벗할까 낙정 정규형</p> 

필자	번역
<p>이승휴-陪安集使兵部陳侍郎(諱子俟) 登眞珠府西樓次板上韻 이승휴(李承休)가 안집사(安集使) 병부시랑(兵部侍郎) 진자사(陳子俟)와 함께 죽서루에 올랐다가 판상의 시를 차운하여 쓴 시가 새겨져 있음.</p>	
원문	
<p>眞珠府西樓次板上韻 半空金碧駕崢嶸 掩映雲端舞棟楹 斜倚翠岩看鵲舉 俯臨丹檻數魚行 山圍平野圓成界 縣爲高樓別有名 便欲投簪聊送老 庶將螢燭助君明 李承休</p>	<p>안집사 병부시랑 진자사를 모시고 진주부 서루에 올라 판상의 시를 차운하다 높은 하늘 고운 색채 높고 험준함을 더하는데 햇빛 가린 구름조각 용마루와 기둥에서 춤추는구나 푸른 바위에 비스듬히 기대어 날아가는 고니 바라보고 붉은 난간 잡고 내려다보며 노니는 물고기 헤아려 보네 산은 들판을 빙 둘러싸 둥그런 경계를 만들었는데 이 고을은 높은 누각 때문에 매우 유명해졌구나 문득 벼슬 버리고 노년을 편안하게 보내고 싶지만 작은 힘이나마 보태 임금 현명해지기를 바라네 이승휴</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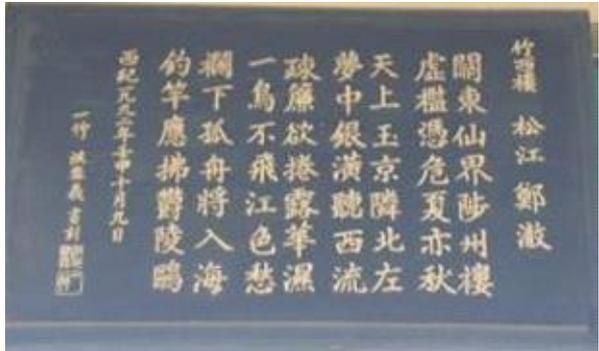
필자	번역
<p>심영경-次竹西樓板上韻            심영경(沈英慶)은 1875년 삼척 부사 부임. 죽서루 판상의 시를 차운하여 쓴 시가 새겨져 있음. 재임동안 유생 교육과 백성들의 세금 감면에 힘씀.</p>	<p>죽서루에서 판상시를 차운하다            대관령 동쪽에서 제일 가는 누각 죽서루 누각 아래로 푸른 물 도도히 흐르는구나            고요한 산 계수나무 숲에선 새들이 울고 달 밝고 거룻배에선 사람 말소리 들리네            백년토록 샘과 바위 나를 기다린 듯한데            천고의 문장으로도 다 표현할 수 없구나            아름다운 꽃들 옛 추억 떠오르게 하는데            흰구름 보고 돌아가는 수레 잠시 멈추네</p>
<p>원문            次竹西樓板上韻            關東第一竹西樓            樓下溶溶碧玉流            山靜鳥啼叢桂樹            月明人語木蘭舟            百年泉石如相待            千古文章不盡遊            采采瓊華生遠思            白雲歸駕故掩留</p>	

필자	번역
<p>율곡 이이-竹西樓次韻            율곡이 죽서루에 있는 시를 차운하여 쓴 시 한 편이 새겨져 있다. 글씨는 일종 김충현 작품. 1558년 이이는 처가인 성주에서 안동 예안의 도산에 들러 이황을 만나 이틀 동안 학문에 대한 견해를 주고받은 뒤 강릉의 외가로 떠났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때 삼척을 지나는 길에 죽서루에 들렀을 것으로 추정됨.</p>	<p>죽서루에서 차운하다            누가 하늘 받들어 화려한 누각을 세웠나            하염없이 지나온 세월 기억할 수도 없네            멀리 들판 밖에는 수많은 산들 떠있는데            모래사장 가까이엔 맑은 물 차게 흐르네            시인은 절로 그윽한 한이 많다고 하지만            맑은 경지에 어찌 나그네 수심 일으키리            온갖 인연 떨쳐버리고 긴 낚싯대 들고는            절벽 서쪽 물가에서 조는 물새와 놀까나</p>
<p>원문            竹西樓次韻            誰將天奧敞華樓            石老星移不記秋            野外千巒浮遠岫            沙邊一帶湛寒流            騷人自是多幽恨            清境何須惹客愁            會撥萬緣携籊籊            碧崖西畔弄眠鷗</p>	

필자	번역
<p>윤승로-題竹西樓 1933년부터 4년간 삼척 군수를 역임하였던 윤승로가 1961년에 쓴 시가 새겨져 있음.</p>	<p>죽서루를 읊다 두타산 끝자락에 높은 누각 우뚝 솟았는데 누각 아래로 긴 강은 끊임없이 흘러가누나 깎아지른 듯한 층암절벽 병풍처럼 서 있고 물고기는 오십 구비 냇물 따라 놀고 있구나 죽서루는 지금 천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데 옛 글들은 초가을 뱃놀이를 생각나게 하네 예로부터 여기는 현인 달사가 놀던 곳인데 나는 그때 삼척땅 다스릴 걱정만 하였구나 단기 4294년 1월 1일 전군수 윤승로</p>
<p>원문 題竹西樓 頭陀山落起高樓 樓下長江不盡流 巖削二三層壁立 魚迴五十谷川游 誇今棟宇千年史 懷舊文章七月舟 古來賢達逍遙地 余亦當時百里憂 檀紀四二九四年一月一日, 前郡守, 尹昇老</p>	



필자	번역
<p>송강 정철-竹西樓 이 현판은 정철의 시 '죽서루'를 1992년 10월 9일 홍태의가 서각해 놓은 것.</p>	<p>죽서루 송강 정철 관동에서 경치 좋기로 소문난 척주의 누각 커다란 난간에 위태롭게 기대서니 여름 또한 가을 구나 하늘나라 서울 옥경(玉京)은 북쪽 왼편에 이웃해 있어 마음을 가다듬으니 은하수 서쪽으로 흘러가는 소리 들리네 성긴 발 걸으려 하니 빛나는 이슬 축축하고 한 마리 새조차 날지 않으니 강가의 경치 수심 가득하구나 난간 아래 외로이 떠있는 배 바다로 들려 하는데 낙시대 울릉도 가는 갈매기 쫓아 휘두르네</p>
<p>원문 竹西樓 松江 鄭澈 關東仙界陟州樓 虛檻憑危夏亦秋 天上玉京隣北左 夢中銀漢聽西流 疎簾欲捲露華濕 一鳥不飛江色愁 欄下孤舟將入海 釣竿應拂鬱陵鷗</p>	



필자	번역
<p>강징-次 강원도 감찰사를 지낸 강징(1466~1536)의 시 '次'와 함께 그의 6대손 설죽당 강재숙(1677~1758)과 입재 강재항(1689~1756)의 발문, 17대손 강신소의 발문이 차례로 실림. 글씨는 정향교 작품.</p>	<p>신선 사는 누각 높다란 성에 세웠는데 나그네 올라 보니 서글픈 마음 치미네 고향 돌아갈 생각 구름 같이 사라지고 높이 뜬 무지개 취한 김에 아른거리네 너른 벌판에 부는 바람은 바다로 불고 거센 물결 우뢰 같이 세차게 몰려오네 깊은 밤 떠들썩 들려오는 노래와 연주 사람들 달빛에 기대 요대에 앉아 있네 동에서 온 물색 새로운 해로 접어드니 고향 생각은 유유히 바다 멀리 보내네 생황 불고 노래하며 밤 늦도록 취하자 눈과 달의 밝은 빛이 매화나무 비치네 창안의 궤석은 아침의 붉은 해를 맞고 누각의 발과 깃발 안개 속에 나무끼네 세상밖에서 참 즐거움 얻을 수 있을까 봉래산 찾아가 신선을 찾아 볼까 하네</p>
<p>원문</p>	
<p>仙閣峯嶢插高城 客來登眺動愁情 十分歸思雲邊盡 萬丈虹光醉裏成 大野雄風吹海立 千重巨浪殷雷行 夜深歌吹喧喧地 人在瑤臺倚月明 東來物色入新年 鄉思悠悠寄海天 兩部笙歌供夜醉 雙清雪月到梅邊 窓中几席迎紅旭 樓上簾旌拂紫煙 物外眞遊如可得 欲審蓬島覓神仙</p>	

## 19. 남원 광한루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검토

### 가. 제안사항

전북 남원시 소재 「남원 광한루」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전북 남원시 소재 「남원 광한루」를 국가지정문화재(국보)로 지정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 받고자 하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전라북도지사
- (2) 대상문화재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남원 광한루」
  - 소재지 : 전북 남원시 요천로 1447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신청
  - 명칭 : 남원 광한루(南原 廣寒樓)
  - 소유자(관리자) : 국유(남원시)
  - 소재지 : 전북 남원시 요천로 1447
  - 조성연대 : 조선시대
  - 수량 : 1동(본루, 익루, 월랑)
  - 지정면적 : 243.6㎡
  - 구조/형식/형태 : 목조 / 와가 / 팔작지붕

### 라. 현지조사 의견(2023.04.14. / 문화재위원 ○○○·○○○, 문화재 전문위원 ○○○)

- 문화재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가치 있으나 보완 필요.

- 문화재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가치 있으나 보완 필요.
- 문화재전문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가치 있으나 보완 필요.

#### 마. 의결사항

- 보류
  - 연혁 등 고증자료 보완 필요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보류 9명

##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23.04.14	대상문화재	남원 광한루	
조사자	성 명	○○○	전공 분야	건축역사
	소 속	○○대학교	직위(직책)	교수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국보)		
	문화재 명칭	남원 광한루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세부내용 별첨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3 년 8 월 13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 1. 입지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남원 광한루는 전라북도 남원시 요천로 1447번지에 위치한 조선시대 남원도호부의 객사 부속 누정으로서, 본루와 익루 그리고 본루에 오르는 계단실인 월랑으로 이루어진 광한루 외에, 『춘향전』으로 유명한 오작교가 있는 인공 연못, 석오(石鰲)와 호석(虎石) 등의 석조물, 그리고 영주각, 방장정, 완월정 등의 부속 누정, 춘향 사당인 춘향사와 기념관인 춘향관, 월매집 등 10여 동의 시설을 포함하며, 총면적 79,899m<sup>2</sup>의 면적을 차지하는 광한루원 안에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광한루와 영주각, 오작교와 석오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20세기 이후의 소작이거나 옮겨온 것이다.

광한루는 조선시대 남원읍성의 남문 밖에 있는데, 섬진강의 한 줄기인 요천(蓼川)이 동북방에서 서남방으로 비스듬하게 흐르는 그 사이의 땅에 자리한다. 객사인 용성관(龍城館)과 동헌은 남원읍성 안에 있다. 객사에 부속된 누정으로 객관 서쪽에 연국루(戀國樓, 일명 竹樓)가 있었다는 사실이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기록되어 있으니, 광한루는 아마도 강변의 경치를 쫓아 추가로 세운 것으로 생각된다. 연국루에 대해선 추가 설명이 없이 김극기(金克己, 1379-1463)<sup>1)</sup>와 윤향(尹向, 1374-1418)의 시를 전하고 있는데, 시의 내용에 미루어, 높은 누각으로 지리산의 연봉을 바라보는 조망이 뛰어났음을 짐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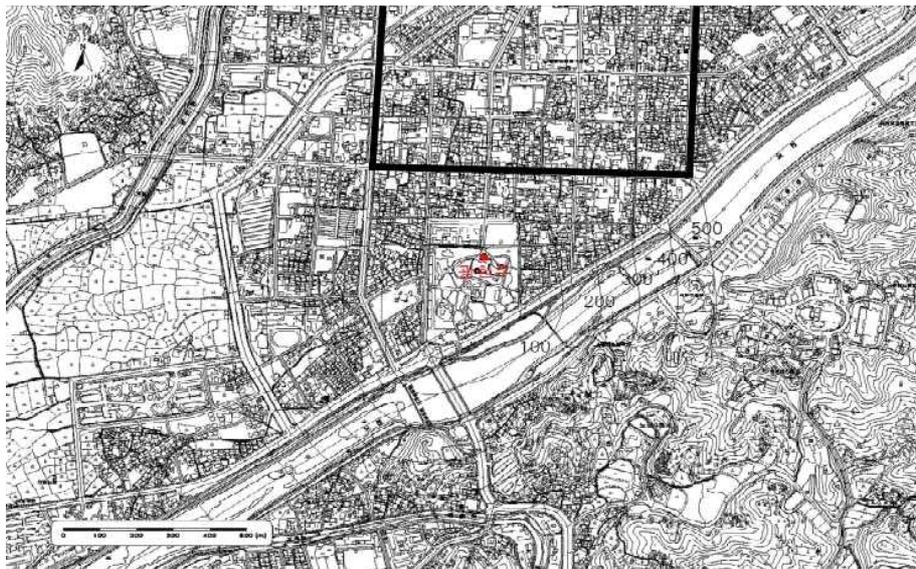


그림 1 광한루 위치도. 굵은 선으로 표기한 것이 옛 남원읍성이고, 광한루원의 북변 가운데서 직선으로 올라간 길이 만나는 자리가 남문터가 된다. (바탕 그림은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신청자료 남원광한루』(남원시, 2023)에서 전재, 이하 『신청자료』로 약함)

1) 죽서루에도 시를 남긴 김극기는 고려 명종대에 활동하였다고 하니, 다른 인물로 추정된다. 시에 능하여 100편이 넘는 시를 『동국여지승람』에 남겼다.

남원읍성의 남문 밖은 원래 밤나무 숲(栗林)이 있었고, 그 아래로는 요천이 흐르고 있었다. 요천은 천 안에 소처럼 생긴 바위가 있어서 우암(牛巖)이라 하였다고 한다. 울림과 요천에 모두 강희맹(姜希孟, 1424-1483)의 시가 남아있다. 울림은 광한루의 남쪽에 있는데 임진왜란 시에 의병장 김덕령(金德齡, 1567-1596) 장군이 숲을 베어내고 군사 훈련장을 조성하였다고 하며, 이후 군사 훈련장이 광한루의 동쪽으로 옮겨간 다음에는 시장이 들어서 울장(栗場)이라고 하였다. 이 시장은 근대기에도 전라북도 일원에서 가장 규모가 큰 장시를 이루었다고 한다.

고종 연간에 간행된 「남원부지도」(1871년)를 보면, 동서남북의 네 성문에서 뻗은 길이 방형의 남원성 내부를 4분하고, 그 서북편에 팔총렬단과 객사, 서남편에 관사가 있는 등 성안에 관아 부속시설과 장시가 표시되어 있고, 남문 밖에는 광한루와 오작교, 그리고 그 동쪽으로 장대(將臺), 훈련청(訓練廳), 지소(紙所), 등 군사 관련 시설과 장시, 요천(蓼川)이 표기되어 있다. 오작교는 요천 건너 남쪽 방면으로 가는 주요한 길이 지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처럼 길가에 있는 광한루는 후대의 활용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향교는 북문 밖, 관왕묘는 서문 밖에 있고, 동문밖에는 선원사(禪院寺)라는 절이 있다.<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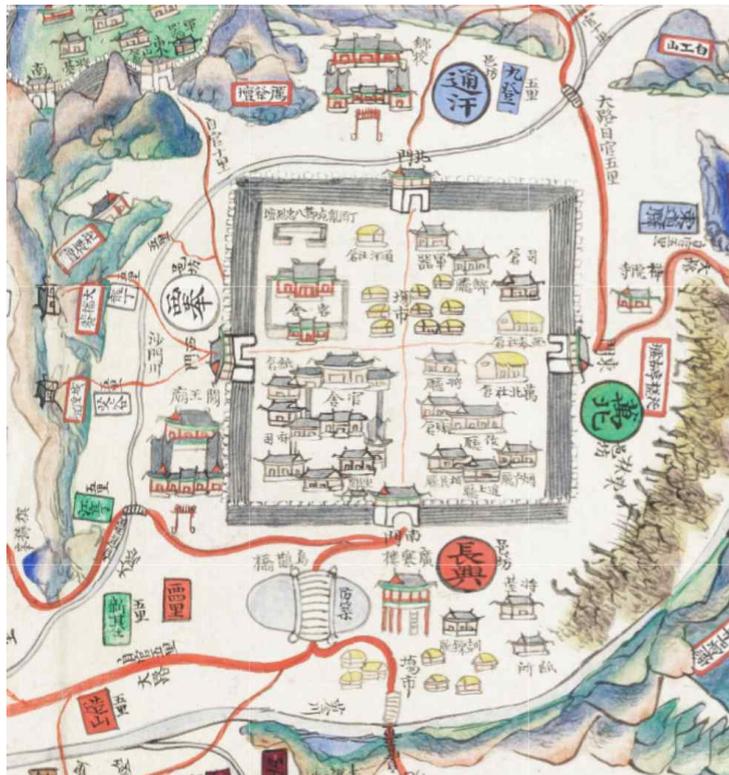


그림 2 「남원부지도」(1871) 중 부분.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2) 이보다 앞서 간행된 「地乘」, 「廣輿圖」 등은 좀더 소략한 정보만을 담고 있으나, 광한루가 예외 없이 표현되어 있으며, 관왕묘와 여단 등의 위치에선 차이가 있다.

광한루 앞의 인공 연못 (「남원부지도」에서는 방축(防禦)으로 표기되어 있다)은 크기가 동서로 100m, 남북으로 50m에 이를 만큼 큰 규모의 것으로, 원래 이곳에는 요천의 작은 물줄기가 이리저리 흐르던 것을 18세기 중엽의 그림지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물을 끌어서 조성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요천 강변으로 강둑이 있고 작은 물줄기는 모두 사라져 인공의 연못이 되었다.

지금의 광한루원은 과거의 시장터까지를 포함하는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근대기 광한루 주변으로 늘어서 있던 각종의 식당과 주택들을 매입하여 공원을 조성한 것으로, 사방에 문이 있고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다.

광한루에 오르면 원경으로는 북쪽으로는 남원의 진산이며 산성이 있는 교룡산, 남쪽으로는 요천 건너편의 금암봉, 그리고 멀리 동쪽으로는 지리산의 반야봉과 노고단이 보이며, 부감하여 근경으로는 연못과 오작교, 그리고 연못 중에 만든 봉래, 방장, 영주 3개의 섬과 그 섬 위에 세운 영주각과 방장정의 정자, 그리고 물가에 놓은 돌자라(석오)를 볼 수 있다.

돌자라는 길이 2.4m, 폭 1.2m의 크기로, 금방이라도 연못으로 들어갈 듯한 모습으로 광한루의 서남쪽 모퉁이, 오작교 앞에 연못가에 놓여있다. 호석(虎石)은 원래는 울장 시장에 있던 것을 옮겨 놓은 것이다.



그림 3 광한루원의 배치도. 춘향관은 서북 모퉁이에 있다. (『신청자료』에서 전재)

## 2. 연혁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의 기록에 따르면, 광한루는 1419년(세종 원년) 황희(黃喜)가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그의 선조 황감평(黃監平)이 지었던 일재(日齋 또는 逸齋)<sup>3)</sup>라는 서실 터에 조그만 누각[小樓]을 짓고 광통루(廣通樓)라 이름한데서 비롯하였다. 그러나 광통루는 황희의 귀경 이후 퇴락하였고, 1434년(세종 17) 부사 민여공(閔如恭)이 새로 신루를 짓고[改起新樓], 1437년(세종 19) 부사 류지례(柳之禮)가 단청하였다. 요천 서남쪽의 넓은 땅에 밤나무를 심어 울림을 조성한 것도 류지례의 일이라고 『용성지(龍城誌)』는 기록하고 있다.<sup>4)</sup>

이후, 1447년(세종 29) 도순찰사 정인지(鄭麟趾, 1396-1476)가 전설 속 달나라의 미인 항아(姮娥, 또는 상아(嫦娥))가 사는 월궁을 뜻하는 ‘광한청허(지)부(廣寒淸虛(之)府)’에서 따와, 광한루라 이름하였다고 한다.

주변의 정비와 관련해서는, 1582년(선조 15) 부사 장의국(張義國, 1537-?)이 요천(蓼川)의 작은 물길을 확장하여 연못을 만들고, 호중에 도교의 삼신산을 상징하는 영주(瀛州), 봉래(蓬萊), 방장(方丈)의 3섬을 만들고, 한 섬엔 녹죽을 심고, 한 섬에는 백일홍을 심고, 다른 하나에는 연정을 세웠다고 하는데, 현존하는 영주각의 전신이 된다. 또 연못을 가로질러 견우와 직녀가 만난다는 전설의 오작교(烏鵲橋)를 건설하였다고 하는데, 이 모든 일에 당시 전라도 관찰사였던 송강 정철(鄭澈, 1536-1593)의 지시 혹은 협력이 있었다고 한다. 오작교는 중간에 4개의 작은 아치가 있는 길이 약 52m, 폭 약 2.4m의 석교이다. 난간은 따로 두지 않았다.

임진왜란을 무사히 넘긴 남원이지만, 1597년 정유재란 때 일본의 주력군은 11만의 대군을 이끌고 섬진강을 거슬러 남원성을 공격하였고, 조명 연합군은 크게 패하여 많은 사상자를 내고, 이때 만복사와 향교, 용성관, 광한루 등 주요 시설이 모두 전소하게 된다. 지금 남원에 있는 만인의 총(사적 제272호)은 이때 순절한 이들의 합장 무덤이다.

전후 1599년(선조 32) 부사 원신(元愼, 1583년 무과)이 작고 초라한 누각으로 재건한 것을, 1626년(인조 4) 부사 신감(申鑑, 1597년 별시 문과)이 비로소 중건하였다.<sup>5)</sup>

이후, 1795년 (정조 19) 부사 이만길(李萬吉) 영주각(瀛州閣)을 중수하였다.<sup>6)</sup> 처음 영주

3) 이 내용은 황희의 아들이며 남원부원군인 황수신(黃守身, 1407-1467)의 「광한루기」(1458)에 전하는 내용인데, 『신청자료』에 두가지 한자로 다르게 적혀있지만, 원문을 구하지 못하여 확인하지 못하였다.

4) 『용성지』는 1752년(영조 28) 한상기, 최허환, 이유정, 이광 등이 편찬한 남원 지방의 역사지리서로서, 초간본은 1699년(숙종 25) 이도와 최여천이 편찬하였으나 전하지 않고, 그 후 이를 보유하여 새로 편찬한 것이다. 1995년 남원문화원에서 번역본을 내었다.

5) 『신청자료』 19쪽과 22쪽에서는 1638년(인조 16)의 재건이라고 하고, 30쪽에서는 1626년(인조4)의 재건이라고 하여 차이가 나지만, 여기서 30쪽의 ‘광한루의 연혁’을 따랐다. 신감의 「광한루 중수서」를 전거로 한다.

섬에 정자를 세운 것은 왜란 이전이었고, 정유재란때 광한루가 모두 불탔다고 하므로, 소실되었던 것을 이때 중건한 것으로 보인다. 편액을 써서 걸었다.

이후 1855년 (철종 6) 부사 이상억(李象億, 1888년 식년시 생원3등)이 누각을 중수하고 ‘호남제일루(湖南第一樓)’라는 현판을 크게 써서 걸었고,<sup>7)</sup> 광한루에 오르는 계단각의 역할을 하는 월랑은 1877년(고종 14) 부사 이용준(李容準, 1816~?, 1877년~1880년 남원부사)이 광한루가 북측으로 기울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를 제의하고, 1881년(고종 18)에 월랑을 설치하고 본루와 익루의 대대적인 수리를 하였다고 한다.<sup>8)</sup>

20세기 초 국권이 기울고 객사 제도가 폐지되며, 곧이어 일제강점기가 되고 지방제도도 개정되면서 광한루의 쓰임도 크게 변하였다. 남원재판소와 헌병분견대, 그리고 재판소로 사용되었다는 기록이 전한다. 그림 4.와 그림 5.에서 보듯, 이러한 근대 시설을 수용하기 위하여 기둥 사이에 벽과 창문이 설치되고, 둘레로는 좁은 면적을 가리는 담장이 설치되는 등의 변화가 보인다.



그림 4 1910년 광한루의 모습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신청자료』에서 전재)

6) 『신청자료』 표제쪽과 31쪽에선, 1795년 영주각을 중수하면서, 익루도 중건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전거를 따로 밝히지 않아서 확인을 못 하였다. 아마도 같은 해의 영주각 중수 기록을 전하고 있는 『용성속지(龍城續誌)』(1923)일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같은 책의 45쪽에서는, “... 그러나 익루 부재에 대한 연륜연대 측정 결과를 광한루의 문헌기록에 의한 건축역사와 비교한 결과, 1795년에 익루를 증축하였을 것이라는 설은 사실이 아니면, 1626년 본루와 함께 지어졌음이 밝혀졌다...”고 하여,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이 역시 더 이상의 구체적인 자료는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광한루의 연혁을 다루는 같은 장 안에서 차이는 나는 내용이 있는 점은 의아하다.

7) 정읍 피향정 (보물)도 ‘호남제일루’라는 편액을 가지고 있다.

8) 이 연대 역시 『신청자료』 중에 다른 연대가 나오는데(표지에선 1879년), 여기서도 30쪽의 연혁을 따랐다. 1960년에 간행된 『남원지』를 전거로 한다.



그림 5 일제 강점기의 광한루 사진 엽서 (『신청자료』에서 전재)

그러다가 다시 광한루가 다시 고적으로 재단장된 것은 1931년의 일이다. 광한루의 회복은 1926년 이미 군수 백정기(白定起)와 면장 양재영(梁載英) 등의 주도로 당국에 요청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 있고,<sup>9)</sup> 1928년 2월 1일에는 20여 년간 광한루를 차지하고 있던 재판소(전주지방법원 남원지청)가 신청사를 지어 이전하면서, 광한루의 후속처리 문제를 논하는 등 그 회복이 구체화되기도 하였지만,<sup>10)</sup> 우선 남원군 청사를 재건축하기로 하면서 공사 동안 광한루를 임시 군청사로 사용하기로 하고 그해 8월 26일 이사를 마쳤다.<sup>11)</sup> 그러다가 전술한 대로 남원군 신청사 완공 이후, 유림들이 주축이 되어 4,500원의 기금을 모아 일 년 가까운 수리 공사 끝에 1931년 6월 1일 준공식을 갖게 되고, 이와 별도로 예기(藝妓)들을 중심으로 2,000원을 모금하여 진행된 춘향의 열녀각인 춘향각(혹은 춘향사)도 공사를 마쳐 6월 6일 준공식을 하고 있다.<sup>12)</sup> 이때를 기해 춘향제도 시작되었다.

이후 광한루는 각종의 회의와 집회와 회의, 강습회, 강연회 등의 행사 장소로 시민들의 이용이 잦았고, 때론 요천의 범람에 다른 피난민 대피소의 역할도 수행하였다.

이 당시의 광한루의 영역은, 여러 신문기사들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것처럼, 광한루와 오작교, 그리고 봉래, 방장, 영주의 세 섬과 새로 지은 춘향사 정도의 영역이었다.

한국 전쟁 이후 한때 광한루는 남원국민학교의 가교사로 사용되기도 하고, 1953년에는 보수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1954년 영남루 등 전국적으로 20개 고적에 대한 보수작업이

9) 『조선일보』 1926년 11월 16일자.

10) 『동아일보』 1928년 2월 4일자.

11) 『동아일보』 1928년 8월 28일자.

12) 『동아일보』 1931년 5월 22일자.

이루어질 때 함께 보수공사가 이루어지고, 1957년 국보로 지정되었다가, 1962년 국보 지정이 해제되고, 1963년 보물로 재지정되었다.

일제강점기는 물론 해방 이후에도 광한루 주변은 시장과 함께 유흥주점들이 들어서 고적의 분위기를 헤친다는 의견이 높아서, 1963년 확장 정화사업이 시작되었고, 이후 여러 차례의 확장을 거듭하여 오늘의 영역을 이루었다. (그림 6. 참조)

그러면서 동시에 새로운 건물의 신축도 일어나서, 1964년에는 오작교 옆 방장섬에 방장정(方丈亭)을 신축하고, 1971년에는 공원 안에 새롭게 연못을 파고 丁자형 평면의 2층 다락집인 완월정(玩月亭)과 공원의 정문인 청허부(淸虛府)를 신축하였다.

계속해서 1975년에는 영주각을 중건하고, 1989년에는 월매집, 1992년 춘향관과 서문, 그리고 1998년에는 광한루원 관리사무소를 신축하였다.

그러는 사이 1983년 광한루원은 사적 제303호로 지정되었다가, 2008년 사적 지정을 해지하고, 명승 제33호로 고쳐 지정되었다.



그림 6 광한루 일대의 항공사진 (『신청자료』에서 전재)

### 3. 건축적 특징

광한루는 본루와 익루, 월랑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루는 1626년(인조 4) 중건된 것을, 1795년(정조 19), 1855년(철종 6)과 1881년(고종 18)에 중수하였으며, 익루는 1626년 혹은 1795년에 조성한 것을 이후 본루와 함께 중수하였고, 월랑은 1881년(고종 18)에 설치한 것이다.

본루는 정면 5칸, 측면 4칸 팔작지붕의 다락집으로, 각 주칸의 치수는 도리방향으로 가운데 3칸은 3,167mm~3,227mm이고, 양 단부의 퇴칸은 2,863mm~2,913mm로서 한 자 정도 좁게 하였다. 보칸으로는 거꾸로 가운데 있는 두칸은 2,191mm~2,228mm로 한 대신, 양 단부를 3,131mm~3,175mm로 하여 석 자 정도 더 넓게 하였다. 이처럼 가운데 칸을 좁게 하는 경우는 드문데, 상층에서 내주열을 감주하고 대들보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칸의 가운데 기둥열을 좁힌 것으로 보인다. 전체 크기는 가로 15,420mm, 세로 10,821mm로 약 1:1.4의 비례를 갖는 직사각형으로 면적은 50평이 조금 넘는다. 지방의 관영 누정 가운데 밀양 영남루와 제주 관덕정 다음으로 큰 크기를 갖는다.

표 1. 주요 누정의 규모 비교 (보물로 지정된 것 중 발췌)

건물명	칸수 (정면×측면)	정면 크기 (mm)	측면 크기 (mm)	가로/ 세로 비	면적(m <sup>2</sup> / 평)
밀양 영남루 (대루)	5×4	18,688	12,278	1.522	229.45 (69.5평)
제주 관덕정	5×4	17,402	12,920	1.347	224.83 (68.1평)
남원 광한루 (본루)	5×4	15,420	10,821	1.425	166.86 (50.6평)
창덕궁 주합루	5×4	13,662	9,312	1.467	127.22 (38.6평)
강릉 경포대	5×5	11,960	9,770	1.224	116.85 (35.4평)
정읍 피향정	5×4	11,860	8,260	1.436	97.96 (29.7평)
* 경복궁 경회루	7×5	33,797	28,246	1.197	954.63 (289.3평)
** 구례 화엄사 각황전	7×5	26,661	18,222	1.463	485.82 (147.2평)

막돌 바른층쌓기의 낮은 기단 위에 주초를 놓고, 누하주를 5칸x4칸의 주망에 맞추어 30본 모두 배열하였다. 기단은 대개 한 단으로 하고 부분적으로 2단으로 쌓았으며, 재료도 기단 내밀기의 크기도 일정치 않은데, 여러 차례의 중수에 의한 결과로 보인다.

누하주는 돌기둥과 나무 기둥이 섞여 사용되었는데 남쪽 정면과 우주에는 사각 돌기둥을 사용하였고, 그 외 부분에는 나무로 된 원기둥을 사용하였다. 돌기둥 아래에는 다시 방형의 초석을 두고, 나무기둥 아래에는 거칠게 사각으로 다듬은 자연석 초석을 사용하였는데, 비바람에 노출되고 눈에 잘 띄는 서측과 북서측의 바깥 들레 기둥 아래는 189mm~288mm의 키 큰 장초석을 사용하고, 그 밖의 기둥과 내주 아래에는

60mm~145mm로 낮은 초석을 사용하였다.

익루 부분은 도리칸 2칸에 보칸 2칸 규모인데, 보칸의 칸살이는 가운데 온칸을 2칸통으로 두고 전후면과 동측 마구리면으로 퇴를 두른 모퇴집의 구성을 갖는다. 서측면은 본루와 연결되는 마루가 된다. 기단은 익루, 월랑 모두 본루와 함께 연결되어 있고, 본루와 이어지는 남측 정면과 내부 온칸에 면한 부분에는 역시 사각의 돌기둥을 사용하였고, 그 외의 둘레 기둥 아래에는 낮은 초석 위에 나무로 된 원기둥을 두었다. 익루의 가운데 온칸 부분은 상층의 온돌바닥을 만들기 위한 구들이 토석벽으로 쌓은 벽 안에 있고, 때문에 이 토석벽과 만나는 부분이라서 내부에 사용된 누하주 6본 모두 돌기둥으로 처리한 것이다.

한편, 광한루에는 본루의 모퉁이 4곳과 익루의 동측면 두 모퉁이 2곳 등 모두 6곳의 내민 추녀 아래에 원형의 활주를 두었으며, 활주의 초석은 다른 초석과 달리, 원형의 종모양 단면을 갖는 높은 초석을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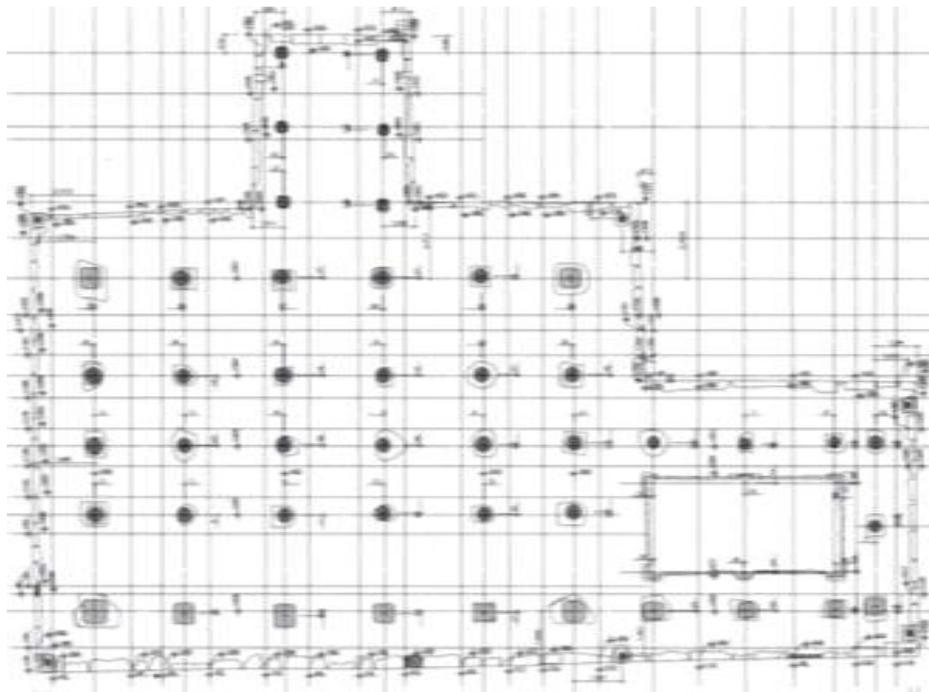


그림 7 광한루 하층 평면도 (『신청자료』에서 전재)



그림 8 광한루의 남측 정면과 북측 배면의 모습. 남측 정면과 구조적 중요도가 높은 곳에는 사각의 장초석을 사용하였다. (2023.04.14. 촬영)

본루 하층의 누하주의 머리에서 창방을 가로세로로 가로질러 울거미를 튼튼히 하였고, 그 위에 장귀틀과 동귀틀을 놓아서 상층의 마루를 짜 넣었다. 상층의 바닥은 본루의 전체에 우물마루를 깔았고, 기둥 바깥으로 헌함을 내밀고 둘레에 계자각 난간을 달았다. 본루와 익루가 만나는 부분에 있는 연결마루와 헌함에는 장마루를 깔았다. 본루와 익루가 직각으로 꺾여 만나는 북쪽 모퉁이에서는 삼각형으로 헌함을 내달아 여유를 두었다.



그림 9 본루의 누하주와 상부 짜임(2023.04.14.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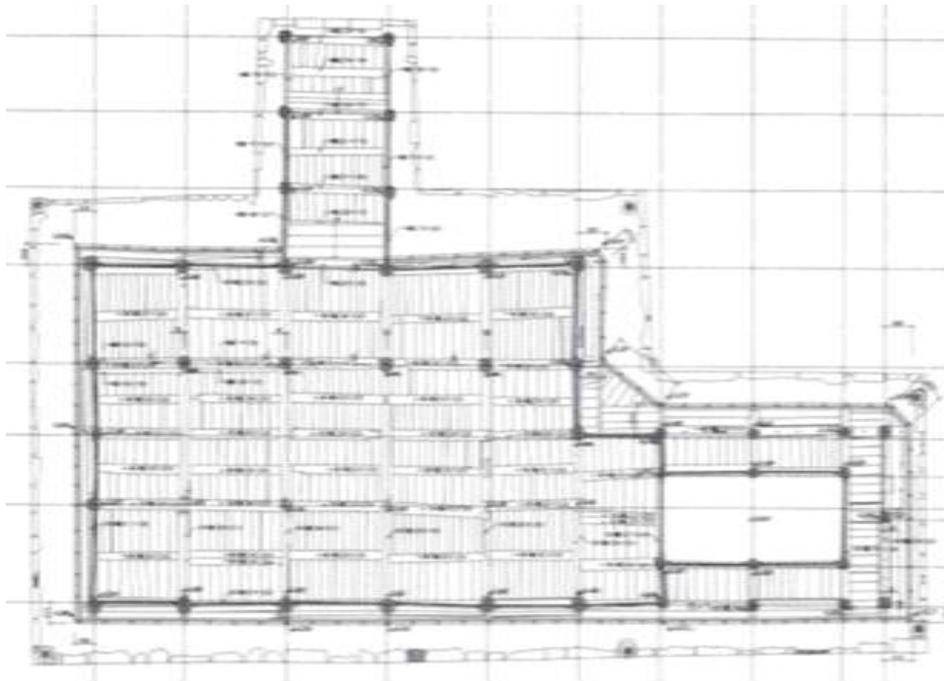


그림 10 광한루 상층 평면도 (『신청자료』에서 전재)

상층의 기둥은 종도리 아래와 전열의 종도리 아래에 있는 2열의 내주와 동측면 기둥 1본 등 9본의 기둥을 감주하고,<sup>13)</sup> 그 자리에 대들보(또는 주심도리)를 두고 상부 가구를 받쳤다. 실내 공간을 넓게 쓰기 위한 조치이다.

상부 가구는 넓은 보칸을 고려하여 7량가로 짰는데, 후열 기둥열과 후면의 종도리열이 일치하지 않아 내고주를 사용하지는 않았다. 대신, 후열에 있는 내주 위에서 대들보와 뒷보를 맞보 형식으로 짜 받치고, 대들보와 뒷보 위에 각각 동자주를 놓고 중보와 하중도리를 받치고, 그 중보 위에 다시 같은 모양의 동자주를 놓고 중보와 상중도리를 받치며, 중보 위에 화반대공을 두어 종도리를 받친다. 이때, 내주 위 대들보와 뒷보가 만나는 부분의 처리가 독특한데, 내주 머리에 보아지와 첨차를 직각으로 짜넣고, 그 위에 주두를 둔 다음, 주두 위에서 대들보 및 뒷보가 뜯창방과 직교하여 만나게 하였다. 구조적 강성을 높이고, 맞보로 만나는 두 부재의 결구를 튼튼히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11. 참조)

13) 종도리 아래의 내주열은 통상적인 대들보식 구조에서는 모두 감주를 하니, 따로 감주법을 사용하였다고 언급하지 않지만, 여기선 전열 내주를 감주한 것과 함께 세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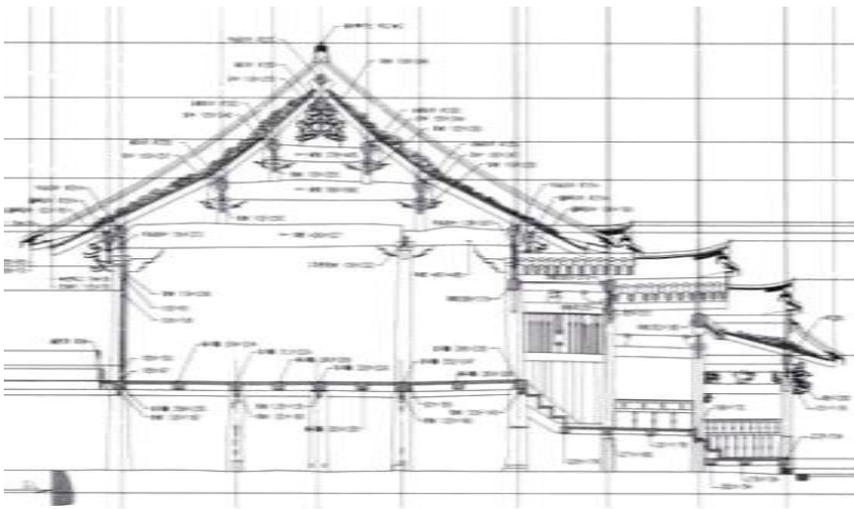


그림 11 광한루 단면도(『신청자료』에서 전재)와 후열 내주 부분의 상부가구 짜임(2023.04.14. 촬영)

주심도리에서 하중도리까지의 간격은 전면이 2,756mm, 후면이 2,555mm로 조금 차이가 나고, 하중도리에서 종도리까지의 거리도 전면은 2,719mm, 후면은 2,700mm로 차이가 있어 전체적으로 종도리에서 전후면의 주심도리까지의 간격에 220mm 차이가 난다. 즉, 종도리가 단면의 중간이 아니라 후면으로 110mm 뒤로 물러난 자리에 있다. 전면보다 후면의 지붕 경사를 급하게 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지붕틀은 하중도리를 기준으로 주심도리와 종도리까지의 간격이 2,555mm~2,756mm 범위 사이에 있어서, 사분변작법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치수가 기둥의 간격과 일치하지 않아서, 내고주를 사용하지 못하고 내주 위에서 대들보와 뒷보를 맞보로 연결한 것이다. 서까래는 단연과 중연, 장연의 세 단으로 구분하였다.

공포는 1출목 2익공식으로, 기둥 머리에서 창방과 초익공을 직교하여 짜고, 그 위에 주두를 놓고 이익공과 주심침차를 직교하여 짜서 대들보(뒷보)를 받치고, 1출목 튀어나간 곳에서는 주심침차와 같은 높이에서 행공침차를 두고 출목도리 장여와 운공(3익공)을 받치고 있다. 채주두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지방의 이익공집에서 흔히 보이는 수법이며, 익공의 외부 단부를 마치 다포계 공포의 양서형으로 초각한 것은 다포계 공포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내부에서는 별도의 침차 없이 초익공과 이익공을 한 몸으로 엮어 운공형으로 초각하여 보를 받치고 있다. 익공의 부재, 특히 초익공 부재의 규격과 초각에 따라 모두 5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일반 둘레 기둥에 사용된 것과 모퉁이 우주에 사용된 것이 기본적으로 다른데, 그 이유는 우주 위에서는 전각포를 만들기 위해 좌우대를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후에 증설된 월랑과 만나는 부분의 공포 역시 차이를 갖는다. 나머지는 세세한 초각과 크기의 차이이다.



그림 12 본루의 익공식 공포(2023.04.14. 촬영)

천장은 전체를 서까래가 노출되는 연등천장으로 하였고, 동서의 퇴칸 합각 아래에만 중보와 외기도리, 그리고 전후의 하중도리가 만드는 사각면에 눈썹천장을 짜넣었다. 측면 협칸 기둥 위에서 대들보 위로 휘어서 올라가는 2분의 충량 위에 작은 기둥 모양의 받침대를 두고 외기도리 장여 아래를 받치고 있다. 서측면에서는 측면 가운데 기둥을 비우고 전후열의 내부 기둥열에 맞추어 충량을 가설하였고, 동측면의 경우 익루와의 연결을 위해 동측면 변주 하나가 익루의 뒤쪽 기둥열에 맞추어 이주(移柱)되어 있기 때문에 충량의 위치도 같이 움직여서, 좌우 대칭이 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쳐 두 개의 충량이 놓이는 점도 특이하다. (그림 1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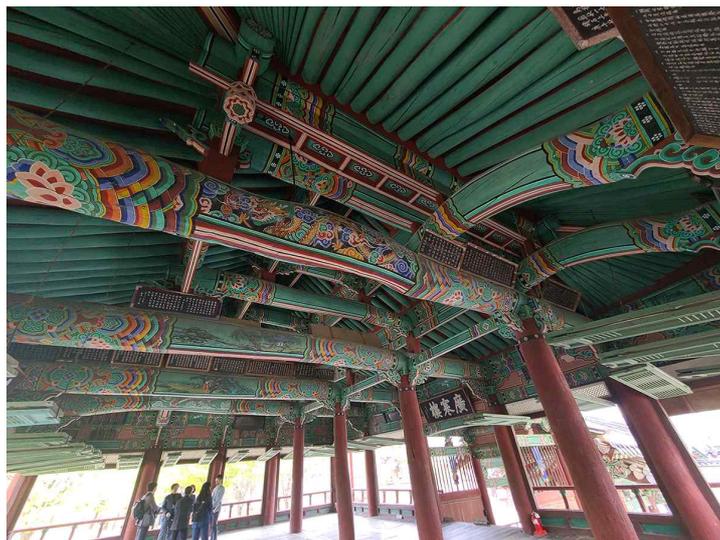


그림 13 광한루 본루의 천장 짜임. 동측면의 충량의 위치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2023.04.14. 촬영)

본루의 실내 공간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사방으로 돌아가면서 바깥 기둥에 띠살문의 사분합창을 설치한 것이다. 분합창 아래로는 머름을 두고, 위에는 광창을 두었다. 머름부

터 광창에 이르는 전체를 감싸는 틀을 짜서 마루바닥과 기둥, 그리고 주심도리 장여 아래의 문얼굴에 맞추어 짜넣었다.

연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광한루는, 근대기 일본의 헌병 분견대 및 재판소, 남원군청의 임시 청사로도 사용된 적이 있고, 1931년에 가서야 “순 구식(純 舊式)”으로 복원되었다. 이후로도 광한루는 각종 집회와 강연 등의 행사에 사용되었고, 때에 따라서는 수재민의 피난처로도 이용되었으며, 심지어 해방 이후에도 한국 전쟁 후에는 한 때 남원국민학교의 임시 교사로 사용되기도 하다가 1954년에 보수 공사가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이 사분합문이 언제 조성된 것인지는 알기 어렵지만, 가장 이르다고 하더라도 1954년의 보수 공사 때 만들어진 것이고, 그것이 조성 당시의 원형인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이처럼 공공장소에 놓인 관영의 누에서 사분합문을 달고 있는 경우는 예외적이기 때문이다. 여러 편의 고지도에 광한루가 묘사되는데, 대개 그림지도들이고, 광한루를 단독으로 그린 그림이 아니어서, 창호의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그림 2. 참조)



그림 14 광한루의 실내공간과 분합창(2023.04.14. 촬영)

한편, 광한루 본루와 같은 높이에서 마루로 이어진 익루는, 가운데 2칸 온돌방을 뚫으로써, 본루에 없는 사적 공간을 제공하여 본루의 기능을 돕는 역할을 한다. 본루와는 한 칸 정도(2,559mm) 떨어져 있고, 양쪽 건물의 구조에 기대어 지붕과 마루바닥을 만들어 두 공간을 연결하였다.

연결마루의 앞뒤 폭은 두 칸 규모(5,486mm)로, 이는 익루의 보 방향 치수에 맞춘 것이다. 익루의 동측 단부는 2칸으로 구획되어 있어서, 앞칸이 2,751mm이고, 뒷칸이 2,735mm로 약 9자로 등분하였지만, 온돌이 놓이는 부분에서는 가운데 온돌방의 보칸을 2,916mm로 9자보다 크게 하고 앞뒤 뒷마루를 각각 1,248mm와 1,322mm로 작게 하여, 전체 보칸 치수 5,486mm에 맞추었다. 방을 좀 크게 하는 대신 뒷마루를 조금 작게 한 것이다. 온돌방의 동측 단부에도 1,295mm 폭의 뒷마루를 두어 온돌 둘레 세면의 뒷마루의 폭을 4자에 낮추었다.

상부 가구는 온돌방의 기둥열에 맞추어 중도리를 둔, 거의 4분 변작에 가까운 5량가로 짚는데, 특이한 것은 단연과 장연을 나누지 않고, 장연이 그대로 올라가 중도리 위에서 앞뒤 장여가 서로 만나게 한 것이다. 대신 지붕의 기울기를 세게 하려고 덧서까래를 사용하였다. 즉, 중도리 위, 장연이 서로 교차하는 곳 위에 적심도리를 두고, 여기에 다시 대공과 중도리를 한 번 더 둔 다음에 덧서까래를 깔아서 필요한 지붕 기울기를 얻고 있다. 이러한 상부 가구 지붕틀의 어지러움은 대들보 선에 맞추어 우물반자를 설치하였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이와 비슷한 덧서까래의 사용례는 완주 송광사 종루(보물, 17세기)에서 볼 수 있다. 이외에도 덧서까래를 사용한 경우는 안동 봉정사 극락전을 비롯한 9동 가량의 국가급 문화재 건축물에서 찾을 수 있었으나, 광한루의 익루와 같이, 덧도리 위에 다시 기둥 모양의 길쭉한 대공을 놓아서, 덧서까래의 경사가 그 아래에 있는 서까래의 경사와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는 송광사 종루의 경우가 유일하다. 하지만 송광사 종루는 단칸의 3량가로서, 광한루 익루가 5량가인 점과 또 다르다. 즉, 광한루 익루에 사용된 덧서까래는 다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특이한 사례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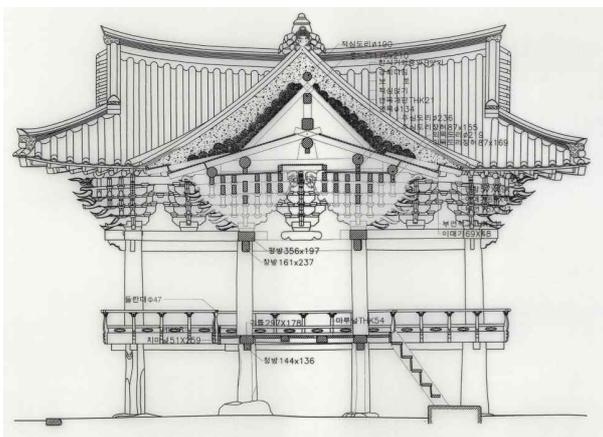


그림 15 완주 송광사 종루의 단면도(『실측보고서』에서 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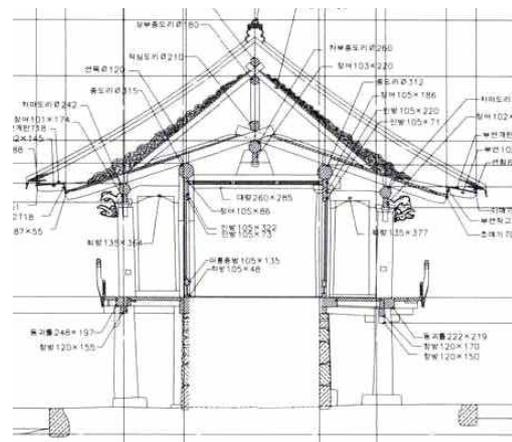


그림 16 광한루 (동) 익루의 단면(『신청자료』에서 전재)

공포도 본루와 다르다. 본루에는 익공 부재의 규격에서 조금씩 차이를 갖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1출목 이익공을 사용한데 비해, 익루에서는 초익공계의 공포를 사용하였다. 기둥머리에서 첨차와 초익공을 직교하여 짜고 그 위에 주두를 놓은 다음, 툃보와 주심도리 장여를 다시 직교하여 짜받쳤다. 초익공의 외단과 내단 초각은 독특한 모양으로 큰 넝쿨이 아래로부터 휘어올라간 모양이고, 툃보의 뺨목에는 크고 작은 봉두 2개를 위아래로 초각하여 붙였다. 주심첨차의 아래 단부에는 청룡과 황룡을 새겨넣었다. (그림 17. 참조)

용 장식은 다른 곳에서도 사용되었는데, 본루에서 익루로 넘어가는 초입부, 본루의 측면 주심도리 부분이다. 한 마리의 용을 머리 부분, 몸통 부분, 꼬리 부분 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기본 목구조 안에 끼워 넣었다. (그림 18. 참조)



그림 17 익루의 공포(2023.04.14. 촬영)



그림 18 본루 동측면 주심도리 위의 용 조각 (2023.04.14. 촬영)

익루의 중심 공간인 2칸 온돌방은 사방으로 띠살문을 가진 분합창과 문을 짜넣었는데, 남, 동, 북면의 세면에는 아래에 낮은 머름을 두었지만, 본루에 면한 서측 면에는 문지방만을 두어서 그곳이 출입구임을 분명히 하였다. 천장에는 한 칸을 가로세로 3칸으로 크게 구획한 우물천장을 설치하고, 단청하였다.

연결마루의 천장에는 이보다 작은 규격으로 구획하여 우물마루를 짰다. 그 위의 지붕은 본루의 합각 아랫면에 용마루를 낮춘 맞배지붕을 만들어 덮었는데, 익루의 지붕보다는 살짝 높다. 그 아래, 두 건물이 만나면서 복잡해지는 서까래 열을 가리기 위하여 천장을 짜넣은 것이다. 양 측면에서도 익루의 창방선에 맞추어 인방을 걸고, 그 윗 부분에는 판벽을 설치하여 지붕틀이 들여다 보이는 것을 막았다.

연혁 편에서, 익루의 초창 시기를 1626년, 혹은 1795년으로 서로 다르게 주장하고 있는

데, 이와 같은 장식적인 의장을 17세기의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익루가 언제 처음 조성되었는지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현황의 조성은 빨라도 1795년, 혹은 그 이후의 소작이라고 보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1881년에 만들어진 월량은 광한루 본루의 북측 후면 정 가운데 칸에 접하여 북쪽으로 3칸을 돌출한 모양으로 지어졌다. 월량은 일차적으로 본루에 오르는 계단의 역할을 하지만, 증축의 발단이 된 것은 본루가 뒤로 기울어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다고 한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본루의 종도리는 보방향 폭의 정확한 중간에 있지 않고 뒤로 조금(전후 폭의 중간보다 100mm쯤 뒤)에 있기 때문에 처짐의 불균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월량의 크기는 본루의 후면 정칸 폭에 맞추어 지었기 때문에, 보칸의 폭은 3,182mm로 정해져 있는 상황이고, 도리 방향으로는 본루에 면한 윗칸부터 차례로, 2,466mm, 2,453mm, 2,405mm로 하여, 약간의 오차가 있지만 8자로 계획한 것으로 보아도 좋다.

지붕은 위의 두 칸은 맞배지붕, 제일 아래에 있어 진출입구의 역할을 하는 최하단에서는 마구리를 팔작지붕으로 마무리하였다. 주심도리와 종도리만 있는 3량가의 단칸폭인 만큼, 팔작지붕을 만들기 위한 합각을 설치하기 어렵다. 하여서 양측 모퉁이에서 올라오는 추녀를 X자로 교차하여 제2단의 처마도리에 걸고, 이에 기대어 선자서까래를 짜넣고 합각은 바깥 주심도리 선에 맞추어 짜넣었다.(그림 19. 및 20.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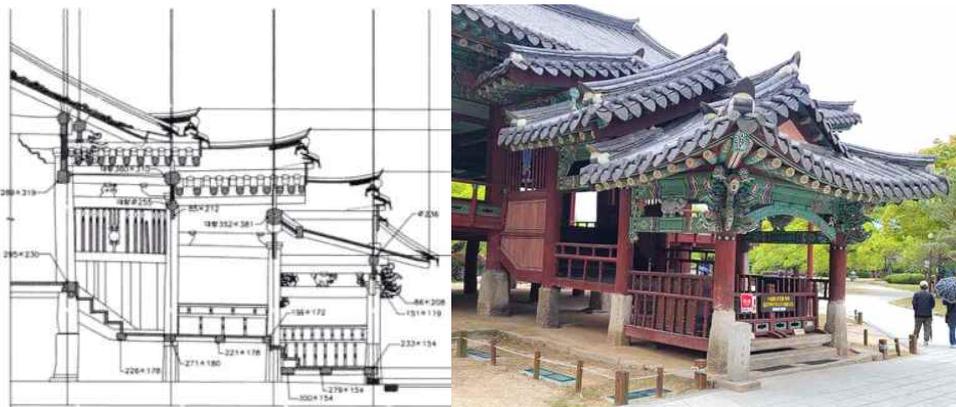


그림 19 월량의 단면도 (『신청자그림 20 월량의 모습(2023.04.14. 촬영)료』에서 전재)

내부에는 3칸 모두 마루를 깔았는데, 최하단 첫 칸에 안쪽으로 2단의 계단, 최상단의 칸에 안쪽으로 3단의 계단을 짜넣고, 중간 단에는 계단이 없다. 전체 지면과 본루 바닥까지는 각 층바닥 3단을 합하여 모두 8단의 계단으로 약 2.4m(누하주의 높이는 대개

2m 내외이다)의 높이를 올라가고 있다. 말하자면 계단각으로서는 필요 이상으로 긴 월랑이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 전체적인 비례와 본루의 기울어짐을 막겠다고 하는 의도 등이 반영된 조형이라고 생각된다. 벽면의 처리는 아래 두 칸은 평난간을 둔 개방적인 구성을 하고, 최상단의 양측벽은 중방 아래까지는 판벽을 짜넣고 그 위에 홍살을 끼워 장식하였다.

공포는 이익공계열의 공포를 사용하였는데, 진입부 정면의 좌우 모퉁이에선 전각포를 사용하고, 그 귀한대 위 3익공에 해당하는 자리에 용모양으로 조각한 부채를 사용하였다. 앞서 익루의 주심첨차 하단이나, 익루로 넘어가는 본루 동측면 주심도리에도 용 모양 장식이 사용된 바 있다.



그림 21 월랑의 서북 모퉁이 전각포에 사용된 용모양의 귀한대(『신청자료』에서 전재)와 본루의 동북쪽 모퉁이 전각포에 사용된 자라 모양의 장식(2023.04.14. 촬영)

이외에도 월랑에는 많은 장식적 요소가 사용되었다. 진입하는 정면에는 주심도리 장여 아래에 원호를 그리는 둥근 창방을 끼워 넣었고, 좌우의 측면에서는 수평의 창방 위에 코끼리, 거북 등을 타고 있는 토끼 등의 동물 모양 조각으로 된 화반을 두었다. 또, 월랑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본루의 동북쪽 모퉁이 위의 귀포에도, 비록 귀한대는 사용되지 않았지만, 대각선 방향으로 초익공 위치에 자라 모양의 장식 부채를 끼워넣은 것을 볼 수 있다.

## <종합의견>

남원 광한루는 전라북도 남원시 요천로 1447번지, 옛 남원읍성 남문 앞에 위치한 조선 시대 남원도호부 객사 부속의 관영 누정으로서, 정면 5칸, 측면 4칸의 본루와 이에 연결마루로 이어진 정면 2칸, 측면 2칸의 익루, 그리고 본루에 오르는 계단각인 월랑으로 구성되어 있다.

광한루 앞에는 세 개의 작은 섬을 가진 인공 연못과 이를 가로질러 4개의 아치를 가진 52m 길이의 석교인 오작교가 있으며, 주변에 춘향사당과 월매집, 완월정 등을 포함한 총면적 79,899㎡의 너른 면적을 차지하는 광한루원이 조성되어 있다.

본루는 1434년(세종 17) 창건되었으며, 광한루 앞의 연못과 봉래, 방장, 영주의 세 섬은 1582년(선조 15)에 조성되었다. 그러나 본루는 정유재란 때 전소되었고, 1626년(인조 4) 중건되었는데, 이때 지금의 본루만 중건되었는지, 익루를 포함한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익루의 창건은 1795년(정조 19) 광한루에 대한 중수 시에 함께 이루어졌다고 보는 설도 있다.

이후 중수를 거쳐 1881년(고종 18) 월랑이 증축되어 현재와 같은 모습을 이룬다. 그러나 광한루는 이후 근대기를 거치면서, 남원 읍성의 남문 밖 주요 교통로 변에 있다는 입지와 큰 규모 등으로 인해 여러 근대 기관으로 전용되면서 현상의 변화가 잦았으며, 이는 1931년에 가서 고적으로 재평가되어 전통 방식으로 복원된 이후에도 1950년대 중반까지 계속되었다.

현재와 같은 누원의 조성은 1960년대 이후의 일련의 노력에 따른 것으로서, 1983년에는 광한루원 일대가 사적으로 추가 지정되고, 2008년에는 명승으로 고쳐 지정되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광한루의 본루는 정면 5칸, 측면 4칸의 다락집으로, 누하주는 돌기둥과 나무 기둥을 섞어서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외관의 당당함을 드러낼 뿐 아니라 연못가에 위치하여서 습기에 대비한 고려이기도 하다. 누상주는 도리방향으로 두 열의 기둥을 감주하고, 후열 내주만을 남겨서 전체적으로 전면으로 개방된 공간을 만들어내었고, 상부가구는 대들보와 중보, 종보를 사용한 3중보의 7량가를 택하였다. 공포는 1출목 이익공식으로, 다포식 공포와 같은 양서형의 익공과 주심포식 첨차에서 사용되는 것과 같은 초각을 가진 첨차를 사용하였다. 일부 누상주에서 장식적인 공포 부재가 사용된 곳이 있는데, 아마도 후대 여러 차례의 보수 과정에서 덧붙은 것으로 짐작된다.

익루는 가운데 2칸 크기의 온돌방을 두고 세면으로 개방적인 뒹마루를 두른 평면 구성을 갖는다. 본루와 구분되게 초익공계 공포를 사용하였는데, 공포의 양식으로만 보면, 초각에 용이나 봉황 등 장식적인 입체 초각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본루와 같은 시기의

소작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비슷한 용모양 장식은 본루와 익루가 만나는 부분, 그리고 월랑에도 사용되었다.

월랑은 기단으로부터 약 2.4m 정도 높이차가 있는 본루 및 익루의 바닥으로 올라가기 위한 계단을 포함하며, 본루가 북쪽으로 기우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3칸x1칸의 규모를 가지며, 단칸 폭의 작은 규모이지만, 주출입구로서의 정면성을 주기 위하여 팔작지붕을 설치하고, 원형의 창방과 동물문의 화반 및 귀한대를 사용하는 등 장식적인 요소가 강하다.

종합하여, 남원 광한루는 조선 후기 판소리와 소설로서 능히 문화사에 이름이 높은 『춘향전』의 무대로서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공간이고, 조선초에 창건되고, 17세기에 본루가 만들어진 역사성을 아울러 가지고 있으며, 현재에도 춘향제 등을 통하여 남원의 중심적 문화공간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명소로 가치가 높다.

다만, 본루 둘레의 주칸에 설치되어 있는 분합문의 경우, 누정의 공간을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원형인지 아니면 근대기의 보작인지 확실치 않으며, 건축적 특색의 면에서 다른 보물급 문화재에 비교하여 뚜렷한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국보로의 승격 지정과 상관없이 익루의 창건 연대, 익루 아래의 온돌방의 조성 연대 등 연혁과 관련한 부분과 영조척에 대한 연구도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 ※ 대상 문화재의 핵심 보존가치

본루, 익루, 월랑 등 광한루의 건물 일체  
광한루 앞의 연못과 오작교, 봉래, 방장, 영주의 3개의 섬  
주변의 경관

##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23.04.14.	대상문화재	남원 광한루	
조사자	성 명	○○○	전공 분야	건축
	소 속	○○○○○○○학교	직위(직책)	부교수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국보)		
	문화재 명칭	남원 광한루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세부내용 별첨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9월 1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 1.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남원 지역은 삼한시대부터 전략적 요충지였고, 신라의 삼국 통일 후에는 5소경 중 남원 경이 되었다. 691년(신문왕 11)에 성을 쌓은 기록이 있으며, 고려조에서 남원부로 존속하다가 조선조에 남원도호부로 승격하였다. 또, 1654년 군사사령부인 전라좌영(全羅左營)이 설치되었고, 1896년 전국적인 행정개혁 때 전라남도관찰부가 설치될 만큼 전라도 일대의 중심 지역이었다. 조선 후기 남원 읍성의 상황은 대략 장방형의 읍성 안 공간을 동서와 남북의 십자로가 교차하면서 구획하는 것으로 묘사되었다. 십자로의 북서 모퉁이에 객사인 용성관(龍城館)이 자리잡았고, 그 남쪽 건너편에 동헌과 관청들이, 동북쪽으로 사창(司倉)이, 남서쪽에 군관청(軍官廳), 북서에 향사(鄉射), 북문 안쪽에 감옥[獄], 그리고 남문 안에는 보민청(補民廳)과 입마청(立馬廳)이 있었다. 십자로의 길은 성문을 지나 다른 지방과 연결되는데, 동으로 장수, 서로 순창, 북으로 임실, 남으로 곡성과 구례로 이어졌다. 또한 북문 밖에는 향교(鄉校)가, 서문 밖에는 관왕묘(關王廟)가, 동문 밖에는 선원사(神院寺)와 동도역(東道驛)이, 그리고 남문 밖에는 광한루(廣寒樓)가 위치했다. 광한루는 읍 직속의 장흥방(長興坊)에 속하며, 남문인 완월루(阮月樓) 바로 앞에 자리했다. 읍에는 시장이 두 개 있었는데, 하나는 남문 밖 광한루 남쪽에 있었고, 또 하나는 남문을 들어서서 객사 앞에 있었다. 보민청 등 대민업무를 담당하는 관청들은 민간의 출입이 잦은 남문 일대에 포진했다. 호수 동쪽으로는 담장을 치고 전라좌영이 자리 잡았다. 그러므로 광한루는 유사시에 군사 지휘소로 전용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다. 실제로 중종반정 때, 광한루가 주요한 군사집결소로 사용된 적이 있었다. 임진왜란 때에도 주요 군사시설로 이용되었음은 물론이다. 즉, 광한루의 입지는 단순히 경관의 우수성에 기댄 것이라기보다는 교통과 도시적 상황이 반영된 결과이다.

광한루원의 조원 원리에는 조선시대의 유교사상 이외에도 신선사상, 천문사상, 풍수지리설 등 다양한 사상이 융합되어 있다. 호수에 있는 세 개의 섬은 신선설에 등장하는 삼신산이고, 월궁과 은하수, 견우와 직녀, 오작교의 상징은 천문사상에 기반한다. 요천의 물을 끌어 호수를 관 것은 남원부의 내명당수(內明堂水)를 확보하고자 한 풍수지리적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광한루 월랑 창방 위에 새겨진 거북이와 토끼 조각은 귀토설화(龜兔說話)에서 유래한 것인데, 이는 불교 설화로 분류된다. 은하수를 상징하는 큰 호수에는 다리가 놓였다. 남쪽 교통로를 가로막아 형성한 호수를 가로지르는 다리는 단순한 정원의 다리가 아니라 다른 읍치로 이어지는 중요한 교통로 중 하나였다. 그러므로 견우와 직녀 설화를 수반한 오작교의 이야기는 깊은 인상을 주었다. 직녀의 베틀을 고쳤다는 지기석(支機石)과, 견우가 은하수를 건넌 작은 배인 상한사(上漢槎)가 설치되어 상징은 더욱 강화되었다. 이처럼 월궁 설화와 신선설에서 시작된 광한루원의 설화체계는 견우와 직녀

설화로 발전했다. 남원은 김시습(金時習)의 「만복사저포기(萬福寺樗蒲記)」를 비롯하여, 「홍부전」, 「변강쇠타령」, 「홍도전(紅桃傳)」과 「최척전(崔陟傳)」 등 고전문학과 노래의 본고장으로서, 광한루의 사랑 이야기는 「춘향전」으로 이어졌다. 「춘향전」에서는 “전라도로 말하자면 태인 피향정, 무주 한풍루, 전주 한벽루가 종사오나 남원의 경치도 들어보소.”라며 광한루가 전라도의 명루 중 하나임을 강조했다. 광한루가 춘향전의 무대로 자리잡은 후에 광한루 경내에는 관기(官伎)들의 기예를 양성하는 교방(敎坊)이 설치되었다. 1931년에 세운 춘향사(春香祠)에는 김은호(金殷鎬) 화백이 그린 춘향의 영정이 봉안되어 있고, 현재에도 광한루에서 매년 춘향제, 판소리 경연, 그네뛰기, 시조 백일장, 씨름대회, 궁술대회, 춘향뿔기대회 등이 개최된다.

## 2. 연혁 · 유래 및 특징

### (1) 남원 광한루의 건축연혁

광한루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황수신(黃守身, 1407~1467)이 1458년 11월 14일에 지은 「누정기(樓亭記)」이다. 황수신은 조선 전기 명재상 황희(黃喜, 1363~1452)의 아들로서 부친이 건립한 광통루의 유래를 기록했다. 황희의 생애와 「누정기」를 종합해보면, 황희는 태종의 왕위 계승 방침에 반대를 하였다가 1418년부터 1422년까지 남원에 유배를 당하게 되었고, 이때 남원에 광통루(廣通樓)를 짓게 된다. 이후 1434년 남원부사 민여공(閔汝恭)이 누를 재건하였고, 1437년에 남원부사 유지례(柳之禮)가 단청을 하였으며, 1444년에 이곳을 찾은 정인지(鄭麟趾, 1397~1478)가 미인 향아가 사는 월궁 속의 ‘광한청허부(廣寒淸虛府)’를 본 따 이름을 광한루(廣寒樓)로 고쳐 부르게 했다. 민여공의 재건은 황씨 가문의 사적 건축물을 남원부의 공공건축으로 바꾸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정인지가 새로운 당호를 지은 것으로 보아 소유권이 관으로 넘어온 것은 분명하다. 이 시기 광한루에 시를 남긴 사람들은 양성지(梁誠之, 1415~1482), 이석형(李石亨, 1415~1477), 성임(成任, 1421~1484), 강희맹(姜希孟, 1424~1483), 김종직(金宗直, 1431~1492), 허침(許深, 1444~1505), 양연(梁淵, ~1542) 등으로 모두 전라도관찰사 등 관직을 수행하기 위해 남원에 와 있던 사람들이다.

정인지의 개명 이후, 광한루는 선계(仙界)에 비유되는 장소성을 확립했다. 『용성지(龍城誌)』의 「관안신증(官案新增)」에서는 1582년에 부임한 남원부사 장의국(張義國)이 광한루를 고쳐 짓고 오작교(烏鵲橋)를 쌓았다고 했다. 또, 「누정(樓事)」조에는 오작교와 함께 지기석(支機石), 봉래도(蓬萊島), 방장도(方丈島), 상한사(上漢槎)를 기록했는데, 전라관찰사

정철(鄭澈, 1536~1593)이 좁은 개울물을 확장해서 호수로 만들고 은하수를 상징했으며, 못가를 둘러 석축(石築)하고 호수 가운데 섬 셋을 만들어 한 섬에는 푸른 대나무를, 다른 한 섬에는 배롱나무(百日紅)를 심었으며, 또 다른 섬에는 연정(蓮亭)을 세우고, 호수 안을 연꽃으로 가득 채웠다고 했다. 정철이 전라관찰사로 재직할 것은 1581년 2월부터 1582년 9월까지이므로 장의국의 부사 재직 시기와 몇 달이 겹친다. 아마도 두 인물이 협력하여 전체적인 공사가 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남원지(南原誌)』(1960)에는 동쪽의 요천(蓼川)의 물을 끌어다가 천상의 은하(銀河)를 상징한 호수(湖水)를 마련하고, 호중(湖中)에 지상의 낙원(樂園)을 상징하는 연꽃을 심은 것을 장의국의 업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서, 조원 주체에 관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관직과 재직 시기로 볼 때, 정철이 기획한 사업을 장의국이 마무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할 듯하다.

그러나 정철과 장의국이 중건한 광한루는 오래 가지 못했다. 1597년 정유재란(丁酉再亂) 때 왜군에 의해 불에 타 없어졌기 때문에 당시 건축물의 상황에 대한 기록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 왜란 후 1599년 3월에 부임한 남원부사 원신(元愼)이 옛 광한루 터에 작은 누각을 재건하였으나 원래의 규모에 도달하지 못했다. 새로 재건한 광한루는 원래보다 규모가 작고 견실하지 못했기에 금새 기울어지고 불품없게 되었다. 신감(申鑑, 1560~?)이 부사로 부임하면서 1626년 정월부터 그해 윤6월까지 7개월간 공사를 하여 본래보다 규모가 큰 모습으로 재건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신감이 1626년에 「광한루중수서(廣寒樓重修書)」에 기록했다. 현재 광한루의 기본적인 모습은 17세기 초 신감의 중건 결과로 추정되고 있다.

당시에 중건된 광한루 건축의 규모에 대해서는 『용성지(龍城志)』에 의하면, 상방이 2칸이고, 누는 3량가 15칸이며, 누 앞 계단에 하마비가 있고, 각도 2칸, 대문 1칸, 동서 협문 각 1칸, 동성문 1칸, 서성문 1칸, 측실 2칸, 사후청 3칸, 대문 1칸(上房二間, 樓三架十五間, 前階石柱下馬. 閣道二間, 大門一間, 東西俠門各一間, 東省門一間, 西省門一間, 廁室二間, 伺候廳三間, 大門一間.)을 갖추고 있었다고 한다. 이는 지금의 상황과는 다소 차이가 있어서 세밀한 분석과 검증이 필요하다. 또한 『남원지』에서 추정하기에, 신감이 재건한 광한루는 1690년 용성관(龍城館)이 지어지기 전까지 광한루에 전패를 모시고 모든 손님을 광한루에서 접대하였을 것이라고 했다. 광한루가 객사 정청의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할 것인데, 남원 객사인 홀민관(恤民館)이 정유재란때 소실된 것을 근거로 한다. 이 역시 다른 사료들과의 교차 검증이 요구된다.

이후의 남원 광한루의 건축 연혁은 『남원지』를 참고할 때 다음과 같다. 정조대에 동익루를 증축했고, 1795년에 남원부사 이만길(李萬吉)이 삼신산에 영주각을 중수했다. 1855년

에 부사 이상억(李象億)이 광한루와 영주각을 중수하고 현판 글씨를 썼다. 호남제일루(湖南第一樓), 계관루(桂觀樓), 영주각(瀛州閣)이 그의 글씨라고 한다. 단, 현재의 계관 글씨는 동학혁명 때 불에 탄 것을 강대형(姜大炯)이 새로 써서 걸은 것이다. 누마루 밑 원형 초석에 ‘함풍을묘추(咸豐乙卯秋)라는 각자(亥字)가 있어서, 1855년의 중수를 기념하고 있다. 또, 『남원지』 내용 중 「광한루현관담(廣寒樓玄關譚)」에 따르면, 1877년(고종 14년)에 부임한 남원부사 이용준(李容準)이 광한루가 퇴락하여 본관 전체가 북쪽으로 기울어져 무너질 우려가 있어 1879년(고종 16년) 수지면 고평리에 사는 추(秋) 대목의 묘안을 받아들여 북쪽에 누를 오르내리는 계단을 만들되 본관과 같이 아름답리 기둥을 세워 튼튼하게 고정시켜 본관의 기움을 바로 잡고 외관도 더 화려하게 하였다고 한다. 『남원지』에 따르면, 익루는 정조대에, 월랑은 1879년에 건축된 것이다.

이후 일제시기에는 1910년 10월부터 1928년 2월까지 임시재판소로 사용되었으며, 1925년에는 누의 동쪽 아래 직실(直室)을 마련했다. 1931년에는 동쪽에 춘향묘가 건립되었다. 해방 이후, 1963년에 부지를 매입하여 영역을 확장하고, 호수 둘레에 철책을 가설하였으며, 오작교 옆 방장섬에 육모정인 방장정을 건립했다. 1965년에는 영주각을 단청했고, 1969년부터 1970년까지 호수를 확장하고 광한루원의 전체적인 면적을 크게 넓혔다. 또 정문으로 쓰던 북문을 후문으로 삼고 남쪽에 정문을 신축했다. 1983년에 경역이 한 번 더 확장되었고, 사적으로 지정되었다. 1994년에 광한루원 보수정비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가 이루어졌다.

## (2) 남원 광한루의 건축적 특징

남원 광한루는 정면 5칸, 측면 4칸 규모의 본루(本樓)와 동측의 익루(翼樓), 북측의 월랑(月廊)으로 구성된다. 본루는 대청으로 꾸며져 누각 본래의 기능을 가지며, 익루에는 온돌방을 드려 본루를 보완하는 기능을 지니게 하였다. 월랑은 본루의 북측에 계단식으로 구성된 일종의 현관이다. 본루와 익루 그리고 월랑 모두 외부 쪽은 팔작지붕으로 되어 있고, 연결부는 맞배지붕 형식으로 꾸몄다. 이처럼 누각에 부수적 기능을 가진 부분을 덧붙여 확장하는 경우는 사례가 많지 않아서 남원 광한루의 주요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본루는 정면 5칸, 측면 4칸 규모로, 용척을 305mm 내외로 했을 때, 정면에서 정칸과 차칸을 10.5척, 협칸을 9.5척으로, 측면에서 전후퇴칸을 각각 10.5척, 중앙 두 칸을 합쳐 14.5척으로 잡은 것으로 추정되지만, 실측보고서에서 정확한 용척 탐색이 어렵다고 분석했으므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정면 협칸과 측면 퇴칸의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귀가 정

사각형을 이루지 못하여 추녀가 약간 틀어졌고 선자서까래의 개수도 정면과 측면에서 차이가 난다. 누하층에서는 모든 칸마다 빠짐없이 기둥을 세웠으나 누상층에서는 북측열에만 내주를 남기로 나머지를 모두 생략하여 넓게 트인 공간을 구성했다. 본루 누하주의 초석은 정면 외주열과 네 귀는 방형 석주, 나머지 삼면은 원형 초석을 썼다. 기둥은 대부분 민흘림으로 다듬어져 있으나 흘림의 정도는 미미한 편이다. 누마루 주위는 계자 난간을 돌리고 기둥과 기둥 사이에는 들어열개창이 달린 상태이다.

본루의 상부 가구는 칠량가이나 고주를 사용하지 않고 대량과 퇴량을 맞보 형식으로 연결한 후 아래에 기둥을 받쳤다. 측면 가구 전체 길이를 대략 4등분한 위치에 대공을 세우고 중량을 얹었으며, 다시 중량을 4등분한 위치에 대공을 세워 중량을 올렸다. 중량 위에는 파련대공을 설치하여 종도리를 받쳤다. 이때 정면의 처마도리와 하중도리 사이의 거리는 약 9척이지만, 배면의 처마도리와 하중도리 사이의 거리는 약 8.5척 전후로 측정되어 지붕구조가 약간 비대칭인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처마내밀기는 정면보다 배면이 더욱 길어서 외관상으로는 전후가 비슷한 모습이다. 처마내밀기 치수를 살펴보면 부연 내밀기가 서까래 내밀기의 절반보다 작아 다소 짧게 느껴진다. 한편, 후면 평주와 내주 사이의 거리가 10.5척 정도이므로 내주가 하중도리열보다 약 2척 가량 안쪽으로 이주(移柱)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가구의 비례와 내부 기둥의 처리는 다른 전각에서 발견하기 힘든 사례로서 향후 세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대들보의 단면은 목재의 원래 형태를 최대한 살려서 다듬었고, 도리는 아랫면을 장여의 윗면에 맞추어 수평으로 깎아 사용했다.

본루 공포는 일출목 이익공계의 짜임이나 재주두는 생략되었다. 익공과 침차는 각각 두 가지 형태가 사용되었다. 하나는 다포식 제공처럼 쇠서를 길게 빼서 끝을 사절하고, 초익공·이익공·운공의 문양을 넝쿨 무늬로 일체화한 형태이고, 다른 하나는 익공 끝을 크게 휘어진 모습으로 말아 처리하고 운공 자리에 봉두를 초각한 형태이다. 이중 다포계 쇠서를 단 익공들이 건물의 남쪽 정면에 배치된 것으로 보아 의장 위계 상 우위를 점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장여 뺨목을 초각하거나 봉두나 하엽 등으로 장식하고, 본루와 익루 연결부에 용을 조각했으며, 동북쪽에는 목을 길게 뺨 거북이를 조각하는 등 전체적으로 장식이 강조되었다.

남원 광한루의 익루는 본루에서 연결되는 온돌방을 드리기 위해 나중에 부설되었다. 익루의 건축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못했으나, 『남원지』에 의거하여 정조대에 건립된 것으로 잠정하고 있다. 익루의 건축시기는 「춘향전」의 사설들을 검토하여 약간의 보완이 가능하다. 춘향의 집은 광한루 동쪽 장림 숲 사이에 있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는

데, 광한루에서 한눈에 서쪽 하늘의 석양과 남쪽 요천 건너 버들숲과 동쪽 춘향집을 바라 보았다고 한다. 온돌방이 부설된 익루가 있다면 동쪽 경관을 바라보기는 불가능하므로, 익루는 「춘향전」이 성립되는 18세기 중엽까지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익루 주 위로는 툃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에 온돌방을 드렸다. 익루의 가구는 이고주 오랑가로 구성되었는데, 지붕 속에 다시 동자주를 세우고 덧서까래를 걸은 것은 독특한 방식으로 향후 건축 연대를 판정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익루에는 초익공계 공포가 짜여져 있는데, 익공의 쇠서를 두 갈래로 만들고 보머리를 봉두형으로 조각하였다.

월랑은 늦게 부가되었지만 가장 화려하게 지어졌다. 본루와 익루에는 막돌 초석이 사용되었으나 월랑에는 팔각형 장초석이 사용되었다. 공포는 이익공계로서, 쇠서는 연화와 연봉을 조각했고, 이익공과 보머리 사이에 봉두(鳳頭)를 끼웠다. 입구 귀공포 두 곳에는 귀한대 상부에 용두(龍頭)를 조각하여 끼웠다. 창방 위 화반은 거북과 토끼, 코끼리 등 동물형상으로 장식했다. 월랑의 가구는 중앙부가 위로 휘어오른 만곡재를 사용하여 특색있게 꾸며 출입구로서의 상징을 강화했다. 또한 살대와 홍살로 난간과 벽체를 구성하여 의장에 많은 배려를 하였다.

### 3. 지정 가치 및 종합의견

남원 광한루는 15세기에 황희가 건축한 광통루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16세기 말에 현재와 같은 정원의 구성 체계를 갖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광한루는 정유재란때 전소되었다가 1626년에 확대 재건되었으며 이후 익루와 월랑이 부설되었다. 남원 광한루의 문화재적 가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시대 관영 누각이 형성되는 한 사례를 보여준다. 남원 지역은 고려시대에 황희의 6대조인 황감평(黃監平)이 일재(逸齋)라는 별당을 운영한 연고가 있고, 15세기 초에는 황희의 유배처가 되었다. 황희가 귀양지에 작은 누정을 짓고 이름을 광통(廣通)이라 한 것은 지역사회를 고무시켰을 것이다. 그러나 광통루는 황희 또는 황씨 문중의 재산일 뿐이었다. 1434년 남원부사 민여공(閔汝恭)이 광통루 자리에 새로 누각을 짓고, 이어 1437년에 남원부사 유지례(柳之禮)가 단청을 하고, 1444년에 이곳을 찾은 정인지(鄭麟趾)가 누각의 명칭을 광한루(廣寒樓)로 명명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누정은 관영 누각으로 변모하였다. 삼척 죽서루나 밀양 영남루가 고려시대 사찰의 누정이 관영 누각으로 변모한 사례라면, 남원 광한루는 사가의 누정이 관영화되는 사례라는 점이 특징이다. 15세기 이후

광한루의 확장과 수리는 다른 관영 건축과 마찬가지로 지역에 부임한 역대 관리들의 주도로 추진되었다.

둘째, 설화를 바탕으로 한 낭만적인 조원 계획이 돋보인다. 정인지에 의해 누각의 이름이 광한루로 정해진 이후, 정원이 상징하는 이상향에 대한 문학적 상상력이 점차 누적되었다. 송강 정철(鄭澈)은 1581년에 전라관찰사에 부임하여 약 1년 반을 재직하면서 광한루 동쪽 요천(蓼川)의 물을 끌어다가 천상의 은하(銀河)를 상징한 연못을 조성했다. 연못에는 신선이 사는 세 개의 섬을 만들어 각각 푸른 대나무, 배롱나무, 연정을 세웠고, 물 위를 연못으로 가득 채웠다. 마침 1582년 남원 부사로 부임한 장의국(張義國)이 적극적으로 공사를 추진하였고, 견우와 직녀의 전설을 상징하는 오작교를 세우는 공사까지 완료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낭만적인 모티브는 이후 남원과 광한루를 배경으로 「춘향전」이 성립하는 바탕이 되었다.

셋째, 조선 후기 건축의 장식성과 실용성을 예증한다. 남원 광한루의 공포는 일출목 이익공식으로 두 가지 형태가 함께 사용되었다. 하나는 다포식 제공처럼 쇠서를 길게 빼서 끝을 사절하고, 초익공·이익공·운공의 문양을 넝쿨 무늬로 일체화한 형태이고, 다른 하나는 익공 끝을 크게 휘어진 모습으로 말아 처리하고 운공 자리에 봉두를 초각한 형태이다. 또한 장여 뿔목의 초각, 외기 교차부의 달동자, 용과 거북이 조각 등 건물 전체에 화려한 장식이 배풀어졌다. 동시에 익루를 부속시켜 온돌방을 들이고, 월랑을 설치하여 출입의 편의를 꾀한 것은 조선 후기에 대두된 실용성을 추구하는 경향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남원 광한루는 현황 조성시기에 대한 연혁과 조성 과정이 충분히 연구되지 못했다. 『용성지』와 『남원지』의 건축 기록은 다른 사료들과 교차 검증되어야 하며, 특히 1623년 건축 이후의 수리 상황이 상세히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남원 광한루의 두 가지 익공형식의 혼용, 목조에 활용된 동물 문양의 도상적 특징, 익루에서의 덧서까래 활용 방식 등 양식적 측면의 연구 또한 심화될 필요가 있다.

##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23.04.14	대상문화재	남원 광한루	
조사자	성 명	○○○	전공 분야	한국건축사
	소 속	○○○○대학교	직위(직책)	교수
주요 지정 사항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국보)		
	문화재 명칭	남원 광한루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세부내용 별첨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3 년 8 월 26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 1.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 환경

남원 광한루는 전라북도 남원시 요천로 1447번지 일대에 위치한 중층 누정건축이다. 1419년 광통루를 지으면서 시작되어 1434년 중건하고 정인지가 ‘광한청허부’라고 한 것에서 광한루라고 부르고 있다.

남원 시가지의 남단과 요천변 도로 사이에 자리하여 광한루, 영주각, 오작교와 석오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들이 20세기 이후에 지어져 호수와 더불어 누원을 이루고 있다. 광한루원의 규모는 동서 100m, 남북 60m 정도이고, 누원 내에는 광한루 앞에 동서로 길게 조성된 연못과 못 속의 3개의 섬 그리고 서편에 4개의 홍예로 구성된 오작교를 중요한 공간 요소로 하고 있다. 월궁, 용궁, 선계, 견우와 직녀 이야기 등의 다양한 형태로 무릉도원을 표출하는 공간으로 15세기 초에 형성되기 시작하여 16세기에 원(園)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광한루원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옛 남문시장 터 등을 매입 확장하여 광한루의 동북쪽에 춘향사당, 삼신산 남쪽으로 완월정과 연못, 남서쪽에 월매집, 일곽을 둘러싼 담장에 면해 남쪽에 관리사무소와 춘향관 등이 같이 자리하고 있다. 『춘향전』에서 이도령과 춘향이 인연을 맺은 장소로 1920년대에 춘향사를 건립하고 김은호 화백의 영정을 모셔 놓고 있다. 관청에서 경영했던 객사 누각과 정원이지만 읍성 밖에서 떨어져 위치하여 구도심에 자리하지만, 잘 보존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경내의 문화재는 명승인 광한루원이 있고 주변에는 사적인 남원읍성, 시도유형문화재인 남원 관왕묘, 시도기념물인 남원 금남재, 시도민속문화재인 남원 석돈, 문화재자료인 관서당 남성재와 용성관 석물, 유애묘 등이 있다. 매년 음력 5월 5일 단오절에는 춘향제가 열리고 있다.

## 2. 연혁·유래 및 특징

남원 광한루의 역사적 관련 기록은 다음과 같다.

광한루는 북서쪽에 교룡산성이 있는 교룡산이 있고, 남쪽 근경에는 요천 건너 금암봉이 있고, 중경에 덕음봉, 옥녀봉, 비구봉이 둘러싸고 멀리 깃대봉을 바라보고 있고, 원경으로 남동쪽으로 반야봉과 노고단이 있다. 황수신의 『광한루기(廣寒樓記, 1458)』에 ‘남쪽 2리 쯤 떨어진 곳에 지세가 편평하고 넓다란 들판이 있어, 마을에서 다소 떨어져 한적하고 주위는 산으로 둘러싸여 하늘과 맞닿고 흰구름이 하늘을 반쯤 덮고 있으며, 앞에는 맑은 물이 흐르고 있어 물고기가 노닐고 있으니 참으로 좋은 풍경지가 아닐 수 없다.’고 하여, 원과 중경의 산으로 둘러싸이고 북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요천이

이루는 자연지형을 이루고 있다. 멀리는 반야봉과 지리산이 있고, 동쪽의 장림, 서쪽의 관왕묘, 남쪽에 광한루, 북쪽에 교룡산성(진산인 교룡산) 등이 남원읍성을 둘러싸고 있다. 연못은 은하수를 상징하지만 내수를 형성하고 하천까지 터져 있어서 안산을 형성하기 위하여 삼신산을 조성하고 있다. 누원 내의 연못과 섬 그리고 조경 요소를 이용하여 내외부 조원의 세계를 구축하고 있다.

근경으로는 광한루원의 경계 밖 남측에는 울림(栗林)이 조성되어 있어 남원부사인 유지례가 광한루의 남측에 밤나무 숲을 조성하고 있다. 임진왜란 이후 사역과 장시로 이용되고, 고지도에서도 광한루 일대를 ‘장시(場市)’로 명시하고 있어 성외 장시로서 이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객사인 용성관을 중심으로 그 남쪽 건너편에 동헌 등 관청은 남원읍성에 있었지만 북문 밖에 향교, 서문 밖에 관왕묘, 동문 밖에 선원사와 동도역 그리고 남문 밖에 광한루 등이 모두 성 밖에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남문이 출입이 가장 많았는데 주변에 남문 밖 광한루 근처에 시장(월매집 근처)이 있었고 보민청, 전라좌영(훈련원), 장대와 지소 등 대민 업무나 군사시설을 담당하는 관영시설 등이 남문 일대에 있었다고 한다. 광한루 자리는 오작교를 지나 남문으로 이어지는 주요 교통로이자 다양한 도시적인 시설과 시장이 집중된 곳으로 원림과 더불어 휴식공간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광한루에 오르면 광한루원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열려 북쪽 교룡산, 남쪽 금암봉, 멀리는 지리산 노고단과 반야봉 등이 보이고 요천까지 경관역으로 들어와 우선 산과 물이 경관요소가 되고 있다. 나아가 시문 등에서 언급하는 경관 요소는 골짜기 물, 울창한 초목 장막, 호수, 넓은 평야, 긴 모래밭, 낭떠러지, 기이한 바위, 도서, 화죽, 떼배, 지기석 등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석양, 은하수 등을 포함하여 신선이 사는 곳으로 상징화하고 있다.

남원 광한루의 연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황수신의 『광한루기(廣寒樓記, 1458)』에 1419년(세종 1) 황희가 남원으로 유배<sup>14)</sup>되면서 이 고장의 남쪽 2리 쯤 떨어진 곳에 누를 세워 광통이라고 한 것이다. 조선 전기 황희의 6대조 황감평이 고려 때 무인난(武人亂)으로 남원에 낙향하여 지은 ‘일재(逸齋)’라는 조그마한 서당인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건립에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쇠락하여 1434년 남원부사 민여공(閔汝恭)이 새로 고쳐 짓고, 1437년(세종 19)에 남원부사 유지례가 단청을 하고 1444년(세종 26) 밤나무를 심어 울수를 조성<sup>15)</sup>하였는데 하동부원군 정인지(鄭麟趾, 1396-1478)가 ‘광한루(廣寒樓)’라

14) 황수신(黃守身)의 「광한루기(廣寒樓記)」, 1458. “...감평(鑑平)이라는 어른이 있어 태학(太學)에 유학한 바 있으나 벼슬길을 단념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서당을 짓고 그 당호를 일재(日齋)라 부르며 책과 벗하고 지냈으며, 많은 후학들을 길렀다. 돌아가신 아버님의 이름은 희(喜)라 하였는데 나라의 수상이 되었고 24년간이나 안위(安危)속에서 정승을 지낸 분으로 90세에 세상을 떠나시었다. (중략) 이에 조그마한 누(樓)를 세워 광통(廣通)이라 이름 지었는데 선친(황희)이 여러 친구들과 함께 놀면서 즐기는 곳이었다...”

15) 같은 책. “요천의 서남쪽에는 넓은 들판이 있어 유군(柳君)이 밤나무종자를 수천뿌리 심었는데, 대대로 주어져 쓰이지 않음

고 이름 지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광한루가 조성된 이후 1582년(선조 15) 전라관찰사 정철(1536-1593)이 있을 때 남원부사 장의국(張義國, ~1584)이 광한루의 면모를 일신하여 화려하게 중수하고 요천강을 끌어다가 은하수를 상징하는 호수를 마련하여 오작교(烏鵲橋)를 조성함으로써 광한루 일대의 원(園)이 조성되고 있다.<sup>16)</sup>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정철이 전라관찰사 재직(1581년 12월-1582년 8월) 때 만든 것으로 호수 가운데의 섬은 대나무를 심은 봉래섬, 배롱나무를 심은 동쪽의 방장섬, 연정(蓮亭)을 세운 북쪽의 함주섬<sup>17)</sup>을 세우고 있다. 정철도 광한루 중수와 오작교 건립에 관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sup>18)</sup>

1597년 정유재란 때 왜구에 의해 불타 없어진 옛터에 부사 원신이 조그마한 누를 재건하였으나 오랜 세월이 기울어지자 1626년(인조 4) 7월 남원부사 신감이 재건한 것이다.<sup>19)</sup> 그 과정에서 1625년 가을에 부사로 부임하면서 여러 측근들과 의논 끝에 재건하기로 작정하고 이듬해 정월에 착공하여 7월에 준공하고 있어 이전의 조그마한 누를 기획, 설계, 시공에 이르는 과정을 통해 현재의 규모와 같이 조성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연륜 연대 측정 결과<sup>20)</sup>와 비교하면 당시에 익현도 같이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관리하는 사람은 전감목(前監牧)이었던 오윤조(吳胤祖), 감독관은 남원부의 관리인 이시봉(李時逢), 심봉(沈鳳) 그리고 배수복(裴壽福)이라고 기록하여 실명을 거론하여 이를 증명하고 있다.

1795년(정조 19) 남원부사 이만길(李萬吉)이 장의국이 중수한 연정으로 추정되는 영주각을 중수하고 있다.<sup>21)</sup> 1855년(철종 6) 남원 부사 이상익이 누각을 대대적으로 보수하고 ‘호남제일루(湖南第一樓)’라는 현판을 걸고 있다. 1879년(고종 14) 남원 부사 이용준(李容準)이 광한루 본루가 북쪽으로 기울어지자 남원 수지면에 살던 추대목이 북쪽 누각을 오르는 월랑을 제안<sup>22)</sup>하고 광한루의 큰 들보를 개수(改修)하고 난간(欄干)을 가설

---

이 아니겠는가. 울창하게 우거진 초목이 펼쳐져 장막처럼 둘러쳐있고, 삼라만상(森羅萬象)이 한눈에 펼쳐지니 이것을 일컬어 울수(栗藪)라 한다.”

「남원관부도(1699-1752)」에는 울장으로 표기되어 있다.

16) 용성지(龍城誌)의 관안(官案), 『남원지(南原誌)』에도 ‘1582년(선조 15, 임오)에 새로 부임한 부사 장의국은 광한루의 면모를 일신시켜 더욱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는 먼저 동쪽으로부터 요천강(蓼川江) 맑은 물을 끌어다가 천상의 은하(銀河)를 상징한 호수(湖水)를 마련하였고, 호중(湖中)에는 지상의 낙원(樂園)을 상징하는 연꽃을 심었으며, 하늘의 은하수에 가로막힌 견우성(牽牛星)과 직녀성(織女星)이 일년일도(一年一度) 칠월 칠석(七月七夕)에 건너가 서로 만남을 상징하는 오작교를 호수 위에 가설하되…후략’라고 한다.

17) 1795년(정조 19) 부사 이만길이 영주각을 재건했다는 기록으로 보아 그때 섬 이름이 바뀐 것으로 추정된다.

18) 지정보고서 79쪽. 정철은 전라남도 무등산지역에 있는 식영정과 환벽당 그리고 소쇄원에서 놀며 즐겼고, 명종 임금과 절친한 사이로 궁궐을 드나들면서 경회루 등 정원양식을 눈에 익혔기에 능히 이러한 조경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9) 신감(申鑑), 「광한루중수서(廣寒樓重修書)」, 1626. 이는 이유원(李裕元, 1814-1888)의 『임하필기(林下筆記)』(1872)에도 잘 나타나고 있다.

20) 지정보고서, 45쪽. 2002년에 시행된 남원 광한루 수리공사 과정에서 목재 연륜연대 조사의 결과 문헌기록에 의한 건축역사와 비교하여 1626년 본루와 함께 지어졌음이 밝혀졌다고 한다.

21) 당시 익루(翼樓, 直室)를 증축하였다는 견해와 1925년 증축하였다는 견해가 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하고 있다.<sup>23)</sup> 1881년 월랑을 설치하고 본루와 익루를 대대적으로 수리하고 있다.<sup>24)</sup> 일제강점기에는 1909년부터 1928년까지 동쪽에 직실을 마련하고 남원재판소와 현병분견대(감옥)으로 사용<sup>25)</sup>된 바 있고, 1923년에는 재판소로 사용되기도 한다. 1925년에는 군수 백정기(白定基), 면장 양재영(梁載英), 진사 이수봉(李洙鳳) 등이 민간의 의연금으로 중수하여 보수하고<sup>26)</sup> 춘향사를 건립하여 1931년에 마무리하고 있다. 1963년 1월 21일 광한루는 보물 제281호로 지정되고 있다.

1964년 남원군수 이화익이 오작교 옆 방장섬에 방장정을 신축하고 있다. 1971년 오작교 옆 담장을 헐어 경역의 확장과 완월정 및 청허부(정문)을 신축하여 현재와 같이 조성되고 있다. 1983년 오작교 북쪽을 발굴하면서 경역을 확장하여 사적 제303호 광한루원으로 지정하고, 2008년 1월 8일 명승으로 변경되고 있다.

광한루원은 1444년 유지례가 울수를 조성하고, 1582년 전라관찰사 정철 재임시 남원부사 장의국이 요천을 끌어다가 은하수를 상징하는 호수를 마련하여 오작교(烏鵲橋)를 건립하고 봉래섬, 방장섬, 함주섬과 조경을 하여 원(園)을 조성하고 있다. 임란 이후 울장이나 장시로 이용된 것을 기록<sup>27)</sup>과 고지도<sup>28)</sup>로 확인할 수 있다. 1626년 광한루를 재건하면서 누원이 회복된 것으로 추정된다. 지승(1677)과 광여도(1737-1776)는 요천과 별도의 하천이 흘러 요천으로 합류되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고, 비변사인방안지도(1741-1750)와 해동지도(1750년)에는 요천이 분기되어 광한루 앞으로 지나 다시 요천으로 합류되는 표현을 하고 있다. 1750년대 지도(1753-1799), 호남읍지(1871), 남원부지도(1872), 전라북도각군읍지 등에는 요천만 표현되고 광한루 앞에 연못으로 표기되고 성외장시로 변화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795년 영주각을 중수하면서 광한루원이 회복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광한루만이 아니라 자연지형과 물을 이용하여 삼신산이나 천상(天上)세계를 상징하는 원림으로 확장하여 현재의 모습으로 남아 있다.

남원 광한루는 남원읍성의 남문에서 남쪽으로 115m 거리에 위치하고 남문의 중심축에

22) 『용성속지(龍城續誌)』, 1923. 본루(本樓) 보다 정면은 유사하게 측면은 좀 적게 만들었다. 전에는 오르내리던 사다리만 있었으나 이 현관 부분을 만듬으로써 우리나라 누각에 설치한 보기 드문 현관이 되었다. 당시에는 재판소로 사용하였다고 한다.

23) 「남원지(1959)」.

24) 연륜연대 측정에 따라 밝혀진 내용이라고 한다.

25) 누각의 마루를 뜯고 재판소와 감옥을 만들어 사용하여 징발된 돌기둥과 나무 기둥은 문고리를 설치한 흔적이 남아 있다.

26) 「남원지(1959)」

27) ) 『용성지(龍城誌, 1752)』. 광한루 남쪽에 부사(府使) 유지례(柳之禮)가 심었던 것으로 옛날 대나무가 대단히 울창하였는데, 김덕령(金德齡, 1567-1596) 장군이 진(陣)을 열고 용마를 타고 달리는 데에 방해가 되므로 신검을 뽑아 잠간 사이에 제거하였다고 한다. 지금은 비어있는 땅이 되어 여기서 사역(使役)을 익히기도 하고, 또 읍의 장시(場市)를 열기도 한다.

『광한루기(廣漢樓記)』. 요천의 서남쪽에는 넓은 들판이 있어 유군(柳君)이 밤나무 종자를 수천뿌리 심었는데, 대대로 주어져 쓰이지 않음이 아니겠는가. 울창하게 우거진 초목이 펼쳐져 장막처럼 둘러쳐 있고, 삼라만상(森羅萬象)이 한눈에 펼쳐지니 이것을 일컬어 울수(栗藪)라 한다.

28) 남원관부도(南原官府圖, 1699~1752), 1700년대 지도(1753-1799), 남원부지도(1872), 전라북도 각군읍지 등에 나타나 있다.

서 약간 동쪽으로 치우쳐 있다. 광한루 앞에는 남서향하여 동서 방향으로 길게 연못을 조성하여 서쪽에 4개 홍예로 구성된 오작교가 남서쪽에서 광한루 서쪽 20여m 거리까지 이어져 있고, 광한루 앞 양쪽으로 서쪽부터 방장섬과 대숲으로 조성된 봉래섬 그리고 동남쪽으로 영주섬 3개의 원형 섬과 섬을 잇는 목교가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영주섬에는 영주각이 자리하고 방장섬에는 육모정인 방장정(1964년 신축)이 있다. 연못은 요천에서 동쪽으로 끌어들이 3개의 섬을 돌아 오작교 홍예를 지나 서쪽 연못으로 흘러나가고 있다.<sup>29)</sup> 연못의 남쪽과 동쪽 호안 석축은 비교적 직선형으로 쌓았으나 광한루 앞인 북쪽은 크게 세 번 정도의 호를 그리며 돌출부를 형성하여 서쪽부터 자라석, 봉래섬을 잇는 목교 그리고 영주섬 뒤에는 입수구를 막으며 굽이치고 있다.

광한루 북동쪽으로 30여m 거리에 남원 수령이나 어사 등 관리의 공적을 기록한 30개의 비가 두 줄로 길게 늘어서 비석군을 이루고 있다.<sup>30)</sup> 이는 동헌이나 부내에 산재한 것을 광복 후에 옮겨 보존하고 있다고 한다. 그밖에 광한루의 동북쪽에 춘향사당이 있고, 남서쪽에 월매집과 광한루원 일곽을 둘러싼 담장에 면해 남쪽에 관리사무소와 춘향관 등이 같이 자리하고 있다.

배치를 통해서 객사 누각과 관아정원이지만 읍성 남문에서 115m 정도 남쪽으로 이격하여 자리하고 있고, 연못과 삼신산 그리고 오작교 등 신선세계와 천상을 상징하는 공간을 구현한 누원으로서 의미가 있다.

남원 광한루는 중층누각으로 본루를 중심으로 동쪽 전면에 맞추어 익헌과 북쪽 가운데에서 누로 오르는 월랑으로 구성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1626년 7월 신감의 재건 논의와 공사 그리고 관리 및 감독관 등으로 보아 현재의 모습과 가장 가까운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연륜 연대 측정 결과와 비교하면 익헌도 같이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본루와 익헌이 1626년 중수되어 현재의 규모로 중수되고 1879년 월랑을 제안 받아 1881년 월랑을 설치하고 있다고 추정된다.

본루는 정면 5칸, 측면 4칸 규모이고 익헌은 정면 3칸 반, 측면 2칸으로 동쪽 전면에 이어져 전체적으로 9칸을 이루고 있다. 정면과 측면의 비는 1:0.70 정도로 일반적인 비보다 길게 구성되어 평지에 대해서 길게 보이도록 한 것으로 추정된다. 측면 간살에서 가운데 2칸보다 전·후 협칸(10.5척)을 넓게 잡아 도리 방향 협칸과 같이 설정하는 일반적인 방법과 달리 도리 방향 협칸(9.5척)으로 추녀가 45°방향으로 걸리지 않아 선자서까래 수도 다르다. 정면 협칸을 약간 좁게 하여 긴 정면에 대하여 시각보정을 하는데 반해 측면은 가운데 2칸을 좁게 하여 안정적이지만 협칸이 넓어 보이고 있다. 삼신산이나 연못에서 보면 안정적이는데 오히려 개방된 오작교 쪽에 대한 간살 구성은 안쪽은

29) 일부는 영주각 앞에서 남서쪽 완월정이 있는 방지를 요천으로 흘러나간다.

30) <http://namwon.grandculture.net/namwon/toc/GC00600743>

안정적이나 바깥쪽은 변화있게 보이고 있다. 이는 가구에서 내진주 위에 층랑과 포대공의 위치를 달리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상층 평면구성은 내진주를 후면에만 설치하고 전면에는 설치하지 않아 전면에 대한 개방성을 고려한 평면구성을 하면서 공간의 위계와 공간사용을 고려한 것으로 추정된다. 본루의 북쪽 가운데 칸에 월랑을 오르면 본루는 2층 누각 형식으로 누마루에 익현과 월랑으로 연결되는 칸을 제외하고 외진 바깥으로 난간마루와 계자난간을 설치한 우물마루이다. 기둥 사이에는 사분합 들어열개창으로 되어 여단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들어열개창은 언제 설치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하층 평면은 상층과는 달리 외진과 내진부 모두에 주초와 기둥을 설치하여 마루의 하중을 고르게 받도록 하고 있다. 하층 주간은 평균 1:0.9 정도로 잡고 있어 웅장하게 보이고 있고 정면은 가운데 3칸을 넓게 잡고, 측면은 중앙 2칸보다 전·후협칸을 넓게 잡고 있다. 또한 누하의 기둥은 전면과 우주에 사다리꼴 높은 초석으로 시각적인 안정감을 주고 있다. 누하의 초석과 기둥에는 인방재를 끼운 홈 자국들이 있어 1910년부터 1928년까지 남원재판소와 현병분전대(감옥)의 흔적으로 추정된다.

건축구성은 본루와 익현 그리고 월랑을 둘러싸는 전체를 한 단으로 크기가 일정하지 않은 가공된 장대석 기단을 만들고 있다. 재료는 자연석과 화강석을 혼용하고, 월랑에서는 주로 화강석의 장대석을 사용하고 있어 시대적인 차이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기단 내밀기는 본루와 익현 그리고 월랑에 위치에 따라 모두 내밀기에 차이가 있고, 거북이가 기둥머리에 조각되고 현판이 설치된 북측과 동측이 가장 많이 내밀고 있어, 위계적인 것인지 미기후에 대응한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기단 위에 본루와 익현에는 자연석을 거칠게 방형으로 다듬거나 일부 부정형의 자연석 초석이 사용되고, 월랑에는 팔각형의 높은 초석이 사용되고 있다. 활주에는 두 단의 받침을 둔 항아리형 원형초석이 사용되고 있다. 내진주 초석은 외진주 초석들보다 작고 부정형이 많고, 외진주에서는 우주의 초석(방형 석주)이 가장 크고, 남측면, 서측면과 동측면, 북측면의 초석 순이다. 초석높이는 우주와 서측면의 초석, 외진주들과 북측열 내진주, 남측열과 중앙열의 초석 순이다. 이는 초석의 형식과 크기 및 높이는 보이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형화된 것을 놓으면서 시각적인 안정감을 주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초석 위에 그랭이질을 하여 누하주를 세우고, 누하주는 외진주열의 정면과 네 귀는 모점은 사다리꼴 방형 석주, 나머지 삼면은 높은 원형 초석 위에 목재 두리기둥, 내진주는 목재 두리기둥을 세우고 있다. 기둥은 일부 배흘림이나 일자형도 보이는 것도 있으나 3% 민흘림이 있는 나무기둥과 9% 정도의 석주 흘림을 주고 있다. 정면과 우주의 석주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나무 기둥에 비해 굵고 재질이 다르므로 빗물이나 습기 그리고 층해로부터 보호하는 기능만이 아니라 반복적인 석주로 인해 시각적인 안정

감을 주면서 장중한 느낌을 주고 있다. 서측과 북측면 기둥은 높은 원형 초석 위에 목재 두리기둥을 혼합하여 오작교와 월랑 진입에서의 조망을 고려한 변화있는 구성을 하고 있다.

기둥은 우주와 다른 외진주들은 6.5척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기둥 길이는 덩벙주초에 맞추어 사용하고 있다. 기둥 단면은 정방형이나 장방형에 가까운 형태로 일정하지 않으나 우주는 한 변 2.5척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정면 기둥들은 우주보다 2~3급 정도 작으며 서측과 북측면 하부는 1.5~2척 정도이다. 이와 같이 누하주는 누상의 하중을 받는 안정성을 고려하고 있다. 내진주는 나무 두리기둥으로 7.0척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덩벙주초에 맞추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기둥 굵기는 1.5척 정도를 기준으로 2% 정도 흘림의 민흘림기둥이다. 누상주는 나무 두리기둥으로 외진주는 평주이고 내진주는 고주이다. 외진주 길이는 10척을 기준으로 하고 내진주 길이는 외진주보다 1.15척 정도 길게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굵기는 우주 하부 1.48척과 상부 1.40척, 나머지 외진주 하부 1.38척과 상부 1.28척이고, 내진주는 하부 1.37척과 상부 1.23척이다. 이는 우주는 1척 정도 굵고, 외진주와 내진주는 같은 굵기인 것으로 추정된다. 기둥은 일자형이나 역민흘림 혹은 배흘림이 보이는 등 다양하지만 흘림이 크지 않은 1% 내외의 민흘림기둥을 기본으로 재목의 생김 그대로를 적절히 다듬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활주는 두리기둥으로 본루와 익헌에 사용하고 있고 활주초석 위에 세워 추녀를 받고 있다. 활주 길이는 본루와 익헌에 같은 굵기를 사용하고 있고, 활주 머리는 추녀 뱃바닥에 맞추어 경사지게 접합되고 있다. 누하에는 모든 칸에 기둥을 세우고 기둥머리에 청방(廳技)과 귀틀을 결구하고, 누상에는 익헌과의 연결부에 외진주 1개를 생략하고 있다. 누하주는 귀틀에 우물마루를 구성하고, 마루 위로 퇴를 둘러 계자난간을 설치하고 있다. 내진주는 북측 후면에만 세우고 중앙열과 전면 쪽은 세우지 않고 있다.

가구는 1고주 7량가이다. 누상부는 기둥머리에 창방을 설치하고 창방 위 중앙에 화반을 설치하여 소로를 놓고 장여받친 굴도리를 받고 있다. 화반은 두 장의 판재로 양면에 초각을 장식하고, 상부에는 세 개의 소로를 설치하여 처마도리 받침장여를 받고 있다. 전면 평주와 내진고주 머리에 보아지와 침차를 직교하여 그 위에 대들보를 걸고, 직선에 가까운 퇴량을 맞보형식으로 결구하여 맞대고 뜯장여와 결구하고 있다. 퇴량의 내단에 만들어진 주먹장부와 대량의 내단에 만들어진 주먹장부 홈의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다. 퇴량과 대량은 이익공 위에 도리 방향으로 장여 받친 주심도리를 받치고 머리는 직절한 뿔목으로 처리하고 외단은 봉두형으로 운공을 만들어 장혀 받친 출목도리를 받치고 있다. 도리방향으로 양측면 기둥머리에서 내측 대량 위로 곡선을 그리는 충량을 걸고 있다.

대량과 퇴량 위 고주에서 사분변작하여 612mm 정도 떨어져 동자주를 세워 뜯장여와 장여 받친 하중도리와 그리고 직교하여 침차 받친 중량을 결구하고 있다. 중대공은 보

방향으로 초각한 보아지 형식이고 도리 방향으로 초각된 첨차로 소로를 놓아 뜯장여를 받치고 있다. 중량 위에 삼분변작하여 동자주를 세워 뜯장여와 장여 받친 상중도리와 그리고 첨차 받친 중량을 결구하고 있다. 그 위에 하부에 화반형 받침이 있는 과련대공을 세워 뜯장여와 장혀 받친 중도리를 받치고 있다.

외진 평주 기둥머리는 너비보다 춤이 큰 장방형의 창방을 월량과 익헌과 연결되는 칸을 제외한 본루에만 설치하고 있다. 창방을 귀솟음에 맞추어 경사지게 설치하고, 창방 뺨목은 초익공 쇠서가 되고 있다.

대들보 단면은 대체로 너비보다 춤이 큰 장방형의 네 모서리를 궁글린 형태로 자연적인 형태를 살려서 다듬고 있다. 대들보 치수가 정면 평주 쪽이 내진 고주 쪽보다 큰 것은 스펀이 커서 많은 하중이 실리는 것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퇴량은 대부분 너비가 춤보다 큰 장방형의 네 모서리를 궁글린 단면으로, 대들보와 맞대고 연결되어 있으므로 대들보에서 연장된 것과 같이 보이도록 하려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홍예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퇴량은 비교적 작은 부재라 구하기 용이해서인지 대량보다는 너비에 대하여 균일한 형태를 하고 있어 의장적인 배려가 드러난다. 중량은 보머리 단부를 약간 경사지게 자르고 상면도 약간 비스듬히 자른 단순한 형태로 대체로 너비보다 춤이 긴 장방형의 네 모서리를 궁글린 단면 형태이다. 대량보다는 균질한 형태로 주심대공과 같은 기법으로 중대공을 형성하고 있다. 중량은 대체로 너비보다 춤이 긴 장방형의 네 모서리를 궁글린 형태로 보머리도 단부를 약간 경사지게 자르고 상면도 약간 비스듬히 자른 단순한 형태이다. 중량은 장방형의 네 모서리를 궁글린 단면으로 내단부 쪽이 위로 휘어져 오른 우미량 형태이다. 보머리는 대량이나 퇴량과 마찬가지로 평주에서 끝나고 다른 부재로 만들어진 바깥쪽의 운공과 결합된다. 서측면에는 우주 외에 평주가 3개가 있으나 중앙 기둥에는 중량이 설치되지 않고 있다.

공포는 일출목 이익공계통으로 외1출목이고 내출목은 없다. 이익공계통으로 채주두가 설치되지 않고 쇠서의 형태나 외목도리 받침장여 뺨목 초각 그리고 주심장여 뺨목 운공 및 초각 등이 장식화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평주 상부의 공포는 기둥머리에 도리방향으로 창방과 직교하여 보 방향으로 초익공을 결구하고 있다. 그 위에 주두를 놓고 초익공 상면에 소로를 설치하여 주두와 소로 위에 도리 방향으로 공포와 출목첨차를 결구하고 있다. 그 위에 보 방향으로 이익공을 설치하고 좌우 단부와 출목첨차의 가운데 그리고 좌우단부에 소로를 놓고 도리방향으로 주심 장여와 출목 장여를 설치하고 있다. 이익공 위에 대들보는 직절한 뺨목으로 처리하고 외단은 봉두형(초각형)으로 운공을 만들어 장혀 받친 출목도리를 받치고 있다. 운공은 보머리와 주먹장으로 연결하고, 출목부분에 순각판은 설치하지 않고 있다. 초각 형태는 운공을 일반적 형태로 초각하고 초익공과 이익공의 쇠서를 양서로 만들어 첨차 아랫면의 초각과 익공의 초각을 비교적 단순하게 처리한 것과 운공을 봉두형으로 초각하고 초익공과 이익공의 쇠서를

당초 형태로 조각하여 첨차 아랫면의 초각과 익공의 초각을 화려하고 처리한 것이 있다.

귀포는 창방 뿔목이 초익공 외부가 되고, 이익공과 출목첨차는 각기 좌우대로 바뀌어서로 직교하여 결구된다. 그리고 주심장여 뿔목이 외목도리 바깥으로 내밀어져 운공이 되고, 외목도리장여 뿔목에도 초각하여 전체적으로 화려하게 꾸며져 있다. 귀한대는 없이 초각 형태는 평주의 공포와 같다. 특히 동북우주 기둥머리 동북쪽으로 목을 길게 빼 고개를 기울이고 쳐다보고 있는 거북이가 조각되어 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귀포에 상징적인 위계를 주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조각은 언제 형성되었는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익공계통으로 초익공의 쇠서형태는 일반적인 앙서와 화려한 초각으로 되어 있어 일반적인 앙서 형태, 초익공 쇠서의 끝이 뺏어나가는 형태, 초익공은 초각된 앙서 위에 연봉이 조각되어 있는 형태, 우주 기둥머리에 창방뿔목을 겸해 사용한 앞과 같으나 상부의 소로와 하부의 초가지가 다른 형태, 배면 월랑과 연결되는 정간에 사용한 초익공은 운공형태로 초각된 유형 등이 있다. 이익공의 쇠서 형태는 일반적인 초각된 앙서에 당초연봉을 새긴 유형, 쇠서가 가늘어지고 당초문 초각이 없어진 형태, 쇠서가 부재의 상단 쪽에 붙어있고 하부에는 당초 줄기가 나오는 형태로 초각되어 있고 위에는 연봉이 조각되어 있는 유형, 외부는 두 번째 유형과 유사하나 내부는 첫 번째와 같은 형태 등이 있다.

도리는 굴도리로 익헌과 월랑과는 다른 규모로 위계를 표현하고, 외목도리, 주심도리, 하중도리, 상중도리, 종도리가 설치되고 있다. 도리의 하부에는 모두 장여가 설치되어 있고, 본루에만 뜯장여와 뜯창방을 설치하여 위계를 주고 있다. 도리 하부면을 장여면에 맞추어 수평으로 깎아 내는 기법을 사용하였으나, 퇴칸 주심장여는 도리 하부면에 맞추어 장여 상면을 둥글게 과내는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장여는 대체로 외목도리 받침장여 0.9척, 주심도리 받침장여 0.9척, 하중도리와 상중도리 그리고 종도리 받침장여 0.8척 정도로 추정된다. 뜯장여는 내진고주 상부 주두사이와 마루 대공의 종도리받침장여 하부에 설치되어 있고, 뜯창방은 종량 받침 동자주들 사이와 종량받침 동자주들 사이에 결구되어 있다.

대공은 종량 위 마루대공에 파련대공과 중량과 종량을 받치는 동자주 대공이 사용되고 있다. 파련대공은 하부에 화반형태로 하고 상부에 당초를 초각한 형태이다. 판재를 4단으로 중첩하여 조각과 음각을 하여 의장적으로 처리하고, 종도리 하부에는 받침장여과 뜯장여가 소로를 받쳐 결구되고 있다. 동자주 대공은 대부분 정방형에 가깝고 팔각형 단면도 있다. 중량을 받치는 동자주대공은 정면 쪽은 대들보 위와 배면 쪽은 퇴랑 위에 세워져 있다. 종량을 받치는 동자주대공은 중량 위에 세워져 있는 것과 동서 합각속에 설치되어 있는 종보를 받치는 것이 있다.

기둥 사이 각 칸 상·하인방 혹은 상·중·하인방이 있고, 외진기둥의 양쪽 옆에는 주선이 설치되어 있다. 창호가 설치될 때 인방은 문지방이나 문미가 되고 주선은 문선이 된다. 또한 창 하부에는 인방재를 머름중방과 머름대로 하여 머름이 설치되어 있다. 상층 본루 내부바닥에는 우물마루가 설치되어 있고 익헌 내진 부분에는 온돌이 설치되어 있다. 상층으로 오르는 월랑에는 계단이 설치되고, 계단 양측과 상층 외진 바깥으로는 난간마루와 계자난간이 설치되고 있다. 또한 본루와 익헌을 연결하는 칸과 익헌 온돌방에는 반자가 설치되고 있다.

본루 상층 내부, 익헌 상층 외진부, 본루와 익헌 연결칸, 그리고 월랑에는 바닥이 우물마루이고, 본루와 익헌 외진주열 바깥에는 일부 우물마루이나 대부분 장마루를 설치하고 있다. 우물마루와 장마루는 상층바닥이 되면서 동시에 하층 천장이 된다. 올라다볼 때 자귀다듬 외 제재목으로 이질감을 주고 있다. 머름은 본루 외진주열과 익헌 내진주열에서 일부 칸을 제외하고 모든 칸에 설치되어 있다. 본루 외진주열에서는 월랑과 연결되어 출입구가 되는 칸과 익헌과 연결되는 칸을 제외한 모든 칸에 설치되어 있고, 익헌 내진주열에서는 서쪽 본루를 향한 칸을 제외한 나머지 칸들에 모두 머름이 설치되어 있다. 머름이 들어진 칸에는 머름 위에 창이 설치되어 있다. 본루와 익헌의 연결칸 남북 측면에는 창문 위로 판벽이 2단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본루 쪽이 높고 익헌 쪽으로 가면서 점차 높이가 낮아진다. 상단과 하단을 구분짓는 중간의 가로채는 우미량처럼 휘어진 부재를 계단식으로 가공하여 사용하고, 남측과 북측에 사용된 것은 거의 대칭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어 당초 한 부재를 반으로 잘라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본루와 익헌 상층 외진주열 바깥으로는 툇마루를 설치하고 주위에 계자난간을 설치하고, 월랑 양측의 기둥 사이에는 살대로 평난간을 설치하고 있다. 하단과 상단에는 각재로 살을 만들어 설치하였는데 의장적으로 보이기 위해 살을 초각하고 있다.

본루에는 양측 외기도리 받침장여와 중량 사이에 눈썹반자가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연등천장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본루와 익헌과의 연결칸, 또 익헌 내진부 온돌방에는 우물반자가 설치되어 있다. 본루와 익헌 연결부의 본루 외진 기둥열 기둥머리 상부에 설치된 굵은 부재와 주심도리 받침장여 하부사이에는 용 조각이 있다. 조각들은 머리, 몸통, 꼬리 등 각 부분을 별개의 부재로 만들어 꺾쇠 등 철물을 사용하여 고정하고 있다. 용 조각은 언제 조각되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루와 익헌은 모두 서까래와 부연을 사용한 겹처마이고 월랑은 홑처마로 되어 위계적인 구성을 하고 있다. 귀처마는 모두 선자서까래로 꾸몄는데 선자서까래 개수는 일정하지 않고 이때기 선자 부분에서 가지부연은 설치하지 않고 있다. 본루에서 서측면 쪽 선자개수가 정면이나 배면 쪽보다 많은 것은 추녀가 정확하게 45°로 걸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까래 내밀기는 정면 쪽에 비해 배면 쪽이 더 많이 내밀었으나 변형에 의한 것인지 위계적인 구성에 의한 의도인지는 알기 어렵다. 기와는 암키와, 수키와, 내림새,

막새 그리고 장식기와의 망와가 사용되고 있다. 기와는 규격과 와당 문양이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 여러 번의 중수를 거친 자취를 남기고 있다. 내림새 와당은 아래 양볼을 반원형으로 한 것, 양 볼은 반원형이지만 하부의 만나는 부분을 볼록하게 내민 것, 양 볼을 여러 번 접은 것 등이 있고, 와당면 문양도 불로초와 귀면문 등이 있고 규격도 다르다. 망와는 암기와의 뒤집어 사용하고 있고, 막새 와당에는 연화나 불로초 등의 식물문과 범자문 등이 사용되어 내림새 와당보다 문양이 다양하다. 와당의 형태는 전체적으로 둥근 것과 하부 중심부가 약간 내밀어진 꽃봉오리 형태를 하고 있는 것이 있다.

익헌은 서쪽부터 1칸 대청, 2칸 온돌방, 반 칸 툇마루이고 온돌방 전후면으로도 툇마루와 난간을 두르고 있다. 정면과 측면의 비는 1: 0.57로 가로로 길고 본루의 평면에 맞추어 간살을 구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본루와 대청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어 대청이면서 현랑을 겸하고 있다. 객사로부터 떨어져 있는 입지적인 조건이라 익헌을 업무를 보는 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붙여서 만든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그렇다면 익루보다는 익헌이라고 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익헌은 전후퇴를 갖는 정면 3칸, 측면 2칸으로 온돌방을 구성하여 본루의 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즉 주된 기능은 관리나 빈객의 유숙이 중요하였을 것이며 특히 남원읍성 밖에 위치하여 업무를 보는 기능과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성이 중요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본루와의 연결은 본루 방향의 기둥을 생략하여 연결되도록 구성하고 있다. 온돌방 기둥에 맞추어 사분합 들어열개문을 달아 공간 분리와 연결을 하도록 하고 있다. 들어열개문을 열면 온돌방에서 본루까지 시야가 트여 확장되고 있다. 본루와의 연결은 본루 전면에 면해 개방되어 대청으로 연결하고 있는데 현랑으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대청으로 보아야 할지 애매하지만 확실한 것은 공간구성을 통해 보면 대청과 현랑의 기능을 모두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온돌방 본루 쪽에 사분합문을 달아 공간 분리와 연결을 하고 있고 전후 툇마루에도 문지방을 설치하여 분리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추정된다. 이러한 연결공간은 의례 분석을 통하여 공간사용이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확실한 것은 익헌으로 인하여 동쪽이 위계가 높은 공간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온돌방은 사면으로 창호가 설치되고 개방적인 평면을 하고 있고 유숙에 필요한 공간구성이 드러나고 있지 않아 원형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익헌은 내진에 온돌방을 들이고 본루와 연결공간인 대청과 온돌방을 둘러싼 툇마루는 우물마루이다. 방에는 사방으로 들어열개 사분합 창호를 설치하여 사방으로 개방된 형태이다. 외진주 바깥으로 난간마루와 계자난간을 설치하고 본루와 연결되므로 같은 형식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익헌은 본루에 부속된 루이지만 공간구성과 형식 등을

통해 보면 익헌으로서 위계를 부여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누하 평면은 누상 평면과 비교하여 정면 3칸 반, 측면 2칸이지만 정면 2칸 반, 측면 2칸으로 보면 본루와 명확한 구분에 의하여 누상의 대청 부분이 오히려 헌랑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분명해진다고 추정된다. 내진은 측면 3칸으로 구성되고, 정면 2칸, 측면 1칸 내진부에 온돌방 하부의 온돌이 설치되어 있다. 하층은 온돌방을 보조하기 위한 기능적인 공간으로 누가 높아 고상식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된다. 동쪽에 아궁이가 높게 설치되고 후면 동쪽 칸에 굴뚝이 설치되어 있으며 벽체는 석주 사이에 토석혼축으로 되어 있다. 광한루 수리보고서에 아궁이와 굴뚝이 일직선으로 되어 누 하층으로 빠지게 되어 있었는데 굴뚝의 위치가 불합리하여 굴뚝의 흔적이 있는 배면 쪽으로 설치하고 있다. 전후면의 마루귀틀에 불에 그을린 흔적이 있었다고 하는 현황을 고려하면 굴뚝을 원형대로 복원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단은 자연석 바른층쌓기한 낮은 외별대기단 위에 자연석 초석을 놓고 있다. 초석은 전면은 높은 자연석 초석으로 방형의 형식을 하고 있고 측면은 그보다 약간 거칠고 후면은 비교적 낮은 자연석 초석을 놓고 있고, 내진보다는 외진이 높아 정면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추정된다. 초석 위에 정면은 모를 깎은 방형 석주를 세우고 측면과 후면은 두리기둥을 세우고 있다. 남쪽보다 북쪽 기단을 넓게 하여 공간사용에 대한 배려를 한 것으로 추정되고, 남쪽 기단은 본루와 연결되면서 동쪽이 좁아지고 있어 위계적인 구성과 시각적인 투시 효과를 주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누하주는 칸마다 세워지고 외진주 중 정면과 내진주를 모점은 방형에 가까운 석주로 하고, 동측면 기둥과 북측면 기둥은 두리기둥이다. 온돌시설을 갖춘 내진주도 석주로 되어 있다. 기둥은 습기로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기능을 하면서 정면의 석주는 본루 기둥이 연속되어 통일성을 주면서 누하주 재질이 주는 안정감 그리고 의장성이 잘 드러나고 있다. 일부 일자형에 가까운 것도 있지만 대부분 약한 흘림을 준 민흘림기둥으로 재목의 형태에 따라 다듬어 사용하고 있다. 석주는 5% 정도, 두리기둥은 2% 정도의 흘림을 주고 있어 석주를 의장적으로 표현하려고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본루보다는 흘림을 약하게 주어 위계적인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누상주는 두리기둥으로 외진주는 평주이고 내진주는 고주이다. 나무의 자연적인 형상을 이용하여 필요에 따라 다듬어 사용하고 있다. 기둥은 1% 미만의 약한 흘림을 준 민흘림기둥으로 본루 누상주에 비해 약하게 주어 위계적인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추정된다. 내진주는 외진주보다 1.0척 정도 길지만 외진주를 내진주보다 5푼 정도 굵게 사용하고 있다. 모서리의 추녀 하부를 받는 활주는 굵기 차이가 없는 두리기둥으로 본루와 같은 형식이다.

기둥머리에 도리 방향으로 첩차와 직교하여 초익공을 결구하고 그 위에 주두를 놓고 퇴량 머리를 봉두형 이익공으로 꾸며 올리고 장여 받친 처마도리와 결구하고 있다. 가구는 2고주5량가이다. 전후면 평주에서 전후 내진고주에 퇴량을 걸고, 전후 내진고주

사이에 대들보를 걸고 있다. 동측면은 가운데 평주 상부 초익공과 주두 위에서 처마도리와 결구되어 우미량 형태로 휘어올라 보 방향의 중도리 하부의 장혀에 꽂혀 있다. 대들보는 장혀 받친 중도리와 결구되어 대들보 위에 사다리꼴 판대공을 올리고 장혀 받친 중도리를 받고 있다. 그리고 도리 위에 서까래를 걸고 적심도리를 놓은 후 동자주를 세워 중도리를 놓은 후 덧서까래를 걸고 중심목을 올리고 있다. 익헌은 다양한 가구방식과 격식을 갖출 수 있음에도 덧서까래를 걸어 지붕을 높이고 단열층을 형성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대들보는 단면은 너비보다 춤이 긴 장방형의 네 모서리를 궁글린 형태로 보머리는 단부를 약간 경사지게 자르고 삼면도 약간 비스듬히 자른 단순한 형태이다. 도리통이 3칸이지만 동측칸은 퇴칸이므로 대들보는 서측으로 2개가 설치되어 있다. 동측은 양측 보머리가 고주 상부의 주두 위에 얹고 있지만 서측은 북측을 동측과 같이 하고 남측 단부는 고주의 몸통 상단부에 결구되고 있다. 퇴량은 머리를 외진평주 상부의 초익공과 주두 위에 놓여 도리 방향의 처마도리장여와 처마도리에 직교하여 결구되고, 내단부는 내진고주 머리에 결구되고 있다. 단면은 너비보다 춤이 긴 장방형의 네 모서리를 약간씩 모접기한 형태이다. 퇴량은 전후면 동측 4개는 하부를 홍량형태로 둥글게 처리하고 있고, 서측의 2개는 퇴량 하부에 창호가 설치하면서 상부를 홍량형태로 처리하고 있다. 충량은 머리를 퇴량과 같이 결구하였으나 내단부는 내진고주 사이의 중도리 받침 장여에 꽂혀있다. 주두 상부에서 중도리 받침 장여까지 휘어오른 우미량 형태로 처리하고 있다. 보머리를 직절하고 봉두형 조각을 별도로 설치한 것으로 본루와 같은 형식이다. 퇴량과 충량은 비슷한 규격이지만 홍량 형태나 우미량 형태 그리고 창호 상부 형태 등으로 사면에 다르게 대응하면서 뒷마루의 통일성을 주고 있다. 도리는 전후면에 처마도리는 동퇴칸과 그 옆 어칸의 처마도리를 하나의 부재로 사용하고, 서협칸에서 정면과 배면의 중도리는 두 개의 부재를 이어서 사용하고 있다. 우주 귀공포만 도리 하부면을 장여면에 맞추어 수평으로 깎아 내는 기법으로 다듬었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주로 도리 아랫면에 맞추어 장여 상면을 둥글게 파내는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우주 왕지부분 장여의 빨목에 끝부분을 봉두 형태로 조각하여 하부 봉두와 조화를 이루고자 하고 있다.

공포는 초익공계 공포로 상부 쇠서는 봉두형으로 조각하고 하부 쇠서는 초가지로 화려하게 조각하고 있다. 본루의 초익공 같이 내부에 보아지는 외부 쇠서와 별개의 부재로 되어 있다. 우주 상부에 귀한대는 설치되지 않았다. 초각 형태는 봉두형 초각의 목 부분이 수평이고 하단의 초가지는 뻗어있는 형태와 봉두형 초각의 목 부분이 오목하게 곡선이고 초가지는 한줄기에서 나와 두 줄기로 뻗어있는 형태가 있다.

기둥 사이 각 칸에는 상·하인방 혹은 상·중·하인방이 있고, 외진기둥의 양쪽 옆에는 주선이 설치되고 있다. 창호가 설치될 때에는 인방은 문지방이나 문미가 되고 주선은 문

선이 된다. 또한 창 하부에는 인방재를 머름중방과 머름대로 하여 머름이 설치되어 있다. 상층 본루 내부바닥에는 우물마루가 설치되어 있고 익헌 내진에는 온돌이 설치되어 있다. 본루와 익헌을 연결하는 칸과 익헌 온돌방에는 반자가 설치되어 있다. 마루는 우물마루로 동측의 퇴칸 부분에만 청판을 보 방향으로 끼우고 나머지는 모두 본루와 같은 방향으로 청판을 끼우고 있다. 익헌의 귀틀 하부에도 본루와 마찬가지로 귀틀에 대한 보강재로서 청판을 설치하고 있다. 온돌방에는 현대식 장판이 깔려있다. 익헌 머름대 춤은 48mm 정도이고 머름중방 춤은 135mm 정도이며, 이들의 너비는 105mm 정도이다. 외진주열 바깥으로 뒷마루를 설치하고 주위에 계자난간을 설치하고 있다. 계자난간은 변주에서 바깥으로 빠져나온 귀틀의 외면에 붙여서 치마널을 설치하고 치마널과 청판 위로 하부 띠장을 설치하고 있다. 그리고 상부 띠장과의 사이에 난간동자와 난간 궁판을 설치하고, 난간동자바깥쪽으로는 계자각을 설치하고 있다. 계자각 상부로는 계자각마다 하엽을 놓고 계자각 사이 하엽 위로는 돌란대를 설치하고 있다. 난간 궁판에는 안상이 있고, 돌란대와 하엽 그리고 계자각은 감잡이쇠로 연결되어 고정시키고 있다.

본루와 익헌과의 연결 칸과 익헌 내진부 온돌방에는 우물반자가 설치되어 있다. 연결 칸에는 본루 쪽에서부터 익헌 쪽으로 세 단으로 층단으로 낮아지면서 우물반자를 구성하고 있다. 지붕은 겹처마이고 본루와 연결되는 서측면 선자연은 주심도리까지만 내밀고 있다. 처마 내밀기는 일반적인 방법과 같이 서까래 내밀기의 절반 정도로 부연을 내밀고 있다.

월랑은 본루 정간에 정면 1칸, 측면 3칸의 층단형 복도식 계단으로 누로 오르게 되어 있다. 관리나 빈객들이 출입하기 위하여 사용해야만 하는 현관과 같이 월랑을 부가하여 누각에 오르는 독특한 방법을 취하고 있다. 본루의 가운데 칸으로 연결되어 대청과 권위적인 구성을 하고 있다. 내부에는 목조 계단과 칸마다 난간이나 살창 및 판벽을 설치하고 있다. 1872년 「남원부지도」에는 월랑이 아니라 계단형식으로 나타나고 있어 그 이전에는 계단으로 오르내린 것으로 추정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1879년 북쪽으로 기울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월랑 설치를 검토하여 1881년 설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바닥은 우물마루로 되어 있고 계단이 상하층에 설치되어 있다.

월랑 입구는 기단 위에 한 단의 화강석 디딤돌을 딛고 월랑 마루로 올라가게 되어 있다. 첫째 칸의 끝 부분에 두 단의 목조계단을 올라 둘째 칸 마루로 올라 수평으로 이동하다가 셋째 칸의 끝 부분에 세 단의 목조계단을 올라 본루 마루에 오르고 있다. 본루에 오르기 위하여 칸마다 300mm 정도 길이가 길어지고 있고, 하층계단 2단과 상층계단 3단으로 늘려가면서 설치하고 계단의 폭도 넓어지고 있어 누에 오르기 위한 작지만 과정적인 공간을 잘 표현하고 있다. 이에 상승에 따른 긴장감과 고조되는 기대감을

유발시키는 시나리오가 잘 표현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평면에 맞추어 기단을 형성하고 600~900mm 정도의 기단석을 사용하고 있다. 기단 내밀기는 동측과 서측은 970mm 정도이고, 정면인 북측이 593mm 정도로 좁은 것은 계단식으로 되어 기단을 포함하여 본루 쪽으로 가면서 점차 높아지도록 의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일정하지 않아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기단재료와 내밀기 등이 다른 것은 중건할 때 여건에 따라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초석은 화강석의 다듬은 팔각 높은 초석이다. 북측 초석 높이 차에 따라 기둥 수평을 맞추고, 높은 초석에 흘림을 주어 진입하면서 안정감을 주고 있다. 기둥은 1% 미만의 약한 민흘림이 있는 두리기둥이다. 높은 초석이 높이가 다름에 따라 기둥에서 조정하고 있다. 기둥의 굵기도 올라갈수록 커지게 하여 본루에서의 공간에 점차 적응해가도록 하고 있다.

북쪽에서 접근하면서 3칸에 단 차이를 두어 높아지지만 가구는 3량가로 구성되어 있다. 도리 방향으로 3칸으로 2개의 대들보를 설치하고 기둥머리 위에 이익공 위에 놓아 도리방향의 장여 받친 처마도리와 결구되어 있다. 보머리는 너비보다 춤이 큰 장방형 모서리를 궁글린 단면으로 중앙부가 볼록한 형태로 단부를 약간 경사지게 자르고 있다. 북쪽의 대들보(352×381)에 비해 남쪽의 대들보(360×310)는 너비에 비해 춤이 낮다. 본루 연결되는 본루 외진기둥 사이에도 비슷한 부재(289×319)를 설치하여 춤보다 너비가 큰 장방형 모서리를 궁글린 단면으로 약간의 곡을 주어 본루에 오르는 문과 같이 전이 공간을 형성하고 본루로 들어서면 대량들이 중첩되어 보이므로 이를 의장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추정된다. 각 대들보 위에 화반대공과 판대공을 놓아 장여 받친 종도리를 받치고 있다.

창방은 본루에서와 같이 너비보다 춤이 큰 장방형으로 층단을 이루므로 올라가면서 북쪽 기둥머리와 기둥 중간에 결구되고 있다. 우주의 창방 뺨목은 초익공 쇠서이고 북측면 창방은 중앙부가 위로 흰 만곡재를 사용하여 입구를 의장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종도리(270mm 정도)가 처마도리(260mm 정도)와 같은 크기로 추정되며 북쪽 입구 왕지 짜임은 300mm 정도의 뺨목으로 처리하여 의장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도리 하부에 장여 상면을 둥글게 파내는 기법을 사용하여 왕지에서 장여 뺨목 끝 부분을 초가지나 연봉을 조각하여 익공의 연화 조각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있다.

기둥머리에 도리방향으로는 창방을 결구하고 직교하여 보 방향으로는 초익공을 결구하고 그 위에 주두를 놓고 도리와 보 방향으로 침차와 이익공을 직교하여 설치하고 있다. 우주 상부에는 귀한대를 설치하고 있다. 월랑의 입구가 되는 북쪽의 공포를 초익공 계통인 익헌과 비교하여 이익공계통으로 화려하게 꾸미고 있다. 쇠서는 초가지나 연화와 연봉으로 화려하게 조각되고 이익공 쇠서와 보머리 사이에는 봉두를 조각하고 있다. 북측면 귀공포 양쪽에는 귀한대 상부 외부 쪽에 용두를 조각하고 있다.

기둥머리에 창방 위에는 거북이와 토끼 그리고 코끼리 등의 동물형상의 화반을 우화적으로 설치하고 있다.

본루와 익헌과 같이 외부 쪽과 내부 쪽이 별개의 부재로 된 양서형의 초익공과 수서형의 이익공으로 되어 있다. 쇠서는 상면에 연화, 아랫면에 연봉을 조각하여 화려하게 꾸미고 내부 보아지 쪽에도 연화와 연봉으로 조각하고 있다. 귀포는 창방뿔목이 초익공이고, 이익공 대신에 내부 쪽은 침차이고 외부 쪽은 익공인 좌우대와 귀한대가 설치되어 있다. 귀한대 상부 외부 쪽에는 용두를 조각하고 있다. 처마도리 받침장여 뿔목도 조각하여 전체적으로 장식적이면서 화려하게 꾸미고 있다.

화반은 첫째 칸에 코끼리와 셋째 칸에 거북이 등에 토기가 탄 형상을 동측과 서측에 암수 한 쌍을 배치하고 있다. 화반 상부에 소로를 한 개씩 놓고 장여 받친 처마도리를 받고 있다. 월랑에는 북측 첫째와 둘째 칸은 우물마루, 그리고 본루와 연결되는 셋째 칸은 우물마루와 장마루로 반씩 구성하여 통로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청판의 두께는 60mm에서 70mm 정도인데 중앙부는 두텁고 양쪽 허를 낸 부분은 얇게 다듬은 청판들에 옛 기법이 남아있다. 계단은 1단은 북측면 기둥 위에 석재로 디딤돌을 한 단 설치하여 월랑 첫째 칸으로 오르고, 2단은 2열 기둥에 목재로 두 단의 디딤판을 설치하여 둘째 칸 마루로 오르고, 3단은 셋째 칸의 끝 부분에 세 단의 디딤판을 설치하여 본루로 오르게 되어 있다. 월랑의 세 번째 칸 측면 기둥 사이는 중인방 아래에는 판벽을 설치하고 중인방 위로 홍살을 설치하고 있다. 판벽은 하인방과 중인방 사이에 판재를 끼우고 중간에 띠장으로 보강하고, 판벽 하단의 하인방은 계단의 경사에 맞추어서 꺾어진 부재를 사용하고 있다. 판벽은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기 전에 중간 단계로 본루에 올라 사방으로 펼쳐진 조망에 적응하기 위한 의장적인 처리로 추정된다. 홍살은 한 칸에 홍살 10개를 세우고 가운데 상부가 세갈래로 갈린 삼지창을 만들어 의장성을 부여하고 있다. 월랑 첫째 칸과 둘째 칸 측면의 평난간은 귀틀 상부와 중간부에 각형과 원형 띠장을 기둥 사이 가로재로 설치하고, 상부에 각재로 돌란대를 설치하여 두 단으로 나누었는데 둘째 칸에는 하부 띠장이 없다. 하단과 상단에는 각재로 살을 만들어 조각하여 설치하고 있다.

월랑은 홀처마로 동·서측면은 9장씩, 북측면은 17장 모두를 선자연으로 하고 있다. 월랑 서까래 내밀기는 3칸이 각각 다르다. 이것은 집 높이에 차이가 나므로 처마에도 이를 반영한 것이다. 누상주과 누하주에 모두 귀솟음을 주고 있고, 어칸에서 우주 쪽으로 1치에서 1치 2푼, 2치 5푼에서 2치 7푼 정도씩으로 추정된다. 누하주는 외진주들의 상면을 연결하는 선의 흐름이 돌출되는 형상으로 기둥이 침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누상주는 누하주에서 침하된 것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된다. 누상주에서는 안솔림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

### 3. 지정가치 및 근거기준

남원 광한루에 대한 역사적 가치는 다음과 같다.

1419년 황희가 남원으로 유배되면서 누를 세워 광통이라고 한 것에서 유래하여 1434년 중수하고 1437년 단청을 하고 1444년 정인지가 ‘광한루(廣寒樓)’라고 명명하고 있다. 1582년 전라관찰사 정철(1536~1593) 재임 당시 장의국(張義國, ~1584)이 광한루를 면모를 일신하여 화려하게 중수하고 오작교(烏鵲橋)를 조성하여 원(園)이 조성되고 있다. 1597년 정유재란 때 소실되어 누를 재건하였으나 기울어지자 1626년 7월 신감이 재건하면서 익루를 포함한 현재의 규모로 조성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관리는 전감목 오윤조, 감독관은 이시봉, 심봉, 배수복이 맡고 있다. 1855년 누각을 대대적으로 보수하고, 1879년 이용준이 큰 들보를 개수하고 난간을 가설하고 월랑을 제안하여 1881년 월랑을 설치하고 본루와 익루를 대대적으로 수리하고 있다. 1909년부터 1928년까지 남원재판소와 헌병분견대(감옥)으로 사용되고, 1923년에는 재판소로 사용되기도 한다. 1925년부터 1931년까지 민간의 의연금으로 중수하여 보수하고 춘향사를 건립하고 있다. 1971년 경역을 확장하여 현재의 모습을 하게 된다.

누각이 객사 누각으로 변화되어 증수와 중창이 거듭되고 있다. 현재의 광한루의 모습은 연륜 연대 측정에 따라 1626년 신감이 본루와 익루를 포함한 현재의 규모로 조성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1625년 가을부터 기획하여 1626년 1월부터 7월까지 공사가 진행되고 관리 전감목 오윤조, 감독관 이시봉, 심봉, 배수복이 맡고 있다. 그리고 1879년 이용준이 광한루가 기울어지자 큰 들보를 개수하고 난간을 가설하고, 추대목의 북쪽 누각을 오르는 월랑을 제안 받아 1881년 월랑을 설치하고 본루와 익루를 대대적으로 수리하고 있다.

예술적 가치와 학술적 가치는 다음과 같다.

남원 광한루는 도시적인 측면에서 오작교를 지나 남문으로 이어지는 주요 교통로이자 다양한 도시적인 시설과 시장이 집중된 곳으로 원림과 더불어 휴식공간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배치를 통해서 객사 누각과 관아정원이지만 읍성 남문에서 남쪽으로 이격하여 자리하고, 연못과 삼신산 그리고 오작교 등 신선세계와 천상을 상징하는 공간을 구현한 누원으로서 의미가 있다. 남원 광한루는 중층누각으로 본루를 중심으로 동쪽 전면에 맞추어 익헌과 북쪽 가운데에서 루로 오르는 월랑으로 구성되는 장대한 규모로 객사 누각으로서의 규모와 격식을 통해 권위를 잘 드러내고 있다.

본루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평지에 입지한 대신 중층 누각 형식으로 사방을 볼 수 있도

록 하고 정면을 측면보다 길게 평면을 구성하고 있다. 남향으로 은하수를 상징하는 곡선형 인공 연못에 면하여 누에서 연못과 삼신산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뒷마루와 난간을 설치하고 있다. 누상 평면에서는 전면열 내진주와 중앙열의 기둥을 생략하여 공간의 위계와 공간사용을 고려한 것으로 추정되고, 사방을 조망하도록 개방적인 평면을 하고 있지만 연못 및 삼신산에 대한 조망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추정된다. 정면 협칸과 뒷간을 좁게 하여 긴 정면에 대하여 시각보정을 하고 있지만 서측면은 가운데 2칸을 좁게 하여 안정적이고 협칸이 넓어 바깥쪽은 변화있게 보이고 있다. 이는 가구에서 내진주 위에 층량과 포대공의 위치를 달리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층 평면은 외진과 내진주 모두에 주초와 기둥을 설치하여 마루의 하중을 고르게 받고, 누하의 기둥은 전면과 우주에 사다리꼴 높은 초석으로 시각적인 안정감을 주고 있다. 기둥 사이에는 사분합 들어열개창은 언제 설치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자연석 바른층쌓기 장대석의 외벌대의 낮은 기단 위에 자연석 초석을 놓고 있다. 초석은 보이는 부분에 정형화된 것을 놓아 시각적인 안정감을 주고 있고, 정면과 우주의 석주는 나무 기둥에 비해 굵고 재질이 다르므로 빗물이나 층해로부터 보호하는 기능만이 아니라 반복적인 석주로 인해 시각적인 안정감을 주면서 장중한 느낌을 주고 있다. 서측과 북측면 기둥은 높은 원형 초석 위에 목재 두리기둥을 혼합하여 오작교와 월랑 진입에서의 조망을 고려한 변화있는 구성을 하고 있다. 누하주는 누상의 하중을 받는 안정성을 고려하고 있다. 기둥은 다양하지만 약한 민흘림기둥을 기본으로 재목의 생긴 그대로를 적절히 다듬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외진 평주 기둥머리는 너비보다 춤이 큰 장방형의 창방을 월랑과 익현으로 연결되는 칸을 제외한 본루에만 설치하고 있다. 창방을 귀숫음에 맞추어 경사지게 설치하고, 창방 뺨목은 초익공 쇠서가 되고 있다.

대들보 단면은 대체로 너비보다 춤이 큰 장방형의 네 모서리를 궁글린 형태로 자연적인 형태를 살려서 다듬고 있다. 대들보 치수가 정면 평주 쪽이 내진 고주 쪽보다 큰 것은 스패이 커서 많은 하중이 실리는 것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퇴량은 대부분 너비가 춤보다 큰 장방형의 네 모서리를 궁글린 단면으로 대들보과 맞대고 연결되어 있으므로 대들보에서 연장된 것과 같이 보이도록 하려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홍예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퇴량은 비교적 작은 부재라 구하기 용이해서인지 대량보다는 너비에 대하여 균일한 형태를 하고 있어 의장적인 배려가 드러난다. 대량보다는 균질한 형태로 주심대공과 같은 기법으로 중대공을 형성하고 있다. 층량은 장방형의 네 모서리를 궁글린 단면으로 내단부 쪽이 위로 휘어져 오른 우미량 형태이다.

초각 형태는 운공을 일반적 형태로 초각하고 초익공과 이익공의 쇠서를 앙서로 만들어 첨차 아랫면의 초각과 익공의 초각을 비교적 단순하게 처리한 것과 운공을 봉두형으로

초각하고 초익공과 이익공의 쇠서를 당초 형태로 조각하여 첩차 아랫면의 초각과 익공의 초각을 화려하고 처리한 것이 있다. 동북우주 기둥머리 동북쪽으로 목을 길게 빼고개를 기울이고 쳐다보고 있는 거북이가 조각되어 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귀포에 상징적인 위계를 주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조각은 언제 형성되었는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일출목 이익공계통으로 초익공의 쇠서형태는 일반적인 앙서와 화려한 초각으로 되어 있어 일반적인 앙서 형태, 초익공 쇠서의 끝이 뺏어나가는 형태, 초익공은 초각된 앙서 위에 연봉이 조각되어 있는 형태, 우주 기둥머리에 창방뿔목을 겸해 사용한 앞과 같으나 상부의 소로와 하부의 초가지가 다른 형태, 배면 월랑과 연결되는 정간에 사용한 초익공은 운공형태로 조각된 유형 등이 있다. 이익공의 쇠서형태는 일반적인 초각된 앙서에 당초연봉을 새긴 유형, 쇠서가 가늘어지고 당초문 초각이 없어진 형태, 쇠서가 부재의 상단 쪽에 붙어있고 하부에는 당초 줄기가 나오는 형태로 조각되어 있고 위에는 연봉이 조각되어 있는 유형, 외부는 두 번째 유형과 유사하나 내부는 첫 번째와 같은 형태 등이 있다.

본루와 익헌과의 연결 칸 남북 측면에는 창문 위로 판벽이 2단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본루 쪽이 높고 익헌 쪽으로 가면서 점차 높이가 낮아진다. 상단과 하단을 구분짓는 중간의 가로재는 우미량처럼 휘어진 부재를 계단식으로 가공하여 사용하고, 남측과 북측에 사용된 것은 거의 대칭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어 당초 한 부재를 반으로 잘라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본루에는 양측 외기도리 받침장여와 중량 사이에 눈썹반자가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연등천장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본루와 익헌과의 연결 칸, 또 익헌 내진부 온돌방에는 우물반자가 설치되어 있다. 본루와 익헌 연결부의 본루 외진 기둥열 기둥머리 상부에 설치된 굽은 부재와 주심도리 받침장여 하부 사이에는 용 조각이 있다. 조각은 머리, 몸통, 꼬리 등 각 부분을 별개의 부재로 만들어 격쇠 등 철물을 사용하여 고정하고 있다. 용 조각은 언제 조각되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서까래 내밀기는 정면 쪽에 비해 배면 쪽이 더 많이 내밀었으나 변형에 의한 것인지 위계적인 구성에 의한 의도인지는 알기 어렵다.

익헌의 공간구성을 통해 보면 대청과 헌랑의 기능을 모두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온돌방 본루 쪽에 사분합문을 달아 공간 분리와 연결을 하고 있고 전후 뒷마루에도 문지방을 설치하여 분리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추정된다. 이러한 연결공간은 의례 분석을 통하여 공간사용이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확실한 것은 익헌으로 인하여 동쪽이 위계가 높은 공간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온돌방 기둥에 맞추어 사분합 들어열개문을 달아 공간 분리와 연결을 하도록 하고 있다. 온돌방은 사면으로 창호가 설치되고 개방

적인 평면을 하고 있고 유속에 필요한 공간구성이 드러나고 있지 않아 원형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익헌은 본루에 부속된 루이지만 공간구성과 형식 등을 통해 보면 익헌으로서 위계를 부여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누하 평면은 누상 평면과 비교하여 정면 3칸 반, 측면 2칸이지만 정면 2칸 반, 측면 2칸으로 보면 본루와 명확한 구분에 의하여 누상의 대청 부분이 오히려 현랑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분명해진다고 추정된다. ‘광한루 수리보고서’에 아궁이와 굴뚝이 일직선으로 되어 누 하층으로 빠지게 되어 있었는데 굴뚝의 위치가 불합리하여 굴뚝의 흔적이 있는 배면 쪽으로 설치하고 있다.

남쪽보다 북쪽 기단을 넓게 하여 공간사용에 대한 배려를 한 것으로 추정되고, 남쪽 기단은 본루와 연결되면서 동쪽이 좁아지고 있어 위계적인 구성과 시각적인 투시 효과를 주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면의 석주는 본루 기둥이 연속되어 통일성을 주면서 누하주 재질이 주는 안정감 그리고 의장성이 잘 드러나고 있다. 석주는 5% 정도, 두리기둥은 2% 정도의 흘림을 주고 있어 석주를 의장적으로 표현하려고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본루보다는 흘림을 약하게 주어 위계적인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기둥은 1% 미만의 약한 흘림을 준 민흘림기둥으로 본루 누상주에 비해 약하게 주어 위계적인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추정된다.

익헌은 다양한 가구방식과 격식을 갖출 수 있음에도 덧서까래를 걸어 지붕을 높이고 단열층을 형성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퇴량은 머리를 외진평주 상부의 초익공과 주두 위에 놓여 도리 방향의 처마도리장여와 처마도리에 직교하여 결구되고, 내단부는 내진고주 머리에 결구되고 있다. 단면은 너비보다 춤이 긴 장방형의 네 모서리를 약간씩 모접기한 형태이다. 퇴량은 전후면 동측 4개는 하부를 홍량형태로 둥글게 처리하고 있고, 서측의 2개는 퇴량 하부에 창호가 설치하면서 상부를 홍량형태로 처리하고 있다. 층량은 머리를 퇴량과 같이 결구하였으나 내단부는 내진고주 사이의 중도리 받침 장여에 꽂혀있다. 주두 상부에서 중도리 받침 장여까지 휘어오른 우미량 형태로 처리하고 있다. 보머리를 직절하고 봉두형 조각을 별도로 설치한 것으로 본루와 같은 형식이다. 퇴량과 층량은 비슷한 규격이지만 홍량 형태나 우미량 형태 그리고 창호 상부 형태 등으로 사면에 다르게 대응하면서 뒷마루의 통일성을 주고 있다. 우주 왕지부분 장여의 뺄목에 끝부분을 봉두 형태로 조각하여 하부 봉두와 조화를 이루고자 하고 있다.

초각 형태는 봉두형 초각의 목 부분이 수평이고 하단의 초가지는 뺄어있는 형태와 봉두형 초각의 목 부분이 오목하게 곡선이고 초가지는 한줄기에서 나와 두 줄기로 뺄어있는 형태가 있다. 첩차 마구리에는 도깨비나 여러 동물들을 조각하는 의장적 특성이 있다. 본루와 익헌과의 연결 칸과 익헌 내진부 온돌방에는 우물반자가 설치되어 있다. 연결 칸에는 본루 쪽에서부터 익헌 쪽으로 세 단으로 층단으로 낮아지면서 우물반자를 구성하고 있다. 지붕은 본루와 단차를 두고 연결하여 동쪽은 팔작지붕으로 하고 있다.

월랑은 본루의 가운데 칸으로 연결되어 대청과 권위적인 구성을 하고 있다. 본루에 오르기 위하여 칸마다 300mm 정도 길이가 길어지고 있고, 하층계단 2단과 상층계단 3단으로 늘려가면서 설치하고 계단의 폭도 넓어지고 있어 누에 오르기 위한 작지만 과정적인 공간을 잘 표현하고 있다. 이에 상승에 따른 긴장감과 고조되는 기대감을 유발시키는 시나리오가 잘 표현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계단식으로 되어 기단을 포함하여 본루 쪽으로 가면서 점차 높아지도록 의도하고 있다.

기둥의 굵기도 올라갈수록 커지게 하여 본루에서의 공간에 점차 적응해가도록 하고 있다. 북쪽 입구 왕지짜임은 300mm 정도의 빨목으로 처리하여 의장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도리 하부에 장여 상면을 둥글게 파내는 기법을 사용하여 왕지에서 장여 빨목 끝부분을 초가지나 연봉을 조각하여 익공의 연화 조각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있다.

공포를 초익공계통인 익헌과 비교하여 이익공계통으로 화려하게 꾸미고 있다. 쇠서는 초가지에 연화와 연봉으로 화려하게 조각되고 이익공 쇠서와 보머리 사이에는 봉두를 조각하고 있다. 북측면 귀공포 양쪽에는 귀한대 상부 외부 쪽에 용두를 조각하고 있다. 기둥머리에 창방 위에는 거북이와 토끼 그리고 코끼리 등의 동물형상의 화반을 우화적으로 설치하고 있다. 본루와 익헌과 같이 외부 쪽과 내부 쪽이 별개의 부재로 된 양서형의 초익공과 수서형의 이익공으로 되어 있다. 쇠서는 상면에 연화, 아랫면에 연봉을 조각하여 화려하게 꾸미고 내부 보아지 쪽에도 연화와 연봉으로 조각하고 있다.

화반은 첫째 칸에 코끼리와 셋째 칸에 거북이 등에 토기가 탄 형상을 동측과 서측에 암수 한 쌍을 배치하고 있다.

청판은 자귀로 다듬은 기법이 남아있다. 계단은 1단은 북측면 기단 위에 석재로 디딤돌을 한 단 설치하여 월랑 첫째 칸으로 오르고, 2단은 2열 기둥에 목재로 두 단의 디딤판을 설치하여 둘째 칸 마루로 오르고, 3단은 셋째 칸의 끝 부분에 세 단의 디딤판을 설치하여 본루로 오르게 되어 있다. 판벽은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기 전에 중간 단계로 본루에 올라 사방으로 펼쳐진 조망에 적응하기 위한 의장적인 처리로 추정된다. 홍살은 한 칸에 홍살 10개를 세우고 가운데 상부가 세갈래로 갈린 삼지창을 만들어 의장성을 부여하고 있다. 월랑 첫째 칸과 둘째 칸 측면의 평난간은 귀틀상부와 중간부에 각형과 원형 띠장을 기둥 사이 가로재로 설치하고, 상부에 각재로 돌란대를 설치하여 두 단으로 나누었는데 둘째 칸에는 하부띠장이 없다. 하단과 상단에는 각재로 살을 만들어 조각하여 설치하고 있다. 월랑은 홀처마로 동·서측면은 9장씩, 북측면은 17장 모두를 선자연으로 하고 있다. 월랑 서까래 내밀기는 3칸이 각각 다르다. 이것은 집 높이에 차이가 나므로 처마에도 이를 반영한 것이다. 누상주과 누하주에 모두 귀솟음을 주고 있고, 어칸에서 우주 쪽으로 1치에서 1치 2푼, 2치 5푼에서 2치 7푼 정도씩으로 추정된다. 누하주는 외진주들의 상면을 연결하는 선의 흐름이 돌출되는

형상으로 기둥이 침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누상주는 누하주에서 침하된 것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된다. 누상주에서는 안솔림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

본루의 기둥마다 사분합 들어열개창을 설치하고 있는데 언제 설치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세부 장식이 조선 후기 장식화 경향과 맥을 같이하지만 중수를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우물마루와 장마루는 자귀로 다듬은 기법으로 복원할 필요가 있으며 광한루 수리보고서에 아궁이와 굴뚝이 일직선으로 되어 누 하층으로 빠지게 되어 있었는데 굴뚝의 위치가 불합리하여 굴뚝의 흔적이 있는 배면 쪽으로 설치하고 있다<sup>31)</sup>는 것을 확인하여 굴뚝을 원형대로 복원하기를 기대한다.

### ※ 대상 문화재의 핵심 보존가치

- 1419년 황희가 누를 세워 광통이라고 한 것에서 유래
- 1434년 중수하고 1444년 정인지가 광한루(廣寒樓라고 명명
- 1582년 정철 재임 시 장의국이 광한루를 화려하게 중수하고 오작교 등 누원 조성
- 1626년 7월 신감이 재건하면서 익루를 포함한 현재의 규모로 조성 추정
- 1855년 대대적으로 누각 보수
- 1879년 월랑을 제안하고 1881년 월랑을 설치하고 본루와 익루를 대대적으로 수리
- 현재의 광한루는 1626년 본루와 익루를 포함한 규모이고 1881년 월랑을 설치(추정)
- 본루, 익헌, 월랑에 이르는 건축군을 이루고 있고 각 건물별로 위계적인 구성
- 평지에 입지한 중층 누각 형식으로 누원을 조성하여 통합된 경관을 구성
- 본루와 익헌은 측면을 길게 통합된 평면과 입면
- 정면 협칸과 뒷간을 좁게 한 시각보정과 서측면은 역으로 안정적이고 변화있는 구성
- 누하주는 전면과 우주에 사다리꼴 높은 초석으로 시각적인 안정감 부여

### 본루

- 초석과 반복적인 석주는 반복적 장중함과 시각적인 안정감 부여
- 목재와 석재 기둥의 혼합을 통한 변화있는 구성
- 기둥은 약한 민흘림기둥이 있고 재목의 생김 그대로를 적절히 다듬어 사용
- 기둥도 본루, 익헌, 월랑에 위계적인 구성
- 창방을 귀솟음에 맞추어 경사지게 설치
- 대들보는 정면 평주 쪽 단면이 커서 스펠에 따른 하중에 대응
- 퇴량은 균일한 형태이고 층량은 우미량 형태

31) 광한루수리보고서, 2002, 72쪽

- 초각과 조각 등이 다양하고 상징적인 위계를 표현(조각에 대한 규명 필요)
- 일출목 이익공계통의 공포
- 본루와 익헌과의 연결 칸 남북 측면에는 창문 위로 2단 계단식으로 표현
- 본루 외진 기둥열 기둥머리 상부에 용 조각(조각 시기 규명)

## 익헌

- 익헌은 헌랑의 기능도 포함하고 사분합 들어열개문으로 공간 분리와 연결
- 익헌은 유숙을 위한 온돌방을 설치(원형에 대해서 검토 필요)
- 덧서까래 설치
- 퇴랑과 충량은 홍량, 우미량, 창호 상부 홍예 등으로 다르면서 툇마루의 통일성
- 충량은 주두 상부에서 중도리 받침 장여까지 휘어오른 우미량 형태
- 보머리를 직절하고 봉두형 조각을 별도로 설치(본루와 같은 형식)
- 우주 왕지 장여의 뺄목에 끝부분을 봉두로 조각하여 하부 봉두와 조화
- 초각에서 봉두형 조각과 초가지 두가지 유형
- 첩차 마구리에 도깨비나 여러 동물들을 조각하는 의장적 특성
- 연결 칸에 익헌 쪽으로 세 층단으로 낮아지면서 우물반자 구성

## 월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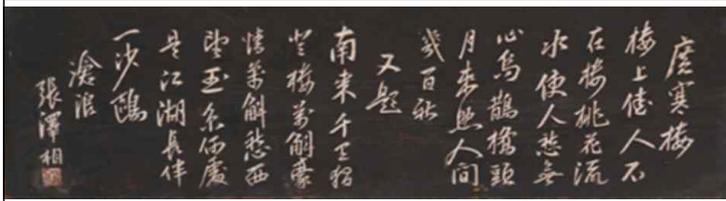
- 본루의 가운데 칸으로 연결되어 대청과 권위적인 구성
- 본루에 오르는 과정적인 공간을 상승에 따른 긴장감과 고조되는 기대감 유발
- 기단, 기둥, 칸, 계단, 판벽 등을 통해 본루 쪽으로의 위계적 표현
- 북쪽 입구 왕지 뺄목과 장여 뺄목 끝 부분을 초가지나 연봉을 조각하여 익공의 연화 조각과 조화
- 입구로서의 상징성으로 초익공계통인 익헌과 비교하여 이익공계통으로 장식
- 쇠서는 초가지에 연화와 연봉으로 화려하게 조각하는 조선 후기 특징
- 북측면 귀공포 양쪽에 귀한대 상부 외부 쪽에 용두 조각
- 화반은 거북이와 토끼 그리고 코끼리 등 동물 한 쌍을 우화적으로 설치
- 본루와 익헌과 같이 외부 쪽과 내부 쪽이 별개의 부재로 된 양서형의 초익공과 수서형의 이익공
- 쇠서는 상면 연화, 아랫면 연봉 조각, 내부 보아지 쪽도 화려하게 조각
- 계단은 3단으로 본루에 오르도록 계단, 마루, 판벽, 홍살 등의 의장적인 처리
- 훔쳐마 선자연으로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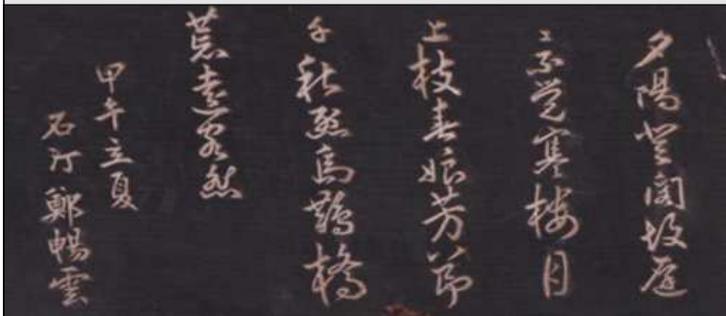
## <남원 광한루 현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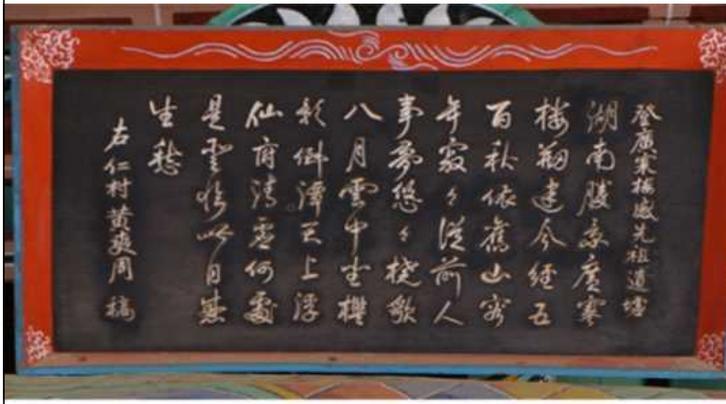
### 1) 편액(扁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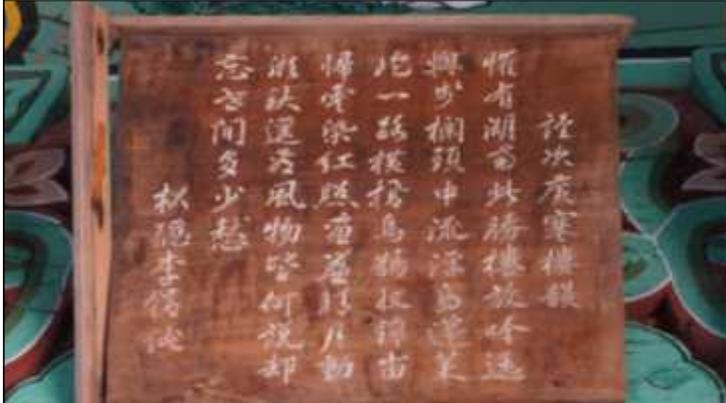
편액사진	번역
 <p style="text-align: center;">광한루 전면 편액 (낙전당 신익성→조정훈, 1935)</p>	<p>광한루는 광한루원의 중심 건물이다. 1419년 황희가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누각을 짓고 광통루(廣通樓)라 하였다. 그 후 1434년 세종 16년에 남원부사 민공이 중수하고 당시 충청 전라 경상 삼도 순찰사였던 하동부원군 정인지가 이 누에 올라 경관을 감상하다가 “오호라 호남에서 가장 뛰어난 경관은, 나의 고향의 경승을 감상하게 되면 나의 고향보다 나은 곳이 없고, 더욱이 이곳 광한루보다 나은 곳이 없더라”라며 용성지(龍城誌)로 했다. 또 일설에는 ” 호남의 승경으로 달나라에 있는 궁전 광한청허지부가 바로 이곳이 아니던가“하고 감탄하여 그 후 광한루로 개칭되었다.</p> <p>광한루 앞뒤에는 ‘호남제일루(湖南第一樓), 계관(桂觀), ‘광한루(廣寒樓)란 편액이 걸려있다. 호남제일루라는 말 그대로 호남에서 제일가는 누각이라는 뜻이며, 광한과 청허부는 하늘나라 월궁의 옥경에 들어서면 ‘광한 청허지부(廣寒淸虛之府)’가 있다는 신화적 전설을 상징하고, 계관은 달나라의 계수나무 신궁을 상징한다.</p> <p>‘광한루(廣寒樓)’의 외부 편액은 낙전당 신익성 신익성(申翊聖, 1588년 ~ 1644년)은 우의정 신희의 아들이며 신감 남원부사의 조카로서 편액을 썼다. 선조의 딸인 정숙 공주와 결혼하여 동양위에 봉해졌다. 인조 14년, 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남한산성에서 왕을 모시고 끝까지 싸울 것을 주장하였다. 주화파 대신들이 세자를 적에게 인질로 보내 화의를 맺자고 주장하자 칼로 위협하며 반대하였다. 후에 김상헌·최명길 등과 함께 선양으로 잡혀갔으나 소현세자의 덕으로 무사하였다. 효성이 지극하고 글과 글씨에 능했다. 저서로 '낙전당집'이 있다. 의 글씨이고, 광한루 내부에 있는 편액은 항내등(項乃登)이 작성하였다.</p> <p>‘호남제일루(湖南第一樓)’와 ‘계관(桂觀)’의 편액은 1855년 남원부사 이상억(李象億) 『남원지』에 의하면 이후역은 1855년(철종 6) 남원부사로 재임하면서 광한루를 중수하였다고 전한다.</p> <p>이 1855년 누각을 중수하면서 손수 써 걸었다. 이중 계관의 편액은 동학농민전쟁 때 없어진 것을 1930년대 광한루를 대대적으로 보수할 때 남원유지 강대형(姜大炯)이 다시 써 건 것이다. 또한 현재 광한루에 걸린 광한루란 편액은 전 민의원 조정훈(趙定勳) 조정훈은 광한루의 「호남제일루」와 「용성관」의 편액도 썼다고 하는데 용성관 편액은 소실되어 전하지 않는다. 남원 금수정(錦水亭)의 필체와 유사하다.</p> <p>이 1935년에 쓴 글씨이다.</p>
 <p style="text-align: center;">광한루 내부 편액(항내등(項乃登))</p>	
 <p style="text-align: center;">호남제일루 (이상억, 1855)</p>	
 <p style="text-align: center;">계관 (이상억, 1855→강대형, 1930's)</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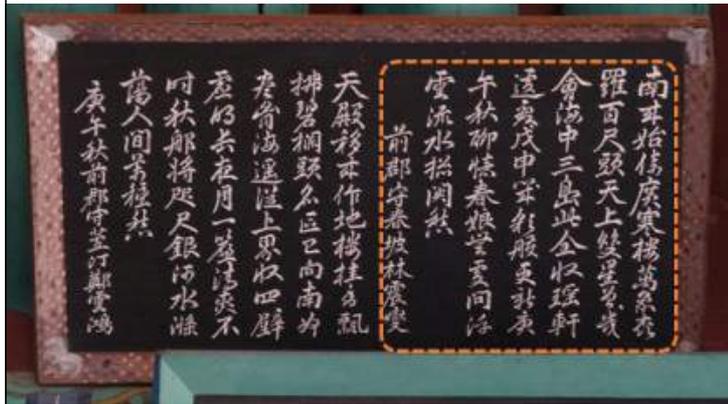
2) 제영(題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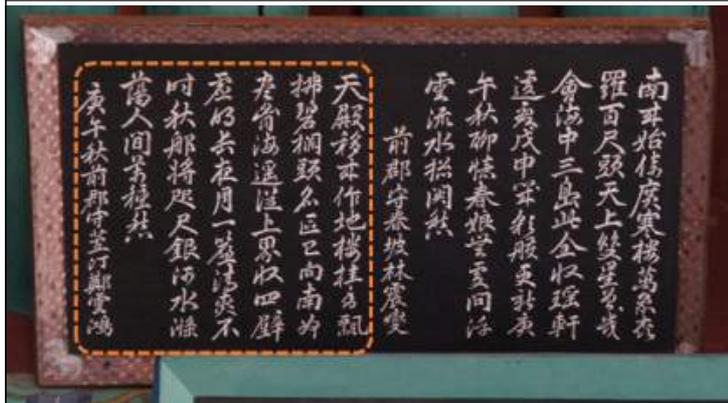
편역사진	번역
	<p><b>번역</b> <b>광한루</b></p> <p>누각 위의 옛 정든이는 어디로 가고 복사꽃과 흐르는 물만 사람들을 애 닳게 하네. 오작교 위에 비친 무심한 저 달빛은 인간에게 비추기를 그 몇 백년 이던가</p>
<p><b>원문</b></p>	
<p><b>廣寒樓</b></p> <p>樓上佳人不在樓 桃花流水使人愁 無心烏鵲橋頭月 來照人間幾百秋</p> <p><b>又題</b></p> <p>南來千里獨登樓 萬斛豪情萬斛愁 西望玉京何處是 江湖長伴一沙鷗</p> <p><small>滄浪 張漢魯</small></p>	<p><b>번역</b> <b>광한루</b></p> <p>남녘 천리 길을 홀로이 내려와 광한루에 올라보니 호방한 정도 가득하고 마음도 애달프구나</p> <p>서쪽으로 옥경을 바라보니 어느 쪽이 옥경이고 강호에 날으는 갈매기만 벗을 삼누나.</p> <p>창랑 장택상</p>

편역사진	번역
	<p><b>번역</b></p> <p>석양녘에 천천히 누각에 올라보니 어느덧 광한루에는 달이 솟았구나</p> <p>춘향 남자의 꽃다운 절개는 천추에 빛나건만 황량한 오작교에 나그네 마음만 애달프구나</p>
<p><b>원문</b></p>	
<p>夕陽登樓故遲遲 不覺寒樓月上枝 春娘芳節千秋烈 烏鵲橋荒遠客愁</p> <p><small>甲午 立秋 石汀 鄭暢雲</small></p>	<p>갑오 입춘 석정 정창운</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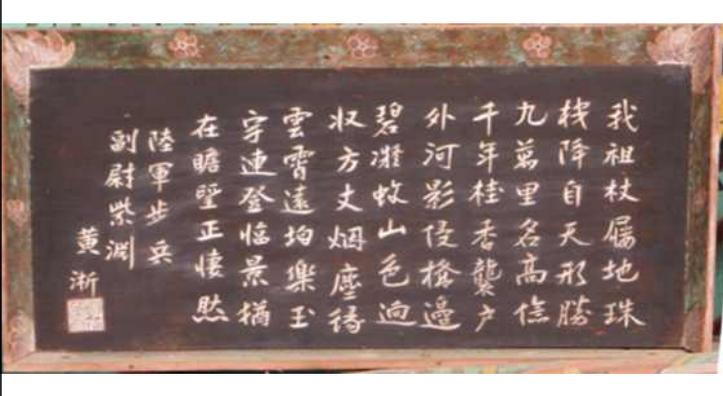
편역사진	번역
	<p style="text-align: center;"><b>광한루에 올라 선조가 남긴 뜻을 기리며</b></p> <p>호남의 경승지 이 광한루는 창건한지도 어느덧 오백년이 되었구나</p> <p>산천 경개는 옛 그대로이것만 인걸의 자취는 아득한 꿈이로세</p> <p>노 저으며 부르는 노래는 가을 구름속에 멤돌고 난간의 그림자는 연못에 잠겨 하늘에 떠 있는 듯하네</p> <p>신선이 노니는 청허부는 그 어디메이고 오늘 누각에 올라보니 가슴만 설레이네</p> <p style="text-align: right;">인촌 황석주</p>
<p style="text-align: center;"><b>원문</b></p> <p style="text-align: center;"><b>登廣寒樓感先祖遺墟</b></p> <p>湖南勝景廣寒樓 初建今經五百秋 依舊山容年寂寂 從前人事夢悠悠 橈歌八月雲中坐 檻影倒潭天上浮 仙府清虛何處是 登臨此日感生愁</p> <p style="text-align: right;">仁村 黃奭周 稿</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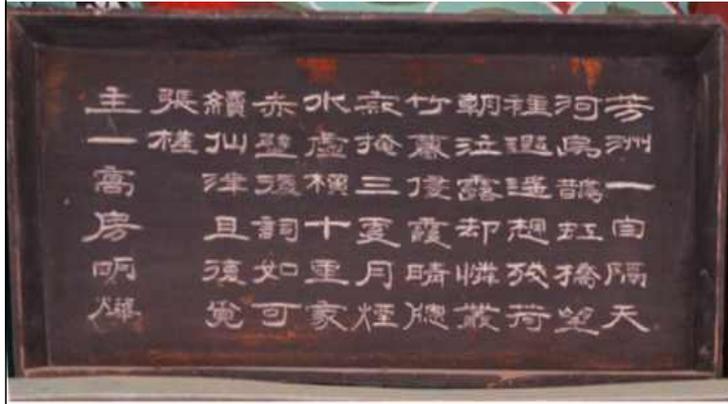
편역사진	번역
	<p style="text-align: center;"><b>삼가 광한루 글제따라</b></p> <p>호남 고을에 오직 하나뿐인 이 누각에서 가슴에 서려온 흥을 읊조리며 난간을 거닐어 보니</p> <p>흐르는 물 가운데 봉래산이 떠있는 듯 섬처럼 솟아있고 한편에 가로놓인 다리는 오작교라네</p> <p>금암봉 기슭을 휘감는 구름은 저녁노을에 몰들었고 대밭사이로 비치는 밝은 달빛은 가을이 분명하구나</p> <p>멀리 보이는 풍경들을 어이 다 말하리오 이 순간 세상사 모든 근심이 망연히 잊어지는 구나</p> <p style="text-align: right;">송은 이호순</p>
<p style="text-align: center;"><b>원문</b></p> <p style="text-align: center;"><b>謹次廣寒樓韻</b></p> <p>惟有湖南此勝樓 錦嶺歸雲染紅照 放吟逸興步欄頭 畫簾晴月動潏秋 中流浮島逢萊屹 遙看風物皆何說 一路橫矯鳥鵲收 却忘世間多少愁</p> <p style="text-align: right;">松隱 李錫純</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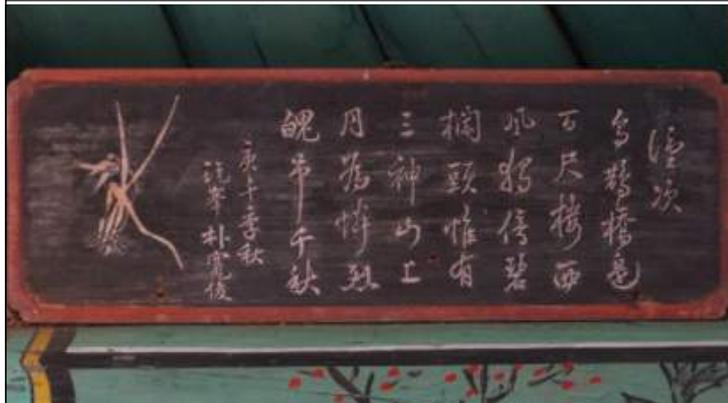
편역사진	번역
	<p>남녘에 내려와 처음 광한루에 오르니 삼라만상이 머리에서 아롱거리네 하늘의 견우와 직녀는 몇번이나 만났던고 바다 가운데 삼신산이 모두 여기에 모였구나 아름다운 누각이 무신년에 황폐되어 경오년 가을에 다시 새롭게 단장을 하였네 언뜻 춘향이가 떠오르나 물어 볼 곳이 없고 뜬 구름과 흘러간 물만이 모두 하염없구나</p> <p>전 군수 춘파 임진섭</p>
<p style="text-align: center;">원문</p> <p>南來始倚廣寒樓 萬象森羅百尺頭 天上雙星曾幾會 海中三島此全收 瑤軒遽廢戊申歲 彩般更新庚午秋 聊憶春娘無處問 浮雲流水總關愁</p> <p style="text-align: center;">前 郡守 春坡 林震燮</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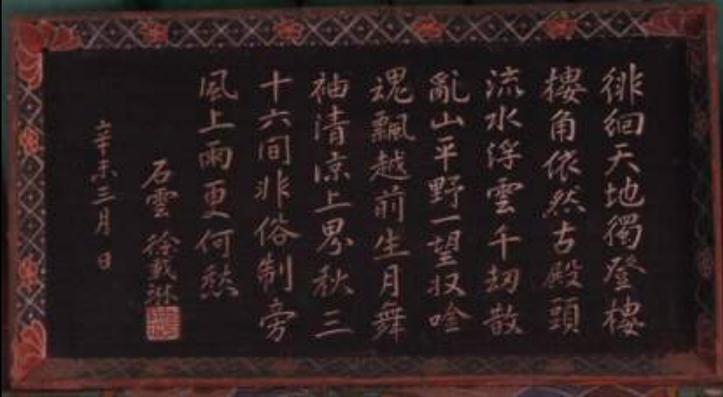
편역사진	번역
	<p>하늘의 궁전을 옮겨다가 지상에 누각을 세우니 계수나무 향기가 이 누각 난간에 풍겨오네 명승지가 모두 이 곳 남녘 고을에 모였으니 가슴에 부푼 회포는 하늘에 떠 있는 듯 하네 사방을 고요히 비치는 긴 달밤에 대밭에 스며든 상쾌한 바람은 어느덧 가을이라네 어찌하면 지척와 저 은하수를 옮겨다가 인간의 모든 수심을 깨끗이 씻을 것인가...</p> <p>전 군수 노정 정운홍</p>
<p style="text-align: center;">원문</p> <p>天殿移來作地樓 桂香飄拂碧欄頭 名區已向南州盡 胸海遙從上界收 四壁虛明長夜月 一簾清爽不時秋 那將咫尺銀河水 滌蕩人間萬種愁</p> <p style="text-align: center;">庚午 秋 前 郡守 蘆汀 鄭雲鴻</p>	

편역사진	번역
	<p>호남에서 으뜸가는 이 누각에 오늘 홀연히 올라보니 두 번째였구나 선원사 범종소리는 멀리 구름밖에까지 들리고 요천강 어부들의 피리 소리에 해가 저물어가네 영주섬 달 밝은 밤은 술잔을 기울리며 지새웠고 봉래섬 맑은 바람은 소매깃에 가을을 느끼게 하네 담둘레의 봄풀은 누구를 위해 푸르렀는고 충절의 넋을 떠올리니 수심만 하염없구나</p> <p style="text-align: right;">청호 양진기</p>
원문	
<p>湖南第一有斯樓 今忽登臨上二頭 禪寺梵鍾雲外出 蓼川漁笛日西收 瀛州月白樽前夜 蓬島風清袖裡秋 春草塔園爲誰綠 忠魂想像不勝愁</p> <p style="text-align: right;">晴湖 梁鑑琪</p>	

편역사진	번역
	<p>우리네 선조들이 노시던 곳 이 누각은 하늘에서 내려왔네 그 모습은 구만리에 떠있고 그 이름은 천만년을 길이 떠올리게 하네 계수나무 향기는 집 밖에까지 풍겨오고 은하수 그림자는 오작교 가에 이르렀네 교룡산은 푸른 색깔로 서러있고 멀리 방장산에는 구름이 자욱하구나 속세의 인연은 구름속으로 묻혀버리고 즐거운 풍악소리는 하늘에까지 이어지네 누각에 오르고 보니 경치는 옛과 같으나 멀리 바라보니 마음이 쓸쓸하구나</p> <p style="text-align: right;">육군 보병 부위 자연 황석</p>
원문	
<p>我祖杖屨地球樓降自天 形勝九萬里名高憶千年 桂香襲戶外河影侵橋邊 碧凝蛟山色迥收方丈烟 塵綠雲霄遠均樂玉宇連 登臨景猶在瞻望正悽然</p> <p style="text-align: right;">陸軍步兵 副尉 梁錫 黃錫</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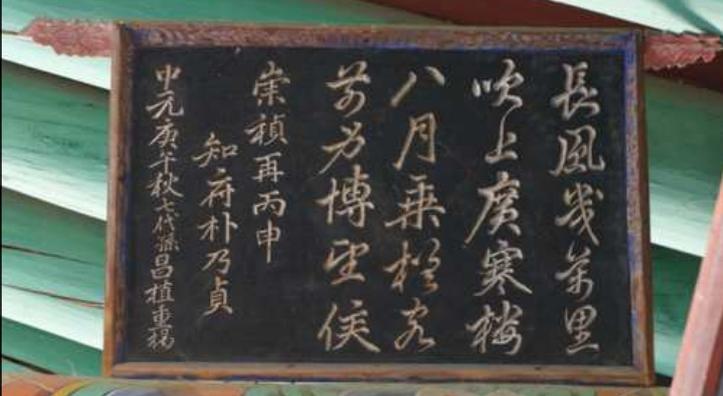
편역사진	번역
	<p>이 고을은 천상의 은하수와 달아있고 오작교 무지개 다리는 아득히 보이네</p> <p>연약한 연잎은 아침 이슬을 머금은 듯 애처롭고 한 떨기 대나무 숲은 저녁 노을에 젖어 처량하구나</p> <p>밝은 창에는 삼경의 달이 고요히 비쳐있고 물안개는 십리밖 마을까지 뺏혔구나</p> <p>적벽강 노래들을 되새겨 보자니 신선이 노니는 나루터에서 또다시 때배를 찾을 듯 하네</p> <p style="text-align: right;">일와 방명엽</p>
원문	
<p>芳洲一自隔天河 晴窓寂掩三更月 烏鵲虹橋望裡遐 煙水虛橫十里家 遙想殘荷朝泣露 赤壁歌詞如可續 却憐叢竹暮侵霞 仙津且復覓張槎</p> <p style="text-align: right;">—高 房明燁</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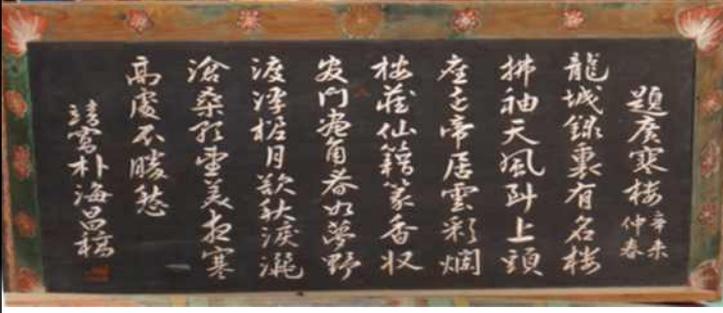
편역사진	번역
	<p style="text-align: center;"><b>삼가 차운함</b></p> <p>오작교 옆 백척 높은 이 누각에 가을 바람을 맞으며 푸른 난간에 의지하니 오직 삼신산의 달빛만이 열녀의 넋을 가없게 여겨 영원히 기리는구나</p> <p style="text-align: right;">경오 가을 원봉 박관준</p>
원문	
<p style="text-align: center;">謹 次</p> <p>烏鵲橋邊百尺樓 西風獨倚碧欄頭 惟有三神山上月 爲憐烈魄弔千秋</p> <p style="text-align: right;">夏午 季秋 現峰 朴寬俊</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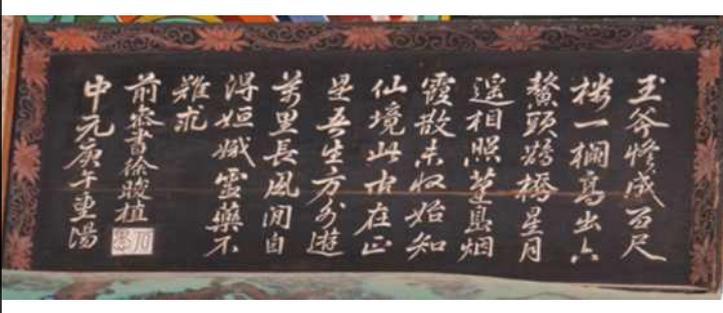
편역사진	번역
	<p>온 누리를 거닐다가 혼자서 이 누각에 오르니  누각은 의연히 옛 광한전 그대로이네</p> <p>흐르는 물과 떠도는 구름은 천년을 지났고  널리있는 산과 넓은 들녘은 한 눈에 보였네</p> <p>말 없는 영혼은 사뭇히 달빛에 서러있고  무녀의 소매깃에 이는 서늘한 바람은  신선경개라네</p> <p>서른여섯칸의 누각은 속세의 모습이  아니었으니</p> <p>세찬 비바람인들 어찌 걱정하리오</p> <p>신미 삼월 석운 서재림</p>
<p>원문</p>	
<p>徘徊天地獨登樓 唵魂飄越前生月  樓角依然古殿頭 舞袖清涼上界秋  流水浮雲千劫散 三十六間非俗制  亂山平野一望收 旁風上雨更何愁</p> <p>石雲 徐載淋 辛未 三月 日</p>	

편역사진	번역
	<p>광한루에 올라 선조의 옛터를 느끼면서  물위의 누각은 황희의 옛 터전이요 후손이  오르고 보니 감회가 더욱 새롭구나</p> <p>청허한 기상은 바람과 달빛에 연유된 것이고  상쾌한 정신은 여름인데도 가을을 느끼게 하네</p> <p>영원히 변할 줄 모르는 모습은 그대로 이건만  천년의 인생은 어느덧 흘렀네</p> <p>아직 회포를 다 풀지 못한채 날이 저무니  한숨지며 봉래섬에서 영주섬으로 내려왔노라</p> <p>우산 황유주</p>
<p>원문</p>	
<p>登廣寒樓感先祖遺墟</p> <p>黃氏舊墟水上樓 萬古山容如彼在  后孫登處感生愁 千年人事渺然流  清虛氣像風兼月 敍懷未盡天將暮  灑落精神夏亦秋 歎向蓬萊直下洲</p> <p>友山 黃留周 謹稿</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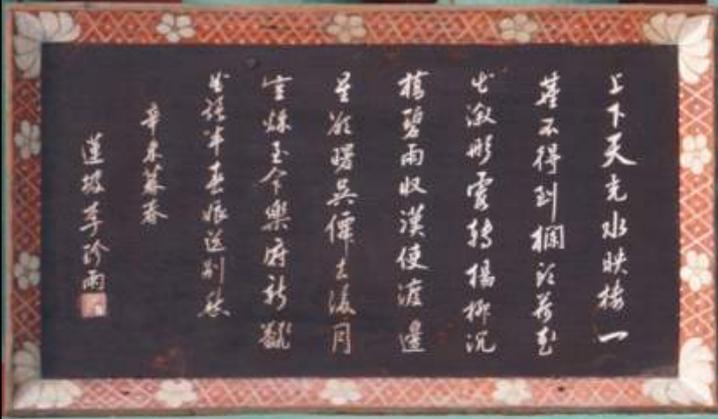
편액사진	번역
	<p>땅위에서 마치 천상의 백옥루에 오른 것 같으니 하늘에 가득한 맑은 기운은 처마 끝에 서려있네</p> <p>호당한 마음으로 시를 읊으나 오히려 졸작이 되었고 아름다운 경치는 멀리 흩어져 잡을 길이 없구나</p> <p>고운 난간의 상쾌한 바람은 끝없이 펼쳐있고 그림같은 대들보와 기둥은 신선한 달빛을 받으며 천년을 이어가네</p> <p>영주섬의 신선경계가 언제나 옆에 있으니 인간사의 속된 근심 이 스스로 사라지네</p> <p style="text-align: right;">구산 송인만</p>
원문	
<p>地上如登白玉樓 滿天淑氣護簷頭 詩情浩蕩還成拙 景色凝茫散不收 珠檻爽清風萬里 畫樑鮮耀月千秋 瀛洲仙境長隣近 遺遣人間俗子愁</p> <p style="text-align: right;">久山 宋寅萬稿</p>	

편액사진	번역
	<p>몇 만리에선가 멀고 먼 바람이 광한루에 불어 오는구나 팔월 (가을) 에 떼배를 타고 오는 이는 옛날 명망 높은 재상이었네</p> <p style="text-align: right;">승정 재 병신 지부 박내정 중원 경오가을 7대손 창식 중앙</p>
원문	
<p>長風幾萬里 吹上廣寒樓 八月乘槎客 前身博望侯</p> <p style="text-align: right;">崇禎 再 丙申 知府 朴乃貞 中元 庚午 秋 七代孫 昌植 重揚</p>	

편역사진	번역
	<p style="text-align: center;"><b>광한루 신미 중춘에 지음</b></p> <p>용성 고을 사기에 유명한 누각이 있어 옷깃에 스미는 허공의 바람을 따라 올라보니</p> <p>그 곳은 옥황상제가 계신 곳처럼 채색이 찬란하고 신선의 서책을 뒤적여 보니 향기가 풍기는구나</p> <p>관가의 나팔소리는 한낱 봄 꿈에 지나지 않고 들을 지나 멧목을 타고 보니 달빛은 가을이구나</p> <p>허무하여 눈물젖어 그대를 그려보니 이 차가운 바람에 그리움을 홀로 달랠길 없네</p> <p style="text-align: right;">청와 박해창</p>
<p style="text-align: center;"><b>원문</b></p> <p style="text-align: center;">題 廣寒樓 辛未仲春</p> <p>龍城錄裡有名樓 拂袖天風到上頭 座近帝居雲彩爛 按藏仙籍篆香收 官門畫角春如夢 野渡浮槎月欲秋 淚灑滄桑歌望美 夜寒高處不勝愁</p> <p style="text-align: center;">清窩 朴海昌 稿</p>	

편역사진	번역
	<p>옥 도끼로 이 백척 누각을 세우니 한 난간은 육모 자라 주춧돌에 높이 서 있네</p> <p>오작교의 별과 달은 멀리서 서로 비치고 봉래섬의 물안개는 사방에서 피어오르네</p> <p>이제야 신선의 경지가 이곳에 있음을 알았으니 바로 이것이 내가 딛 세상에 살고 있는 듯 하구나</p> <p>만리 밖에서 불어 오는 바람에 마음이 한가로우니 월종의 향아가 구하려는 영약도 얻기가 그리 어렵지 않구나</p> <p style="text-align: right;">경오 중앙 전 참서 서준식</p>
<p style="text-align: center;"><b>원문</b></p> <p>玉斧修成百尺樓 一欄高出六鰲頭 鵲橋星月遙相照 蓬島烟霞散未收 始知仙境此間在 正是吾生方外遊 萬里長風聞自得 姮娥靈藥不難求</p> <p style="text-align: center;">前 參書 徐峻植 中元 庚午重陽</p>	

편액사진



원문

上下天光水映樓 一塵不得到欄頭  
荷花出澈彤雲轉 楊柳沈橋碧雨收  
漢使渡邊星欲曙 吳僊去後月空秋  
至今樂府新翻曲 强半春娘送別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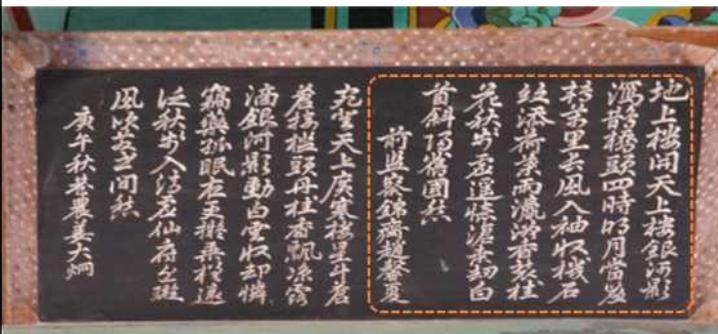
辛未 暮春 蓮坡 李珍雨

번역

하늘빛과 물빛이 한데 어울려 이 누각을  
비치니 난간에는 한 티끌의 먼지도 없네  
연못의 연꽃에는 붉은 구름이 감돌고 오작교옆  
수양버들에는 단 비가 내리네  
한 나라 사신의 뱃머리에는 새벽 별이 비치고  
오나라 사신이 간 뒤에는 가을 달이 떠있네  
지금 악부(樂府)에서 들려오는 새로운  
곡조는 춘향 남자와 억지 이별을 하려는가  
수심이 깊어지네

신미 모춘 연파 이진우

편액사진



원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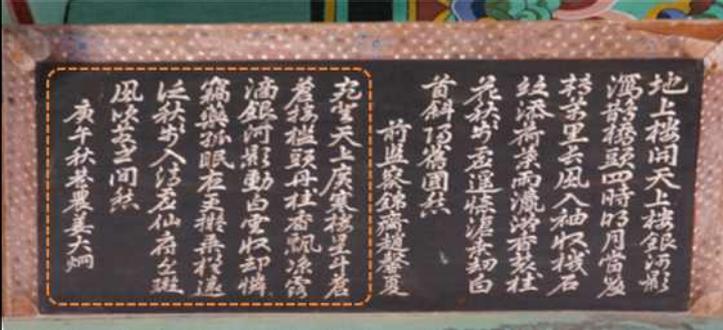
地上樓開天上樓 銀河影瀉鵲橋頭  
四時明月當簾轉 萬里長風入袖收  
機石紋添荷葉雨 瀛洲香襲桂花秋  
步虛遙憶滄桑劫 白首斜陽舊國愁

前 監察 鎔齊 趙馨夏

번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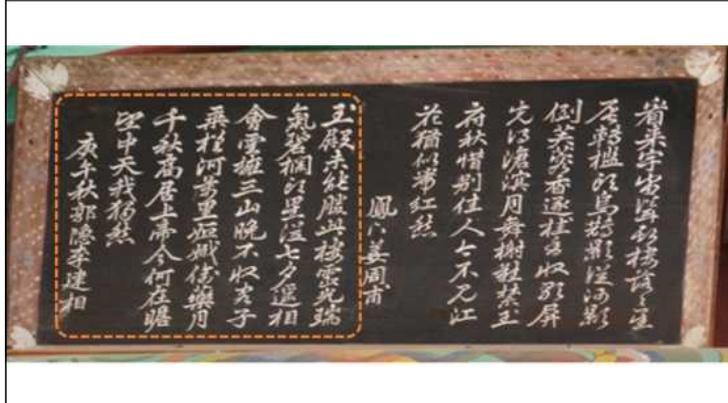
천상의 누각을 지상에다가 세우니 은하수  
그림자가 오작교 위에 내렸네  
사시절 밝은 달은 대발 사이로 비추고 먼  
곳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소매깃에 스며드네  
베들의 비단에다가 연꽃무늬를 더하였고  
영주섬에는 가을 계수나무향기가 엄습하네  
초연한 마음으로 세상사를 생각하니 어언  
사양길의 백발은 옛 나라를 생각하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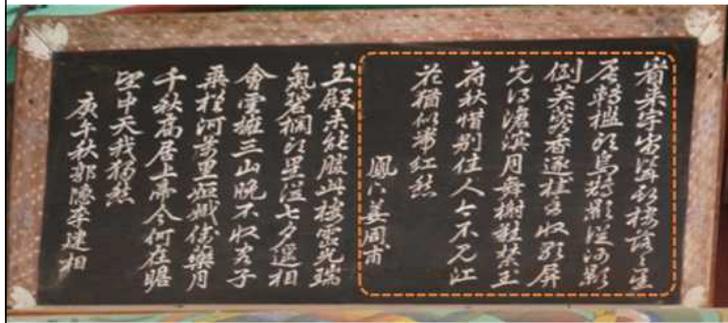
전 감찰 금재 조형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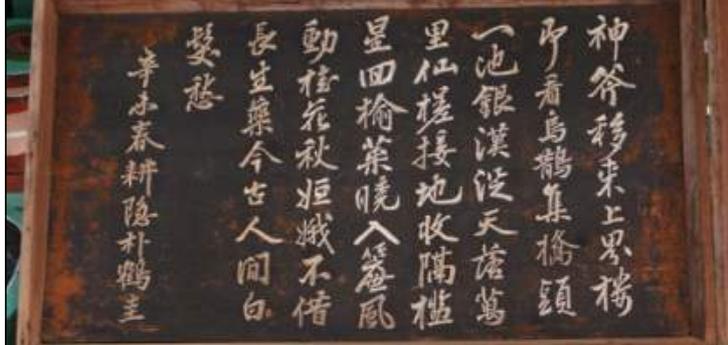
편역사진	번역
	<p>완전히 하늘의 광한루에 오른것 같으니          머나먼 허공의 별들이 이 난간에 비치네</p> <p>계수나무 향기는 서늘한 이슬을 머금고          은하수의 그림자는 흰 구름 사이로 비치네</p> <p>약을 캐는 월궁의 향아는 외롭고 애달프게          밤을 새우다가 다시 떼배를 타고 가을 바다에          떠있네</p> <p>신선이 사는 청허부를 찾아드니 맑고 상쾌한          바람에 세상 근심을 잊었네</p> <p>경오년 가을 향농 강대형</p>
<p style="text-align: center;"><b>원문</b></p> <p>宛登天上廣寒樓 星斗蒼蒼接檻頭          丹桂香飄涼露滴 銀河影動自雲收          却憐竊藥孤眠夜 更擬乘槎遠泛秋          步入清虛仙府近 璇風吹散世間愁</p> <p style="text-align: right;">庚午 秋          巷農 姜大炯</p>	

편역사진	번역
	<p>멀고 먼 옥황상제의 궁전 같은 이 누각에          의지하니 별빛과 은하수의 그림자는 푸른          난간에 비치네</p> <p>봉래섬 위에는 항상 구름이 떠있고 오작교          가에는 달이 솟아있네</p> <p>예로부터 흥망성쇠는 모두 환상의 꿈이라          사시절 노래소리에 흥에 겨워 노니네</p> <p>옛 문양공 선조를 추모하니 그 거곡한 업적은          의연히 그대로구나</p> <p>중원 경오 중양 우산 양한영</p>
<p style="text-align: center;"><b>원문</b></p> <p>玉宇迢迢獨倚樓 星河影倒碧欄頭          蓬萊島上雲常在 烏鵲橋邊月未收          千古興亡都幻夢 四時歌吹任遨遊          蒼茫追憶文襄祖 盛蹟依然庶可求</p> <p style="text-align: right;">中元 庚午 重陽 友山 梁翰英</p>	

편액사진	번역
	<p>인간세상에 이 누각이 있어서 옛 글들이          옥같은 난간에 걸렸네          맑은 하늘에는 은하수 그림자가 아른거리고          고요한 밤에 계수나무 향기가 스며드네          강산은 옛 그대로이고 문물(文物)은 오늘을          누리고 있네          길이 길이 흠모할 뿐 천지간에 무엇을          얻으리요</p> <p>중원 경오 가을 문양공 후손 양주인</p>
<p style="text-align: center;"><b>원문</b></p> <p>人間有此樓 遺藻玉欄頭          天清河影動 夜靜桂香收          江山惟故國 文物當前遊          悠然將寓慕 俯仰更何求</p> <p style="text-align: center;">文襄公 後孫 梁柱寅 中元 庚午 秋</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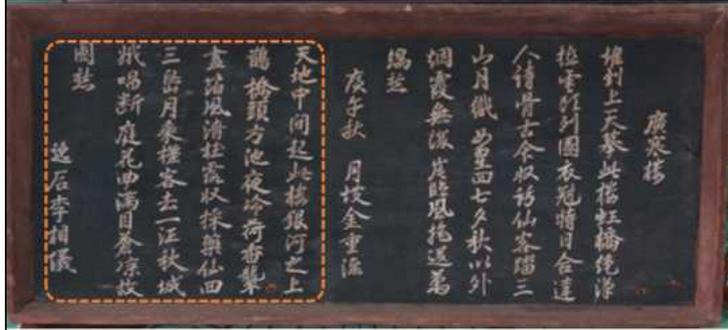
편액사진	번역
	<p>천상의 궁전인들 어찌 이 누각보다 나으리오          신령스럽고 아름다운 서기가 푸른 이 난간에          서려있네          견우와 직녀성은 칠석날 밤에 멀리서 서로          만나고 구름은 삼신산을 안고 밤 늦도록          견히지 않네          나그네는 떼배를 타고 은하 만리를 건너고          월궁의 향아는 달 밝은 가을 밤에 약을 훔치러          왔네          높이 계신 옥황상제는 지금 어디에 계시는고          종천을 바라보니 나 홀로 수심에 잠기누나</p> <p>경오 가을 곽은 이견상</p>
<p style="text-align: center;"><b>원문</b></p> <p>玉殿未能勝此樓 靈光瑞氣碧欄頭          星從七夕遙相會 雲擁三山晚不收          客子乘槎河萬里 姮娥偷藥月千秋          高居上帝今何在 瞻望中天我獨愁</p> <p style="text-align: center;">庚午 秋 郭隱 李建相</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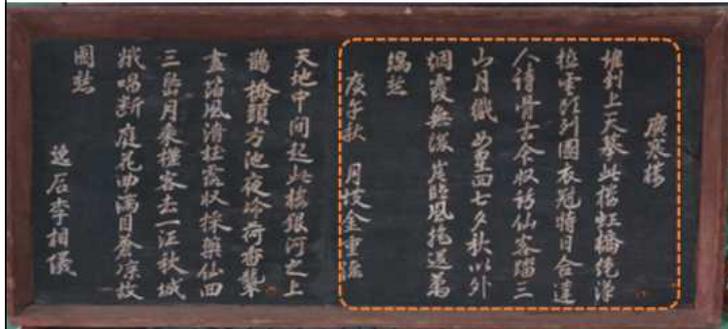
편역사진	번역
	<p>운 누리를 살펴보니 이 누각이 높이 솟았고 영통한 별빛은 난간에 서렸네</p> <p>오작교의 그림자는 하늘의 은하수에서 내려진 그림자요 연꽃 향기는 계수나무 향기와 어울려 향기롭구나</p> <p>노래하는 곳에는 멀리서 밝은달이 비쳐오고 춤추는 곳에는 신선의 가을 놀이를 연상케하네</p> <p>애석하게 이별한 옛 연인을 지금 볼 수 없는데 강가의 꽃은 오히려 붉은색을 자아내네</p> <p style="text-align: right;">봉하 강주보</p>
<p style="text-align: center;"><b>원문</b></p> <p>看來宇宙聳斯樓 落落星辰轉檻頭 烏鵲影從河影倒 芙蓉香逐桂香收 歌屏先得滄溟月 舞榭難禁玉府秋 惜別佳人今不見 江花猶似帶紅愁</p> <p style="text-align: center;">鳳下 姜周雨</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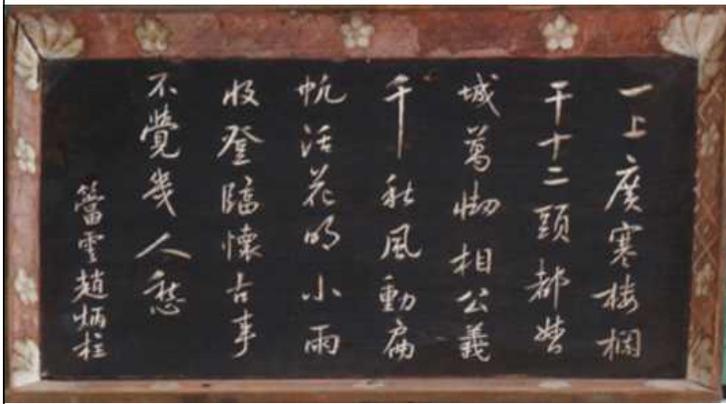
편역사진	번역
	<p>신비로운 도끼로 하늘의 누각을 옮겨오니 까마귀 까치기 모여 다리를 이루었네</p> <p>연못에 비친 은하수는 하늘에서 떨어졌고 먼 만리에서 신선이 타는 때배는 땅위에 내려왔네</p> <p>난간에 비치는, 빛은 느티나무 사이로 빛나고 대밭 사이로 스며든 가을 바람은 계수나무 향기를 일구네</p> <p>월궁의 향아는 장수의 약을 구하지 않았지만 예나 지금이나 인간들은 백발을 서러워하네</p> <p style="text-align: right;">신미 봄 경은 박학규</p>
<p style="text-align: center;"><b>원문</b></p> <p>神斧移來上界樓 卽看烏鵲集橋頭 一池銀漢從天落 萬里仙槎接地收 隔檻星回榆葉曉 入簾風動桂花秋 姮娥不借長生藥 今古人間白髮愁</p> <p style="text-align: center;">辛未 春 耕隱 朴鶴圭</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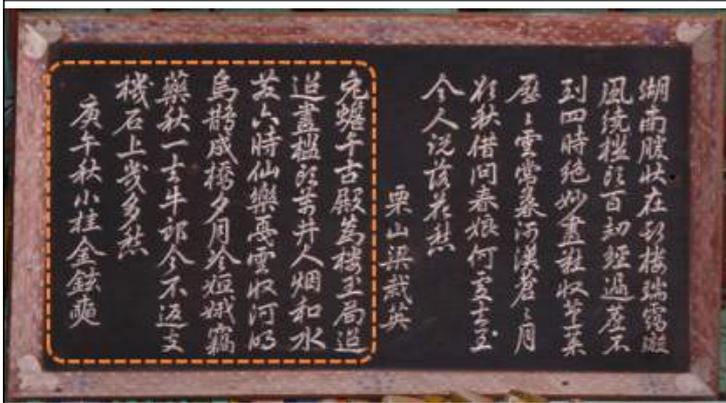
편액사진	번역
	<p>광한루는 원래 월궁의 누각이었는데 그 모습 그대로 인간세상의 요천강가에 세워졌네</p> <p>나비가 춤추는 꽃피는 언덕에는 봄풀이 가득하고 교룡산 옛 절에는 저녘 구름이 깔려있네</p> <p>별빛타고 성안에 드니 신선선과 속세가 어우러졌고 대밭에 스미는 서늘한 바람은 여름인데도 가을인 듯 하구나</p> <p>열녀 춘향의 님은 지금 어디에 있는고 난간에 의지하니 한가로이 수심이 떠오르네</p> <p style="text-align: right;">박정식</p>
<p style="text-align: center;">원문</p> <p>廣寒元是月中樓 一樣人間蓼水頭 蝴蝶芳原春草遍 蛟龍古寺暮雲收 星槎近市仙和俗 珠箔噓涼夏亦秋 烈烈香魂今在否 憑欄迢遞動閑愁</p> <p style="text-align: right;">朴政植</p>	

편액사진	번역
	<p>늦 바람에 피리붙며 높은 누각에 오르니 백척이나 되는 아름다운 난간에 은하수가 걸렸네</p> <p>비단을 짜는 옛 베틀에는 구름이 흩어져 있고 떼배를 타고 나루터에 이르니 비가 개이는 구나</p> <p>날아갈 듯한 신선은 두발에 신을 신고 평지에서 노닐고 춤추는 기녀의 옷소매에서 가을의 정취를 느끼네</p> <p>연못에 피는 연꽃은 아릿다우나 말이 없고 이제는 오히려 여인의 근심만 지니고 있더라</p> <p style="text-align: right;">교라 양태기</p>
<p style="text-align: center;">원문</p> <p>晚風長笛倚高樓 百尺珠欄河漢頭 栽錦古機雲欲散 乘槎空渚雨初收 飛仙雙鳥遊平地 舞妓單衫情早秋 池上荷花嬌不語 至今猶帶玉人愁</p> <p style="text-align: right;">喬羅 梁泰基</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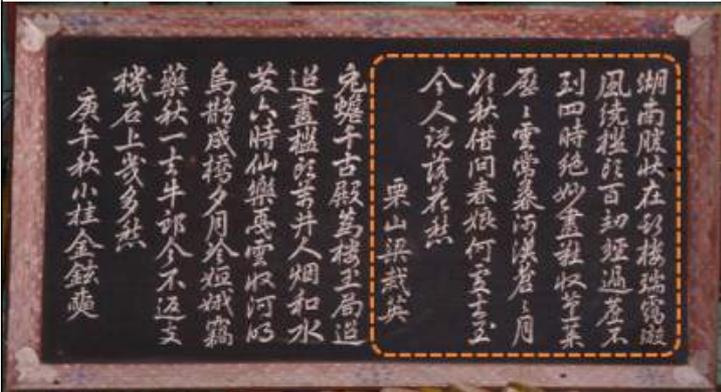
편역사진	번역
	<p>하늘과 땅사이에 이 누각을 세웠고 은하수 위에는 오작교라네</p> <p>연못의 차가운 밤은 연꽃 향기가 스며들고 대밭속의 맑은 바람은 계수나무에 이슬을 맺게하네</p> <p>약을 캐는 신선은 달 밝은 삼신산으로 돌아오고 떼배를 타는 나그네는 가을 강을 건너는 구나</p> <p>기녀가 부르는 꽃 노래에 애절함을 느끼고 눈 앞에는 서늘한 옛터의 수심이 가득하구나</p> <p>일석 이상의</p>
<p style="text-align: center;"><b>원문</b></p> <p>天地中間起此樓 銀河之上鵲橋頭          方池夜冷荷香襲 畫箔風清桂露收          採藥仙回三島月 乘槎客去一江秋          城娥唱斷庭花曲 滿目蒼涼故國愁</p> <p style="text-align: right;">逸石 李相儀</p>	

편역사진	번역
	<p style="text-align: center;"><b>광한루</b></p> <p>하늘의 누각을 상상하여 이 누각을 지으니 무지개 다리가 구름 끝까지 이르렀네</p> <p>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수시로 모여 들고 시와 문장에 능한 이들은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찾는구나</p> <p>신선을 찾는 나그네는 밝은 달밤에 삼신산에 오르고 직녀와 견우는 칠석의 가을밤에 만나네</p> <p>또한 물안개는 끝없이 피어오르고 바람은 모든 근심을 앗아가 버렸네</p> <p>경오 가을 월파 김중덕</p>
<p style="text-align: center;"><b>원문</b></p> <p style="text-align: center;"><b>廣寒樓</b></p> <p>推到上天摹此樓 虹橋絕漢抵雲頭          列國衣冠時日合 達人詩骨古今收          訪仙客踏三山月 織女星回七夕秋          以外煙霞無際岸 臨風抱送萬端愁</p> <p style="text-align: right;">庚午秋 月坡 金重德</p>	

편액사진	번역
	<p>일차 이 광한루에 올라보니 난간이 열 두개구나</p> <p>이 곳 수령은 섬을 지키지 오랜 세월이요 황희정승의 업적은 천추에 전해지네</p> <p>바람은 조각배를 움직이고 잔 비를 맞은 꽃은 더욱 선명하구나</p> <p>이 곳에 올라 옛 일을 생각하니 몇 사람이나 수심에 잠겼는지 알 수가 없구나</p> <p style="text-align: right;">선운 조병주</p>
<p style="text-align: center;">원문</p> <p>一上廣寒樓 欄千十二頭 都督城萬樹 相公義千秋 風動扁帆活 花明小雨收 登臨懷古事 不覺幾人愁</p> <p style="text-align: right;">線雲 趙炳柱</p>	

편액사진	번역
	<p>옛적의 금토끼와 옥두꺼비인 월궁이 지상의 누각이 되었고 머나먼 천상의 빛이 이 난간 단청에 비쳤네</p> <p>집집마다에서 피어오른 연기는 물과 조화되어 흩어지고 하루 종일 신선의 풍악소리는 구름속에 잠기네</p> <p>밝은 은하수에 까마귀와 까치가 다리를 이룬 이밤 월궁의 향아는 약을 캐러 왔다네</p> <p>한번 떠나버린 견우별은 지금도 돌아오지 않으니 베틀위의 직녀별은 그 얼마나 근심에 잠겼을고</p> <p style="text-align: right;">경오 가을 소계 김현석</p>
<p style="text-align: center;">원문</p> <p>兔蟾千古殿爲樓 玉局迢迢畫檻頭 萬井人烟和水散 六時仙樂憂雲收 河明鳥鵲成橋夕 月冷姮娥竊藥秋 一去牛郎今不返 支機石上幾多愁</p> <p style="text-align: right;">庚午秋 小桂 金鉉奭</p>	

편역사진



원문

湖南勝狀在斯樓 瑞靄璇風繞檻頭  
百劫經過塵不到 四時絕妙畫難收  
蓬萊歷歷雲常暮 河漢蒼蒼月欲秋  
借問春娘何處去 至今人說落花愁

栗山 梁載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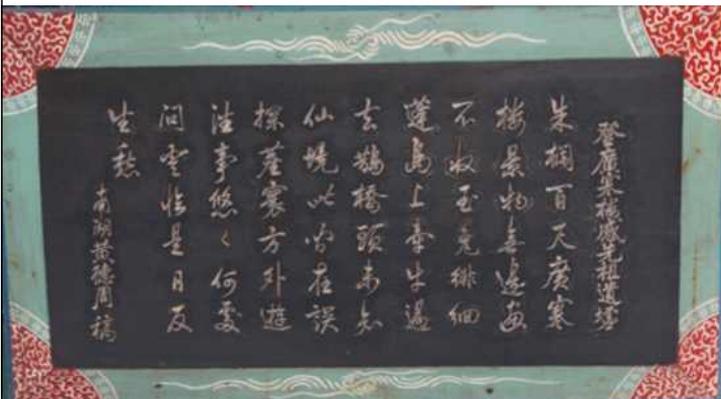
번역

호남의 제일 명승 경계가 이 누각에 있으니  
상서로이 부는 바람이 난간을 어루 만지네  
억겁의 세월이 흘러도 티끌 한 점 일지 않으니  
사시로 절묘한 모습은 한폭의 그림에 담기  
어렵네

봉래산은 항상 저녁노을에 서려있고 푸르고  
푸른 저 은하수에 가을달이 밝았구나  
물어 보자 춘향아! 어느곳에 있느냐 이제  
사람들은 한떨기 떨어진 꽃이라 하느냐

율산 양재영

편역사진



원문

登廣寒樓感先租遺墟  
朱欄百尺廣寒樓 景物無邊畫不收  
玉兔徘徊蓬島上 牽牛過去鵲橋頭  
未知仙景此間在 誤探塵寰方外遊  
往事悠悠何處問 登臨是日反生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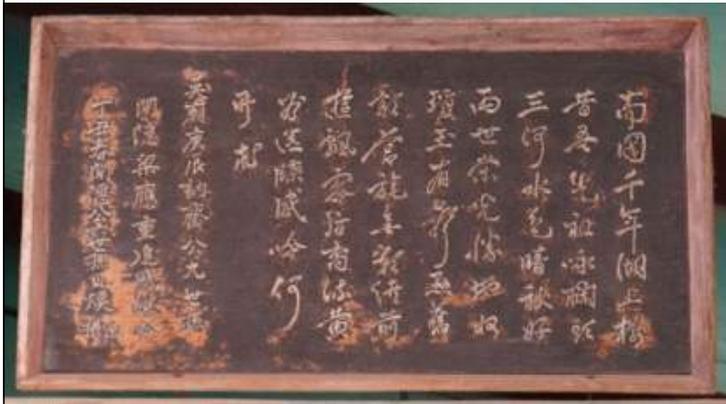
南湖 黃德周 稿

번역

광한루에 올라 선조의 옛터를 느끼면서  
백척 난간의 이 광한루여 끝없이 아름다운  
경치는 그림으로 다 담을 수 없네  
옥토끼 (달) 는 봉래섬 위에서 서성거리고  
견우는 오작교 위를 지나가네  
알 수는 없으나 신선의 경계가 이곳에 있거늘  
헛된 속세의 환상을 더듬다가 부질없이  
노닐었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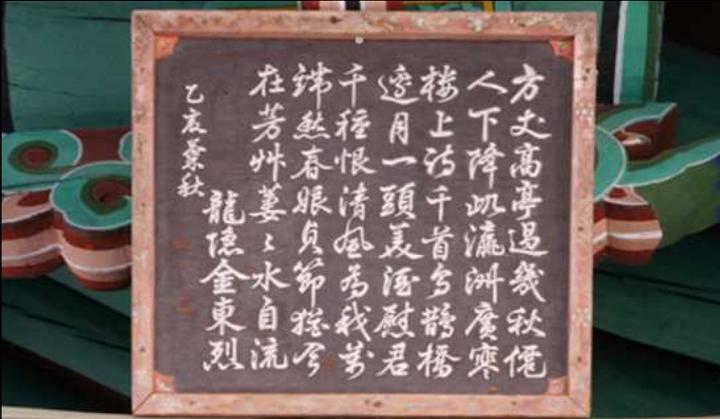
아득한 지난 일을 어느 곳에서 물어볼까  
오늘에 이곳에 오르고 보니 도리어 수심만  
생기는구나

남호 황덕주

편액사진	번역
	<p>천년동안 남녘 호수 위의 이 누각은 옛 나의 선조께서 글을 읊던 난간이라네</p> <p>삼신산에 비친 저 은하수는 가을 물처럼 맑고 두 세대의 광영은 모두 이곳에서 이루어졌네</p> <p>풍악소리 울려 퍼지는 이곳에는 옛 편액이 걸려있고 형상을 알 수 없는 정절의 깃발아래 놀이만 이어지네</p> <p>깊은 골짜기에 외로이 떨어져있는 이 후손이 남겨진 서첩을 읊어 본들 무엇을 얻으리오</p> <p>영묘 경진 놀재공 9세손 한은 양응중이 추모하여 읊는 글을 정축년 봄 한은공 6세손 일환이 현판하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원문</b></p> <p>南國千年湖上樓 昔吾先祖咏欄頭 三河水色晴秋好 兩世榮光勝地收 瓊玉有聲懸舊額 節旄無影續前遊 飄零后裔深黃谷 遺牒感吟何所求</p> <p>英廟 庚辰 訥齊公 九世孫 閑隱 梁應重 追感 繼吟 丁丑春閑隱公六世孫 日煥追揭</p>	

편액사진	번역
	<p>재판소를 처음 이 누각에 설치할 때에 옛 현인들의 시문이 새겨진 현판과 일체를 철거하였다가</p> <p>이제 다시 중수하여 본 모습으로 돌아와 낙성을 하던날에</p> <p>현인들의 현판을 찾아보니 저장된 것 중에서 혹은 있기도 하고 혹은 없어지고 혹은 파손되었고 보수할때 떼어버려</p> <p>열성공의 시문이 새겨진 판본이 어디로 갔는지 알수가 없어서 참으로 환감하였다</p> <p>불초후손 의욱 (義次) 이가 유감스럽게 생각하여 문중으로부터 돈을 건우어 옛 모습과 같이 수선하여 다시 걸었노라</p>
<p style="text-align: center;"><b>원문</b></p> <p>自裁判所設始于此樓將前賢詩文懸板亦一切捲撤而此樓今爲還本依舊重修落成之日前賢板本查覓于那時藏置中則或存或無或破碎而至於烈成公詩文板本不知去處尤庸荒感矣不孫義沃自門中醜金依舊本繼揭</p>	

편액사진



원문

方丈高亭過幾秋 僊人下降此瀛洲  
 廣寒樓上詩千首 烏鵲橋邊月一頭  
 美酒慰君千種恨 清風爲我萬端愁  
 春娘貞節猶今在 芳草萋萋水自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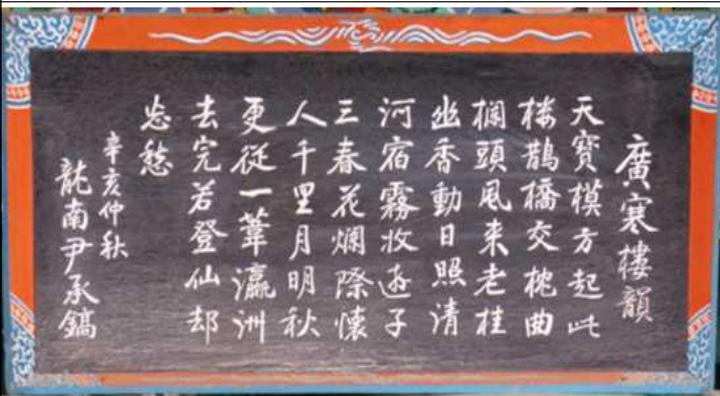
龍隱 金東烈 乙亥 菊秋

번역

방장산의 높은 이 정자는 몇 해의 가을을  
 지냈던고 신선이 이 영주섬에 내려 왔구나  
 광한루에는 천수나 되는 글이 걸려있고  
 오작교에는 둥근 달이 떠있네  
 아름다운 술로 그대의 천만가지 한을 위로하고  
 맑은 바람은 나의 모든 근심을 잊게하네  
 춘향낭자의 정절은 지금까지 남아있는데  
 꽃다운 풀만 무성하고 물은 하염없이 흐르네

을해 가을 용은 김동열

편액사진



원문

廣寒樓韻

天寶模方起此樓 鵲橋交枕曲欄頭  
 風來老桂幽香動 日照清河宿霧收  
 遊子三春花爛際 懷人千里月明秋  
 更從一葦瀛洲去 完若登仙却忘愁

辛亥 仲秋 龍南 尹承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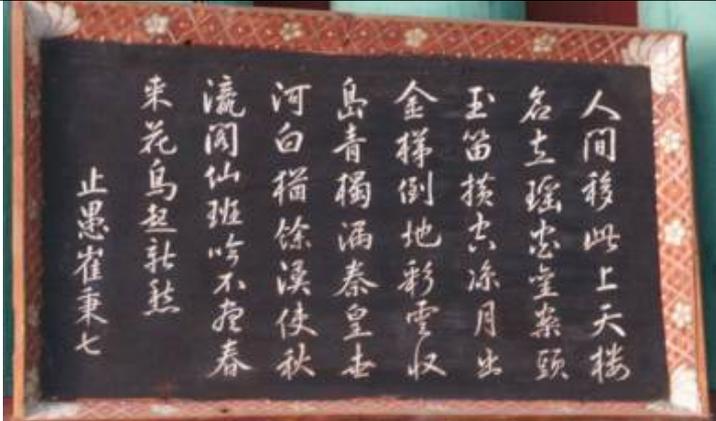
번역

광한루 글제 따라

하늘의 보배 인 월궁을 본 떠 이 누각을  
 세웠고 오작교의 굽은 난간을 서로 베개  
 삼고있네  
 계수나무 그윽한 향기는 바람결에 풍겨오고  
 맑은 은하수에 햇빛이 비치니 안개가 걷히네  
 꽃피는 3월은 놀이하는 사람들을 부르고  
 천리에 비친 가을 달은 사람을 그리게 하네  
 다시 한 갈대를 타고 영주섬으로 가니 완연히  
 신선의 경지에 오른 듯 하여 근심이 잊어지네

신해 가을 용남 윤승호

편액사진



원문

人間移此上天樓 名在瑤宮金案頭  
玉笛橫空涼月出 金梯倒地彩雲收  
島青獨漏秦皇世 河白猶餘漢使秋  
瀛閣仙班吟不盡 春來花鳥起新愁

止愚 崔秉七

번역

하늘의 누각을 인간세상에 옮겨오니 그 이름은  
천상의 궁전에 소중히 남아있네

허공을 가로지르는 구슬피리 소리에 가을달이  
오르고 땅으로 기울러 내린 금사다리에  
오색구름이 어렸구나

푸른 섬에는 진시황제의 세상이 빠져있고 하얀  
물에는 오히려 한나라 사신의 자취가 남아있네

영주각에서 신선이 글을 읊는 소리는 끝이  
없고 꽃피고 새우는 봄날에 새로이 수심만  
자아내네

지우 최병철

편액사진



원문

地上特高天上樓 南湖淑氣挹欄頭  
蛟龍盤郭朝雲起 烏鵲成橋暮雨收  
一代重修新世界 三山不老幾春秋  
回思黃相遺來蹟 五百年間多少愁

辛未 三月 日 南江 朴爲容

번역

천상의 누각이 지상에 우뚝 섰으니 남북의  
맑은 기운이 모두 이 난간에 모였네

교룡산 성 둘레에는 아침 구름이 피어나고  
오작교 다리가에는 저녁비가 내리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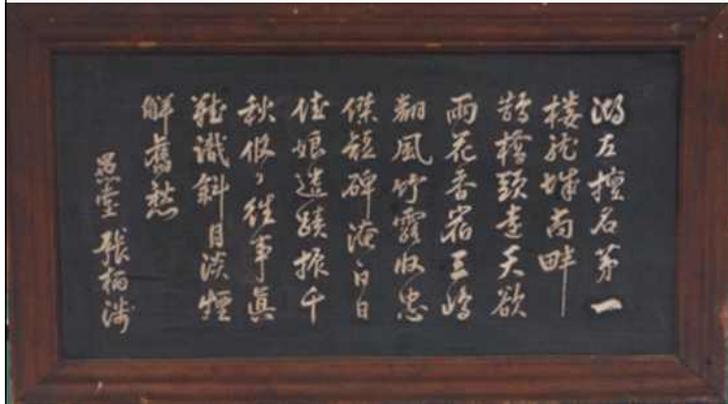
한 대(代)에 중수하니 새로운 모습으로  
되었고 삼신산은 여러해 봄 가을에도 늙지를  
않았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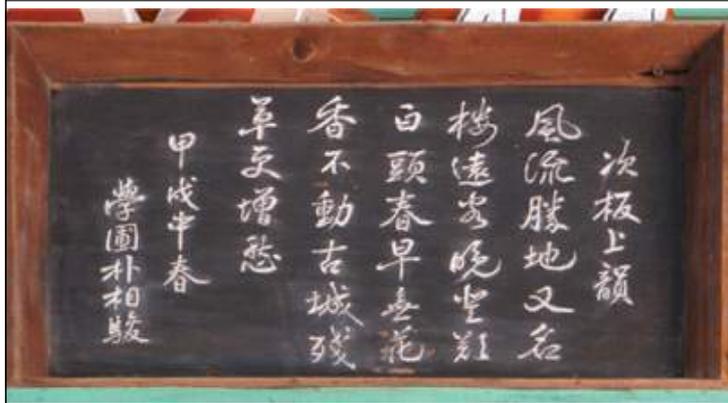
황희 정승이 남기신 업적을 도리켜 생각하니  
오백년이 지난 오늘에도 흠모를 하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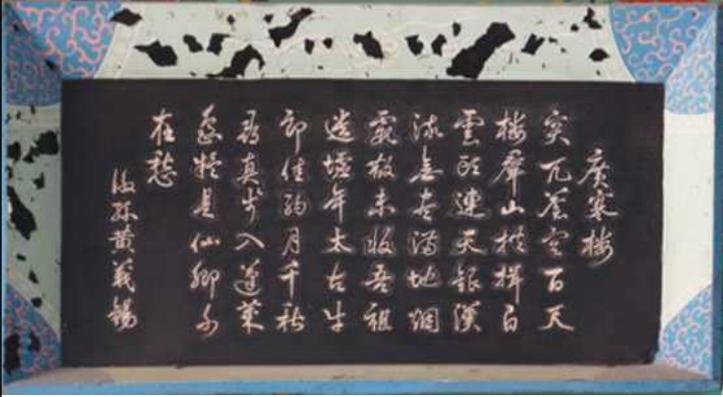
신미 3월 남강 박위용

편역사진	번역
	<p>해질 무렵에 호남 제일루에 오르니 아름다운          난간의 서기가 구름속에 솟았네          교통산에서 들려오는 단소 소리에 저녁 노을이          비쳐있고 선원사에서 울려오는 종소리에          밤비가 개는구나          전쟁 뒤 영령들의 광채는 아직도 남아있고          누각에 오르고 보니 임금의 영화는 또          이곳에서 느낄수 있구나</p>
<p style="text-align: center;"><b>원문</b></p> <p>暮倚湖南第一樓 朱欄縹緲出雲頭          蛟城短笛斜陽下 禪寺鳴鐘夜雨收          亂後靈光猶未火 登臨王粲又逢秋          蓬萊仙子如相見 天上何難寄我愁</p> <p style="text-align: right;">裕堂 鄭淳文</p>	<p>봉래산의 신선을 서로 보는 듯 하니 천상의 그          어디에도 나의 근심을 보내기 어렵네</p> <p style="text-align: right;">유당 정순문</p>

편역사진	번역
	<p>인간세상 밖에 있는 이 백옥루에 만리 길의          은하수가 오작교에 비추었네          하늘 바람이 찬 기운을 일구니 더운 구름은          사라지고 밝은 달 선명하게도 약비는 개었네          한 때에 재상이 머물렀던 이 명승지는 수 많은          세월속에 문물의 흥망이 몇 번이었던가          어찌하여 삼청(三淸)의 신선세계는 알지          못하고 대지에 떠도는 인생들은 번뇌하고          근심만 하고...</p>
<p style="text-align: center;"><b>원문</b></p> <p>別有人間白玉樓 銀河萬里鵲橋頭          天風噓冷炎雲退 琅月鮮明藥雨收          一代相公名勝址 百年文物廢興秋          如何不識三清界 大地浮生熱腦愁</p> <p style="text-align: right;">晚松 朴海廷 稿</p>	<p style="text-align: right;">만송 박해정</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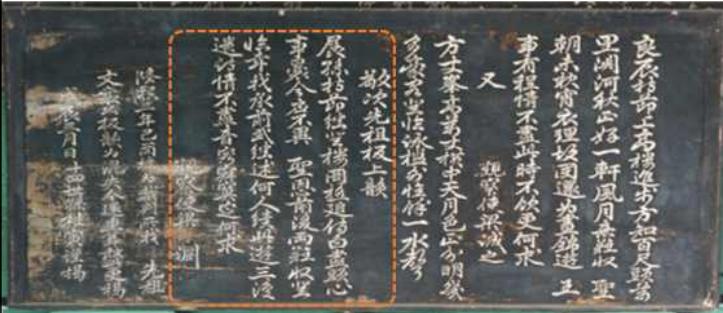
편액사진	번역
	<p>호남 좌도에 이름난 제일 누각이요 용성의 남녘에는 오작교라네</p> <p>먼 하늘에서 내린 비에 꽃은 향기를 머금고 삼신산에서 나뭇기는 바람에 대앞에는 이슬이 맺혔네</p> <p>충신과 호걸의 이름이 새겨진 비석에는 햇살이 비치고 어여쁜 춘향이 남긴 흔적은 천추에 떨치네</p> <p>아득한 지난 옛 일들은 참으로 헤아리기 어렵고 기우는 달빛과 얽은 구름만이 옛 수심을 지워주는구나</p> <p>우당 장병섭</p>
원문	
<p>湖左擅名第一樓 龍城南畔鵲橋頭 遠天欲雨花香宿 三島翻風竹露收 忠傑短碑淹白日 佳娘遺蹟振千秋 悠悠往事真難識 斜月淡烟解舊愁</p> <p>愚堂 張柄涉</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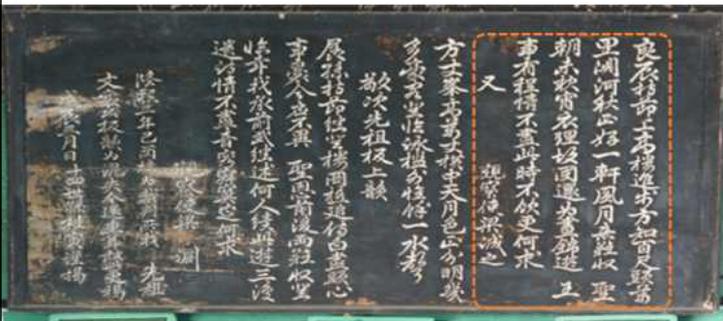
편액사진	번역
	<p>현판에 올린 글</p> <p>풍류가 넘치는 이 곳에 이름난 누각이 있어서 멀리에서 온 나그네가 만년에 오르고 보니 백발이 애달프구나</p> <p>이른 봄 미쳐 꽃이 피지 않아 향기가 없고 옛성터에 쇠잔한 풀만이 더욱 마음을 쓸쓸하게 하는구나</p> <p>갑술 봄 학포 박상준</p>
원문	
<p>次板上韻</p> <p>風流勝地又名樓 遠客晚登歎白頭 春草無花香不動 古城殘草更增愁</p> <p>甲戌 仲春 學圃 朴相駿</p>	

편액사진	번역
	<p style="text-align: center;"><b>광한루</b></p> <p>창공에 우뚝 솟은 이 백척의 누각을 흰 구름에      잠긴 여러 산들이 안아주고 있구나      하늘에 이어지는 은하수는 끝없이 흐르고 온      누리에 가득한 아지랑이는 아직도 서려있구나      내 조상의 자취인 이 터는 천년토록 이어질      것이요 견우와 직녀의 아름다운 언약도      달빛타고 이어질 것이네      경치 좋은 곳을 찾아 봉래섬에 다다르니      근심없는 신선 고을이 여기런가 하노라</p> <p style="text-align: right;">황의석</p>
<p style="text-align: center;"><b>원문</b></p> <p style="text-align: center;"><b>廣寒樓</b></p> <p>突兀蒼空百尺樓 群山拱揖白雲頭      連天銀漢流無盡 滿地烟霞散未收      吾祖遺墟年太古 牛卽佳約月千秋      尋真步入蓬萊島 疑是仙鄉不在愁</p> <p style="text-align: right;">後孫 黃義錫</p>	

편액사진	번역
	<p>광한루에 흐르는 물은 이 누각을 감아 들고      오월의 시원한 바람은 머리를 맑게 하네      천 봉우리의 빼어난 산들은 병풍을 펼친 듯      하고 백척이나 되는 높은 기둥은 속세의      어지러움을 잊게 하네      밤 깊은 방장산에 신선의 통소 소리 들려오고      요천강 흰 모래 위에 기러기 떼가 노는      가을이라네      난간 밖의 아름다운 경치는 하늘의 조화여서      돌아 갈 것도 잊고 모든 수심도 잊었네</p> <p style="text-align: right;">서기 19기년 신해 여름 우석 김상종</p>
<p style="text-align: center;"><b>원문</b></p> <p>廣寒流水激高樓 五月清涼似洗頭      山秀千峰屏帳立 棟長百尺世塵收      夜深方丈仙簫月 沙白蓼川雁適秋      檻外風光天外化 却忘歸思却忘愁</p> <p style="text-align: right;">西紀 1971年 辛亥 夏 友石 金相鐘</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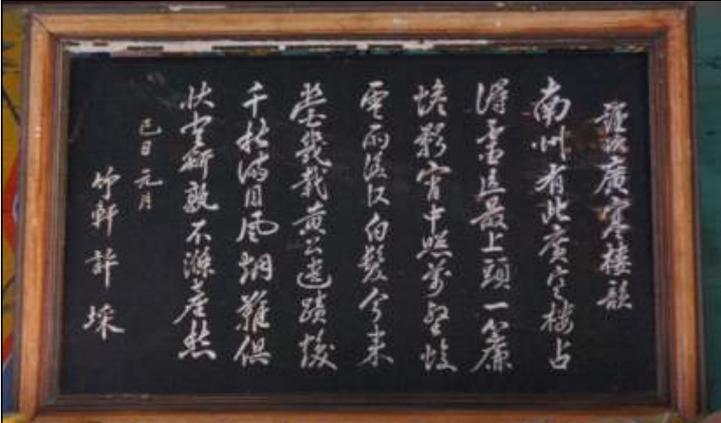
편액사진	번역
	<p>나귀를 타고 먼 길을 오고보니 정서가 한없이 깊고 홀연히 그대를 만나 기쁘게 만나절을 머물렀구나</p> <p>옛 부터 흥망을 거듭했던 이 대방 (남원) 고을에 한시절 봄의 경치가 이곳 광한루에 다하였구나</p> <p>떼배를 타지 않고도 은하수를 거닐었거늘 어찌 학을 타고 봉래섬에서 노닐 것인가</p> <p>이 경승지에 머무른 것도 한낱 꿈이었으니 날 밝은 내일 아침에 말 위에 올라 다시 한번 돌아보리라</p> <p>어사 오도일</p> <p>신해년에 이 누각이 재판소가 되어 모든 현판이 없어졌던바</p> <p>임신 3월 후손 홍영이가 현판하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원문</b></p>	
<p>長途羈緒劇悠悠 却喜逢君半日留 千古興亡帶方國 一春光景廣寒樓 銀河不待乘槎躡 蓬島何須駕鶴遊 勝地居然成夢境 明朝上馬重回頭</p> <p style="text-align: right;">御史 吳道一 前辛亥年中本樓 變成裁判所 一般揚板 轉爲廢物 壬申 春三月 日 後裔 洪泳 繼揚</p>	

편액사진	번역
	<p style="text-align: center;"><b>선조를 공경하여 현판에 올린 글</b></p> <p>나약한 후손이 지절 (持節) 을 받고 선조를 이어 이 누각에 오르고 보니 그 얼을 추모하고 슬퍼하나 망극하게도 백발이 되었구나</p> <p>마음으로 그리기는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고성상의 은총을 선조와 후손이 다 같이 입었으니 어찌 다 갚으리오</p> <p>다행히도 내가 이곳에 올라 선대의 무공을 이었던만 그 누구가 다시 이러한 자취를 이어 갈 것인가</p> <p>선조가 남긴 시구문을 세번 반복하여 읽어보니 그 정감은 끝이 없고 음성과 용모가 적막하니 진정 어디에서 구할거나</p> <p style="text-align: right;">관찰사 양연</p>
<p style="text-align: center;"><b>원문</b></p>	
<p>敬次先祖板上韻</p> <p>屏孫持節繼登樓 登臨幸我承前武 罔極追傷白盡頭 繼述何人續此遊 心事曩今應不異 三復遺詩情不盡 聖恩前後兩難收 音容寂寞定何求</p> <p style="text-align: right;">觀察使 梁淵</p>	

편역사진	번역
	<p>좋은 계절에 관찰사의 지 절 (持節)을 받고 이 높은 누각에 올라 거닐어 보고서야 비로서 백척 누각임을 알았네</p> <p>이 좋은 가을에 은하수는 만리 에 뻗혀있고 이 동헌에서 풍월을 읊조리니 감정은 다 표현할 길이 없구나</p> <p>조정에서 밤에 옷을 입은채 성상을 모시는 은혜를 갚지 못하고 도리어 고향에 돌아와 낮에 비단 옷을 입고 노니는구나</p> <p>나라에 할일은 일정이 있어서 감정을 다 할 수 없으니 이때에 마셔 취하지 않고 다시 어느때 마실것인가</p> <p style="text-align: right;">관찰사 양성지</p>
원문	
<p>良辰持節上高樓 聖朝未報宵衣理          進步方知百尺頭 故國還爲畫錦遊          萬里關河秋正好 王事有程情不盡          一軒風月意難收 此時不飲更何求</p> <p style="text-align: right;">觀察使 梁誠之</p>	

편역사진	번역
	<p>광한루에 올라 선조의 옛터를 느끼면서          관광 명승지는 남녘 고을이라 하더니 열두간 아름다운 난간이 하늘에 달았구나          연기가 자욱한 봉래섬에는 꾀꼬리가 울고 물이 가득한 오작교에는 잉어떼가 노니는구나          떼배를 타고 머나먼 은하 만리를 건너는 밤 방장산 한 모퉁이에는 가을 달이 밝았네          선조께서 남긴 옛터는 어디에 있는고 하니 저자거리 사람들이 손가락으로 광한루를 일러 주더라</p> <p style="text-align: right;">석계 황의성</p>
원문	
<p>登廣寒樓感先祖遺墟</p> <p>觀光勝地說南洲 十二朱欄天際浮          蓬島烟沈黃鳥啼 鵲橋水滿鯉魚遊          銀河萬里乘槎夜 方丈一邊明月秋          先祖遺墟何處是 市人指點廣寒樓</p> <p style="text-align: right;">石溪 黃義成 稿</p>	

편액사진



번역

삼가 광한루 글을 따라 읊음

남녘 고을에 이 광한루가 있으니 세상에서  
 으뜸가는 신령스런 곳이라 점칠만 하네  
 고요한 이밤에 대발사이로 두꺼비 (달)  
 그림자는 비쳐오고 구름 낀 교룡산 골짜기는  
 비가 온 후에 걸렸구나  
 백발이 되어서야 이제 와 보니 그 몇 해였던고  
 황희 정승께서 남긴 업적은 천추에 빛나네  
 눈에 가득한 바람과 구름은 모두 다 표현키  
 어려우니 그 누군들 이 곳에 오르면 속세의  
 근심이 사라지지 않을가

기축 정월 죽헌 허채

원문

謹次 廣寒樓韻

南州有此廣寒樓 占得靈區最上頭  
 一簾蟾影宵中照 萬壑蛟雲雨後收  
 白髮今來營幾載 黃公遺蹟煥千秋  
 滿目風烟難俱狀 登斯孰不滌塵愁

己丑 元月 竹軒 許塚

편액사진



번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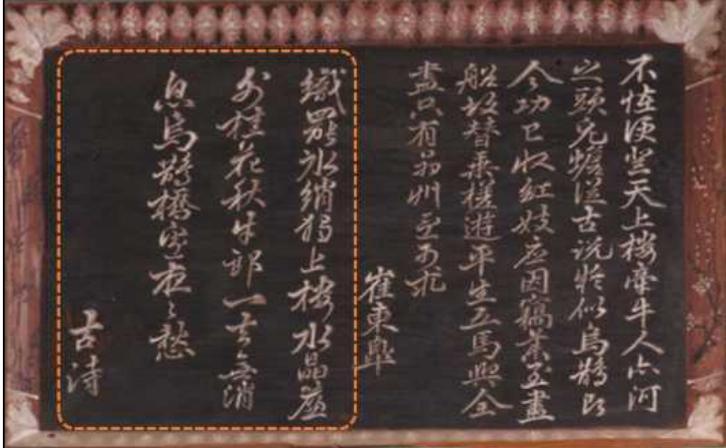
불현듯 천상의 누각에 오르니 견우성도 또한  
 은하수에서 서성이네  
 토끼 (달) 와 거북이 (달) 는 옛 부터의  
 전설인가 싶으나 오작교 주변에서 지금의 그  
 흔적을 이루었네  
 젊은 기생은 약을 캐려고 이곳에 와서  
 그림속의 배로 떼배를 대신하여 타고 노닐었네  
 오랫동안 다섯마리의 말을 타고 흥에  
 젖었으나 이처럼 아름다운 이 고을이 있고  
 보니 다시 어디에서 구할 것인가

최동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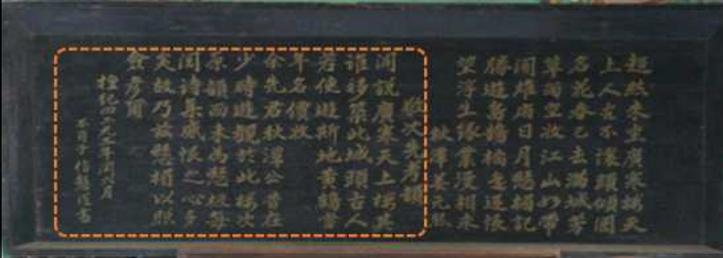
원문

不怪便登天上樓 牽牛人亦河之頭  
 兔蟾從古說疑似 烏鵲即今功已收  
 紅妓應因竊藥至 畫船故替乘槎遊  
 平生五馬興全盡 只有茲州還可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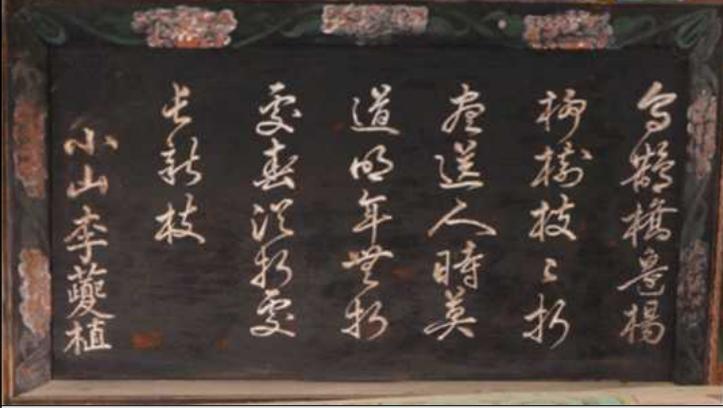
崔東皐

편액사진	번역
	<p>직녀가 비단을 모두 짜고 난 후에 누각에 오르니 아름다운 대밭 밖에는 가을 계수나무 꽃이 피었구나</p> <p>견우 낭군은 한번 간 후에 소식 이 없으니 오작교 가에서 밤마다 수심에 잠겼네</p>
<p>원문</p>	
<p>織罷水綃獨上樓 水晶簾外桂花秋 牛郎一去無消息 烏鵲橋邊夜夜愁</p> <p>古詩</p>	<p>옛 사람의 글</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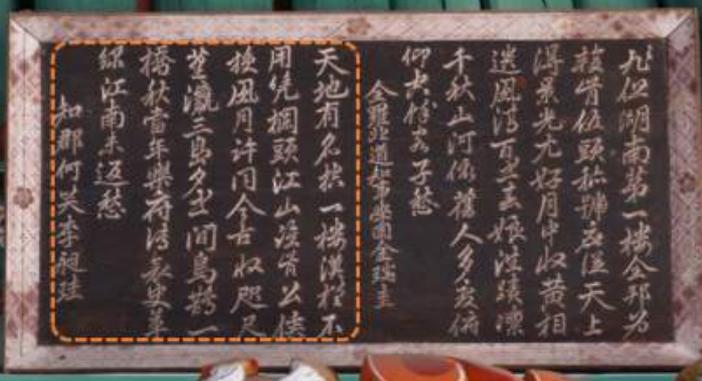
편액사진	번역
	<p>초연한 마음에서 이 광한루에 오르고 보니 이곳이 천상인가 인간세상인가 분별할 수가 없구나</p> <p>온 나라에 봄을 자랑했던 아름다운 꽃은 이미 시들어 버리고 성안에 가득한 풀만이 비에 젖어 새롭구나</p> <p>아름다운 강산은 웅장한 이 고을을 띠처럼 둘러있고 문 언저리에 걸려있는 해와 달은 이 명승지를 못있게 하네</p> <p>오작교 가에서 서글픈 마음으로 돌이켜 보니 떠도는 인생이 잡다한 인연만을 부질없이 맺는구나</p>
<p>원문</p>	
<p>超然來坐廣寒樓 天上人間不讓頭 傾國名花春已去 滿城芳草雨空收 江山如帶開雄府 日月懸楣記勝遊 烏鵲橋邊還悵望 浮生緣業漫相求</p> <p>秋潭 婁元熊</p>	<p>추담 강원희</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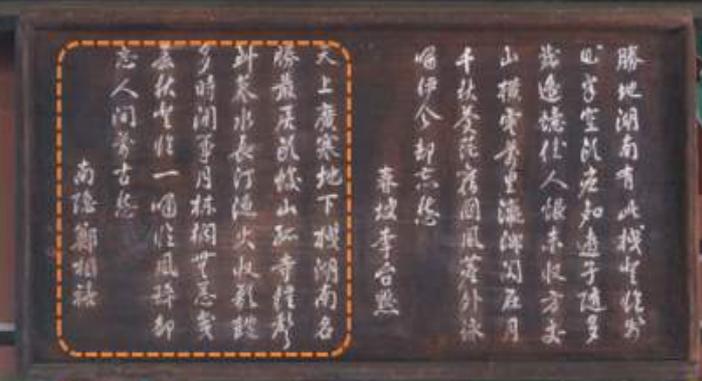
편역사진	번역
	<p style="text-align: center;"><b>하늘 섬긴 선고의 글</b></p> <p>광한루는 천상의 누각이라 들었거늘 그 누구가 이 성에 다가 옮겨 마련하였는고 옛 사람들이 만약 이 연못가에서 노닐었다면 황학루 (중국) 의 명성인들 어찌 이곳에다 비길것인가</p> <p>나의 선고 (아버지 ) 이신 추담공께서 옛 소년시절에 이 누각에서 노시다가 위 시구문을 지었으나 현판이 되지 못하였으니 매번 그 시문집을 볼때마다 한스러움이 많았다 그래서 이제 현판을 걸어서 여러 선비들이 보도록 하였다</p> <p style="text-align: right;">단기 4293년 윤유월 불초자 신은 삼가 씀</p>
<p style="text-align: center;"><b>원문</b></p> <p style="text-align: center;"><b>敬天 先考 韻</b></p> <p style="text-align: center;">聞說廣寒天上樓 其誰移築此城頭 古人若使遊斯地 黃鶴當年名價收</p> <p>余先君 秋潭公 昔在少時遊觀於此樓 次原韻而未爲懸板 每閱詩集感恨之心多矣 故 乃茲懸楹 以照僉彦爾</p> <p style="text-align: center;"><small>權紀 4293年 閏六月 不肖子 愷慙 謹書</small></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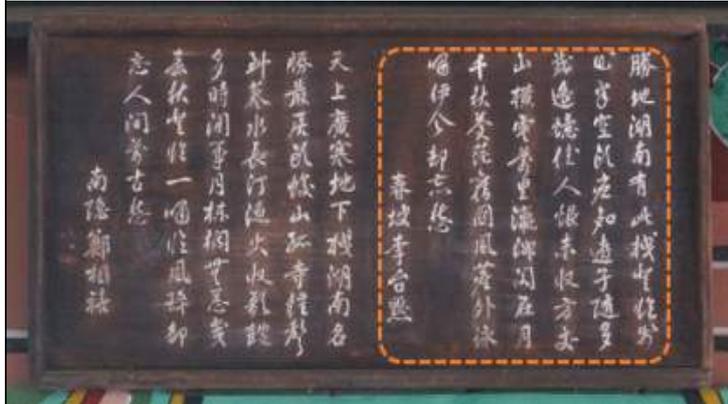
편역사진	번역
	<p>호남 명승지인 이 광한루에 한번 오르고보니 속된 나그네의 머리가 상쾌하여 졌네 순자강에 흐르는 물소리는 귓전에 들려오고 교룡산의 수려한 경치는 대발사이로 스며드네 옛 사람들이 읊었던 시제는 오늘까지 남아있고 신선세계의 고운 아지랑이는 몇 해나 지냈던고</p> <p>만일 최옹 (시인 묵객) 이 일찌기 이곳에 들렀다면 어찌 황학루 (중국의 이름난 누각) 를 그리워 하는 한가로운 수심에 빠질 것인가</p> <p style="text-align: right;">기축 봄 춘담 허홍석</p>
<p style="text-align: center;"><b>원문</b></p> <p style="text-align: center;"><b>謹次 廣寒樓 韻</b></p> <p>湖南名勝廣寒樓 一上如醫俗客頭 鶴水波聲來耳域 蛟山秀色八簾收 古人題詠留今日 仙界烟霞度幾秋 若使崔翁曾到此 豈於黃鶴惹閒愁</p> <p style="text-align: center;"><small>己丑春 春潭 許洪錫</small></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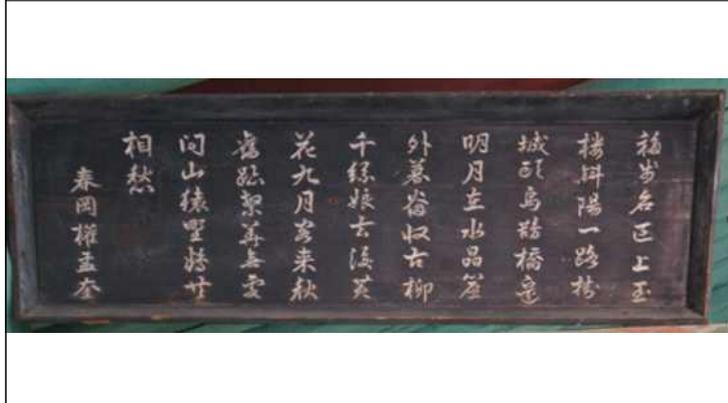
편액사진	번역
	<p>오작교 가에 수양버들은 사람을 전송할때 꺾어 주다보니 남은 것이 없네 명년에 꺾어 줄 가지가 없다고 말하지 마오 봄이 오면 꺾인 곳에서 다시 새로운 가지가 자랄 것이니</p> <p>소산 이기식</p>
<p>원문</p> <p>烏鵲橋邊楊柳枝 枝枝折盡送人時 莫道明年無折處 春從折處長新枝</p> <p>小山 李夔植</p>	

편액사진	번역
	<p>호남에서 제일가는 누각일 뿐만 아니라 온 나라에 비교해 보아도 모두 수궁할 것일세 천상에서 부터 오는 누각이라 불렀으니 아름다운 경치는 달빛속에 서려있네 황희 정승의 유품은 백세까지 전해지고 춘향낭자의 지난 자취는 천추에 이어지네 산천은 예와 같건만 인간사는 변화가 많고 천지를 살펴보니 부질없는 나그네 근심만 더 하는구나</p> <p>전라북도지사 학포 김서규</p>
<p>원문</p> <p>非但湖南第一樓 全邦爲較肯低頭 稱號應從天上得 景光尤好月中收 黃相遺風清百世 春娘往蹟凜千秋 山河依舊人多變 俯仰空餘客子愁</p> <p>全羅北道知事 學圃 金錫圭</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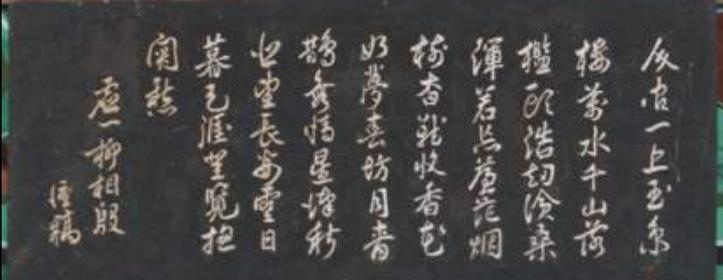
편역사진	번역
	<p>천지간에 이름난 오직 이 한 누각은 은하수의 노를 젓지 않고 난간에 기대었네</p> <p>이 아름다운 강산의 누가 왕후장상의 높은 벼슬과 바꾸리요 풍월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한가지로세</p> <p>봉래섬과 영주각의 삼신산은 지척에 있고 인간세상의 오작교는 은하수에 다리 놓였네</p> <p>그때 그 당시의 악부 (노래 하는곳) 에서 전해진 애달픈 역사가 있어 풀잎 푸른 이 강남땅에 수심만 도리켜지네</p> <p style="text-align: right;">지군하소 이창규</p>
<p style="text-align: center;">원문</p>	
<p>天地有名控一樓 漢槎不用凭欄頭 江山誰肯公侯換 風月許同今古收 咫尺蓬瀛三島夕 世間烏鵲一橋秋 當年樂府傳哀史 草綠江南未返愁</p> <p style="text-align: right;">知郡何笑 李昶圭</p>	

편역사진	번역
	<p>천상에는 광한전이요 지상에는 이 누각이니 호남 골 명승 중에서 가장 으뜸이라네</p> <p>교룡산 외로운 산사에서는 종소리 들려오고 요천수의 긴 강에서는 어부들의 불빛이 비쳐오네</p> <p>노래와 북소리로 한가한 세월을 보내고 무심코 난간에 의지하여 노닐기를 멎해였던고</p> <p>이곳에 올라 휘파람을 불며 시원한 바람에 도취되니 인간의 모든 근심을 망각하였네</p> <p style="text-align: right;">남은 정상희</p>
<p style="text-align: center;">원문</p>	
<p>天上廣寒地下樓 湖南名勝最居頭 蛟山孤寺鍾聲到 蓼水長汀漁火收 歌鼓多時閒歲月 棟欄無恙幾春秋 登臨一嘯臨風醉 却忘人間萬古愁</p> <p style="text-align: right;">南隱 鄭相績</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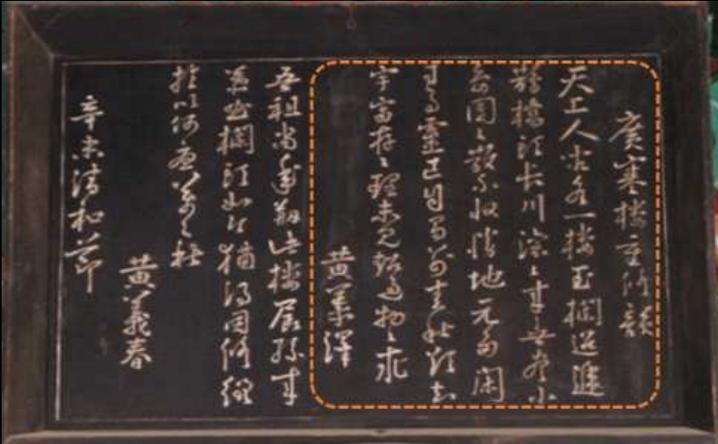
편역사진	번역
	<p>이름난 호남골에 이 누각이 있으니 오르고  보니 마치 허공을 거니는것 같구나  노니는 나그네는 때에 따라 감회가 깊어져서  멀리 어여쁜 이를 생각하니 한이 맺히는구나  방장산에 가로놓인 구름은 만리를 뺏혔고  영주각에 비친 밝은달은 천추토록 이어지네  넓고 아득히 자리한 이곳은 속세를 벗어  났으니 글을 읊고 휘파람 불며 오늘의 수심을  잊어버렸네</p> <p>춘파 이태묵</p>
<p style="text-align: center;"><b>원문</b></p> <p>勝地湖南有此樓 登臨步出半空頭  應知遊子隨多感 遙憶佳人恨未收  方丈山橫雲萬里 瀛洲閣在月千秋  蒼茫舊國風塵外 詠嘯伊今却忘愁</p> <p style="text-align: right;">春坡 李台默</p>	

편역사진	번역
	<p>명승지를 찾아 이 아름다운 누각에 오르니  한가닥 저녁노을이 성 머리에 걸렸네  오작교 위에는 밝은 달이 떠오르고 수정처럼  고운 대밭사이로 저녁 연기가 서리네  춘향낭자 떠난후에 천가닥의 수양버들만  남아있고 노란 국화가 만발한 구월에 나그네는  찾아왔다네  깨끗하고 선한 옛 자취는 물어 볼 곳이 없으니  산에 원숭이와 들에 학 만이 서로 함께  어울리는구나</p> <p>춘강 권맹규</p>
<p style="text-align: center;"><b>원문</b></p> <p>移步名區上玉樓 斜陽一路掛城頭  烏鵲橋邊明月在 水晶簾外暮烟收  古柳千絲娘去後 黃花九月客來秋  舊跡絮善無處問 山猿野鶴共相愁</p> <p style="text-align: right;">春岡 權孟圭</p>	

편역사진	번역
	<p style="text-align: center;"><b>광한루</b></p> <p>일찌기 천상에 누각이 있다고 들었는데 아마도 하늘에서 바람이 불어 이곳에 내려왔는가 춘향낭자 떠난후에 그 낡은 대나무에 머물러 있고 영물스런 까치가 올때는 가을비가 내렸네 황혼에 맺은 가락은 아득한 꿈이요 이별하던 그 곳에서의 뜨거운 눈물은 견을 수가 없네 한때 맑고 향기롭던 그 마음은 지금 어디에 서려있는고 완전히 전 모습을 그려보니 애달픔을 견딜 수가 없구나</p> <p style="text-align: center;">신해년 건우직녀가 서로 만나는 날 이가원 글짓고 씀</p>
<b>원문</b>	
<p style="text-align: center;"><b>廣寒樓</b></p> <p>玉界曾聞有此樓 天風吹墮黏橋頭 春娘去後魂留竹 靈鶴來時雨沸秋 佳約黃昏渾易謎 演場紅淚踏難收 昌明香學今誰倚 宛若前身不耐愁</p> <p style="text-align: center;"><small>辛亥 觀牛女相會之夕 李家源 作并書</small></p>	

편역사진	번역
	<p>인간이 다시 이 옥경의 누각에 오르니 모든 물줄기와 산자락이 이 난간으로 모였는 듯... 번뇌 많은 이 세상사를 모두 잊은 것 같고 넓고 아득한 안개만이 나무에 서려 걸히지 않는구나</p> <p>봄 언덕에 피는 향기로운 꽃과 달빛은 한때의 꿈과 같고 무정한 푸른 까치만이 은하수 가을밤에 노니네</p> <p>북쪽으로 장안을 바라보니 날은 저물어지고 하늘의 꿈 같은 이 곳에 오르고 보니 맺혔던 모든 마음이 풀리는구나</p> <p style="text-align: center;">허일 유상은 지음</p>
<b>원문</b>	
<p>人間一上玉京樓 萬水千山落檻頭 浩劫滄桑渾若忘 蒼茫烟樹杳難收 香花如夢春坊月 青鵲無情星漢秋 北望長安靈日暮 天涯登覽總關愁</p> <p style="text-align: center;"><small>虛一 柳相殷 謹構</small></p>	

편액사진



원문

廣寒樓重修韻

天上人間各一樓 玉欄迢遞鵲橋頭  
長川滾滾來無盡 小島團團散不收  
勝地元多閑日月 靈區自有別春秋  
欲知宇宙存存理 未見超過物物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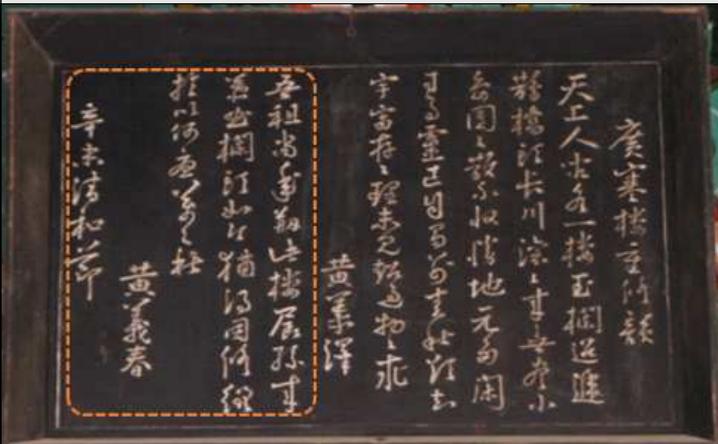
黃義澤

번역

하늘과 인간세상에 누각이 각각 하나씩 있으니  
아름다운 난간이 멀리 오작교까지 이어지네  
긴 냇물은 끝없이 흘러가고  
작은섬은 동그렇게 여기저기 흩어져있네  
명승지인 이곳에는 한가롭게 해와 달이 비치고  
신령스런 이곳에는 유별난 봄과 가을이 있구나  
우주가 존재하는 이치를 알고자 하거던  
세상에 널려있는 만물에서 찾아 볼 수 밖에  
없느니라

황의택

편액사진



원문

吾祖當年初此樓  
孱孫來慕曲欄頭  
如今猶得因修繕  
於以何憂萬萬秋

黃義春

辛未 清和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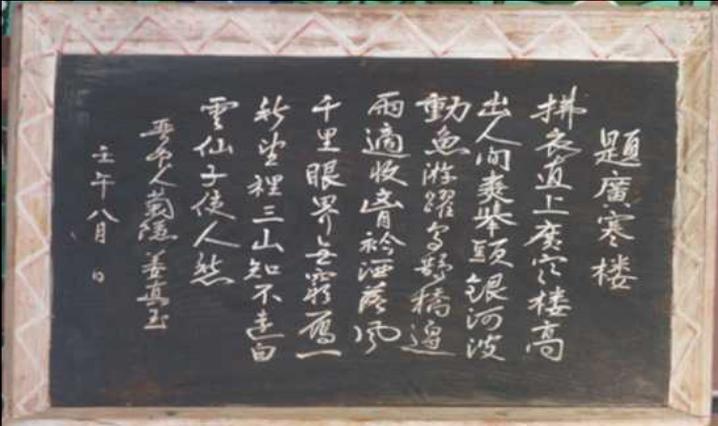
번역

우리 선조께서 생전에 창건한 이 누각에 와서  
못난 후손이 이곳 난간 모서리에서 선조를  
사모하네  
이제와서 새로이 단장을 하고 보니  
어찌 앞으로 몇 만년이 되들 걱정하리오

황의춘

신미 청화절

편액사진



원문

題廣寒樓

拂衣直上廣寒樓 高出人間爽舉頭  
銀河波動魚遊躍 烏鵲橋邊雨適收  
胸襟灑落風千里 眼界無窮雁一秋  
望裡三山知不遠 白雲仙子使人愁

晉州人 陶隱 曹真玉  
壬午 八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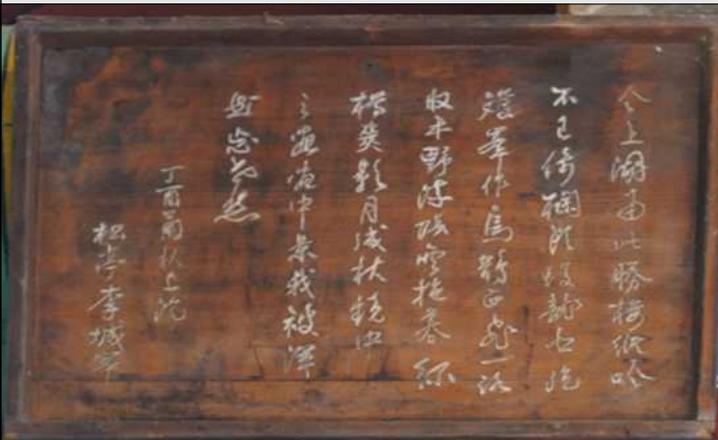
번역

광한루

옷자락 저으며 바로 광한루에 오르니  
인간세계를 벗어난 것 같아서 마음이  
상쾌하구나  
은하수 처럼 맑은 물결에 물고기가 뛰어 놀고  
오작교가에는 때마침 비가 개었구나  
멀리서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니 가슴이 트이고  
한 때의 가을 기러기는 멀리서 눈앞에  
펼쳐지네  
삼신산을 바라보니 그다지 멀지않음을  
느꼈으니 흰 구름속의 신선은 사람으로 하여금  
시름에 들게하네

임오 8월 진주인 국은 강진옥

편액사진



원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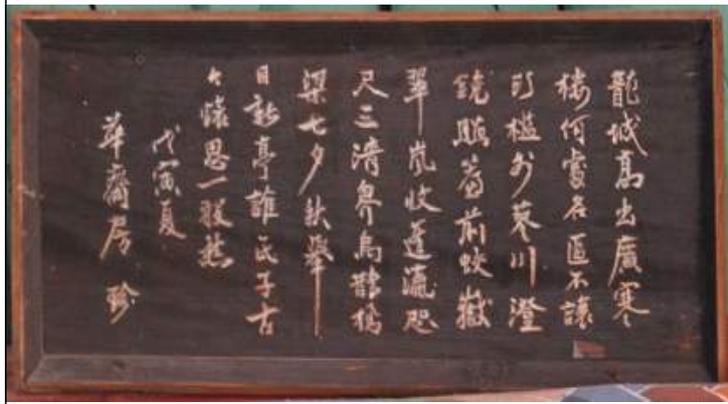
今上湖南此勝樓 詩吟不已倚欄頭  
蛟龍北屹雙峰作 烏鵲西飛一路收  
禾野浮陰雲把暮 綠樽爽影月成秋  
鏡中之畫畫中景 我被渾然忘世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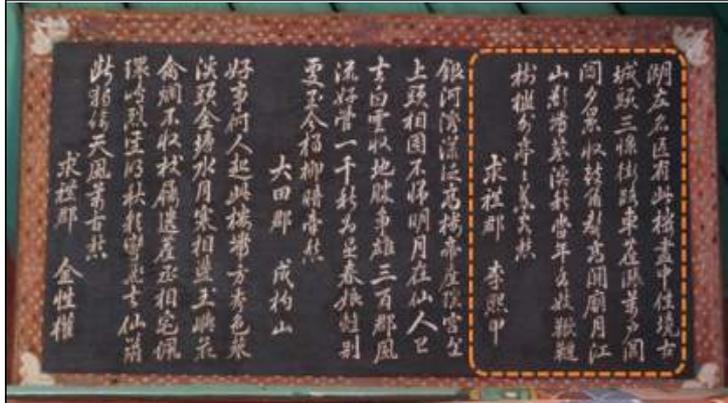
丁酉 菊秋 上澗  
松亭 李城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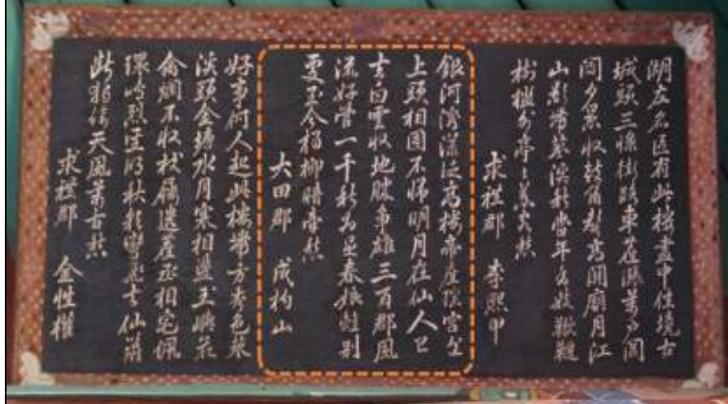
번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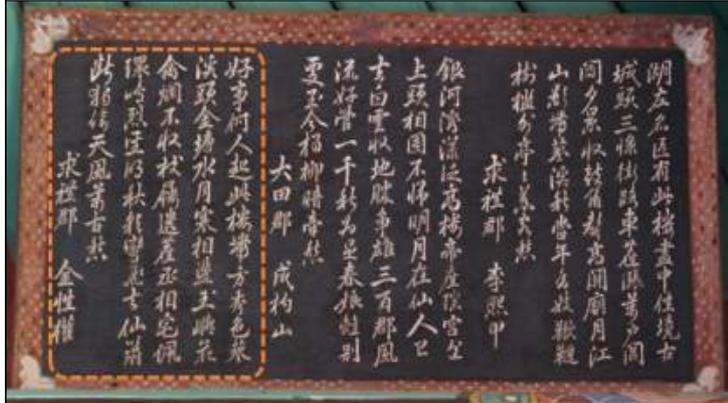
이제 호남의 명승지인 이 누각에 오르니  
난간에 의지하며 읊조리던 시문을 그치기  
어렵구나  
북쪽으로는 교룡산의 두 봉우리가 솟아있고  
가마귀와 까치는 서쪽을 향하여 한길로  
나는구나  
들판에 가득한 벼에는 저녁구름 휩쓸었고 맑고  
푸른 술동이에는 가을 달 그림자가 져있네  
거울속의 그림과 그림속의 경치와 같은 허무한  
세간사에 나는 모두 다 세상의 근심을  
잊었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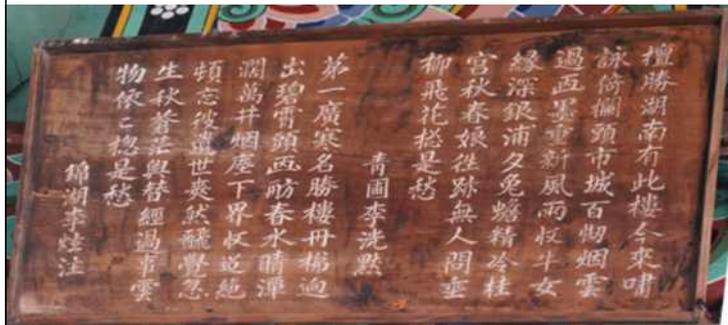
정유 늦가을 상완 송정 이성재

편액사진	번역
	<p>용성 고을에 이 광한루가 높이 솟았으니 이름난 어떤 곳과도 비길 수가 없구나 난간 주변의 요천수는 거울처럼 맑고 대밭사이로 비쳐오는 교룡산은 푸르기만 하구나</p> <p>삼청 (三淸) 세계에 있다는 봉래섬과 영주섬은 지척에 있고 칠석에 비치는 가을달은 오작교 위에 떠있네</p> <p>눈을 들어 누각을 바라보니 노니는 이는 그 누구인가 예나 지금이나 회포를 더듬어 보니 수심은 한가지로구나</p> <p>무인 여름 화재 방진</p>
원문	
<p>龍城高出廣寒樓 何處名區不讓頭 檻外蓼川澄鏡照 簾前蛟嶽翠嵐收 蓬瀛咫尺三清界 烏鵲橋梁七夕秋 舉目新亭誰氏子 古今懷思一般愁</p> <p>戊寅夏 陳貞周 珍</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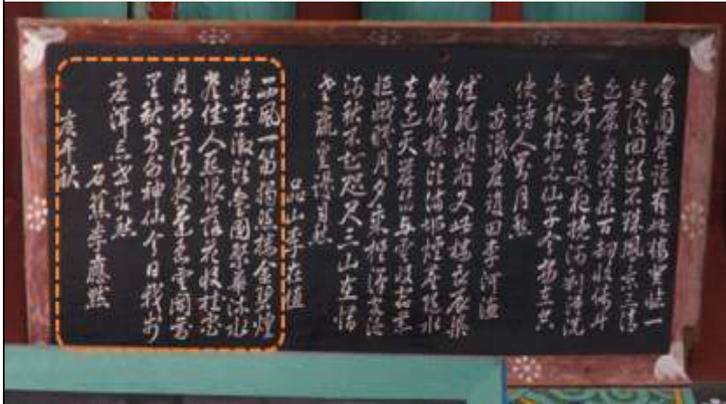
편액사진	번역
	<p>호남 좌도로 이름난 곳에 이 누각이 있으니 옛 성터의 아름다운 경계는 한 폭의 그림이라네 세 갈래의 길 위에는 수레의 먼지가 가득하고 수많은 여염집에는 석양빛이 아름답구나</p> <p>북치는 소리는 관왕묘 위의 높은 달과 어울리고 강산의 그림자는 맑은 요천수에 비치는구나</p> <p>당시에 이름난 춘향이 그네 뛰던 나무는 난간밖에 우뚝 솟아 나그네의 향수를 자아 내는구나</p> <p>구례군 이희갑</p>
원문	
<p>湖左名區有此樓 畫中佳境古城頭 三條街路車塵漲 萬戶閭閻夕景收 鼓角聲高關廟月 江山影帶蓼溪秋 當年名妓鞦韆樹 檻外亭亭惹客愁</p> <p>求禮郡 李熙甲</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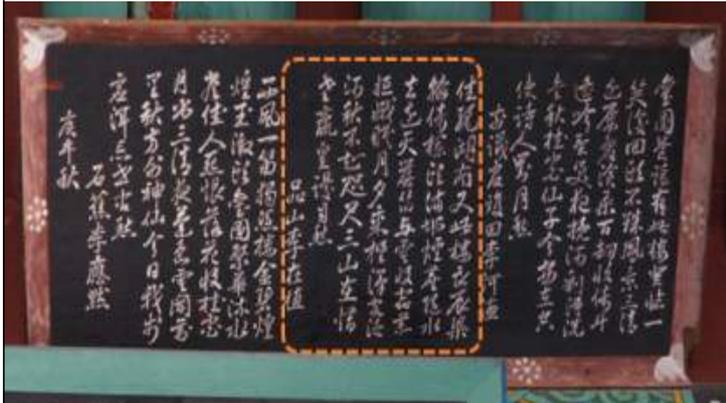
편액사진	번역
	<p>은하수는 넘쳐흘러 높은 누각위에 떠있고          옥황상제가 머무는 아름다운 궁전은 머리위에          있는듯 하구나</p> <p>황희 정승은 돌아오지 않으나 밝은 달은          여전하고 신선은 이미 떠났건만 흰구름만          떠있네</p> <p>이 곳 명승지는 여러 고을 중에서 으뜸이요          풍류를 즐기는 관현악 소리는 천추토록          이어지네</p> <p>춘향낭자가 이별했던 이 곳에는 아직도          수양버들만 남아 암울하게 수심만 자아내네</p> <p style="text-align: right;">대전군 성군산</p>
원문	
<p>銀河溶漾泛高樓 帝座瑤宮近上頭          相國不歸明月在 仙人已去白雲收          地勝爭雄三百郡 風流好管一千秋          爲是春娘離別處 至今楊柳暗牽愁</p> <p style="text-align: right;">大田郡 成杓山</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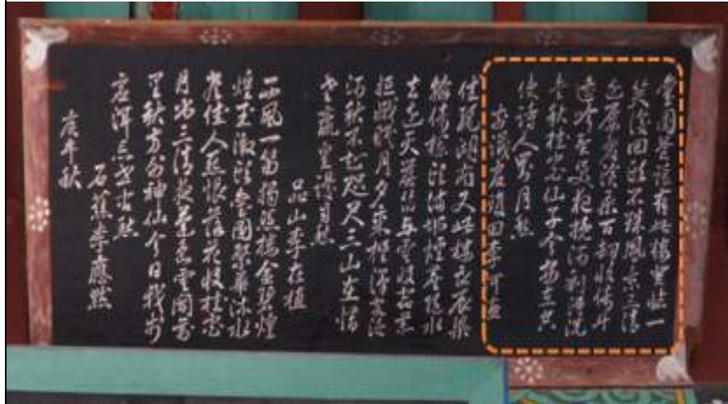
편액사진	번역
	<p>일을 좋아하는 그 누구가 이 누각을 세웠는고          대방 고을에 빠어난 빛은 요천강에 있었네          아름다운 연못에 달이 비치니 찬기운이 서리고          아름다운 섬에는 향기로운 꽃과 새들이          어울리는구나</p> <p>승상댁에는 많은 나그네의 발자욱이 끊이지          않고 열녀가 끼고 있는 옥반지는 가을빛에          영롱하구나</p> <p>아름다운 난조 (상상의 새) 는 날아가고          신선의 통소 소리가 그쳤으니 허공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의지하여 하염없이 수심에          잠겼네</p> <p style="text-align: right;">구례군 김성권</p>
원문	
<p>好事何人起此樓 帶方秀色蓼溪頭          金塘水月寒相盪 玉嶼花禽爛不收          杖屨遺塵丞相宅 佩環鳴烈聖明秋          彩鸞飛去仙簫斷 獨倚天風萬古愁</p> <p style="text-align: right;">求禮郡 金性權</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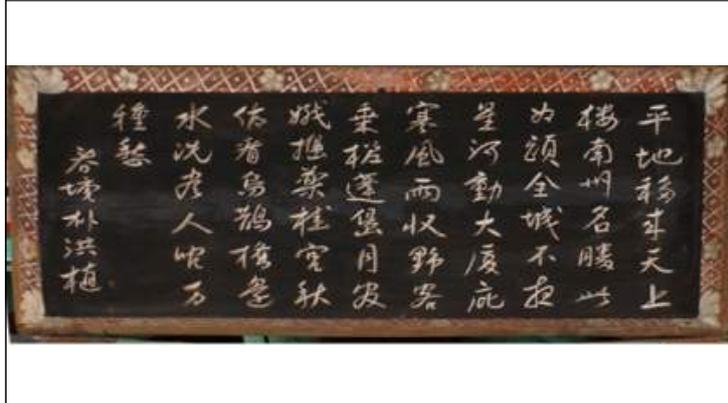
편역사진	번역
	<p>제일 명승지인 이 곳 광한루는 층계의 사다리로 멀리 푸른 하늘까지 닿았구나</p> <p>맑고 넓은 봄 연못에는 그림배가 떠있고 여러 집에서 피어오른 연기는 땅위에 깔려있네</p> <p>저 속세의 잡다함을 멀리 보내 버리고 한순간 잊고보니 도리어 홀연히 가을의 상쾌함을 느끼게 하네</p> <p>아득한 옛부터 흥하고 망하는 지나간 과거의 일들을 떠도는 구름떼와 사물만이 모든 근심을 안고 있구나</p> <p>금호 이현주</p>
<p style="text-align: center;">원문</p>	
<p>第一廣寒名勝樓 丹梯迥出碧霄頭 畫舫春水晴潭潤 萬井煙塵下界收 迢絕頓忘彼遺世 爽然翻覺忽生秋 蒼茫興替經過事 雲物依依摠是愁</p> <p style="text-align: right;">錦湖 李炫注</p>	

편역사진	번역
	<p>뛰어난 경승지인 호남에 이 누각이 있으니 이제와서 난간에 기대어 휘파람 불며 글을 읊었네</p> <p>오랜동안 이 곳 성안에는 항시 구름 안개가 서려있고 그림 그리고 묵화치니 비바람도 다시 새로워 지는구나</p> <p>견우와 직녀는 깊은 인연으로 칠석에 은하수에서 만나고 옥토끼와 금두꺼비 (달) 의 달빛은 월궁에서 비쳐 오는구나</p> <p>춘향낭자의 지난 자취는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수양버들과 흠날이는 꽃만이 모든 수심을 감싸고 있구나</p> <p>청포 이광목</p>
<p style="text-align: center;">원문</p>	
<p>擅勝湖南有此樓 今來嘯詠倚欄頭 市城百恟烟雲過 畫墨重新風雨收 牛女緣深銀浦夕 兔蟾精冷桂宮秋 春娘往跡無人間 垂柳飛花摠是愁</p> <p style="text-align: right;">靑園 李洸默</p>	

편역사진	번역
	<p>가을 바람에 홀로 누각에 의지하여 피리를 부니 찬란한 푸른 빛은 구슬처럼 맑구나 옛 고을의 변화했던 자취는 물 같이 흘러갔고 정들었던 이의 맏한 한은 꽃처럼 떨어졌네 월궁에서 뜨는 달은 삼청 (우주) 세계를 비치고 봉래섬에 구름이 걷히니 만리가 가을색이로구나</p> <p>오늘의 나는 세상 밖의 신선이 된 듯 허공을 걸으며 세간의 수심을 모두 다 잊었네</p> <p style="text-align: right;">경오 가을 석초 이응묵</p>
원문	
<p>西風一笛獨憑樓 金碧煌煌玉淑頭 舊國繁華流水盡 佳人怨恨落花收 桂宮月出三清夜 蓬島雲開萬里秋 方外神仙今日我 步虛潭忘世間愁</p> <p style="text-align: right;">石熊 李應默 庚午 秋</p>	

편역사진	번역
	<p>아름다운 호남고을에 또 이 누각이 있으니 좋은 시절에 보잘 것 없는 선비가 난간에 의지 하였네</p> <p>땅에 가득 깔려있는 연기는 물을 따라 흐르고 하늘에 가까운 대밭은 구름속에 어울렸네 약을 캐로운 월궁 향아는 달밤에 즐기고 있고 떼배를 타는 나그네는 은하수를 건너오네 삼신산이 지척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애석하게도 진시황제는 부질없이 근심만 하였네</p> <p style="text-align: right;">품산 이재식</p>
원문	
<p>佳麗湖南又此樓 良辰染翰倚欄頭 滿地烟塵隨水去 近天簾箔與雲收 竊藥姮娥眠月夕 乘槎漢客泛河秋 不知咫尺三山在 惜老瀛皇謾自愁</p> <p style="text-align: right;">品山 李在植</p>	

편역사진	번역
	<p>아득히 먼 옛 고을에 이 누각이 있으니 올라가서 웃음 지으며 다시 되돌아 보네 이 곳의 풍경은 하늘의 삼청(우주) 세계와 다름이 없고 백겁의 오랜 세월동안 강산만 수없이 변하였구나</p> <p>달밤에 의지하여 읊조리며 아름다운 밤 풍경을 바라보니 은하수의 맑은 빛은 시원한 가을을 느끼게 하네</p> <p>월궁에서 노니는 신선은 지금 어디에 있는고 부질없이 시 인으로 하여금 달을 보고 수심에 잠기게 하네</p> <p>전 의관 쌍전 이하덕</p>
원문	
<p>舊國蒼茫有此樓 登臨一笑復回頭 不殊風景三清近 屢變滄桑百劫收 倚斗遙吟望美夜 挽河刺得洗金秋 桂宮仙子今安在 空使詩人對月愁</p> <p>前議官 雙田 李河德</p>	

편역사진	번역
	<p>천상의 누각을 이 곳 평지에 옮겼으니 남녘고을 명승지 중에서 이 곳이 으뜸이라네 온 고을에 밝은 은하수는 불야성을 이루고 이 큰집은 차가운 비바람에 바람막이가 되었구나 떠도는 나그네가 달밤에 떼배를 타고 봉래섬을 건너고 월궁의 향아는 월궁에서 약을 찜고 있네</p> <p>오작교 가에 흐르는 물을 내려다 보니 인간의 모든 근심이 다 사라져 버렸네</p> <p>춘당 박홍식</p>
원문	
<p>平地移來天上樓 南州名勝此爲頭 全城不夜星河動 大廈庇寒風雨收 野客乘槎蓬島月 宮娥搗藥桂宮秋 俯看烏鵲橋邊水 洗盡人間萬種愁</p> <p>春堂 朴洪植</p>	

편액사진



원문

桂宮眞像畫斯樓 虛明畫棟長含月  
 百尺朱欄倚白頭 疎冷細簾早得秋  
 天上神仙如可遇 遇此唐皇千載後  
 人間風雨亦全收 霓裳一曲古今愁

本郡 朴聖采

번역

계수나무 궁전의 참 모습이 이 누각에 다  
 있으니 백척이나 되는 아름다운 난간에 백발로  
 찾아왔구나

천상의 신선을 만난 것 같고 인간세상의  
 비바람도 또한 모두 거두어졌네 그림 그려진  
 기둥사이에는 밝아서 오래도록 달빛을 안았고  
 대발사이로 스며든 찬기운은 가을을 느끼게  
 하네 신선을 즐겼던 당명왕은 이미 천년을  
 지났으니

무지개 빛 치마를 입은 선녀의 한 곡조에  
 수심을 잊게하네

본군 박규채

편액사진



원문

江湖畫覽此登樓 鶴橋影波支機石  
 恍若瑤宮最上頭 兔杵聲高搗藥秋  
 十二欄干塵不到 滿酌黃壽聯一醉  
 萬千光景畫難收 世間無處遣閒愁

慶州郡 崔炳麟

번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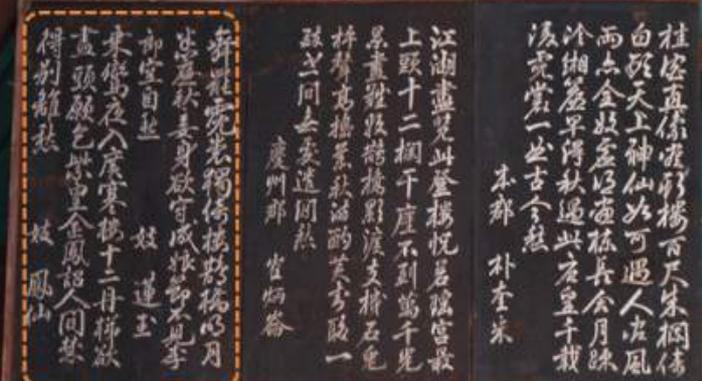
강호를 두루 살펴보고 이 누각에 오르니  
 황홀하게 하늘의 궁전에 오른 것 같구나

열두간 난간에는 티끌 먼지 한점 찾아볼 수  
 없고 천만가지의 광경은 그림으로 다 표현할  
 수 없네

오작교의 그림자는 이 곳 주춧돌을 지나고  
 가을밤에 옥토끼 (달) 가 월궁에서 약을 찧는  
 소리가 높구나

술잔을 가득히 부어 황희 정승의 수 (壽) 를  
 그리며 취하나 세상 어느 곳에도 찾을 길 없어  
 한가로이 수심만 삭이네

경주군 최병륜

편역사진	번역
	<p>오색 무지개 치마로 춤추기를 멈추고 홀로 누각에 오르니 가을밤 대발사이로 오작교의 밝은 달이 비치네</p> <p>소첩의 몸으로 성춘향 남자의 절개를 지키고자 하나 이몽룡 같은 남군을 만나지 못하니 공연히 수심만 이는구나</p> <p>기생 연옥</p>
원문	
<p>舞罷霓裳獨倚樓 乘鸞夜人廣寒樓 鵲橋明月半簾秋 十二丹梯欲盡頭 妾身欲守成娘節 願乞紫皇金鳳詔 不見李郎空自愁 人間禁得別離愁</p> <p>綾 蓬玉                      綾 鳳仙</p>	<p>신선이 탔던 난조 (상상의 세) 를 타고 광한루에 들어가니 열두 층계 아름다운 난간의 꼬트머리에 올랐네</p> <p>원하옵나니 옥황상제께서는 봉황에게 서신을 전하여 인간에게 이별의 근심을 잊게 하소서</p> <p>기생 봉선</p>

편역사진	번역
	<p>지상에 있는 이 누각은 곧 하늘에 있는 누각이요 하늘을 앞잡아 보고 창공에 높이 솟았구나</p> <p>붕래섬에 내리는 이슬비는 대발에 젖어 떨어지고 은하수에 밝은 빛은 밤비를 견우는구나</p> <p>공원 (청나라 화가) 이가 난간에서 만리 구름을 바라보고 장건 (한나라 문인) 이는 떼배에서 가을 달을 맛고 있더라</p> <p>창망한 세상 모든일은 꿈같은 환상이요 낭만의 시인은 근심 잊을가 생각하노라</p> <p>주천면 이태섭</p>
원문	
<p>地上此樓天上樓 公遠橋垂雲萬里 凌虛迥出碧空頭 張騫槎泛月千秋 蓬萊澤色簾波滴 蒼茫往事還如夢 河漢明光夜漏收 漫使詩人惹起愁</p> <p>集川函 李台鑒</p>	

편액사진	번역
	<p>저녁 피리소리 들리는 용성고을 이 누각에 오르니 층층의 아름다운 난간은 오작교와 이어져있구나</p> <p>이 곳의 지세는 요천강이 꺾 안았고 하늘의 은하수 마저도 감쌀아 드렸네</p> <p>신선이 오는 듯 구름이 섬에 가득하고 계절을 즐기는 시인들은 가을달에 도취 되었네</p> <p>춘향 낭자의 정절은 노래가락으로 전해오나니 절세의 뛰어난 꽃다운 이름은 다 표현 할 수가 없구나</p> <p style="text-align: right;">고흥군 양노재</p>
원문	
<p style="text-align: center;">晚笛龍城獨倚樓 仙子如來雲滿嶼 玉欄層壓鵲橋頭 騷人醉節月明秋 挽回地勢蓼川抱 春娘烈性傳歌譜 捲入天章銀漢收 絕世香名勝莫愁</p> <p style="text-align: center;">高興郡 黃老齋</p>	

편액사진	번역
	<p>호남의 아름다운 모습이 모두 이 누각에 있으니 글을 짓기에 누가 으뜸을 찾지 할 것인 고 창가에는 요천수의 맑은 물빛 이 거울처럼 비쳐오고 봉래섬의 오색구름은 집을 병풍처럼 휘어 감았네</p> <p>신선의 월궁 향아는 항상 달 속에서 꿈을 꾸고 관가의 기녀는 노래 소리로 열녀의 뜻을 남기네</p> <p>옛 경관을 금년에 다시보니 그 모습 새롭거늘 웃 날의 비바람인들 어찌 걱정하리오</p> <p style="text-align: right;">천안군 윤교영</p>
원문	
<p style="text-align: center;">南湖眉目在斯樓 仙娥冷夢身恆月 詩步誰能上上頭 官妓遺歌意烈秋 蓼水當窓明鏡照 舊觀今年新額出 蓬雲近戶彩屏收 後天風雨不須愁</p> <p style="text-align: center;">天安郡 尹敎永</p>	

편액사진	번역
	<p>호남에 유일한 이 광한루가 있으니 백척의 구름 사다리를 단숨에 올랐네 가히 하늘의 북두성 이 잡힐 듯 하고 익히 들려오는 피리소리와 학춤에 세상 근심을 잊었네</p> <p>은하수의 밝은 달은 낮과 같이 밝고 봉래섬의 맑은 바람은 여름인데도 가을을 느끼게 하네 열열한 춘향의 영혼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사당 앞 봄풀만이 많은 수심을 자아내네</p>
<b>원문</b>	
<p>湖南獨擅廣寒樓 百尺雲梯一步頭 可摘斗牛天宇近 慣聽笙鶴世塵收 銀河名月宵如畫 蓬島清風夏亦秋 烈烈香魂應不泯 祠前春草倍生愁</p> <p style="text-align: right;">晚松 朴吉來</p>	<p>만송 박길래</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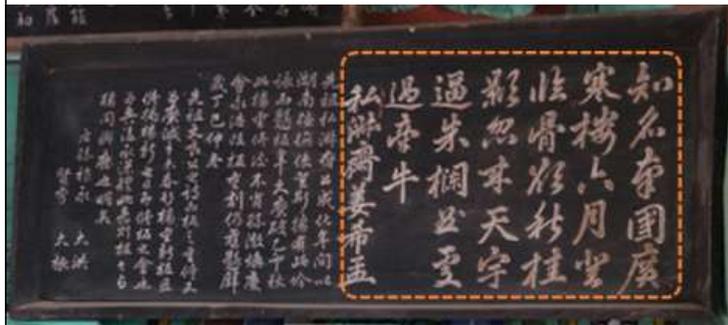
편액사진	번역
	<p>하늘의 누각을 본떠서 지은 이 누각은 날아갈 듯이 옛 성에 높이 솟았네 호석 거리에서 일어난 바람은 더운 기운을 가라 앉히고 삼신산에 구름이 걷히니 비운 뒤의 물색 이 아름답구나 노니는 나그네는 한가로이 해와 달을 즐기고 이름난 꽃들은 봄과 가을에 피고 지더라 인간 세상에도 이러한 월궁의 청허부가 있으니 또한 속세의 어지러운 모든 수심을 씻어 주었네</p>
<b>원문</b>	
<p>地上模來天上樓 翼然高出古城頭 風生虎石炎塵宿 雲捲三山雨色收 遊子逍遙閒日月 名花開落自春秋 人間亦有清虛府 也洗紛紜世俗愁</p> <p style="text-align: right;">石堂 元鍾漢</p>	<p>석당 원종호</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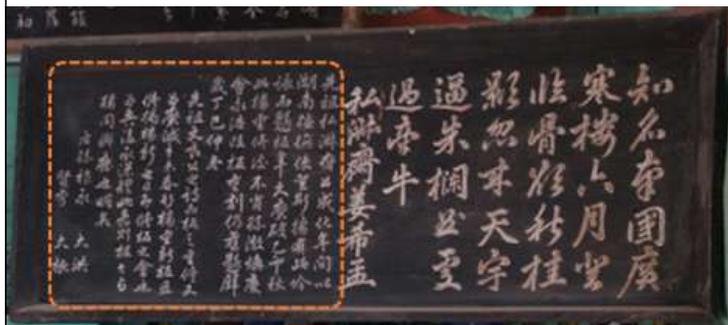
편역사진	번역
	<p>천상의 누각을 빌려다가 이 곳 명승지에 세우니 백척이나 되는 아름다운 누각은 성 머리에 닿았구나</p> <p>교룡산의 늦은 봄은 구름 안개를 머금었고 요천강 언덕에 구름이 걷히니 밤기운이 새롭구나</p> <p>견우와 직녀는 칠석날 밤에 오작교에서 인연을 맺고 피리소리와 노래소리는 멀리 월궁의 계수나무 꽃에 서렸네</p> <p>깃을 단 새처럼 신선의 경지에 황홀하게 오른 것 같아서 인간의 모든 근심들을 상쾌하게 씻었네</p> <p>금산 방사원</p>
<b>원문</b>	
<p>天借名區建此樓 丹梯百尺壓城頭 蛟岑春晚烟光含 蓼岸雲晴夜氣收 烏鵲成緣牛女夕 笙歌迥落桂花秋 恍如羽化登仙境 快滌人間萬斛愁</p> <p style="text-align: right;">錦山 房仕源</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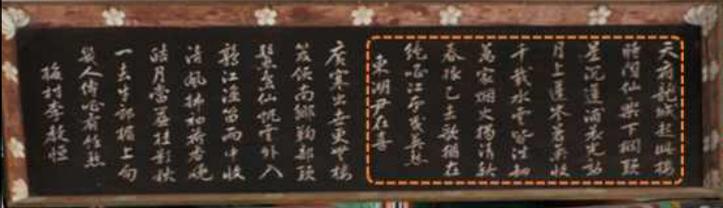
편역사진	번역
	<p>이제야 호남의 제일인 이 누각에 오르니 먼 만리의 은하수는 오작교와 이어졌구나</p> <p>동헌 창가에는 향사 맑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밤비가 개 인 이 고을은 선명하기도 하구나</p> <p>땅위에 가득한 향기로운 꽃은 보는 이를 기쁘게 하고 하늘을 닿을 듯한 높은 나무는 몇해를 지냈던고...</p> <p>떼배를 타고 다시 삼신산에 내려와 보니 마치 선궁에 들어 온 것 같아서 속세의 근심을 잊었네</p> <p>경은 이음수</p>
<b>원문</b>	
<p>一上湖南第一樓 銀河萬里鵲橋頭 軒窓灑落清風在 洞府鮮明宿雨收 滿地香花皆悅眼 叅天喬木幾經秋 乘舟又下三山島 如入仙宮忘世愁</p> <p style="text-align: right;">耕隱 李應壽</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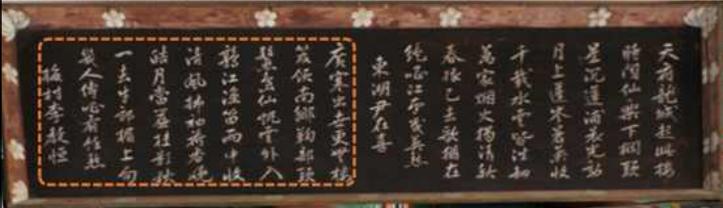
편역사진	번역
	<p>하늘에 일찌기 이 누각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누가 인간 세상의 옛 성터에 옮겨 왔는고… 삼신산에 서려있는 달은 대밭사이로 비쳐오고 한 가닥 은하수는 자라등 (주춧돌) 에 감돌고 있구나</p> <p>땅은 넓어서 무더위를 느끼지 못하게 하고 맑은 바람은 도리어 흰구름 따도는 가을을 느끼게 하네</p>
<b>원문</b>	
<p>天上曾聞有此樓 誰移人世古城頭 三山烟月簾前落 一派銀漢鰲背收 地迥不知烘暑夏 風清還覺白雲秋 滿庭芳草香魂寂 黃鳥年年喚客愁</p> <p style="text-align: right;">栗川 太弘基</p>	<p>정원에 가득한 꽃다운 풀은 춘향의 냇이 고요히 잠겨있으니 꺾꼬리 소리는 해마다 나그네의 수심을 자아내네</p> <p style="text-align: right;">율천 태흥기</p>

편역사진	번역
	<p>호남 고을에 우수한 모습은 오로지 이 누각 뿐이니 열두간 아름다운 난간은 백척이나 숏았구나</p> <p>옥같은 연못에 비친 삼신산은 자라등 (주춧돌) 에 떠있고</p> <p>돌로 쌓은 무지개 다리는 까치 가마귀의 공으로 이루어졌네</p> <p>외로이 잠든 이 밤에 월궁의 향아는 약을 찜고 은하수의 사신은 멧목을 타고 멀리 가을 바다에 떠있네</p> <p>하늘 바람을 맞이하여 우뚝서니 마치 날개를 단듯하여</p> <p>모든 근심을 일시에 삭혀 버렸네</p>
<b>원문</b>	
<p>湖南勝狀擅斯樓 十二珠欄百尺頭 玉沼三山鰲背出 虹橋疊石鵲功收 姮娥搗藥孤眠夜 漢使乘槎遠泛秋 迥立天風如羽化 一時消盡萬端愁</p> <p style="text-align: right;">友山 黃留周</p>	<p style="text-align: right;">우산 황유주</p>

편역사진	번역
	<p>명승으로 알려진 이 남녘의 광한루를 유월에 오르고 보니 가을 기운이 뼈속에 스며드는 듯 하구나</p> <p>계수나무 달 그림자가 홀연히 비쳐오니 하늘이 가까운 듯 하고 아름다운 난간 모서리에 견우와 직녀가 지나가네</p> <p style="text-align: right;">사숙제 강희맹</p>
<p style="text-align: center;"><b>원문</b></p> <p style="text-align: center;">知名南國廣寒樓 六月登臨骨欲秋 桂影忽來天宇逼 朱欄曲處過牽牛</p> <p style="text-align: center;">私淑齋 姜希孟</p>	

편역사진	번역
	<p>선조이신 사숙제 (강희맹) 공께서 성화 (중국 년호 1465~1487년) 사이에 호남 안무사로 이 누각에 올라 읊은 시구문의 현판이 걸렸으나 해가 오래되어 파손되어서 을묘년 가을 이 누각을 중수한 후에 불초 후손인 경희와 영호가 다시 현판을 새로이 새겨서 옛 이 자리에 걸었다.</p> <p style="text-align: right;">정사년 11월</p> <p>선조이신 문양공의 시문이 새겨진 현판을 중수하였으나 또 마멸이되었기에 신미년 봄 이 누각을 중수할때 다시 닦아서 새로운 모습으로 누각에 걸었으니 이날이 즉 현판을 새롭게 하는 기회였다. 우리 후손들이 기리 이 어른의 뜻을 이어 받들고져 하오니 이 현판은 광한루와 더불어 흥폐를 같이 할 것이 분명 할지니라</p> <p style="text-align: right;">후손 조영, 대홍, 현수, 대근</p>
<p style="text-align: center;"><b>원문</b></p> <p>先祖 私淑齋公 成化年間 以湖南按撫使登斯樓 有此吟詠而懸板 年久歷破 乙卯秋此樓重修後 不肖孫 激煥慶會永浩改板 重刻仍舊懸壁</p> <p style="text-align: center;">歲丁巳仲冬</p> <p>先祖 文襄公之詩 而板之重修 又為磨滅 辛未春 斯樓重新板且 修揭樓新之日 卽修板之會也 為吾後 承深體此意則 板之與樓 同興廢 也明矣</p> <p style="text-align: center;">後孫 趙永, 大洪, 賢秀, 大顯</p>	

편역사진	번역
	<p>하늘 아래 용성 고을에 이 누각을 세우니 향시 신선의 풍류악이 난간에 들려오네</p> <p>연꽃피는 연못가에 별이 잠기니 새벽빛이 아롱거리고 봉래산에 달이 떠오르니 더운 기운이 걷히는구나</p> <p>오랜 세월의 물과 구름은 다 지난 세월의 일이요 여러 집에서 피어오르는 연기에 유독 가을을 느끼게 하네</p> <p>춘향 낭자는 이미 떠났어도 노래는 아직 남아있어서 강남 고을에 뛰어난 노래 소리는 수심을 잊게 하는구나</p>
<p style="text-align: center;">원문</p>	
<p>天府龍城起此樓 時聞仙樂下欄頭 星沉蓮浦晨光動 月上蓬岑暑氣收 千載水雲皆往劫 萬家烟火獨清秋 春娘已去歌猶在 絕唱江南幾莫愁</p> <p style="text-align: right;">東湖 尹在善</p>	<p style="text-align: right;">동호 윤재희</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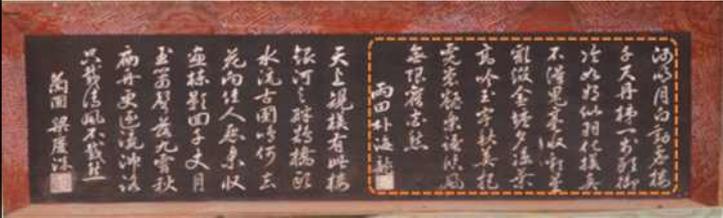
편역사진	번역
	<p>광한루가 세상에 이름이나 서로 비길 누각이 없으니 남녘의 끝자락인 이 곳에 자리를 잡았구나</p> <p>자라섬에 떠 있는 신선의 배는 구름 밖에서 들어오고 순자강 어부의 피리소리는 빛 소리와 더불어 들려오네</p> <p>해거름 맑은 바람이 소매깃을 스치니 연꽃향기가 그윽하고 가을의 밝은 달에 계수나무 그림자가 대밭사이로 스며드네</p> <p>한번 떠난 견우 낭군은 머리에서 아롱거리니 세상 사람들이 전하여 불렀던 노래는 아직도 남은 근심이 있으려나</p>
<p style="text-align: center;">원문</p>	
<p>廣寒出世更無樓 管領南鄉鞠部頭 鰲島仙帆雲外入 鶉江漁笛雨中收 清風佛袖荷香晚 皓月當簾桂影秋 一去牛郎楣上句 幾人傳唱有餘愁</p> <p style="text-align: right;">梅村 李敬恒</p>	<p style="text-align: right;">매촌 이교항</p>

편역사진	번역
	<p>호남의 명승은 오직 이 누각 뿐이요 신선이 또한 걸어 올랐구나</p> <p>예로부터 지금까지 그 높은 명성은 끊이지 않고 사시의 아름다운 경치는 이 곳에 다 모였구나</p> <p>삼경의 밝은 달은 봉래산에 비쳤고 요천강의 푸른 안개는 백리까지 뻗었구나</p>
<b>원문</b>	
<p>湖南勝狀擅斯樓 又有仙人步上頭 千古高名應不盡 四時佳景獨全收 蓬山明月三更夜 蓼水蒼烟百里秋 畫筆更新歌舞地 庭園花鳥莫深愁</p> <p style="text-align: right;">南湖 金正述</p>	<p>노래 부르고 춤추는 이 곳에 그림과 글씨가 더욱 새롭고 정원의 꽃과 새소리는 깊은 수심을 자아내네</p> <p style="text-align: right;">남호 김정술</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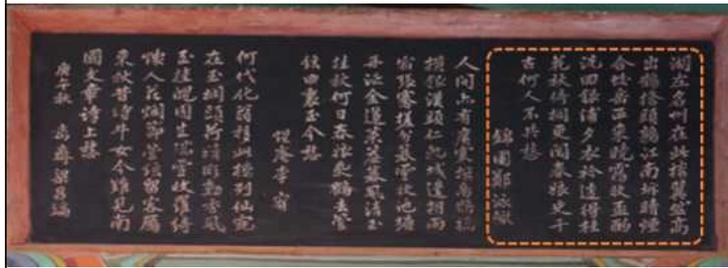
편역사진	번역
	<p>하늘의 광한전 아래 이 광한루는 남녘의 이 고을을 웅장게 하였구나</p> <p>삼신산에 펼쳐진 별빛은 안개와 어울려졌고 비가 개인 오작교에는 무지개가 서렸구나</p> <p>나그네가 먼 곳에서 뗏목을 타고 바다를 건너오고 월궁의 향아는 가을 밤에 약을 캐는구나</p>
<b>원문</b>	
<p>廣寒殿下廣寒樓 雄鎮南州地盡頭 三島星羅烟共合 一橋虹起雨初收 天長海客乘槎日 桂老姮娥竊藥秋 異代登臨多感慨 野花啼鳥倩人愁</p> <p style="text-align: right;">鳴山 金亮植</p>	<p>세대는 달랐으나 오르고 보니 감회가 깊고 들에 핀 꽃과 새소리는 사람들에게 수심을 자아내게 하는구나</p> <p style="text-align: right;">회산 김양식</p>

편역사진	번역
	<p>넓고 크기가 천상의 누각과 차이가 없으니 층층의 난간은 구름에까지 솟았구나</p> <p>고요한 밤에 별들은 아름다운 집에서 서로 모였고 연꽃피는 연못에 미풍이 부니 물결이 일렁이더라</p> <p>까마귀와 까치는 백척 다리를 이루었고 월궁의 향아는 천년토록 약을 찜고 있구나</p>
<b>원문</b>	
<p>廣大不遐天上樓 層欄聳出白雲頭 瑤臺夜靜星宮會 蓮淑風微餘浪收 烏鵲成功橋百尺 姮娥搗藥月千秋 乘槎遠客今安在 謾使詩人怨暮愁</p> <p style="text-align: right;">關波 金鳳植</p>	<p>떼배를 타고 멀리 왔던 나그네는 지금 어디에 있는고 부질없이 시인으로 하여금 해거름에 수심만 자아내네</p> <p style="text-align: right;">난파 김봉식</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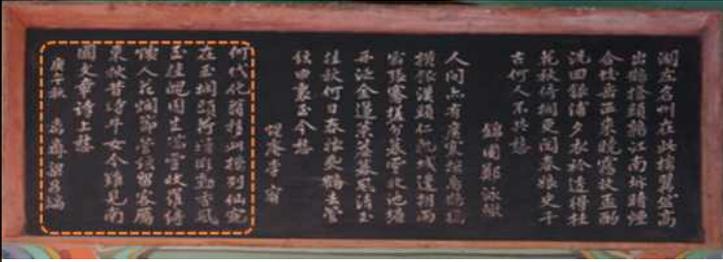
편역사진	번역
	<p>하늘에서 빌려온 용성고을의 제일 누각에서 노니는 인걸들이 이 아름다움을 그 몇번이나 감탄하였던고</p> <p>춘향 낭자 떠난 후에 꽃들도 원망스러워 하는것 같고 직녀가 올때에도 비는 그치지 않는구나</p> <p>난간에 비친 은하수의 물결은 끝없이 흘러있고 계수나무의 가을 달은 대밭사이로 가득히 비쳐오네</p> <p>봉래섬이 지척에 있으니 신선과 인연이 깊어 떠도는 인생이 고해의 근심을 잊어버렸네</p>
<b>원문</b>	
<p>天借龍城第一樓 遊人指點幾回頭 春娘去後花如怨 織女來時雨未收 隔檻銀河波萬頃 滿簾月影桂三秋 蓬萊咫尺仙緣重 却忘浮生苦海愁</p> <p style="text-align: right;">日省 金鎮宅</p>	<p style="text-align: right;">일성 김진택</p>

편역사진	번역
	<p>텃빈 누각에 은하수도 밝고 달도 밝으니 천척이나 되는 아름다운 층계를 한 걸음에 올랐네</p> <p>서늘한 바람을 맞고 보니 날개 달린 신선과 같으며 신과 같은 붓으로 참 모습을 그리려 해도 그려내기 어렵구나</p> <p>오색의 별빛은 아름다운 연못에 비쳐 아롱거리고 가을 낙엽을 밟으며 이 아름다운 집에서 글을 읊었네</p> <p>악보를 뒤적이며 무지개 치마를 입고 춤을 추니 바람까지 불어와 옛 집에서 노닐던 수심이 한이 없구나</p> <p style="text-align: right;">우전 박해룡</p>
<p style="text-align: center;">원문</p>	
<p>河明月白動虛樓 千尺丹梯一步頭 御冷如將仙羽化 模真不得鬼毫收 彩星亂綴金塘夕 涼葉高吟玉宇秋 莫把霓裳翻樂譜 臨風無限舊宮愁</p> <p style="text-align: right;">雨田 朴海龍</p>	

편역사진	번역
	<p>하늘의 본을 따사 이 누각을 세우니 은하수 옆에 오작교가 있구나</p> <p>옛 고을에 흐르는 물 소리는 어디로 흘러 가시고 아름다운 사람은 꽃을 보고 원망을 금치 못하네</p> <p>천길이나 먼 달빛 그림자는 이 난간에 비치고 옥 통소 소리는 구만리 먼 하늘에까지 들려가네</p> <p>조각배로 물결따라 다시 영주섬으로 가니 다만 맑은 바람은 실을 수 있어도 근심은 실을 수 없구나</p> <p style="text-align: right;">난포 양경수</p>
<p style="text-align: center;">원문</p>	
<p>天上規模有此樓 銀河之畔鵲橋頭 水流古國鳴何去 花向佳人怨未收 畫棟影回千丈月 玉簫聲落九霄秋 扁舟更逐瀛洲洛 只載清風不載愁</p> <p style="text-align: right;">蘭圃 梁慶洙</p>	

편역사진	번역
	<p>호남 좌도로 이름난 곳에 이 누각이 있으니 날 뜻이 높이 솟은 오작교에 올랐네</p> <p>비 개인 순자강 남쪽 언덕에는 연기가 걷히고 교통산 서쪽에는 새벽 안개가 풀어지는구나</p> <p>은빛같은 여울가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회포를 씻고 계수나무 꽃피는 가을에는 옷깃에 서늘한 바람이 서리는구나</p> <p>난간에 의지하여 다시 춘향 남자의 자취를 더듬어 보니 옛 부터 어느 누구인들 수심이 없으리요</p> <p style="text-align: right;">금포 정영철</p>
<p style="text-align: center;"><b>원문</b></p> <p>湖左名州在此樓 翼然高出鵲橋頭 鶉江南圻晴煙合 蛟岳西來曉霧收 盃酌洗回銀浦夕 衣衿透得桂花秋 倚欄更閱春娘史 千古何人不共愁</p> <p style="text-align: right;">錦園 鄭泳轍</p>	

편역사진	번역
	<p>인간 세계에도 또한 광한루가 있어서 오작교 가 은하수에까지 뻗었구나</p> <p>유인제 (사람 이름) 가 쌓은 성가에는 아침비가 그쳤고 장건 (사람 이름) 이가 멧목을 타고오니 해질녘 구름이 걷히는 구나</p> <p>아름다운 연잎이 피어있는 연못에 배를 띄우고 영롱한 가을밤에 맑은 바람이 대발사이로 스며드네</p> <p>어느날 춘향 남자가 학을 타고 떠났는고 관현악의 가락소리에 지금까지 수심에 잠기게 하는구나</p> <p style="text-align: right;">성암 이유</p>
<p style="text-align: center;"><b>원문</b></p> <p>人間亦有廣寒樓 烏鵲橋橫銀漢頭 仁軌城邊朝雨宿 張騫槎外暮雲收 池塘舟泛金蓮葉 簾幕風清玉桂秋 何日春娘乘鶴去 管鉉曲裏至今愁</p> <p style="text-align: right;">愴庵 李宥</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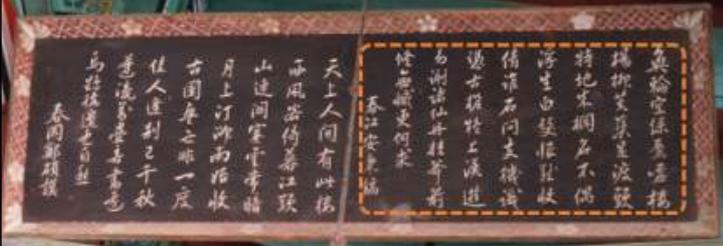
편역사진	번역
	<p>어느 세대에 조물주가 이 누각을 옮겨 왔을까        많은 신선들이 아름다운 난간에 모여있구나        연꽃에 실바람이 불어오니 향기가 그윽하고        계수나무 주변에는 상서로운 눈이 내리는구나        비단 옷을 입은 사람들은 꽃이 만발할 때를        그리워하고 기러기 날아드는 가을에 관현악        소리가 나그네를 머물게 하네        옛적의 견우 직녀는 이제 볼 수 없으나 남녘의        문장들이 시로서 수심을 달래네</p>
<p style="text-align: center;">원문</p>	
<p>何代化翁移此樓 列仙宛在玉欄頭        荷精微動香風至 桂魄圓生瑞雪收        羅綺懷人花爛節 管絃留客雁來秋        昔時牛女今難見 南國文章詩上愁</p> <p style="text-align: right;">庚午秋 禹齊 梁昌鎬</p>	<p style="text-align: right;">경인 가을 우재 양창호</p>

편역사진	번역
	<p>영호남에 제일인 이 누각은 은하의 다리가        있어서 옛부터 건너는구나        북쪽에 있는 교통산에는 아침 안개가 걷히고        남쪽으로 흐르는 순자강 언덕에는 저녁연기가        흩어지네        아릿다운 남자의 한은 오늘까지 전해지고        귀공자는 무정하게 몇해의 세월을 지냈던가        용성고을은 이름난 명승지로 이어져 왔으니        시인은 이러한 곳에서 다시 무엇을 걱정하리오</p>
<p style="text-align: center;">원문</p>	
<p>嶺湖第一廣寒樓 宛在河橋古渡頭        北指蛟山朝霧罷 南迷鶉岸暮烟收        阿娘有恨傳今日 公子無情度幾秋        龍府繼開名勝地 詩人自此更何愁</p> <p style="text-align: right;">又天 白定基</p>	<p style="text-align: right;">우천 백정기</p>

편역사진	번역
	<p>인간이 사는 넓은 곳에 이 한 누각이 있으니 하늘의 은하수가 이곳에 이르렀구나 하늘에 떠있는 많은 별들은 연못에 비쳐있고 성 위의 고목에는 굵은 비가 걷히는구나 아름답게 단청한 대들보위에 밝은달이 떠오르고 옷소매에는 가을의 서늘한 바람이 스스로 이는구나 조각배를 타고 영주섬에 가지마오 신선으로 하여금 놀라게 할까 두렵구려</p>
원문	
<p>廣庇人間此一樓 銀河側畔玉京頭 天涵池面群星動 樹老城根劫雨收 丹腹重回楣上月 清涼自有袖中秋 扁舟莫向瀛州去 恐使神仙起外愁 雲圃 申應稷</p>	<p>운포 신응직</p>

편역사진	번역
	<p>이 누각은 호남에서 제일인 것이 분명하니 아득히 먼 산의 구름이 이 난간을 감도는구나 하얀 연꽃이 피어있는 맑은 연못에 아침연기가 개 이고 다리가의 푸른 버드나무에는 저녁비가 걷히는구나 삼신산의 꽃다운 경치는 어제런듯 하고 반쯤 걸려있는 대밭에는 또한 가을달이 밝았구나 처량한 피리소리는 어느 곳에서 들려오기에 글짓는 이로 하여금 수심을 불러 일으키게 하는고...</p>
원문	
<p>的是湖南第一樓 雲山縹緲繞欄頭 白連池淨朝烟歇 青柳橋深暮雨收 三島芳菲如昨日 半簾明月又今秋 尋常長笛來何處 喚起騷人分外愁 春峰 柳昌均</p>	<p>춘봉 유창군</p>

편역사진	번역
	<p>천상의 누각이 평지에 내려와 높은 누각이 되었으니 만리 허공의 푸른 빛이 이 난간에 이르렀구나</p> <p>두발로 구름을 밟고 봉래섬으로 돌아왔고 뚝단배 한척은 은하수와 달빛을 싣고 오는구나</p> <p>가인(佳人) 이 살던 옛 터에는 연꽃이 피어있고 도독(都督) 이 쌓은 옛 성터에는 초목이 무성하구나</p> <p>찬바람을 가릴 수 있는 넓은 집을 얻었으니 사납고 세찬 비바람인들 모두 걱정할 것이 없구나</p> <p style="text-align: right;">소운 최덕건</p>
원문	
<p>落來平地最高樓 萬里空青卽檻頭 蓬島躡雲雙鳥返 銀河載月一帆收 佳人舊址芙蓉水 都督荒城草木秋 廣廈庇寒如可得 瘴風劫雨摠無愁</p> <p style="text-align: right;">小靈 崔德鍵</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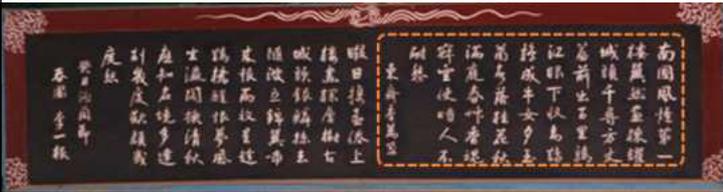
편역사진	번역
	<p>푸른 허공에 세워진 공중누각(신기루)은 버드나무와 연꽃잎 사이의 건널목에 세워졌네</p> <p>이곳 아름다운 난간의 이름을 얻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고 어느덧 백발이 된 떠들이 인생은 한만 남는구나</p> <p>누구에게 물어보아야 이돌이 베틀고인 돌(支機石)임을 알 것인가 떼배를 타고 보니 은하계에 올라 노니는 듯 하구나</p> <p>옛 여러 신선들이 썼던 고운 계수나무 도끼로 전과 같이 새롭게 다듬었으니 고맙고 더 바랄것이 없구나</p> <p style="text-align: right;">춘강 안병호</p>
원문	
<p>奐輪空綠蜃噓樓 楊柳芙蓉是渡頭 特地朱欄名不偶 浮生白髮恨難收 倩誰石問支機識 憑古槎疑上漢遊 多謝諸仙丹桂斧 前修無憾更何求</p> <p style="text-align: right;">春江 安秉鎬</p>	

편역사진	번역
	<p>천상과 인간세상에 각각 이 누각이 있으니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저문 강가에 서성거리네 산이 먼 변방까지 이어지고 보니 항상 어두운 구름이 서려있고 달이 강물 위에 비치니 드디어 비가 개는구나</p> <p>옛 나라의 흥망은 한번이 아니었고 가인 (佳人) 과 만나고 헤어진 것은 이미 오랜 세월이 지났구나</p> <p>봉래섬과 영주섬은 수많은 산이 가로막혀 소식이 없고 오작교 가에 오교보니 수심만 저절로 이는구나</p>
<p style="text-align: center;">원문</p>	
<p>天上人間有此樓 西風客倚暮江頭 山連關塞雲常暗 月上汀洲雨始收 古國興亡非一度 佳人逢別已千秋 蓬瀛萬疊音書遠 烏鵲橋邊也自愁</p> <p style="text-align: right;">春岡 鄭碩誤</p>	<p style="text-align: right;">춘강 정석모</p>

편역사진	번역
	<p>하늘에서는 궁전이라 하고 땅에서는 누각이라고 하니 호남을 최상의 명승지인 이 곳에 유일하게 세워졌네</p> <p>오랜 세월동안 문인들의 글 읊는 소리가 끊이지 않고 사시절의 다양한 풍경은 그림으로 그리기가 어렵구나</p> <p>구름은 자라등을 타고 삼신산에 떠있고 별은 오작교 건너기를 몇해나 하였던고...</p> <p>양광을 벌리고 날듯이 올라보니 신선이 된 것 같아서 인간으로 하여금 괴로운 인간사의 근심을 한 순간 잊게 하네</p>
<p style="text-align: center;">원문</p>	
<p>在天爲殿地爲樓 擅勝湖南最上頭 千古文章吟不絕 四時風景畫難收 雲連鰲背浮三島 星渡鵲橋經幾秋 兩腋飄然如羽化 使人頓忘海桑愁</p> <p style="text-align: right;">石田 李正根</p>	<p style="text-align: right;">석전 이정근</p>

편역사진	번역
	<p>열 두 계단의 금사다리로 허공에 걸려있는 이 누각을 날듯이 멀리에서 백척 누각에 올랐네 하늘에 떠있는 별들은 잡힐듯하고 인간세상의 비 바람은 유독 이곳에서 견히네 연못에는 하얀 달이 유리빛으로 잠겨있고 나무에 맺힌 아름다운 이슬은 비단을 수 놓은 듯 하구나</p>
<p style="text-align: center;">원문</p>	
<p>金梯十二掛虛樓 飛鳥迢迢百尺頭 天上星辰堪可摘 人間風雨獨全收 池含白月琉璃夕 樹拂彤雲錦繡秋 勻樂時來如聖世 南鄉自此有何愁</p> <p style="text-align: right;">彌懷 梁宗植</p>	<p>하늘에서 들려오는 노래소리는 성스러운 세상 같으니 남녘 고을은 이제부터 무슨 근심 이 다시 있으리요</p> <p style="text-align: right;">미초 양종식</p>

편역사진	번역
	<p>이름난 명승지 호남고을에 이 누각이 있으니 허공을 걸어서 백척이나 되는 아름다운 난간에 올랐네 수정처럼 맑은 대밭에 밝은 달이 비치니 밤기운이 차갑고 봉래섬의 상서로운 구름에 속세의 액운이 사라지네 유독히 뛰어난 이곳은 어느 세상이던가 상쾌하고 시원함에서 훌연히 가을임을 느끼게 하는구나</p>
<p style="text-align: center;">원문</p>	
<p>名勝湖南有此樓 步虛百尺畫欄頭 晶簾明月清宵冷 蓬島靄雲塵恟收 迢絕還疑何處界 爽然翻覺忽生秋 伊今遠舉山河目 感舊蒼茫不任愁</p> <p style="text-align: right;">庚午 秋 南陽 李根宇</p>	<p>이제 눈을 들어 멀리 산하를 바라보니 아득하고 먼 옛날 일들을 느끼며 수심을 견디기 어렵구나</p> <p style="text-align: right;">경오 가을 청양 이근우</p>

번역사진	번역
	<p>남녘의 제일 아름다운 풍경인 이 누각에 날듯이 솟은 그림같은 아름다운 기둥은 성안을 비추네</p> <p>천길이나 되는 방장산은 대밭 앞에 솟았고 백리나 되는 순자강은 눈 앞에서 흐르는구나</p> <p>가마귀와 까치는 칠석에 견우와 직녀를 생각하여 다리를 놓았고 옥통소 소리는 계수나무 꽃피는 가을밤에 들려오는 구나</p> <p>정원에 가득한 봄풀에는 춘향의 님이 고이 잠들어 있어서 부질없는 인걸들로 하여금 수심을 견디기 어렵게 하네</p>
원문	
<p>南國風烟第一樓 翼然畫棟耀城頭 千尋方丈簾前出 百里鶉江眼下收 烏鵲橋成牛女夕 玉簫聲落桂花秋 滿庭春草香魂寂 空使時人不耐愁</p> <p>東齊 李萬器</p>	<p>동제 이만기</p>

번역사진	번역
	<p>한가한 날에 술병을 들고 느즈막히 누각에 오르고 보니 옛 성터에 화려한 난간과 층층의 계단으로 이루어 졌구나</p> <p>은빛 물고기는 물결을 따라 뛰놀고 금빛 새들의 울음 소리는 소식을 알려 오는구나 별빛 이 오작교를 스쳐가니 한스러운 꿈에서 깨어나고 영주섬에 바람이 이니 가을로 바뀐듯하네</p> <p>그렇구나 이름난 이곳은 만남과 이별이 많았을 것이니 몇번이나 반가웠고 몇번이나 섭섭했던가</p>
원문	
<p>暇日携壺倦上樓 畫欄層榭古城頭 銀鱗掠去隨波立 錦翼啼來報雨收 星趁鵲橋醒恨夢 風生瀛閣換清秋 應知名境多逢別 幾度歡顏幾度愁</p> <p>癸丑 浴蘭節 春圃 李一楨</p>	<p>계축 봄 춘포 이일근</p>

편역사진	번역
원문	
<p style="text-align: center;">一派銀漢檻外橫 水光天影透虛明 夜深寒杵來何處 疑是蟾宮搗藥聲</p> <p style="text-align: center;">佔畢齋 金宗直</p>	<p>한줄기의 은하수가 난간 밖으로 스쳐가니 맑은 물빛과 하늘 그림자는 허공을 뚫고가네</p> <p>깊은 밤에 들려오는 방망이 소리는 어디서 들려오는지 이것은 아마도 월궁에서 약을 찧는 소리인가 짐작 되는구나</p> <p style="text-align: center;">점필재 김종직</p>

편역사진	번역
원문	
<p style="text-align: center;">恢拓銀河弄明月 栽培塢竹挹清風 一年南國巡宣化 只在清風明月中</p> <p style="text-align: center;">松江 鄭澈</p>	<p>넓고 길게 뻗어있는 은하수는 밝은 달을 희롱하고 언덕에 심어진 대나무는 맑은 바람을 이끌어 오는구나</p> <p>일년에 한번 이곳 남녘을 순행하며 백성을 어루 만질적에 다만 맑은 바람과 밝은 달빛만 있었다네</p> <p style="text-align: center;">송강 정철</p>

편역사진	번역
	<p>하늘의 계수나무 향기가 이곳에 풍기니 구슬을 찬 선남선녀들이 밤놀이에 돌아갈 것을 잊었구나</p> <p>서리 내리는 가을에 약을 짙기를 몇해나 했더니 하얀 달빛은 멀리 만리까지 비추이네</p> <p>북쪽에서 내린 찬 이슬은 은하수를 이어 깨끗하고 날아갈 듯한 이 누각에는 멀리 영통한 무지개에 닿았네</p>
<b>원문</b>	
<p>桂子天香入座飄 夜來環珮共忘歸          玄霜幾搗千年藥 白月長開萬里輝          沆瀣細連銀漢淨 樓台迥壓玉虹飛          何緣一向成都卜 簾珠誇將織女機</p> <p style="text-align: right;">象村 申欽</p>	<p>무슨 인연으로 이곳에 고을이 이루어질 것을 짐작했더니 직녀가 베 짜는 모습이 아름다운 주발 사이로 비쳐오네</p> <p style="text-align: right;">상촌 신흠</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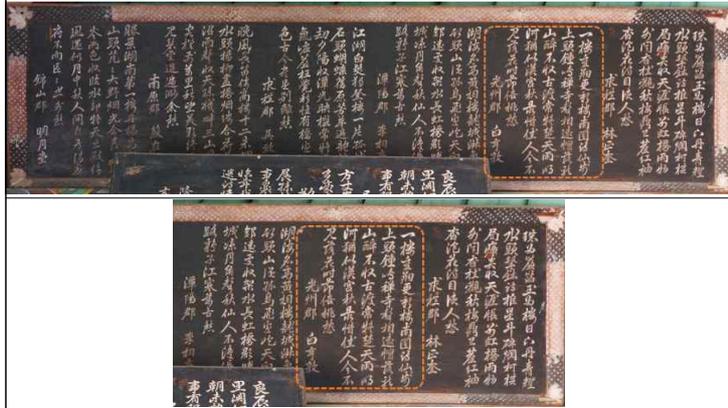
편역사진	번역
	<p>푸른 부평초가 떠있는 서쪽 언덕에 그림같은 난간에 섰으니 가이없는 아름다운 장취에 해가 기울어 지는구나</p> <p>길가에서 꽃다운 풀들이 항상 무성하고 청산에는 어느 곳 할것없이 항상 흰구름이 떠있구나</p> <p>외로운 배 안에서 잡다한 인간사를 꿈꾸고 삼월에 피어 오르는 안개로 공원엔 꽃이 피었네</p> <p>술잔을 다 비우고나니 사람들은 모두 떠나고 들새소리는 원망한 듯 노래한 듯 들려오는구나</p>
<b>원문</b>	
<p>畫爛西畔綠蘋波 無限雅情日影斜          芳草幾時行路盡 青山何處白雲多          孤舟夢裡滄溟事 三月烟中上苑花          樽酒易傾人易散 野禽如慙又如歌</p> <p style="text-align: right;">玉峰 白光勳</p>	<p style="text-align: right;">옥봉 백광훈</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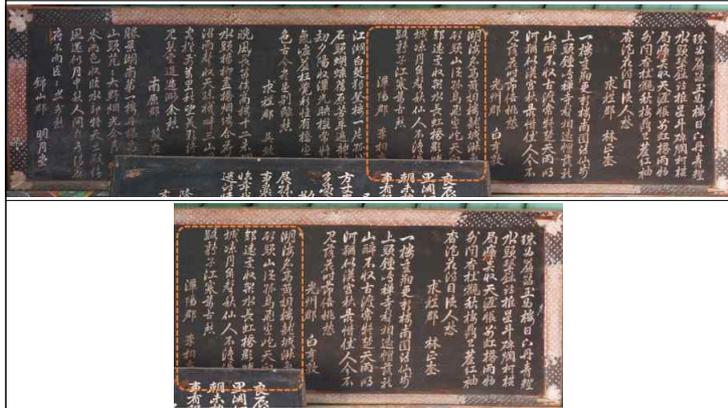
편역사진	번역
	<p>은하수와 별들의 빛이 차가운 밤 이 광한루에는 오작교가 높이 북두칠성과 견우성까지 뻗혔구나</p> <p>천상과 인간 세상은 만물의 색채에 의해 구분되는데 계수나무 궁전에는 밝은달이 오래도록 머물러 있구나</p>
<b>원문</b>	
<p style="text-align: center;">星河夜冷廣寒樓 鳥鵲橋橫近斗牛 天上人間分物色 桂宮留得月千秋 白江 李敬輿</p>	<p>백강 이경여</p>

편역사진	번역
	<p>전쟁을 끝내고 돌아와 피곤한 몸으로 이 누각에 의지하니 큰 시냇가에서 병기를 씻고 말도 물을 먹이었네</p> <p>팔방의 산에 풀과 나무는 천년토록 무성하고 사방에서 피어오른 봉화 연기는 한 눈에 들어오네</p>
<b>원문</b>	
<p style="text-align: center;">戰罷歸來倦倚樓 洗兵飲馬大溪頭 八山草木千年勝 四野烽烟一望收 破竹已乘今日勢 採蓮猶憶昔時遊 明朝追逐嚴諸部 萬里勳名正此求 天將 宋大城</p>	<p>파죽지세로 치루었던 전쟁은 오늘에 끝나고 연꽃을 캐면서 옛날 노닐때를 떠올렸구나 명나라 조정의 엄한 군율을 따라서 만리가 되는 이곳에 와서 공훈을 얻게 되었네</p> <p style="text-align: right;">천장 (중국장수) 송대빈</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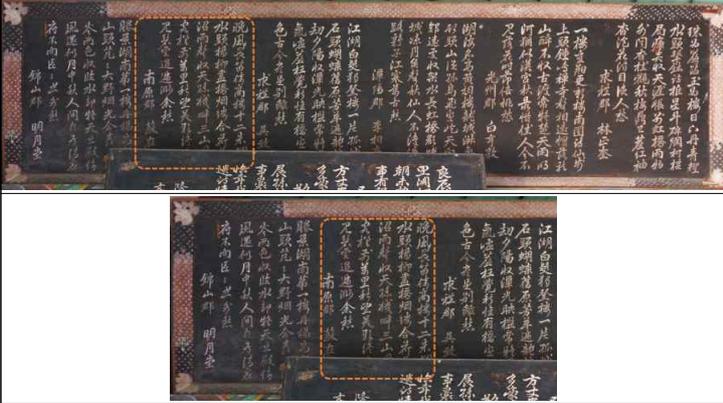
편역사진	번역
	<p>광한루</p> <p>날아 갈듯한 이 옥경 누각에 내가 앉고 보니 누각은 봉래산과 영주산의 높은 봉우리에 있더라</p> <p>몸은 하늘의 맑은 바람을 타고 쉽게 이곳에 오르고 마음은 구름 낀 은하수를 따라 호연지기가 솟구치네</p>
<p style="text-align: center;"><b>원문</b></p> <p style="text-align: center;"><b>廣寒樓</b></p> <p>飄然坐我玉京樓 樓在蓬瀛最上頭 身御天風容易到 心隨雲漢浩難收 百年詩酒平生志 一席笙歌半夜遊 乍倚朱欄驚罷夢 還羞名利世間求</p> <p style="text-align: right;">遲遲 金象欵</p>	<p>백여년 동안 시와 술로서 평생을 보내었고 피리와 노래 소리가 있는 곳에서 밤을 새웠네 아름다운 난간에 의지하여 잠깐 졸다가 깜빡 꿈에서 깨어난 듯 하니 세간에서 헛된 영화를 얻고자 했던 것이 도리어 부끄럽구나</p> <p style="text-align: right;">지지 김상흠</p>

편역사진	번역
	<p>옛날 우리 조부께서 이 누각에 오르시어 저술한 글이 이곳에 저장되어 흘러온지가 백년이 가까웠구나 지난해 봄에 이 고을에서 거듭 누각을 중수하면서 도배하고 단청을 하니 환연히 그 모습이 바뀌어 옛 부터 지금까지 윽었던 시구문을 차례로 걸었다 슬프도다 시경에 이르기를 뽕나무와 노나무에 새겨진 글 앞에서 반드시 존경하는 마음을 갖이라 했거늘 향차 선조가 술잔을 기울며 윽었던 이곳에 공경하고 사랑했던 한송이의 꽃과 하나의 돌덩이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대해야 옳을 것인가 이제 감히 한 구절의 시를 읊어 불초후손의 감회를 만분의 일이라도 펼쳐드리고자 하노라</p>
<p style="text-align: center;"><b>원문</b></p> <p>在昔我先祖考登斯樓 所述而 藏諸中 衍殆近百星霜矣 上年春 自鄉中 加修葺塗墍 丹雘煥然改觀而 今古吟咏 次第登揭 吟詩云 綠桑與梓 必茶敬止 況先祖聯吟之地 一花一石之所敬愛 當如何 哉 茲敢以一詩 續紹用寓 不肖感慕之萬一云爾</p> <p>乾坤俯仰一高樓 樓上瓊風吹滿頭 玉鏡芙蓉涼雨過 銀橋楊柳牛烟收 官門畫角知何日 藥府清詞感舊秋 風舊倚欄無人歌 水調天涯何處起寒愁</p> <p style="text-align: right;">辛亥 四月 日 不肖 孫 新 謹 識</p>	<p>하늘과 땅사이 이 누각이 솟아 있어서 누각 위에 시원한 비림을 맞으니 머리가 맑구나 아름답게 피어있는 연꽃에 서늘한 비가 지나고 은하수 다리의 수왕벼들에는 건우의 별빛이 서려있네 관에서 들려오는 나팔소리는 언제부터 울렸으며 악부에서 들려오는 청아한 곡조는 옛 정을 느끼게 하네 경치는 옛과 같으나 년에는 노래하는 사람이 없으니 물빛은 하늘빛과 어울리건만 어느 곳에서 근심이 일겠는가</p> <p style="text-align: right;">신미 사월 불초손 시권 근고</p>

편역사진	번역
	<p>이 누각을 중창하여 그 모습이 다시 새로워지니 남녘에 시인들이 그칠새 없이 모여들었네</p> <p>선원사 종소리는 멀리까지 울려 퍼지고 교룡산의 모습은 취한 나그네가 갓을 벗어 놓은듯 하구나</p> <p>옛 건널목에는 항상 초나라 하늘에서 내리는 비인가 의심이 되고 밝은 은하수는 한나라 궁전의 가을 빛과 흡사하구나</p> <p>가장 애석한 것은 정든 사람이 이제 보이지 않으니 떨어진 꽃과 무심한 세월이 더욱 수심만을 자아내는구나</p> <p style="text-align: right;">광주군 백형돈</p>
원문	
<p>一樓重創更新樓 南國詩仙步上頭 鐘鳴禪寺聲相遠 帽落龍山醉不收 古渡常疑楚天雨 明河猶似漢宮秋 最惜佳人今不見 落花時節倍挑愁</p> <p style="text-align: center;">光州郡 白亨敦</p>	

편역사진	번역
	<p>이름 높은 호남에 황희 정승이 이 누각을 세웠으니 용성 고을의 맑은 기운은 모두 이곳에 모였구나</p> <p>우뚝 솟은 저 산은 외로운 새와 더불어 허공에 떠있고 넓고 평평한 저 먼 땅은 하늘 끝과 맞닿았네</p> <p>물을 가로지른 긴 무지개 다리는 석양빛에 비치고 성안에 가득한 시원한 달 아래에 풍악소리 들려오네</p> <p>신선이 다시 찾지 않은 이 영주섬에 차가운 순자강 물만이 만고의 수심을 자아내네</p> <p style="text-align: right;">담양군 이상량</p>
원문	
<p>湖海名高黃相樓 龍城淑氣盡斯頭 山從孤鳥飛空屹 天向平郊遠處收 架水長虹橋影晚 滿城涼月角聲秋 仙人不復瀛洲路 鴨子江寒萬古愁</p> <p style="text-align: center;">潭陽郡 李相亮</p>	

편역사진	번역
	<p>구슬로 발을 엮고 옥으로 이 누각을 이루니 햇빛아래 이 단청은 물가에 비치네</p> <p>바리 치는 소리와 글 읊는 소리는 멀리 별무리에까지 이르고 도끼자루도 썩는 줄 모른다는 바둑 놀이에 흑독한 더위도 잊었구나</p> <p>비 온후 하늘에 무지개 다리에서 슬픈 이별을 나누고 계수나무 궁전에서 풍겨오는 가을 향기에 세간을 잊었구나</p> <p>붉은 매화꽃 향기는 이미 소매깃에 스며들고 눈에 가득한 물속에 핀 꽃은 사람의 근심을 자아내는구나</p> <p style="text-align: right;">구례군 임정규</p>
<p style="text-align: center;">원문</p>	
<p>珠爲簾箔玉爲樓 日下丹青耀水頭 擊鉢詩推星斗碎 爛柯棋局瘴炎收 天涯悵別虹橋雨 物外閒香桂觀秋 梅鼎已盡紅袖杳 泡花滿目使人愁</p> <p style="text-align: right;">求禮郡 林正璽</p>	

편역사진	번역
	<p>늦은 바람에 피리 불며 높은 누각에 기대어 보니 열두간의 아름다운 난간은 물 가운데 비치는구나</p> <p>실처럼 늘어진 수양버들은 다리가에 구름과 같고 연꽃이 피어있는 맑은 연못에 비소리는 그쳤구나</p> <p>직녀의 베틀가에는 삼신산의 달이 밝고 견우의 나그네 별은 노를 저어 먼길을 찾아오네</p> <p>아름다운 노래는 마쳤건만 사람들은 보이지 않고저 멀리 아득한 푸른 구름만 나의 수심을 자아내네</p> <p style="text-align: right;">남원군 소재택</p>
<p style="text-align: center;">원문</p>	
<p>晚風長笛倚高樓 十二朱欄壓水頭 楊柳畫橋烟縷含 荷花玉沼雨聲收 天孫機畔三山月 星客槎前萬里秋 望美歌終人不見 碧雲迢遞渺余愁</p> <p style="text-align: right;">南原郡 蘇在澤</p>	

편역사진	번역
	<p>강호에서 늙어 백발이 된 이가 홀로 이 누각에 오르니 한가닥 외로운 섬은 돌더미 같구나</p> <p>나비가 날던 옛 언덕에는 향기로운 풀이 가득하고 오랜 세월을 이어온 교룡산은 석양빛이 들었구나</p> <p>연못의 맑은빛이 난간에 비치니 항상 달이 떠있는가 의심되고 서늘한 대나무 기운이 대밭에 스며드니 가을인가 착각하였네</p> <p>오직 다리가의 수양버들 빛깔만이 예나 지금이나 이별의 근심을 간직하고 있네</p> <p style="text-align: right;">구례군 오치혁</p>
<b>원문</b>	
<p>江湖白髮獨登樓 一片孤城似石頭 蝴蝶舊原芳草遍 龍蛇往劫夕陽收 潭光映檻常疑月 竹氣噓簾枉覺秋 惟有橋邊楊柳色 古今盡是別離愁</p> <p style="text-align: right;">求禮郡 吳致麟</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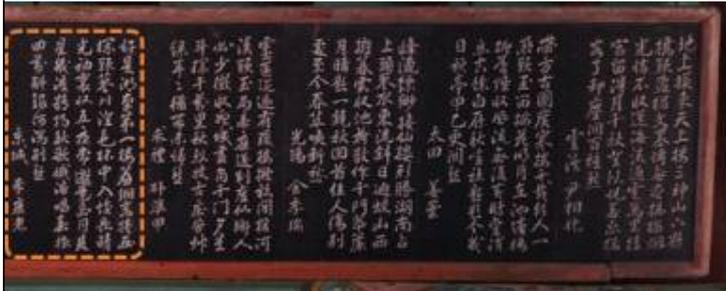
편역사진	번역
	<p>명승지인 호남에 제일가는 이 누각의 아름다운 사다리는 높이 푸른산에 걸친듯 하네</p> <p>풀이 무성한 넓은 들판은 안개빛을 머금었고 곧게 뻗은 먼 산봉우리는 비개인 뒤 색채가 아름답구나</p> <p>물가에 이르고 보니 문득 천상의 궁전인가 의심이 되고 바람에 의지하고 보니 도리어 가을 달밤에 서 있는듯 하구나</p> <p>인간 세계에 이러한 청허부가 있거늘 어찌 구차스럽고 구구하게 세상 밖에서 찾으려 하는가</p> <p style="text-align: right;">금산군 명월당</p>
<b>원문</b>	
<p>勝景湖南第一樓 丹梯高架碧山頭 芄芄大野烟光合 直直遙岑雨色收 臨水却疑天上殿 倚風還似月中秋 人間自有清虛府 不向區區世外愁</p> <p style="text-align: right;">鎭山郡 明月堂</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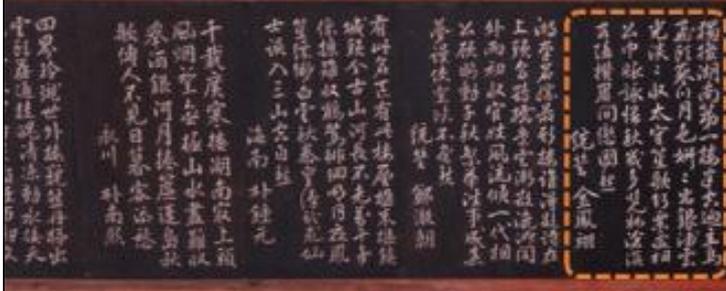
편역사진	번역
	<p>하늘의 누각을 본 따서 이 지상에 세우니 삼신산 아래에 오작교가 놓여 있구나 벽에 가득 차 있는 글들은 영원히 남아있고 난간에 스치는 연기빛은 애석하게도 걷히지 않는구나 봉래섬에 흐르는 물 위에는 구름이 만리까지 끼어있고 계수나무 궁전에는 밝은 달빛이 천추토록 머물러 있네</p>
원문	
<p>地上摸來天上樓 三神山下鵲橋頭 盈榻文墨傳無盡 拂檻烟光惜不收 蓬海流通雲萬里 桂宮留得月千秋 登臨恍若乘槎客 了却塵間百種愁</p> <p>靈溪 尹相化</p>	<p>때배를 타는 나그네가 황홀한 이 곳에 오르고 보니 세상의 모든 근심을 물리치게 되었네</p> <p>운계 윤상화</p>

편역사진	번역
	<p>대방 옛 고을의 이 광한루에는 천년동안 지나는 행인들이 한번쯤 들렸던곳 이라네 아름다운 피리소리와 매화꽃 향기에 밝은 달빛도 비쳐있고 연못가의 수양버들에는 저녁 연기가 서려있네 풍류 좋은 이곳에 황금의 꾀꼬리는 다시 찾을 수 없고 소식을 전하는 흰 기러기만 가을 허공을 나는구나</p>
원문	
<p>帶方古國廣寒樓 風流無復黃鸝金 千載行人一舉頭 消息空餘白雁秋 玉笛梅花明月在 塗社懸題今幾日 池塘楊柳暮烟收 旗亭甲乙更關愁</p> <p>大田 姜雲</p>	<p>글 짓기에 뾰혀 걸려진 글은 이제 얼마나 지났는고 깃발을 세운 정자에서 등급의 순서를 가리는 것도 또한 근심이라네</p> <p>대전 강운</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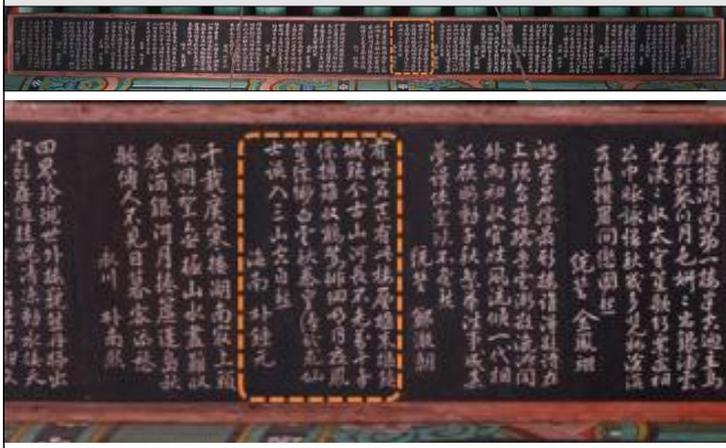
편액사진	번역
	<p>아득히 먼 봉래섬 봉우리는 이곳 신선의      눈각에 접했으니 아름다운 그 모습이 호남에서      제일 으뜸이로세</p> <p>동에서 흐르는 요천수에는 석양빛이 비치고      서편의 교룡산은 저녁 구름이 서려있네</p> <p>연못에 푸른 연잎은 여기저기 흩어져 천개의      무리를 이루었고 대발사이로 비친 밝은 달은      맑은 거울을 걸어 놓은 듯 하네</p> <p>머리를 들어 정든이와 애뜻하게 이별했던 곳을      바라보니 이제 봄풀만이 새삼스럽게 수심을      일으키게 하는구나</p> <p style="text-align: right;">광양 김계서</p>
<p style="text-align: center;">원문</p> <p>峰瀛縹緲接仙樓 池荷散作千門翠      形勝湖南占上頭 簾月晴懸一鏡秋      蓼水東流斜日迥 回首佳人傷別處      蛟山西擁暮雲收 至今春草喚新愁</p> <p style="text-align: right;">光陽 金季瑞</p>	

편액사진	번역
	<p>신령스런 이곳에 구슬같이 아름다운 누각이      있으니 한가한 틈을 타서 때배를 타고      은하수를 건넜네</p> <p>옥황상제는 마땅히 제도 (광한루) 를 남겼건만      신선 고을을 찾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구나      천호나 되는 이고을 성안에는 저녁 나팔소리가      들려오고 별빛이 스며드는 이 곳 난간에는      가을의 기운이 깃 들었구나</p> <p>열녀 춘향이 머물렀던 옛 터에는 향기로운      풀이 무성하건만 해마다 오히려 돌아오지 못한      근심을 간직하였구나</p> <p style="text-align: right;">구례 박준갑</p>
<p style="text-align: center;">원문</p> <p>靈區迢遞有瓊樓 州城畫角千門夕      擬放閒槎河漢頭 星斗欄千萬里秋      玉局帝應遺制度 烈妓古庄芳草綠      仙鄉人必少徵收 年年猶帶未歸愁</p> <p style="text-align: right;">求禮 朴準甲</p>	

편역사진	번역
 	<p>호남에서 제일 좋은 이 누각은 노란 대밭이 아름다운 난간에 높이 걸려있네</p> <p>요천수의 맑은 물빛은 술잔속에 비쳐 떠있고 교룡산의 맑은 빛은 소매깃에 스며드네</p> <p>새벽녘에는 항상 봉래섬이 밝은 달을 맞이하고 견우와 직녀별은 오작교를 몇번이나 건넜던고...</p> <p>노래하는 아가씨는 호탕하게 춘향곡을 부르니 은하수에 많은 이별의 회포를 쏟아 부었네</p> <p style="text-align: right;">경성 이강노</p>
<p style="text-align: center;">원문</p> <p>好是湖南第一樓 五夜常邀蓬島月 簾緋高捲畫欄頭 雙星幾渡鵲橋秋 蓼川澄色杯中入 歌娥浩唱春娘曲 蛟岳晴光袖裏收 萬斛銀河瀉別愁</p> <p style="text-align: right;">京城 李康老</p>	

편역사진	번역
 	<p>유별나게 뛰어난 호남의 제일인 이 누각은 새가 날 듯이 반공에 높이 솟았네</p> <p>요천강에 비친 달빛은 곱고 곱게 떠있고 맑은 여울에 비친 구름빛도 맑고 맑구나</p> <p>태수 (수령) 가 피리불고 노래하며 음악을 즐겼던 곳이요 의관을 갖춘 많은 재상들이 글을 읊고 지나간 곳이라네</p> <p>문물을 구경한 떠들이 나그네가 몇 번이나 은근히 두 눈썹을 찡그리며 나라 걱정에 연연했던고...</p> <p style="text-align: right;">통영 김봉익</p>
<p style="text-align: center;">원문</p> <p>獨擅湖南第一樓 太守笙歌行樂處 半空迥立鳥飛頭 相公巾服詠歸秋 蓼川月色妍妍出 幾多覽物滄溟客 銀浦雲光淡淡收 隱攢眉間戀國愁</p> <p style="text-align: right;">統營 金鳳翊</p>	

편역사진	번역
	<p>호남 경승지에 제일 으뜸인 이 누각에 글을 지을 적에 그 누가 최상이었던고…</p> <p>오작교 주위에는 구름이 점점 흩어지고 영주각 밖에는 비가 개이는 구나</p> <p>관가에 기생의 풍류는 한 세대를 자랑하고 재상들이 국사를 돌보는 것은 오래도록 감동시키네</p> <p>지나버린 변화한 삶은 한갓 봄 꿈이었으니 부질없이 이곳에 오르고 보니 수심을 지울 수 없구나</p> <p style="text-align: right;">통영 정철조</p>
<p style="text-align: center;">원문</p> <p>湖南名勝最斯樓 官妓風流傾一代 誰得題詩在上頭 相公顧眄動千秋 烏鵲橋邊雲漸散 繁華往事成春夢 瀛洲閣外雨初收 謾使登臨不慮愁</p> <p style="text-align: right;">統營 鄭澈朝</p>	

편역사진	번역
	<p>이름난 이곳에 이 누각이 있으니 층층의 기둥과 아름다운 난간이 성을 포옹하였네</p> <p>산과 물도 예나 지금이나 영원히 늙지 않고 천만년 이어지는 기상은 모두 다 걷우기 어렵구나</p> <p>밝은 달밤에 학을 타고 배회하고 흰 구름 뜬 가을에 저멀리서 봉황의 피리소리 들려오네</p> <p>진시황과 한무제는 신선을 부를수 있는 선비를 구하며 그릇되이 삼신산에 들게하니 공연히 수심에 빠지게 하네</p> <p style="text-align: right;">해남 박종원</p>
<p style="text-align: center;">원문</p> <p>有此名區有此樓 鶴駕徘徊明月夜 層楹朱檻鎖城頭 鳳笙縹緲白雲秋 今古山河長不老 秦皇漢武求仙士 萬千氣像摠難收 誤入三山空自愁</p> <p style="text-align: right;">海南 朴鍾元</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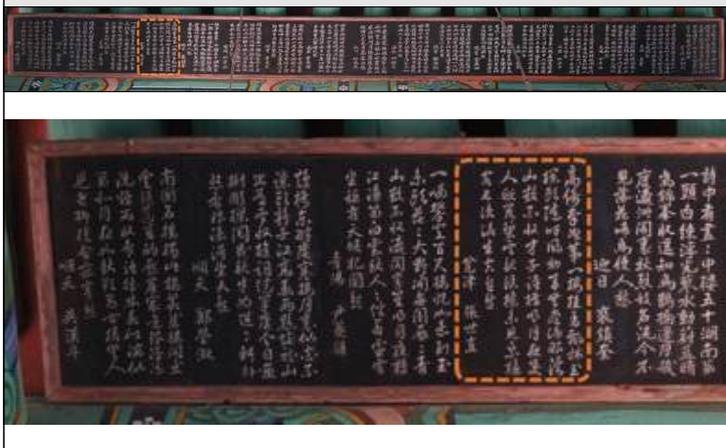
편역사진	번역
	<p>천년이나 되는 이 광한루는 호남에서        으뜸이라네        바람과 연기는 끝없이 바라보이고 산과 물의        모습은 그림으로 그리기 어렵구나        은하수 달빛아래 술잔을 들고 가을 봉래섬에는        대발을 몰아서 걸었네        노래는 전하여 오지만 그 사람은 보이지        않으니 저문날에 나그네 수심만 더하는구나</p> <p>영천 박남희</p>
<p style="text-align: center;">원문</p> <p style="text-align: center;">千載廣寒樓 舉酒銀河月        湖南最上頭 捲簾蓬島秋        風煙望無極 歌傳人不見        山水畫難收 日暮客添愁</p> <p style="text-align: center;">永川 朴南熙</p>	

편역사진	번역
	<p>사방으로 영통하게 비친 세상밖의 이 누각은        아름다운 난간이 구름끝에 높이 솟았네        계수나무 (달) 혼이 대발사이로 드니 서늘한        바람이 일고 물빛은 아래 위로 하늘빛과        이어졌구나        이 우주에는 몇 백겁의 세월을 지냈으며 글        잘하는 문필가는 끊이지 않고 천추에 이어지네        삼산산이 이곳에 있어서 신선을 맞이하게 되니        인간의 가슴에 피어오르는 근심이 모두 사라져        버리네</p> <p>남원 이동신</p>
<p style="text-align: center;">원문</p> <p style="text-align: center;">四界玲瓏世外樓 宇宙星霜經百劫        巍然丹梯出雲頭 文章翰墨續千秋        簾通桂魄清涼動 三山在此邀仙子        水接天光上下收 掃盡人寰烟火愁</p> <p style="text-align: center;">南原 李東信</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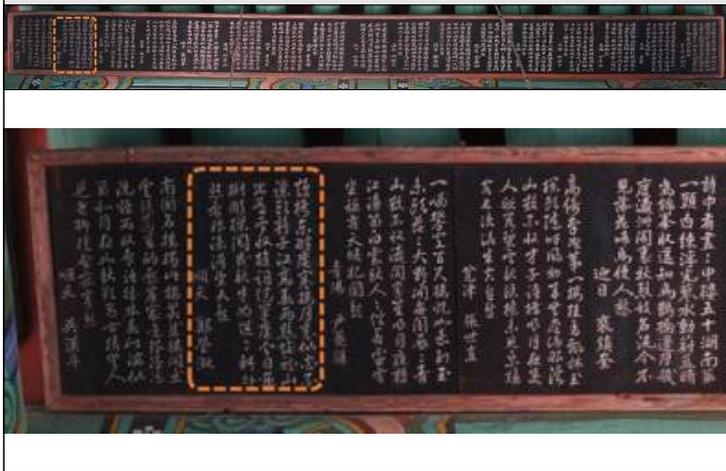
편역사진	번역
	<p>명승지인 호남의 이 높은 누각에 누구의 글이 오래도록 으뜸이 될 것인가</p> <p>굽이쳐 흐르는 요천수는 넓게 흐르고 첩첩이 쌓인 교통산에는 저녁 구름이 서려 있구나</p> <p>바람과 달빛아래 노닐며 술잔을 기울였고 아득히 먼 하늘과 땅사이에는 구슬 피리소리가 들려오네</p> <p>봉래섬과 영주섬은 지척에 있어도 소식이 끊기고 백발의 떠들이 인생은 수심을 금할 길 없구나</p> <p>임실 이봉래</p>
원문	
<p>湖南形勝此高樓 逍遙風月金樽夕 千古誰題最上頭 縹緲乾坤玉笛秋 蓼水一灣平楚澗 咫尺蓬瀛消息斷 蛟山數疊暮雲收 浮生白髮不禁愁</p> <p>任實 李鳳來</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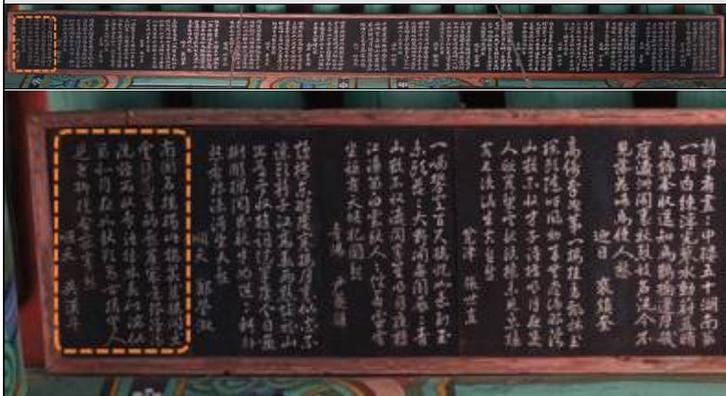
편역사진	번역
	<p>호남에 제일 누각이 있다고 들었거늘 날아갈 듯한 하늘의 누각에 오른것 같구나</p> <p>은하수가 비친 연못가에는 어부의 노래가 들려오고 오작교 가에서는 이별의 눈물을 짓네</p> <p>달 밝은 밤에 직녀의 베틀은 비어있고 낭군의 떼배를 타고 흰 구름을 헤치며 오는구나</p> <p>이곳에 온 나그네가 옛날을 생각하며 이제를 슬퍼하니 물빛과 산빛이 모두 수심에 잠긴 듯하네</p> <p>영월 박화영</p>
원문	
<p>聞道湖南第一樓 織女機虛明月夜 飄然如上玉垺頭 使君槎出白雲秋 銀河池畔漁歌答 傷今思古登臨客 烏鵲橋邊別淚收 水色山光總是愁</p> <p>寧越 朴華永</p>	

편역사진	번역
	<p>시 (詩) 가운데는 그림이 있고 그림 가운데 누각이 있으니 호남 오십 (五十) 고을에서 이곳이 제일이로구나</p> <p>흰 천처럼 떠있는 빛은 요천수에 아른거리고 쪽빛처럼 맑게 개인 기운은 금암봉을 들렀구나</p> <p>멀리 헤아려 보건대 오작교의 저 밝은 달은 영주각을 몇차례나 지났던고</p> <p>열녀로 이름난 기생들은 이제 보이지 않고 떨어진 꽃과 새들의 우짖는 소리만 사람을 수심에 젖게 하네</p>
<p style="text-align: center;"><b>원문</b></p> <p>詩中有畫畫中樓 遙知烏鵲橋邊月 五十湖南第一頭 幾度瀛洲閣裏秋 白練浮光蓼水動 烈妓名流今不見 蔚藍晴氣錦峰收 落花啼鳥使人愁</p> <p style="text-align: right;">迎日 裴鎮奎</p>	<p style="text-align: right;">영일 배진규</p>

편역사진	번역
	<p>남녘 고을 높은 제일 누각에 오르고 보니 계수나무 향기가 아름다운 이 난간에 풍기네 때를 따라 온갖 풍물들은 한량이 없고 눈 앞에 펼쳐진 시내와 산은 여러곳에 펼쳐있네</p> <p>재주있는 사람들은 밝은 달밤에 모여 술잔을 기울이며 시를 읊고 미인들의 노래와 피리 소리는 푸른 구름사이로 흩어지네</p> <p>다리에 이르러 떼배를 타고 오는 나그네를 볼 수 없으니 후세인 나로 하여금 공연히 혼자 수심에 잠기게 하네</p>
<p style="text-align: center;"><b>원문</b></p> <p>高倚南州第一樓 才子詩樽明月夜 桂香飄拂玉欄頭 美人歌管碧雲秋 隨時風物來無盡 臨橋未見乘槎客 滿眼溪山散不收 長使後生空自愁</p> <p style="text-align: right;">翁津 張世直</p>	<p style="text-align: right;">옹진 장세직</p>

편액사진	번역
	<p>휘파람 불며 난간을 잡고 백척 누각에 오르니        흡사 옥경 (옥황상제의 궁전) 에 오르는 듯        생각이 드네</p> <p>망망한 큰 들은 한없이 펼쳐있고 역역한        푸른산의 경치는 여러 곳에 흩어져 있네</p> <p>영주섬의 밝은 달밤에 난조 (상상의 새) 를 탄        신선의 피리소리가 들리고 흰 구름 뜬        순자강의 어부들 피리소리가 들려오네</p> <p>이곳에 오르는 사람마다 하늘의 궁전에 앉은        것 같으니 다만 기 (杞) 나라 사람들처럼        하늘이 무너질까 근심되네</p> <p style="text-align: right;">청양 윤기용</p>
원문	
<p>一嘯攀登百尺樓 瀛閣鸞笙明月夜        恍如意到玉京頭 鶉江漁笛白雲秋        茫茫大野開無闕 人人信若靈霄坐        歷歷青山散不收 祇有天傾杞國愁</p> <p style="text-align: right;">青陽 尹基鏞</p>	

편액사진	번역
	<p>오작교 동편에 세워진 광한루는 달나라 신선의        궁전과도 비길수가 없구나</p> <p>순자강에는 봄비가 내려서 어두어 보이고        교룡산에는 저녁 구름이 걷히는구나</p> <p>의미 깊은 글과 힘있게 쓴 글씨는 오늘에까지        이어지고 그림이 그려진 난간과 조각된        대들보는 몇해를 지냈던고...</p> <p>견우 직녀 별은 멀리 동헌 밖에 비쳐오니 춘향        낭자는 낭군을 그리는 수십만 더하게 되는구나</p> <p style="text-align: right;">순천 정영숙</p>
원문	
<p>鵲橋東畔廣寒樓 雄詞健筆廣今日        月裡仙宮不讓頭 畫榭彫樑閱幾秋        鶉子江高春雨黯 牛女迢迢軒外照        蛟龍山出暮雲收 香娘添得望夫愁</p> <p style="text-align: right;">順天 鄭榮淑</p>	

편역사진	번역
	<p>남녘에 이름난 누각은 오직 이 누각 뿐이니 날아갈 듯한 이 누각은 구름 끝에 다았구나 봉래섬은 분명히 혼탁한 풍진 세상과는 다르게 맑게 흐르는 은하수에 물안개 걷히네 흔들 거리는 숲에서 새소리 들려오는 봄은 바다의 물결과 같고 신선의 통소 소리는 가을밤에 달빛과 어울렸구나 옛 자취를 찾고자 하였으나 그 누구도 보는 이가 없으니 늙은 수양버들만이 오히려 적막속에 수심만 머금고 있네</p>
<p>원문</p>	
<p>南國名樓獨此樓 鳥語搖林春似海 翼然樓閣出雲頭 仙簫和月夜如秋 蓬萊的歷塵寰遠 欲尋古蹟無人見 銀漢清流烟雨收 老柳猶含寂寞愁</p> <p>順天 吳漢斗</p>	<p>순천 오한두</p>

편역사진	번역
	<p>용성 고을 남쪽 언덕에 높은 누각이 있으니 열 두칸 난간이 푸른 물가에 자리했구나 아름답고 고운 시내와 산은 지금도 변함이 없고 심상한 비바람은 이제 모두 다 그쳤네 달 밝은 은빛 여울에서 재능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시를 읊고 웅장한 옛 자취의 대방 고을에는 가을빛이 서렸구나 이 맑은 경내는 나와 깊은 인연이 있어서 오늘에 오르고 보니 문득 수심 이 사라지네</p>
<p>원문</p>	
<p>龍城南畔有高樓 才子新詩銀浦月 十二欄干碧水頭 雄藩舊跡帶方秋 佳麗溪山今不變 清境與吾緣又重 尋常風雨已全收 登臨此日便消愁</p> <p>太田 權喜榮</p>	<p>태전 권희채</p>

편역사진	번역
	<p>호남의 제일 누각을 중수하고 보니 천연의 신령스러운 경계가 자라 주춧돌에 내렸네 우뚝 솟은 방장산의 여러 봉우리에는 구름이 걸렸고 따뜻한 날씨의 요천강에는 상서로운 아지랑이가 걷히는구나</p> <p>항희 정승의 높은 풍류는 옛 일이 되었고 춘향이 머물던 옛 집은 몇해를 지냈던고… 광한루에서 신선들이 서로 마주하니 나의 인생은 백발이 되어 부끄럽기만 하구나</p>
원문	
<p>重整湖南第一樓 黃相高風成往古 天然靈境落鰲頭 春娘舊宅幾經秋 雲開方丈群峰屹 廣寒仙子遙相待 日暖蓼川瑞靄收 愧我人間白髮愁</p> <p>靈岩 全一 球</p>	<p>영암 전일구</p>

편역사진	번역
	<p>하늘 아래 어찌 이러한 누각이 있었던가 은하수가 수평으로 아름다운 난간을 휘 감았구나</p> <p>신선이 노니는 봉래섬에는 구름이 서로 어울리고 직녀별의 베틀에는 아직도 받침들이 남았구나</p> <p>천척의 높은 달은 멀리에서 거꾸로 서 있는 듯 난간을 비치고 바람따라 들려오는 긴 피리소리에 가을이 완연하구나</p> <p>그네를 매었던 늙은 나무의 향기가 세상 풍진에 사라지니 역력한 춘향 남자는 수심만 남기고 떠났구나</p>
원문	
<p>天下何曾有此樓 倒地危梯千尺月 銀河平挹玉欄頭 倚風長笛一聲秋 蓬仙列島雲相望 鞦韆樹老香塵暗 星女殘機石不收 歷歷春娘去後愁</p> <p>奉化 金石菴</p>	<p>봉화 김석창</p>

편역사진	번역
	<p>운환 (쪽진머리) 를 단장하고 신발을 끌며 이 누각에 오르니 열두칸 난간에는 천만가지의 모습이 그려졌구나</p> <p>관에서 신선을 맞이하여 맺었던 언약은 잊어지지 않고 춘향 낭자는 이미 떠났건만 그 향기로운 이름은 남아 있구나</p> <p>교룡산의 옛 성에는 밝은 달이 비치고 오작교에는 물만이 속절없이 흐르는구나</p> <p>아름다운 대밭은 건혀 있지만 나의 그대는 어디에 있는고 북녘의 구름과 은하수를 바라보니 소첩은 수심 뿐이라네</p> <p style="text-align: right;">임실 이정순</p>
원문	
<p>整雲鬟曳履登樓 月白明蛟龍城古 萬千像十二欄頭 水空流烏鵲橋秋 館仙邀清約難忘 捲珠簾吾君何在 春妓去香名不收 北雲漢漢妾正愁</p> <p style="text-align: right;">任賢 李貞淳</p>	

편역사진	번역
	<p>흥망이 거듭했던 모습을 이 누각에서 느낄 수 있으니 허물어진 옛 성터의 담장가에는 잡초와 나무가 무성하네</p> <p>신선을 맞이한 집밖에는 아침 구름이 흩어지고 직녀가 노닐던 오작교에는 저녁비가 그치는구나</p> <p>긴 바람을 타고 온 구슬피리 소리는 봉래섬에 들려오고 계수나무 궁전의 서늘한 달빛은 대밭 사이로 비쳐드네</p> <p>떼배를 타고 어떻게 하면 은하수를 건너서 인가 만고의 근심을 씻어 버릴 수 있을까</p> <p style="text-align: right;">순천 이영기</p>
원문	
<p>百廢俱興感此樓 玉笛長風蓬島夕 頽垣草樹古城頭 珠簾涼月桂宮秋 邀仙館外朝雲散 乘槎安得銀河水 織女橋邊暮雨收 滌盡人間萬古愁</p> <p style="text-align: right;">順天 李永基</p>	

편역사진	번역
	<p>용성고를 남쪽에 있는 이 광한루는 아름다운 난간과 푸른 나무 사이에 멀리 서 있네          고요한 밤에 물빛이 하늘에 이어지니 은하의 별이 반짝이고 달이 신선의 섬에 떠오르니          오색 구름이 흩어지는구나</p> <p>이름난 작가들이 써 놓은 시구는 오래도록 남아있고 긴 여름에 거문고 타고 바둑을 뒀니          흥취가 가을 같구나 당년에 빛났던 황희 정승의 모습을 부러워해서 지팡이 짚고 신발 끌며 한가로이 거니니 세속의 수심이 사라지네</p> <p style="text-align: right;">광양 장영효</p>
원문	
<p>龍城南面廣寒樓 名家詩筆留千古          迢遞紅欄碧樹頭 長夏琴棋訝九秋          夜靜水天星漢動 却羨當年黃相國          月生仙島彩雲收 逍遙杖屨絕塵愁</p> <p style="text-align: right;">光陽 張泳孝</p>	

편역사진	번역
	<p>천상의 궁전이 천하의 제일 누각이 되었으니          하늘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아름다운 이 난간에 이르렀구나</p> <p>서늘한 밤에 들려오는 물소리는 장대하게          흐르고 넓은 들과 많은 산들은 그 기세가 서로 어울려 있구나</p> <p>봉래섬은 일찌기 진(秦) 시황제의 그림에 담겨있고 은하의 별은 한나라 신선이 탔던 때배와 흡사하구나</p> <p>신선이 살았던 청구(靑邱)에서 전하여 불렀던 강남의 노래 가락에 또한 춘향이가 떠난 후의 수심만 자아내는구나</p> <p style="text-align: right;">임실 강상희</p>
원문	
<p>天上殿爲天下樓 蓬島曾經秦畫日          天風吹落玉欄頭 星河猶似漢槎秋          夜涼一水聲初壯 青邱傳唱江南曲          野濶群山勢欲收 也是春香去後愁</p> <p style="text-align: right;">任實 姜相熙</p>	

편역사진	번역
	<p>높고 높아 백척 이나 되는 이 누각에 오르니        봉래섬과 영주섬은 한 곳에 있구나        순자강가에서 봄풀이 무성하고 금암봉 위에는        흰 구름이 떠있구나</p> <p>시를 읊던 날에는 강호의 모든 선비가 다        모였고 많은 세월에 비바람을 맞아 퇴락한        누각을 중수하였네</p> <p>방촌 (황희정승) 께서 한번 떠난 후에는        산천이 적막하여 이제 수심만 더하네</p> <p style="text-align: right;">금포 조희진</p>
원문	
<p>巍巍百尺上高樓 江湖雅集題詩日        蓬島銀河指點頭 風雨重修過劫秋        鶉子江邊春草遍 一自龐翁歸去后        錦岩峰上白雲收 山川寂寞至今愁</p> <p style="text-align: right;">金浦 趙羲晉</p>	

편역사진	번역
	<p>이름난 문장들이 이 백척 누각에 모여 예나        지금을 도리켜 생각해 보니 쓸쓸하기만 하구나</p> <p>바람과 연기는 어제와 같지만 그 사람은        어디에 있고 노래가락만 꽃다움게 전하니        한스럽기 그지 없네</p> <p>역마터의 나무는 적성산에서 떠오르는 아침        해살에 잠겼고 견우의 별은 가을밤에 맑은        호수를 건너는구나</p> <p>석양에 햇살은 방망이고 강남땅을 부시는 듯        비치고 이수 (그水, 중국설화) 와 삼신산을        나의 근심 속에 들어 있구나</p> <p style="text-align: right;">담양 이진형</p>
원문	
<p>絶代文章百尺樓 驛樹朝沉赤城日        蕭條今古一回頭 牛星夜渡素河秋        風烟如昨人何在 斜陽欲碎江南杵        歌曲傳芳恨不收 二水三山入我愁</p> <p style="text-align: right;">潭陽 李鎭煥</p>	

편역사진	번역
	<p>물위에 떠있는 이 누각에 구슬피리 소리와 하늘 바람이 어울리니 용성고를 저 멀리 오작교까지 이어졌구나</p> <p>구름이 걷히니 봉래산이 고요히 비쳐오고 저녁비가 개이니 은하의 별들이 높이 떠 있구나</p> <p>열녀 기생의 맑은 노래가락은 백세까지 울려오고 명현들이 남긴 자취는 천추토록 빛나리라</p> <p>인간의 만남과 이별은 견우와 직녀의 만남과 같으니 한번은 즐거움이요 한번은 슬픔이로구나</p> <p>순천 정영하</p>
원문	
<p>玉笛天風水上樓 烈妓清歌鳴百世 龍城迥接鵲橋頭 名賢遺跡耀千秋 蓬萊山靜雲初捲 人間逢別如牛女 河漢星高雨晚收 一度相歡一度愁</p> <p>順天 丁永夏</p>	

편역사진	번역
	<p>이름난 남녘 고을에 이 누각이 있으니 세월의 허무함을 슬퍼한 나그네가 난간에 기대었네</p> <p>하늘에 바람과 달은 오고 가는 것이 끝이 없고 땅에 가득한 물과 산은 여러곳으로 흩어져 있구나</p> <p>성춘향이 살았던 마을에 매화나무는 비를 머금었고 관왕묘 밖 들판에 누런 보리는 가을인듯 하네</p> <p>해거름에 한쌍의 제비가 작은 연못위에 날으니 대들보에 새집을 짓고 옛 근심을 잊고 즐기는구나</p> <p>성주 김봉식</p>
원문	
<p>南國名區有此樓 成妓村邊梅送雨 傷時騷客倚欄頭 關王廟外麥登秋 一天風月來無盡 方池向晚雙飛燕 滿地河山散不收 爲賀新樑罷舊愁</p> <p>星州 金鳳植</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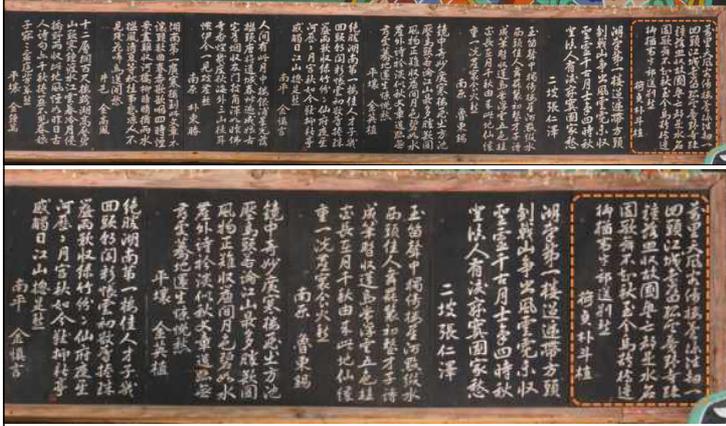
편역사진	번역
	<p>천상에 일찌기 이 누각이 있다고 들었는데 사람들이 이곳에 몇번이나 올랐던고 월궁의 향아가 약을 훔치려 하다가 부끄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직녀가 베짜는 북을 멈추고 눈물만 흘리고 있네 은빛 갯가에는 구름과 아지랑이가 사라졌다가 다시 피어오르고 계수나무 궁전에는 산과 넷물이 은연중에 비쳐있네</p> <p>이제 한나라 사신 (장건) 은 다시 소식이 없건만해해마다 푸른 풀만이 새삼스럽게 근심을 불러오네</p> <p style="text-align: right;">통영 이병호</p>
원문	
<p>天上曾聞有此樓 雲靄滅明銀浦景 人間登覽幾回頭 山河隱映桂宮秋 姮娥竊藥羞難掩 如今漢使無消息 織女停梭淚未收 綠草年年喚別愁</p> <p style="text-align: right;">統營 李秉昊</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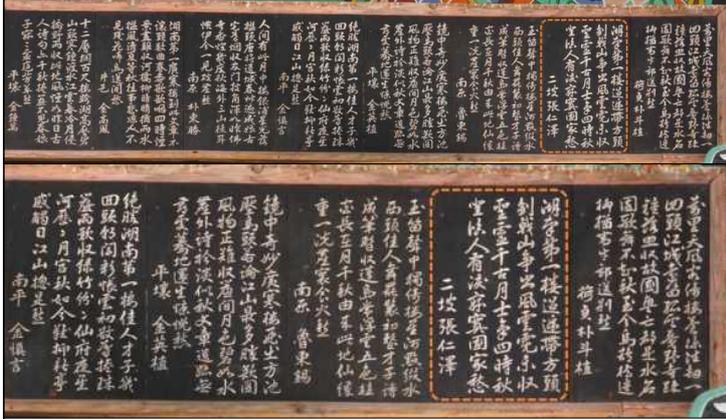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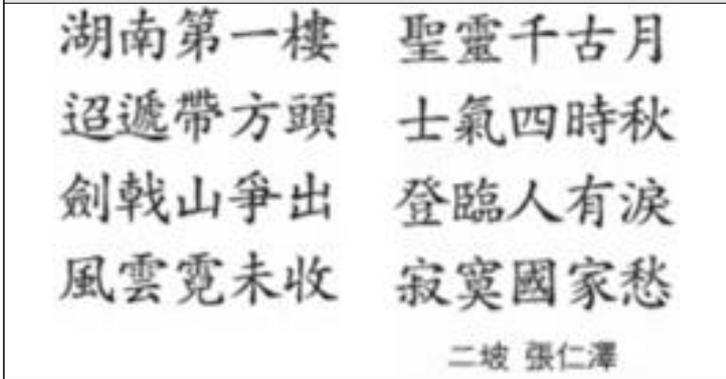
편역사진	번역
	<p>멀리에서 비쳐오는 별빛과 달빛이 이 누각에 가득하니 맑은 옥통소 소리는 푸른 구름 사이로 멀어져가네 호남에 제일 가는 명승지임을 스스로 알고는 있었지만 백천가지의 시구가 새겨진 줄은 미처 몰랐네 새벽 닭이 우니 먼 곳의 나무가지 끝에서 빛이 일고 가을에 나는 기러기의 그림자는 고요한 물결에 흔들리네 어 이하면 은하수 맑은 물을 한 움큼 떠서 인간의 찌든 열기의 근심을 씻어 볼거나</p> <p style="text-align: right;">평양 김군석</p>
원문	
<p>星斗迢迢月滿樓 遠樹生光鷄唱早 玉簫聲落碧雲頭 靜波搖影雁橫秋 自知第一湖南勝 何當掬取銀河水 未必百千詩上收 滌盡人間炎熱愁</p> <p style="text-align: right;">平壤 金均錫</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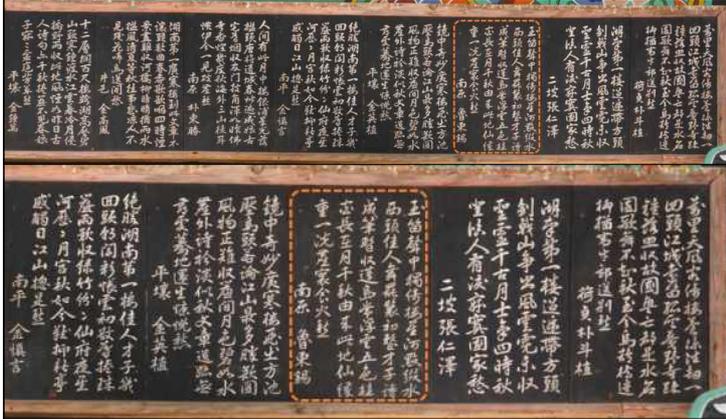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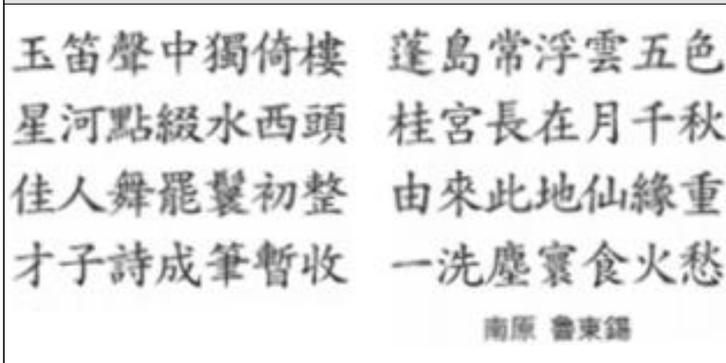
편역사진	번역
	<p>세상에 그 누가 이 누각을 세웠는가 주변에는 오작교도 있고 요천수도 있구나</p> <p>영주섬의 수풀은 봄비에 푸르렀고 교통산에 비치는 햇살에 오색 구름이 흩어지네</p> <p>서늘한 달밤을 타고 낭랑하게 여러 곡조를  읊었고 한가로이 별 밝은 밤에 떼배를 타고 가을을 노닐었네</p> <p>멀리에서 피리소리는 들려 오건만 그 사람은 보이지 않으니 연못 가운데 연꽃과 문앞의 버들가지에는 수심만 새롭구나</p> <p style="text-align: right;">구례 유흥용</p>
원문	
<p>世間誰復建斯樓 朗吟各調乘涼月 烏鵲橋邊蓼水頭 閑放星槎趁素秋 瀛閣林涼春雨碧 羽笛招招人不見 蛟城日射彩雲收 池荷門柳摠新愁</p> <p style="text-align: right;">求禮 柳興龍</p>	

편역사진	번역
	<p>이 고을 원로들이 합심하여 누각을 새로이 단장하니 붉은 주사와 푸른 먹으로 난간을 빛나게 하였네</p> <p>산 봉우리의 그늘이 탐 (자리) 에 가득하니 밝은 빛을 옮기고 석양의 빛이 비쳐오니 나무 그림자가 처마끝에 맴도는구나</p> <p>아름다운 여인과 흥안의 소년들은 달빛에 취해있고 글하는 사람들과 백발들은 짐짓 가을을 슬퍼 하는구나</p> <p>춘향이와 황희 정승은 지금 어디에 있고 예로부터 이곳에 오르는 사람마다 모두가 수심에 잠겼네</p> <p style="text-align: right;">광양 이경호</p>
원문	
<p>郡老同心葺舊樓 美女紅顏常醉月 丹砂翠墨耀欄頭 騷人白髮故悲秋 峯陰滿榻晴光轉 春香黃相今安在 樹影回簷夕照收 從古登臨摠是愁</p> <p style="text-align: right;">光陽 李炯鎬</p>	

편역사진	번역
	<p>광한루는 원래 이름난 누각이니 홀로 난간에 올라 머리를 들어 한번 살펴있네 하늘 궁전의 참 모습을 누가 다시 볼 것인가 인간세상의 좋은 경치는 이곳에 다 모였구 오작교에 비가 씻겨가니 은하수가 밝고 가을밤에 신선이 노니는 집에서 계수나무 향기가 풍겨오네</p>
원문	
<p>廣寒自是有名樓 鵲橋雨洗銀河夕 獨倚欄干一舉頭 仙館香飄桂子秋 天上眞宮誰更見 咫尺不知城市在 人間好景此堪收 儘教老我破塵愁</p> <p>金堤 趙季式</p>	<p>성안에 저저거리가 '지척에 있건만 그것을 알지 못하고이 늙은 나로 하여금 속세의 잡다한 수심에서 벗어나게 하는구나</p> <p>김제 조계식</p>

편역사진	번역
	<p>멀리 하늘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나그네가 누각에 의지하니 창량한 지난 많은 세월을 돌이켜 생각해 보았네 강가의 성에서 멀리 들리는 피리소리에 외로운 구름이 스쳐가고 들에 있는 절 (선원사) 에서 가끔 들려오는 종소리에 저녁 노을이 비치는구나 옛 나라의 흥망성쇠는 흐르는 물과 같고 이름난 이 공원에서 노래하고 춤을 추니 가을인 줄을 알지 못하였네 지금까지 오작교 가의 버드나무에는 오히려 견우와 직녀가 이별했던 수심을 지고 있구나</p>
원문	
<p>萬里天風客倚樓 故國興亡都是水 蒼涼往劫一回頭 名園歌舞不知秋 江城遠笛孤雲憂 至今烏鵲橋邊柳 野寺疎鍾落照收 猶帶牛郎送別愁</p> <p>荷貞 朴斗植</p>	<p>하정 박두식</p>

편역사진	번역
	<p>호남의 제일 누각이 멀리 이 대방고을에 자리 잡았구나</p> <p>칼과 창처럼 뾰족한 산 봉우리가 서로 높이 솟았고 바람과 구름과 무지개는 항시 걷히지 않았구나</p> <p>성스러운 달빛은 영원히 비치고 선비의 기상은 사계절 이어지네</p> <p>이곳에 오르는 사람마다 눈물이 맺히니 적막하게 나라 근심에 젖어있네</p> <p>이파 장인택</p>
<p>원문</p>	
	

편역사진	번역
	<p>옥피리 소리 들으며 홀로 누각에 오르니 별빛과 은하수는 서쪽 물가에 아름답게 장식 되었네</p> <p>아름다운 여인이 춤을 멈추고 머리결을 다듬고 글 재주있는 남정네가 글짓는 붓을 잠시 멈추었구나</p> <p>봉래섬에는 항상 오색구름이 떠있고 계수나무 궁전에는 오래도록 천추의 달이 밝았네</p> <p>유서 깊은 이곳은 신선과 인연이 깊으니 속세에서 잠시나마 먹고사는 근심을 잊어 볼까 하노라</p> <p>남원 노동석</p>
<p>원문</p>	
	

편역사진	번역
	<p>거울에 비친 것 같은 기묘한 이 광한루는 연못위에 날듯이 솟았으니 날 짐승인들 당할 수 있으랴</p> <p>만약 강산으로 말하자면 최고의 명승지요 풍물로 그려보고자 하나 화폭에 담기 어렵구나</p> <p>대밭 사이로 비치는 달빛은 물처럼 푸르고 속세를 벗어난 시인의 가슴은 가을처럼 고요하고 맑구나</p>
원문	
<p>鏡中奇妙廣寒樓 簾間月色碧如水 飛出方池壓鳥頭 塵外詩衿淡似秋 若論江山最多勝 文章遺跡無尋處 欲圖風物正難收 驀地還生慷慨愁</p> <p>平壤 金英植</p>	<p>문장들이 남긴 자취는 이제 찾을 곳이 없고 먼 세월을 뛰어넘어 이곳에 환생하니 슬픈 강개 뿐이로구나</p> <p>평양 김영식</p>

편역사진	번역
	<p>뛰어난 명승지 호남의 제일 누각에 아릿다운 여인과 호걸스러운 남정네가 몇번이나 찾았던고</p> <p>아침에 화려한 장막을 여니 구름이 흩어지고 해거름에 아름다운 대밭을 걷으니 비가 개려 하는구나</p> <p>신선 고을의 밤에는 푸른 대나무 그림자가 뒤엉켜있고 달뜨는 가을밤에 별빛과 은하수가 뚜렷하구나</p>
원문	
<p>絕勝湖南第一樓 綠竹紛紛仙府夜 佳人才子幾回頭 星河歷歷月宮秋 朝開彩帳雲初散 如今難抑新亭感 暮捲珠簾雨欲收 觸目江山總是愁</p> <p>南平 金慎言</p>	<p>이제 다시 새로운 정자에 오르고 보니 감회를 이기기 어려우니 눈에 비친 강산의 모습은 모두가 수심 뿐이라네</p> <p>남평 김신언</p>

편역사진	번역
	<p>인간 세상에 이러한 달속의 누각이 있으니 은빛 여울가에 비치는 별빛은 난간 머리에 떨어지는구나</p> <p>당나라 장수의 자취가 남은 이 성터에는 봄풀이 무성하고 춘향 낭자가 머물었던 옛 집에는 저녁연기가 걷히는구나</p> <p>관가에서 들려오는 풍악소리는 혼연히 어제와 같고 불사에 켜진 향기로운 등불은 몇 년이나 흘렀던고...</p> <p>바다 밖에 삼신산이 있다는 것은 귀로 익히 들었을 뿐 이제라도 한번만 보았으면 속세의 근심을 깨트리련만...</p>
원문	
<p>人間有此月中樓 官門鼓角渾如昨 銀浦星光落檻頭 佛寺香燈幾度秋 唐將遺城春草遍 海外三山徒耳慣 成娘古宅暮烟收 伊今一見破塵愁</p> <p>南原 朴東勝</p>	<p>남원 박동승</p>

편역사진	번역
	<p>호남의 제일인 이 광한루에 이곳에 이르른 문장들은 서로 글을 양보하지 않네</p> <p>몇 곡의 춘향가를 부르다가 보니 목이 메인 듯 하고 사시절 끼어있는 안개빛은 화폭에 담기 어렵구나</p> <p>은하수 다리에 버들색이 짙으니 개였으나 비가 온 것 같고 물가의 난간에 바람이 맑으니 여름인데도 가을 같구나</p> <p>지나간 일들은 슬프고 냉담하여 그 사람은 보이지 않고 시들어진 꽃과 새움 소리만 한가로이 수심을 달래네</p>
원문	
<p>湖南第一廣寒樓 河橋柳暗晴猶雨 到此文章不讓頭 水檻風清夏等秋 數曲春香歌欲咽 往事悲涼人不見 四時烟景畫難收 殘花啼鳥送閒愁</p> <p>井邑 金高鳳</p>	<p>정읍 김고봉</p>

편역사진	번역
	<p>열 두 층계의 난간으로 이루어진 백척 이 누각은 호수에 걸쳐있는 모습이 푸른 산을 누르는 구나</p> <p>종소리는 물 건너 강가의 저녁 구름에 서려있고 달빛이 다리에 스며드니 들에는 비가 개었네</p> <p>이곳의 풍경은 어제와 다름없고 옛 사람들의 시구는 천추에 남아 있구나</p> <p>대밭을 건너어도 춘향 낭자는 보이지 않으니 적막한 빈 들에는 꽃다운 풀만이 수심에 잠겨 있구나</p> <p style="text-align: right;">평양 김종만</p>
원문	
<p>十二層欄百尺樓 此地風煙如昨日 跨湖高壓碧山頭 古人詩句亦千秋 寒鐘渡水江雲暮 捲簾不見春娘子 冷月侵橋野雨收 寂寂虛庭芳草愁</p> <p style="text-align: right;">平壤 金鍾萬</p>	

편역사진	번역
	<p>백리길 용성 고을에 자리잡은 이 누각에 오르는 사람의 말소리가 하늘 끝까지 이르렀네 구름이 걷히는 영주각에 신선이 돌아왔고 길과 접한 긴 다리에 나그네가 끊이지 않는구나</p> <p>저잣거리에 가까우니 대낮에 떠드는 소리는 탓할 수 없고 연못에 떠있는 연꽃은 한가로이 맑고 고운 가을을 즐기네</p> <p>지나간 세월의 자취들은 이제 한낱 꿈과 같으니 다만 남녘 열녘의 한만 남아 있구나</p> <p style="text-align: right;">남원 임종한</p>
원문	
<p>百里龍城鎮一樓 市近不嫌喧白日 登臨人語落天頭 荷浮自得好清秋 雲開瀛閣仙初返 往時遺蹟今如夢 路接長橋客未收 只恨南方烈妓愁</p> <p style="text-align: right;">南原 林鍾翰</p>	

편역사진	번역
	<p>옛 누각을 모두 수리하고 보니 호남의 명승지에서 제일 으뜸이구나 완만한 교통산 구비진 곳에 강물소리가 빼어나고 저녁 노을에 가마귀 까치가 모조리 날아가는구나 유량 (인명) 이가 술잔을 들고 속절없이 달빛에 취해있고 종선 (인명) 이가 지은 글은 몇해나 되었던고 춘향 남자의 이별을 어찌 원망하리오 우리들이 이곳에 오르고 보니 또한 수심에 잠기는구나</p>
원문	
<p>一切新修尚古樓 庾亮携樽空醉月 湖南名勝最居頭 仲宣有賦幾悲秋 蛟龍宛轉江聲秀 春香離別曾何怨 烏鵲齊飛夕照收 吾輩登臨亦是愁</p> <p>麗水 朴奉基</p>	<p>여수 박봉기</p>

편역사진	번역
	<p>동쪽 고을에 이 광한루가 있으니 은빛 어울가에 흐르는 물은 달빛이 가득하구나 장막을 걷고 산천을 바라보니 시흥이 돌아나고 창문사이로 비치는 아름다운 경치는 화폭에 담기 어렵구나 우뚝 솟은 교통산 봉우리에는 항시 비가 내리고 오작교의 다리는 봄과 가을에 이루어지네</p>
원문	
<p>東方有此廣寒樓 蛟龍峰屹常多雨 銀浦溶溶月滿頭 烏鵲橋成春及秋 卷幔山川詩得助 黃相一歸終不返 隔窓勝狀畫難收 南原綠草喚人愁</p> <p>珍島 河樂天</p>	<p>한번 떠난 황희 정승은 끝내 돌아오지 않으니 남원 고을에 푸른 풀만이 사람의 수심을 자아내는구나</p> <p>진도 하병천</p>

편역사진	번역
	<p>가던 말을 멈추고 석양에 홀로 누각에 올라      망망한 하늘과 땅을 두리번 거려 보았네      호화로웠던 옛 나라에 청산은 그대로이고      적막한 외로운 섬에는 잔비가 개었구나      신선은 만나기 어려운데 구름은 만리까지      뻗어있고 월궁의 향아는 속절없이 천추토록      달빛만 마주하는구나</p>
원문	
<p>立馬斜陽獨倚樓 仙子難逢雲萬里      茫茫宇宙一回頭 姮娥空對月千秋      豪華故國青山在 誰人更似黃丞相      寂寞孤城白雨收 廣庇風霜送遠愁</p> <p>南原 蘇煥永</p>	<p>그 누가 다시 황희 정승 같은 분이 있어서      온갖 풍상을 막아주어 근심을 멀리 보내줄      것인가</p> <p>남원 소환영</p>

편역사진	번역
	<p>천상의 광한전 아래에 이 누각을 세우니      평지가 마치 하늘 끝에 이른 것 같구나      예나 지금이나 시인들은 가슴에 감회가 서리고      동남 경계의 풍경들은 화폭에 담기 어렵네      달 밝은 밤에 오작교는 나즈막하게 보이고      흰구름 떠있는 가을에는 봉래섬이 가까이 있는      듯 하구나</p>
원문	
<p>廣寒殿下起斯樓 烏鵲橋低明月夜      平地如天最上頭 蓬萊島近白雲秋      今古詩人多曠感 時來幸得重修力      東南風物畫難收 從此登臨也不愁</p> <p>新興 李奎英</p>	<p>다행히 때가 되어 힘들어서 중수를 하고 보니      이 후부터는 오르더라도 근심 할 것이 있으라</p> <p>신흥 이규영</p>

편역사진	번역
	<p>옛적에 이름난 광한루가 있다고 들었으나 오늘에 와서야 비로서 오르게 되었네</p> <p>은빛 여울에 밝은 빛은 집집마다 비쳐오고 봉래산의 푸른빛은 대발사이로 스며드는구나</p> <p>옹이 떠난 후에 큰 굴에는 찬 물결만 일고 기러기 날아 드는 가을에 먼곳의 소식은 끊겼구나</p> <p>해저문 이 고을 관문에는 갈길이 머니 신령스런 이곳의 풍물들이 사람으로 하여금 수심에 들게 하네</p> <p style="text-align: right;">기장 박종식</p>
<p style="text-align: center;">원문</p> <p>昔聞名勝廣寒樓 大窟波寒龍去後 今日方須到上頭 殊方書斷雁來秋 銀浦晴光當戶轉 日暮鄉關前路遠 蓬山適翠入簾收 靈區雲物使人愁</p> <p style="text-align: right;">機張 朴琮植</p>	

편역사진	번역
	<p>남녘의 풍광이 제일인 이 누각에 봉래와 영주의 모든 섬들은 자라머리 (주춧돌) 에 세워졌네</p> <p>가로노인 오작교에는 은빛 물결이 일렁이고 높이 솟은 교룡산에는 간밤의 안개가 걷혔구나</p> <p>달 밝은 밤 웅장한 이 고을에는 피리소리가 이어지고 천 구름 깐 가을에 높은 곳에서 인경 소리가 들려오네</p> <p>가장 가여운 것은 성밖에 무성한 수양버들이요 춘향 남자와 이별했던 수심은 한량이 없구나</p> <p style="text-align: right;">태전 김창수</p>
<p style="text-align: center;">원문</p> <p>南國風烟第一樓 雄府笙歌明月夜 蓬瀛群島在鰲頭 上方鐘磬白雲秋 橋橫鳥鵲銀波溢 最憐城外依依柳 山出蛟龍宿霧收 不盡春娘送別愁</p> <p style="text-align: right;">太田 金昌洙</p>	

편역사진	번역
	<p>사월달에 나그네가 용성고을의 이 누각에 오르니 먼 지난 일들이 곰곰히 떠올라 흰 머리를 극적거리네</p> <p>황희 정승의 풍류는 뜬 구름과 함께 흩어지고 성춘향 낭자와 이별은 비와 함께 사라지네</p> <p>오작교에 이끼 낀 파란 주춧돌은 옛 모습 그대로이고 난간 밖에 비치는 은하수는 서늘한 가을 기운이 드는구나</p> <p>신선들은 오지 않거만 삼신산에 날이 저물어 서편으로 머뭇머뭇 저물어 가는 해를 보니 수심을 금할길 없네</p>
<p style="text-align: center;"><b>원문</b></p> <p>龍城四月客登樓 橋邊機石蒼然古 往事悠悠搔白頭 檻外銀河冷似秋 相國風流雲共散 仙子不來三島晚 成娘別後雨同收 躑躅西日未禁愁</p> <p style="text-align: right;">高歡 南廷學</p>	<p style="text-align: right;">고창 남정학</p>

편역사진	번역
	<p>누각 아래에 은하수가 비치니 오히려 누각이 은하수에 있는 듯 하고 누각 앞에 봉래섬은 자라머리 (주춧돌) 에 떠있네</p> <p>나즈막하게 떠도는 별들은 북두칠성과 서로 가까이 있고 은연중에 떠오르는 무지개 다리는 시령처럼 걸쳐있네</p> <p>연못에 가득히 일렁이는 물빛은 달빛과 어울리고 청허부 (달의 궁전) 의 맑은 바람은 가을인 듯 하구나</p> <p>어여쁜 아가씨는 이곳에 오른 나그네를 물리치지 않고 무지개 치마로 춤추고 노래하며 근심을 잊도록 흔쾌히 허락하였네</p>
<p style="text-align: center;"><b>원문</b></p> <p>樓下銀河河上樓 灩澦池光多得月 樓前蓬島出鰲頭 清虛風氣易爲秋 低回斗宿杓相近 素娥不棄登臨客 隱約虹橋架未收 許聽霓裳快送愁</p> <p style="text-align: right;">星州 襄旭鴻</p>	<p style="text-align: right;">성주 배옥홍</p>

## 20. 울주 천전리 각석 지정명칭 변경 검토

### 가. 제안사항

「울주 천전리 각석」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명칭 변경 신청을 다음과 같이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국보 지정 당시 기하학적인 문양과 각종 인물·동물상이 표현된 암각화보다는 제작시기와 내용이 명확한 신라시대 명문의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음. 이후 암각화에 대한 다양한 조사 연구가 이루어짐에 따라 선사시대 그림의 중요성이 재인식되고 있어 암각화로 명칭 변경이 필요함.
- 현재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반구천의 암각화’에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와 함께 등재 핵심 요소이므로 명칭 일원화 필요.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울산광역시
- (2) 대상문화재 : 울주 천전리 각석
  - 소재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산 210-2
  - 지정일 : 1973. 05. 04. / 국보 지정
- (3) 신청내용 :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명칭 변경

현행 명칭	변경 신청 명칭
울주 천전리 각석 (蔚州 川前里 刻石)	울주 천전리 암각화 (蔚州 川前里 岩刻畫)

- 라. 현지조사 의견('23.08.08. /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 (○○○) 암반에 수많은 동물상의 암각화와 신라사 연구에 중요한 금석문이 동시에 새겨진 유적이고 명문상 서석곡(書石谷)이라 부른 기록이 있으므로
    - ▶‘울주 천전리 암각화 및 서석곡’, ▶‘울주 천전리 암각화 및 명문’ 제안함.
  - (○○○) 문자와 문양, 다양한 그림 등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암각화’로 명칭변경 하는 것이 타당함. 또한 ‘각석’은 통상 이동 가능한 석재의 명문을 칭하는 것으로 이해됨.
  - (○○○) 현재의 명칭은 선사시대의 암각화보다 신라시대의 명문만을 지칭하는 의미로만 인식될 수 있으므로, ▶‘울주 천전리 암각화와 신라 명문’, ▶‘울주 천전리 암각화 및 신라 각자’ 등을 제안함.

#### 마. 의결사항

- 보류
  - 지정 명칭안 재검토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보류 9명

# 의견서

□ 조사일시 : 2023. 08. 08.(화)

□ 조사내용 : 울주 천전리 각석 문화재 명칭변경

□ 조사의견

천전리 각석은 1970년 12월 24일, 동국대학교 박물관 불적조사단에 의해 발견된 이래 1973년 5월 국보 제147호로 지정되었다. 발견 당시에는 “울주 천전리 書石”이라 불리워졌지만 국보 지정시 “蔚州 川前里 刻石”으로 확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천전리 각석에는 동물상 52점, 인물 24명, 기하문 81점, 문자 127자 등 모두 625점의 다양한 물상이 새겨 있다. 이중 동물상에는 고래와 사슴, 말 등이 중심을 이루고 있어 인근에 자리한 반구대 암각화와 일맥상통하는 면면을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하단부에 새겨진 명문을 통해 신라 법흥왕대인 525년과 539년에 왕경에서 귀족, 승려 화랑 등이 이곳을 찾았음을 알려주고 있다. 특히 525년의 명문에 의하면 이곳의 지명을 법흥왕의 동생이 사부지갈문왕이 “書石谷”이라 정했음을 밝히고 있다. 이처럼 천전리 각석에는 인근의 반구대 암각화와 동일한 문화상을 보여주는 다양한 동물상과 더불어 신라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금석문이 공존하고 있다. 때문에 유적에 대한 초기의 연구는 자연스레 금석문에 모아졌고, 이 같은 경향은 “울주 천전리 각석”으로 지정 명칭이 정해지는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와 “울주 천전리 각석”을 하나의 유적으로 묶어 “반구천 일원의 암각화”라는 명칭으로 세계문화유산으로의 지정을 추진하는 가운데서 “울주 천전리 각석”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논의가 시작되었다. 즉, 유적의 명칭을 “울주 천전리 암각화”로 변경해 기왕의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와 통일성을 이루고자 했다. 이에 따라 2023년 6월 23일에 개최된 울산광역시 문화재위원회에서도 명칭변경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이를 원안가결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2023년 7월 11일에 개최된 “국보 울주 천전리 각석 명칭 변경을 위한 학술세미나”가 개최되어 기왕의 “울주 천전리 각석”으로 불리우던 유적의 명칭을 “울주 천전리 암각화”로 변경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된 바 있다.

刻石이라는 명칭은 “글자나 무늬 따위를 돌에 새김”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즉, 비석과 같이 다듬은 석재에 글씨 등을 새긴 유물을 부르는 명칭이다. 하지만, 이 유적은 너비 9.5m. 높이 2.7m의 암반에 수많은 동물상의 암각화와 신라사 연구에 중요한 금석문이 동시에 새겨진 유적이다. 따라서 이 유적에 대한 명칭으로 사용된 “각석”이란 용어는 부적절한 표현임을 알 수 있다. 아마도 현재 사용되는 유적의 명칭은 발견 당시부터 암각화보다는 명문의 내용 판독과 이에 대한 연구에 집중된 당시의 연구 경향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 따라서 울주 천전리 각석이라는 지정 명칭의 변경되어야 한다는 현지 및 세미나의 결론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술세미나에서 결론으로 도출한 “울주 천전리 암각화”로의 변경은 유적의 전체적인 내용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즉, 이 유적은 암각화와 금석문이 공존하는 복합적인 유적이다.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는 신석기대 후기로부터 신라시대를 아우르는 넓은 시간적인 영역을 지니고 있다. 더불어 초기에 유적의 명칭을 정하면서 범흥왕대의 각석에 주목했던 석학들의 의견 또한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유적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유적이 지닌 전체적인 특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은 유적의 상황을 볼 때 변경되는 지정 명칭에는 암각화와 금석문을 포함하는 내용이 모두 포함 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유적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암각화”라는 명칭의 사용에는 문제가 없다. 따라서 “**울주 천전리 암각화 + 금석문**”의 내용으로 정리된 명칭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금석문을 표현함에 있어 다음의 두 가지 안이 대두된다.

첫째, 암각화와 함께 새겨진 명문에,

“乙巳年(525년, 범흥왕 12년) (前略) 옛날부터 이름이 없던 골짜기였는데, 좋은 돌을 얻어 쓸 수 있게 되니 이름 짓기를 書石谷이라 하시고 글자를 적게하셨다. (後略)”

라는 내용에서 암각화와 더불어 암각화가 새겨져 있고, 이어 글자를 새겼던 암반이 있는 이 계곡을 서석곡이라 命名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암각화와 금석문이 새겨진 유적이 존재하는 계곡의 지명을 혼합한 “**울주 천전리 암각화 및 書石谷**”

둘째, 암각화와 더불어 金石이나 器皿 따위에 새긴 글을 지칭하는 銘文이라는 용어를 조합해 “울주 천전리 암각화 및 銘文”

기왕에 불리우던 “울주 천전리 각석”이라는 지정명칭은 유적의 특성을 전체적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지정명칭의 변경을 요망하는 의견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유적이 지닌 특수성을 고려할 때 상기의 두 가지 안을 제안한다.

문화재위원 ○○○ (인)

# 의견서

□ 조사일시 : 2023. 08. 08.(화)

□ 조사내용 : 울주 천전리 각석 문화재 명칭변경

□ 조사의견

울주 ‘천전리 각석’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에 있는 선사시대 바위그림유적이며 삼국시대에 새긴 명문도 함께 있다. 태화강의 지류인 대곡천의 중간 지점에 있고, 그림이 새겨진 바위는 연한 갈색 판암석으로 그림이나 글씨를 새기기 좋은 무른 암질이다. 바위면이 떨어져나간 쪽이 많아 뚜렷한 모습을 알 수 없는 그림도 있다.

‘천전리 각석’은 우리나라 최초로 학계에 보고된 암각화 유적으로 발견 당시에는 명문에 비해 암각화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국보 지정 시 명문이 평가 가치의 중심이 되면서 각석으로 칭하게 되었다. ‘천전리 각석’ 이후 약 30여 곳에 새로운 암각화 유적이 확인되었고, 천전리 암각화에 대한 연구 성과가 축적되면서 유적의 유형상 명칭을 암각화로 칭하고 있다. 이에 울주군은 유사 문화재는 대부분 암각화로 칭하고 있는 반면 최초로 보고된 ‘천전리 각석’만 암각화가 아닌 각석으로 불리고 있어 유적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더불어 반구천 일원의 암각화 중 하나로써 세계유산 등재를 준비 중인 ‘대곡천 암각화’를 구성하는 중요 유적이므로 시대적 요구와 세계유산 등재 상의 이유로 ‘천전리 암각화’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한다.

현지에서 검토한 바 1973년 지정 당시 ‘원명’과 ‘추명’ 등 명문에 학술적 가치를 부여하여 문화재 명칭을 정했으나, 이후 기하학적 문양, 동물상, 인물상 등이 확인되면서 총 625개의 문양 중 문자가 127개, 그림이나 형태를 알 수 없는 것이 307개로 문자와 문양, 다양한 그림 등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암각화로 명칭변경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또한 유사한 문화재들이 모두 암각화로 칭해지고 있어 문화재 명칭의 통일성을 위해서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특히 ‘천전리 각석’의 ‘각석’은 통상 이동 가능한 석재의 명문을 칭하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일반인이 바위에 새겨진 그림과 글씨 모두가 표현되어 있다고 이해하기에 충분치 않다고 판단되는 면도 있어 명칭 변경의 필요성은 충분히 확인하였다.

다만 단순히 ‘천전리 암각화’라 변경할 경우 암각화가 그림과 글씨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의 명칭이라 하나 그림 위주로 설정된 개념의 명칭이므로, 문화재의 원래 가치로 평가되는 명문에 대한 내용이 표현될 수 있는 새로운 명칭의 검토는 필요하다 사료된다.

문화재전문위원     ○○○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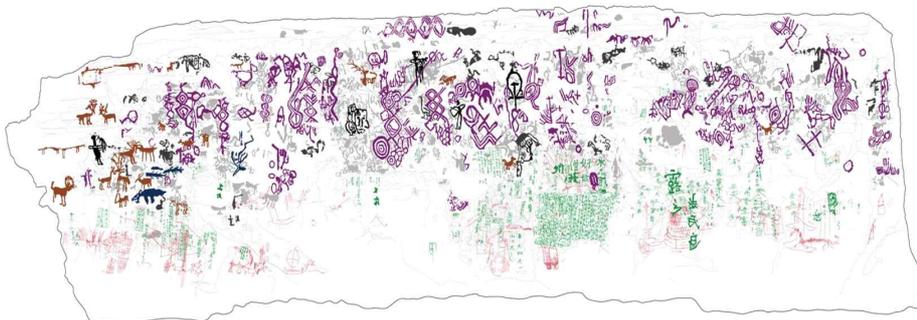
# 의견서

□ 조사일시 : 2023. 08. 08.(화)

□ 조사내용 : 울주 천전리 각석 문화재 명칭변경

□ 조사의견

울주 천전리 각석(蔚州 川前里 刻石)은 태화강 물줄기인 대곡천의 중류에 있는 암벽에 각종 도형과 그림, 명문이 가득 새겨진 문화유산으로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높아 1973년 국보로 지정되었다. 이 문화유산은 여러 연구 결과에 의하면, 같은 암벽에 선사시대의 사회상을 보여주는 암각화와 더불어 신라시대 6세기경의 사회상을 담고 있는 명문이 함께 새겨져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래서 동일한 암벽에 선사시대부터 역사시대인 신라시대까지의 사회상을 함께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이처럼 ‘울주 천전리 각석’은 여러 시대의 다양한 역사와 문화를 동시에 전해주고 보여주는, 多時代 複合 文化遺産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울주 천전리 각석’ 전경과 도면

그런데 지금까지 사용해 온 ‘울주 천전리 각석’이라는 명칭에서 ‘각석(刻石)’은 ‘석각(石刻)’과 비슷한 의미로, 어떤 내용이나 사실 등을 알리기 위하여 돌의 표면에 문자나 기호 등을 새긴 것이라는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만, 현재의 명칭은 선사시대의 암각화보다 신라시대의 명문만을 지칭하는 듯한 한정적인 의미로만 인식될 수도 있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이 문화유산의 경우 청동기시대의 암각화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문화유산 형성의 시발점도 선사시대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선사시대의 암각화가 명칭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그 의미가 부여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울주 천전리 암각화’는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와 더불어 역사적, 학술적 중요성과 가치가 높고, 그러한 것을 대내외에 알리는 등 앞으로의 활용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에도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문화유산 명칭은 그 문화유산이 담고 있는 역사적, 학술적 의미와 가치 등을 포함하고, 그러한 것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시대적인 요구나 변화, 활용이라는 측면만을 고려하여 명칭을 정하거나, 기존의 명칭을 변경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시대적인 요구나 변화, 활용은 우리 시대의 사조이고, 시간이 흘러 상황이 바뀌면 변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화유산 명칭은 우리 시대의 시각과 기준이 아닌 그것이 만들어진 그 시대의 특성이나, 만든 사람의 의도 또는 의미가 반영되도록 해야 하며,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닌 문화유산 그 자체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울주 천전리 각석’은 선사시대의 암각화와 더불어 신라시대 새겨진 명문도 그것을 새긴 시기와 의미 등을 고려할 때 역사적, 학술적 가치를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선사시대 암각화와 신라시대 명문을 동시에 아우를 수 있는 명칭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여러 측면을 고려할 때 ‘울주 천전리 각석’보다는 ‘울주 천전리 암각화와 신라 명문’ 또는 ‘울주 천전리 암각화 및 신라 각자’ 등 선사시대 암각화와 신라시대 명문의 중요성과 가치를 동시에 아우를 수 있는 다양한 명칭이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울주 천전리 각석’이라는 기존 명칭은 한계가 있으므로, 명칭 변경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며, 새로운 명칭은 신라시대 명문과 함께 선사시대의 암각화가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문화재전문위원 ○○○ (인)

## 21. 안동 임청각 주자창 설계변경 기본계획(안) 재검토

### 가. 제안사항

경북 안동시 소재 보물 「안동 임청각」 문화재보호구역을 조정하고,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안동 임청각 보수·복원 사업” 중 주차장 설계변경 기본계획(안)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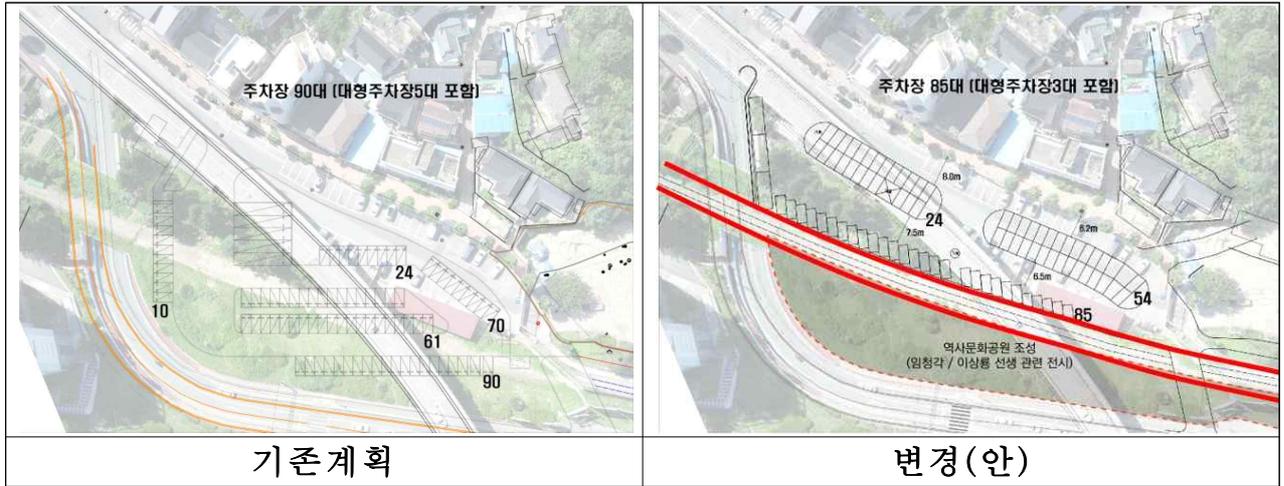
### 나. 제안사유

-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안동 임청각 보수·복원 사업” 중 주차장 부지에 대한 종합정비계획(2018) 및 실시설계(2021) 상 계획을 변경검토하는 사항임.
- ※ ‘23년 문화재위원회 제9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23.09.21.)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안동시장
- (2) 대상문화재 : 안동 임청각
  - 소 재 지 : 경북 안동시 임청각길 53 (법흥동)
  - 지 정 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안동 임청각 보수·복원 사업” 중 주차장 계획변경(안)

구 분	기 준	변 경(안)
면 적	8,787m <sup>2</sup>	5,420m <sup>2</sup>
주 차 대 수	90대(대형5대 포함)	85대(대형주차 없음)
역사문화공원 조성 계획	없음	신설 (3,367m <sup>2</sup> )
폐선 철로부지	철거 및 주차장 조성	선형유지 및 활용



○ 변경사유

- 주차장 구역 일부를 소공원화하여 임청각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일부 관련 전시를 설치하여 둘러보며 전시내용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함.
- 舊 중앙선 폐선부지와 소공원을 활용하여 舊안동역사-임청각-월영교·안동댐을 잇는 관광루트에 중심 가교역할을 수행하고자 함.
- 해당 변경 계획을 통해 우리시는 안동역 급수탑, 운흥동 오층전탑, 안동 임청각, 범홍사지 칠층전탑, 고성이씨 탑동과종택, 석빙고, 선성현객사 등 도보형 관광객들에게 안동 시내 주요 문화유산을 소개하고 역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라. 현지조사 의견(2023.10.13. / 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

- 임청각 진입부의 주차장은 도로 사정상 대형차량 진입이 어려우므로, 대형 차량 주차를 위한 주차장의 확장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현 주차장 부지는 사면이 도로와 연접하여 전체를 주차장으로 조성할 경우 지형변화와 경관저해 우려가 있으므로 현재 녹지로 되어있는 부분은 탐방로 등 탐방객 편의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음.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현지조사 의견대로 추진
- 안동역-물결안동댐 관광자원화는 별도 검토토록 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조건부가결 8명

## 【보고사항】

안건번호 건축 2023-10-022

## 22.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처리결과 보고

### 가. 보고사항

충남 홍성군 소재 보물 「홍성 고산사 대웅전」 주변 진입로 및 경내 수목정비 등 허가신청 23건에 대하여 자체검토회의 등을 거쳐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 나. 처리내용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소 계		23건	원안가결 16건 조건부가결 6건 부결 1건	
보물 홍성 고산사 대웅전	충남 홍성 (○○○)	<input type="checkbox"/> 고산사 진입로 및 경내 수목정비 ○ 위치 : 홍성군 결성면 무량리 492번지 고산사 * 보호구역 내 - 개별검토 ○ 내용 : 고산사 진입로 및 경내 주변 수목정비 - 위험목제거 : 42본 - 후박나무 식재 : 3주 - 관목(사철나무, 팥나무, 철쭉 등) : 3,760주 - 지피 및 초화류(맥문동, 애기원추리) : 9,535본 - 잔디파종 씨드스프레이 : 378㎡ - 일반전정(기계) 20주, 5분	원안가결	'23.09.25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p style="text-align: center;"><b>보물</b> 경산 불굴사 삼층석탑</p>	<p style="text-align: center;">경북 경산 (○○○)</p>	<p>□ 미륵전 진입로(계단) 및 안전난간 설치 (변경허가)</p> <p>○ 위치 : 경산시 와촌면 강학리 산55-9번지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약 50m 이격) - 개별심의</p> <p>* '23년 4월 자체검토 회의결과('23.4.7.) : 조건부가결(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시행)</p> <p>○ 내용 : 미륵전 진입로 및 주변정비</p> <table border="1" data-bbox="555 748 1117 1182"> <thead> <tr> <th colspan="2">구분</th> <th>기존 (‘23.4.7.)</th> <th>변경</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진 입 로</td> <td>방부목 난간</td> <td>220.5m</td> <td>331m</td> <td>110.5m 증</td> </tr> <tr> <td>석축 및 배수로 설치</td> <td>120.3</td> <td>144m</td> <td>123.7m 증</td> </tr> <tr> <td>앞 마 당</td> <td>석축 보강</td> <td>17.5m</td> <td>20.5m</td> <td>3m 증</td> </tr> <tr> <td>기 타</td> <td>마사토 다짐</td> <td>125㎡</td> <td>127㎡</td> <td>2㎡</td> </tr> </tbody> </table>	구분		기존 (‘23.4.7.)	변경	비고	진 입 로	방부목 난간	220.5m	331m	110.5m 증	석축 및 배수로 설치	120.3	144m	123.7m 증	앞 마 당	석축 보강	17.5m	20.5m	3m 증	기 타	마사토 다짐	125㎡	127㎡	2㎡	<p style="text-align: center;">원안가결</p>	<p style="text-align: center;">‘23.09.25</p>
구분		기존 (‘23.4.7.)	변경	비고																								
진 입 로	방부목 난간	220.5m	331m	110.5m 증																								
	석축 및 배수로 설치	120.3	144m	123.7m 증																								
앞 마 당	석축 보강	17.5m	20.5m	3m 증																								
기 타	마사토 다짐	125㎡	127㎡	2㎡																								
<p style="text-align: center;"><b>보물</b> 영광 불갑사 대웅전</p>	<p style="text-align: center;">전남 영광 (○○○)</p>	<p>□ 무장애 황토길 포장, 데크 설치 등</p> <p>○ 위치 : 영광군 불갑면 모악리 8번지 * 보호구역 내(문화재와 인접) - 개별검토</p> <p>* 천기 ‘영광 불갑사 참식나무 자생복한지’ - 1구역 :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p> <p>○ 사업내용 : 무장애 황토길 포장, 데크 설치, 가로등 설치, 안내판 설치</p> <p>- 황토길 포장 : 492㎡ - 데크 설치 : 803.6㎡ - 가로등 설치 : 803.6㎡ - 안내판 설치 : 8㎡</p>	<p style="text-align: center;">원안가결</p>	<p style="text-align: center;">‘23.09.25</p>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보물 공주 반죽동 당간지주	충남 공주 (○○○)	<input type="checkbox"/> 호우피해 사면복구 사업 ○ 위치 : 공주시 중동 312-1번지 외 3필지 * 제4구역(보호구역에서 약 220m 이격) - 높이 3m 이상의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 개별검토 ○ 내용 : 식생블록 및 옹벽설치 - 대형 축조블록(H=3~3.5m, L=17m) - 콘크리트 옹벽(H=2.5m, L=17m) - 경계석설치(L=5m) - 보드블록 설치(A=5m <sup>2</sup> ) - 풀씨파종(A=101m <sup>2</sup> ) - 담쟁이 넝쿨 34주 - 코아네트 (A=66m <sup>2</sup> )	원안가결	'23.09.25												
보물 포항 보경사 적광전	경북 포항 (○○○)	<input type="checkbox"/> 보경사 인근 숲길조성 ○ 위치 : 포항시 송라면 중산리 산101-1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약 76m 이격) - 개별심의 ○ 내용 : 숲길조성 - 마사토갈기 689m <sup>2</sup> , 보행매트 279m - 목교 1개소, 평테크 1개소 설치, 등의자 설치 23개소 등 - 동산 조경면적 380m <sup>2</sup> (자작나무, 미산딸 나무, 잔디, 산수국, 맥문동, 현무암 등)	원안가결	'23.09.25												
국보 군위 아미타여래 삼존 석굴	대구 군위 (○○○)	<input type="checkbox"/> 목책 정비 공사(변경허가) ○ 위치 : 군위군 부계면 남산리 1477 * 보호구역 내(문화재에서 30m 이격) * '23년 6월 자체검토 회의결과('23.6.9.) : 원안가결 ○ 내용 : <table border="1" style="margin-top: 10px;"> <thead> <tr> <th>구분</th> <th>기존 ( '23.6.9.)</th> <th>변경</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석축쌓기</td> <td>L=8m, H=0.14~ 1.64m</td> <td>L=8m, H=0.14~ 1.64m</td> <td>변경없음</td> </tr> <tr> <td>로프펜스 설치</td> <td>L=16.4m H=1.2m</td> <td>L=18.9m H=1.2m</td> <td>L=2.5m 증</td> </tr> </tbody> </table>	구분	기존 ( '23.6.9.)	변경	비고	석축쌓기	L=8m, H=0.14~ 1.64m	L=8m, H=0.14~ 1.64m	변경없음	로프펜스 설치	L=16.4m H=1.2m	L=18.9m H=1.2m	L=2.5m 증	원안가결	'23.09.25
구분	기존 ( '23.6.9.)	변경	비고													
석축쌓기	L=8m, H=0.14~ 1.64m	L=8m, H=0.14~ 1.64m	변경없음													
로프펜스 설치	L=16.4m H=1.2m	L=18.9m H=1.2m	L=2.5m 증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p style="text-align: center;">보물 익산 연동리 석조여래좌상</p>	<p style="text-align: center;">전북 익산 (○○○)</p>	<p>□ 공동주택(연립주택) 신축공사 부지조성 (허가기간 만료 재신청)</p> <p>○ 위치 : 익산시 삼기면 연동리 605번지 3호 외 3필지</p> <p>* 제3·4구역(보호구역에서 239m 이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구역 : 평지붕 11m, 경사지붕 15m</li> <li>- 4구역 :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li> <li>- 절성토 및 옹벽 3m 이상, 도로개설 개별검토</li> </ul> <p>* '22년 5월 자체검토 회의결과('22.5.10.) : 원안가결</p> <p>○ 사업내용 : 공동주택(연립주택) 신축공사 부지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기간 : '24~'25년</li> <li>- 대지면적 : 21,959m<sup>2</sup></li> <li>- 연면적 : 20,952.1004m<sup>2</sup></li> <li>- 건축면적 : 5,280.2752m<sup>2</sup></li> <li>- 건축규모 및 최고높이 : 지상4층, 지하1층, 21.45m</li> <li>- 단지 경계 옹벽 : 길이 511m, 최고높이 4.5m</li> <li>- 단지 내 옹벽 : 길이 280m, 최고높이 3.6m</li> <li>- 조경석 쌓기 : 길이 121m, 최고높이 3.5m</li> <li>- 메인도로 설치 : 폭 6.6m, 길이 210m</li> <li>- 인도 : 폭 2.4m, 길이 311m</li> <li>- 지선 인도 : 폭 2.4~6.3m, 길이 385m</li> <li>- 절토량 : 65,054m<sup>3</sup></li> <li>- 성토량 : 10,529m<sup>3</sup></li> <li>- 단지 주변 차폐용 조경 식재</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기존 허가현황('22.5.10. 원안가결)</p> <p>○ 연립주택 신축부지의 진입로 개설 및 옹벽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지 경계 옹벽: 길이 760m, 높이 4.5m</li> <li>- 단지 내 옹벽: 길이 342m, 높이 4.8m</li> <li>- 메인도로 폭 6.6m, 길이 231m</li> <li>- 인도 폭 2.4m, 길이 311m</li> <li>- 주변 수목식재 포함</li> </ul> </div>	<p style="text-align: center;">원안가결</p>	<p style="text-align: center;">'23.09.25</p>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p style="text-align: center;"><b>보물</b> 영동 반야사 삼층석탑</p>	<p style="text-align: center;">충북 영동 (○○○)</p>	<p><input type="checkbox"/> 템플스테이 신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영동군 황간면 우매리 155번지 1호</li> <li>*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300m 이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심의</li> </ul> </li> <li>○ 사업내용 : 템플스테이 신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면적 : 72㎡</li> <li>- 건축규모 : 정면 4칸, 측면 3칸</li> <li>- 건축구조 : 1고주 5량가, 익공식</li> <li>- 지붕구조 : 팔작지붕</li> <li>- 최고높이 : 6.4m</li> </ul> </li> </ul>	원안가결	‘23.09.25									
<p style="text-align: center;"><b>국보</b> 양산 통도사 대웅전 및 금강계단</p>	<p style="text-align: center;">경남 양산 (○○○)</p>	<p><input type="checkbox"/> 무풍한송로 석축 및 진입로 정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로 108</li> <li>* 제1구역(문화재로부터 300m 내외 이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심의</li> </ul> </li> <li>○ 정비내용</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구분</th> <th style="width: 40%;">현황</th> <th style="width: 50%;">계획</th> </tr> </thead> <tbody> <tr> <td>정비 개요</td> <td colspan="2">○ 무풍한송로 진입로정비 -길이L=1,021m, 석축 진입로 정비 1식</td> </tr> <tr> <td>상세 내용</td> <td>-길이 : 1,021m -마사토포장 (A=5,787㎡) -마름돌 배수로 (W=390mm, L=1,107m)</td> <td>-길이 : 1,021m -마사토포장 (A=5,787㎡) -마름돌 배수로 해체 및 설치 (390×150) -마름돌 배수로 주변 거친돌 경계석 설치 (390×150) (W=390mm, L=1,107m) -거친돌 경계석 설치 (300×350, L=1,107m) -마름돌 경계석 설치 (200×150×1,000, L=562.5m) -배수로 해체석 재사용</td> </tr> </tbody> </table>	구분	현황	계획	정비 개요	○ 무풍한송로 진입로정비 -길이L=1,021m, 석축 진입로 정비 1식		상세 내용	-길이 : 1,021m -마사토포장 (A=5,787㎡) -마름돌 배수로 (W=390mm, L=1,107m)	-길이 : 1,021m -마사토포장 (A=5,787㎡) -마름돌 배수로 해체 및 설치 (390×150) -마름돌 배수로 주변 거친돌 경계석 설치 (390×150) (W=390mm, L=1,107m) -거친돌 경계석 설치 (300×350, L=1,107m) -마름돌 경계석 설치 (200×150×1,000, L=562.5m) -배수로 해체석 재사용	원안가결	‘23.09.25
구분	현황	계획											
정비 개요	○ 무풍한송로 진입로정비 -길이L=1,021m, 석축 진입로 정비 1식												
상세 내용	-길이 : 1,021m -마사토포장 (A=5,787㎡) -마름돌 배수로 (W=390mm, L=1,107m)	-길이 : 1,021m -마사토포장 (A=5,787㎡) -마름돌 배수로 해체 및 설치 (390×150) -마름돌 배수로 주변 거친돌 경계석 설치 (390×150) (W=390mm, L=1,107m) -거친돌 경계석 설치 (300×350, L=1,107m) -마름돌 경계석 설치 (200×150×1,000, L=562.5m) -배수로 해체석 재사용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국보 봉화 북지리 마애여래좌상	경북 봉화 (○○○)	<input type="checkbox"/> 단독주택 증축(다용도실) ○ 위치 : 봉화군 물야면 북지리 663-3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약 260m 이격) - 개별심의 * '22년 2월 자체검토 결과(허가) : 원안가결 * '22년 10월 자체검토 결과(변경허가) : 원안가결 * '23년 1월 착공, 8월 준공(완료신고) ○ 내용 : 단독주택 증축(다용도실) <table border="1" style="margin: 10px 0;"> <thead> <tr> <th>구분</th> <th>'22년 10월</th> <th>신청(안)</th> </tr> </thead> <tbody> <tr> <td>건축(연)면적</td> <td>99.04㎡</td> <td>104.42㎡</td> </tr> <tr> <td>구조</td> <td>경량철골</td> <td>변경없음</td> </tr> <tr> <td>층수/높이</td> <td>2층/ 8.7m</td> <td>변경없음</td> </tr> </tbody> </table> - 증축부분 면적 : 5.38㎡ - 증축부분 층수 : 1층, 4.3m - 증축용도 : 다용도실	구분	'22년 10월	신청(안)	건축(연)면적	99.04㎡	104.42㎡	구조	경량철골	변경없음	층수/높이	2층/ 8.7m	변경없음	원안가결	'23.10.11
구분	'22년 10월	신청(안)														
건축(연)면적	99.04㎡	104.42㎡														
구조	경량철골	변경없음														
층수/높이	2층/ 8.7m	변경없음														
보물 창녕 관룡사 대웅전	경남 창녕 (○○○)	<input type="checkbox"/> 일주문 정비(주변 부지) ○ 위치 : 창녕군 창녕읍 옥천리 308 등 * 제1구역(문화재로부터 420m 내외 이격) - 개별심의 ○ 사업내용 : 주변정비 - 거친돌 석축쌓기(일주문 정면) · 하단석축 : H=1.77m, L=28.8m · 상단석축 : H=0.5m, L=22.2m - 거친돌 석축쌓기(일주문 배면) · H=0.93m, L=11.0m - 거친돌 계단설치 · W=3.9m, H=0.18m(한단기준) - 거친돌박설 깔기 · W=2.4m, H=29.0m, 박석THK150 - 부대공사 · 수목이식(1주) 및 일주문 주변 지반고르기	원안가결	'23.10.11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국보 서산 용현리 마애여래 삼존상	충남 서산 (○○○)	<input type="checkbox"/> 원평지구 간선임도 신설 ○ 위치 : 서산시 운산면 고풍리 산91-1(임) 외 2필지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약 400m 이격) - 개별심의 ○ 내용 : 임도신설 - 임도길이 : 246m - 임도면적 : 1,968㎡ - 임도 폭 : 4m - 포장 : 혼합쇄석 포장(T=0.1m)	원안가결	'23.10.11
보물 제주향교 대성전	제주 제주 (○○○)	<input type="checkbox"/> 조명 설치사업 ○ 위치 : 제주시 용담1동 282-2번지 제주 향교 일원 * 제1구역(문화재로부터 20m 내외 이격) - 개별심의 ○ 사업내용 : 그림자 조명설치 - 기존 가로등 폴대에 설치 * 폴대 1개당 조명 2개 설치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일 ○ 사업목적 : 제주향교 주변 서문시장을 방문하는 관광객 및 주민들 에게 야간 볼거리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원안가결	'23.10.11
국보 봉화 북지리 마애여래좌상	경북 봉화 (○○○)	<input type="checkbox"/>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 ○ 위치 : 봉화군 물야면 북지리 산 106-2, 108-1 * 제1구역(보호구역 인접) - 개별심의 ○ 내용 : 산불예방 숲가꾸기(숙아베기) - 대상면적 : 2.4ha - 총 본수 : 3,435본(소나무, 굴참나무, 오리나무) - 제거량 : 1,140본(33.2% 제거) - 기타 산물수집 등	조건부가결 (지림사 인근 벌목작업 시 안전대책 수립 후 추진)	'23.09.25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국보 예천 용문사 대장전과 윤장대	경북 예천 (○○○)	<p>□ 관광자원화 사업 기반조성(변경허가)</p> <p>○ 위치 : 예천군 용문면 내지리 산81번지 일원</p> <p>- 제1구역, 2구역(보호구역에서 390m 이격)</p> <p>* '23년 제7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22.07.21.) : 조건부가결</p> <p>- 기존 전면 법면을 기준으로 전후에 완충공간을 둘 것.</p> <p>- 건물 건립은 향후 별도 심의함.</p> <p>- 계류는 기존 암석을 최대한 유지함.</p> <p>- 일주문 주변 주차장은 칼라아스콘으로 시공함.</p> <p>- 일주문 주변 수목 일부 정비함.</p> <p>○ 내용</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0%;">구분</th> <th style="width: 40%;">기존 (‘22.7.21.)</th> <th style="width: 40%;">변경</th> </tr> </thead> <tbody> <tr> <td>사업내용</td>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변경없음</td> </tr> <tr> <td>허가기간</td> <td>22.07.26 ~ 23.07.25(만료)</td> <td>허가 통지일로부터 1년</td> </tr> </tbody> </table>	구분	기존 (‘22.7.21.)	변경	사업내용	변경없음		허가기간	22.07.26 ~ 23.07.25(만료)	허가 통지일로부터 1년	조건부가결 (- 기존 전면 법면을 기준으로 전후에 완충공간을 둘 것 - 건물 건립은 향후 별도 심의 - 계류는 기존 암석을 최대한 유지 - 일주문 주변 주차장은 칼라아스콘으로 시공 - 일주문 주변 수목 일부 정비)	'23.09.25
구분	기존 (‘22.7.21.)	변경											
사업내용	변경없음												
허가기간	22.07.26 ~ 23.07.25(만료)	허가 통지일로부터 1년											
보물 여주 신륵사 조사당	경기 여주 (○○○)	<p>□ 냉동 창고 설치</p> <p>○ 위치 : 여주시 천송동 282번지 신륵사</p> <p>*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161m 이격)</p> <p>- 개별심의</p> <p>○ 사업내용 : 냉동 창고 설치</p> <p>- 설치면적 : 7.7㎡</p> <p>- 설치높이 : 2.7m</p> <p>- 외부마감 : 샌드위치판넬 페인트 마감</p>	조건부가결 (차폐를 위한 시설물 설치 또는 수목식재 필요)	'23.09.25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p style="text-align: center;"><b>보물</b> 청주 용화사 석조불상군</p>	<p style="text-align: center;">충북 청주 (○○○)</p>	<p>□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1기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216번지 1호 용화사</li> <li>* 보호구역 내(문화재와 인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검토</li> </ul> </li> <li>○ 사업내용 : 적목당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1기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면적 및 연면적 : 증감 없음(공공 시설물 내 장애인용 시설의 면적 산입 제외 규정 적용)</li> <li>- 엘리베이터 면적 : 5.74㎡</li> <li>- 최고높이 : 4.9m</li> </ul> </li> </ul>	<p style="text-align: center;">조건부가결 (진동에 의한 영향 등 안전대책 수립 후 추진)</p>	<p style="text-align: center;">‘23.09.25</p>
<p style="text-align: center;"><b>국보</b> 의성 탑리리 오층석탑</p>	<p style="text-align: center;">경북 의성 (○○○)</p>	<p>□ 탑리여자중학교 교사동 증개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의성군 금성면 탑리리 712번지 탑리여자중학교</li> <li>*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약 50m 이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심의</li> </ul> </li> <li>* ‘23년 9월 자체검토 결과 : 보류 (서류보완 필요)</li> <li>○ 내용 : 학교시설 철거 및 증개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철거 : 2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교사동(1층) 297.81㎡</li> <li>· 강당동(1층) 371.99㎡</li> </ul> </li> <li>- 교사동 증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모 : 2층, 최고높이 10.1m</li> <li>· 건축면적 : 430.56㎡</li> <li>· 연면적 : 804.57㎡</li> </ul> </li> </ul> </li> </ul>	<p style="text-align: center;">조건부가결 (터파기 시 관계전문가 입회하에 추진)</p>	<p style="text-align: center;">‘23.10.11</p>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보물 강진 백련사 사적비	전남 강진 (○○○)	<input type="checkbox"/> 백련사 삼소굴 건립 ○ 위치 : 강진군 도암면 백련사길 145 백련사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167m 이격) - 개별심의 * 주변문화재 : 강진 백련사 대응보전(보물), 강진 백련사 동백나무 숲(천기) ○ 내용 : 기존 삼소굴 건물 철거 후 신축 (템플스테이 시설로 활용) - 건축면적 : 131.76㎡ - 대지면적 : 965㎡ - 건축규모 : ㄷ자형, 정면 5칸, 측면 3칸 - 건축구조 : 5량가, 민도리식 - 지붕구조 : 겹처마, 팔작지붕 - 최고높이 : 6.5m	조건부가결 (터파기 시 관계전문가 입회하에 추진)	'23.10.11
보물 예천 개심사지 삼층석탑	경북 예천 (○○○)	<input type="checkbox"/> 근린생활시설(사무실/차고) 증축 ○ 위치 : 예천군 예천읍 남본리 216-5 * 제1구역(보호구역 인접, 석탑에서 약 100m 이격) - 개별심의 ○ 내용 : 사무실/차고 증축 - 용도 : 교통봉사단체 편의시설 - 대지면적 : 676㎡ - 건축(증축)면적 : 46.56㎡ (기존 건물 48.6㎡) - 최고높이 : 3.6m(기존 건물 4m) - 구조 : 경량철골조 - 사업기간 : 23. 10. 15 ~ 12. 30.	부결 (역사문화 경관 저해)	'23.10.11

#### 다. 의결사항

- 원안접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원안접수 8명

